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가장 치렬했던 조미간의 핵대결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령도업적을 형상하고있다.

1993년의 새봄을 맞는 조선의 하늘가에는 어느 순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터져오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다.

미제의 호전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그에 대처한 공화국의 준전시상태선포,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 나라의 두개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소동을 일으킨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누르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선언, 놈들의 발광적인 《포커스작전》에 대응한 군단규모의 타격훈련인 《섬광》작전의 단행！

적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련속적인 강타를 안기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흰기를 드는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가련한 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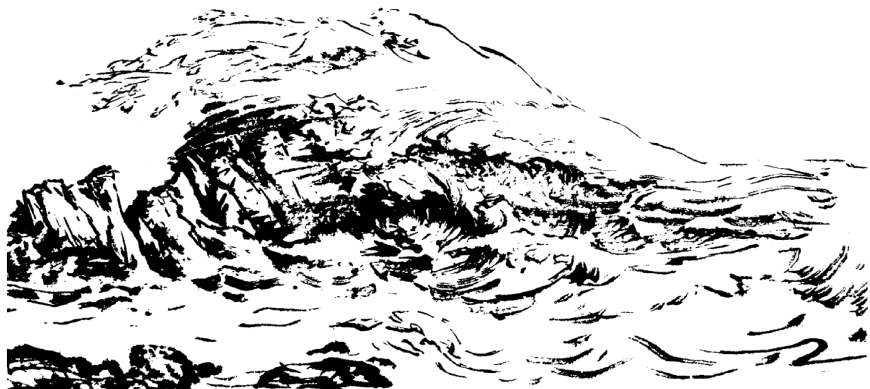
무너진 수로뚝을 밤새워 고쳐쌓은 윤철소대장과 대원들, 망망대해우에서 적들과 맞서 불굴의 의지로 용감히 싸운 무역선 《무포》호 선원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며 떨쳐나선 기계공장의 로동계급, 평범한 전쟁로병들의 드팀없는 조국수호의 신념은 탁월한 예지와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승리의 대하로 굽이쳐흐른다.

소설은 마감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치욕, 희망과 절망의 사연들이 력사의 대하에 떠밀려간다. 어떤것은 순간에 잊혀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것은 소용돌이치며 물멀기를 솟구치기도 한다. 때로 지진과 같은 폭발에 강물이 끓고 뒤번져지며 사품쳐흐르다가 돌연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그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준 령도자는 위대하다. 력사는 그 령도자의 이름으로 시대를 금문자로 아로새긴다. …

편집부

주 요 인 물

문선규	외교부 제1부부장
오영범	97기계화보병려단 려단장, 후에 군단장
윤 철	려단직속 정찰소대장
림정산	정찰소대원
리수련	상화군인민병원 약제사, 윤철의 애인
김윤필	리수련의 외할아버지, 전쟁로병
리명구	무역선 《무포》호 선장, 리수련의 아버지
김철수	무역선 《무포》호 부선장 겸 1등항해사
림희문	연구사, 림정산의 아버지
황시우	부총국장
클린톤	미국대통령

제 1 편

1

해질무렵, 북방의 험한 산기슭을 따라 렬차는 달리고있었다. 어수선한 숲가의 희슥희슥한 눈더미들이며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창밖에서 피끗거렸다. 원방신호기의 푸른 불빛이 마주 달려오다가 어느새 뒤로 휘 날아지나갔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살얼음같이 얼어붙은 2월의 대기를 산산이 들부셔버리는 우렁찬 쇠의 절규, 간이역의 역원이 뿌잇한 상호등을 들고나와 서있는것이 희미하게 보이더니 그마저 뒤로 아득히 멀어져갔다.

날은 빨리도 어두웠다. 문선규는 창유리에 안경이 부딪칠 정도로 이마를 바투 가져다대고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세찬 바람이 불어치면서 서켠으로부터 쪼각쪼각 널려있던 구름장들을 몰아왔다. 구름속을 헤엽치던 하현달이 점차 빛을 잃었다. 먼 하늘가에서 금시 눈을 뜨던 작은 별들이 안타깝게 깜박이다가 덮치듯 밀려오는 구름장속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1부부장동지.》

맞은편에 앉아있던 국장 장운성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일찌감치 쉬십시오. 요새 제대로 눈을 붙여보지 못했는데…》

문선규는 소리없이 웃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왜 그런지 오늘도 잠들것 같지 못하오.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생각이 복잡한게…》

지금 그들은 북방의 한 휴양소에 갔다오는 길이였다.

휴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핵관련실무진인 외교부와 원자력공업부일군들 그

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기에 모여 우리의 핵활동의 투명성을 립증하기 위한 대책안을 협의하였던것이다.

문선규는 돌아오는 도중 장운성을 자기의 침대칸으로 불러 미진된 사업들을 론의했었다. 혼자 있기가 싫었고 해야 할 일도 끝없이 많았던것이다. 그러나 인제는 눈을 붙여야 할 때가 된것 같다. 그는 장운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을 보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기 그냥 있소. 얘기도 하면서…》

장운성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자기는 상단침대가 더 좋다고 하면서 우로 올라갔다. 덧옷을 벗어걸면서 그가 말했다.

《그런데 1부부장동지, 1부부장동지 생각엔 우리의 〈핵문제〉가 전쟁으로까지 번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 하고 문선규는 담배에 불을 붙이다말고 되뇌였다. 《전쟁이라…》

전쟁이란 곧 대규모적인 파괴와 살륙을 의미한다. 전쟁에 대한 영화나 소설에 대해서라면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말하고 떠들썩하게 유쾌한 론쟁도 벌릴수 있겠지만 실제로 닥쳐오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듯 쉽게 말하지 못한다. 더우기 나라의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외교관들의 경우엔 그에 대하여 보다 심각하게 책임적으로 사색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목구멍이 칼칼했지만 다시 라이타로 담배불을 붙였다. 빨간 담배불이 타들 때마다 창유리에 안경낀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지군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장운성이 또 입을 열었다. 《올해 93년에 들어서면서 적들이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소동을 피우는것으로 보아 전쟁의 구실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분명 이번엔 전쟁을 일으키자는것이 아닌가 하고 묻군합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일군들이야 누구보다 더 정세에 밝지 않는가, 뭐 아는게 있으면 좀 말해주구레 하면서 계속 성화를 먹이는데…》 그는 소리내여 웃고나서 계속했다. 《다들 전쟁을 예감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관리리사회에서 〈특별사찰〉이요 〈제재〉요 하는걸 결의하게 되면…》

문선규는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

《하지만 적들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사찰〉이나 〈제재〉를 막아야 하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임무요.》

문선규의 말에 장운성은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또다시 당면한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회의에서 적들의 부당한 압력소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현실적위험으로 닥쳐오고있는 전쟁을 막아야 하는것이다.…

눈이 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바라는 잠은 올것 같지 않았다. 끊임없이 울려오는 차바퀴소리, 레루이음짬을 타고넘을 때마다 마쳐오는 단조로운 충동… 그는 지금 유럽 여러 나라들을 돌고있는 김세환참사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김세환은 순회대사의 명의로 벌가리아, 로므니아, 마쟈르, 도이췰란드, 프랑스, 핀란드, 스웨리예 등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성원국들을 방문하고있는데 그의 외교활동의 여부에 따라 당면한 2월관리리사회에서 론전이 심각해질수도 있고 관리리사회 성원국들 내부에서 마찰이 커갈수도 있는것이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일정대로 하면 그는 지금 스웨리예에서 쁘라하로 가고있을것이다. 그다음 모스크바… 그곳에 이틀간 머무르며 조국에서 파견한 보좌성원들을 만나 회의준비를 하고는 곧장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으로서 오스트리아를 향해 날아갈것이다. 우리의 《핵문제》가 중심의제로 될 2월관리리사회 회의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렸다. 원방신호기의 푸른 불빛이 지나가더니 역구내의 불빛들이 천천히 마주왔다. 렬차가 속도를 죽인것이다.

문선규는 점차 가까와오고있는 역사와 홈에 나와선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차창가까이 스쳐가는 역명판 등을 무심히 내다보았다. 렬차가 멎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크고작은 려행가방들을 둘러메고 개찰구쪽으로 서둘러 밀려갔다. 차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였다. 2월관리리사회에서 해야 할 우리 대표단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건을 작성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고많았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 문이 열리며 려객전무가 들어와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오늘따라 회의손님들이 꽉 차서 그러는데 한시간정도 손님 한분을 들여도 되겠는가고 물었다. 문선규가 흔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자 그는 문뒤에 서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들어가십시오. 좌측하단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 고맙습니다.》 하는 굵직한 목소리에 이어 어깨가 쩍 벌어진 인민군장령이 들어왔다. 소장이였다. 보통키에 가슴이 툭 불거져나왔는데 박격포신같이 굵고 단단한 목이며 모가 진 턱, 근엄해보이는 두눈이 특히 인상적이였다. 그가 들어서자 침대칸은 대번에 비좁아진듯하였다.

문선규가 머리를 들고 바라보자 그는 거수경례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장령은 문선규의 맞은편 침대에 가방을 놓고 그와 마주앉았다. 앉은 자세로 외투단추를 끄르고 희끗희끗한 회색 털모자까지 벗어놓았다. 순간 문선규는 그가 그토록 젊어보이는데 놀랐다. 다부진 체격이나 어깨우의 장령별의 무게만 아니라면 아직 새파란 젊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다.

(지금 몇살이나 되였을가. 이 장령은?)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아직 이렇듯 젊은 장령은 본적이 없지 않는가?…)

젊은 장령은 침대칸에 겨울밤의 싸늘한 랭기와 더불어 난데없는 싱그러운 숲의 냄새며 무슨 알수 없는 냄새 그리고 억센 정열로 특징지어지는 청춘의 체취도 한가득 안고 들어왔다. 문선규는 가슴을 펴며 갑자기 시서늘해지고 맑아진 방안의 공기를 기분좋게 들여마셨다.

장령이 담배를 꺼내며 물었다.

《피워도 되겠습니까?》

《예, 어서!》

장령은 굵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꺼내여물고 문선규가 밀어준 가스라이타는 못본척하며 외투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여 드윽— 그었

다. 두어모금 담배연기를 페장 깊숙이 들여마시고나서 그가 물었다.
《실례지만 어데서 일을 보시는지？…》
《아—난 외교부에서 일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는 문선규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전 려단장입니다. 오영범이라고 합니다.》
《아—려단장！》 하고 문선규는 누를길 없는 호기심에 북받쳐 나직이 물었다. 《퍽 젊어보이는데… 지금 몇살이나 되였습니까？》
《서른아홉살입니다.》
《？！…》
문선규가 놀라는것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피식 웃었다.
《뭐 저보다 더 젊은 장령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참, 외교부에서 일하신다니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물어보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문선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핵문제》를 꺼들며 지금 정세가 어떤가, 전망이 어떤가 하고 지꿎게 따져묻군하였던것이다. 하여 문선규는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되물었다.
《핵문제말이지요？》
《예, 옳습니다. 그걸 묻고싶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장령은 담배를 급히 빨고나서 다우쳐물었다. 《그게 왜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뭣때문에 계속 옥신각신하기만 하는지… 원 답답하기란…》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은근히 묻는것을 이 젊은 장령은 따져묻고있는것이였다. 문선규는 웃으며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하고 장령이 또 입을 열었다. 《아무거나 직방 말해버릇해놔서… 혹시 제 말이 거슬린다면…》
《아, 괜찮소. 그게 더 좋지요.》
《그럼 좀 말해주십시오. 왜 그리 복잡합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질질 끌기만 하겠습니까？》
그때 상단침대우에서 그를 내려다보고있던 장운성이 끼여들었다.
《려단장동무, 그걸 한두마디로 설명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까？》 하고 오영범은 눈꼬리를 치뜨며 그를 올려

다보는것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묻는듯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이지긋한 사람임을 알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미처 인사를 못해 안됐습니다.》 하고 장운성이 말했다. 《나도 외교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말해봅시다.》 하고 장운성은 벌써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성격이 급한데다 30여년간이나 외교부조약법규국에서 사업해왔으며 핵문제가 상정되면서부터 그에 적극 관여해온 그여서 핵문제소리만 나오면 일장연설을 하지 않고는 못배기였던것이다.

《려단장동무가 불만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핵사찰을 받게 된 경위부터 알아야하는데 물론 려단장동무도 알고있겠지만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하면 다섯개 나라 즉 미국과 쏘련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그밖의 나라들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여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그것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말아야 하며 그걸 가지고있지 않는 나라는 그것을 생산하거나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핵무기소유국들은 그것을 독점하도록 합법화하고 그것을 가지고있지 않는 나라들은 그것을 절대 가질수 없게 하는 불평등한 조약으로서…》

오영범이 참다 못해 손을 내저었다.

《그런것쯤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물론 알고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조약에 왜 우리가 가입했는가.… 이게 중요한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약에 핵무기소유국들이 비소유국들에 핵위협을 하지 말데 대한 내용, 핵전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데 대한 내용,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기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약의 이 내용을 중시하고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를 철수, 철페시키고 우리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조약을 리용할 목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했던것인데… 그게 바로…》

《1985년 12월이지요.》

《옳소. 지금으로부터 8년전 일이지요.》 하고나서 장운성은 이상

해하는 눈빛으로 오영범을 내려다보았다. 《뭐 다 알고있구만요.》
《부대군관강연에 제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계속하랍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약에 가입하고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여있는 조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6년이 지나서야 담보협정을 체결하였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미제가 남조선에 천여개의 핵무기를 배비해놓고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계속 벌리면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했기때문이다, 그러다가 1991년에 미제가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핵무기를 철수했다면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였다… 어떻습니까. 바로 알고있습니까?》
《예, 대체로는…》 하고 장운성은 못마땅한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잘 알면서 뭘 그러시오?》
《아니, 저는 뭣때문에 계속 옥신각신해야만 하는지 그게 이상해서 그러는것입니다.》
《뭐 이상할게 있소. 우리가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다섯차례 비정기사찰은 순조롭게 되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사촉을 받고 우리의 초기보고서와 사찰결과사이에 무슨 불일치점이 있다거니 두개의 군사대상을 사찰하겠다거니 하고 떠들기 시작했기때문이지요.》
그때 문선규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말썽많은 핵문제의 밑뿌리요. 려단장동무, 그래 뭣때문에 옥신각신하고있는가? 적들이 우리의 군사대상을 걸고들면서 하나하나 개방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완전무장해제시키려드는데 우리가 순순히 응할수 있는가? 바지를 벗어줄수 있는가 말이요?》
《옳습니다.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하고 오영범은 부르짖었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에겐 그 즉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 외교부성명으로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리행할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미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팀 스피리트〉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고 경고했던거요.》

《예, 저도 전달의 외교부성명과 얼마전에 발표된 외교부대변인의 담화를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미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라, 〈팀 스피리트〉를 당장 중지하라！… 준엄한 경고이지요. 무게있고 격렬하기도 하구…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경고해왔지만 그것들이 어디 귀등으로나 듣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건 그렇게 옴니암니 시간만 끌게 없이 탁 차버리고말던가 한방 짱！… 하고 쏴갈기고말자는것입니다.》

《쏴갈긴다？》

《예, 우리 군대는 그런 점잖은 외교적격식을 달가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외교관들의 처사에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허－》

문선규는 허거프게 웃으며 저도 모르게 담배갑으로 손을 뻗쳤다. 그러나 먼저 손에 잡힌 성냥갑을 들고 이상해하였다. 이게 어데서 났더라？… 그렇지, 려단장의 외투주머니에서 나온것이지！… 성냥을 드－윽 그어댈 때의 그의 돌덩이같던 주먹, 그 주먹처럼 드세고 강건할 군사지휘관, 허나 그가 생각하는것처럼 외교사업이 단순하고 일목료연한것이라면 얼마나 쉽겠는가. 외교와 군사는 다같이 혁명을 보위하는 그 사명의 일치성에도 불구하고 수행방식은 전혀 다르다. 과연 그것을 이 오영범이 모르고있겠는가. 괜히 그저 엇드레질을 해보는것이겠는가？… 흔히 사람들은 외교관이라고 하면 빈틈없는 옷차림과 세련된 몸가짐, 중절모와 윤나는 구두 혹은 능란한 외국어구사 등을 생각한다. 좀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인 경우에조차 세계 여러 나라들의 력사와 지리, 문화와 풍속, 철학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언변에 대해서나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그들 외교관들이 매일 매시각 지뢰원을 헤쳐가는 심정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어느곳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지뢰탐지기대신 감각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판단하고 즉각 령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

겠는가?… 때로는 험담과 독설에도 미소를 짓고있어야 하고 아양과 격찬에도 날카로운 경계의 창끝을 돌리며 순시도 긴장을 늦춤이 없이 사색하고 론쟁하고 설복하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외교관은 평화와 친선의 사절인 동시에 대적투쟁의 제일선에 나선 전사들이다. 군대의 위엄이 서리발총검에 있다면 외교관의 위엄은 그 끄떡없는 미소에 있는것이다. 그런데 뭐 탁 걸어차라구? 한방 꽝! 하고 쏴갈기라구?…

소리없이 웃고있는 문선규를 바라보며 오영범이 말했다.

《왜 웃고있는지 알만합니다. 맞혀보랍니까?》

《좋소. 흥미있소.》

《이 친구 아주 곧은목이구나 하고 생각하실겁니다. 외교사업을 중학생들의 련립방정식풀이정도로밖에 더 리해하지 못하고있구나 하구요. 그래서 마치 제 머리에 뿔이라도 나있는것처럼 이상해서 보는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문선규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걸걸하게 웃어댔다. 오영범의 모가 진 턱우에서 쉴새없이 오르내리는 콩알만한 기미를 바라보느라니 그에 대한 누를길 없는 호기심과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려단장동문 참 직통배기요.》

《군인이지요.》

《아무튼 려단장동물 알게 되여 기쁘오. 어딘가 통하는데가 많거든. … 그런데 려단장동무가 말한 그 문제는 좀더 연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한방 꽝! 쏴갈기겠는지.》

오영범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제 연구하느라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장운성이 재빨리 끼여들었다.

《참 려단장동무, 외교는 외교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탕탕 쏘는게 아니지요.》

《군대도 무턱대고 탕탕 쏘진 않습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외교에선 무엇보다 설득력과 인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방어만 해선 안됩니다. 지내 조심하다가 공격의 기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시기선택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이다.) 하고 문선규는 생각하였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있다. 그것을!…)

그는 오영범의 차거우리만큼 근엄해보이는 두눈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배짱꾸러기 싸움군으로만 알았는데 지혜롭고 영민하기도 하다. 이 친구 아주 괜찮은걸!… 대범하고 활달한 성미인 동시에 뚝심도 있는 문선규였으므로 자기와 비슷한 점을 찾아볼수록 더더욱 그가 마음에 들었다.

오영범이 그에게 말했다.

《외교부에서 일을 보신다니 하는 말인데… 신문과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 핵문제를 말아보는 외교부 제1부부장동질 만나거든 제말을 좀 하십시오. 한 인민군려단장이 그러는데 군인들은 외교관들이 하는 처사를 아주 답답하게 여긴다구말입니다. 그렇게 옴질옴질하니까 놈들이 〈팀 스피리트〉를 재개하고 핵전쟁을 몰아오고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이야 우리가 할 일이지만…》

《…》

문선규는 추위를 타는듯 몸을 옹송그렸다. 이 오영범이라는 젊은 장령이 지금 자기가 외교부 제1부부장을 직접 마주하고있다는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올것인가. 그래도 감히 이런 비난을 포격처럼 퍼부어댈수 있을가?… 그의 기질로 봐선 그렇게 할것이다. 그보다 더 험한 비난도 꺼리지 않을것이다.

상단침대우에서 장운성국장이 머리를 내밀며 급히 화제를 돌렸다.

《참 려단장동무, 이자 방금 려단장동문 당장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말하던데…》

《전쟁말입니까?》 하고 오영범은 대수롭지 않게 잘라 말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예.》

《아니, 그건… 려단장동무의 생각이요 아니면…》

《내 생각입니다.》

오영범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손바닥으로 하품이 나는 입을 가볍게 두드렸다.

《에— 피곤하군.》

《좀 쉬시오.》 문선규가 말했다.

《그럼… 먼저 눕겠습니다.》

그는 침구를 끄당겨 허리에 받치고 군인답게 바투 올려깎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면서 창문옆벽에 기대였다. 가벼운 기침을 하고 자세를 편히 하더니 놀랍게도 아주 수월히 잠들어버리는것이였다. 문선규와 장운성은 서로 의미있게 마주보았다.

《어떻습니까. 1부부장동지, 포병출신같아보이지 않습니까?》

《글쎄…》

《틀림없을겁니다. 우리 맏이도 포병소좌인데…》

순간 문선규는 《쉿!》 하고 한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조용조용… 장령동지 주무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장운성은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침 잘됐습니다. 1부부장동지도 좀 쉬십시오. 이제 돌아가면 언제 또 눈을 붙여볼새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 불을 끌가요?》

《좋을대로.》

불이 꺼졌다. 문선규는 오영범이 그러던것처럼 침구를 당겨 허리에 받치고 길게 몸을 뉘였다. 전혀 잠들지 못하리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허사였다. 오영범이 코를 골기 시작한것이다. 처음엔 가릉가릉하는 소리로 시작하더니 점차 땅크발동기처럼 꾸르릉꾸르릉 울려대는데 침대칸을 대뜸 전쟁마당처럼 만들어놓는것이였다. 드센 《공세》를 벌린 끝에 간혹 휴—하고 모두숨을 내뿜기도 했다.

상단침대우에서 궁싯거리던 장운성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고있는것이 알렸다.

《우리 애들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휴가왔을 때 보니까 학교

에 다닐 땐 얌전히 쌔근거리던 애들이 군대밥을 몇해 먹더니 대바람에 장수가 됐는지 드렁드렁 온 집안을 들었다놓는게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든든한 나지만 한잠도 못잤습니다.》

문선규는 그의 말속에 담긴 깊은 애정을 감촉하였다. 아들 셋이 다 군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고있는터여서 오영범의 코고는 소리조차 류다른 의미로 듣고있는듯했다.

또다시 이어지는 발동기소리, 갑자기 장운성이 놀랜 소리를 질렀다.

《참 이 량반 미리 깨워야 하지 않을가요? 어데서 내리는지 묻지 못했으니 그냥 지나치기라도 했다간 야단입니다.》

《아－니, 일없습니다.》 하고 대답한것은 천만뜻밖에도 잠에 취한 오영범의 목소리였다. 《이제 한 15분만 더…》

문선규는 소리없이 웃고말았다. 이어 다시 눈을 감고 이것저것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은 이리 굴리나 저리 굴리나 매번 핵문제에 가닿군했다. 우리의 핵문제… 우리 나라가 핵담보협정에 서명한 이후 몇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은 우리의 핵동력개발계획의 평화적목적과 성격, 그 리용의 결백성을 명백히 확증해주었다. 기구사찰원들과 총국장 자신이 우리의 핵시설은 핵무기개발과 인연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의 핵무기개발을 운운하는 미중앙정보국의 견해를 지지할수 없다.》고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은 그 무슨 《정보자료》를 조작해냈을뿐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불순분자들을 내세워 소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난 1월하순경 우리 나라에 온 기구협상대표단과의 격렬한 론전은 핵문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시한폭탄으로 조작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그때 우리의 군사대상인 두개 장소에 대한 사찰을 요구해나선 기구대표단에 우리 실무일군들은 증오와 격분을 앞세우던 나머지 《당신들 미국의 간첩이 아닌가, 법적론거가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법률실무적싸움에 몰두했었다. 첫날 오전 회담이 승산없이 공방전으로 되였으므로 문선규는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있는 장운성에게 이제 더는 말공부질은 그만

두라, 이제는 국장이 직접 발언하라고 과업을 주었다. 그리하여 장운성은 첫마디부터 날카로운 어조로 우리의 핵활동과 아무 관련도 없는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절대 불허한다, 이 문제를 관리리사회 회의에 넘기겠으면 넘기라, 기구것들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상 우리도 응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다불러대였다. 결국 기구측은 우리의 도도한 기상에 눌려 두개장소에 대한 《사찰요구》에서 저들이 《무리하였다.》, 우리가 《거절할 충분한 리유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또 험담을 늘어놓으며 끝내 관리리사회에 넘기고말았다. 2월관리리사회, 이제 거기에선 또 어떤 격렬한 론전이 벌어질것인가. 기구것들이 이번엔 어떤 수법으로 공세를 취할것인가?… 그들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지금 미국의 호전광들은 우리의 핵문제를 꺼들어 때를 만난듯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핵전쟁의 불구름까지 몰아오고있다.

핵!… 쌍날의 검이라고도 표현하는 핵, 큐리부인은 라디움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을 때 과학적발명은 량면에 날이 서있는 검과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발명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만 리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핵물질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우선 군사무기제작에 리용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핵참화를 빚어냈다.

히로시마… 문선규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울리는 거센 발동기소리를 들으며 히로시마의 상공을 날고있는 폭격기를 상상해보았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증유의 무서운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서 폭발하였다. 세계는 끔찍스러운 그날의 참상에 대한 소식을 얼마후에야 알게 되였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 무엇이 일어났던지 아무리해도 그대로 다 말할수 없었다. 그것을 말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최초의 충격에 잇달린 죽음의 공포와 비참한 황페 속에서 감각이 무디여져 어떤 사람은 《거대한 번쩍이는 빛이였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아찔했다》거나 《급작스레 황색의 빛이 번

짝이면서 으깨여지는듯했다》고 하기도 했다.
하여튼 무엇인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번쩍이였다. 다음 순간 온 도시전체가 지진처럼 뒤흔들리고 무서운 굉음과 벼락에 박산나고 떨고 몸부림쳤다. 이어 그 시각에는 절대 있을수 없는 황혼시와 같은 락조가 비끼고 미구에 진짜 암흑으로 변하고말았다. 주위엔 온통 전기적성질을 띤 가스가 낮게 깔리고 역한 냄새가 나돌았다. 그것이 죽음의 냄새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폭탄이 떨어진 폭발의 중심부는 물론 폭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무서운 강타와 열과 폭풍이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번쩍인 그 무서운 섬광의 원인을 알려고 한듯 하늘을 쳐다본탓으로 눈알이 튀여나와 불에 타 늘어져있었다.
며칠후 장송의 종소리가 아직 끝나기전에 발표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전체 20만 도시인구중 폭발당시 죽은 사람과 행방불명자 10여만명에 5만여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였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난도 아직은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원폭증》에 걸린 수만명의 사람들이 2,3일 또는 몇주일후부터 련이어 죽어갔다. 이 죽음에로의 길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이 처참한 핵참화를 우리 조국땅우에 들씌우려 하고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키고있기때문에,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이 땅을 황페화하고 우리 인민을 대량살륙하려고 하고있다. 이 무서운 흉계를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의 량심에 호소하고 고발하여야 한다. 하기에 문선규는 잠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렬차는 여전히 어둠속을 헤가르며 맹렬하게 질주해갔다. 웅근 기적소리가 울렸다. 다음 순간 드렁드렁 침대칸을 울리던 오영범의 거센 발동기소리가 멎었다. 팔목시계를 눈앞에 바투 가져다대보고 그가 말했다.
《벌써 다 왔나!… 에― 거뜬하군.》
상단침대우의 장운성이 불을 켜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단추를 채우고 모자를 쓰더니 옆구

리에 가방을 끼였다. 엄엄한 장령이 일어서니 침대칸은 다시 비좁아지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자, 그럼 편히들 가십시오.》 그가 말했다. 《외교전선에서 꽝! 하는 대포소리가 울리기를 바랍니다. 1부부장동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오.》

다음 순간 문선규는 놀라서 굳어져버렸다. 1부부장이라니? 그러니 이 려단장은 나를 알고있었단말인가? 뻔히 알면서도 마구 비난을 퍼부었단말인가?… 그가 놀라는것을 본 오영범이 히죽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막 잠들가말가 할 때 두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부부장동지, 아까는 제가 너무했던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영범이 거수경례를 했다.

《잘 가시오. 려단장동무, 또 만납시다.》

하지만 언제 어데서 어떻게 또 만난단말인가?… 문선규는 물론 오영범도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는것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웃으며 약속했다.

오영범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장운성에게도 손을 들어 인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쓸어들어왔다. 문이 닫겼다. 문선규는 자리에 앉으며 탁자우로 손을 내밀었다. 순간 먼저 손에 잡히는 성냥을 들어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전천성냥공장에서 만든 수수한 보통성냥, 해발속으로 네굽을 놓고 내닫는 사슴이 그려진 눈에 익은 상표… 그는 성냥임자가 눈에 뜨이지 않을가 하여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렬차는 이미 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들어섰었다.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렬차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 배웅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다. 두손에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있는 중년사나이, 할머니를 소리쳐부르는 소녀… 생활은 여전히 자기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줄기차게 흘러가고있다.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생활이…

오영범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문선규는 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례사롭게 오고가는 사람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2

역두에는 오영범의 승용차가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서천강으로!》 하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운전사는 아무말없이 려단지휘부와는 정 반대쪽으로 차를 몰았다.

오래도록 한마디 말도 없이 갔다. 길이 험하여 차가 들출 때마다 오영범은 시꺼먼 눈섭을 흠칫거리며 어둠속에서 휙휙 지나가는 앙상하고 성깃성깃한 백양나무들만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군단지휘부에서 중요한 과업을 받고 오는 길이였다. 그에 의하면 얼마후 오영범의 기계화보병려단이 시범도하훈련을 진행하게 되여있었다.

《오동무,이번 훈련을 잘 준비해야겠소.》 하고 군단장 김대웅은 말했다. 《동무네 려단의 도하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있게 될 군단기동훈련의 성과여부가 판정될것이요. 총참모부에서 관심하는 시범훈련이라는걸 잊지 마오.》

작전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오영범려단의 도하훈련에 관심했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이 시범훈련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특히 이해 1993년에 들어서면서 적들이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지금 한창 신형전투기들과 함선,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고있는 엄중한 정세하에서 조직된 이번 훈련은 그 무슨 단순한 《시범》이나 《판정》만이 아닐것이다.

오영범은 도하훈련이 진행될 여기 강기슭을 손금보듯이 알고있다. 벌써 몇차례 련합부대내 지휘관참모부성원들과 같이 현지를 밟아보고 면밀한 훈련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때는 총참모부에서 중시하는 《시범훈련》이 되리라는것을 알지 못하였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과업을 받고보니 혼자서라도 다시 도하훈련장을 돌아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혹시 미리 예견하지 못한것

이라도 있지 않을가?… 더우기 야간에 진행될 훈련이므로 밤에 돌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차가 또 세게 들추었다. 운전사가 오영범쪽을 슬쩍 곁눈질했다. 길이 나빠서 어쩔수 없는 일이건만 자기의 불찰로 차가 들추는것처럼 민망스러워하는 표정이였다.

《지름길로!》 오영범이 말했다.

《속도를 높이오.》

《알았습니다.》

승용차는 생소한 지름길로 들어서 휘우듬히 뻗어간 좁은 길로 한참 달렸다. 얼마후 강기슭을 면한 큰길에 나섰는데 한순간 전조등의 불빛에 비쳐진 리정표가 오영범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운전사쪽으로 피끗 머리를 돌렸다.

《가만,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소?》

《신정리 2키로라고 씌여있었습니다.》

《그-래?》

오영범은 《신정리 2키로라…》 하고 속으로 곱씹어보았다. 바로 그 신정리에 그의 옛 상관이며 입당보증인인 김윤필이 살고있다. 언제부터 한번 꼭 찾아보리라 생각했지만 여직껏 한번도 짬을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렇듯 가까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된것이다.

어떻게 할가. 잠간 들렸다 갈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아마 김윤필은 깜짝 놀랄것이다. 아니 이게 뉘긴가, 오영범이 아닌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불쑥 나타났나!… 하면서 부산을 피울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며 병마개를 열어 고뿌에 찰찰 넘어나게 부을 시간까지는 낼수 없다. 그저 담배나 한대 태우며 마주보고 찌긋이 웃으면 되지 않을가?!…

《그새 좀 늙었군요.》

《어찌겠나. 세월이 가는걸… 헌데 임잔 벌써 장령이 됐구만, 응?!》

《미안합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반갑네, 이사람. 정말 기쁘이!》

그리도 반가와할 김윤필의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도저히 그대

로 지나칠수는 없을것 같았다. 오늘 미루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수도 있다. 오영범은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가물거리는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저 마을일가, 아니면 좀더 가야만 할가?… 그는 좌석등받이에 천천히 머리를 기대였다.

…김윤필은 오영범이 신입병사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배치된 공병구분대의 중대장이였다. 전쟁참가자인 그는 오영범이 열여덟살나던 그해 벌써 마흔고개에 이르고있었다. 전쟁때 그와 함께 싸운 전우들은 다 련대급이상에서 중좌, 상좌, 대좌의 별들을 달고있었지만 그만은 여전히 중대장 대위였다.

그 시절 오영범은 련합부대적으로 제일 나이많은 중대장인 그를 존경한다기보다 오히려 련민의 정으로 측은하게 본적도 있었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승급도 바라지 않았을뿐아니라 제대되는것도 원하지 않았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군단간부과에서 여러번 그와의 제대담화를 연기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경험과 기술을 대신할만한 사람이 없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공병은 그를 필요로 했고 또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 김윤필이 오영범에게 오직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야만 하는 공병의 의무와 량심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축성차단물 설치와 폭파기술 등을 배워주었다. 그는 공병이란 바로 《군복입은 근로자》라고 하면서 그의 임무는 《건설하고 파괴하는》것인바 《든든히 건설하고 철저히 파괴》하는 법을 배울 때 진짜 공병이 되는것이라고 말하군했다.

그는 오영범이 자기의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완강하고 배짱이 있는것을 보고 그야말로 타고난 공병중대장감이라고 하면서 각별히 관심해주었다. 물론 호된 추궁과 가슴아픈 《매질》도 있었다. 그러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이 있어 오영범은 벌써 스물두살때 공병소대장으로 제발되였다.

제일 기뻐한것이 김윤필이였다. 저녁때 집으로 잡아끌기에 따라가보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있었다. 군관사택마을에서 음식솜씨가 제일 좋다는 그 집 주부가 목이 기다란 병도 꺼내놓았다. 그날 김윤필은 오영범을 축하하면서 이제 그에게 중대를 인계하

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제 두고보라니.》 하고 그는 우겼다. 《머지 않아 나도 제대명령서를 받게 될게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해에 애젊은 소대장 오영범이 전군단을 들었다놓는 일을 《저질렀다》. 그것은 며칠째 쏟아지던 폭우가 금시 멎은 8월의 어느날, 바야흐로 군단기동훈련이 한창인 때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중대장 김윤필은 림진강우안에서 배다리부설전투를 지휘하였고 3소대장 오영범은 강좌안에서 배다리로부터 큰길까지 강기슭의 산턱을 깎아 길을 내는 일을 맡아했었다. 전체 중대가 밤새 폭우속에서 간난신고를 하여 맡은바 임무를 다 해냈다.

아침이 왔다. 비는 멎었으나 홍수로 불어난 강물은 사품치며 흘렀다. 지칠대로 지쳐버린 공병중대는 강우안과 좌안에 갈라져서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그들이 죽기내기로 애써 부설한 배다리우로 땅크와 포차들이 육중한 몸체를 움씰거리며 건느고있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오영범의 소대가 맡은 구간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새로 낸 비탈면의 외통길을 뭉청 끊어놓았던것이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물을 잔뜩 먹고있던 산중턱이 그만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앞서가던 땅크 한대가 그 끊어진 구뎅이속에 굴러들어갔다. 사람들이 왁작하니 떠들며 거기에 몰켜들었다. 꼬리를 물고 배다리우에 올라서던 포차들이 다 멎었다. 뒤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운전사들이 련속 빵빵 경적소리를 울리며 독촉하였다.

홈타기에 굴러들어간 땅크가 모지름을 쓸 때마다 시꺼먼 배기가스가 쏠어나오군했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였다. 뒤따르던 땅크에 쇠바줄을 걸고 무한궤도로 땅을 물어뜯으며 용을 썼지만 오히려 깊이 패운 홈타기속으로 점점 더 구겨박힐뿐이였다.

오영범은 강우안의 김윤필중대장에게 벌어진 일을 전화로 알렸다. 그러자 김윤필은 《뭐요, 땅크가?… 제-길, 난사로군. 내 이제 그리로 건너가겠소.》 하고는 송수화기를 내던지는듯했다. 그러나 그가 포차들이 가득 늘어선 배다리우를 건너올 때까지 기다릴수는 없었다. 오영범은 자기 소대원들을 모이게 했다. 지난밤 억수

로 퍼붓는 비속에서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그들이였지만 또 비지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땅크를 끌어낼수 있게 하려면 산기슭을 따라 10여메터나 더 경사지게 깎아야 했다.

여러명의 구분대지휘관들이 오영범을 따라다니며 물었다.

《여보, 공병! 얼마나 걸릴것 같소?》

오영범은 물에 흠씬 젖은 군복자락을 쥐여짜면서 건성으로 대꾸했다.

《한 뒤시간이면 되겠지요.》

《뭐—요?》

여러 사람이 일시에 웨쳤는데 그중에서도 포병소좌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여보, 정신이 있소? 그럼 우린 두시간동안이나 여기서 멍청하니 있으란말이요?!》

《소리치지 마십시오, 소좌동지!》 하고 오영범은 감때사나운 눈빛으로 먼저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러지 말고 다들 달라붙어 우리 일이나 거들어주십시오.》

그때였다. 누군가 상급참모부에서 찾는다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포차들사이에 끼운 승용차에 타고있던 상좌가 그에게 무선전화기를 내밀었다.

《군단참모장동지가 동물 바꾸라오.》

오영범은 일이 심상치 않게 번져지리라는것을 예감하고 말라터진 입술을 감빨았다. 군단참모장이라면 명령집행에서 한치도 에누리를 허용치 않는 엄격하고 치밀한 상관으로 잘 알려져있었던것이다.

오영범이 무선전화기를 들자 저쪽에서 먼저 조용히 물었다.

《동무가 거기 공병지휘관이요?》

《아닙니다. 3소대장 소위 오영범입니다.》

《중대장은 어데 갔소?》

《강건너 우안에 있습니다.》

《그럼 좋소. 동무에게 과업을 주겠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20분내에 기동로를 여시오. 알겠소? 20분동안이요!》

오영범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선서를 한 군인이라면 상관의 명령지시에 《알았습니다!》라는 한마디밖에 할 권리가 없다. 그러되 그 대답은 피로써 목숨으로 지켜져야 한다.

《알았습니다!》

《좋소. 그럼 집행하시오.》

통화가 끝났지만 오영범은 여전히 무선전화기를 꽉 거머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기없이 해쓱해지고 굵은 목에서는 퍼런 피줄이 푸들거렸다.

그는 송수화기를 넘겨주고 홈타기쪽으로 터벌터벌 걸어갔다. 소대원들이 그리고 홈타기에 몰켜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하나 《20분》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얼마나 지꿎게 그리고 얼마나 초조하게 머리를 쥐여짰던지 불에 달군것처럼 머리가 뻥하였다. 그러다가 별안간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우뚝 멎어섰다. 머리속에 스쳐간 어떤 하나의 생각이 그를 숨막히게 했는데 너무도 무서운 생각이여서 온몸이 오싹해날지경이였다.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고나서 자기를 지켜보는 소대원들을 향하여 거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폭파준비!… 뜨로찔과 도화선,도폭뢰관을 준비할것!》

이어 주변에 몰켜있던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피하시오. 발파를 하겠소!》

홈타기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삐 물러났다. 오영범은 그들모두와 함께 땅크에서 내려와 뒤더수기를 벅벅 긁고있는 땅크병들까지 다 멀리 쫓아버렸다. 모두 애젊은 소대장에게 복종했다. 관등급이나 직급상의 차이 같은것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몰풍스러운 웨침소리와 검붉어진 얼굴에 떠오른 매몰스러운 표정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았던것이다. 지어 그들은 오영범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드디여 발파를 하였다. 산기슭 벼랑턱을 헐어 날라쌓기를 한 방향성발파였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운 일을 당하여 대경실색하였다. 순식간에 땅크가 구겨박혀있는채로 홈타기를 메워버

렸던것이다.

격노한 땅크병들이 그한테 달려들었다. 무서운 웨침소리와 위혁하는 거친 말마디들이 조약돌처럼 날아들었다. 그때 뒤늦게야 강좌안으로 건너온 중대장 김윤필이 그를 막아나섰다. 그와 여러 땅크병들이 모두 일시에 주먹을 부르쥐고 목청껏 웨쳐대였지만 그때 오영범은 극도로 피로하여 가까스로 서있을뿐이였다.

멎어섰던 포차들이 파르스름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땅크가 묻힌 그 외통길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포병구분대의 지휘관이 승용차를 타고오면서 군단참모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고 소리쳤다. 이번에는 중대장 김윤필이 무선전화기를 받아쥐였다.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던 땅크병들도 숨을 헐떡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군단참모장이 무어라고 묻자 김윤필은 전화기를 든 손을 부르르 떨면서 3소대장 오영범이 발파를 하여 땅크가 빠져들어간 홈타기를 묻어버렸다고 보고했다. 군단참모장은 그 일에 대해서 벌써 보고받은 모양이였다. 그가 관심하는것은 다른것이였다. 김윤필은 오영범쪽을 흘끔 돌아보고나서 《예,그렇습니다. 오영범！… 3소대장입니다.… 나이는 스물둘… 예,알겠습니다.》 하고 이상한 목소리로 웨쳤다.

무선전화기를 넘겨주고 포병지휘관이 탄 승용차가 떠나갈 때까지 그는 그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듯 머리를 들며 오영범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3소대장,당장 동무를 지휘감시소에 보내라누만.》

《？！…》

오영범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갑자기 어린 시절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났다. 그는 모지름을 쓰며 시꺼먼 손가락으로 목을 조이고있는 군복깃을 터놓았다.

《같이 갈가？》

김윤필이 묻는 말이였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있었다. 명령받은대로 기동로는 열었지만 값비싼 땅크 한대는 구뎅이속에 묻어버렸다. 전쟁시기도 아닌 때에 그처럼 귀중한 땅크를 매장해버렸으니 그야말로 군사재판감이 아닐수 없다.

이윽고 그는 김이 문문 흐르는 군복을 쭉 잡아당기고 어깨띠를 바로 한 다음 지휘감시소를 향해 떠났다. 그날 그는 그것이 자기의 한생을 결정짓게 될 운명적인 걸음이라는것을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날 그를 부른것은 군단참모장이 아니였다. 그때 지휘감시소에서 군단기동훈련을 몸소 지도하고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놀라운 일을 저지른 공병소대장 오영범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친히 그를 부르시였던것이다. …

뜻밖의 경적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앞을 보니 전조등의 밝은 불빛이 길 한가운데를 걷고있는 한 처녀의 모습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처녀는 급히 길섶으로 비켜서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일순 달려오는 승용차를 향해 한손을 쳐들다가 그만 도로 내리는것이 보였다. 바퀴달린 려행가방을 멘 처녀였다. 곤색 솜옷에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맵시나는 가죽장갑을 끼였는데 첫눈에도 도시에서 사는 처녀라는것이 알렸다.

《차를 세우오.》

오영범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급제동을 거는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차가 멎었다. 뒤따라 밀려온 먼지구름이 전조등의 밝은 불빛속에 들씌워졌다.

오영범은 문을 열며 머리를 쑥 내밀었다.

《어데까지 가오？…》

《예, 저 신정리에…》

무거운 가방을 추슬러올리며 반갑게 다가서던 처녀가 주춤 멎어섰다. 어깨우의 장령별을 띄여본것이다.

《타오.》

오영범이 말했다. 명령하기에 습관된 묵직한 목소리였다. 그러자 처녀는 황급히 팔을 쳐들며 부르짖었다.

《괜찮습니다. 전…》

《타라는데.》

《아, 아닙니다. 전 다 왔습니다.》

처녀는 장갑 낀 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쥐며 애처롭게 웃어보이

기까지 했다. 그 순간 오영범은 흠칫했다. 처녀의 그 가냘픈 미소가 그를 괴롭히는 다른 한 처녀의 수심에 잠긴 모습을 상기시켜준때문이였다.

《정말입니다. 장령동지!》 하고 처녀는 또 잰말씨로 속삭이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웬일인지 처녀는 뒤로 한걸음 물러서기까지 했다. 저때문에 인민군장령의 바쁜 걸음이 지체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오영범 그가 찌르는듯한 눈빛으로 여겨본때문인지…

《음-》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문을 닫았다. 그와 동시에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켰다. 뒤에 남은 처녀는 좀 뒤늦게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목소리도 순시에 멀어져갔다.

오영범은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뒤쪽의 작은 시창으로 내다보인것은 차겁고 침침한 어둠뿐 그가 찾는 모습은 없었다.

그는 추위를 타는듯 어깨를 으쓱하면서 모가 진 아래턱을 움씰거렸다. 불현듯 마음이 구깃구깃 구겨지고 어수선해지는것을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 처녀, 로상에서 잠시 만난 그 처녀는 바로 그가 제일 아파하는 일, 되도록이면 생각지 않으려고 애쓰던 자기의 녀동생 영옥이의 불행을 또 상기시켰던것이다.

그는 지그시 두눈을 감고 이름모를 그 처녀의 맑고 시원한 두눈이며 어설픈 미소를 머금고 바르르 떨던 엷은 입술을 그려보았다. 어딘가 영옥이와 비슷한데가 있는 단아한 처녀였다. 그 처녀처럼 지금 스물여덟에 난 그의 동생 영옥이도 한때는 목이 상큼하고 얼굴이 희맑은 아름다운 처녀였었다. 한때는…

《신정리입니다.》

운전사가 하는 말이였다.

그는 머리를 들고 앞을 내다보았다. 운전사가 차의 속도를 죽이면서 그의 눈치를 살피고있다. 《차를 세우오.》 하고 말하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럴새가 없다. 후에 보자… 그는 군무와 상관없는 온갖 잡사며 개인적인것들은 다 집어던진 사람이였다. 군대일만 생

각하자고 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였다. 더우기 총참모부에서 관심하는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너무도 할 일이 많은 그였다.

《속도를 높이오!》 하고 그는 짤막하게 명령했다.

《알았습니다!》

승용차는 마을앞으로 곧추 뻗어간 길을 따라 먼지발을 일구며 달려갔다.

3

인민군장령이 탄 승용차가 멀리 달려갔을 때에야 수련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점점 더 걸음이 떠지고 어깨에 멘 가방도 갑절이나 더 무겁게 느껴졌다. 역에서 마을까지는 불과 십리안퐈이건만 무거운 가방때문에 수련은 몇십리나 걷고있는듯했다. 저녁차를 타고온것이 후회되였다. 작년 여름에 왔을 때에는 하루 세번 꼭꼭 역에서 멎는 렬차의 손님들을 위해 뻐스가 나와 기다리군했는데 지금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지 얼마전부터 뛰지 못한다고 한다.

수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방을 바꾸어메며 멀리서 호흡하듯이 껌벅거리고있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점점 더 추워지고있는 밤길을 걷고있는 수련에게 어서 오라 부르며 열심히 눈짓하고있었다. 저 많은 불빛들중 어느것이 외가집일가. 이제 내가 들어서면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와할가!…하지만 여전히 걸음은 떠지고 어깨에 멘 가방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어깨가 쑤시고 두발이 휘청거린다.

흔히 무슨 일에서나 목표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가 제일 힘든 법이다. 수련은 다시금 불빛까지의 거리를 가늠해보며 입술을 옥물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함흥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상화군병원 약제사로 일하는 스물다섯에 난 처녀,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모두가 깍듯이 존대하여 부르는 리수련선생, 그런데 지금 이만한 걸음에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할가?…

어데선가 퉁퉁거리는 뜨락또르의 발동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은 멀리 있지 않다. 달음질쳐 걸으면 20분도 채 안걸릴수 있다.

콕콕 찌르는 찬바람에 뺨이 얼얼해났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량볼을 싸쥐고 걸으며 지금쯤 어머니는 집에서 무얼 하고있을가 하고 생각했다. 수도 평양에서도 중심부에 속하는 비파거리에 그의 집이 있다. 13층 1호… 약품접수차로 여러날 집에 머물러있던 수련은 바로 몇시간전에 려행가방을 둘러메고 집을 나왔다. 원래는 하루 더 묵어있을 작정이였지만 뜻밖의 일이 수련이의 생각을 돌려놓았던것이다.

지금쯤 어머니는 텅빈 집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을것이다. 늘 바다에 떠서 사는 무역선 선장인 아버지도 없이 수심이 비낀 얼굴로 어둠속에 앉아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니 별안간 가엾은 생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다음 순간 수련은 도리질을 하고말았다.

(아니, 어머닌 너무 모질었어. 어머닌 그를 모욕할 권리가 없어!)

수련은 어머니한테 죄다 쏟지 못한 되알진 말들을 계속 이어가며 허척지척 어둠속을 걸어갔다.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 그처럼 순박한 그 군인동무를 문전에서 쫓아버리다니!…)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던 뜻밖의 일이였다. 그때 수련은 어머니와 같이 제 키보다 더 큰 삼면경대앞에 마주 서있었다. 어머니가 딸의 몸에 맞게 새로 지은 옷을 입히며 독촉을 했다. 어느 중앙기관에서 총국장을 하는 한 간부가 수련이를 만나보고싶어한다는것이였다. 일이 바쁜 간부가 나를 왜 만나려 하는가고 수련이 따져묻자 어머니는 《네 일때문에 그런다. 그저 그쯤 알고 가서 인사나 깍듯이 하렴.》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아주 우연한 일인듯 경대앞에 놓여있는 화장품함을 열다가 그속에 있던 사진 한장을 꺼내였다. 그것을 슬쩍 들여다보고나서 어머니는 눈웃음치며 수련에게 내밀었다.

《참 잊을번했구나. 수련아, 이 사진 좀 보렴!》

무심결에 사진을 받아든 수련은 고수머리에 얼굴의 선이 굵고 암팡지게 생긴 한 청년과 눈길이 마주쳤다. 사진속의 그 청년은 바로 때를 기다리고있었던듯 찌르는듯한 눈길로 곧추 수련이를 쳐

다보는데 첫눈에도 그가 사내답게 대범하고 굳센, 뭇처녀들의 선망어린 눈길을 모을 총아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웬일인지 속이 후두둑했다. 그리고 영문을 알수 없으나 그 청년의 범상치 않은 눈빛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련은 오늘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부와 이 청년간에 무슨 련관이 있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래 어떻니?》

어머니가 물었다.

수련은 사진속의 청년을 재빠른 눈길로 또한번 스쳐보았다.

《미남자이군요.》

《그－래?!》 하고 어머니가 반색했다. 《그러니 네 마음에 든다는거지? 응?!》

《글쎄요. 그거야…》

바로 그때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수련은 저도 모르게 손을 등뒤에 돌려 사진을 감추었고 어머니는 눈살을 찌프리며 복도로 나갔다. 잠시후 그쪽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어데선가 들어본것 같았다. 그러나 수련은 더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손에 쥐고있던 사진을 경대우에 놓고는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을 새삼스레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전혀 화장을 모르던 수련이다. 희맑은 살갗에 깨끗하고 섬세한 륜곽을 지은 수련의 얼굴은 아직 화장품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수련은 자기가 입고있는 투피스(어머니가 새로 산 옷인데 앞섶엔 금빛 브로치까지 달려있었다.)를 꽁꽁 여미여보고 또 자기의 몸매를 훑어보았다. 가느스름한 팔과 다리때문에 좀 여윈것처럼 보이는게 흠이랄가… 그러나 얼마전까지 몸에 배여있던 녀학생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단아하고 조용하고 아릿다운 한 처녀가 의미깊은 눈길로 자기를 감상하고있었다. 왼쪽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보고 어깨너머로 슬쩍 곁눈질도 하는데 돌연 어머니의 웃고있는 얼굴이 거울속에 뛰여들었다.

《곱구나. 쏙 빠진게!…》

어머니의 그 말에 수련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누가 왔댔어요?》

《오— 그저… 웬 군관이…》

《군관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집을 헛갈렸더구나.》

《그래요?》

어머니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재빨리 말했다.

《아이구 벌써 두시가 넘었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 인츰 차비할게.》

아직도 젊었을 때의 미모를 그대로 지니고있는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동안 수련은 거울을 내주고 창가에 다가갔다.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고있던 수련의 두눈이 굳어졌다. 저 아래쪽에서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히고 올려다보고있는 한 군관의 모습이 낯이 익었다. 순간 심장이 흠칠하였다. 수련은 그 군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소리쳐 물었다.

《어머니! 이제 왔던게 누구라구요?》

《내 말하지 않던! 그저 웬…》

아래쪽에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던 군관은 흘러내린 전투가방을 바로 메며 큰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왔던게 윤철동무지요? 예? 그가 왔댔지요?》

수련이 따져묻자 어머니는 낯색이 질렸다.

《그래, 그 사람이다.》

《예?!…》 수련은 한순간 얼어붙은듯했다. 다음 순간 벌써 그의 얼굴엔 타는듯한 모지름이 스쳐갔다. 《그런데 어머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얘 수련아.》

《그래 뭐라구 했어요. 그 동무한테 뭐라구 했나말예요?》

《아니 난 그저…》

《어서 말해요. 어머니, 뭐랬다구요?!》

《그저… 없다구 했다. 널 찾기에… 요새 며칠 와있다가 방금 병원으로 도로 갔다구…》

《예？ 뭐라구요？！》 수련의 엷은 입술은 분노의 경련으로 하여 바르르 떨렸다. 《어쩜 그렇게… 어쩜 그럴수 있어요？！…》

다시 창가로 돌아섰으나 윤철의 모습은 끝없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묻혀 자취를 감추고말았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얘, 수련아, 난 너를 위해서 그러는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하군 어울리지 않아！》

《그럴수도 있겠죠.》

《그리구…》

순간 수련은 어머니에게 더는 말을 말라는듯 한팔을 내저으며 부르짖었다.

《됐어요. 어머닌… 너무해！ 집에 찾아온 사람을… 문밖에서 그렇게 쫓아내다니… 어머닌 그를 모욕했어요. 그리구 나두… 됐어요. 다치지 말아요！》

이렇게 되여 끝내 총국장과 만나기로 한 시간을 어기게 되였다. 전화로 알아보니 총국장은 출장을 떠나는데 한 사날후에야 올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었으면 했지만 수련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수련은 자기한테 남은 그 하루를 상화군으로 가는 도중역에서 내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맘먹은것이였다.

드디여 다 왔다. 반쯤 열려있는 삽짝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 토방우에 웅크리고있던 검둥개가 두귀를 발딱 세우며 을러메듯이 으르릉거렸다.

부엌문이 열리며 외할머니가 머리를 내밀었다.

《게 누가 오셨수？》

수련은 가방을 벗으며 어푸러질듯 문앞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나예요. 수련이가 왔어요！》

《아니 뭐, 수련이가？》 외할머니는 치마자락에 발을 걸채이며 문밖으로 나섰다. 《어디 어디！… 응？！ 정말 수련이가 왔구나！》

며칠만 떨어져있다가 만나도 기쁨에 몸을 떠는것이 할머니들이다. 후들후들하는 손으로 수련이를 붙안고 얼굴을 들여다보던 외

할머니가 드디여 그를 방안으로 잡아끌었다.

《그새 더 고와졌구나. 응？！… 그동안 앓진 않았니？ 이젠 군병원에 정이 붙었니？》

《예, 그럭저럭… 이번엔 집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서 내렸지요 뭐. 갑자기 할머니가 보구파서…》

《잘했다. 그래서나 또 만나보지. 도무지 두 정거장 사이를 두구있는데두 만나기 힘드니… 그래 집에선 다 잘 있니？ 네 애빈 지금두 소금바람을 맞구있겠지？》

무역선 선장인 아버지가 지금도 바다에 떠있느냐 하는 소리였다. 수련은 시무룩이 웃으며 이제 며칠내로 돌아올것 같다고 했다.

《에그-》 하고 외할머니는 혀를 찼다. 《오뉴월 솜버선이라더니 네 에미 신세두 참！》

《됐어요. 할머니, 그래두 남들앞에선 늘 아버지 자랑만 하시면서.》

《그럼 어쩌겠니. 미워두 제 사윈걸！》

참나무처럼 단단하고 말수더구가 적은 외할아버지와는 달리 부지런하고 웃기 잘하고 쉴새없이 돌아치며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다변한 성미인 외할머니는 언제나 자기의 기쁨을 소란스럽게 표현하군했다.

수련은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진 어데 가셨나요？》

《에그-》 외할머니는 수련이 벗어놓은 솜옷이며 목도리 등을 벽에 걸면서 말했다. 《그 령감 로병분조를 무은 담부턴 통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구나. 오늘두 새로 일군 개펄논에 거름을 실어낸다면서 일찌감치 저녁을 잡숫구 나갔는데 아마 또 샐녘에나 들어올게다.》

《아이참！ 무슨 급한 일이라구 그렇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가보더라.》

《그래요？》

수련은 얼핏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 누구보다도 수련이를 귀애하는 외할아버지이다. 지금도 앉은뱅이책상 맞은켠 벽에 걸려있는 사진액틀에는 승마바지에 번쩍거리는 장화를 신고 옆구리의 권총집우에 한손을 얹고있는 전쟁때의 외할아버지 김윤필의 사진이

들어있다. 그 사진속의 외할아버지는 위풍을 돋구느라 그랬는지 어깨를 쭉 펴고 지내 엄숙한 표정을 짓고있는데 외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가 신은 번쩍거리는 장화나 혁띠 그리고 승마바지조차도 다 남의것을 빌린것이라고 한다. 공병군관이였던 그는 늘 소금발이 돋아 잔등에 세계지도가 그려진 물날은 군복에 너덜너덜 찢겨지고 앞코숭이가 터진 장화를 신고다녔다는것이다. 그 시절 남강마을에서 제일 예쁜 외태머리 처녀였던 외할머니가 다리복구장에서 처음 만난 외할아버지는 영 볼품이 없는데다가 꺼칠하고 별스레 늙어보이는것이 도무지 총각같지 않더라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외할아버지를 외할머니는 얼마나 극진히 섬기고 공대해왔으랴. 떠들썩 소란을 피우다가도 외할아버지가 쯧쯧 하고 한번 혀를 차기만 해도 단번에 입을 다물고 공손해지군했다. 하기에 어머니는 수련이가 고집을 부리고 따벌같이 내쏠 때면 《원 저게 어떻게 꼭 외할아버질 닮았을가!》 하고 혀를 내두르군하였다.

외할머니는 수련이 시장하겠다면서 급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저녁을 먹고나서도 수련은 외할머니의 무릎에 바싹 다가앉아있었다. 이야기는 새라새롭게 이어지면서 끝이 없을듯했다. 군대에서 비행사로 복무하는 외삼촌 소식, 여러 친척들, 이웃들 소식, 외할아버지네 로병분조며 수련이가 일하는 군병원 그리고 온갖 세상사와 떠도는 소문, 지나간 옛일 등 가장 평범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요하고 사연깊고 마음써지는 이야기들이였다.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서 늙은이들은 흔히 자기의 아들딸들보다도 손자손녀들과 더 가까우며 통하는 법이다. 그것은 인생의 량극에 서있는 그들 두 세대간에만 통하는 그 순진함과 가식을 모르는 솔직성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야기도중에 외할머니가 불쑥 《얘 수련아, 너도 인젠 시집갈 때가 되였는데 어디 봐둔 총각이 없니?》 하고 물었다. 수련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방금 대학을 나왔는데 어디 그럴 새가 있어야지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한쪽구석에 켜놓은채로 있는 텔레비죤의

소리를 낮추며 성미그대로 떠들어댔다.

《애, 삶은 호박에 이 안들 소리일랑 하지두 말아. 체네총각 눈이 맞는데 무슨 그럴 새가 있구 없구가 있니?》

《아니 할머닌 몰라서 그래요. 대학에선…》

《글쎄 모르긴 하겠다만 그런건 다 때가 되면 저절루 되는 법이야. 우린 전쟁때 뭐 그럴 새가 따루 있어서 폭격통에두 서로 만나고 한줄 아니?》

《참, 그 얘길 좀 해줘요.》 하고 수련은 외할머니의 한쪽 무릎을 바싹 끌어안았다. 《어떻게 할아버질 알게 됐는지. 예? 어서요!》

《그저 가다오다 우연히 알게 됐지. 전쟁때였으니까.》 하고 외할머니는 돋보기와 바느질감을 끄당겨갔다. 《그 령감이 어쨌는지 아니. 글쎄 다리복구장에서 나를 몇번 보더니 하루저녁 갑자기 성이 나서 날 불러대지 않겠니. 다리밑으로 오라는거야. 얼굴이 시꺼매서!… 내가 겁에 질려 조심조심 따라가자 나를 쏘아보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동무, 나한테 시집오지 않겠소?〉 이러는거야. 원, 생판 알지두 못하는 사람이… 내가 도망을 치려구 하자 이 팔을 꽉 틀어잡는데… 아이구머니나! 무슨 집게루다 꽉 집어놓는것 같았어. 난 그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가 또 〈소리지르지 마오!〉 하고 엄포를 놓는바람에 입을 다물구말았지. 그때 난 이 사람한테서 웬만해선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뭐 괜히 성이 나서 시꺼먼 볼을 후들거리구 씩씩거리는게 위불없는 곰이야 곰!… 무엇때문인지 코가 다 찌부러져보이는데 그 무서운 사람 뚝심을 내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니. 그런데 그는 또 〈동무 왜 말을 못하오. 나를 기다려주겠소, 어찌겠소?〉 하고 따져묻겠지. 난 끝내 아무 말두 못하구 벌벌 떨기만 했어. 그래 어떠냐. 이게 바루 우리가 알게 된 사연이란다. 이게 다야. 보다싶이 시체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까다롭구 복잡한거라군 하나두 없어!》

수련은 거의 경탄에 가까운 심정으로 아직 옛 시절의 용모가 조금 남아있는 늙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보나 외할머니는 엷은 입술에 가벼운 비양조의 미소를 띠우고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군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흘러간 한생이 다 유쾌하고 재미

난 일로만 엮어져있는듯했다. 사실 전쟁때 미국놈폭격에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잃었지만 아직 한번도 외할머니는 추억의 페지들을 눈물의 언어로는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문에 온 집안이 그리고 온 동네가 외할머니를 좋아하는것 같다.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밝은 웃음과 즐거운 추억을 먼저 상기한다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한 한생은 결코 후회되지 않을것이며 남부럽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얘 수련아.》 하고 외할머니는 돋보기너머로 수련이를 건너다보았다. 《너 오늘 참 별나구나.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니냐? 너 아까부터 줄창 무슨 생각을 하구있니?》

《뭐 아무것두 아니예요.》

이제 와서 수련은 집에서 있은 일을 말하고싶지 않았다. 외할머니와 마주앉으니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노여움과 안타까움이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가는것을 느꼈다.

《때가 되면 속에서 저절루 눈물이 끓지. 그때가 와야 진짜 처녀가 되는거야.》

외할머니의 의미깊은 이 말에 수련은 방긋 웃음을 머금었다. 어떤 즐거운 기억이 그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이였다. 그러자 수련의 입가에 떠오른 애틋한 미소에서 그리고 꿈을 꾸는듯한 그의 눈빛에서 외할머니는 무엇인가를 느낀 모양이였다. 외할머니가 물었다.

《그게 누구니?》

《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말이다.》

《?!…》

수련은 놀라서 외할머니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아마도 늙은이들의 가늘게 좁혀 뜬 눈길에는 그들만이 가지고있는 인생의 경험과 남다른 감각이 들어있어 모든것을 환히 꿰뚫어보는것 같다.

《할머니, 난 아직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떤게 사랑인지… 참 이렇게 말하니 좀 우습죠? 다 큰 처녀가… 대학까지 나왔다는게…》

수련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있다가 나직이 계속했다.

《그런데 요즘… 한 군관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찰소대장이라나요.》

《음－》
외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히 쳐다보자 수련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떠듬거렸다.
《뭐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저 우연히 만나 알게 되구 편지나 주고받았을뿐인데… 그마저도 어머니가 반대하는통에…》
《네 에미가？ 그건 왜？》
《약학대학을 나온 녀자가 산골군관사택에 가서 돼지나 치겠는가 하는거죠.》
《원 저런！ 군관사택마을에선 뭐 약제사를 못한다던？》
《어머니생각이야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날 평양에 끌어올리자는건데…》
《평양？！》
외할머니도 그 말엔 무엇인가 걸리는것이 있는듯했다. 수련이 함흥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상화군병원에 배치받았으므로 어머니가 안달복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평양에 올라가구싶은거야 네가 더하겠지.》 외할머니의 말이였다.
《안그렇냐？》
《…》
수련은 얼굴을 붉혔다. 외할머니의 그 말이 자기가 애써 감추려 하고 변명해오던것을 면바로 찔렀기때문이였다.
외할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낮추어놓은 텔레비죤화면에 눈길을 보냈다. 하늘을 나는 인민군추격기편대의 장쾌한 모습이 거기에 비쳐지고있었던것이다. 아마 비행사로 복무하는 맏아들 생각이 나는 모양이였다.
《우리 나라에선 군대가 제일이야！》 하고 외할머니가 말했다. 《우린 군대를 아끼구 존경하구 사랑해야 돼！》
《…》
수련은 이번에도 응수를 하지 않았다. 텔레비죤화면을 아무 생각없이 바라볼뿐이였다. 그는 생각했다. 군대를 아끼고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는것과 군대한테 시집을 간다는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수도에서 사느냐 영영 시골에 파묻히고마느냐 하는 그것이다. 아직 한번도 수련은 수도 평양과 떼여놓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본적이 없다. 하지만 윤철은? 그와의 인연은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텔레비죤화면에서는 음악과 함께 산발을 주름잡아 달리는 땅크며 돌격에로 내달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흘러가고있었다. 수련은 외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잇대여지는 산발, 흔하디흔한 이 나라의 산과 골짜기, 가을철답게 울긋불긋 화려하게 단장한 능선들… 윤철동무를 처음 만난곳도 저런 골짜기가 아니였던가? 그날도 먼 산봉우리너머엔 저녁노을이 비껴있었고…

4

운봉산은 상화군과 이웃군의 린접에 자리잡고있는데 오각별모양의 기묘한 지세를 이루고있었다. 주봉을 이룬 산마루에서부터 사방으로 여러 갈래의 련봉들이 뻗어내리고 그 사이사이는 길고 험한 계곡과 골짜기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군병원에서는 고려약제조실의 약제사 한성숙을 책임자로 하고 갓 배치된 수련이와 간호원 셋으로 조를 무어 여러날동안 운봉산기슭의 덕수리에 거처를 정하고 약초를 캐게 하였다.

그날도 그들은 운봉산에 흔한 삼지구엽초와 단너삼, 창출, 당귀, 독할 등을 찾아 산발을 오르내렸다. 제일 극성을 부린것은 수련이였다. 아버지가 무역선 선장이여서 동해안의 흥남과 서해안의 남포 등 도시에서만 자라온 수련은 련사흘째나 배낭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미립이 트기 시작했던것이다.

수련이는 오직 약초에만 정신이 팔려 날이 저무는것도 또 같이 간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풀숲을 더듬으며 잡관목을 헤치고 바위를 타고넘었다. 갑자기 싸리나무가지를 헤치다말고 굳어져버렸다. 무엇인가 단번에는 리해할수 없

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다. 수련의 머리우로 커다란 락하산이 날아지나가더니 저 앞쪽 바위벼랑턱에 떨어져내린것이였다. 뒤따라 또 얼룩무늬가 난 옷을 입은 사람이 락하산을 타고 떨어져내렸다. 그 순간 수련의 머리속을 스쳐간것은 반간첩영화의 한 장면이였다. 머리칼이 곤두서고 온몸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어슬무렵 깊은 산속에 떨어져내리는 락하산…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서야 그들이 훈련하는 인민군락하산병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저 훈련중이려니 하고 지나쳐버릴수도 있었으나 어떤 예감이 수련이로 하여금 좀더 다가가 살펴보게 했다. 한순간 갑자기 말뚝처럼 박혀서며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쥐였다. 락하산을 타고내린 두사람이 바위벼랑 한끝에 가까스로 붙어있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다. 분명 먼저 떨어져내린 사람이 벼랑턱에 부딪쳤는지 두팔을 축 드리우고있고 다른 한사람이 그를 어깨우에 떠받들며 죽기내기로 바위벽틈에 손톱을 박고있었다. 뒤에서는 커다란 락하산이 서로 엉키여 바람에 너울거리고있었다. 한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머리까지 푹 떨구고있고 그를 어깨로 떠멘 사람은 안깐힘을 쓰며 무거운 몸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순간이나마 그가 손맥을 놓는 날이면 둘 다 아찔한 계곡아래로 굴러떨어지고말것이다.

얼결에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소리를 손으로 막으며 수련은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외마디소리라도 지르는 날이면 그가 놀라 손맥을 놓을수 있는것이다.

부상병을 업은 군인은 무던히도 더디게 강파로운 바위벽을 톺아오르고있었다. 그런데 그의 머리우 불과 팔 한기장만한 사이를 두고 바위틈에 뿌리박은 잡관목이 있었는데 손을 들어 우로 쑥 뻗치면 잡을수 있을 그리도 가까운 거리였다. 하지만 바위틈에 손톱을 박으며 필사적인 노력으로 한치 또 한치 톺아오르는 그 군인에게는 팔 한기장만한 그 거리가 지금껏 걸어온 인생의 길보다도 더 먼 거리일수도 있었다.

수련은 소스라치듯했다. 뒤늦게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급기야 앞으로 내달려갔다. 너럭바위에 이르자 벌벌 기다싶이하며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드디여 잡관목가지를 틀어잡고 다른

한손은 머리도 들지 못하는 그 군인에게로 내뻗칠수 있었다.

《이걸 잡아요, 동무!》

부상병을 업은 군인이 가까스로 눈길을 들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시뻘건 얼굴이였다. 무섭게 충혈진 눈빛을 사납게 번뜩이는것이 아주 험상궂어보였다. 그는 이발을 사려물고 끙— 용을 쓰더니 수련의 손을 틀어잡았다. 순간 수련은 하마트면 그에게로 끌려가 무시무시한 계곡의 밑바닥으로 굴러내릴번하였다. 잡관목가지들이 뿌적거리며 밑뿌리채 뽑히는것 같았다. 그 가지를 꽉 틀어쥔 수련의 손은 불로 지지는듯했다. 수련은 휘청거리며 《아!—》하고 쓰라린 아픔을 못이겨 부르짖었지만 죽기내기로 그것만은 놓지 않았다. 한순간 또 한순간이 피나는 모지름속에 흘러갔다.

드디여 부상병을 업은 군인이 무릎걸음을 하게 되였다. 그는 펑퍼짐한 바위등판에 기여오르자 부상병을 업은채로 그만 그자리에 어푸러지고말았다.

이윽토록 그는 바위우에 엎드린채 헉헉 단김만 내뿜었다. 그의 시뻘건 목덜미로 땀이 줄지어내리고있었다. 그때에야 수련은 그의 목깃에서 중위의 령장을 발견하였다. 그가 바로 윤철이였다.

한동안 너럭바위에 쭉 뻗어있던 윤철은 얼마후 몸을 일으키려다가 무너지듯 주저앉고말았다. 그리고 그는 수련이더러 좀 돌아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수련이 의아쩍어하며 고개를 돌리자 손칼로 자기의 장딴지를 쨌다. 곁눈으로 그것을 스쳐본 수련은 불현듯 낯색이 질렸다. 그의 장딴지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가 바위우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엔 막 몸서리쳤다.

《왜 이러세요, 예? 이런 끔찍한 일을…》

수련이 몸을 떨며 부르짖자 윤철은 주머니에서 개인붕대를 꺼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런건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

《아까 벼랑턱에 오르면서 너무 힘주어 다리를 버티였더니 그만 쥐가 올라 그럽니다. 그러니 별수 있습니까. 갈길은 먼데… 이렇게 해야 무더운 여름철에 찬물에 들어선것처럼 시원해지면서 다

시 걸을수 있습니다.… 보지 마시오.》

《하지만…》 하고 수련은 낯색이 질려 말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어서 돌아앉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그것은 거의 명령조에 가까운 어투였다. 윤철이 놀라는것을 보고 수련은 말했다.

《난 의사예요. 시키는대로 하세요!》

《?!…》

윤철은 돌아앉았다. 피가 잔뜩 몰렸던 그의 얼굴이 차츰 해쓱해지고있었다. 아까 험상궂게 생긴 사람으로 본것은 그가 죽기내기로 용을 쓰고있었기때문이리라. 수련이 자기의 가방앞주머니에서 소독약이며 붕대 등을 꺼내드는것을 지켜보고있던 그가 눈빛을 번쩍이며 수련의 두손을 꽉 움켜잡았다.

《마침 됐습니다. 의사선생! 이 동물 좀 봐주십시오.》

수련은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아귀 센 손아귀가 뼈마디까지 으스러뜨리는것 같았던것이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제야 윤철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게면쩍어하며 말했다.

《어데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지… 빨리 이 동무부터 좀…》

《됐어요. 걱정마세요.》

수련은 의식잃은 전사를 꼼꼼히 진찰했다. 락하산을 타고내릴 때 어덴가 부딪쳤는지 별다른 상처도 없이 의식을 잃고있다. 윤철은 수련이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우는것을 지켜보다가 《고맙습니다, 의사선생!》 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어떻습니까. 의사선생, 위험하진 않겠지요. 예?!》

《걱정마세요.》

다음 순간 수련은 약간 얼굴을 붉혔다.

《의사선생 의사선생 하지 마세요. 전 이자 갓 대학을 나왔을 뿐인데… 그저 수련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럴 때의 윤철은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데가 있었다. 가무스레한 살결에 코마루가 날카로운, 흔히 날파람있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젊은 군관이였다. 너자들앞에서 주눅이 들군하는 순수하고 가식을 모르는 젊은이같다. 그런데 수련이야말로 이렇듯 정직하

고 대바르고 강인한 젊은이를 꿈꿔온것이 아니였던가?!…

그러나 그날 수련은 인상적인 그 소대장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하였다. 부상당한 전사를 같이 부축하여 산에서 내릴때에도 서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몇마디를 주고받았을뿐…땅거미지는 산길은 가파로왔었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병사들과 만났다. 윤철의 정찰소대 대원들이였다. 그들은 위급한 순간 자기네 소대장과 부상당한 전사를 도와준 수련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담가를 만들어 거기에 부상당한 전사를 눕히고 떠나갔다. 떠나가면서 또 저저마끔 청을 돋구어 웨쳤다.

《고맙습니다, 의사선생!》

마지막으로 소대장 윤철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하고 말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수련이 역시 한손을 쳐들며 《잘가세요!》 하고 속삭이듯했다.

골짜기의 밤은 불시로 찾아드는 법이다. 하늘을 덮은 구름장들로 하여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바삐 서둘러야 했다. 수련은 오던길로 되돌아섰다. 그러나 첫걸음부터 싸늘한 불안에 허둥지둥했다. 그래도 무작정 앞으로 앞으로 내닫다가 돌연 걸음을 멈추었다. 잔등을 훑어내리는 차디찬 전률에 온몸을 떨며 헉— 하고 흐느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골안에 들어섰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얼어들고 머리칼이 쭈볏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부지불식간에 입술을 꽉 악물며 목구멍에서 금시 터져나오려던 울음섞인 고함소리를 도로 삼켰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판우의 떨기나무들이 말라버린 잎사귀들을 흔들며 와슬렁거렸다. 어느덧 싸늘하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빈틈없이 수련의 온몸을 휘감아버렸다.

수련은 거의 절망적으로 사방을 휘둘러보며 허우적거렸다. 윤철소대장과 같이 부상당한 전사를 부축해올 때 왜 길을 잘 살펴보지 않았던가 하는 뼈저린 후회에 몸부림쳤다. 밤이 온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던가!…

어두컴컴한 골안에서 우—우—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왔다. 쏴— 숲을 흔드는 세찬 바람소리 가운데 울려온 그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같기도 하고 사람의 목멘 통곡소리같기도 했다. 《우—여—우》 하는가 하면 얼마후엔 좀더 가까이 《우—여—우—우—》 하고 웅글게 메아리쳐왔다.

수련은 치를 떨었다. 다음 순간 헉— 하고 흐느끼면서 정신없이 어둠속을 내달았다. 나무가지에 걸려 비틀거리고 돌부리에 걸채이다가는 또 무엇에 할퀴였다. 허우적거리며 아무것이든 손에 잡으려했으나 그만 나무등걸에 무릎을 짓쪼았다. 뼈가 으깨여지는듯했다.

《아！—》

혀를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속에 고통스레 부르짖었다. 그러나 허벅지쪽으로 쭉 뻗어오른 그 모진 아픔보다도 머리칼이 곤두서게 하는 공포심은 더더욱 참기 어려웠다. 다시 벌떡 일어나 또 들구뛰려고 했다. 그 몸서리쳐지는 무시무시한 통곡소리만 피할수 있다면 벼랑우에서라도 굴러내릴것 같았다.

그 순간 멀지 않은 앞쪽 경사면에서 잡관목을 마구 짓이기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수련은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한채 얼어붙고말았다. 무엇인가 성급하게 그를 맞받아 돌진해오고있는것이다. 돌멩이들이 굴러내리고 나무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시꺼먼 형체가 비탈면에서 미끄러져내리는데 어느새 헉—헉— 하는 가쁜 숨소리가 가까와왔다.

수련은 꼼짝도 못했다. 심장은 얼어붙고 온몸을 뒤흔드는 쩌릿한 전률에 머리칼이 아파날 지경이였다. 바로 그때 무서운 웨침소리가 수련의 눈앞 몇발자국앞에서 터졌다.

《수련동무—우！—》

그 순간 수련은 굵직한 몽둥이에 후려맞은듯했다. 숨이 꺽 막히고 가슴을 우벼내는듯한 모진 아픔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으흑！》 하고 신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시꺼먼 형체가 헐금씨금 다가오더니 금시 쓰러지려는 수련을 부축해주었다. 아니 부축한다기보다 우악스럽게 꽉 붙들어주었다. 그러나 수련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것 같았다. 무서운 공포속에서 헤여져나온 안도감에 세찬 바람소리마저 홀연 사라져버린것 같이 생각되였다. 차츰 헝클어졌던 호흡이 서서히 갈앉기 시작했다. 그때 꾸르릉！ 하고 머

리우에서 우뢰소리가 울렸다. 수련은 깜짝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자기를 붙들고있는 윤철을 밀쳐버리며 흠칫 물러섰다. 어인 일인지 눈뿌리가 아뜩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지금 예서 무얼하고있는가?… 급작스러운 수련의 태도에 윤철은 놀란듯했다. 어쩌면 무안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침묵,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 불현듯 이 무서운 그리고 죄스러운 이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숨이 막혀 죽을것만 같았다.

《미안해요.》

수련이 말했다. 거의나 입속말처럼 가까스로 짜낸 말이였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윤철이 떠듬거리며 말했다. 《뒤늦게야… 이 고장 태생이 아닌 동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해요.》

두번째로 수련이 한 말이였다. 그에게서 땀냄새가 풍겨왔다. 험한 산길을 뛰여오느라고 땀에 흠씬 젖어버렸을것이다.

《갑시다.》

윤철이 명령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어둠속으로 씨엉씨엉 걸음을 옮겼다. 수련은 종종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를 악물고 걸음마다 부딪치고 할퀴우고 걸채이면서 아무말없이 앞서가고있는 윤철에 대하여 야릇한 반감까지 품으며 허청허청 따라갔다. 숨을 헐떡거리며 금시 주저앉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철은 마치 처녀가 무서워 도망치기라도 하는듯했다. 수련은 차츰 호흡이 거칠어지다 못해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눈이 뒤집히는것 같았다.

별안간 나무등걸에 걸채였다. 수련은 《악!—》 하고 두손으로 발등을 누르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윤철이 멎어섰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잡으시오.》

역시 명령하는 투였다. 수련은 말없이 그가 내민 손을 밀어버렸다.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가까스로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됐어요.》

《혼자 걸을수 있겠습니까?》

《가자요!》

또 한동안 아무말없이 걷기만했다. 마치 원쑤진사이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까닭모를 고까운 생각에 눈물이 쑥 솟구쳐오를 지경이였다.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고있는 이 사람, 바로 그와 부상당한 대원을 도와준 수련이였건만 그리도 기를 쓰며 앞서가다니!… 걸음마다 그에 대한 노염과 반감을 덧쌓으며 이를 옥물고 따라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먼데서 야밤의 길손을 부르는듯 하나의 작은 불빛이 가물거렸다. 불빛이다!… 수련은 마치 외할머니의 옛말에서 듣던 기괴한 불빛을 눈앞에 보는듯한 심정이였다. 옛말에서는 그런 불빛이 가물가물 멀어지다가 또 가까와지고 가까와지다가는 또 아득히 멀어지면서 불행한 길손들을 놀래우고 꼬드기며 정처없이 끌고가는것이였다. 그런데 얼마후 그 불빛은 둘, 셋으로 또 여라문개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슴조이는 옛말에서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웨침소리도 가늘게 들려왔다.

윤철이 먼저 걸음을 멈추었다.

《동물 찾고있군요.》

《?!…》

수련은 점점 더 또렷해지는 불뭉치들을 야릇한 심정으로 멀거니 보기만했다. 웬일인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맥없이 주저앉아버리고싶을뿐… 가까와오는 그 불빛들이 수련의 두눈을 따갑게 불태웠다. 웬일일가. 어째서 마음은 허전해지는것일가. 지금 내가 바라는것은 과연 무엇일가?…

《그럼…》 하고 윤철이 또 말했다. 《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

수련은 몸을 떨었다. 헤쳐진 목깃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땀이 밴 잔등을 작고 예리한 얼음침으로 콕콕 찔렀다.

윤철이 머뭇거렸다.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으면서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재이는듯했다. 그것은 무슨 말일가, 무엇을 더 말하려 하는것일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려는것일가?… 다시 윤철의 호흡이 거칠어지는듯했다. 목에 걸린 무엇을 꿀

꺽 삼키며 한발 다가섰는데 순간 수련은 또 한번 흠칫했다. 그 어떤 무서운 위험을 의식하면서 어둠속에서 번뜩이고있는 그의 두눈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윤철은 격한 숨결을 퍼부으며 이상해진 목소리로 나직이 그리고 매우 힘겹게 속삭이는것이였다.

《주소를 대주겠습니까?》

…

그때부터 윤철은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정찰소대에 대하여, 수련이 구원해준 전사(그의 이름은 림정산이라고 했다.)에 대하여 그리고 고향과 정든 동무들, 앞날의 소박한 희망에 대하여 써보냈다. 수련은 난생 처음 그 례사롭고 평범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총각의 편지를 남모르는 갖가지 의미와 뜻으로 해석해보며 읽군하였다. 물론 거기엔 아직 사랑이라던가 미칠듯한 그리움이라던가 하는 걸발린 정열의 표현들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 수수한 말들엔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거기엔 군복입은 한 젊은이의 가식을 모르는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꿈과 억센 성격이 들어있었다. 수련이도 편지를 썼다. 그러자 이번엔 윤철과 전사 림정산 그리고 숱한 정찰병들이 한꺼번에 편지를 보내여왔다. 부소대장 길덕수, 무선수 최윤두, 분대장 김광찬, 대원들인 장성부, 김명길… 낯모르는 그 전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소박했던가. 그들이 표시한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또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던가!… 그러던차에 윤철이 뜻밖에도 수도 평양에 들릴 기회를 가졌고 흔치 않게 차례진 그 기회를 놓칠수 없어 용기를 내여 수련의 집에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 달리 어머니의 랭대를 받고 문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편지를 통해 수련이가 약품접수차로 평양에 와있다는것을 알고왔는데도 없다고 했다. 그밖에 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아직 수련은 다는 모른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뜨끔하니 깨무는것 같이 속이 얼얼해난다. 반쯤 열린 문으로 머리만 내밀고 그와 몇마디 다급히 나누었을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가. 놀람이였을가, 분노였을가, 아니면 쓰디쓴 경멸이였을가?…

외할머니는 수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듣고나서 단마디로 이

렇게 말했다.

《난 그 사람이 좋구나！》

수련이 소리내여 웃기 시작하자 외할머니는 혀를 찼다.

《웃을 일이 아니야. 나두 네가 평양에 갔으문 해서 네 애비가 손을 쓰지 않는다구 욕두 했지만 이제 듣구보니 윤철이같이 좋은 사람을 놓칠수야 없지 않니. 언제 한번 같이 오려무나.》

《예？！》

수련이 놀라는것을 보고 외할머니는 웃었다.

《왜 그럼 안된다던？… 같이 와서 할아버지랑 만나보면 좋지 않겠니. 할아버지 성미엔 제창 약혼식을 하자구 할게다.》

《어마나！》

외할머니는 잠시 눈웃음치며 마주보다가 이어 정색해서 말했다.

《하긴 지금 그렇게 한다는건 새빠진 일이지. 지금 어느때라구… 너두 알겠지만 요새 또 정세가 대단히 험해진다더라.》

외할머니는 텔레비죤의 소리를 높였다.

《저 소릴 들어보렴.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구 또 지랄발광이구나.》

텔레비죤에서는 방송원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도발적인 전쟁책동에 대하여,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고있는 각종 군사장비들에 대하여 준렬히 단죄하고있었다.

외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암만 어째봐야 바위돌에 대못 박기지.》 하고 중얼거렸으나 수련은 잠자코 눈을 내리깔고있었다. 여전히 그의 생각은 다른데 가있었다. 그 어떤 엄중한 정세도 아직 수련에게는 불안과 아픔을 주지 않았다. 매해 계속되여온 침략과 전쟁의 위험도 아직은 수련이를 건드리지 않고 그를 스쳐갔던것이다.

이날밤 수련은 꿈을 꾸었다. 대학동창들과 같이 아버지가 타는 1만톤급 무역선 《무포》호에 올라 불빛 휘황한 어느 도시로 떠가는 꿈이였다. 그런데 아무리 조타를 돌려도 배는 빙그르 돌기만 할뿐 목적한 해안도시에로 곧추 나가지 않았다. 해안도시의 부두에서는 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어서 오라고 웨쳐대고있는데 그 곁에 서있는 아버지는 무엇때문인지 계속 웃기만 했다.…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다. 외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5

모든것이 추위에 얼어붙고 깊이 잠들어버린 그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북방의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수도에로 돌아가고계시였다.

새벽 3시였다. 승용차는 싸늘한 2월의 밤을 꿰지르며 바람과 같은 속도로 질주해갔다. 이따금 눈석임물이 흘러 얼어붙은곳을 지날때마다 길바닥에 깔린 얼음이 무거운 바퀴에 짓이겨지는 소리가 들릴뿐 텅빈 도로엔 오가는 차들도 거의나 볼수 없었다. 지상의 모든것이 굳잠속에 깊이 잠겨들었다. 이밤 수도에로 이어진 이 길우에서 움직이고있는것은 오직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뿐인듯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무릎우에 놓고 시창밖으로 눈길을 주시였다. 짙은 어둠속에서도 등성이쪽의 채 녹지 않은 눈더미들이며 경사진 밭들과 그 웃쪽에 어성버성 둘러앉아있는 다박솔들이 분간되시였다.

《이제 머지 않아 봄갈이를 시작해야 할텐데…》 하고 그이께서는 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아마도 이해의 봄은 몹시 어려울것이다. 어쩌면 생사가 판가름되는 엄혹한 봄으로 될수도 있다. 이해의 봄은！…》

지금 미국과 세계반동들은 이른바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올해 1993년에 들어오면서 핵문제는 전쟁을 몰아오는데까지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을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우리의 지지자,동정자들 속에서도 우려를 표시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에 왔던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공산주의로동자당 대표단의 실례가 바로 그러하다.

《사실 조선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선 성새입니다.》 하고 그들은 말했다. 《그런데 지금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형편에서 저희들은 커다란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김정일**동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핵대결전이 어떻게 결말짓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압살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당신께서 정세를 락관하고계시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진 조건에서 지금 조선은 거의나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왜 고립무원한 상태이겠습니까. 세계에는 우리의 벗들과 지지자, 동정자들이 많습니다. 가령 당신들만 해도 절대적인 우리의 지지자들 대오에 서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 또 우려됩니까?》

《지금 우리는 만전쟁을 통하여 기고만장해진 미국이 여기 조선반도에서도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지 않을가 하고 우려하고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 조국땅우엔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여전히 태연하신데 우리는…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군사적위력과 또…》

그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기술수단도 이것은 깨뜨릴수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더 명백히 알고싶거든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심과 락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이께서 믿고계시는 절대의 힘이였다. 지금 그이께서는 오늘 만나보신 기계공장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을

그들앞에 보여주고싶은 심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그곳 로동계급에게 종래의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적들의 봉쇄가 날을 따라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사실 우리의 형편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만난을 박차고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자면 동무들이 더 많은 기계를 만들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은 동무들을 믿고있다고 말씀하시였었다. 그러자 그들은 《장군님!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올해계획을 상반년안으로 넘쳐 수행하겠습니다. 적들이 봉쇄를 하건 제재를 하건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합니다.》 하고 가슴을 터치며 부르짖었다.

지배인과 기사장이 그렇게 말했고 3대혁명소조원과 젊은 선반공도 그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의 후방은 든든하다. 적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도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끄떡없다!…

그이께서는 무릎우에 놓고있던 문건을 다시 펴드시였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기자로 전선에 나갔다가 적들에게 체포된후 34년동안이나 철창속에 갇혀 옥고를 치른 리인모를 조국의 품에 데려오기 위한 대책안이였다.

리인모!… 인제는 온 세상에 알려져있는 불굴의 인간 리인모, 기나긴 세월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전향》을 거부한 리인모… 그이께서는 문건에서 눈길을 드시였다. 어느덧 시간의 흐름도 겹쌓인 피로도 다 잊으시였다. 고르롭게 울리는 발동소리, 가벼운 진동, 경쾌한 질주… 세월은 살같이 내닫고 사람의 한생도 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혁명가들은 순간에 불과한 그 삶을 홰불처럼 불태우려고 한다. 황황 불타는 그 삶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기쁨이여 영광이여
네 뼈마디에 마지막기름이 마르고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

옥중에서 리인모가 쓴 시의 한구절이다. 구겨진 한장의 종이도 없이, 모지라진 꽁다리연필도 하나 없이 꺾이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불길처럼 태워 심장속에 새겨놓은 시구절이다. 참으로 리인모야말로 시대의 영웅, 자랑스러운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이다. 하여 그의 삶과 투쟁은 곧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의 산 모범으로 되였다. 이제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 인민모두가 바로 그처럼, 불굴의 리인모와 같이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 이길것이다!…

그이께서는 문건표지에 리인모를 데려오기 위한 사업을 정치화하지 말고 인도주의적문제로 제기하여 세계적여론을 더욱 광범히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쓰시고 다시 눈길을 드시였다. 한순간 시창밖을 내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승용차가 달려가는 먼 앞쪽에서 가물거리는 하나의 불빛을 발견하시였다. 반디불같은 작은 불빛이였다. 무심히 스쳐버릴수도 있으련만 삼라만상이 잠들어있는 이 깊은 밤 유독 그 하나의 불빛만이 홀로 껌벅이고있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시였다.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껌벅이던 그 불빛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흔드시였다. 눈의 피로때문에 그만 잘못보았는가?… 하지만 잠시후 또 그 불빛이 나타났을 때 그이께서는 은연중 가벼운 미소를 띄우시였다. 그 불빛에 어떤 사연이 있을것 같은 예감이 드시였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이 쾌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맞받아 움직여오는듯했다. 잠시후엔 그것이 좀 더 뚜렷해졌다. 큰길에서 가까운 내가의 논판에 켜진 뜨락또르전조등이였는데 어째서인지 눈알 하나는 죽어있었다. 뜨락또르옆에서 몇사람이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하고있었다. 발갈이때도 아닌데 들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는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시였다.

《차를 세우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그러자 승용차는 속도를 죽이며 미

끄러져가다가 뜨락또르가 서있는 내가의 다리근처에서 소리없이 멎었다. 책임부관이 재빨리 말씀드렸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시원한 바람도 쐴겸 좀 나가보겠소.》

책임부관이 먼저 내려 문을 열고 털모자를 드리였지만 그이께서는 가벼운 손짓으로 그냥 두도록 하시였다.

어데선가 희미한 안개가 어둠속을 헤염쳐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뜨락또르가 퉁퉁거리고있는 논판의 두렁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책임부관이 서둘러 앞서가려고 하였지만 또 손을 들어 제지하시였다.

뜨락또르곁에서 걸이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시였다. 털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그저 목도리만 두른 사람도 있었다.

콕콕 찌르는듯한 랭기와 더불어 차고 눅눅한 안개속에서 두엄냄새가 풍겨왔다. 그이께서 다가가시자 일하던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털모자를 쓴 사람이 손에 낀 장갑을 벗어 바지무릎을 툭툭 치며 거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름을 나르고있습니다.》

늙은이의 목소리였다. 어둠속이여서 그이를 미처 알아뵙지 못했던것이다.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범상치 않은 그이의 음성에 놀라 모두 굳어지는듯하더니 다음 순간 거의 동시에 손에 들고있던 걸이대며 삽을 놓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니?!…》

낡은 개털모자를 쓴 늙은이가 먼저 이렇게 부르짖고는 황황히 두손을 솜옷앞자락에 문지르며 모자를 벗어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러자 함께 일하던 다른 두사람 역시 모자와 목에 감은 목도

리를 벗으며 어푸러질듯 앞으로 달려나왔다. 세사람 다 낡은 솜옷을 입고 커다란 솜신발을 신고있는 늙은이들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터럭이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거의 일시에 목멘 소리로 부르짖으며 늙은이들은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히 앞으로 나서며 그들을 일으키시였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자, 어서 모자를 쓰십시오.》

그러나 늙은이들은 모자를 쥔 손을 후들후들 떨고있을뿐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벅찬 감격에 그만 목이 꽉 메여버린듯했다. 그들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끓기 시작했는데 차디찬 별빛이 거기에서 부서지군하였다.

《자, 모자를 쓰십시오. 그러다 감기들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맨앞의 늙은이에게 먼저 모자를 씌워주시였다.

《성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 김윤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예, 박순호입니다.》

그다음 늙은이는 허만득이라고 했다. 모두 륙칠순을 넘겼음직한 늙은이들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놀라와하며 물으시였다. 《이 깊은 밤에 왜 로인들만 나와 일하십니까？》

그러자 김윤필이라고 한 제일 옹골차보이는 늙은이가 자기들이 지난해 모두 아홉명으로 로병분조를 뭇고 이 개펄논들을 새로 일구었는데 지금 여기에 거름을 실어나르는중이라고 대답올렸다. 김윤필이 바로 로병분조장이였다.

《로병분조라… 그러니 다들 전쟁에 참가한 로병들이란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 병사시절의 몸에 밴 습관이 남아있어서 늙은이들은 허리를 쭉 펴며 입을 모아 대답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더워지는 마음으로 그들모두를 한사람한

사람 여겨보시였다. 올해는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돐이 되는 해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지금 전쟁로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승 40돐을 빛나게 맞기 위해 로병분조, 로병작업반, 로병예술소조, 로병지원대 등을 뭇고 탄광과 광산, 농촌과 건설장 등지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다 바치고있다.

《그런데》 하고 그이께서는 김윤필에게 물으시였다.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낮에 실어내면 안됩니까?》

《저…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군 논밭이 사처에 널려있어서 거름을 실어내는 일이 제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뜨락또르신세를 져야 하는데 농장적으로 뜨락또르가 몇대밖엔 뛰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뜨락또르가 다 뛰지 못합니까?》

《저… 그건…》

《일없습니다. 어서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김윤필은 자기의 거쉰 탁성을 낮추어가며 힘들게 말씀드렸다. 《올해 농사에 쓸 기름공급량이 례년보다 퍽 줄어들었습니다. 여느때같으면 봄갈이를 앞두고 숱한 기름이 준비됐겠는데 지금은… 그전때의 절반량도 되나마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미국놈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를 어째보려구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 않습니까. 놈들이 점점 더 우리에 대해 제재를 가하구 봉쇄를 하기때문에 기름사정이 더 어려워지고있는줄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농장관리위원회에서는 숱한 뜨락또르들에다 기름을 주어 랑비하기보다는 그 수자를 줄여 공급해서 분한있게 쓰기루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부득불 밤에 거름을 실어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음-》 하고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였다. 《농번기가 멀지 않았는데 걱정이 많겠군요.》

《예, 걱정만 앞세우면서 올해 농사가 어렵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이 없고 뜨락또르가 뛰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

리 로병들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언제 이렇게 되였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음이 어린 시선으로 김윤필과 다른 두 늙은이를 여겨보시였다. 역시 로병들이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지금 이들은 적들이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의 일환으로 원유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온갖 수법으로 제재를 가하고있지만 그런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는듯하다. 이들이 걱정하는것은 적들의 책동이 심해지자 신심을 잃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다.

하늘에서는 두터운 구름장들이 떼지어 흘러갔다. 그 구름장들 틈새에서는 추위에 떠는 작은 별들이 파란 눈으로 지상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가까운데서 소리를 낮추었던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웬일인지 별안간 더 크게 울리는듯하였다. 그러자 가슴을 조이며 그이를 우러르고있던 김윤필이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으며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름이 모자라면 송탄유를 뽑아써도 됩니다. 벌써 그런 론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당책임비서동무가 어떻게 하나 군자체의 힘으로 풀어보자면서 송탄유를 잘 정제하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송탄유도 뽑아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소로 밭을 갈고 달구지로 거름을 실어내면서라도 기어이 올해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소로 밭을 간단말이지요. 소로 밭을 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김윤필이 흥분어린 목소리로 또 말씀드렸다. 《지금 놈들이 자꾸 봉쇄를 하구 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자구 하는 때 기름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기만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설사 기름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농사일은 저희들이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 농사일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곁에 서있던 두 늙은이도 《정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농사일은 저희들이 다 맡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불현듯 그이께서는 뜨거운 물결이 가슴속으로 넘치게 흘러드는것을 느끼시였다. 인제는 뜨끈한 아래목에 앉아 대접을 받으며

쉬여도 되련만 자기들끼리 로병분조를 뭇고 새로 일군 개펄논에 거름을 실어나르는 이들, 흙과 두엄에 게발린 허름한 솜옷을 입고 커다란 솜신발을 신고있는 이 후주른해보이는 수수한 공로자들을 더 아끼고 더 위해주고 더 내세워주고싶으시였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늙은이들의 주름깊은 눈가에도 눈물이 즐펀해졌다. 김윤필이 또 일동을 대표하여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그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만을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처럼 늦은 밤길을 가시니… 가슴이 막 쓰리고 저려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쿨진 그의 손을 힘주어 잡으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로병동무들의 그 마음이 있어 저는 건강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분들을 만나 알게 되여 정말 기쁘고 힘이 솟습니다. 그저 부탁하고싶은것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이께서는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후날 꼭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수도에로의 먼길을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모자를 벗어들고 깊숙이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던 늙은이들이 마구 덤벼치며 따라오는것이 알렸다. 어둠속에서 목메여 부르짖으며 차를 따라 달려오다가 또 허리굽혀 인사를 드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어둠속 멀리에 영영 묻혀버릴 때까지 그냥 되돌아보시였다. 그들의 모습은 멀리 뒤에 남았어도 그들이 올린 진정에 넘친 말들은 끝없는 속삭임처럼 여전히 귀가에 울려오는듯 느껴지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곧 정무원(당시)총리를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 시각 총리는 단천지구에 나가있었다. 잠시후 전화가 련결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철강재와 아연, 세멘트 및 마그네샤크

링카의 수출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정무원총리가 늘어나는 수출물자의 납입기일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김철과 검덕, 단천 지구를 돌아보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신때문이였다.

총리로부터 그에 대한 자상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지난밤 내가 한 농촌마을의 전쟁로병들을 만나보았는데 지금 농업부문에 대한 기름공급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기름사정이 날로 긴장해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지만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부문에서 기름이 부족된다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리동무, 어떻게 되여 원유수입이 지연되고있습니까?》

예견하신바 그대로 총리는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로씨야로부터의 수입이 지연되고있는데다가 적들이 전략물자들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실정에서》 하고 총리는 말을 갑자르며 계속하였다. 《계획했던 원유수입이 난관에 봉착하고있는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하여 어떤 원유수출국들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손에 들고있는 송수화기를 꽉꽉 누르시였다.

《내가 알고싶은것은 정무원에서 어떤 대책을 취하고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무원에서는 우리와 계약한 나라 정부와 회사들에 실무대표들을 다시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유조선임대조직도 하면서 특히는 대륙을 통한 수송조직에 힘을 넣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언제면 긴장이 풀릴것 같습니까?》

총리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종래의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지고 적들의 봉쇄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현시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함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으시였다.

《좋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실무대표단을 파견하는것과 동시에 무역선들

을 총 출동시켜야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있는데 기름사정으로 봄갈이가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봄에 온 나라 들판에서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리동무,어떻습니까. 적들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광분할수록 더욱더 배심든든하게 사업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나라 들판에서 이전보다 더 높이 발동소리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에 젖은 총리의 목소리가 공명판을 지릉지릉 울리고있었다.

전화가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나날이 악화되고있는 정세에 대한 생각이시였다. 《팀 스피리트》,《봉쇄》,《제재》라는 낱말들이 서로 엇갈리고 고패치며 떠오르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모든 《고립》과 《압살》책동의 근원으로 되는 핵문제는 바야흐로 폭발전야에 있다.

이제 얼마후에 있게 될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를 계기로 미국과 그에 야합한 세계반동들은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지금 외교부동무들은 관건적인 이 관리리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있는가？…)

6

문선규일행이 평양역사에 내렸을 때는 새벽이였다. 두대의 승용차가 그들을 마중나와있었다. 문선규는 장운성을 불러 자기 차에 오르게 하고 원자력공업부 실무일군들은 다른 차로 떠나도록 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집을 나섰을 사람들과 렬차에서 금시 내린 손님들이 궤도전차나 뻐스정류소쪽으로 흩어져갈뿐 대통로 저 한끝까지도 거의나 인적이 없었다. 아빠트의

창문들에서는 금시 동자질을 시작한 녀인들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불과 몇사람만을 태운 첫 궤도전차가 급행렬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불이 환한 차창들이 언뜻거리며 눈앞을 지나가자 승용차는 창광거리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때에야 문선규는 운전사가 자기 집쪽으로 차를 몰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곧장 청사로 가기요!》

《예.》

운전사를 대신하여 장운성이 대답했다.

승용차가 좀더 앞으로 나가자 문선규는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왼쪽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빠트 7층에 그의 집이 있다. 그런데 유독 그의 집에서만 아직 불을 켜고있지 않다. 웬일일가?… 이미 승용차는 방향을 바꾸었고 그는 시야에서 그것을 놓쳐버렸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은것은 아닐가?… 말이 적고 온순하고 늘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안해, 아빠트에서 제일먼저 불을 켜고 제일 늦게 불을 끄는 안해였다.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도 남편이 들어오기전에는 절대 자리를 펴고 눕지 않았다. 혹간 문선규가 집에 알리지 않고 출장을 가면 장밤 한자리에 앉아 무릎우에 머리를 떨군채 새벽까지 기다리군하였다. 그러지 말라고 몇번 말했어도 그저 조용히 웃어버릴뿐이였다. 그것은 결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출발한 맹목적관습이 아니라 본래 성정이 그러했기때문이였다. 처녀시절에도 그러했었다. 사회안전부(당시)의 한 통신초소에서 근무하던 그 시절의 김성희, 그를 알게 된것은 어느 한 철길공사장에서였다. 어언 30년 세월이 흘러간 60년대초의 일이다.

그때 대학생이였던 문선규는 방학기간을 철길공사장에서 보내고있었다. 쾌활하고 통질이 세찬 편이였던 그 시절의 문선규의 눈에 비친 김성희는 그저 일밖에 모르는 복스럽게 생긴 한 처녀지원자였을뿐이였다. 속보에도 별로 난것 같지 않다. 흔히 온화하고 부끄럼 잘 타는 처녀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특히 건설장에서는!… 아마도 그것은 들끓는 전투장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처녀들, 웃고 떠들기 좋아하고 성미도 걸싼 처녀들의 소란스러운 인상에 가리워 빛을 잃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시절의

성희는 그런것에는 아무 미련도 없는듯 여전히 조용히 제 할일만 했다.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았고 남들이 다 쉬는 때에도 식당일을 돕거나 벌찬 남자들의 빨래를 한버치씩 안고 나가군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 처녀 성희가 눈석임물로 불어난 얼음같이 찬 강물에 뛰여들었던것이다. 얼마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그때 강기슭에서 빨래를 하고있던 성희는 그만 누군가의 내의가 물에 떠내려가는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갔다고 한다. 얼음장이 둥둥 떠가는 강물은 점차 깊어지면서 금시 처녀를 휩쓸어버릴듯했다. 사람들이 놀라 사방에서 달려왔다. 어서 빨리 나오라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그러나 성희는 두터운 얼음장에 떠박질리우면서도 끝내 빨래를 건져내고야말았다. 중대장이 달려와 성이 나서 고함쳤다.

《동무, 정신이 있소? 그따위 빨래가 다 뭐요, 응? 그러다 죽자구 그래?!》

그것은 그저 고함소리인것이 아니라 억이 막힌 울부짖음소리 같았다. 처녀는 아무말도 못하고 젖은 빨래를 꽉 껴안은채 와들와들 떨고만 있을뿐이였다. 그때 문선규는 처녀를 둘러싼 사람들속에서 놀라운 심정으로 처녀의 그 두눈을, 겁에 질린듯 얼어붙은 땅바닥에 줄금줄금 떨어져내리는 물방울만 보고있는 그 순진하고 애처로운 두눈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언제나 말없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해오던 그 처녀를 새삼스럽게 보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덧 방학이 끝나 문선규는 대학으로 돌아왔고 다시금 학업에 몰두하였다. 언제나 학과실력에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였던것이다. 그 처녀도 곧 잊혀졌다. 어떤 우연만 아니라면 영영 그렇게 잊고말았을것이다.

4년세월이 흘렀다. 자기 직무에 극성인 문선규는 가정을 이룰 생각도 잊고있는듯했다.

녀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다. 어느날 시안전국에서 일하는 매부가 그를 찾아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형님, 형수될 사람을 골라봤는데 보시우.》

문선규는 물론 코웃음쳤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 형님, 그저 보기만 하라는데！》

검질긴 매부를 당해내는수가 없었다. 그가 내밀어준 사진 넉장을 대충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도로 넘겨주었다. 네번째 사진마저 그렇게 넘겨주려다가 그만 다시 들여다보았다. 가만, 낯익은 처녀인데 어데서 봤더라？！… 매부가 소리쳤다.

《형님 왜 그러시우, 이건 다 한사람인데！》

《？！…》

한순간 어떤 기억이 머리속에서 번개쳤다. 웃고있는 그 얼굴, 웃는다기보다 꿈을 꾸는듯 조용히 미소를 떠고있는 그 얼굴, 얼음장에 떠박질리우면서도 끝내 빨래를 건져내던 그 처녀… 순간 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것은 무엇이였던가. 뜻하지 않게 다시 보게 된 그 낯익은 모습에 대한 반가움이였던가, 놀라움이였던가, 기쁨이였던가. 아니면 혹시…

차가 멎었다. 어느덧 외교부청사앞에 이른것이다.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문선규는 핵상무조성원들인 순회대사 최우정, 국장 장운성, 과장 김수일 그리고 조국에 와있는 유엔주재부대표 허송 등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였다. 지금 유럽에 가있는 김세환참사도 포함하여 지난해에 조직된 이 핵상무조야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후일 《나의 정예팀》, 《외교부의 두뇌진》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전투조로서 첫걸음부터 긴장한 사업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대적투쟁의 제일선에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될것인지, 그 길에서 얼마나 큰 환희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것인지다는 알지 못하고있었다. 지금 그들은 핵대결전의 첫단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라는 심각한 전투를 준비하고있었다.

드디여 문건준비가 다 끝났다. 회의에서 할 연설문들, 검증자료, 기자회견, 기구내 일부 불순분자들을 제압하고 지지자, 동정자들과 할 사업 등도 빈틈없이 준비되였다. 그런데 이 문건들을 연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가야 할 김세환참사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일정대로 하면 김세환일행은 브라찌슬라바에서 기

차로 모스크바를 향해 가는중이겠는데… 그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보고가 왜 아직 오지 않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것이나 아닌지 하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문선규는 장운성국장에게 말했다.

《즉시 쁘라하에 전보를 쳐서 김세환참사의 보고가 왜 늦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예, 이미 준비해놓았습니다.》

전보문이 적힌 종이를 내밀며 장운성이 하는 말이였다. 문선규는 매사에 빈틈이 없고 치밀한 그를 믿음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소리없이 문이 열리며 서기가 들어왔다. 문선규는 급히 물었다.

《쁘라하에서 온 소식이요?》

《저…》 서기가 난처해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쁘라하에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국제원자력기구총국장이 방금 텔렉스로 보내온 전문입니다.》

《기구총국장이?… 봅시다!》

그는 단숨에 전문을 읽었다. 차츰 그의 눈길이 꿋꿋해졌다. 성급하게 안경을 바로잡으며 또 한번 전문을 훑고나서 그것을 내던지다싶이했다. 참을길 없는 분노에 그의 얼굴은 불깃해지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책상우에 던져버렸던 전문을 핵상무조성원들에게 밀어주었다.

《보시오, 기구총국장이 뭐라 했는가!》

국제원자력기구총국장 한스 블릭스는 전문에서 이번의 2월관리리사회에서 우리의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이 결단코 《결의》되리라는것, 따라서 《귀국대표단이 그것을 수용하는 답을 가져오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만일 그것이 거부될 경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며 《국제적제재》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가소로운짓이다. 국제기구의 한 책임자로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삿대질이다. 전문을 읽은 핵상무조성원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특히 한스 블릭스와 직접 회담을 하면서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에 대하여 오금을 박은바 있는 장운성은 격하여 부르짖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 기구것들이 이렇게까지 오만무례해

지다니!》

문선규는 서랍을 열고 담배갑에서 한대 뽑아들었으나 도로 밀어넣고말았다. 한스 블릭스, 그는 언제부터 미국의 하수인으로 되여버렸는가?… 공정성을 절대의 기준으로 삼는 진정한 외교관이라고 우쭐대던 그가?…

문선규는 1991년 유엔총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길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 들려 그와 만났던 일을 회상하였다. 한스 블릭스가 한번 꼭 만나고싶다 하여 우정 시간을 냈던것이다. 그때 그가 문선규를 기어이 만나려 했던것은 당시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도 조약에 가입한후 1년 6개월이내에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게 되여있었지만 계속 그것을 미루어왔으므로 그들이 안달복달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날 문선규는 윈의 서쪽 베크만 카쎄거리에 있는 우리 대표부로부터 차를 타고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하고 조약에 가입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겠는가 하는것만을 줄곧 생각하였다.

대표부로부터 기구청사까지는 약 20키로, 자동차로 30분쯤 걸린다. 동행한 오스트리아주재 우리 대사가 고색창연한 윈의 거리풍경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는 거의나 귀담아듣지 않고 있었다. 유명한 마리아 떼레자궁전이며 모짜르트동상, 대통령궁전과 국회청사, 시청사들이 시창밖으로 흘러갔다.

두나이강다리를 건너자 기구청사가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공업개발기구(유니도)와 함께 21층으로 된 한 청사를 갈라쓰고있었다.

1층홀 안내소앞에 기구부총국장과 대외부장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외교적인사를 나눈 다음 같이 승강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 총국장실로 들어갔다. 기구총국장 한스 블릭스가 서기실에까지 마주나와 정중하게 그를 맞이하였다.

그는 주의깊게 기구총국장을 관찰하였다. 스웨리예인인 한스 블릭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철학박사,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은후 스웨리예 외무성의 법률고문, 국무비서를 거쳐 외무상까지 한 경력을 가진 전형적인 외교관이였다.

외교술이 능한 한스 블릭스 역시 조선의 외교사절들을 좌석에 안내하면서 주의깊이 문선규를 살피고있었다. 그러나 그때 문선규는 그가 무엇때문인지 약간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것을 간파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이래 몇해째나 계속 문제의 핵담보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강경한 나라의 외교관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눌러놓을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는듯하였다.

자리에 앉자 문선규는 기구총국장이 입을 열기전에 먼저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번에 우리에 대한 기구의 부당한 압력에 엄중히 항의하려고 왔습니다.》

《？！…》

한스 블릭스는 대번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아직 의례적인 인사말도 미처 나누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은 외교관례상 류례가 드문 일이였다.

문선규는 그가 미처 말귀도 고르기전에 또 들이대였다.

《기구는 어째서 우리에게 차별적인 협정문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표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아, 가만가만… 이거 너무 급작스러워서… 좀…》

한스 블릭스는 재빨리 생각을 굴리는것 같았다. 그는 문선규의 이 단도직입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히려 그편이 더 낫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였을것이다. 판에 박은 서두의 인사치레야 무슨 대수겠는가. 그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정당당한 사람이라면 지루하고 듣기 거북한 긴 설명이 필요되지 않는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직방 본론에 들어가는 법이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있습니다.》 하고 그는 재빠른 말씨로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시작이 마음에 듭니다.》

문선규는 여전히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의 립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조약국장이 와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때 우리 조약국장이 기구와의 협상에서 담보협정체결을 위한 조건과 환경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납니다. 조건과 환경문제！…》

《그런데 어떻게 되여 기구는 우리에게 차별적인 협정문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국제법규들에 무식하고 자기의 존엄도 지킬줄 모르는 숙맥으로 알았습니까？》

그가 말한 차별적인 협정문이란 핵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나 적용되는 문건으로서 핵시설과 설비들까지 다 통제할것을 목적한것이였다. 조약가입국들은 핵물질에 대한 사찰만 받게 되여있었으므로 문선규는 그에 대해 강하게 추궁한것이였다.

한스 블릭스는 장대한 체구를 움쭉거리며 연방 두손을 쩍 벌려보이군했다.

《그것은 정말 우연적인 실수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이 말에 문선규는 랭소를 띠였다.

《실수라구요？ 아니 그것은 의도적인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중떠보려는 시도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었습니다.》

《아아 이런！…》 하고 그는 바빠맞아서 얼굴이 벌개졌다. 《실수했습니다, 실수！ 우리 일군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였던것입니다. 나는 귀국에서 항의해올 때까지 그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귀국정부에 사죄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앞으로 보낸 그 편지말입니다. 받아보셨지요？… 그래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문선규가 딱딱하게 잘라말하자 한스 블릭스는 또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그밖에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담보가 또 있어야 하는가말입니다.》

그리하여 문선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대였다. 담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이다, 우리가 조약에 가입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런데 기구는 계속 담보협정에 서명할것만 강박하고있다, 기구는 이제라도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와나서야 할것이다, 미국을 심판석에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자 한스 블릭스의 굳어졌던 얼굴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결국 날카로운 공격의 창끝이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미국에 향해진것을 알고 통쾌해하는듯했다.
《아아, 알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귀국정부의 의사를 솔직하게 말해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 그는 소리없이 웃으며 슬쩍 이렇게 물었다.
《귀국의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직통배기입니까?》
문선규가 반문했다.
《왜, 그것이 마음에 안듭니까?》
《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솔직하고 아주 명백한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외교라고 하면 좋겠는지…》
문선규는 소리내여 웃고말았다.
흔히 사람들은 어느 한 나라의 외교를 특징지을 때 그 나라의 저명한 외교관들의 이름 및 그 성격적특질과 결부시키군했다. 례하면 딸레랑에 의한 프랑스식 웅변과 설득외교, 비스마르크식 도이췰란드의 철의 외교, 쳐칠식 영국의 타산외교, 마쯔오까식 일본의 간계외교, 몰로또브식 이전 쏘련의 침묵의 고압외교… 하다면 우리 당의 자주외교는 무엇으로 특징지을수 있는가?… 두말할것 없이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에 시원을 둔 맞받아나가는 공격외교이다.
물론 이것은 문선규의 마음속 생각일따름이였다. 그는 느슨한 미소를 띠우고있는 한스 블릭스를 눈여겨보며 공격을 늦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우리는 기구가 공정성과 진리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점에 서있다, 기구가 발을 헛디디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한스 블릭스가 물었다.
《발을 헛디딘다는 당신의 표현을 어떻게 리해하면 좋을지?》
문선규는 그것이 미국에 편승하여 그의 꼭두각시가 되는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 그럴리야！》 하고 한스 블릭스는 재빨리 말했다. 《기구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부속물이 아니니 절대 안심하십시오. 구약성서의 〈시편〉에 이런 시구절이 있지요. 〈예루살렘이여, 내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내 손을 짓조겨주사이다.〉 나는 그것을 〈공정성이여, 내 만약 그것을 잊는다면 내 손을 짓조겨주사이다.〉 이렇게 말하고싶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1991년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하고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도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담보협정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우리 나라에 온 한스 블릭스는 문선규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다섯차례의 사찰결과에 대해 《아주 만족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립적원자력공업을 창설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했다. 돌아가는 도중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때에도 그의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였다. 그때 어느 한 서방나라 기자가 《당신이 북조선방문기간 녕변에 있는 핵 시설과 설비들을 다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미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북조선에서는 순수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개발사업을 하고있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었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말부터 갑자기 미국이 제공한 그 무슨 《정보자료》요 뭐요 하면서 소동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제는 무례한 삿대질까지 꺼리지 않고있다. 《공정성이여, 내 만약 그것을 잊는다면》 하고 통속극의 배우처럼 두팔 벌려 읊조리던 한스 블릭스, 그 역시 미국의 시녀로 전락되고말았는가？！…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외교부장이였다. 외교부장은 례의 그 담담한 목소리로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수행하게 될 사업과 관련한 문건준비가 다 끝났는가고 물었다. 그 문건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기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예, 다 준비되였습니다.》 하고 문선규는 대답했다. 《곧 가지고 가겠습니다.》

외교부장은 문선규가 가져온 문건을 주의깊게 두세번 읽고나

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고했습니다. 나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회의에서 할 우리 대표단단장의 연설내용이 론거가 명백하고 분석이 예리한것이 마음에 듭니다.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립시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리사회 유럽성원국들의 동향자료도 같이 보고드리면 좋겠는데 김세환참사동무한테선 소식이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소식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마지막 로정인 체스꼬일정에 대한 보고가 아직 오지 않고있습니다.》

《?!…》

외교부장도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였다. 다년간 외교활동에 종사해온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김세환의 일솜씨와 정확성을 잘 알고있는 그였던것이다.

《가만.》 하고 외교부장이 문득 생각난듯 말했다.

《마지막 로정이 어디라구요?》

《예, 브라찌슬라바에서 렬차로 모스크바를 향해 가기로 되여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나라 국경을 통과했을것입니다.》

《가만, 가만… 브라찌슬라바라니?… 좀전에 그곳에서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브라찌슬라바—모스크바행렬차에서 우리 일군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있었다던데 혹시…》

《예?》

문선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분명 우리 나라 대표단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외교부장은 탁상일력에 적어넣은 글줄을 눈여겨보며 계속했다. 《남조선 안기부놈들이라고 짐작되는 사나이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랍치하려 했다고 합니다. 국제렬차에서는 보기드문 폭행사건이라고 하던데 우리 참사일행을 노린게 아닌지… 빨리 그 전말을 알아보라고 했으니 소식을 기다려봅시다.》

《…》

어느새 문선규의 낯빛은 어두워지고있었다. 김세환일행이 떠나갈 때 최근의 정세발전에 비추어 각별히 조심하며 일체 일정을 비밀에 붙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어도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나

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였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증대되는 압력에 편승하여 인제는 남조선괴뢰들까지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핵문제가 예상외의 치렬한 투쟁으로 번져지리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좋다！)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격렬한 투쟁을 벌리자. 우리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자.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치렬한 투쟁무대로 만들자！)

그는 한시바삐 자기들이 준비한 문건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리고싶었다. 가능하면 자기가 직접 가지고가서 보고드리고싶은 생각이였다. 그러나 외교부장은 가볍게 머리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밤에 현지지도의 먼길을 다녀오시고도 지금 중요한 군사회의를 지도하고계신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 한끝을 톡톡 두드리더니 힘들게 말을 이었다.

《1부부장동무, 아직 집에는 들려보지 않았지요？》

《예, 역에서 곧장 여기로 오다보니…》

《어제밤 1부부장동무가 없는새에 부인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예？》

《병이 몹시 중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담낭열줄기염증이라던데… 아니 여태 그걸 모르고있었습니까？》

《？…》

그는 대답을 못했다. 버릇처럼 안경을 밀어올리며 못박힌듯 서있을뿐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언제 한번 누워있는걸 보지 못했는데？… 이따금 병색이 짙은 안해의 얼굴을 놀라서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안해는 스스럼없이 웃으며 감기라거나 사소한 몸살정도라고 말하군했었다. 그런데 그토록 병이 중해졌다니？… 어느덧 태양이 높이 솟아 맞은편 인민대학습당의 창문들이 해빛에 번쩍이고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어수선했고 눈확언저리엔 어두운 그늘이 비끼고있었다.

7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커다란 작전도를 마주하고 쏘파에 앉아계시였다. 한쪽 벽면을 거의나 채운 그 특대형지도는 동쪽으로는 일본전토를, 남으로는 괌도까지를 포괄하고있었다.

그이의 왼쪽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오른쪽에는 총참모장 최광이 숙연히 앉아있었고 지도앞에서는 작전국장이 현단계의 군사정세에 대한 정황보고를 하고있었다. 그는 지도를 짚어가며 적들이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에 동원하고있는 무력과 장비들 그리고 그 움직임 등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하였다.

겉보기에 그는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였다. 어깨우의 장령별만 아니라면 그는 진지한 학구적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하여 교육자나 외교일군형으로 보였을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는 엄격하고 영민하고 또 담찬 사람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남다른 분석력과 기억력 그리고 작전전략적문제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는 널리 공개되지 않는 나라의 중요 특수부문 책임일군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의 사업과 활동은 다 극비의 문제들과 직결되여있는것이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젠가 우스개말씀처럼 작전국장은 집에 들어가서도 일체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였었다.

《이상과 같이 지금 적들은 3월초까지 작전장비들과 물자의 반입을 끝내기 위하여 대대적인 수송작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월 8일 미국본토로부터 무착륙비행으로 날아든 미군륙전대가 포항근처에 락하하게 되며 이것으로써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지시봉을 곧추 세우고 마치 그것으로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기라도 하는듯 계속하였다.

《그런데 간과할수 없는것은 지금까지 〈군대가 있는 한 훈련

도 있다〉고 하면서 〈팀〉연습을 〈년례행사〉라고 주장해오던 미제가 이번에는 은페된 훈련으로써 일체 참가병력수와 무장장비를 비밀에 붙이고있는 그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처음으로 물으시였다.

《작전 형식과 방법도 아직 비공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적들은 작전형식을 세개단계, 전략적인 기동, 쌍방야외훈련, 전략적인 복귀단계로 진행하였지만 이번엔 달리할것으로 예견됩니다. 군사소식통들에 의하면 올해엔 지휘참모연습을 주되는 과제로 할것이라고 합니다.》

《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른손으로 옆탁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심상치 않소. 적들이 지휘참모연습에 모를 박는다는것은 그저 스쳐지날 일이 아니요.》

또다시 침묵, 그이께서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최광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어떻습니까. 총참모부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분석평가하고있습니까?》

최광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려 하자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굳이 자리에 앉게 하시였다. 최광은 자리에 앉아 두손을 깍지껴잡으며 침착하게 말씀드렸다.

《지휘참모연습을 기본으로 한다는것은 유사시 다시말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지휘관참모부들이 다 현지에 있으므로 직접 현지지휘에로 넘어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하고 오진우가 그의 말을 받았다.

《정말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격한 흥분으로 해서인지 이그러져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재빨리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벌써 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그 무엇을 감촉하신때문이였다. 그러자 오진우는 그이의 눈길을 짐짓 못느낀체 하며 입을 꾹 다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입귀가 가늘게 떨리고있는것을 스쳐보시면서 얼마전부터 우려하던 무력부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간파하시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작전국장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계속하시오.》

작전국장이 또 허리를 꼿꼿이 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근 정찰국에서는 이번 〈팀〉연습에 배비될것으로 예견되는 적들의 고도기술무기에 대한 위성통신자료들을 종합편집하였습니다.》

《봅시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작전국장은 지도앞에서 물러나 그이께서 앉아계신 쏘파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후 실내등이 서서히 꺼지면서 영사막에 《위성통신자료 №17》이라는 글발에 이어 처음 우주공간에 떠있는 위성이 나타났다. 해설록음이 울렸다.

《지금 보시는것은 미제의 레이다 정찰위성 〈라글로스〉입니다. 이전 와르샤와조약기구 군대들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궤도위성으로서 구름을 뚫고 야밤에도 화상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전쟁때 이라크의 이동식 스쿠드미싸일발사대의 행방을 탐지하는데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것은 전자정보수집위성 〈엘린트〉입니다. 정지위성입니다.》

뒤이어 화면에는 페르샤만해상에 떠있는 《이지스》급 순양함과 전함들이 나타났다. 함선들에서 커다란 불덩이들이 지상을 향해 날아가고있다.

《만전쟁때 처음 실전에 사용한 순항미싸일입니다. 이라크측에서는 이 순항미싸일에 대한 방어가 거의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군사평론가들은 비행대의 공습과 이 순항미싸일타격이 만전쟁의 전국을 결정하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순항미싸일들이 날아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있다. 이라크의 지휘소건물들, 미싸일기지, 중요비행장, 중요통신쎈터 등이 폭발

의 화염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송두리채 날아나버리고있다. 파괴와 살륙의 참혹한 전경은 한동안 더 계속되였다.…

이윽고 화면에는 물결을 헤가르며 움직이는 초대형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나타났다. 미해군 최대의 화력과 장비를 갖춘 6만톤급함선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팔을 가슴우에 엇결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금 미제는 우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핵공격수단을 저 함선들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싸일로 보고있다. 만전쟁에서 그 위세를 유감없이 떨쳤다는 토마호크순항미싸일, 그것이야말로 미제의 정치적지레대, 외교적지팽이, 군사적몽둥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저 초대형항공모함도 불침의 함선인가?…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흥미있게 읽으신적이 있는 자료중의 하나를 상기하시였다. 그것은 어느해 미국회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때 있은 미국회 상원의원 위렌 프록스멜과 해군제독 리크프의 일문일답이였다.

상원의원 ; 지난해 미국방성은 60억딸라라는 재정예산으로 두척의 핵동력항공모함을 건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수에는 비행기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비행기들의 비용 역시 60억딸라를 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거액의 비용을 들인 항공모함들이 쏘련과 (쏘련 붕괴전이였다.)의 전쟁에 들어간다면 얼마동안이나 유지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군제독 ; 한 이틀동안은 유지될것입니다.

△ 장내에서 비명소리, 휘파람소리.

상원의원 ; 도무지 이틀동안?… 그게 사실입니까?

해군제독 ; 그렇습니다. 탄도미싸일을 사용하는 경우엔 항공모함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탄도미싸일은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쏘련뿐만아니라

그러한 미싸일을 가지고있거나 개발하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미제의 군사적몽둥이도 만능은 아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때 화면에는 주둥이가 뭉툭한 비행기가 나타났다.

《지금 보시는것은 최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날아다니는 넝에〉 혹은 〈핵까마귀〉라고 불리우는 미제의 전략폭격기 〈비—1비〉입니다. 38발까지의 핵폭탄을 적재할수 있다고 하는데 폭탄을 만재했을 때의 최대중량은 216.4톤입니다. 비행기의 총 길이는 41.7메터,두 날개의 폭은 23.8메터이며 항속거리는 1만 2천키로메터로서 공중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최근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미제는 저 전략폭격기를 이번의 《팀》훈련에 처음 배비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심상치 않다. 단순한 무력시위나 위협과 공갈을 위해서만 저 《핵까마귀》를 날려보내지는 않을것이다. …

전략폭격기가 사라지자 이번엔 낙지모양의 비행기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스텔스전투폭격기 《에프—117에이》이다.

《이 비행기의 최대중량은 약 24톤,로케트와 함께 핵폭탄도 적재할수 있습니다. 대공감시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술을 장비한것으로서 미제가 만전쟁때 실전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주었다고 자랑하는 비행기입니다.》

스텔스전투기들이 중동의 사막상공을 썰고있다. 전투기에서 발사한 로케트들이 지상에서 련속적으로 폭발하며 창끝같은 섬광을 번뜩이고있다. 또다시 하늘을 썰며 선회하는 전투기들…

《그만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화면이 멎고 불이 켜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작전도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거기에는 적들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한 우리측 타격집단의 훈련계획도 반영되여있었다.

그러나 실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에도 저 훈련계획이 그대로 적용되겠는가?… 실지 전쟁에서는 변화무쌍한 정황들과 엄중한 국면들이 수시로 나타나므로 아무리 훈련계획을 면밀히 세운다 해도 발생할수 있는 온갖 정황을 다 반영할수는 없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이윽토록 지도의 한점을 응시하고계시다가 천천히 뒤쪽에 서있는 세사람을 돌아보시였다.

《적들이 〈팀〉연습을 재개하고 종래와 달리 그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그 속심이 어디에 있는것 같습니까. 무력공갈로 〈핵문제〉에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는것인가?…》

아무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한동안 괴롭게 숨길을 톺고있던 오진우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번엔 전쟁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정세는 지금… 만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최광이 안경을 바로잡으며 침착하게 말씀드렸다. 《사실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고 공식발표하기전부터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왔습니다. 정찰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괌도와 오끼나와 그리고 일본각지의 여러 병참기지와 남조선기지들에는 이미 각종 고도기술무기들과 전략물자들이 대량 수송되였습니다. 한편 적들은 집요하게 녕변폭격설을 내돌리고있는데 이것은 적들이 전쟁의 구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적들은 전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는 장황하게 적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총참모장다운 확고한 판단과 분석에 기초하여 이렇듯 마디마디 무게있게 그리고 확신에 넘쳐 말씀드린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혁명가, 로투사들인 오진우와 최광을 바라보며 나직이 혼자말씀같이 뇌이시였다.

《그러니 전쟁은 불가피하단말이지… 전쟁이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 또 최광에게 물으시였다.

《총참모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하고있습니까?》

《예, 총참모부에서는》 하고 최광은 여전히 서둘지 않고 묵직한 음성으로 힘주어 말씀드렸다. 《이미 작전국장동무가 보고드린 작전전술적방안들을 검토한외에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10만 장병들을 소환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10만 장병?》

《예, 지금 수도건설을 비롯하여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 평양—개성간 대도로 등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10만 장병들까지 진지를 차지하면 전군의 전투준비는 완비됩니다. 그러면 적들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반격을 가하고 이 기회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광의 말이 끝나자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있던 오진우가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서둘러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결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고있습니다!》

흥분어린 그의 목소리가 강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방안은 엄숙한 정적에 잠겼다. 금시 누군가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웨칠것 같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거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오진우며 최광, 그들은 다같이 어린 나이에 벌써 총을 메고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 뛰여들었다. 그 나날에 혁명군대의 지휘관으로 자라났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엔 사단을 지휘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치르어온 이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조국통일을 위한 결전은 필생의 사명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대에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죽을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하기에 지금 이들은 적들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경우 그것을 조국통일의 성전으로 만들 불타는 결심을 다지고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전도앞에서 대형사판에까지 몇걸음 옮기시였다. 박두해오고있는 전쟁, 《팀 스피리트》, 10만 장병 소환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결전 등 많은 생각들이 순차도 없이 한꺼번에 떠오르시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 앞서 분석, 판단해야 할 초미

의 문제가 있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기신 어조로 또 조용히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이께서 묻는듯한 시선으로 작전국장을 돌아보시자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입술을 감빨았다. 그 누구보다도 작전국장인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물으심에 정확한 답을 올려야 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세계의 전쟁사는 이러저러한 대규모의 전투 혹은 전쟁이 언제 어느날 어데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것을 제때에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여 막대한 희생을 냈거나 만회할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무수한 실례를 전하고있다.

가까운 실례로 만전쟁때 이라크는 미국주도하의 다국적군이 언제 어느날 어떻게 전면공격을 개시할것인지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여 전쟁의 운명이 결정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다국적군이 최후통첩으로 정한 그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3일후에, 그것도 전면적인 지상공격작전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장애를 펴고 무차별적인 공습과 해상으로부터의 순항미싸일공격을 위주로 자기네 중요 지휘소들, 로케트기지, 비행장, 통신시설과 전략적거점들, 도로, 교량 등을 혹심하게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앉은 자리에서 녹아나게 되리라는것을 알지 못했었다.

력사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보여주고있다. 태평양전쟁시기 일본해군은 미해군의 전력을 일거에 분쇄해버릴 결심으로 련합함대사령관 야마모도 이소로꾸대장의 지휘하에 항공모함 5척과 전함 2척을 포함한 순양함, 구축함 등 대소함선 150여척과 천여대의 비행기, 해군륙전대를 주축으로 하는 10만 장병을 미드웨이해전에 투입하여 미해군보다 압도적인 우세로 선제공격을 가했지만 미국측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고 사전에 준비하고있었다는것을 몰랐으므로 참담한 대패를 당하고말았다.

그러한 력사의 교훈을 잘 알고있는 작전국장으로서는 그것이 서뿔리 대답올릴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짧은 침묵이 있은 다음 총참모장 최광이 그를 대신하여 한걸음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정을 분석해본 다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 역시 지금 당장 그 답을 기대하지는 않으시였다. 력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전쟁개시의 판단을 정확히 하는것은 단순한 리론적계산으로는 불가능한것이다. 오죽했으면 나뽈레옹이 그것을 《뉴톤도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와 같다》고 하였겠는가!…

《물론 이것은》 하고 그이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서뿔리 단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아직도 현단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조선전략, 〈팀〉연습의 성격 등 많은것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당면한 정치군사전략을 최종적으로 규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적들의 숨은 기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제때에 결정적인 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작전국장동무, 우리측 타격군단의 대응훈련은 언제로 예견하고있습니까?》

작전국장이 빠른 걸음으로 지도앞에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타격군단의 대응훈련에 앞서 먼저 군단의 기동력을 검토하기 위한 기계화보병려단의 시범도하훈련을 5일후에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다?!》 하고 그이께서는 지도에 표기된 려단대호를 눈여겨보시였다.

《려단장이 누굽니까?》

《오영범동무입니다.》

《아,오영범!》

《예,**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온 이후 포병구분대와 보병련대를 지휘해본 경험을 쌓고 한해전부터 새로 편성된 타격군단의 기계화보병려단을 지휘하고있습니다. 장령입니다.》

《음—》 하고 그이께서는 무척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 동물 한번 만나보고싶소. 〈오발파〉가 그새 몰라보게 달라졌겠구만.》

그이께서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신 끝에 드디여 결심하신듯 시

계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오영범려단의 도하훈련을 오늘밤으로 앞당길수 없겠소?》

《예?!》

작전국장은 당황하여 얼결에 최광쪽으로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꿋꿋한 얼굴근육을 움씰거리고있던 최광이 서둘지 않고 천천히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오늘밤으로 앞당기도록 조직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조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이께서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오영범려단이 어떻게 전쟁에 준비되여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늘밤 불시에 폭풍구령을 내리는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광과 작전국장이 동시에 대답올렸다. 그러자 그곁에서 내처 입을 꾹 다물고있던 오진우가 몸을 움쭉하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쪽은 길이 험합니다. 제가 나가보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는편이…》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무력부장동무에겐 오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제 집무실에 돌아가면 알게 됩니다.》

그이께서는 또 시계를 보시였다. 치차처럼 맞물려있는 하루의 사업에서 일정에 없던 시간을 얻어낸다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이였다. 무엇인가 타산하고 예견해보고나서 그이께서는 최광과 작전국장에게로 눈길을 주시였다.

《기계화보병려단의 도하훈련은 총참모장동무와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작전국장동문 자기 위치에서 사업하시오. 그러되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 나한테 보고해야겠습니다. 내가 그 어디에 있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그이께서 한손을 약간 드시여 사업이 끝났다는것을 표하자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거수경례를 올리였다.

잠시후 그들이 물러가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통신실에 직결된 전화를 드시였다. 대기하고있던 처녀교환수가 《장군님, 최고사령부 교환 듣습니다!》 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군의국장을 찾소.》

《알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전화가 련결되기까지의 그 짧은 한순간 병색이 질게 드리웠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누르끼레하던 얼굴을 아프게 상기하시였다. …

8

또다시 밤은 깊어가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쾌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시창밖으로 거뭇거뭇 스쳐가는 가로수며 리정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계시였다.

수도를 떠난지도 벌써 한시간,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대도로를 달리고있었다. 하늘에서는 찢어진 구름장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이 창백한 빛으로 포도를 비치였다.

튕기면 쨍쨍소리를 울릴것 같은 겨울밤의 대기, 고즈넉한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먼 산봉우리들, 모든것이 싸늘한 공허속에 잠들고있었건만 그이께서는 여전히 시시각각으로 커가고있는 전쟁의 위협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시였다.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군대내 고위지휘관들모두의 일치한 생각이였다. 지금까지 적들은 《팀》연습을 통하여 정세를 고도로 긴장시키고 민심을 소란케 하며 전쟁준비로 매해 우리의 정세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우리를 체계적으로, 가압적으로 질식시켜버리려고 꾀하였었다. 그러나 다년간에 걸친 그러한 시도가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엔 핵문제를 구실로 전면전쟁에 나서려 하고있는것이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용차 뒤좌석의 이동전화기 호출신호를 누르시였다. 그러자 뒤따르는 차에서 《최광 듣습니다.》 하는 묵

직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나왔다.

《총참모장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송화구에 대고 말씀하시였다. 《래일중으로 후방총국장에게 과업을 주어 일체 작전예비물자의 재고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리고… 오늘 진행할 기계화보병려단의 훈련계획을 총참모부에서 검토해보았습니까?》

《예, 검토하였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각종 화력타격과 전자장애하에서 지형조건에 맞는 대담한 강행도하작전으로 평가되였습니다. 특히 대기구역으로부터 출발진지를 차지하지 않고 직접 돌격으로 넘어가며 높은 기동력과 화력협동으로 돌파진입을 계획한것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앞서 달리던 승용차가 먼저 대도로에서 내려 산기슭으로 뻗어간 길에 들어섰다.

최광이 보고드렸다.

《기계화보병려단은 2키로전방 운봉산기슭에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끊고 시창밖으로 흘러가는 밋밋한 릉선이며 아카시아나무들이 울바자처럼 둘러싼 과수원 그리고 경사진 산중턱에까지 잇대여진 다락밭들을 바라보시였다.

저 우중충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있는곳에 운봉산이 있을것이다. 그 산기슭 어느 골안에서 지금 오영범의 기계화보병려단이 뜻밖의 《폭풍》이 들이닥치고있는줄도 모르고 금시 잠들었을것이고…

오영범!… 굵다란 목과 감때사나운 눈빛 그리고 짧게 깎은 머리며 콩알만한 기미로 특히 인상적이던 오영범, 그이께서 그를 처음 만나신것은 17년전의 일이다. 그때 군단참모장의 명령으로 지휘감시소에 도착한 오영범은 모가 진 턱을 쑥 내민, 화끈 달아오른 난로같이 열기가 확확 내풍기는 한창나이의 공병소대장이였다.

그때 그는 시뻘건 목덜미로 줄지어흐르는 땀을 팔소매로 뻑 문

지르고나서 군단참모장에게 명령대로 왔노라고 아주 큰소리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군단참모장이 포대경쪽에 서계신 그이께 《일을 친 공병소대장》이라고 말씀드렸다.

《아, 동무요?!》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순간 오영범은 제식훈련때처럼 두손을 바지혼솔에 딱 붙이고 홱 돌아섰는데 처음 당장은 환하신 미소를 담고 자기를 바라보시는분이 누구이신지 미처 알아보지 못한것 같았다. 어리둥절해있던 그의 얼굴이 돌변한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였다. 그는 불현듯 눈이 부신것처럼 두눈을 쪼프리면서 입을 벙긋거렸는데 가슴속에 꽉 들어차는 격정에 숨이 차서 허덕이는듯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목멘 부르짖음과 동시에 한발 앞으로 나섰으나 별안간 눈굽이 쿡 쑤시는듯 구붓한 눈섭을 흠칫거리며 굳어져버렸다. 또 한순간이 지나서야 서둘러 거수경례를 붙이며 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567군부대직속 공병중대 3소대장 오영범…》

《아, 오영범!》

그이께서는 한손을 약간 드시며 흙탕에 게발린 군복차림 그대로인 그의 모습을 재빨리 훑어보시였다.

《동무가 발파를 해서 땅크를 파묻었다는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기여들어가는 소리였다. 순간의 기쁨과 환희는 거품처럼 갈앉아버리고 별안간 가슴속에 눈보라가 이는듯 몸을 옹송그리기까지 했다.

《그건 왜?》 하고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그 땅크 한대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들었는지 아오?… 그래 동문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아나말이요!》

《…》

그는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달달 말라서 튼 입술만 세차게 깨물고있었다.

《왜 대답을 못하오? 그래도 그걸 묻어버릴 결심을 했을 땐 무슨 타산이 있었을게 아니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그는 마침내 갈린 목소리를 가까스로 짜냈다. 《전… 각오가 돼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가 또 있소？… 말해보오.》

《그렇지만… 시간을 지키려니…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시며 그이께서는 흥분으로 하여 푸들거리는 그의 볼편을 눈여겨보시였다. 《그래 그와 꼭같은 정황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런 정황이 또 생긴다면… 그땐… 또…》

《또 묻어버리겠다？！》

《예, 달리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군단참모장 등을 둘러보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 동무 아주 괜찮소. 응？！ 배짱도 있구…》

그이께서는 딱 바라진 그의 어깨를 툭 쳐주시였다.

《괜찮아. 내가 듣고싶었던것이 바로 그 대답이였소. 동무가 잠시나마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더라면 어쩔번했소. 동문 전투에서 생명과 같은 시간을 지켜냈소. 그것이 중요한거요. 묻어버린 땅크는 아무때건 다시 파낼수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은 영영 되찾지 못하거든！… 오영범동무, 우리 지휘관들에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그 결단성이요. 특히 전쟁판에선 제때에 통찰하고 제때에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승리를 얻을수 있소.》

그이께서는 그때에야 비로소 그를 향해 손을 내미시였다.

《동무를 알게 되여 기쁘오！》

그러자 오영범은 너무도 큰 충격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이께서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자 벅찬 감격에 모가 진 아래턱을 움씰거리는데 그때마다 콩알만한 기미가 경련적으로 오르내리군하였다.

그때부터 그이께서는 평범한 한 공병소대장에 불과하였던 오영범을 잊지 않으셨고 남달리 관심하시였다. 그를 만나실 때마다 《아, 〈오발파〉！ 인젠 중대장이요？》 하며 각별한 정을 표시하군하시였다. 그리하여 공병출신으로 자기의 첫 출발진지를 든

든히 구축하고 떠난 오영범은 여러 보병구분대와 포병구분대를 지휘해본 경험을 쌓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주체적군사리론과 전략전술을 익힌후 드디여 기계화보병려단을 지휘하는 장령으로 자라난것이다. …

승용차들은 강파로운 벼랑굽이를 에돌아갔다. 그러자 운봉산 마루에서 쫙 펴놓은 손가락들처럼 여러개의 릉선들이 뻗어내린것이 보였는데 그 릉선사이의 시꺼먼 골어귀에서 불빛이 반짝이였다. 오영범의 기계화보병려단 구분대들이 그 골마다에 들어있을것이다.

군단장이 탄 맨앞의 승용차가 어느 골어귀에서 멎었다. 보초소가 나타나고 철갑모를 쓴 보초병의 자태가 전조등불빛에 드러났다. 군호를 주고받는 소리에 이어 별안간 보초병이 구령이라도 받은것처럼 차렷자세로 몸을 쭉 펴며 영접들어총을 하는것이 보였다.

승용차들은 총대처럼 꼿꼿이 서서 흥분과 경이의 눈빛으로 굳어져버린 보초병앞을 지나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보초소를 지나자 상상이외로 넓은 골안이 나졌는데 내가의 비탈면에서 눈더미들이 희끗거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둠에 잠긴 골안을 주의깊게 바라보시였다. 석비레를 깔고 다진 길 량옆에 줄지어 늘어선 백양나무들, 잘 위장된 위병소며 일매지게 쌓아놓은 방축, 골안에서 또 여러갈래로 갈라져들어간 길우에 무수히 찍혀져있는 무한궤도자국들, 이 모든것들이 오영범의 억센 손아귀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듯했다.

아직 이 순간까지도 얼마나 큰 사변이 마중해오고있는지 알지 못하고있을 오영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의 련합부대 전투준비상태를 보고싶으시였던것이다.

또다시 스쳐지나는 위장그물을 씌운 진지, 길좌우의 구호판들… 바로 그때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둔덕의 소로길에서 큰길로 나서던 한 전사가 전조등의 불빛에 눈이 부시여 한손으로 눈을 가리는것을 띄여보시였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지나가고 그이께서 타신 차가 가까이 가도록 전사는 손을 내리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전사가 다른 한손으로 솜옷자락에 싼것을 꼭 안고있는데 솜옷안에서 무엇인가 꿈지럭거리는것이였다. 분명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꼼틀거리지 않을것이다.

(저 전사는 무엇을 싸안고있을가?…)

어쩐지 군인생활에서는 전혀 있을법 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예감하며 그이께서는 차를 세우시였다. 길가에서 주춤거리고있던 전사는 승용차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멎고있는데 놀라 어망결에 뒤걸음쳐가기까지 했다.

책임부관이 먼저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전사는 전조등불빛에 두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그가 묻는 말에 무어라고 중얼거리고있었다. 수염터자리에 솜털이 보르르한, 아직 한번도 면도를 대보지 못한 나어린 전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커다란 호기심을 품고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에서 최광차수와 군단장 김대웅이 내렸다. 그때 책임부관이 전사의 귀가에 대고 무어라고 재빨리 말했다. 아마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찾으신다고 알려주는 모양이였다.

전사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대렬훈련에서 익힌 규정의 인사를 올리려 했으나 그 순간 자기가 부둥켜안고있는 짐승이 생각난듯하였다. 불현듯 낯색이 질린 어린 전사가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는것이 전조등의 환한 불빛에 드러나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써 전사는 솜옷에 싸안고있던 그것을 길섶의 눈더미우에 떨어뜨리며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대바람에 눈물이 핑 돌아 어깨를 떨며 불쑥 앞으로 나섰으나 그만 솜옷자락에 걸려 비칠하였다. 그 서슬에 솜옷안에서 꿈지럭거리던것이 끙— 끙 이상한 신음소리를 질렀다.

전사는 극도로 당황해졌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렇게 뜻밖에 만나뵙게 되였는데 그놈의 짐승이 애를 먹이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전사는 그만 울상이 되여 엉겁결에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있는 그것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그건 뭐요？》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옛, 저…》 하고 전사는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다. 《이건 저… 새끼노루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새끼노루？！》 하고 그이께서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어디 좀 보기요, 응？！》
그이께서는 전사가 부둥켜안은 솜옷자락을 들어보시였다.
《음— 아주 큰놈이구만.》
그이께서 최광에게로 머리를 돌리시자 그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주름깊은 얼굴에 웃음을 띠였다.
《옳습니다. 한 대여섯달잡이나 됐을가, 아주 큰놈입니다.》
그이께서 웃으시자 최광도 아주 흥미있어하며 소리없이 웃고 여러 수행원들까지 호기심이 동하여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이께서 또 물으시였다.
《이걸 동무가 잡았소？》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건 저…》
《일없소. 어서 맘놓고 말해보라구.》
《저…》 전사의 얼굴에 화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건 며칠전 우리 정찰소대가 강하훈련을 하다가 잡아왔습니다.》
《강하훈련？》
《예, 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정찰병들이 떨어져내리니 엄지와 같이 가던 이 새끼노루가 그만 후닥닥 뛰여달아난다는게 바위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를 상했습니다. 엄지는 새끼때문에 먼발치에서 빙빙 돌고있었지만 다리가 상한것을 그냥둘수가 없어 우리 소대장동지가 안고왔습니다. 그래서 고정근무에 동원된 제가 말아키우고있습니다.》
《그렇다？！… 음— 다리를 상했단말이지.》
그이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니 새끼노루의 한쪽다리를 붕대로 감고 있었다.
《그런데 이밤중에 이걸 싸안고 어디로 가오？》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전사는 어느새 어려움도 다 잊고 잰 말씨로 열심히 말씀드렸다. 《사실은 이게 벌써 며칠째 잘 먹지도 않고 앓고있었습니다. 그러던게 오늘저녁부터 갑자기 다리를 까드라뜨리며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꼭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군의소에 안고 갔댔습니다. 거기 가서 주사를 좀 놔

달라구 하니까… 직일군의동지가 막 야단을 치면서 동무, 정신이 있는가, 여기가 뭐 수의방역소인줄 아는가! 하면서 쫓아내는바람에 그만 도로 오는 길입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군.》

그이께서는 불깃해진 전사의 얼굴을 다정스레 바라보시였다. 자기의 솜옷으로 새끼노루를 싸안고있는 전사, 그의 동그란 두눈에서는 줄곧 애틋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그래 이름이 뭐지?》

《옛, 전사 림정산! 려단직속 정찰소대 대원입니다.》

《나이는?》

《열여덟입니다!》

《음—》

그이께서는 전사의 어깨를 다정히 안아주며 미소하시였다. 얼마나 좋은 나이인가. 청춘과 피끓는 삶을 그리고 사랑과 위훈을 약속하는 나이, 노래에도 있듯이 리수복영웅의 영원한 삶의 나이 역시 열여덟살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사의 고향과 부모들에 대해서도 물으시였다. 그러자 정산은 갑자기 고개를 수그리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아버지는 하동광산에서 로동자로 일하며 어머니는 부양을 받는다고 대답올렸다.

《그래 아버지한텐 자주 편지를 하나?》

《저…》

정산은 사뭇 고통스러운듯 입귀만 실룩거리고있었다. 무엇인가 차마 말씀드릴수 없어 마음속으로 모지름쓰는 괴로운 표정이였다.

그이께서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는게라고 생각하시였다.

《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그이께서 또 이렇게 물으시자 그만 정산은 헉— 하고 흐느끼듯하고나서 가까스로 대답올리는것이였다.

《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지 오랩니다.》

《응?… 그건 왜?》

《전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결별을…》

《결별？！…》

그이께서는 놀라시였다.

무릇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사랑하기전에 먼저 존경하도록 교양받는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흔히는 아버지라는 가장의 권리로써 엄하게 다스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혹 아버지와 결별하는것은 도덕적타락, 사상적대립, 혹은 무서운 죄의식이나 기타의 타협할수 없는 막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나 없다. 하다면 이 얼굴이 발깃한 전사는 무슨 일로 벌써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결별하였다는것인가？…

《그래 아버지의 이름은？》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저… 림희문이라고 합니다.》

《림희문？… 그래 아버진 언제부터 광산에서 일했소？》

《한 10년전부터였습니다.》

《그전엔？》

《금속재료학분야의 연구사였습니다.》

《음.》

찬바람이 불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켠의 최광과 김대웅군단장 등이 벌써 몇번씩이나 팔목시계를 눈가에 가져가고있는것을 느끼시였다. 려단에 《폭풍》구령을 내릴 시각이 되였던것이다.

×

그때 오영범은 하루의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도와 여러가지 서류들을 정리하고있었다. 려단이 수행하게 될 시범도하훈련을 며칠 앞두고있었으므로 생각은 여전히 거기에 가있었다. 군단급이 아닌 총참모부적인 사업으로 조직되였으므로 수많은 무력부의 장령, 군관들이 참가하게 될것이다. 그는 머리속에 천번도 더 새겨넣은 도하장의 지세며 여울목 등을 되새겨보기도 하고 땅크들의 물속통과능력을 다시 또한번 따져보기도 했다.

어데선가 하모니카소리가 울려왔다. 취침전의 즐거운 밤시간,

여럿이 부르는 노래소리와 혀끝으로 멋지게 장단을 넣는 하모니카소리,이따금 어느 중대교양실에선가 지나치게 높이 틀어놓은 텔레비죤소리가 울려오기도 했다. 무슨 흥미있는 영화를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영화를 본지도 오래다. 오영범은 자기 방에 있는 텔레비죤도 켜는 일이 드물어졌다. 날이 갈수록 할 일은 많아지고 시간은 부족되기만 했던것이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무심코 손을 내밀다가 상급참모부와 직결된 전화였으므로 긴장되였다. 송수화기를 들자 《대동강 50번 듣습니다!》 하고 웨치듯했다. 다음 순간 그는 불을 삼킨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뛰쳐일어났다. 단 몇마디의 길지 않은 전화였으나 그것은 전혀 뜻밖에 작전국에서 내린 명령이였던것이다. 그는 명령을 받자 귀전에 대고있던 송수화기를 내던지다싶이하고 려단교환대와 련결된 다른 전화기를 와락 끌어갔다. 그리고는 교환수가 미처 입도 열기전에 《직일관실!》 하고 소리쳤다.

곧 려단직일관이 나왔다.

《나 50번이요.》 하고 그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즉시 참모부성원들과 전체 대대들에 전할것. 려단 〈폭풍〉!…》

마지막 그 말은 거의 고함소리에 가까왔다.

《복창하오!》

부대직일관은 벌써 《폭풍》의 구령소리에 불이 당긴 도화선같이 거세게 숨을 내뿜고있었다. 그는 자기네 려단장보다 더 청높은 소리로 명령을 복창하였다.

《좋소. 집행하시오!》

그는 송수화기를 절컥 내려놓자바람으로 철궤를 열고 권총집이 달린 혁띠를 꺼내였다. 어느새 출입문으로 달려가면서 말코지에 걸려있는 철갑모를 쓰고 전투용솜옷을 벗겨들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의 여러군데에서 참모부와 정치부군관들이 달려나오고있었다.

그 어느 부대 구분대들에서나 비상소집 구령은 각이한 여러 통로로 순식간에 그물망처럼 뻗어가며 전해지도록 준비되여있다. 어

느새 밖에서는 지휘부둔덕우에 올라선 신호수가 비상소집나팔을 불어대고있었다. 빠른 곡조로 엮어진 류랑한 나팔소리가 밤추위에 유리같이 쟁쟁 얼어붙은 대기를 산산이 부시며 골안에 메아리쳐갔다.

골안 전체가 벌둥지를 쑤셔놓은듯했다. 병사들이 무기와 장구류를 절컥거리며 병실에서 뛰쳐나오고 사방에서 지휘관들의 구령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다녔다.

오영범은 지휘부의 계단을 뛰여내려 차고가 있는쪽으로 달려갔다. 려단장의 운전사는 벌써 차를 몰아오고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며 《1대대로！》 하고 구령처럼 웨쳤다.

1대대는 골어귀의 위병소정문쪽에 있다. 1대대가 어떻게 공격출발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려단의 돌격전개준비가 앞당겨지는가 늦어지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1,2,3 대대는 땅크대대였던것이다.

려단장의 전투용지휘차는 골어귀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렸다. 오영범은 짧은 한순간 어떻게 되여 려단의 도하훈련이 앞당겨졌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작전국에서 왜 그것을 단 1분의 여유도 없이 정시 정각에야 알려주었는지 그것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사전에 비스듬히 암시만 했더라도 이렇듯 급하지는 않았을것이다.

순간순간이 빛살처럼 흘러갔다. 굽인돌이를 지날 때마다 차의 한쪽바퀴가 지치러들면서 위태롭게 기울어지군하였다. 그러면 전조등의 불빛도 시꺼먼 골안을 이쪽저쪽으로 휘딱휘딱 뒤번지며 앞질러갔다.

갑자기 삐—익！ 하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차가 멎었다.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앞에 멎어서있는것이였다. 밝은 전조등불빛에 눈이 부셨다. 오영범은 제일먼저 군단장 김대웅을 알아보았다. 차에서 뛰여내리자바람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며 다가가는데 그가 다급히 속삭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셨소！》

《예？！》

한순간 그는 말뚝처럼 박혀버리고말았다. 무엇인가 심장 한끝을 쿡 찌른듯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다니？！…

다음 순간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총참모장과 나란히 서계신것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길가에 서있는 한 전사와, 무엇인가 잔뜩 불안고있는 나어린 전사와 마주서계시였다. 그는 두눈을 때리는 전조등불빛을 향하여 거수경례를 붙이고 힘찬 정보로 걸어나갔다. 눈부신 그 불빛속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였던것이다.

《아, 오영범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돌아보며 반갑게 손을 드시였다. 그러나 그는 제식대로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모으고나서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규정의 보고를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 조선인민군 제97기계화보병려단은 전투비상소집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려단장 소장 오영범!》

《쉬엿하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갑자기 얼굴이 해쓱해진 나어린 전사쪽으로 머리를 돌리시였다.

《이 전사동무가 려단장이 나타나자 낯색이 달라지는데 웬일이요? 혹시 〈오발파〉가 너무 무섭게 다궃는게 아니요?》

오영범이 입도 벌리기전에 먼저 전사가 울상이 되여 가늘게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전… 그저…》

그 전사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저 한것인지 잘 알고계신 그이께서는 미소하시였으나 오영범은 사납게 량미간을 찌프리였다.

그 나어린 전사가 어떻게 되여 여기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지도의 걸음을 지체시켰는지, 어인 일로 다리를 싸맨 새끼노루를 안고 부들부들 떨고있는것인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있는 오영범이였다.

그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영범려단의 훈련모습을 보고싶어왔다고 하시며 《어떻소, 만단의 준비가 돼있겠지?》 하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오영범은 자기의 널직한 잔등으로 나어린 전사를 가리우며 힘차게 대답올렸다. 《지금 전체 려단이 〈폭풍〉구령을 받고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려단의 야간전투훈련모습을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좋소. 가봅시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순간 오영범은 등뒤로 머리를 홱 돌리며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고있는 전사에게 낮게 그리고 무섭게 속삭이였다.

《자기 위치로 갓, 빨리!》

그러자 전사는 《알았습니다!》 하고 숨가삐 속삭이고나서 마치 오영범의 세찬 입김에 불리워 날려가듯이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때에야 오영범은 몰아쉬고있던 숨을 내뿜으며 총참모장과 군단장 등에게 규정의 인사를 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려단장동문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부대를 지휘하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오영범은 다시 힘있게 거수경례를 올리고 자기 차있는데로 달려갔다.

벌써 골안에서는 발동기들의 세찬 우르릉소리가 우뢰소리처럼 울려오고있었다. 각종 땅크, 자동포, 수륙차, 장갑차 등 현대적무장장비를 그쯘히 갖춘 기계화보병려단이 공격출발진지로 기동을 시작한것이다. 땅이 울리고 대기가 흔들리고 얼어붙어버렸던 겨울밤이 산산이 부서져나가고있었다.

9

수많은 장갑땅크, 자동포와 수륙차들이 출발진지에서 곧장 땅크돌격전개계선을 향해 달려가고있었다. 와릉와릉하는 발동기의 대합창이 어둠에 잠긴 산야를 온통 뒤흔들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 김대웅 등과 함께 강기슭의 높지 않은 둔덕길우에서 원추형의 대형을 지어 달려가는 땅크들을 살펴보고계시였다.

가운데 땅크들중에서 몇대가 속도를 높여 강기슭으로 달려나

가자 그것을 신호로 장갑땅크와 자동포들이 일제히 산개대형을 지으며 속도를 높였고 장갑보병들을 태운 장갑차들은 톱날같은 대형을 짓기 시작하였다.

찌걱거리는 무한궤도소리와 와릉거리는 발동기소리가 얼어붙은 대기를 갈가리 찢어발기는 가운데 무엇인가 부딪치고 갈퀴는 소리가 스산하게 울렸다. 경사면을 치달아내리는 땅크의 배기관에서 불꽃들이 쓸어나와 바람결에 흩날렸다.

공중에서도 발동기의 세찬 소음이 파도처럼 휩쓸어왔다. 강좌안의 《적진》에 대한 비행대의 《타격》이 진행되는것이였다. 전투폭격기편대들이 강하하면서 조명탄을 떨구고 전투선회에로 넘어가군했다. 우뢰와 같은 폭음이 지상의 땅크발동기소음과 뒤엉켜 딛고 선 땅이 부르르 떨릴 지경이였다. 여러발의 붉은 신호탄이 일시에 어둠을 짓태우며 날아오르고 확성기에서는 《선견대, 돌격 앞으롯!》 하는 오영범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터져나왔다. 구령과 더불어 땅크와 자동포들이 비탈면을 굴러내리며 일제히 강물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쌍안경을 들고 초점을 맞추시였다. 수십대의 땅크, 자동포들이 일시에 강물을 헤가르기 시작하자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흐르던 강물이 사납게 뒤번져지고 사품치며 부글부글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기슭의 얼음장들이 산산이 깨여져나가며 거센 파도에 밀려 모래불에서 와삭와삭 부서지고 뒤엉켜돌아갔다.

땅크의 무한궤도에서 괄괄 용솟음치던 물결이 수심이 깊어지는데 따라 사납게 격랑을 일으키며 땅크포탑까지 휘감군했다. 번들거리는 포신, 포탑우에 버티고있는 고사기관총, 저 모든것들이 실지 불을 토한다면 대안의 《적진》은 송두리채 파헤쳐지고 거듭 뒤번져지며 무서운 폭음속에서 룡트림하듯 화염을 솟구쳐올릴것이다. 도처에서 초연이 휩쓸고 수천수만발의 총탄이 은빛탄도를 그리며 날아가고 폭발의 굉음에 대지는 떨며 신음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에서 쌍안경을 떼지 않고 강행도하의 전모를 주의깊게 살피고계시였다.

《독수리, 속도를 높이라!》

《알았다. 속도를 높인다.》

《불새, 익측을 타격하라!》

《알았다. 불새 기동한다.》

장갑땅크와 자동포들이 대안의 《적진》을 짓뭉개며 나아가자 공병들이 수륙차에서 부린 배떼다리를 부설하기 시작했다. 공중에서는 전투폭격기편대들의 두번째 공중타격이 벌어지고있었다.

《갈매기 하나, 둘, 셋— 주의!… 돌격 앞으롯!》

다음 순간 장갑보병들을 태운 장갑차들이 배떼다리를 건느기 시작했다. 수력추진장치가 되여있는 장갑차들은 벌써 맞은편 대안에 오르고있었다. 부릉부릉 발동기소리를 세차게 울리며 배떼다리를 건느는 장갑차들, 푸릿한 달빛에 철갑모와 총창을 번뜩이는 병사들, 강물은 여전히 사품쳐 끓고 사납게 뒤채이며 미친듯 휘말려돌아가고 있었다. 하늘도 땅도 지진처럼 뒤흔들렸다. 어느새 먼 어둠속에서 《만세!—》 하고 목터지게 웨치며 돌격해나가는 함성이 울려왔다.

《독수리, 종심에로 돌진하라!》

《알았다. 돌격한다—》

땅크와 자동포들이 험한 산릉선을 톺아올라 달려나가고 그뒤로 장갑보병들이 산개해나갔다. 돌격의 함성은 계속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쌍안경을 내리고 가까이에 서있는 김대웅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군단장동무, 려단의 도하작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웅은 그이의 물으심에 재빨리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나서 힘있게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려단의 강행도하작전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영범동무가 제반 작전전술적요구에 상응하게 불의적인 타격과 화력집중 그리고 타격력증대 등을 능란하게 적응하면서 과감하게 작전을 펴고있다고 봅니다.》

김대웅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련대작전참모였으며 전후 오래동안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작전전술을 가르쳐왔다. 그러므로 그가 올린 대답은 오랜 작전일군, 교육일군다운것이였다.

《옳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긍정하시였다. 《과시 〈오발파〉다운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세면 강하천이 아니라 날

바다도 능히 건늘수 있을것입니다.》

그이께서 이렇게 치하하시자 김대웅은 입을 벌리고 찬공기를 한껏 빨아들였다. 지금까지 가슴을 조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떤 평가를 주실가 하고 숨죽여 기다리고있던 그였던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전쟁이라면?…》 하고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며 적들의 전쟁수행능력도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는것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실지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적들이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가하거나 예상외로 력량과 기재를 신속히 집중하여 강하게 반작용을 한다면 그런 경우 우리는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되겠는가?…》

김대웅은 놀란듯 굳어져버린채로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이 쌍안경을 또 눈가에 가져가시였다. 어언 앞서나간 땅크,자동포들은 보이지 않고 우뢰와 같은 발동기소리만 거세게 파도쳐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둠속 멀리까지 눈밝혀 살피시며 무겁게 생각을 이으시였다. 만약 이 작전을 그대로 전쟁에 써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감무쌍한 이 도하작전은 물론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다. 하여 타격집단의 총공격에 결정적인 국면을,파구를 열어줄것이다. 하지만 려단의 반수이상은 이 강기슭에 쓰러질것이다. 그렇다,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써만 한걸음 또 한걸음 전진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쌍안경을 내리시였다. 뻐근한 아픔이 가슴 한쪽을 스쳐가는것을 느끼시였다. 지금 오영범은 드센 강타로 적진을 두들겨부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이다. 포병과 비행대의 준비타격, 땅크들의 강행도하,교두보장악,종심에로의 공격성과 확대… 전투교범의 견지에서는 가장 우수한 작전의 하나로 인정될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는 한치한치 전진하는데 커다란 희생을 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오영범은 그것을 생각했겠는가?… 물론 생각했을것이다. 그자신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희생될것을 각오하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써 얻어질 하나하나의 승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겠는가.… 왜 오영범은 시간을

줄여 시작과 끝을 동시에 진행할 용단은 내리지 못하는가?

문득 그이께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하나의 대규모상륙작전을 상기하시였다. 1944년 6월에 진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수많은 군사리론가들과 사가들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고 널리 찬양된 사상최대규모의 상륙작전이였다.

이 작전은 1943년말부터 약 6개월간 본격적으로 준비되였다. 이 기간 미영군은 수차에 걸쳐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정찰과 위장을 강화하였으며 상륙시간과 상륙지대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이 작전에 참가한 미영군의 력량을 보면 륙군이 3개의 항공륙전사단,2개의 땅크사단,4개의 땅크려단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사단과 12개의 려단(약 280여만명)이였고 공군력량으로는 여러가지 전투폭격기,수송기,활공기 등 1만 4천대(그중 전투폭격기 1만 1천대)가 동원되였으며 해군력량으로는 전함 7척,순양함 23척,대형상륙함선 283척을 포함한 총 6천여척의 대소함선들이 동원되였다.

파쑈도이췰란드군과의 력량을 대비하면 륙군이 1 대 4,해군이 1 대 20,공군이 1 대 30으로서 비할바 없는 절대적우세를 미영군이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미영군은 최근 임무수행기간을 10일로 계획했으나 42일이 걸렸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 미영군은 동부전선에서 쏘련군대의 결정적인 공격으로 하여 조성된 유리한 정세와 교묘한 위장,갖가지 허위,기만행동으로 상륙에서 불의성을 달성하고 절대적우세를 차지한 공군과 해군,대규모 항공륙전대가 상륙을 유력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2천여명의 인원손실을 입었다. 파쑈도이췰란드군의 인원손실은 11만 7천여명이였다.

그러면 이처럼 막대한 희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미영군사령부는 안전한 공격성과를 바란다는 기도밑에 한자리에서 주저하면서 력량과 기술수단만 계속 증강하였다. 결과 미영군은 첫 3주간에 30개이상의 사단과 막대한 량의 기술장비들을 투입하여 도로가 막혀 빠져나가지 못할 형편이였다. 그리하여 도이췰란드군으로 하여금 전술적인 예비대력량을 동원하여 땅크의 지원밑에 수차례의 맹렬한 반돌격을 가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방 군사리론가들의 견지에서 본 불필요한,막대한 희생의 원인이였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불필요한 손실의 근원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미영군의 수뇌부가 오직 작전의 성공만을 추구하였기때문이였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10만이 쓰러지건 30만이 쓰러지건 매일반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선의 장병들은 전쟁수행에 투하한 수백수천만에 달하는 수자들중의 일부분일 따름이였다. 그리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안전한 작전》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여 진흙탕속에,모래불속에 아낌없이 묻히고말았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주먹을 그러쥐시였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작전은 사람들을 아끼는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전쟁이란 희생을 전제로 한다. 희생이 없는 공격과 방어란 있을수 없으며 희생이 없는 전쟁의 승리는 더더욱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껏,온갖 힘을 다하여 희생을 막으며 손실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은 벌써 전투에 들어가기전에 자기의 지혜와 용기로써 그리고 자기의 피나는 노력으로써 희생을 줄이며 승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것이다. 우리에게는 승리도 귀중하지만 그 승리를 이룩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귀중하다!…

바람이 설레였다. 발동기들의 소음과 훈훈한 열기와 배기가스 냄새로 혼탁된 산바람이였다.

이윽고 려단이 도하에 성공하고 대안을 점거한 다음 교두보를 형성하였다는 보고가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려단전체가 꽉 부르쥔 하나의 주먹처럼 일거에 타격을 가했다는것은 찬양할만한 일이다. 강행도하도 대담하게 구상되고 가능한 전투조법들이 다 활용되였다. 선견대의 강행도하와 교두보점령,장갑보병대대들의 도하와 전투전개,그들의 종심성과확대를 위한 타격력증대,이 모든것들이 치차처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은 20세기 90년대이다. 지난해의 우수한 작전적방안도 오늘은 벌써 낡은것으로 된다. 군사과학기술은 서리발장검처럼 날로 더 예리하게 벼려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전쟁조법도 나날이 더 심화되고 발전되고있다.

이윽고 오영범이 차를 몰고 달려왔다.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그는 힘차게 정보로 걸어와 쩡쩡한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려단은 1시 37분 현재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려단장 소장 오영범!》

《수고했소!》 하고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곧 공격을 중지하고 교두보에서 대대들을 철수시키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달빛에 비추인 그의 얼굴은 환히 밝았고 모가 진 턱은 넘치는 기쁨을 참을길 없어 자꾸만 움씰거리군했다. 그는 무선전화기를 뽑아들자 먼저 소란스러운 숨결을 거기에 퍼부어댔다.

《나는 50번! 모두 내 명령을 들으라. 제1제대의 대대들은 공격을 중지하고 돌아설것. 장갑보병대대들은 차지한 계선에서 즉시 철수할것!…》

그는 무선전화기를 혁띠에 꽂고 다시 차렷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는 려단의 도하훈련이 높은 속도로 과감하게 잘 진행되였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의 두눈에서 그러한 확신과 기쁨의 미소가 뿜어나오고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기쁨이 리해되시였다. 매일같이 그가 밤잠을 미루며 사색하고 몸바쳐 애써온 그 모든것이 오늘을 위함이였다. 양병천일 용재일조라는 말과 같이 군사는 전쟁의 하루를 위해 천날을 키우는 법이거늘 군사지휘관인 그에게 있어서 전쟁의 하루를 위해 그의 려단이 창끝처럼 벼려졌다고 평가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데 있겠는가!… 그러나 그의 기쁨은 때이른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오동무, 려단의 임무수행에 몇시간이나 걸렸소?》

《옛, 정확히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찬바람이 불어쳤다. 맞은편 대안에서 발동기의 소음이 다시 우뢰소리처럼 울려오고 기름타는 냄새가 날아왔다. 철수하는 수륙장갑차들이 전조등

을 휘저으며 강기슭으로 가까와오는것이였다.

《1시간 30분이라…》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런데 이것이 실전이였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그이께서는 김대웅을 돌아보시였다.

《군단장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예,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김대웅은 자신있게 대답올렸다. 《오영범동문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다 타산하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륙군의 무장에서 땅크와 장갑차의 비중을 훨씬 높이고 많은 포무기들을 자행화했으므로 종전보다 그 기동력이 수십배나 높아져 작전적예비대를 급속히 투입하리라는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영범동문 려단의 전체 화력을 이 구역에 집중하여 타격함으로써 신속히 파구를 열고 그것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실지 전쟁이였다면 군단장은 오영범동물 표창했겠구만.》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다?-》 그이께서는 김대웅에게서 또 오영범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실지 전쟁이였다면 나는 표창이 아니라 처벌을 주었을것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굳어졌다. 오영범의 두눈에서 황황 타던 불이 꺼졌다. 불시로 새여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그는 혀를 깨물기까지 했다.

《려단장!》

그이께서는 엄하게 부르시였다. 오영범은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흠칠하더니 곧 허리를 꼿꼿이 폈다.

《동무는 왜 더 시간을 단축할 생각을 못하는가. 그래 그것이 동무로서 해낼수 있는 능력의 전부였단말이요?… 아니, 1시간 30분이면 늦소. 그 시간이면 려단의 반수이상을 잃게 될것이요. 특히 배뗴다리를 건너간 장갑보병대대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었을것이요. 왜 그런가?… 지금은 적들의 기동력이 종전보다 수십배나 더 높아졌고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가지고있기때문이요. 그러기에

전격적으로 불이 번쩍나게 해치우지 않으면 안되오.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동시에 벌어져야 한단말이요. 배떼다리를 놓고 건너간 30분은 필요없소. 그들은 선견대의 강행도하와 동시에 교두보를 점령했어야 했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거기서 늦어진 매 1분 1분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단말이요. 그런데 동문… 어디 말해보오. 그처럼 많은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보았는가? 려단이 다 쓰러져도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가?!…》

《…》

불시로 철수하는 땅크, 장갑차들의 동음이 더 거세게 울려오는듯했다. 우뢰소리같이 파도쳐오는 발동기들의 소음에 귀가 멍멍해졌다.

《려단장!》

그이의 준렬한 음성이 가슴을 쳤다.

《모든 작전의 기초엔 애병사상이 놓여있어야 하오. 동무가 작전도에 찍는 점 하나, 화살표 하나하나에서 최대한 그들의 희생을 줄여야 한단말이요. 적들이 반발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단 1분도 주지 말아야 하오. 단 1분도!… 장검처럼 내려쳐서 일격에 족쳐대야 해! 나는 동무에게서 이런것을 기대하지 않았소. 똑똑히 알아두오. 막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승리를 난 바라지 않소!》

《…》

여전히 오영범은 말뚝처럼 박혀선채 저릿저릿 저려나는 손끝으로 바지혼솔만 계속 잡아비틀고있었다. 갑자기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탓으로 머리속이 웅—웅 울렸다. 그는 한동안 계속 정신없이 허덕이며 가까스로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1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떠나가신후에도 오영범은 이윽토록 한자리에 박혀있었다. 한없는 괴로움에 숨이 막히고 가슴은 뻐근하게 죄여들었다.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였다. 그토록 심혈을 쏟으며 애써왔건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근심만을 드렸던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무겁게 안색을 흐리시던 그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이 떨려나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그는 두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모지름썼다. 밤하늘도 더 시꺼매진듯했다.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는 자기의 군사복무경험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배운 주체적군사리론의 제반 요구들을 다 활용하느라고 애써왔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들과 최근 시기의 포클랜드전쟁,만전쟁의 교훈도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했고 미군의 최신식무기와 작전전술도 깊이 파고든데 기초하여 려단의 도하작전을 세웠었다. 그러나 그토록 피나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였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자기가 그어가는 선 하나,점 하나에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르겠는지는 다 알지 못하였다. 그런것은 응당한것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자신 전투에서 백번 천번 쓰러질수 있다는것을 각오했고 희생이 없는 승리란 있을수 없는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러한 승리를,막대한 피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것이다!… 사방에서 검은 구름장들이 밀려들어 별빛조차 없는 밤은 더욱더 암담하고 음산하게 여겨졌다.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겠으나 어찌된 일인지 머리를 불에 달군것처럼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준렬하게 울리던 그이의 말씀만이 계속 귀전에서 총성처럼 메아리쳤다.

《막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승리를 난 바라지 않소!》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그는 승용차있는곳으로 달려가 문을 콱 당겨열면서 운전사에게 차를 강기슭으로 몰라고 명령했다.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아픔을 참고견딜수 없었다. 려단의 도하공격훈련이 진행된 강기슭을 다시 달리며 실패의 원인을 찾고싶었다. 단 몇십분동안에 불이 번쩍나게 장검처럼 내리칠 무자비

한 공격안을 당장 찾고싶었다.

오영범의 전투용지휘차는 땅크의 무한궤도로 짓이겨져있는 강기슭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한창 강을 도로 건너오는 땅크와 장갑차들이 줄을 지어 큰길로 빠지고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자바람으로 무작정 길 한가운데 나서서 손을 내흔들었다. 무한궤도로 흙먼지를 말아올리며 달려오던 땅크 한대가 움찔하면서 요동을 쓰더니 멎어섰다. 그러자 매캐한 먼지가 후더운 열기와 함께 사정없이 그의 목에 들씌워졌다.

《려단장동지, 왜 그럽니까?》

땅크안에서 누군가 비상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오영범은 그리로 다가가 그 전사의 어깨를 쑥 눌러밀어넣고는 그자신도 비상문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후끈하니 달아오른 기름냄새가 지독하게 풍겼다. 그는 사레들린것처럼 가까스로 숨을 들이긋고나서 누구에게라없이 큰소리로 말했다.

《동무들은 나와 같이 훈련을 좀더 해야겠소.》

려단장의 그 말에 승조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있었다.

오영범이 물었다.

《몇대대 몇중대요?》

《옛, 1대대 3중대 제368호 땅크승조입니다.》

땅크장의 대답이였다.

《좋소.》

오영범은 성대송화구에 입을 가져다대고 웅글게 말했다.

《독수리 하나, 나 50번이다.》

즉시 응답이 왔다.

《독수리 하나 듣는다.》

《좋다. 독수리 하나, 제368호승조는 나와 함께 여기 남는다. 1시간후에 보내겠다.》

《알겠다.》

오영범은 즉시 머리를 돌리며 운전수에게 어서 땅크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정신을 버쩍 차린 운전수가 《알았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웨치더니 조종간을 잡아당겼다. 땅크는 요동을 쓰며

빙그르르 돌더니 곧 비탈면으로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오영범은 땅크지휘용감시경을 삑 돌리고 거기에 두눈을 가져다대였다.

《속도를 높엿. 우측 경사면으로!》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피끗 떠올랐다. 그로서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무엇인가 쓰라린 아픔과 격한 충동이 그를 땅크와 같이 달리고 요동을 치며 미지의 비결을, 희생을 줄이는 비결을 찾도록 추동하고있는것이였다.

땅크는 급경사면을 따라 달리다가 갑자기 지치러지며 언덕받이에서 위태롭게 용을 썼다. 당황한 운전수가 안깐 힘을 쓰며 조종간을 당기건만 점점 더 아래로, 강물속으로 미끄러질뿐이였다. 그래도 오영범은 계속 앞으로, 앞으로! 하고 소리쳤다.

무엇인가 명치끝을 쥐여박는듯한 모진 아픔이 그를 물고 늘어지고있었다. 그는 감시경으로 차디찬 어둠속에 잠긴 강기슭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게염스럽게 파먹는 쓰라린 아픔에 신음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부전고원의 한 산골막바지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뗀 감자바우였던 그는 남보다 별로 뛰여난 재능도 지혜도 없는 보통 소년이였다. 남들과 비슷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남들처럼 때가 되자 인민군대에 탄원하였다. 그가 지금 군부대를 지휘하는 장령으로 성장해온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과 은정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한가지만을 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그것은 부대지휘관리를 잘하여 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평가와 치하를 받는 그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결코 공명심이나 영웅심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공명심이기전에 깨끗한 량심이였고 영웅심이기전에 불타는 충성심이였다.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그이께 단 한번씩이라도 기쁨을 드린다면 그것은 곧 전군의 전투력이 하늘에 닿는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소박한 생각이였다. 그는 그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만을 안고 살아왔다. 지어 하나밖에 없는 녀동생 영옥이의 불행도 돌아보지 못하였다. 심한 화상으로 웃음과 기쁨을 잃은 그 녀동생때문에 늙은 어머니는 늘 눈물에 젖어있었건만 시름겨운 그 눈물의

하소연에도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일체 사사로운것과 인연을 끊은 사람이였다. 자기의 첫 상관이며 입당보증인인 김윤필도 아직 한번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의 생활의 시침과 분침, 초침은 죄다 부대의 규률과 질서, 훈련과 전투준비라는 시간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밖의것은 다 생활의 궤도밖에 멀리 집어팽개쳐버렸었다.

그런데… 그처럼 모든것을 깡그리 바쳤건만 려단의 도하훈련은 그이께 크나큰 근심만을 덧드리였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가슴을 허비는 쓰라린 아픔은 가셔지지 않았다. 하여 그는 쉴새없이 땅크를 몰아대며 땅크돌격전개계선으로부터 대안에 이르기까지 맹렬한 속도로 거듭 달려보는것이였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별안간 그는 강렬한 불빛에 놀라 감시경에서 눈을 뗐다. 거의 동시에 속도높이 달리던 땅크가 와뜰 몸체를 떨며 요동치더니 짓이겨진 땅바닥을 물어뜯으며 멎어섰다.

《려단장동지, 앞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운전수의 말이였다. 오영범은 눈섭에까지 흘러내린 철갑모를 밀어올리며 다시 감시경으로 눈을 가져갔다. 그의 두눈을 때린것은 승용차전조등의 불빛이였다. 그것을 알아본 순간 머리속에서 펑끗！ 섬광처럼 번쩍이는 예감이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하며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재빨리 군복옷섶을 쥐여당기며 눈앞으로 곧추 찌르는듯이 날아오는 강렬한 불광을 맞받아 걸어나갔다.

별안간 눈부신 빛의 사격이 멎었다. 승용차의 전조등이 꺼진것이다. 그러자 한순간 그는 눈알을 빼간듯 앞이 캄캄하여 주춤 멎어서버렸다.

《오영범！》

준렬한 음성이 날아왔다. 오영범은 그토록 귀에 익은 그 음성에 헉！— 하고 흐느낌소리같이 모두숨을 내뿜었다. 예감한바 그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부르시는것이였다.

《여기서 뭘하고있소？》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목줄띠를 그러쥐는듯한 느낌에 가쁜숨만 들이긋고있었다. 마음속생각같아서는 당장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부르짖으며 뛰여나가고싶었건만 웬일인지 두발이 땅에 얼어붙은것만 같았다.

《왜 말이 없소？》 하고 그이께서 준렬한 어조로 또 물으시였다. 《동문 여기서 땅크를 몰아대며 무얼 찾고있는가 말이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작전안이 생기는가？》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오영범은 마침내 목갈린 소리를 터쳤다.

《전 그저… 최고사령관동지께 근심을 드린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아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내 동무가 이럴것 같아 되돌아왔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음성엔 절절한 아픔이 스며있었다. 《동무에게 좀더 말해주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왔단말이요. 그런데 이게 뭐요. 그렇게 참모부도 다 줴버리고 저혼자 갈범처럼 펄펄 뛰기만 하면 해결방도가 나지는가？… 어쩐지 동문 지금 병사대중에게서 멀어지는 감이 있소. 아마도 동문 려단장으로서 매일 아침저녁 병사들과 얼굴을 맞대고있으니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숨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요！ 병사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한잠자리에 누워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벌써 아득히 멀어져버린다는것을 알아야 해.

려단장！ 동문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자기가 거느리는 수천명의 병사들을 제 살붙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전을 짤 때 비로소 승리의 열쇠도 얻는다는것이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열지 못하는 문은 없소！… 무슨 말인지 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모가 진 턱을 후두두 떨며 이렇게 부르짖는 그를 그이께서는 아픔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좀더 시간을 내여 그와 함께 있으며 무엇인가 좀더 말해주고 깨우쳐주고싶으신 심정이였다. 그런데 그때 먼 골안에서 왁자하니 떠드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수많은 불뭉치들이 서로 엇갈리며 뛰여다니고있다.

잠시 그쪽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저건 무슨 불들이요?》
그이의 뒤켠에 서있는 수행원들중 누군가 재빨리 대답올렸다.
《이곳 농장원들인것 같습니다.》
《농장원들이?… 이밤중에 그들이 왜 나왔소?》
《예, 이제 곧 알아보겠습니다.》
그이께서 한팔을 내저으시였다.
《뭐 그럴게 없이 가던 길에 우리가 알아봅시다. 무슨 일판을 벌려놓은것 같은데… 려단장도 따라서오!》
그이께서 차에 오르시자 오영범은 뒤쪽의 땅크에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때맞추 나타난 자기 차에 뛰여오르며 금시 움직이기 시작한 앞의 차들을 따르라고 운전사에게 명령했다. 운전사는 무한궤도자국이 마구 덧찍혀진 길로 속도를 높였다. 차츰 길이 험해졌으나 앞의 차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여러갈래의 전조등불빛들이 차가 들출 때마다 마구 들까불며 어둠속을 휘저어갔다.
얼마후 승용차들은 작은 내가의 돌서덕에서 멎었다. 높지 않은 둔덕우에 천리물길이 지나갔는데 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불뭉치들이 끄물끄물 연기꼬리를 달고서 뛰여다니고있었다. 청장년들이 언땅을 까느라 곡괭이질을 하고 메질도 했다. 목고를 메고 달리는 젊은이들, 부지런히 삽질을 하는 처녀, 불을 피우는 늙은이, 어린이들도 눈에 띄였다. 그리고 그들가운데엔 위장복을 입은 많은 군인들이 섞여있었다. 무슨 유쾌한 롱말을 웨치며 땅을 까고 목고를 메고 홰불을 높이 든채 소리내여 웃어대기도 했다.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마침 달려온 중년사나이가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드리며 이곳 연포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 손을 내미시자 황황히 바지가랭이에 손을 비비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크고 딴딴한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무슨 일로 온 농장이 다 떨쳐나섰는가고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관리위원장은 목이 잠긴듯한 소리로 말씀드렸다. 《땅크들이 지나가며 수로뚝을 무너뜨려서

그걸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천리물길이 말입니까?》

《예.》

《수로뚝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좀…》

《그런데 뚝이 무너진걸 어떻게 알고 이밤중에 다 떨쳐나왔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실 우린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하고 관리위원장이 숨가삐 말씀드리였다. 둔덕우의 불빛에 비쳐진 그의 얼굴은 거무스레했다.

《우린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숱한 땅크들이 와릉거리는바람에 놀라서 깨여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땅크와 장갑차들이… 글쎄 들에 꽉 차서 나가니 너무 놀랍구 희한해서 다들 밖에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막 힘이 솟구 너무 기뻐서 만세를 웨치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수로뚝같은건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보호원이 달려오더니 여기서 군대동무들이 무너진 수로뚝을 고쳐쌓는다고 알려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말입니까?》

《예, 군대동무들이 저 돌서덕을 허물어 무너진 수로뚝을 고쳐쌓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습니다. 글쎄 그게 뭐라구… 훈련하는 땅크와 장갑차들이 천리물길을 에돌아갈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 좀 다쳐놓았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 온 동네가 다 떨쳐나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글쎄 다들 불뭉치를 들구 나서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웃마을에서도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둔덕웃쪽으로 다시 눈길을 옮기시였다. 웃고 떠들고 구령처럼 웨치기도 하며 성수나서 일하는 군대와 인민, 수많은 불뭉치들이 군민의 한마음처럼 활활 타번지는듯하여 마음이 뜨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중의 한사람에게 인민군지휘관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 하시였다. 누군가 급히 달려갔다. 아직 둔덕우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처럼 가까이 와계신줄도 모르고 여전히 왁자하니 떠들며 돌아치고있었다. 여기저기 꽂아놓은 불뭉치들에서 느침같은 불똥들이 뚝뚝 떨어져내렸다. 땀에 번들거리는 얼굴, 쨍쨍한 웨침, 누군가의 걸죽한 롱담에 바스라지는듯 부르짖는 처녀의 기겁한 소리, 갑자기 터져나온 폭소… 그야말로 군민일치의 산 화폭이였다.

이윽고 위장복을 입은 날파람있게 생긴 군관이 숨가삐 달려내려오더니 대렬훈련때처럼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붙이고 규정의 보고를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조선인민군 제97기계화보병려단 직속 정찰소대장 중위 윤철 명령대로 왔습니다!》

《아, 정찰병!…》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이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됐소. 고함은 지르지 않아도 돼. 그래 동무가 무너진 수로뚝을 고쳐쌓을것을 생각했겠소?》

한순간 윤철은 입술을 감빨더니 재빨리 말씀드렸다.

《사실은 우리 소대 대원들이 먼저 생각했습니다. 수로뚝이 무너진것을 보고서야 어떻게 그냥 지나갈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 고쳐쌓자고 제기하였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잠시 코마루가 날카로운 정찰소대장의 얼굴을 눈여겨보시였다. 반디불같이 타는 그의 눈동자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자기 대원들을 내세워주고싶어하는 갸륵한 마음도 찾아보시였다.

《윤철이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래 동무들은 어떻게 수로뚝이 무너진걸 알게 되였소?》

《최고사령관동지! 저희들은 〈폭풍〉구령이 내리자 곧장 직승기로 도하장부근에 투하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도하장부근의 적 〈초소〉들을 습격파괴하고 〈지뢰원〉과 대안의 〈화력진지〉들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뒤미처 려단의 돌격이 시작되였습니다. 수로뚝이 무너진것을 알게 된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도 또 밤새워 수로뚝을 고쳐쌓기로 했단말이지. 장하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문득 생각나는바가 있어 이렇게 물으시였다.
《참, 동무네 정찰소대에 림정산이라는 전사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동무도 지금 여기 와있소?》
《저…》 윤철은 별안간 목에 무엇이 걸린듯 모지름쓰며 말을 떠듬거렸다. 《그 동문 아직… 강하훈련을 완성 못해서…》
《그래서 그냥 고정근무를 서고있겠구만.》
《?!…》
윤철은 깜짝 놀라는것 같았다. 먼 불빛에서일망정 그의 얼굴이 굳어져버리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안색을 흐리시였다.
《훈련을 잘해야겠소. 모든 대원들을 다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키워야 해. 이것이 바로 당과 조국 앞에 지닌 동무들의 의무요. 소대장은 전체 소대원들을, 려단장은 전체 군부대 장병들을 총창처럼 벼려야 하오. 준엄한 시각이 다가오는데 서둘러야겠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힘차게 대답올리고난 윤철은 다시 격동된 심정을 금할길 없어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병사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모두가 총폭탄이 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위하겠습니다.》
《고맙소. 돌아가면 전체 소대원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오.》…하여 그는 돌아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오영범을 눈길로 찾으며 의미깊게 말씀하시였다.
《좋은 동무요. 나는 우리 병사들의 끌끌한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오. 병사들속에 있으면 힘이 솟거든!》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짚고 둔덕우에서 뛰여다니는 홰불들을 이윽토록 지켜보시였다.

11

무력부청사로 돌아가는 최광의 마음은 무거웠다. 기계화보병려단의 도하훈련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근심만을 드린때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영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려단의 그 수준이면 틀림없이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총참모장인 그는 그들의 생각을 믿었고 그대로 최고사령관동지께 보여드렸다. 결국 일은 어떻게 되였는가?…물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영범려단의 도하공격이 과감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강조하시였고 오영범의 드센 주먹과 타격솜씨를 치하하시였다. 그러나 그 《과감한 돌격》에 뒤따를 커다란 손실을 발견하시고 그때문에 가슴아파하시였다. 우리의 인민군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것을 맹세다지고 희생을 두려워함이 없이 나설수록 그들의 생명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며 아껴주시는 그이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우리의 모든 작전은 병사들을 아끼며 그들의 희생을 극력 줄이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군사지휘관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무자비하게 적을 타격할 작전전술방안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것이다.

최광은 자기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하고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고 그는 지꿎게 그 한가지 생각만 곱씹고있었다.

(내가 인제는 낡았는가, 늙었는가?… 과연 이것이 나의 제한된 작전적두뇌와 능력에만 한한 일이겠는가?…)

오늘따라 웬일인지 허리가 몹시 쑤시는것을 느꼈다. 인제는 늙었다는 생각이 또 든다. 그것을 인정하고싶지는 않지만 로년과 로쇠는 시간표대로 꾸준히 어김없이 찾아오는것이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빠금빠금 힘주어 그것을 빠느라니 구수한 담배연기가 오늘따라 페부를 알알하게 허비며 기침이 터질것처럼 자극했다. 그는 담배를 끄고 시창밖으로 흘러가는 밤거리풍경을 거의나 무심히 내다보았다. 생각은 무거웠고 가슴은 아픔에 조여들었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보좌하는 중임을 다할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로당익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늙을수록 더 기백있게 일할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기대에 어떻게 다 보답한단말인가?!…)

갑자기 그는 가슴 한쪽을 지그시 누르며 두눈을 감았다. 흉곽을 세게 조이는 빠근한 아픔과 함께 떠오른 하나의 기억이 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첫시기 서울을 해방한후 3일간이나 진격을 멈추고 지체한탓으로 빚어진 가슴아픈 후과에 대한 생각이였다.

3일!… 그 3일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를 헤쳐야 했던가. 그리고 잃어진 그 3일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뒤따랐던가?!…

지금도 그는 오래전 그해 1950년 9월의 어느날 밤을 잊을수 없다. 락동강전선에서 사단장으로 싸우던 그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명령으로 서울방어전투에 조동되여갔을 때의 일이였다.

서울지구방어사령부가 자리잡은 이전 철제공장건물에서 민족보위상 최용건이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보고하자 최용건은 성한 손으로(부상당한 왼팔은 붕대로 어깨에 걸메고있었다.) 남포등을 쳐들고 마치 전혀 낯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볼편의 근육을 움씰거리며 《왜 그러구 서있소. 빨리 와서 임무를 료해하시오.》라고 말했다. 례절차린 인사말도 없었다. 그는 지도를 통하여 최광에게 그가 지휘할 련합부대 및 여러 구분대들과 방어구역을 알려주었다.

그때 최광은 지도를 훑어보면서 몸서리쳤다. 벌써 적의 예봉이 왕십리역부근에까지 쳐들어오고있기때문이였다. 그렇듯 정세가 엄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였다. 전장에서 화약연기를 삼켰을 때처럼 가슴이 조여들고 목이 타들어 견딜수 없었다. 하여 그는 시꺼먼 손으로 목깃을 잡아헤치며 거쉰 속삭임처럼 물었다.

《상동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것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쓰라린 아픔의 절규였다. 락동강전선에서 한치한치를 피로 적시며 남해기슭에로 전진해나가던 그였던것이다. 이제 한번만, 한번만 더! 하면서 결사적인 최후공격을 벌리던 그가 지금은 서울시내 중심부에까지 짓쳐들어온 적들의 공격서렬을 보고있는것이다.

최용건은 입술을 꽉 악물고있다가 천천히 검붉은 두볼을 흠칫거리며 매몰스럽게 말했다.

《임무를 료해했으면 가서 일에 착수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광은 허리를 쭉 폈다. 위험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엔 무엇보다먼저 출로를 찾고 과감하게 뚫고나가야지 책임을 따져선 안되는것이다. 하여 그는 불에 끄슨 군복을 쭉 잡아다리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알았습니다, 상동지! 임무수행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몸을 삑 돌려 출입문께로 걸어가고있을 때 돌연 최용건이 그를 불러세웠다. 최용건은 좀전처럼 성한 손으로 남포등을 쳐들고있었는데 최광에게로 향한 그 눈길은 사나왔다. 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그때 그는 최광이 아니라 회오와 자책에 몸부림치는 자기자신을 노려보고있었던것이다.

《심판은 후에 가서 합시다.》 그가 하는 말이였다. 뼈를 에이는듯한 아픔에 겨워 부르짖는 내심의 무서운 속삭임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되여 우리가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지… 력사는 이제 그것을 죄다 밝혀낼거요!》

비로소 최광은 그가 잃어진 3일에 대하여, 전쟁의 첫시기 전선부대들을 지휘한 그가 서울을 해방한후 련속적인 공격전을 조직할대신 무려 3일동안이나 공격부대들을 지체시킨 자신의 엄중한 과오와 책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날 최용건의 얼굴에 떠올라있던 무서운 번뇌의 빛을 상기하며 그는 으스러지게 주먹을 틀어쥐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군사지휘관들이 다시는 그러한 피의 교훈을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한 병사의 실수

는 하나의 생명을 잃게 하지만 지휘관이 범하는 실수나 과오는 벌써 수십, 수백, 수천의 희생을 가져온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오며 전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수도 있다. …

승용차는 어느덧 인민무력부청사에 이르고있었다. 육중한 철문앞에서 무장보초가 영접들어총을 하는것이 보였다. 어느새 철문이 열렸다. 승용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리로 들어섰다.

구령에 따라 정렬해선듯 길 좌우에 일직선으로 늘어선 가로등들이 푸릿한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덩지가 큰 많은 건물들이 불을 끈채 어둠속에 잠겨있다. 새벽이 가까와오고있다.

이윽고 승용차는 총참모부청사 현관앞에서 멎었다. 영접들어총을 한 병사의 긴장한 얼굴이 전조등불빛에 확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속에 녹아버렸다. 전조등이 꺼진것이다.

최광은 차에서 내려 무거운 걸음으로 보초병앞을 지나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총참모부 작전직일관이 마중나와 근무중 이상없음을 보고했다. 최광이 물었다.

《작전국장동문 어데 있소?》

《작전실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서자 책상앞으로 걸어가 제일 오른쪽의 송수화기를 들었다. 곧 작전국장이 나왔다.

《작전국장동무, 기계화보병려단의 도하훈련에 대하여 알아보았소?》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소?…》 그는 습관된 동작으로 송수화기를 꼭꼭 눌러대였다. 《알겠소. 그럼 이제부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가르치심을 자로 하여 타격집단의 대응훈련계획을 다시 검토해봐야겠소.》

《알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책상우에 쌓아놓은 서류들만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었다. 얼마후에야 문득 그 서류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있는데 주의가 미쳤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그것들을 끄당겨 뚜껑에 쓴 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것들이 다 인민무력부장

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서류들인것이였다. 그는 잘 믿어지지 않아 다른것들까지 죄다 훑어보고나서 서기를 불러 새로 쌓인 서류더미를 한손으로 가리켰다.

《이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와있소?》

《무력부장동지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쪽의 서류들은 총참모장동지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아니 그럼 아직 모르고계십니까?… 무력부장동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뭐 입원?》

서류더미를 짚고있던 최광의 두손이 굳어져버렸다. 놀람과 의혹에 찬 눈빛으로 서기를 쳐다보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라도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서기는 기계처럼 정확한 사람이다. 최광은 그의 특이한 성격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곧 손을 내밀어 적갈색의 전화기를 끌어갔다.

《군의국장동물 찾소. 음, 당장!》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군의국장의 잠내나는 목소리가 인차 공명판을 지릉지릉 울렸다.

《총참모장동지, 군의국장 전화받습니다.》

《군의국장동무!》 하고 최광은 흥분을 억제하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무력부장동무가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는게 사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총참모장동지!》

《그건 왜?… 왜 입원을 해야 하오?》

《총참모장동지, 지금 무력부장동지의 병상태는 가슴렌트겐검사에서 진한 음영이 나타났고 피검사에서 백혈구증다증의 요소가 있으므로… 페염으로 넘어갈수 있는…》

《여보, 누가 그런 소리나 듣겠다는가?!》 하고 최광은 참다못해 어성을 높였다. 《입원치료를 받는 길밖엔 다른 방법이 없는가 말이요?!》

《총참모장동지, 이건…》
《동무！》 하고 최광은 격해지는 심정을 씹어밸으며 말했다. 《지금이 어떤 때요？ 전쟁이 박두해오고있는 이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보좌해드려야 할 중책을 지닌 무력부장이 입원치료를 받다니… 동무 무슨 말을 하는거요？》
《사실 전…》
《동무！ 그래도 동문 전쟁때 화선에서 이동천막을 치고 포탄이 날아오는 속에서도 수술을 하던 동무가 아니요. 그러던 동무가 왜 지금은 입원치료밖에 모르오？ 왜 전쟁때처럼 전투적인 집중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나말이요！》
《…》
군의국장은 최광의 노기에 찬 목소리에 그만 얼어붙고만것 같았다. 최광은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송수화기를 귀가에 꽉 눌러대고 아픔에 젖은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그래도 머리를 짜보면 무슨 방도가 나지겠지. 안그렇소？ 동무, 왜 말을 못하오, 엉？！》
바로 그 순간 망두석처럼 옆에 서있던 서기가 입을 열었다.
《총참모장동지, 무력부장동지를 입원시키라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입니다！》
《뭐 명령？！…》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것은 서기가 아니라 그가 들고있는 송수화기의 진동판을 세게 울린 군의국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흥분에 떠는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하였다.
《무력부장동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선 지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을 심히 해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세와 관련해서는 더 근심하지 말고 지체없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
최광은 미간으로 엄하게 쪼프린 눈섭을 슴벅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벅찬 격정이 사품쳐오르는 가운데 무엇인가 명치끝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그는 굵다란 손가락끝으로 흐려지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생각하였다.

(이제 그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자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보좌해드리지 못해 속을 썩이고있는데 그마저 자리를 비우면 그이께선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더 지시게 되겠는가?!…)

그는 총참모장으로서 날로 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 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고계신 사업부담이 얼마나 막중한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오늘도 그러할진대 래일은 또 얼마나 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덧쌓일것인가?… 이제 적들은 군사적압력공세를 강화하면서 국제무대들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더욱더 피눈이 되여 날뛸것이다. 하여 나날이 정세는 엄혹해지고 그이께서는 더 많은 낮과 밤을 이어가며 로고를 바치실것이다.

최광은 오래동안 한자리에 앉아 밤을 지키고있었다.

12

클린톤은 금요일저녁에 주말휴가를 떠날 계획이였다.

클린톤의 부인 힐라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전날부터 그 준비를 다그쳐온것이다. 힐라리는 이틀간의 일정을 짜면서 요트놀이와 낚시질, 골프와 메닭사냥에 각각 얼마만한 시간을 분배할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쥐여짰다. 떠날 때 무엇을 타고 가겠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클린톤과 다투기도 하였다. 하여 승용차를 쾌속으로 몰아대는것을 무척 즐기는 클린톤이였지만 그의 의견을 좇아 전용직승기로 캠프데이비드의 대통령별장(1959년 아이젠하워와 흐루쑈브 사이에 있은 회담, 《캠프데이비드 회담》으로 잘 알려져있다.)까지 날아가기로 했다.

이번의 주말휴가는 대통령으로서 빌 클린톤이 처음 가져보는 휴식이다. 지난 1월 23일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이래 그는 정부각료

들을 선발하고 행정부를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세계적인 불안정에 대처하는 클린톤식 정치군사전략의 수립, 다망한 외교활동 그리고 선거전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공약한 《미국경제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면서 언제 한번 맘편히 쉬여보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인제는 한숨 돌리게 되였다. 힐라리가 특히 기뻐하였다. 오랜 변호사생활로 학자풍의 외모에만 신경을 써온 그 녀자는 법률가의 직업의식이 대단히 강한 편이였으나 대통령부인이 되면서부터 옷차림도 화려하게 하고 정치생활과 오락, 유희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생기발랄한것에 치우치기 시작하였다.

《빌! 이번 주말휴가에서말예요.》 하고 힐라리는 오늘 아침 가족식당에서 말했었다. 《일체 정치적문제나 법률용어들을 금지해요. 알겠어요?… 루쏘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이번 주말휴가 구호예요.》

그리고는 또 휴가기간의 일정은 물론 음악과 텔레비죤 종목, 매끼의 메뉴까지 자기의 의사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었다.

드디여 별장으로 떠나기로 한 그 시각이 다가왔다.

오후 5시, 클린톤은 백악관 서쪽날개에 있는 집무실에서 본관 2층의 살림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다시 딸의 학습방번호를 눌렀으나 거기서도 응답이 없었다. 무심코 중앙홀번호를 누르니 마침 그의 딸 첼시아가 받았다.

《첼시아!》

《아, 아버지세요?》 하고 딸은 아버지의 말은 듣지도 않고 기쁨에 겨워 부르짖었다. 《아버지, 나 끝내 성공했어요!》

《성공?… 무엇을 성공했다는거지?》

《뭔지 알아맞춰보세요. 아— 아니 내가 대줄게. 아버지, 이자방금 〈사랑의 꿈〉을 뗐어요. 아유! 글쎄 오늘에야 마감까지 쭉 나가질 않겠어요!》

올해 12살나는 그의 딸 첼시아는 리스트의 피아노곡 《사랑의 꿈》을 오래전부터 련습해왔는데 후반부의 알페지오선률때문에 매번 중도에서 끊어져서 울상이 되군했었다. 그러던것이 오늘에야 비로소 해결이 된 모양이다. 중앙홀에 대형그랜드피아노가 있으니 거기서

자기의 기쁨을 두드려대고있다는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 들어보실래요?》 딸은 벌써 전화기를 피아노 가까이 옮겨가는듯했다. 그애의 말소리는 물론 기쁨에 넘친 숨소리도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자, 이제 칠게요.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잠시후 탁상전화확성기에서 피아노음악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클린톤은 요즘 매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지금 백악관 남쪽의 철책을 두른 잔디발공지에서는 전용직승기가 대기하고있을것이다. 집사들이 힐라리가 정해놓은 짐들을 바삐 날라가고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때 문이 열리며 대통령수석보좌관 토마스 맥클라티가 들어왔다. 클린톤은 의아쩍은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전예고도 없이 그가 나타나는것이 심상치 않았던것이다.

《무슨 일이요, 토미?》

클린톤은 이렇게 그를 어릴 때 애명으로 불렀다. 그들은 어린시절 한고향인 아칸소주의 호프시에서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것이다.

《대통령각하.》 토마스는 군턱이 진 볼을 우물거리며 딱한 표정을 지었다. 《한가지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주말휴가가 끝난 다음 알려드릴가 했지만 중앙정보국장이 지금 꼭 알려야 한다고 우겨서…》

《뭐요. 어서 봅시다!》

클린톤은 그가 내밀어준 종이장을 받아들자 거기에 찍혀있는 글줄들을 눈으로 홅듯이 스쳐보았다. 그리고는 이게 뭐 어쨌단말인가 하는 의미로 무표정한 토마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클린톤은 다시 그것을 읽어보았다.

―요한네스부르그 20일발 에이피―

《남아프리카대통령 프레데리크 데 클레크가 오늘 케이프타운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남아프리카가 핵무기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체의 핵잠재력을 마련할것을 목적으로 한 〈제한된 핵견제계획〉 실현이 1974년에 시작되였다고 통보하였다. 계획이 실현된

결과 6개의 핵탄이 생산되였다.》

두번씩이나 읽었으나 중앙정보국장을 흥분시킨것이 무엇인지 단번에는 리해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의 핵무기개발을 지원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 아닌가. 그것을 클레크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공개했다고 해서 놀랐는가? 그러면 지금껏 그 누구도 급격히 변화되는 남아프리카의 정세발전이 그러한 결과에까지 이르리라는것을 예측하지 못했단말인가?!…

그의 눈치를 살피던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대통령각하, 이제 곧 윈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

클린톤의 두눈이 가늘게 쪼프려졌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무시할수 없는 협력자이다. 그리고 그 기구의 관리리사회 회의들에 미국은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었다. 클린톤자신도 2월관리리사회에서 기대한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였던지 단번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하고 토마스가 놀랍다는 의미로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하였다. 《대통령각하의 제일 큰 관심사중의 하나인 북조선의 핵문제가 취급되는데 중앙정보국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북조선이 2월관리리사회를 앞두고 외교활동을 강화하고있다고 합니다.》

클린톤은 한순간 아프도록 입술을 깨물고나서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보도를 언제 받았소?》

《방금 대통령공보부에서 보내왔습니다.》

《…》

공보부에서 보내온것이라면 세계의 통신들이 한창 떠들고있는 소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는 습관된 손동작으로 탁자 한끝을 피아노건반처럼 두드렸다. 재빨리 생각을 굴릴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버릇되여있었다.

그를 지켜보고있던 토마스가 물었다.

《어떻게 할가요, 각하?》

《우리끼리 있을 땐 그 각하라는 말을 빼고 하시오.》 하고 클린톤은 느닷없이 증을 내며 말했다. 《정부각료들중 누가 남아있소?》

《예, 내무장관, 사법장관 그리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또…》

《됐소!》

클린톤은 손을 내저었다. 그 누구보다 꼭 필요한 국무장관이 없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는 외국려행중이였던것이다.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만 부르시오, 당장!》

바로 그때였다. 탁상전화확성기에서 첼시아의 토라진 목소리가 쨍쨍 울려나왔다.

《아버진 뭐야! 내 피아노연주를 듣겠다구 하구선 또 연설이야?… 난 몰라! ―》

《오, 첼시아!》 하고 클린톤은 토마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훌 스쳐보며 말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아버진 대통령이야.》

《싫어, 싫어! 대통령은 연설만 해야 하나?》

《얘, 내 말좀 들어. 응?! 이제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자꾸나. 하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일이 있단다. 도무지 짬을 낼수가 없어. 알겠지?… 오, 첼시아, 그럼 안녕!…》

그는 탁상전화기의 스위치를 끄고 토마스에게로 몸을 돌렸다.

《왜 그러구있소. 빨리 그들을 오게 하시오!》

《어데로말입니까?》

《여기, 아니, 면담실로 오게 하오. 국가안전담당특별보좌관도 부르시오. 그러되 누구도 개인서기나 속기원들을 데려오지 않도록 해야겠소.》

토마스가 나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탁자우의 서류들을 분류하여 모아놓았다. 그것들중 중앙정보부에서 보내온 극비서류만은 금고안에 넣고 쇠를 잠그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 다음 맞은편 벽면을 꽉 채운 서고를 바라보았다. 그 서고의 중간은 모두 텔레비죤수상기들로 차있었다. 닉슨대통령때에만 해도 미국의 3대텔레비죤방송국(에이비씨, 엔비씨, 씨비에스)의 화면들이 비

쳐졌는데 카터시기엔 그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씨엔엔방송국을 위한 텔레비죤이 하나 더 늘었다. 또 그다음부터는 국방부중앙통신쎈터에서 주관하는 위성통신중계 텔레비죤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면서 인제는 대통령이 임의의 시각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은 물론 로씨야의 한 농촌에서 밀을 수확하는 농부의 얼굴에 떠오른 수심어린 기색까지 볼수 있게 되였다.

그는 원격조종으로 여러대의 텔레비죤을 차례로 훑어보다가 마침 시사론평시간인 씨엔엔의 화면에 눈길을 주었다. 세계의 움직임에 민감한 방송국들이 벌써 클레크의 연설을 두고 제나름대로의 분석을 가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스웨리예에 있는 한 연구소는》 하고 론평원은 말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가 1960년초에 핵무기원료인 농축플루토니움을 생산하기 위한 비밀계획에 착수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이 핵무기제조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바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에서 우라니움과 핵시험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이 나라에 핵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핵무기개발을 도와주었다는것입니다.

1979년 남대서양에서 있은 수수께끼의 〈2중섬광〉은 남아프리카의 한 섬에서 있은 이스라엘의 핵시험폭발이였다고 하면서…》

씨엔엔 시사론평원의 해설을 들으면서 클린톤은 지금 북조선에서는 클레크의 이 충격적인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고있는 이 나라가 이를 계기로 새롭게 도전해나오면 북조선을 고립말살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심중한 장애가 조성될수도 있는것이다.

《1940년대말부터.》 하고 씨엔엔 시사론평원은 계속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우라니움을 사들이기 시작한 미국은 많은 협조,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남아프리카의 핵기술자들을 육성하고 원자로들에 기술원조를 주는 등으로 핵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도 남아프리카의 핵무기개발에 적극 기여하였는데 도이췰란드는 〈비밀리에〉 도와주었고 프랑스는 2개의 핵발전설비를 제공하여주었다고 합니다. …》

클린톤은 텔레비죤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제는 그가 부른 사람들이 다 모여왔을것이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루즈벨트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면담실은 대통령집무실로부터 멀지 않았다. 원래 본관에 붙여지은 이 서쪽채는 제26대대통령 떼오도르 루즈벨트대에 그의 6명아이들과 그가 기르는 각종 짐승들을 수용하기에 너무 비좁아 3층짜리로 증축한것으로서 이후 여기에 대통령집무실을 비롯한 국무성회의실,면담실,오락실 등이 꾸려졌다.

클린톤이 면담실에 들어서니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중앙정보국장 제임스 울지와 대통령국가안전담당특별보좌관이 와있었다.

(참 놀라운 일인걸!) 하고 클린톤은 그들의 눈인사에 답례하며 생각하였다. (클레크의 한마디 말이 미행정부를 긴장시키게 되다니!…)

그는 자리에 앉자 직방 이렇게 시작하였다.

《오늘 우리가 검토하자고 하는것은 윈에서 진행될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의 북조선의 반응이요. 그들이 남아프리카의 핵무기공개를 계기로 지금까지 남아프리카나 이스라엘 등 나라들의 핵개발을 눈감아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차별조치를 폭로규탄할 경우 우리의 〈포커스작전〉에 금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요.》

모두 심각해졌다. 클린톤이 말하는 《포커스(초점)작전》이란 바로 합동참모본부가 오래전에 제안하고 국방성이 적극 추진시켜온 북조선의 녕변지구 폭격작전이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본격화될무렵 불시에 녕변의 핵시설을 공습하고 그에 따르는 북조선의 대응조치(두말할것 없이 그들은 강력히 반발할것이다.)를 전면전쟁의 구실로 삼는다는것이 《포커스작전》이다. 말하자면 녕변의 핵시설에 《초점》을 맞춘 작전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이 작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그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활동의 불투명성을 최종락인하고 그들이 거부하는 《특별사찰》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세계사회계로부터 북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녕변지구폭격의 명분도 세울수 있기때문이다.

《대통령각하.》 하고 울지 중앙정보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원에서는 북조선의 태도여하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되여있는 결의가 결정될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클린톤은 물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것을 깨닫고 미간을 찌프리였다. 제대로 되자면 《그렇게 믿소?》 하고 말했어야 했던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중앙정보국장이기때문이다. 그는 벌써 원회의참가자들의 발언원고까지 다 꿰들고있을런지도 모르는것이다.

《그렇습니다.》 하고 울지는 미소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을 걸고들려고 한다면 그들도 저절로 걸려들고말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들자신의 핵활동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

애스핀 국방장관이 머리를 버쩍 들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고 그는 두눈에서 파란빛을 내뿜으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남아프리카를 지원한 서방세계의 감정만 상하게 할것이고 결국 우리는 서방동맹국들의 지지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국가안전담당특별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세계무대에는 프랑스나 도이췰란드와 같은 나라들만 있는것이 아니지요. 핵문제에서 말썽많은 인디아와 파키스탄, 알제리 같은 나라들에게 줄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가요?》

《그런건 무시해도 되오!》

중앙정보국장이 내쏜 말이였다. 애스핀과 같이 녕변지구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시종 주장해온 《포커스작전》의 지지자로서 그는 벌써 목덜미까지 불깃해있었다.

클린톤은 그들의 언쟁을 들으며 극비밀리에 준비해왔으며 지금 그 실천단계에 들어가고있는 《포커스작전》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사실 클린톤에게 있어서 전쟁은 얼핏 보기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었다. 그것은 지난해에 있은 선거결과가 미국대통령에게 가장 절박한 초미의 문제는 경제라는것을 시사해주었기때문이다.

1990년 2.4분기부터 시작된 미국경제의 침체현상은 부쉬의 재

선에 결정적인 암초로 되였고 클린톤의 당선에는 더없이 좋은 계기로 되였다. 미국의 전후력사에서 제일 오래 지속된 경제적인 부진상태는 부쉬대통령이 자기의 임기기간 가장 극적인 사변들인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 만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레이자빛처럼 정력을 집중하여 경제를 개건》하겠다고 공약한 클린톤에게 쏠렸던것이다.

그러나 클린톤은 위대한 시대를 떠난 위인이 없으며 피어린 전쟁을 떠난 영웅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력사에 공인된 미국의 4대대통령들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독립전쟁시기의 워싱톤은 물론 남북전쟁시기의 링컨,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랭전이 극한에 이르고 있던 1962년 쏘련이 꾸바에 미싸일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의 케네디, 그들은 다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였고 비상한 용기와 지도력을 발휘한 위인들이였다.

그러면 클린톤이라고 왜 그들처럼 되지 못하겠는가?…

사람들은 그를 쾌활한 사나이, 락천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웃고있는 얼굴뒤의 야심만만한 경쟁심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경쟁이라고 보는 사나이였다. 수백수천만의 사람들이 한주로에서 달리는 인생의 마라손경기, 그 경기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래일도 계속되게 된다. 일단 그 주로에 나선 이상 달려야 하며 달리되 피를 물고 달려서 제일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믿는 그였다. 이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인생주로를 기를 쓰며 달리게 하였다.

1946년 아칸소주의 호프시에서 유복자로 태여나 술주정뱅이 계부의 슬하에서 비록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내긴 했어도 그는 피나는 야심을 품고 벌써 고중시절에 수재로 뽑혀 백악관을 참관하였는데 그때 케네디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그의 눈길은 백악관의 옥좌를 겨누었었다. 그뒤 워싱톤 죠지타운대학, 영국의 옥스포드대학, 또 미국 예일대학을 나온후 본격적인 그리고 필사적인 경쟁의 파도속에 몸을 던졌다. 그 시절의 첫 주지사선거경쟁은 얼마나 치렬했던가! 첫번째엔 패했지만 두번째엔 이겨서 미국에서 가장 젊

은 주지사로 되였다. 그후 다섯번이나 더 경쟁에서 이겨 무려 12년간 즉 미국에서 가장 오랜 주지사로 있으면서도 그의 눈길은 백악관에서 떠나지 않았다.

드디여 1년 1개월의 치렬한 선거경쟁을 거쳐 그는 47살에 제42대 미국대통령 즉 백악관의 주인이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이 끝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는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영웅들과 또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극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시기에 권좌를 타고앉아있은 선임대통령 부쉬를 딛고 올라서야 했다. 한때 영광의 절정우에 기여오르던 부쉬,그러나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에 커다란 작용을 한 그마저도 끝내 허물지 못한 보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조선이였다.

클린톤은 드디여 결심하였다. 북조선의 핵문제를 주패장으로 잡고 자기의 힘과 의지를,지도력을 과시할 작정이였다. 그것은 면밀히 타산된 결심이였다. 그는 지난 50년대에 트루맨과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했다는것도, 《푸에블로》호 사건과 《이씨－121》비행기격추사건때 죤슨과 닉슨이 숱한 군함과 비행기를 몰아갔지만 끝내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 그때에는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나라들이 있었지만 인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하여 지난 1월 23일 그가 대통령취임식이 있은 다음 처음으로 비준한 문건들중의 하나가 바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에 대한 명령서였다. 이 문건은 취임후 3일후인 1월 26일 정식 공포되였다.

클린톤은 부쉬가 중지했던 핵전쟁연습을 재개하는것으로 대통령의 첫걸음을 시작함으로써 그에 대해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않고 있던 군부와 군수독점체들,정계의 보수세력들을 만족시켰고 그들로부터 뜻깊은 악수를 받게 되였다.

그때부터 《포커스작전》도 적극 추진되였다. 사실상 그것은 부쉬때부터 제안된것인데 여러모로 고려되고 《팀 스피리트》도 중단되여있어 (《팀 스피리트》를 떠난 《포커스작전》은 있을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가 혈기방자한 클린톤에 의해 되살아난것이였다.

클린톤은 쏘련이 해체된후 거의나 고립무원한 처지에 놓이게 된 북조선의 정치군사경제적잠재력을 보잘것없는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우수한 무장장비에 대해 요란히 떠들지만 그것은 별로 우려할것이 없다고 보았다. 미국은 이미 만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고도기술무기들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던것이다.

그러면 걱정할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전쟁의 구실과 명분이다. 미국과 클린톤행정부가 쓰고있는 민주주의의 너울에 얼룩이 가지 않게 하는것이다. 세계에서 처음 원폭투하를 명령한것으로 하여 《세기의 대살인자》라는 비참한 운명의 십자가를 걸머진 트루맨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타산하는것뿐이다.

그때 중앙정보국장 울지가 그를 불렀다.

《대통령각하, 제 생각엔 북조선을 계속 자극하여 그 지도부로 하여금 분별을 잃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클린톤은 앞서있은 론쟁을 스쳐버렸으므로 인츰 무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리숭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애스핀국방장관이 노기에 찬 음성으로 반박하였다.

《세계의 전쟁사는 전쟁개시 이전에 누구나 강력한 평화공세를 먼저 앞세웠다는것을 보여주고있소.》

《그럼 당신이 말하는것은 뭐요?》 하고 울지가 비웃었다. 《그런즉 당신은 〈팀 스피리트〉가 강력한 평화공세라는거요?》

《…》

방안분위기가 긴장해졌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다반을 받쳐든 힐라리가 애교있는 미소를 띠우고 방에 들어왔다. 힐라리는 늘 접대부의 손을 빌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님들을 즐겨 대접하군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문제토의에도 스스럼없이 끼울수 있는것이다.

전통적인 관례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은 그 어떤 직책이나 직무에도 있지 않게 되여있으나 힐라리만은 거기에 구애되지 않았다. 지금 힐라리는 클린톤의 가장 유력한 조언자로서 확고부동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클린톤정권각료들의 대다수를 힐라리가 선발하고

추천했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실제로 힐라리가 지도하는 의료보건특별소조성원들가운데엔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4명의 장관들이 들어있다. 그는 현명한 조언과 기발한 착안으로써 정책작성에 적극 관여하였고 지금은 국무성회의실에 그의 자리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여있다. 하기에 녀성잡지 《매력》은 힐라리를 미국의 10대녀걸들중에서 첫자리에 놓으면서 《백악관의 절반주인》이라고 평했었다.

힐라리의 출현은 분위기를 가셔주었다. 검은색 도레스를 입은 힐라리는 정치가들의 고달픈 토론석상에 녀성특유의 아릿한 체취는 물론 그들모두의 마음을 덥혀주기에 충분한 량의 미소도 가지고 왔다.

《자, 어서들 드세요.》 하고 힐라리는 각자의 기호에 알맞게 차와 커피, 코카콜라 등을 놓아주었다. 《그런데 다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군요.》

《부인, 지금 우린 억지로 령감을 찾고있는 시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애스핀국방장관의 말이였다.

《아, 그러세요？》 하고 힐라리는 또 애교있는 미소를 골고루 선물했다. 《하지만 그걸 억지로 찾을 필요야 있을가요？ 령감이란 저절로 와주는 법이죠.》

《그야 물론！… 하지만…》

《하지만 대통령각하가 억지로라도 찾으라고 한단말이죠？》

힐라리의 그 말에 모두 소리내여 웃었다.

《무슨 일이든》 하고 힐라리가 또 입을 열었다. 《너무 앞질러나가면 코가 깨지는 법이죠. 잠을 자고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가요？》

마지막 그 말은 클린톤을 눈웃음으로 스쳐보며 한것이였는데 그녀자의 미소에서 클린톤은 그가 주말휴가를 포기했다는것, 중요한 이 문제토의를 래일 계속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클린톤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핵무기제조비밀을 공개한 남아프리카에 대해 우리는 공식적으로 환영의 립장을 취합시다. 그러되 그것을 북조선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써먹어야겠소. 북조선도 남아프리카처럼 감추고 있는것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하오. 이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가 매우 중요하오. 우리가 애써 찾고 있는 전쟁의 명분은 바로 그 회의에 달려있소. 북조선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핵활동이 불투명하며 핵무기개발의혹이 매우 짙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때 우리의 〈포커스작전〉도 지지를 받게 되는것이요. 그러므로 원회의에 주목을 돌립시다. 원회의와 〈포커스작전〉은 당면한 우리의 2대목표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수석보좌관 토마스를 불러 엄숙히 언명했다.

《전체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에게 알려야겠소. 이제부터 1개월동안 일체 주말휴가를 금지한다고 말이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이 속한다. 클린톤이 자신을 포함한 그 성원들에 한하여 1개월동안 주말휴가를 금지한다고 한것은 그 기간에 북조선의 핵문제와 《팀 스피리트》도 북조선의 운명도 끝장이 날것이기때문이였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문제가 또 한가지 있다 하고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언명했다.

《인제는 핵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수역에 날려보낼 때가 되였소.》

그가 말하는것이 바로 38발의 핵탄을 적재할수 있는, 길이 41.7메터에 너비 23.8메터, 폭탄을 만재했을 때의 최대중량이 216.4톤에 달하는 미국의 최신예핵전략폭격기 《비－1비》라는것을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고 클린톤은 계속하였다. 《북조선의 수뇌부에 강한 정신적압력을 가하고 그 국민들에게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것이요. 우리의 〈포커스작전〉은 이로써 정식 발동된셈이요!》

그제야 모인 사람들은 대통령이 왜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에 한해서 일체 주말휴가를 금지한다고 했는지 리해할수 있었다. 극동에서의 전쟁이 눈앞의 현실로 되였던것이다.

13

오영범려단의 도하훈련을 지도하신 **김정일**동지께서 백살구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당중앙위원회 청사앞길로 들어서신것은 새벽 3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곧장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집무실책상우에는 어제 그이께서 마지막 추고작업을 마무리지은 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가 놓여있었다. 현시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적들의 온갖 궤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론증하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는 혁명의 요구로 여기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 당기관지에 발표하실 그 로작을 다시 처음부터 깐깐히 훑어보시였다.

책임서기가 들어왔다. 그새 집계된 자료들을 집무탁 한옆에 놓아드리는데 이미 쌓여있던 문건들까지 다 보시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먼저 외교부에서 새로 만들어올린 문건부터 골라드시였다.

여전히 그이의 주되는 관심사로 된것은 최근의 엄중한 정세발전을 촉발시킨 《핵문제》였던것이다. 그 핵문제는 이제 있게 될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계기로 전면적인 충돌과 전쟁의 길 아니면 대화와 협상의 길 둘중의 하나를 택하게 된다.

밑줄까지 그으며 주의깊게 문건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가벼운 인기척을 느끼며 머리를 드시였다. 비로소 책임서기가 아직 방에서 나가지 않고있는것을 아시였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마주잡은 두손을 비비적거리며 바재이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책임서기는 목이 잠긴 소리로 말씀드렸다. 《벌써 새벽 3시가 지났습니다.》

《아, 그렇소？》

그이께서는 거의 습관적으로 탁상시계를 바라보시였다.

웬일인지 시계바늘이 잘 분간되지 않는것 같아 눈언저리를 가볍게 문지르시였다. 겹쌓인 피로가 눈시울에 무겁게 매여달리는 느낌이 드시였다.

《알겠소. 곧 끝내도록 하겠소.》

책임서기는 무슨 말인가 또 하려 하였으나 그이께서 다시 서류를 끄당기시자 입을 다물고말았다. 아무리 말씀드려봤댔자 소용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으므로 매일같이 겪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은채 조용히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오영범의 려단에서 만나본 나어린 전사 림정산을 퍼끗 상기하신 그이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였다.

《책임서기동무,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소. 하동광산에 림희문이라는 로동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오. 혹시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 무슨 곡절이라도 있지 않는지… 알아보고 인차 보고해주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서 쉬오. 내 걱정은 말고.》

책임서기는 잠시 서있다가 소리없이 방에서 나갔다. 그이께서는 또 문건을 펴드시였다. 매 글줄을 주의깊게 읽으며 한손을 내밀어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그러자 어느새 《교환 듣습니다!》 하는 랑랑한 목소리가 울렸다.

《가만! …》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찾으시려는 일군의 방과 직결되여있는 전화가 아닌 다른것을 들고있다는것을 깨달으시였다. 하지만 이왕 드신바엔 그대로 전화를 거는편이 더 좋을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교환 듣습니다.》

송수화구에서는 저쪽의 가는 숨소리까지 다 들려왔다.

《음, 알고있소. 헌데… 이젠 너무 늦었지?》

그이께서 혼자말씀처럼 뇌이신 말씀이였다. 그러자 숨죽여 기다리고있던 교환수처녀가 잰말씨로 속삭이듯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밤이 퍽 깊었습니다.》

부지중 그이께서는 미소를 그리시였다. 《밤이 퍽 깊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정다운 선률로 새겨져있는 노래, 어린 교환수는 그 노래구절로 대답올렸던것이다.

《그래 밤이 퍽 깊었지. … 하지만 아직 우린 할 일이 많지 않나. 동무만 해도 그렇지, 아침까지 교환대를 지켜야겠지?》

그러자 처녀교환수는 불같은 속삭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린 시간맞춰 교대를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 하루도 교대없이 일하고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가 그이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럼 외교부 1부부장동무를 찾아주오. 사무실에 없으면 더 찾지 말구.》

《알았습니다.》

외교부 제1부부장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핵상무조성원들과 사업을 토의하고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그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가고 물으시자 그는 순회대사 최우정, 국장 장운성 등이라고 하였다.

《그 동무들을 쉬게 하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1부부장동문 곧 여기로 와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선규는 약 15분쯤 지나 도착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정중히 인사드리자 가까운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며 자꾸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깊은 이밤 어데선가 흐느끼듯 떨리는 바이올린음악이 물결쳐흐르는것이였다. 숙연한 이 집무실에 심산의 물소리마냥 은은히 흐르는 음악, 비로소 그것이 창가쪽의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것임을 알고는 곧 책상우의 문건에 눈길을 박았다. 꾹 다문 그의 입귀가 알릴듯말듯 가늘게 실룩거리고있었다. 방금 그이께서 밑줄을 그으신것이 무엇을 의미할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있는듯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격조종으로 록음음악을 낮추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유럽나라들을 방문중인 외교부동무들을 랍치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문선규는 서둘러 대답올렸다. 《괴뢰안기부놈들이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그런 모략을 꾸몄습니다. 우리 외교관들을 랍치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 한것 같습니다.》

《그래 결과는?》

《우리 동무들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고 갑자기 일정을 변경시켰습니다. 브라찌슬라바에서 모스크바행렬차를 타려다가 곧장 승용차로 쁘라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쁘라하에서 비행기편을 리용하였습니다. 괴뢰안기부놈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렬차에 타고있던 우리 나라 관광총국일군들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가 대상을 놓쳤다는것을 알고는 일반 범죄자들이 그런것처럼 꾸미려고 귀중품과 돈을 강탈해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대사관일군들이 제때에 사실을 규명하지 못한것은 그 일이 렬차가 두 나라 지경을 넘고있을 때 벌어졌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걸음 천천히 오가시였다.

《적들의 발악은 더욱더 우심해지고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인제는 외교관들을 랍치할 모략까지 꾸민단말이지. … 그럴수록 더욱 더 각성을 높이고 만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 이번 일을 통하여 저희들도 심각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군들의 일정을 더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외교일군들 자신의 각성과 림기응변에 있는것입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지. 그 동무들이 제때에 정황을 판단하고 대담하게 일정을 바꿨거든! … 참, 일행을 책임진 동무가 누굽니까?》

《참사 김세환동무입니다.》

《김세환! … 이번의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 우리 대표단 단장

으로 보내기로 한 그 동무？》

《그렇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대기중입니다. 회의날자가 박두했기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오스트리아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를 방조할 성원들은 다 준비되여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마지막말에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 의미인즉 이제 그이께서 문건을 비준하여주시면 김세환참사를 방조할 성원들이 당장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가리라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상앞으로 돌아오시여 문건을 펴드시였다. 한동안 몇장 번져보시다가 문선규를 자리에 앉도록 하고 물으시였다.

《1부부장동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채택할것 같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문선규는 버릇된 동작으로 안경을 바로잡으며 서둘러 말씀드렸다. 《벌써부터 그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하게 될것이라고 떠들고있고 또 이미 보고드린것처럼 기구총국장이 두번씩이나 우리한테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답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는 전보를 보내면서 위협하고있는것으로 보아 회의결과는 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기구와 또 격렬한 론전을 벌릴 생각이였구만？》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길밖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문건을 덮고 가늘게 울려오는 바이올린음악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지금까지 그것을 잊고있던 문선규도 비로소 그 절절한 음악을 언제 어데서 들었던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도리질을 하고말았다. 지금 그에게는 음악같은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 즉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라는 전투임무를 받고있는 전사였다. 지금은 그 전투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1부부장동무, 동문 어릴 때 어떤 희망을 가지고있었습니까?… 물론 그때부터 외교관이 될 꿈을 꾼건 아닐게고.》

문선규는 뜻밖의 물으심에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곧 어줍게 웃으며 말씀드렸다.

《전 어릴 때 유명한 천문학자로 될 꿈을 꾸었댔습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와 같이 생명활동에 적합한 항성을 하나 발견하고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그게 왜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꿈인데… 다만 우리 조국의 현실이 동무의 능력을 보아 더 절박한 투쟁무대에 내세워준것이지. 그건 그렇고… 난 1부부장동무가 어릴 때 남달리 체육을 잘하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했댔는데… 례하면 씨름이라든가…》

《예, 옳습니다!》 하고 문선규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올렸다. 《뽈도 차고 씨름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배지기차돌〉이라고 부르면서 이담에 크면 유명한 씨름선수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제 어릴 때 아명이 차돌이여서…》

《〈배지기차돌〉이라!…》 하고 그이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것참, 1부부장동무한테 딱 들어맞는 말이구만. 어떤 나라 사람들이 동무를 두고 지혜도 있는데다 뚝심도 있고 배지기전술까지 가지고있다 했다더니!…》

이윽고 그이께서는 웃음을 거두고 다시 문건을 펴드시였다.

《그러나 외교활동은 단순한 시합이나 경기가 아닙니다. 경기장에서는 첫번엔 진다 해도 두번째, 세번째 시합을 바라볼수 있어도 외교사업은 단 한번에 결판을 짓기때문입니다. 그러면 당면한 우리의 투쟁전술은 무엇인가? 국제원자력기구와 법률실무적싸움을 계속하는것이겠는가. …》

어느덧 그이의 표정은 근엄해지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주어 계속하시였다.

《아니, 법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군사화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가 생겨난것도, 그것을 국제화하며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것도 다 적들의 정치군사적목적에서 출발되였

기때문입니다. 지금 기구는 한갖 미국의 사환군에 불과하므로 이것들은 줴버리고 미국과 직접 맞붙어야 합니다. 미국을 끌어내시오!》

그이께서는 옆탁우의 커다란 지구의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격렬한 정치투쟁이 벌어질 서반구쪽을 여겨보시는듯… 잠시후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번엔 원자력공업부장과 핵물리전문가들도 함께 보냅시다. 그들이 가서 기구내 일부 불순세력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소위 〈불일치점〉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합시다. 그러되 기본은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요구가 바로 미국의 각본에 따른 엄중한 군사정치적문제라는것을 강력히 론증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집을 터뜨린것도 미국이요,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국제원자력기구 권능밖의 일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직접 결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동을 쥐고 적들을 역포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의 2월관리리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우리 대표단의 주되는 과업입니다!… 강경하게 나가도록 하시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우리와 기구사이의 문제로 못박아놓고 저들은 저들대로 정치군사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꾀하고있는데… 안될것이요. 적들의 이 유인전술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조미사이의 문제로 얽어매놓고 다불러대면 바빠날것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주동을 쥐고 배심있게 행동하게 하시오. 배심이자 곧 승리요!》

《!…》

문선규는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숨죽여 들으며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가슴은 벅찬 격동으로 하여 부풀다 못해 뻐근해졌고 관자노리의 피줄들이 툭툭 뛰는 소리마저 들릴듯했다.

《물론》 하고 그이께서 또 계속하시였다. 《바빠맞은 적들이 극단적인 사태를 조성할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내에서는 녕변지구를 폭격하자느니, 선손을 써서 응징하자느니 하는 폭언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1부부장동무, 배심있게 냅다밉시다.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킵시다!》

《예, 장군님! 배심있게 냅다 밀겠습니다!》

문선규는 큰 숨을 내뿜으며 이렇게 힘찬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바로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문선규는 그이께서 전화를 드실수 있도록 한옆으로 비켜서면서 이 새벽에 무슨 전화일가 하고 생각했다. 이러한 때 이 집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실분은 단 한분밖에 없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그는 입술을 감빨며 귀를 기울였다.

예견한바 그대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처음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께 너무 무리한다고 나무람하시는듯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쪽잠도 달게 자는 습관이 붙어 일없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두분 사이에는 당과 국가의 중대사가 론의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얼굴에서 차츰 미소가 사라져가고 근엄한 안광에서 불빛이 펀뜩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전쟁이 박두해오고있습니다. 지금 적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또 말씀하시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욱 심각해지시였다. 한동안 그이께서는 《예.》 혹은 《그렇습니다.》 하고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시더니 마침내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예, 수령님! 그 문제부터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 1부부장동무도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예, 2월관리리사회에서 하게 될 우리 대표단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토론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한동안 말씀하신후 그이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곧 쉬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정중히 인사를 드린 다음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가로 걸어가시였다. 창가림 한끝이 가볍게 흔들리였다. 그것은 마치 그이의 무거운 숨결이 일으킨 흔들림인듯하였다.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정세가 〈푸에블로〉호 사건때를 방불케 한다시며 적들의 그 어떤 전쟁위협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심단결된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이 있고 당에 충실한 일당백의 인민군대가 있는 이상 외교부동무들이 핵

대결전에서도 뜬뜬해서 활동하게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창문창가림을 한옆으로 밀어놓으시였다. 먼 하늘가에서 껌벅이고있는 북극성이 내다보였다. 새벽이 가까와오면서 점차로 빛을 잃어가는 별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듯하였다. 침묵, 채칵거리는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변함없이 울리고있을뿐… 마침내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였다.

《이 새벽에 벌써 일을 시작하시다니… 우리가 너무 무리한다고 꾸중하시면서도 자신께서는… 정말 고령의 우리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면 하루가 왜 그리 짧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군합니다.》

《！…》

다시 계속된 오래인 침묵, 문선규는 숭엄한 생각에 젖어 바르르 눈시울을 떨고있었다. 뜨겁게 흘러드는 물줄기,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목이 메였다. 하루！… 하루란 무엇인가？ 사람은 하루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 창밖의 먼 하늘가에서 무엇인가 불타고있었다. 별찌였다. 순식간에 확 타올라서는 수억의 별들이 금모래알처럼 뿌려져 궁형의 다리를 이루고있는 은하수를 꿰지르더니 시작될 때처럼 홀연 사라져버렸다.

이윽고 **김정일**동지께서 탁자로 돌아오시였다.

《1부부장동무, 우리 일을 더 잘하여 수령님의 근심을 꼭 덜어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 그럼》 하고 그이께서는 책상우의 외교부문건을 문선규에게 돌려주시였다.

《오늘 토론한대로 대표단사업을 준비시키시오.》

비로소 문선규는 자기가 물러갈 때가 되였음을 깨달았다.

《그럼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앉으시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이왕 늦은바에 좀 앉아 이야기나 합시다.》

그이께서는 록음음악을 다시 높여놓고 쏘파쪽으로 가서 자리잡고앉으며 문선규에게 옆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리고는 차를 마시겠는가, 커피를 들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문선규가 머뭇거리며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것을 보고 그이께서는 늦은밤엔 되도록 담배나 커피를 삼가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차가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차를 드시면서 그에게 음악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문선규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한때문이였다.

그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언제인가 익히 들어온 음악인데 무슨 곡이던지 안타까울 지경으로 생각나지 않았다. 그 무슨 애절한 속삭임같기도 하고 절절한 부르짖음같이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그이께서 또 조용히 사색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꿈〉이라는 곡이요. 이 곡은 본래 피아노곡인데 삶에 대한 애착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동경을 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과 사랑에 대한 꿈이라 할가…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자기들의 음악으로 이 세계를 정화시켜보려고 했었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키워주어 인간의 삶을 보다 빛나게 해주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자기의 온 심혼을 쏟아부었겠소. 하지만 그들이 꿈의 선률로 그려보던 미래에 오늘과 같이 전 인류를 한순간에 파멸시킬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겪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테지. …》

그이께서는 가슴우에 두팔을 겯고 점차 고조되는 음악을 듣고 계시였다. 겹쌓인 피로도 하많은 일감도 다 잊고 오직 깊은 상념의 세계에, 아름다운 꿈의 세계에만 심취되여계신듯했다.

어느덧 문선규도 그 열정적인 선률에 끌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애끓는 심중의 호소마냥 속삭이는 꿈의 선률, 가슴헤쳐 부르짖는 삶의 찬가, 점차 그것은 미래에로의 밝은 희망을 꿈꾸듯 가늘게 숨쉬며 멀리, 아득히 작아지며 사라져갔다.

이윽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드시면서 부인이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가보았다고 말씀드리자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뭘 그러시오. 다 알고 하는 말인데… 물론 1부부장동문 중대한 국사때문에 사사로운 일엔 관심할새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

선 안됩니다. 자기의 부모처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리기적인 것과 같은것으로 보아선 안됩니다. 사랑이란 신성한것인데 그것이 왜 뒤전에 밀어놓을 사사로운 잡념이겠습니까. 부인의 건강에 관심하시오. 우리 생활에선 사사로운것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정이 곧 사업을 뒤받침해주는 고임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 어서 차를 드시오. 그리고 1부부장동무도 부정맥이 심한 편이라고 하더구만.》

《예?!》

문선규는 놀랐다. 그가 쥐고있는 차잔이 가볍게 떨리는것을 지켜보시며 그이께서 가볍게 미소하시였다.

《내 그래서 부정맥에 좋다는 약을 구해놨소.》

그이께서는 차대밑에서 약병 두개를 꺼내시였다.

《의사들의 말이 효능높은 약이라고 하던데 가져다 써보시오.》

《!…》

그이께서 주시는 약병을 받아드는 문선규의 두눈에서 물기가 번뜩이였다. 무엇이든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혀가 굳어져버린듯했다.

《일을 하려면 제때에 쉴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이제 돌아가면 만사를 제쳐놓고 한잠 푹 자시오.》

문선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구멍으로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벌써 새벽 4시가 되여옵니다. 인젠 좀 쉬셔야겠습니다.》

《아, 나도 쉬겠소. 정말이요!》

그러나 문선규가 정중히 인사드리고 나가기 바쁘게 또 책임서기가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중대보고가 아니면 절대 늦은 밤시간에 보고를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그이께서 묻는듯한 눈길을 드시자 책임서기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방금 작전국장이 새 정황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봅시다!》

그이께서는 작전국장이 보고드린 자료를 읽으시였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리륙한 3대의 〈비－1비〉 전략폭격기들이 괌도의 앤더슨기지에 날아들었습니다.》

보고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엄중한 위험이 닥쳐오고있다는 비상통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1비》라는 글자들을 한데 모으며 진하게 동그라미를 그리시였다. 38발의 핵폭탄을 실어나를수 있는 최신예핵전략폭격기 《비－1비》, 드디여 《핵까마귀》들이 우리 조국땅 가까이로 날아들기 시작한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쟁은 불가피하다는것이 하나하나 실증되고있다. 전쟁, 전쟁！…)

그이께서는 손에 들고있던 자료를 놓고 쏘파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시였다. 어쨌든 지금은 눈을 붙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각을 넘기면 말짱 졸음이 달아날수도 있다.

그이께서는 눈을 감으시였다. 기다렸던듯 일시에 피로가 몰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짙은 구름처럼 캄캄한 어둠을 몰아오며 빈틈없이 주위를 휘감는듯하였다. 그 시꺼먼 어둠속으로 웅－웅 발동기소리를 울리며 《핵까마귀》가 날고있는것이 보이시였다. 검푸른 바다를 건너 날고 또 난다. 지금 그들이 목표를 정한곳은 조선이다.

조선！…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손손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조선, 그이께서 처음 조선에 대하여, 그 수려한 산천과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과 그들의 아름다운 꿈에 대하여 알게 되신것은 언제부터였던가！… 흘러간 먼 시절, 어린시절의 꿈이 자라던 백두밀영에서였다. 백두밀영의 밤 어머님께서 어리신 그이를 잠재우시며 부르시던 《반달》이라는 노래에서부터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언제나 생생히 기억되시는 그밤, 밖에서는 눈보라가 태질하며 숲을 흔들고 문창호지를 붕－붕 울렸다. 가끔 굶주린 승냥이들이 통곡하듯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방안은 아늑했고 광솔불에 비쳐진 어머님의 모습은 그윽한

미소로 따뜻하게 빛났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그루 토끼 한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그이께서 눈을 뜨시면 어머님께서는 미소가 담긴 눈빛으로 정겹게 내려다보시군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리신 그이께 《자, 고운 꿈을 안고 어서 자거라.》 하고 속삭이시는듯하였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다시 눈을 감으며 낮고 부드러운 그 속삭임에, 그 노래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는것이였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데로 가나

그 먼 시절 어리신 그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내 나라는 어머님의 미소처럼 밝고 따스하고 어머님의 눈빛처럼 정겨운 나라, 빛나는 조국이였다.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건
　　　새별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하여 구름나라를 지나 아득히 먼 시련에 찬 길을 헤쳐 이 땅에 광복의 서광을 안아왔다. 이 귀중한 조국을 지켜 헤아릴수 없이 많은 피와 땀을 바쳐왔다. 그런데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조선을 기어이 압살해버리려 하고있다. 조선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 하고있다. 하지만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차츰 졸음이 사라져가는것을 느끼시였다. 지금 몇시나 되였을가.… 힘들게 눈을 뜨신다. 그러자 아직도 방이 캄캄한

데 놀라시였다. 방은 불이 꺼져있었고 언제부터였는지 창가림들도 다 빈틈없이 내려져있어 그 어데서건 한점의 빛도 찾을수 없다. 누군가 그이께서 편히 쉬시도록 그렇게 해놓은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별빛조차 가리운 인공의 어둠은 싫어하신다.

그런것을 좋아하는것은 거의나 무슨 비밀을 감추고싶어하는 사람들이거나 마음 가난한 사람들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정 어둠을 찾아다니며 한시도 쇠를 잠그지 않고는 안정하지 못한다.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나 좀더, 한순간만 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절로 눈이 감겨지는것을 느끼신다. 조금만, 조금만 더…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일만 해도 산더미같다. 올해 농사차비는 어떻게 되는지, 기름문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하고있는 그것이다. 벌써 이 땅을 목표로 《핵까마귀》들이 날아들고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상등을 켜시였다. 새날, 새 아침의 첫사업을 또 시작하시려는것이였다.

14

적들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있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례사롭게 살며 일하고있었다.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신문과 방송보도들에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이다가도 눈앞의 바쁜 일에 몰리여 곧 그것을 잊군하였다. 오늘도 어제같이 일찌기 출근하고 일하고 배우고 웃고 떠들고 다투기도 하였다. 저녁이면 또 텔레비죤앞에 모여앉았으나 보도시간보다도 텔레비죤극시간을 더 기다렸다. 생활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흘러가고있었다.

무역선 《무포》호 선장을 하는 수련의 아버지 리명구 역시 늘 바쁘게 제 일에만 몰리여 살아가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무포》호 전체 선원들모두가 다가오는 전쟁의 첫 세

례를 받을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지금 그들은 여러달만에 조국에 돌아와 남포항에 닻을 내렸으나 며칠 휴식을 하고는 또다시 대양을 헤가르며 가야 한다는것만을 알고있었다. 나라의 긴장한 연유사정때문에 정무원에서 취한 긴급조치라고들 했다. 그새 많은 무역선들이 청진과 흥남, 원산, 남포항들에서 계약된 물자와 대치물자들을 싣고 속속 출항했다고 한다. 정무원총리가 직접 철도화물수송과 항에서의 출하 및 하역 작업까지 매일 장악한다는 말도 있다. 그리하여 리명구는 하루밤동안만 평양에 있는 집에 들리고 다시 남포항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평양을 떠나기전에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 수련이와 몇마디 나누고싶어 시외전화로 상화군병원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수련이 밤근무를 서고 어디에 나갔다고 한다. 아쉬운대로 안해와만 작별인사를 나누고 렬차에 오를수밖에 없었다.

보통강역홈에서였다. 서운해하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던 안해가 그의 한손을 건드리며 말했다.

《남포항에서 또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동안 내가 미리 병원에 말해서 대기시켜놓겠으니 그렇게 하죠?》

《글쎄, 그럴새가 있겠는지…》

《아유!》 하고 안해는 혀를 찼다. 《밤낮 저런다니까… 그건 그렇구 당신 수련이 문젠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예?!》

《…》

리명구는 갓 면도를 한 퍼릿한 턱을 주물러대기만 했다. 안해가 이 말을 꺼낼 때마다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는수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그였다.

안해가 말하는 수련이 문제란 시골군병원에 배치된 그애를 수도 평양에 끌어올리자는것이였다. 중앙기관에 동료들도 적지 않은 리명구여서 조금만 힘쓰면 어렵지 않게 풀릴수 있는 일인데 일생 촌구석에 처박아두겠는가, 그거야 아버지로서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지청구였다.

《아버지가 정 맥을 못추면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수련이 문제》만 꺼내면 낯색이 파래지는 안해였다. 리명구는 입술을 삐주름히 내밀고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애 나이도 다 찼는데 좋은 대상자를 구해서 평양에 들여오면 될게 안예요.》

《그러니 시집을?》

《그래요.》

《아니 벌써?》

《벌써라뇨. 그애 나이 벌써 스물다섯이예요.》

《스물다섯?!…》

그는 놀랐다. 딸의 나이가 스물다섯이라서 놀란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나이가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놀란것이다.

《어느새 벌써!…》

그는 외동딸인 수련이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안해의 말에 의하면 《그애가 태여나기전부터》 사랑했다는것이다. 그것은 그가 만삭이 된 안해를 두고 출항하면서 수련이라는 딸애의 이름만 지어놓았기때문이다. 딸애의 이름은 수월히 지었지만 아들이름은 끝내 생각해내지 못했다. 몇달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벌써 방바닥을 벌벌 기여다니는 딸애를 보게 되였다. 안해가 기겁한 소리를 지르는것도 아랑곳 않고 다짜고짜 그애를 버쩍 들어올렸다.

그는 언제나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해하군한다. 놀라서 내려다보던 머루알같은 두눈, 금시 울음을 터칠듯 비쭉거리던 앙증스러운 입, 딸애는 어머니를 닮았었다. 모색은 어머니를, 성미는 아버지를 닮아 산뜻하고 부드러운가 하면 지독한 고집과 뾰족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날 그는 애를 안고 방안을 빙빙 돌아갔다.

까마득히 잊고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동요까지 불러댔던것 같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가자
검둥개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안해가 웃어댔다. 딸애를 안고 돌아가던 그가 《이크!》 하고 놀랜 소리를 지르며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지둥했던것이다. 그의

제복팔소매속으로 뜨끈뜨끈한 물줄기가 사정없이 흘러들고있었다.

《아니 이 녀석！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인사냐？》

안해는 계속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이녀석이라뇨. 딸애더러.》

《참 그렇지！》

행복한 그 저녁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때 그는 자기의 기쁨을 과장하여 이번엔 아들녀석이름을 꼭 지어놓고 출항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몇해가 지나도록 아들애를 보게 되리라는 기별은 없었다. 끝내 수련이는 외동딸로 자랐다.

그러던 수련이가 인제는 시집을 가게 되였다 한다. 리명구는 물고기처럼 입만 벙긋거리고있었다. 그때 안해가 들가방을 열고 그속에서 사진 한장을 꺼냈다.

《보세요.》

그는 사진을 받아들고 억센 정열의 불꽃이 튕기는 한 청년의 두눈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누구요？》

《총각이죠.》

《여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거요？》

《글쎄 사람이 어떤가 좀 보시라니까요.》

리명구는 더 캐묻지 않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생긴 젊은이가 리명구를 곧추 마주보고있다. 넓은 하관과 주먹코, 고수머리 그리고 상대편의 눈길을 서늘하게 하는 두눈, 아직 리명구는 이 사진속의 젊은이가 그 찌르는듯한 눈빛으로 자기 딸 역시 겁먹게 했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그래 어떠세요？》

《글쎄…》

《참 당신두, 꼭 수련이처럼 말하는군요.》

《그럼 수련이도 이 사람을 아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앤… 맘에 들어하는것 같더군요.》

《그－래？！》

리명구는 어쩐지 미덥지 않다는투로 수염터자리가 푸릿한 턱

을 어루쓸면서 중얼거렸다.

《내 보기엔…》

그때 기적소리가 울렸다. 승강대에 올라선 렬차원처녀가 리명구를 향해 《손님, 빨리 오르세요!》 하고 소리쳤다. 리명구는 안해에게 사진을 돌려주고나서 발치에 놓았던 트렁크를 들었다.

《내 이제 수련이와 전화로 말해보겠소.》 하고 그는 승강대에 오르면서 말했다. 《어쨌든 너무 서둘지 마오. 이런 일은 서두는게 아니야. 그리구 수련인말이요. 아직 어린애란말이요!》

렬차가 출발했다. 안해가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며 급히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걱정마세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꼭 건강에… 주의하시구요—》

리명구는 머리를 끄덕이며 점점 뒤떨어지고있는 안해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항에는 1시간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수련이와 이야기할 틈을 내지 못하였다. 예상치 않던 두가지 일이 항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하나는 그가 렬차를 타고오는동안 부에서 내려보낸 긴급지시였는데 지금 필리핀 북동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중국남해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맹렬한 폭풍우를 몰아오고있으므로 출항을 연기하라는것이였다.

여느때같으면 리명구도 이러한 《행운》을 은근히 기뻐했을것이다. 한번 닻을 올리면 두달, 석달 지어는 반년씩이나 세계의 해상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들 배사람들에게 있어서 뭍에서의, 특히 조국땅에서의 휴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였다. 그러나 리명구는 해운부 무전대를 통하여 중국남해해상의 일기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본 끝에 계획대로 출항하겠다고 고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올해 농사에 필요한 기름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 어떻게 맘편히 눌러앉아있겠는가, 그리고 20여년간이나 배를 탄 이 리명구도 믿지 못하겠는가 하고 들이대였다. 부에서는 심중한 토론끝에 출항을 승인했다.

그런데 그때 정치부장 한병권이 그를 찾아와 조용히 한마디 했다.

《선장동무, 좀 골치아픈 일이 하나 생겼소.》

한병권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투성이였다. 잔주름이 많기로 유명한 그였는데 기분이 상할 때면 특히 눈귀와 입가에 수많은 주름이 잡히는것이였다.

리명구는 긴장하여 그의 얼굴을 치떠보았다. 그러자 한병권은 소란스럽게 한숨을 내뿜으며 뜨직뜨직 말했다.

《항해당직근무를 바꿔야 할가 보오. 1등항해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

《지난밤 어디 가서 과음을 한것 같소. 글쎄 술이란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큰 소릴 치던 사람이… 아직도 눈알이 풀어져있소. 참 뜻밖이요.》

《?!…》

부선장을 겸하는 1등항해사 김철수는 운동가다운 그쯘한 체격을 가진 젊은이로서 두달전에 《무포》호로 배치되여왔다. 군대때 어뢰정을 타면서 담을 키웠고 바다의 짠물에 몸을 적셨다. 후엔 대학까지 나왔다. 들리는 말엔 그해 졸업생들중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이였다고 한다. 《무포》호의 2등항해사나 3등항해사들은 다 40줄에 들어섰지만 그만은 이제 34살로서 제일 젊었는데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 늘 웃고 떠들기 좋아하고 아무 일에나 발벗고 나서기를 좋아했으나 리명구는 아직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유쾌한 표정이나 떠들썩한 웃음이 어쩐지 꾸며낸것만 같이 여겨지기때문이였다.

그러한 그가 출항을 앞두고 취해있다고 한다. 《무포》호 력사에 전례가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비상사고가 아닐수 없다. 리명구는 곧장 그가 들어있는 선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후끈하고 탁한 공기와 함께 역한 술냄새가 확 풍겼다.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는데 한순간 몸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이건 뭐요?》 하고 리명구는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엉?!…》

김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눈길을 피하느라 허둥거렸다.

《많이 마셨소?》
《예,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자주 있소?… 그걸 좋아하오?》
《아닙니다. 저…》
리명구는 저도 모르게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눈언저리가 벌거우리한 그의 부석부석해진 얼굴을 노려보며 어데서 이런 위선자가 굴러왔을가 하고 생각했다. 그가 확실히 무엇인가 숨기고있으며 자기를 꾸며대고있다고 생각하니 역스럽게 느껴졌다.
《동문 1등항해사는커녕 보통 선원자격도 없소!》 하고 그는 기침을 깇으며 소리쳤다.
《당장 배에서 내리오!》
《예?!》
《부에 제기해서 동무를 떨궈두고 가겠소. 술내를 풍기는 1등항해사는 우리에게 필요없단말이요!》
《선장동지, 사실 전…》 하고 김철수는 숨구멍이 막힌듯 헉헉 모지름쓰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될줄은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용서? 누가 어떻게 용서한단말이요. 다른 사람같으면 또 모르겠소. 그렇지만 동무야 항해를 책임진 1등항해사가 아니요. 그래 나사가 풀린 1등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기면 배를 어디로 끌고가겠는가?!… 법과 질서가 그걸 용서치 않소!》
리명구는 한손을 홱 내젓고말았다. 그리고는 문을 활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섰다. 그때까지도 김철수는 머리를 푹 떨군채 꼼짝도 않고있었다. 다행히도 그는 선장의 팔소매를 붙들고 목메인 소리로 잘못을 빌 정도로 인격을 떨구지는 않았다.
리명구는 그의 방에서 풍기던 비릿한 냄새에 진저리를 치면서 급히 선장실로 돌아왔다. 웬일인지 숨이 차오르고 속이 메슥메슥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선장이란 곧 배의 사령관일뿐더러 바다우를 떠가는 국가정권의 전권대표이다. 선장이란 곧 배의 정신이며 의지이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로 조타실을 찾아 2등항해사 박

명호에게 출항준비를 지시했다. 그때 정치부장 한병권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꺼멓게 죽어있고 이발이라도 쏘는듯 고통스럽게 입귀를 비틀고있었다.

《어떻게 하려우?》

그가 묻는 말이였다.

《나는 그를 배에서 내리울 생각입니다.》

《1등항해사를?》

《바로 1등항해사이기때문이지요.》

《흠-》

한병권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불은 붙이지 않고 그것을 잘근잘근 깨물기만 했다. 얼굴을 뒤덮고있는 잘디잔 주름살들이 입을 놀릴 때마다 물결처럼 늠실거렸다.

올해 쉰여섯에 난 그는 리명구보다 불과 다섯살 우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리명구가 책보자기를 어깨에 질끈 동이고 반토굴학교로 가고있을 때 겨우 열일곱이던 그는 제 키보다 더 큰 보총을 메고 전선으로 달려갔던것이다. 그는 소년시절의 리명구가 즐겨읽던 전투실화의 주인공들중의 한사람이였으며 대학생이던 리명구가 부러움과 찬탄의 눈길로 바라보던 천리마선구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우리 혁명의 2세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의 항해만 마치면 은퇴하기로 내정되여있다.

리명구는 그와 거의 10년을 함께 일해온다. 하여 리명구는 그가 오늘따라 더 걸늙어보이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잘 알고있다. 지금도 그는 골이 쑤시는지 마디 굵은 시꺼먼 손가락으로 주름투성이 이마빡을 힘주어 문지르고있다.

《에에- 일두 참.》 하고 그는 가래끓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술이란 입에 대지두 않던 사람이 원.》

《그거야 그사람 하는 소리지요.》

리명구가 코웃음치며 이렇게 말하자 그는 쿵쿵 기침소리를 내였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사람 무슨 사달이 난게 틀림없소. 그렇지 않구야… 참 선장동무 그의 책상우에 있던 전보를 보았소?》

《전보요?》

《그러니 못봤구만. 내 그런것 같아 슬그머니 그걸 가지구 왔소.》
그는 주머니에서 끄깃끄깃 꾸겨뜨린 전보용지를 꺼내여 손바닥으로 다림질을 했다.
《읽어보오.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소.》
리명구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져다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묻는듯한 시선으로 한병권을 치떠보았으나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있었다. 리명구는 단 한줄로 찍힌 그 짧은 전보문을 다시금 유심히 한자한자 뜯어보았다.

퇴원함. 희망이 없음. 더는 찾지 말것. 영옥.

무엇인가 가슴아픈 사연을 전하는 전보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퇴원》, 《희망이 없음》 하는 문구들에서 그는 한동안 눈길을 뗄수 없었다. 이윽고 묻는듯한 의미로 머리를 들었으나 한병권은 자기의 생각에 묻혀 두눈을 가슴츠레 뜨고 선장실의 둥근 시창쪽만 바라보고있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한병권이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슨 사연이 있을테지, 있을거요. 쯕… 내가 일을 쓰게 못하여 아직 제 사람들을 다 모르고있으니 더 할 말은 없소만… 어찌겠소. 우선 믿고봅시다. 늘 망망대해에 떠서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상 더 귀한게 어디 있겠소. 그거야말루 배사람들의 밑천이지. 안그렇소, 선장동무?!…》
한병권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재털이를 끌어다 한손에 들고서 거기에 재를 털기 시작하였다. 리명구는 주먹을 쥐였다폈다 하면서 이윽토록 입을 꽉 다물고있었다.

15

그들은 북위 32도부근의 주산렬도 동북방에서 폭풍우를 만났다.

무려 4시간에 걸치는 무시무시한 항해가 새벽까지 계속되였다. 1만톤급 배도 여기 바다의 파도우에서는 한날 가랑잎에 불과했다. 배가 멀기를 타고넘을 때마다 산악같은 파도가 솟구쳐올라 배를 덮치고 갑판을 휩쓸어갔다. 그러면 머리우에서 소리도 없는 번개가 시퍼런 날창같이 고공을 쫙 찢으며 어둠속으로 파고들군했다. 이따금 몸부림치는 바다의 아우성속에서 불안에 떠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언제부터였는지 알수 없으나 숱한 바다새들이 배의 마스트전망대와 선교우 그리고 조타실지붕우에까지 가득 몰켜앉아있는것이였다.

리명구는 조타실에서 모사수신기에 찍혀나오는 일기도를 지켜보며 장밤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날이 샐녘에야 폭풍우를 꿰질러나갔다. 모사수신기에 찍혀나오는 위성통신일기도는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남해해상이 평온할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불시로 피곤이 몰려들면서 뒤덜미쪽이 뻣뻣해졌다. 20여년간 배를 탄 그였지만 파도가 높을 때엔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는 쓴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아직도 배는 앞머리를 허궁 쳐들며 쑥 솟구쳐올라서는 시커먼 바다의 심연속으로 소리없이 떨어져내리군했다. 그는 괴롭게 미간을 찌프리며 오른손으로 뒤덜미쪽을 힘주어 문질러댔다. 그때 항해당직근무를 맡고있는 1등항해사 김철수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장동지, 이젠 가서 눈을 좀 붙이십시오.》

《음-》

리명구는 그가 언제부터 근무를 서던가 하고 생각해보았으나 웬일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 친구와 한번 애길해봐야겠는데…)

리명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 15분 평양시간이다. 지금 그곳 수도의 지하철입구와 궤도전차 정류소들에서는 사람들이 붐비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 중국 남해해상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달리고있으므로 하루에도 몇번 시계바늘을 돌려야 하겠으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배의 여러 요소들에 전자시계와 관측기구들이 있어 현지시간을 알수 있으므로 그는 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조국의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가군했다. 그 시간을 보느라면 늘 조국과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듯 여겨지기때문이였다.

그는 1등항해사쪽의 탐지기에 얼핏 눈길을 던졌다. 그러자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김철수가 《침로 265도, 속도 28놋트, 싱가포르항로로 계속 전진하고있습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리명구는 미간을 찌프리며 불만스레 킁킁 코김을 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이 김철수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보기에 그는 거의나 나무랄데 없는 사람이다. 헌데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을가.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던 그가 전날밤 출항을 앞두고 억병으로 취한것은 무엇때문인가. 정치부장 한병권이 가지고왔던 그 전보때문이란말인가?!…

《나는 가서 좀 쉬겠소.》 하고 리명구는 군대때 습관으로 차렷자세를 취하는 김철수를 언짢게 바라보며 말했다. 《정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알리오.》

《알았습니다. 선장동지!》

리명구는 되는대로 손을 쳐들어보이고나서 조타실을 나섰다.

얼마후 그는 선장실 자기의 방에서 제복을 벗고 면도를 하고있었다. 하루라도 게을리했다가는 광대뼈어름까지 온통 시꺼매지는 유명짜한 수염을 가지고있는 그였다. 그래서 다른 무역선 선장들이나 부의 일군들 속에서 그는 리명구라는 이름보다 《을지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통하였다. 그 별명을 한병권정치부장이 달아주었는데 그는 자기네 선장이 구레나룻을 기르면 틀림없이 중학교력사교과서에 그려진 을지문덕장군과 같을거라고 하면서 영화연출가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들이 알면 당장 영화에 출연시키겠다고 끌어갈수 있다는것이였다.

리명구는 면도를 한 다음 탁자우에 해도를 펴놓고 창가의 고무나무와 토란화분에 물을 주는것도 잊지 않았다. 그다음 상두대우에 놓인 라지오록음기 전원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라지오록음기에서 연록색의 작은 불빛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

눈을 감아도 그리운 고향

푸른 언덕이 어리여오네
…

다시 탁자에 마주앉은 그는 확대경을 들고 영국로이드출판사에서 편찬한 해도를 깐깐히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신문이나 소설책 같은것을 뒤적거린다지만 선장인 그는 커다란 해도에 그려진 사연많은 선과 점들을 살펴보는데 습관되여있는것이다.

얼마후 그는 침대로 가서 벌렁 드러누웠다. 팔베개를 하고 눈을 감았으나 금시 곯아떨어질것 같던것이 점차 새록새록 많은 생각들이 련이어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보통강역홈에서 안해가 하던 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어수선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안해가 보여준 사진도 떠올랐다. 암팡지게 생긴 그 젊은이가 어데서 무얼하는지 묻지 않은것이 후회되였다.

수련이와 꼭 이야기를 해봤어야 하는건데… 수련이가 그 청년을 맘에 들어했다는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해가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다.

언제 음악이 끝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별안간 라지오록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가 기울여졌다. 방송원이 요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핵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이처럼 미국반동계층들은 핵문제를 걸고 계속 반공화국책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이번에 미중앙정보국장이 그 무슨 국회〈청문회〉라는데서 우리 나라가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니움을 생산하고있으나 그를 숨기려 하고있다〉느니 우리 공화국이 〈가장 우려되는 나라들중의 하나〉라느니 하고 고아댄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는 손더듬으로 상두대우의 담배갑을 끌어왔다. 여전히 방송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니 알싸한 흥분이 가슴벽을 훑으며 흘러들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비핵국가인 우리 공화국에는 하나의 핵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위협〉을 구실로 광란적인 핵시험전쟁이며 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고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보고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흥분할 때마다 그렇게 손끝이 떨리군한다. 담배대를 다른 손에 옮겨쥐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 미국반동계층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어느새 창밖은 훤히 밝아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갈매기들이 꽥꽥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푸른 파도우를 날아예는 물새들의 하얀깃털이 얼씬거렸다. 지난밤 배에 올라앉아가던 새들인지, 아니면 가까이에 섬들이 있는것인지…항행길을 손금보듯이 알고있는 그였지만 이렇게 막연히 추측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졸음은 말짱 달아나버렸다. 그는 숨쉬기가 편안치 않아 두팔을 힘껏 펴면서 둥근 시창을 그러쥐였다.

아침이 밝아오고있었다. 배전너머에서 부서지는 파도, 불그레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수평선, 쪼각쪼각 뜯기운 구름이 어데론가 황황히 사라져가고 그뒤쪽에서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다가 빛을 잃었다.

바로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탁자로 다가가 전화를 들었다.

《나 선장이요.》

《선장동지!》 1등항해사 김철수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정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이 우리를 뒤따르는것 같습니다.》

《뭐 잠수함?》

《예, 선미 좌현 35도, 거리 1마일지점에서 잠망경을 발견했습니다.》

《?!…》

그는 한손으로 버릇처럼 뒤덜미쪽을 힘주어 문지르기만 했다.

《선장동지!》

김철수가 또 소리쳐부른다.

《알겠소. 내 곧 그리로 가겠소.》

그는 모자를 쓰고 제복을 팔에 끼면서 문을 열고나갔다. 조타실까지

는 멀지 않다. 그는 서둘지 않고 란간을 따라걸어가면서 생각하였다. 잠수함이 왜 우릴 따르겠는가. 혹시 그가 잘못본것은 아니겠는가?…
조타실에서는 1등항해사 김철수가 탐지기에 붙어 눈이 빠지게 그것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선장이 들어서자 그는 데면데면한 표정으로 뒤더수기를 긁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
리명구는 그를 일별하고나서 두번째 탐지기로 다가갔다. 그리고 부질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잠시 둥그런 영상면에 새겨진 360도 눈금들로부터 침로 265도, 방향각 64수역 즉 배가 가는 방향 수십마일이내를 훑어보았다. 처음 30마일 전방에서 그 특이한 랭동차같은 모양새로 널리 알려진 일본자동차운반선 《아오이마루》와 원자력화물선 《무쯔》호를 발견하였다. 싱가포르정기려객선이 그보다 더 먼 수역에서 움직이고있을뿐 새날을 맞는 바다는 고요하였다.
뒤쪽에서도 잠수함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몇척의 유조선과 상선들이 중국의 상해항으로 향하고있었다. 아직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오가는 정기우편비행기도 뜨지 않았다.
그는 김철수에게 머리를 돌렸다.
《감시기록은 했소?》
《저… 아직…》
《하지 마오!》
리명구는 그가 착각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자 다시금 야릇한 불만이 가슴노리까지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입술만 자근자근 깨물고있는 그의 시쁘둥한 얼굴을 훌 스쳐보고나서 리명구는 선교로 나갔다.
밖에서는 바야흐로 장쾌한 바다의 아침이 시작되고있었다. 수평선너머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온 수평선일대가 시뻘건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하늘과 바다는 그 용암속에서 녹아붙고말았다. 배가 흐느적거리는 물결을 타고넘을 때마다 쇠물빛거품이 배전너머로 뒤번져갔다. 망망대해는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불타는 바다, 새날을 불러오는 탄생의 환희, 빛의 교향

시！… 리명구는 선교란간을 꽉 틀어잡고 서있었다. 이제 잠시후이면 대자연의 이 벅찬 환희도 곧 평범해지고말것이다. 태양이 물우에 떠오르면 붉은빛의 세계는 사라지고 검푸른 물결우에는 남방의 뜨거운 볕이 자글자글 퍼부어질것이다.

밑에서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갑판장이 사람들을 아침체조에로 부르는것이다. 맨내의바람인 갑판원, 조기원들과 당직근무이외의 보장성원들까지 달려나와 줄지어섰다.

모든것이 군대식이다. 아침체조도 근래엔 태권도훈련이 기본으로 되고있는데 그것은 1등항해사 김철수가 발기하고 제가 나서서 직접 훈련을 준것이다.

그때, 맨처음 배치되여왔을 때의 김철수는 얼마나 의젓해보였던가. 틀을 차리지 않고 웃동을 벗어붙이고 갑판원들과 같이 고무호스를 휘둘러대거나 기세좋게 태권도시범동작을 할 때의 그의 모습은 얼마나 대견했던가！… 하지만 나날이 그의 마음속 어둠이 드러나고 무엇인가 꾸며대고 억지로 쾌활한체하는것이 알릴수록 그에 대한 선망의 정은 서서히 갈앉고말았다. 이제 와서 리명구는 역스러운 느낌없이 그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 지경이다.

밑에서는 갑판장이 계속 호각을 불어대였다. 그 어느 배에서나 호각을 떠난 갑판장은 생각할수 없다. 길게 울리는 그 호각소리야말로 갑판장의 소유로만 되여있는 배의 언어인것이다.

리명구는 태권도 틀동작을 지휘하는 갑판장의 둔한 동작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을 머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별안간 그의 눈길은 배전너머에서 딱 굳어져버렸다. 가슴이 후두두！ 세차게 뛰였다.

(저게 무얼가？！…)

선수 좌현 800메터쯤되는 근방에서 부글부글 물이 끓으며 사품쳐오르고있었다. 용솟음쳐흐르는 번들거리는 물결, 뒤번져지는 물거품, 드디여 그속에서 시꺼먼 형체가 솟구쳐올랐다.

(잠수함이다！…)

한순간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굳어져버렸다. 이마전으로 차디찬 전률이 푸들거리고 퍼릿해진 볼편근육이 움씰거렸다.

마침내 잠수함우현에 새긴 흰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U S A 237》… 미해군잠수함이였다.

여전히 그는 쇠란간을 꽉 틀어잡은채 움직이지 못했다. 두팔은 저려나다 못해 힘살들이 막 튀여날것만 같았다. 미국잠수함이 어떻게 되여 우리의 눈앞에서 부상했는가. 우연인가 아니면 우리를 목표로 한것인가?…

갑판우에서는 여전히 갑판장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선원들이 태권도 틀동작에 여념이 없다. 아직 그들은 등뒤의 배전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선장동지！—》

1등항해사 김철수가 그를 소리쳐부르고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적잠수함쪽을 가리키는 그의 손이 창유리에서 얼른거렸다. 선장이 잠수함의 출현을 아직 모르고있나 해서인것 같다. 리명구는 알고있다는 의미로 한손을 홱 내젓고 다시금 잠수함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거품의 파도는 이미 스러져버렸다. 미국잠수함은 속도를 높여 약간 앞질러가면서 배의 선수방향으로 점차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던 일루의 기대도 사라졌다. 적함이 《무포》호를 노리고 부상한것이 틀림없었다.

적함에서 기적소리가 울렸다. 옛 증기기관차의 목갈린 부르짖음소리와 같이 대기를 찢어발기는 사나운 웨침이였다. 길게 한번, 짧게 두번… 대화를 건네는 배들간의 신호이다.

리명구는 조타실로 달려들어갔다. 그를 보자 김철수가 갈린 목소리로 《선장동지,미국놈들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리명구는 그의 흥분한 얼굴을 흘낏 치떠보며 우정 거칠게 말했다.

《소리치지 마오.》

김철수는 입술을 꽉 악물었다.

《놈들에게 응답신호를 하오.》

리명구의 그 말에 그는 속삭임과도 같은 소리로 《알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윽고 고동소리가 울렸다. 길고 짧은 배고동소리,웅글고 정답고 부드럽고도 억센 배고동소리,귀항의 부두에서 울릴 때면 가슴

이 뭉클해지던 배고동소리였다.

미국잠수함이 또 찢어지는듯한 기적소리로 신호해왔다. 리명구는 놈들이 16통로를 찾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16통로란 바다우의 모든 배들사이에 통하는 국제대화통로이다.

《초단파대화기를 동작시키시오.》

리명구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김철수가 초단파대화기의 전원을 련결시켰다. 잠시 급격하게 뛰놀던 계기바늘이 파르르 떨면서 한자리에 멎어섰다. 16통로이다.

리명구는 초단파대화기의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대고 영어로 말했다.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선 〈무포〉호 선장이다. 무슨 일인지 말하라.》

그러자 아주 성급한 영어말소리가 진동판을 세게 울렸다.

《북조선상선 들으라！…》

몹시 갈개는 녀석인듯했다. 그 위협적인 첫마디에 리명구는 모욕감을 느꼈다. 관자노리의 피줄들이 푸들푸들 들뛰는것을 느끼며 그는 거칠게 쏘아붙였다.

《다시 말한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선 선장이다. 너는 누군가？ 말하라！》

《나 아메리카해군잠수함 〈타잔〉호 선장이다.》

《흥, 벌써 그랬어야지.》

리명구는 이 말을 영어로가 아니라 우리 말로 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다음 말은 또 영어로 번졌다.

《그럼 말해보라. 왜 우릴 찾는가？》

《우린 명령을 받고 왔다. 북조선상선 검열하겠다.》

《검열？》

《그렇다. 북조선상선 미싸일을 싣고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장 배를 멈추라. 검열하겠다！》

《…》

리명구는 입술을 꽉 악물고있었다. 얼굴은 검붉어지다 못해 퍼런 빛이 돌 지경이였다. 그는 세찬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숱진 눈

섭을 흠칫거리며 두손을 맞잡고 마주 비틀었다.

《북조선 선장 들었는가. 왜 대답이 없는가?》

《…》

갑자기 웬일인지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입안이 타들다 못해 목구멍까지 칵 메이게 했다. 그는 갓 면도를 한 푸르끼레한 턱을 손바닥으로 힘껏 문지르고나서 급기야 분노에 질린 청높은 웨침소리를 터쳤다.

《미국잠수함 함장, 내 말 들으라. 우리 배엔 그 어떤 미싸일도 없다!》

《북조선 선장!》

《뭐 감히 우리 배를 검열하겠다구?… 안된다!》

《북조선 선장,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

《…》

또다시 리명구는 두볼을 푸들푸들 떨고있을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웬일인지 오만무례한 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참을길 없는 울분이 그를 온통 뒤흔들어놓는듯했다.

적잠수함에서 새된 기적소리가 또 울려왔다. 악에 받친 경고의 울부짖음소리, 초단파대화기에서도 역시 미군잠수함 함장의 신경질적인 웨침소리가 귀아프게 계속 울려나오고있었다.

《북조선 선장, 대답하라.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검열하겠다.》

《…》

리명구는 피끗 김철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자기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려는것이였다. 철수는 입을 벌리고 크게 숨을 들이긋는것이 마치도 숨이 가빠 모지름쓰는듯했다. 그 역시 미국잠수함 함장의 말을 알아들었던것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가?… 리명구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20년이나 배를 타고 세계의 대양을 헤가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적함과 직접 맞다들어보기는 처음이여서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급하게 생각을 굴리던 그는 배지휘마이크앞으로 달려갔다.

《통신장, 나 선장이요.》
《예, 선장동지, 통신장 듣습니다.》
《배 전체 성원들이 내 말을 들을수 있게 련결시키시오.》
《벌써 련결해놓았습니다. 선장동지!》
그러자 배의 요소요소들에서 선원들이 부르짖는 목소리가 고성기를 통해 울려왔다.
《선장동지, 말씀하십시오.》
《선장동지, 놈들이 뭐라 합니까?》
《미국놈들이 왜 우릴 쫓아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선장동지!》
그들의 목소리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나서 퍼그나 갈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 지금 미국놈들이 우리 배를 검열하겠다고 하고있소. 우리 배가 미싸일을 싣고간다는거요.》
《예?》
《아니, 저놈들이?…》
격한 선원들이 이렇게 부르짖자 누군가 좀 조용하라고 웨쳤다.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러자 불현듯 배의 전체 50여명 성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숨쉬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리명구는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동무들, 이건 분명히 우릴 걸고들려고 미리 짜고든 도발이 분명하오. 그렇게 해서 우릴 모욕하려 하고있소.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짓밟으려 한단말이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 열띤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놈들과 싸웁시다.》
《본때를 보입시다, 선장동지!》
그는 낯익은 그들 전체 선원들의 분노에 찬 얼굴이며 울끈불끈 부르쥔 주먹들을 눈에 선히 보는듯했다. 그들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 졸아들던 가슴이 넓어지고 목에서 피대가 부풀어오르는듯했다.
《동무들,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겠소. 놈들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오. 칼과 도끼, 창들로 무장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부장동문 여기로 와주시오.》

《예, 여기 와있습니다.》

등뒤에서 울린 목소리였다. 주름투성이 이마빡을 손가락으로 짓누르며 선장에게 의미있는 미소를 지어보이는 전쟁참가자 한병권…

《좋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다.

《기관장, 어떤 경우에도 전속을 보장하시오. 전체 조기원들을 요소마다 배치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할수 있게 준비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장을 찾아 조국의 무전대와 즉시 련계를 취할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끝에 조국에 보낼 무선전문을 불러주었다. 통신장이 공개전문으로 날리라는가 비공개 암호전문으로 날리라는가 하고 물어왔다. 그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전문으로 날리오.》

그러자 등뒤에 서있던 한병권이 말했다.

《그러문요.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야지요.》

1등항해사 김철수도 두눈을 번뜩이며 부르짖었다.

《옳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리명구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때 한병권이 팔소매를 당기는바람에 그쪽으로 돌아섰다.

《선장동무, 헌데 저것들이 무어라고 계속 고아대는거요?》

아까부터 그는 초단파대화기에서 울려나오는 귀에 선 외국말에 오만상을 잔뜩 찡그리고있는것이였다.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째보겠다고 위협하고있지요.》

리명구의 설명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하였다.

《저런!… 그야말로 날강도들이구먼. 뭐 공해상에서 어쩐다구?… 암만 그래봐야 솜방맹이루 턱주가리 찌르는 격이지. 흥!》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으나 다시 생각하고 도로 넣고말았다. 담배지골로 유명한 그였지만 조타실에서 담배를 피워문적은 한번도 없다. 여느때같으면 《여보 을지장군! 나가서 한대 태

우지 않겠소?》 하련만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있다. 그는 손끝을 코에 가져다대고 거기에 배여있는 담배진내를 맡으며 수상스럽게 움직이는 적잠수함을 살피고있었다.

《저놈들이 정말 어쩌자는걸가?》

《…》

리명구가 입술을 깨물며 잠자코 있자 뒤쪽에서 김철수가 그를 대신하여 말했다.

《놈들이 어뢰를 쏠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관실쪽을 겨누고있습니다.》

《진짜 쏘려는가?》

한병권이 또 웅글게 물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아니 쏘지 못해. 그저 위협해보는거지. 하지만… 어떻게 하나 배에 올라오려고 발악할거요.》

리명구가 불안스럽게 물었다.

《우리 배에요?》

《그렇소. 갈구리바줄을 걸고 올라올수도 있소. 그러니 결사전을 각오해야겠소. 문건들이랑 소각할건 다 소각하고… 난 저기 선미쪽에 가있겠으니… 선장동무, 정황을 봐가며 결단성있게 명령을 주시오. 다들 선장동무만 보고있소.》

《…》

리명구는 말없이 조타실에서 나가는 그의 구붓한 잔등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적함은 여전히 얼마간 거리를 두고 달리며 기적소리를 거듭 울리고있었다. 고래등같이 시꺼먼 적함의 선체가 물결을 헤가르는것을 지켜보고있느라니 가슴이 뻐근해졌다. 비로소 그는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닥쳐올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했다. 그것이 이렇듯 뜻밖에 불쑥 닥쳐오리라고야 어찌 상상인들 했으랴.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라운것도 아니다. 조국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있는 이때 조국을 멀리 떠난 만리대양우에서 적함과 충돌한다고 해서 이상할것이란 없다. 다만 우리들모두가 너무도 평화에 젖어 다

가오는 전쟁의 위험을 보지 않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을뿐이다.

조국을 떠날 때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안해의 머리속에는 온통 수련이를 평양에 끌어올릴 생각뿐이다. 수련이 역시 그것을 바라고있으며 아버지가 힘써주기를 기대하고있다. 박두해오는 전쟁의 위험같은것은 보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렇듯 눈앞에 닥치고있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최후를 각오하며 적들과 맞서고있지 않는가!…

그는 통신장을 찾아 비밀에 속하는 문건들은 다 태워버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선장실로 달려가 서랍을 뒤지고 금고를 열었다.

적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될 문건들을 따로 갈라놓았다. 그때 책상우의 지령전화가 딸깍했다.

그는 금고안에 손을 넣다 말고 《나 선장이요.》 하고 소리쳤다.

《선장동지, 1등항해사 김철수입니다.》

급한 목소리였다.

《왜 그러오?》

《선장동지, 앞을 보십시오. 지금 적들이…》

리명구는 허리를 쭉 펴고 시창밖을 내다보았다. 수평선 멀리로 떠가는 흰구름, 물결너머에서 어룽어룽 들뛰며 흔뎅이는 해빛, 단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김철수의 말을 듣고서야 배를 목표로 곧추 날아오는 군용기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입을 꽉 다물고 굳어져버렸다. 극도의 긴장으로 하여 금시 심장이 터져나갈것 같았다. 점차 커져오는 발동기의 소음, 어데선가 채칵거리는 시계소리, 한순간 또 한순간이 피나는 모지름속에서 흘러갔다.

16

무역선 《무포》호의 소식은 즉시 수도의 많은 해당 부문 일군들을 격동시켰다. 해운부와 외교부 그리고 무력부의 많은 통신기

술기재들과 탐지소들이 인디아양에서 보내오는 전파에 귀를 강구고 있었으며 벌어지는 사태를 긴장하게 주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박두해온 전쟁의 첫 포성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조국을 멀리 떠난 인디아양상의 《무포》호가 먼저 적들과 충돌하였다. 거기서는 벌써 생사를 가르는 치렬한 격전이 시작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차를 달리는 문선규의 마음은 무거웠다. 창유리에 비쳐진 그의 둥실한 얼굴은 구름낀 날씨처럼 흐릿했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계실가?) 하고 그는 가슴을 조이며 생각하였다. (《무포》호의 소식을 기다리고계실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 《특별사찰》이 《결의》된데 대처한 작전방안을 구상하고계실가?…)

음산한 날씨였다. 해는 노상 구름속에 가리워져있었고 이른봄의 차고 메마른 질풍이 가로수들을 흔들어대고있었다.

그는 후사경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언듯 스쳐보았다. 흐린 날씨처럼 어두워진 표정이였다. 이래선 안되겠는데…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착잡한 생각을 어쩌는수 없었다. 그는 방금 회의에 갔다온 김세환참사로부터 회의 전과정에 대하여 보고받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세환은 평소의 온화한 표정을 잃고 어딘가 모르게 엄격해진것 같았다. 그는 손으로 눈언저리를 비벼대면서 힘들게 말했다.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표단이 장군님께서 주신 방침대로 활동하느라고 애써 노력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책이였다. 문선규는 그의 심정을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러한 때 외교일군들이 겪는 내심의 고통은 어느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 실패한 군사지휘관의 경우와 다름없을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것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교일군들의 실패는 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 나라의 존엄과 리익에 손상을 끼칠수 있기때문이다.

회의는 시작전부터 치렬하였다. 김세환은 회의시작전에 기구총국장 한스 블릭스와 단독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그는 한스 블릭스에게 당신이나 내나 다같은 외교관인데 수를 쓰느라 하지 말고 기탄없이

이야기해보자, 지금까지 우리의 핵활동에 대해 《만족》과 《사의》를 표시해오던 당신이 왜 돌변했는가, 미국이 제공한 그 무슨 《정보자료》를 가지고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진의도는 무엇인가, 어디 솔직히 말해보라, 기구총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평화에 기여해야 할것이 아닌가! 하고 들이대였다. 그러자 한스 블릭스는 얼굴이 벌거우리해져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두개 대상을 개방할것을 요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유엔에 넘기겠다고 줄곧 같은 말만 되뇌일뿐이였다.

그리하여 첫날회의때 기구총국장은 자기가 한 보고에서 우리의 초기보고서와 기구의 사찰결과 사이에 《원칙적인 불일치점》이 있다고 하면서 두개의 군사대상을 개방하라고 을러대였다.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과학기술적인 해명을 주었으나 기구총국장과 기구내 불순세력들은 두개의 군사대상을 물고늘어지면서 한사코 《특별사찰》을 고집하였다.

김세환이 연설하였다. 그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자료》가 사찰에 리용될수 없다는것을 담보협정과 기구의 규약 그리고 성원국들내에서 특정한 나라의 독단과 전횡을 반대하는 비핵국가들의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에 뒤따른 격렬한 론쟁에서 그는 미국의 《정보자료》를 리용할 법적권한을 기구가 가지고있지 않다는것, 기구는 경찰이 아니라는것, 기구는 우리의 핵문제를 다룰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것, 이 문제는 우리와 미국간에 결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넘겨씌웠다. 격렬하던 론쟁이 잠시 멎었다. 다들 어리둥절해진것 같았다. 회의장에서 들락날락하는자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워싱톤의 지령을 받으려고 분주히 나들었습니다.》 하고 김세환이 말했다. 《미국무성의 핵담당대사가 뒤에서 그것들을 조종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것을 안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방침대로 핵문제를 정치군사화하면서 기구를 제쳐놓고 계속 미국을 다불러대였습니다. 지어 우리는…》

여기서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변명처럼 들릴가봐 저어되였던 모양이다. 어쨌든 《특별사찰》은 《결의》되였고 끝까지 미국은 반

응을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문선규 역시 더 캐묻지 않았다. 위험과 고초, 온갖 장애와 난관에 대한 설명은 승리자를 찬양하는데는 더없이 필요한것이지만 실패를 변명하는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다.

그 일을 되새기는 문선규의 마음은 번거로왔다.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회의 전과정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드릴것인가?…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누군가와 전화로 말씀하고계시였다.

문선규가 정중히 인사드리자 가벼운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시는데 전화를 받고있는 그이의 표정은 근엄하시였다. 아니, 무겁고 심각하시였다. 문선규는 가슴을 졸이며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무슨 일때문일가. 《무포》호때문일가. 아니면 적들이 또 군사적으로 도발을 걸어온것일가?…)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그이께서 드디여 준절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군단장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조급한 목소리,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꿔드시였다.

《그렇다?! 군단장동무도 그렇게 생각한단말입니까? 결국 오영범동문 어깨가 처져있고?…》

문선규는 긴장해졌다. 누군가의 과오를 두고 론의하시는듯한데 오영범이라는 그 이름이 귀에 익었다. 혹시 언젠가 렬차칸에서 만났던 일이 있는 젊은 장령이 아닐가? 그의 이름도 오영범이라고 했던것 같다. 앞가슴이 툭 불거져나온 그, 한마디한마디를 묵직하게 자신있게 내밷던 그, 우리 외교일군들이 쪼물짝하다고, 옴질옴질 한다고 꺼리낌없이 비난의 포격을 퍼부어대던 그 쇠소리나던 젊은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의 이름을 바로 여기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듣게 되다니!…

《실패라니.》 하고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무쌍한, 〈오발파〉다운 공격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에게

심각한 교훈을 찾게 했는가?… 그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더러 자기가 지휘하는 병사들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고싶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총폭탄정신을 단순한 혈기나 용기로만 보지 말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발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럴수록 천금같이 귀한 그들의 희생을 극력 줄이는 작전을 세우라고 했던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군사지휘관들에게 높은 요구를 제기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교훈을 찾았는가?… 자기가 도하작전에서 실패했고 당의 신임을 저버렸으므로 나는 자격이 없는놈이요 하면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해온 오영범이 그래 그런 졸장부였단말입니까. 나는 그래도 그의 남다른 지혜와 무자비한 타격솜씨를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의 작전전술적사고능력을 더 높여 훌륭한 지휘관으로 키우고싶었는데 그는 풀자루같이 주저앉았으니… 내가 과연 사람을 잘못봤단말입니까?!…》

아픔에 젖어있는 그이의 음성에 문선규는 몸을 떨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보고를 생각할 때 가슴속에서 눈보라가 이는듯했다. 그것이야말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보고였던것이다.

《좋습니다.》 그이께서 전화로 계속하시였다. 《그 동무에게 단단히 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언제건 굴함없이 완강하게 땅크처럼 돌진하는 오영범은 알아도 앉아서 한숨이나 짓고있는 오영범은 알지 못한다고!…》

이윽고 전화가 끝났지만 그이께서는 여전히 오영범에 대하여 생각을 계속하는듯하시였다. 아픔이 비낀 눈빛으로 책상우의 한점을 이윽토록 지켜보시였다. 불현듯 문선규를 상기하신듯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나직이 물으시였다.

《참 1부부장동무, 2월관리리사회에 갔던 동무들을 만나보았습니까?》

《예.》 하고 문선규는 힘들게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부부장동무, 왜 그럽니까. 몸이 말짼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 끝내 부

당한 〈결의〉가 채택되고보니 가책되는바가 큽니다.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말은 회의에 갔다온 김세환참사가 한 말 그대로였다. 그러나 문선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이께서 그를 눈여겨보시였다.

《일을 쓰게 못했다, 가책되는바가 크다— 그러니 1부부장동무도 여기 참회하러 온 셈이구만.》

《예？…》

《왜 동무들은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쩍하면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 근심만을 드렸다 하면서 한숨을 쉬고… 왜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고 계속 공격을 들이댈 생각을 못하는가 말입니다.》

《？！…》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시였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한듯 해빛이 밝게 흘러들고있었다.

《이자 1부부장동무도 들었겠지만.》 하고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영범이라는 드센 배짱을 가진 려단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렇게 고민하며 스스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기에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반성하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먼저 목적을 달성해야 할게 아닙니까. …

지금 1부부장동무도 회의결과를 놓고 무슨 자책감을 느끼고있는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나는 외교부동무들이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있는데.》

《？！…》

《생각해보시오. 이번에 기구는 정기리사회와는 별도로 특별회의를 열어 〈특별사찰〉을 〈결의〉하고 유엔에 넘기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슨 〈결의〉라는것도 유연한 표현으로 바꾸고… 그들이 1개월간 여유를 두고 우리를 지켜보다가 〈특별사찰〉을 완전결정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겠는가？！… 혼란에 빠졌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한편 전쟁도발의 명분을

세울것도 노렸지만 결국 그 음흉한 기도를 제대로 달성할수 없었으니 그래도 이것이 성과가 아니란말입니까?!》

《저… 저희들은 미국것들이… 우리가 그만큼 조겨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 오늘아침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미해군 최대의 화력과 장비를 갖춘 6만톤급 초대형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유도미싸일순양함 〈방커힐〉호와 같이 우리 나라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의 사세보항에 기항했다고 합니다.

세상사람들속에 〈전쟁의 모함〉으로 알려진 〈인디펜던스〉호를 왜 서둘러 사세보항에 옮겼겠는가?… 1부부장동문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것은 적들이 극단적인 모험의 길로 한발자국 더 내디딘것이라고 봅니다.》

《옳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냥스러운 별이 일렁이고있는 창밖으로 시선을 주시였다. 해빛을 등지고계신 그이의 모습이 거대한 웅자로 벽면에 찍혀졌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하는 격이지…》

다음 순간 그이께서 문선규를 향해 몸을 돌리시였는데 놀랍게도 미소가 비낀 눈빛이시였다.

《그럴수록 더 세게 다불러대야지. 두고보시오. 1부부장동무, 틀림없이 이제 덜미를 잡혀 끌려나올것이요!》

그이께서는 탁자곁으로 돌아오시였다.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그 특징적인 재빠른 손세를 써가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드센 공격을 준비합시다. 적들이 한사코 전쟁의 마차를 내몰고있는 이상 외교전에서도 강력히 대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때 몰로또브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히틀러와 회담하면서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말을 오래 메운다, 그러나 일단 마차를 몰아가기만 하면 멈춰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쏘도전쟁의 전과정을 두고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였다고 할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말도 빨리 메울뿐아니라

마차는 더 무섭게 내몰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린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전쟁이면 전쟁, 대화면 대화! 아무거나 다 준비되여있습니다. 그러니 수령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배심뜬뜬히 준비합시다. 적들이 기절초풍하도록 드센 반격을 가합시다!》

《!…》

문선규는 걷잡을길 없는 흥분에 목이 메여 여전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항용 느끼는바이지만 지금도 그는 자기의 심장이 사뭇 커지는것을 의식하고있다. 이글거리는 용암이 가슴속에 꽉 들어찬듯했다. 그는 눈시울을 떨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벌써 오늘에 있을 일들을 다 내다보고계셨구나. 지금도 먼 래일에 있을 일까지 죄다 환히 꿰뚫고계실것이다!…

그때 책임서기가 들어와 그이께 타자를 친 문건을 드리고 나갔다. 그이께서는 빠른 시선으로 문건을 읽고 문선규에게 《무포》호 소식을 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문선규가 소문을 들었다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무포〉호 사건 역시 우연한 일이겠는가?… 아니,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말하자면 전면전쟁의 전주곡과도 같은것이지… 공해상에서 잠수함을 동원하여 배길을 막고 강제로 검열하겠다고 하다니… 이런 날강도가 어데 있겠소!…》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김석현비서를 찾으시였다. 곧 김석현비서가 나왔다. 그이께서는 손에 든 문건을 다시 훑어보며 말씀하시였다.

《비서동무, 성명문을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명문 마감에 미국잠수함의 도발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로, 전쟁책동의 일환으로 규탄하고 도발자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엄중히 경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선규는 그것이 우리 나라 무역선에 대한 적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화국정부 혹은 해운부 성명이라는것을 짐작하였다. 그이께서

친히 성명문내용까지 바로잡아주신다. 지금 그이께서는 인디아양상의 한 무역선 선원들의 운명까지도 다 한몸에 안아 지켜주신다！…

문선규는 불현듯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을 삼키며 그이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이께서 또 계속하시였다.

《가만, 그밖에 그 동무들을 고무하고 위해줄 일이 더 없겠습니까？… 조국을 멀리 떠나 홀로 적들과 맞서 싸우는 동무들인데… 힘겨울것이요. 그럴수록 당과 조국이 그리고 온 나라 인민이 그 동무들을 성원하고있다는것을 알게 해야겠는데… 좀더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외롭지 않다는것을 느끼게 할수 있겠는지… 참, 〈무포〉호 전체 선원들에게 조국에 있는 가족, 친척, 친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록음편지로 안해와 아들딸들의 고무적인사를 전하는것이！… 옳습니다. 되도록 빨리 조직합시다.

〈무포〉호의 선장과 부선장, 항해지휘성원들 그리고 전체 선원들의 가족들을 찾아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알려주고 따뜻하고 고무적인 인사말을 보내게 합시다.》

창가로 흘러든 일매진 광선의 너비는 더욱더 넓어졌다. 방안의 공기도 점차 더 후더워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문선규의 가슴은 더욱더 뜨겁게 젖어들었다.

17

수련은 아버지를 비롯한 《무포》호 전체 선원들이 칼과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결사전을 준비하고있던 그 시각 렬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집을 나온지 며칠만에 집으로 간다. 지금 수련이의 양복주머니속엔 집에서 보낸 한장의 전보가 들어있다. 전혀 뜻밖의 놀라운 소식이 씌여져있는 전보였다.

어머니 병위급 급래

수련은 얼마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앓고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려니 너무 외람된것 같기도 했다. 혹시 뜻하지 않은 일로 다치지 않았을가 하는 끔찍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시외전화로 먼저 알아볼념도 못하고 바삐 서둘러 떠난것을 후회하였다. 구석쪽에 머리를 기대고 반쯤 눈을 감고있다가 불현듯 허리를 폈다.

시외전화！… 그 생각을 하니 모든게 명백해지는듯했다. 어머니는 아직 한번도 딸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쳐본 일이 없다. 집에 전화가 있으므로 무슨 일이건 전화로 알리군했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전보를 친것이 의미심장한 계교로 느껴졌다. 전보를 쳐야만 수련이가 몸을 빼여 집으로 올수 있는것이다. 그러니 어머니는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있는게 틀림없다. 전번에 수련이를 만나보려 한다는 어느 간부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문에 급히 부르는게 아닐가.…

새벽 5시가 되였다.

렬차방송이 시작되는바람에 정신없이 자고있던 손님들이 깨여나 세면장으로 오가거나 손짐을 챙기느라 부산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제 렬차가 서포만 지나면 이 선의 종착점인 서평양역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수련은 당반우에 얹었던 멜가방을 내려 앞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작은 거울에는 잠 못이룬 밤렬차려행으로 지쳐버린 처녀의 얼굴이 비쳐졌다. 피로가 실린 커다란 두눈, 꼭 다물린 작은 입, 오똑한 코마루… 수련은 손수건으로 눈아래쪽과 입언저리를 문지르고 다시 가방주머니에 거울을 넣었다. 그때 수련의 맞은편 창가에 앉아 두시간나마 끄떡없이 코를 골고있던 뚱뚱보사나이가 히죽이 웃으며 말했다.

《처녀동문 온밤 꼬바기 새우더군.》

마치 자기도 잠들지 않고있은것 같다. 수련은 잠자코 있었다.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가부지？》

《아- 뇨.》

수련은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에게 말려드는 날엔 지꿎은 그 사람이 별의별 질문을 다 퍼부을것이다. 간밤에도 수련이 도중역에서 오르자 남달리 관심해주며 차안의 손님들이 곤히 자는것도 아랑곳않고 이것저것 지꿎게 캐여물었다. 어데 사는가, 비파거리 어느 아빠트인가, 직장은 어데 있는가, 혹시 관광총국에 있지 않는가, 어데선가 꼭 본것 같은데 텔레비죤소설에 출연한적은 없는가, 아니면 방송원? 극장안내원? 하고 닥치는대로, 제보기에 무척 어울릴상싶은 그런 직업들을 마구 불러대였다. 수련은 자기가 상화군병원 약제사라는것을 말하고싶지 않았다. 자기를 남달리 보는 그 사람에게 수도에서가 아니라 시골군에서 사는 수수한 처녀이라는것을 밝히는것이 싫었다. 결국 그의 친절과 호기심이 귀찮아졌다. 하여 수련은 어느 기회에 가방속에서 《림상의전》을 꺼내들고 그 책에 정신을 파는듯해보였다. 그제서야 뚱뚱보사나이는 그만 멋적었던지 약간 몸을 돌려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는 아주 수월히, 단숨에 잠들어버렸던것이다.

어느덧 서평양역이 가까와졌다. 렬차고성기에서 중앙방송의 아침보도가 시작되였다. 요즘 매일과 같이 떠드는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위험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 소식이 먼저 나왔다. 수련은 아직 이러한 보도에 찬찬히 귀를 기울여본적이 없다. 맞은편의 뚱뚱보사나이도 적들의 《팀 스피리트》연습따위는 대수롭지 않는 모양이다. 그는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고나서 안주머니에서 주패목을 꺼내였다.

《자 처녀동무,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겠는지 한번 맞혀볼가. …》

그는 수련이를 향해 두툼한 입술을 비쭉하며 눈웃음을 치더니 주패장들을 탁우에 차례차례 뉘여놓기 시작했다. 가끔 혀를 차기도 하고 휘익! 휘파람을 묘하게 부는가 하면 뒤집어놓은 주패장을 손끝으로 멋지게 쪼아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수련이를 향해 눈웃음을 쳤다.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또 성가신 화제를 꺼낼가봐 두려웠다.

《아니, 벌써 나가려구?》

그가 놀라서 묻는 말이였다.

《예.》 하고 수련은 재빨리 대답했다. 《그만 머리가 아파서…》

렬차는 싸늘한 어둠속을 거침없이 질주해갔다. 레루이음짬에서 딱딱 마쳐오는 단조로운 차바퀴소리만 끝없이 되풀이되고있다.

(어머닌 지금 무얼하고있을가. 정말 내 일때문에 불렀을가. 아니면 전번에 집을 나간것때문에 속이 얹힌것이 내려가지 않아 그랬을가?)

어머니한테 너무 모질게 군것 같은 생각이 든다. 딸의 장래를 위해, 행복을 위해 그토록 왼심을 쓰고있는 어머니인것이다.

짐을 든 손님들이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서평양역에 거의다 온 모양으로 기적소리가 련이어 울렸다. 원방신호기의 파란 불빛이 눈앞을 휙 스치고 지나갔다. 철길너머 멀리 단잠에서 깨여난 아빠트의 창문들이 하나 둘 환히 눈뜨고있는것이 바라보였다.

얼마후 렬차는 멎었다.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서둘러 개찰구쪽으로 밀려갔다. 수련은 멜가방을 손에 든채 덤벼치는 사람들에게 부대끼우며 반달음쳤다. 개찰구앞에 몰켜선 사람들속에서 수련은 자기와 마주앉아있던 그 뚱뚱보사나이를 만났다. 두손에 들가방을 하나씩 무겁게 들고있던 그 사람이 수련이를 보자 벌씬 웃었다.

《그보라구, 우린 또 만나지 않았소. 아무리 서둘러봤댔자 사람은 제 걸음만큼 간다구.》

어정쩡한 철학이다. 수련은 이번에도 응수하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워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뒤따르던 뚱뚱보사나이가 빨리 가서 첫 뻐스를 타자고 독촉했으나 그저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합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푸릿한 가로등불빛이 희끄무레한 새벽빛속에서 숨져가고있었다. 멀지 않은 조차장다리우로 건설자재를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갔다. 알싸한 먼지냄새가 찬바람에 실려날아왔다. 수련은 대합실에 들어가 안내표가 붙은 벽가에 가서 공중전화기를 들었다.

집전화번호를 돌렸으나 한동안 삑— 삑— 하는 소리만 계속되였다. 그러자 불현듯 무서운 상상이 번개치며 등골로 쭉 오한이 뻗어나갔다. 정말이지 어머니 병이 중한것이라면?… 집에 없으면 병원에 가있는것이 틀림없다. 그러자 대번에 목이 잠기고 눈굽이 쿡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수련은 집전화번호를 다시 돌렸다. 잠시후

잠내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공명판을 울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수련이 부르짖었다. 《나예요. 수련이예요!》
《수련아, 너 어데서 전화를 거니?》
《역에서요. 금방 도착했어요.》
《그러니 새벽차로 왔단말이냐? 그렇게도 빨리?!》
《어머니! 〈병위급〉이라고 하질 않았나요. 그래 지금 어떠세요?》
《오— 그거말이냐?… 뭐 별일 없다. 이제 다 말해주지.》
《참 어머니두. 그런걸 난… 괜히 속을 태우면서… 차라리 전화라도 걸어주죠? 이 바쁜 때에 글쎄…》
《됐다, 됐어. 장창 바쁘지. 그건 그렇구 빨리 오기나 하렴. 너 배고프겠구나.》
그러자 불시로 피곤이 엄습해오는것을 느꼈다. 수련이 아무 말없이 잠자코 있자 말짱 잠이 깬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공명판을 지릉지릉 울렸다.
《수련아, 너 왜 그러니, 응?!》
《예. 곧 가요.》
수련은 시들히 대꾸하고나서 송수화기를 걸었다. 대합실을 나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뻐스정류소로 걸어가려니 자꾸만 눈이 감기고 허리가 쑤시였다. 빨리 침대에 누워 한잠 늘어지게 자고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별스레 반색하며 맞아주었다. 수련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며 일생 다시 없을 중대사때문에 거짓전보를 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우선 세면을 하고 아침을 먹고 그다음 한잠 푹 자라는것이였다. 성미가 뚝한 아버지와는 달리 상냥하고 재빠르고 알뜰한 어머니였다. 몸매 또한 날씬한데 나이에 비해 늙지도 않아 가끔 수련이조차 자기의 어머니를 놀랍게 쳐다보는것이였다. 동네사람들은 수련이가 신통히 제 어머니를 쏙 빼물었다고 말하군했다. 지금 어머니는 구역관내의 밥공장에서 경리로 일한다. 한창나이 처녀시절엔 중학교 수학교원

이던것이 오래전부터 건강을 구실로 교단을 떠났던것이다.

수련은 세면을 하고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가 눈꼬리를 치뜨며 웃었다.

《참, 한가지 잊었댔구나. 네가 남포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너희 학년에 원명숙이라는 애가 있었지. 생각나냐?… 거 왜 가야금을 타던 애 있지 않니.》

《오— 원명숙.》

《그 애가 지금 교구양복점 재단사로 있더구나. 널 꼭 만났으면 하더라.》

《어머니.》 하고 수련은 정색해서 물었다. 《그때문에 날 불렀어요? 거짓전보까지 치면서.》

《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럼 말해봐요. 거짓전보는 왜 쳤어요?》

외동딸인 수련이가 따지고들면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 어머니는 하는수 없다는듯 수련이가 어렸을 때 그러던것처럼 코등을 살짝 눌러주었다.

《사실은말야. 접때 내가 보여준 사진이 있지 않니. 왜 그 눈이 억실억실한 총각, 생각나지?… 그 사람이 얼마전에 평양에 올라왔다. 원래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희천공작기계공장 현장기사로 배치됐는데 끝내 평양콤퓨터쎈터인가 하는데로 재배치받았구나. 아버지가 높은 간부여서 좀 힘써준 모양이다만 그 사람도 여간아니더구나. 의젓하구 똑똑하구…》

수련은 밥숟갈을 입에 문채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지금 어머니의 생각은 온통 그에만 가있는것 같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딸의 혼사문제에선 이렇듯 극성스러운 법인지?…

《난 싫어요.》 하고 수련은 나직이 말했다. 《난 그런 사람 만나고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니?…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그래두 그 윤철인가 하는 사람보다는…》

《그 동무가 뭐 어떻게요?》

《얘, 엇드레질말구 내 말 좀 들어. 넌 그래두 대학 최우등졸

업생이지？》

《그 동무도 군관학교 최우등졸업생인데요.》

《그렇지만… 그야 아직 소대장이구…》

《그럼 려단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수련아！》

어머니는 의혹이 어린 표정으로 얄망스레 구는 딸을 쳐다보고 있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서글픔이 담긴 질책의 눈길이였다. 그때 처음으로 수련은 어머니의 눈가에 뚜렷해진 주름살들을 스쳐보며 비로소 어머니도 늙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얼마간 수련이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다.

《됐어요, 어머니.》 하고 수련은 한결 너누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두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금은 그저 빨리 자고픈 생각밖에 없어.》

어머니의 얼굴에 비껴가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두눈이 따뜻이 빛났다.

《그럼 빨리 먹고 한잠 자거라.》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꾹 눌러주고는 출근준비를 하려고 급히 나갔다.

×

수련을 깨운것은 전실에 놓인 전화기였다. 그러나 수련은 달콤한 피로에 잠겨 따뜻한 이불속에서 일어나고싶지 않았다. 받지 않으면 그만두려니 했는데 누군가 지꿎게도 계속 종을 울리고있다. 하는수 없이 전화를 받으니 어머니였다. 급한 일이 있어 점심시간에 못들어가니 혼자 점심을 먹으라는것이였다. 수련은 그러마 하고 또 이불속으로 기여들어갔다.

실컷 잤다. 인제는 누워있는것이 더 힘들어질 그때 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귀에 선 녀자의 목소리였는데 자기를 원명숙이라고 한다. 아침에 어머니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수련은 그가 자기의 중학교 동창임을 알고 반갑게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이어

그새 살아온 일들이며 직장과 주소, 가정과 남편, 옛 동창들 소식 등 련달아 질문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그쪽에서 웃으며 말했다.

《수련아, 뭐 그럴게 있니. 좀 마주앉아 얘길 해보자꾸나. 네 문제도 의논할겸.》

《내 문제?》

《응, 그래. 나두 다 들었어. 네가 상화군병원에 배치받았다는걸. 에그ㅡ 그게 어디 될 말이니. 인물곱구 공부잘한 대학졸업생이 군병원 약제사라니. 얘얘, 너 그렇게 숙맥같이 굴줄은 몰랐구나야. 어떻게 해서든 평양에 배치받았어야지.》

《그렇지만…》

《됐어, 됐어. 요 새침데기, 내가 널 모를라구. 예나 지금이나 고집스럽구 꽁한 네 성미야 어디 가겠니. 아무튼 만나서 얘길 좀 해보자. 수련이를 무슨 연구원같은데 뽑아올리게 힘써줄 사람이 있어. 알겠지?》

《?…》

수련은 금시 가슴이 두근거리는것을 느꼈다. 연구원같은데 뽑아올린다구? 그렇게 힘써줄 사람이 있다구?… 수련은 저으기 계면쩍어하면서도 은근스레 직장을 어떻게 찾아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아ㅡ 아니, 우리 직장말구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맨숭맨숭 앉아있겠니?… 너 은하수식당 알지? 제창 거기루 오렴… 응, 다섯시까지, 내 기다릴게.》

약속한 시간이 가까와오자 수련은 어머니가 사준 새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 영광역에서 내려 음식점거리로 종종걸음을 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저들이 바로 수도평양에 사는 사람들이다. 구럭을 든 녀인, 상점유리창을 기웃거리는 늙은이, 깔깔 웃으며 걷는 처녀들, 어린애를 안고가는 젊은 부부, 수련이를 지나쳤다가 다시 뒤돌아보는 청년, 모두가 활기있게 서두르며 가고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늙은이들과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이들만이 바쁘지 않다. 늙은이들은 지금껏 걸어온 한생을 돌이켜보며 추억을 벗할 때가 되였고 어린이들은 먼 인생길을 위해 아직 걸음새도 든든히 다지고 더 많

이 보고 듣고 익혀야 하기때문이다.

그늘진데 없는 사람들의 활기에 찬 모습이 오늘따라 수련이의 마음을 별스레 더 번거롭게 했다. 그도 저 사람들처럼 매일 이 거리를 지나 직장에 가고 저 처녀들같이 웃고 떠들며 수도에서 살고싶었다. 그라고 왜 이 훌륭한 창광거리와 화려한 극장, 상점, 지하철과 유원지, 인민대학습당과 연구원 등이 있는 수도의 생활을 바라지 않겠는가. 사람이란 노상 아무런 리기심도 없이 책대로만 살아갈수야 없지 않는가. 여기 수도의 의학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며 적으나마 의료보건사업에 보탬을 준다면 그것이 왜 자기를 위한것만이겠는가?！… 아무튼 자기를 정당화할수 있는 근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와서 수련은 거짓전보로 자기를 불러온 어머니의 처사도 당연한것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힘써줄 사람이 있다고 하던 원명숙의 말이 또 귀전에 쟁쟁했다. 누굴가, 명숙이 말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가. 그는 무엇때문에 나를 도와나서겠다는걸가?…

얼마후 수련은 은하수식당의 지하층계를 내려 적갈색의 유리문으로 들어섰다. 대번에 꿈의 세계와 같은 후덥고 아늑한 실내의 분위기에 잠겨들었다. 등황색의 불빛이 안개속에서처럼 희뿌옇게 실내를 감싸고 있고 붉은색전등이 자극적으로 껌벅거리는가 하면 어데선가 연록색의 불빛이 물결치듯 고요히 흘러오기도 했다. 그 황홀한 빛의 세계에로 록음기에서 흘러나온 경음악이 심산의 물소리마냥 섞여들었다.

크고작은 유리구슬이 줄줄이 드리운 구석쪽 간막이안에서 원명숙이 마주나왔다. 명숙은 그새 유족한 생활에 습관된 가정부인답게 풍만한 육체에 우아한 동작까지 몸에 밴 녀인이 되여있었다.

《수련이, 이게 얼마만이냐. 응?！》 하고 명숙은 옷본보기책에 찍힌 녀자다운 모습으로 반색을 했다. 《그런데 어쩜 이리도 예뻐졌을가！》

수련은 한순간에 벌써 자기가 상상하던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것을 느꼈다. 자기와 마주선 그 녀인에게서 전날의 애교많던 맵시쟁이 녀학생의 모습을 찾으려고 헛되이 애쓰면서 수련은 중얼거렸다.

《정말 이게 명숙이 맞아?… 어느새 이렇게…》

다음 순간 수련은 입을 다물고 주춤거렸다. 명숙이가 나온 간막이안의 식탁에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한 청년을 띄여본것이였다. 어데선가 꼭 본것 같은 모습이였다.

《참 인사들 해요.》 하고 명숙이 수련의 손을 잡고 간막이안으로 잡아끌었다. 《오빠, 오빠가 보고싶어하던 그 수련동무!》

키가 크고 눈이 억실억실한 청년이 한발 앞으로 나섰는데 그 순간 그의 넥타이핀에서 새파란 불빛이 부서졌다.

《원명길이라고 하오.》

남성중음가수와 같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어리둥절해진 수련이에게 눈인사를 하며 자리를 권하는 그의 태도는 점잖고 또 거만해보이기도 했다. 명숙이가 수련이의 솜옷이며 목도리를 벗겨 간막이걸개에 걸어주었다.

《어서 앉으십시오.》

원명길이 하는 말이였다. 수련이 몸둘바를 몰라하자 명숙이가 재빨리 귀속말을 했다.

《뭘 그러니, 그저 알고지내자는건데.》

비로소 수련은 이 원명길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에서 낯을 익힌 청년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이 상봉의 리면에는 무엇인가 깜찍한 계교가 들어있는것이 분명했다.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으나 그 어떤 무력감이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수련이를 훑어보며 재삼 자리를 권하는 원명길의 태도에는 무엇인가 처녀의 숫된 마음을 바싹 끌어당기는 자력같은것이 있었다. 다들 자리잡고 앉았다.

접대원이 다가오자 원명숙이 서둘러 안내표에 찍힌 료리명들을 이것저것 짚었다. 접대원은 물러갔다. 그때까지 아무 말없이 고개를 약간 숙일사 하고 앉아있으려니 수련은 입술이 타드는듯했다.

《뭐 거북해할건 없어.》 하고 명숙이 말했다. 《우리 오빤 이미전부터 수련이를 알구있어. 자강도 산골에 배치받았기때문에 평양으로 옮길 때까지 말을 안냈을뿐이야. 또 수련이도 새삼스러울건 없을텐데… 사진을 봤지?》

《…》

수련은 왜 그런지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참을수 없었다.

갖가지 향기로운 음식내마저 그를 심히 자극하여 휘휘 머리를 돌게 하는듯싶었다. 자기와 마주앉은 원명길이 겉멋을 부리지 않고 별스레 친절을 표시하지 않는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는 마치 녀자들과 마주앉아 서로 눈치를 봐가며 귀맛좋은 소리나 소곤거리는것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듯한 태도였다. 그 무심한 거동,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어투 그리고 얼핏 스쳐보군하는 찌르는듯한 눈빛 등 이 모든것이 녀성들과의 성공적인 교제에서 터득한, 하여 인제는 몸에 밴 습관이라는것을 아직 수련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참 수련인 상화군병원에 배치받았다지？》 하고 명숙이 오빠있는쪽으로 의미있는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어쩜 그럴수 있을가. 대학 최우등졸업생을 군병원 약제사로 배치하다니. 하지만 뭐 일없어. 이제 의학과학연구소라든가 어데 수련이 맘나는데가 있으면 말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힘써줄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원명길이 그 특징적인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로 나무랐다.

《뭘 그래요. 오빠！ 난 수련이를 위해 그러는건데… 나도 이제 의사선생신세랑 지구… 그럼 뭐 나쁠게 있어요？》

《의사선생신세는 지지 않을수록 좋아！》

《아유, 장담말아요. 오빠！… 그러다 이제 우리 수련선생신세를 톡톡히 지게 될지 알겠어요？！》

《뭐 그럴리야. 아직 한번도 젖은 수건이나 알약따위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식탁이 꽉 찼다. 주고받는 말들은 유치했어도 식탁의 료리들은 훌륭했다. 얼핏 보매 누구인가 자기의 정신적빈곤을 풍성한 식탁으로 메우려 한것 같다. 맥주도 나왔다.

《이건 청량음료야.》 먼저 명숙이가 제앞에 놓인 잔을 들면서 애교있게 눈웃음쳤다. 《수련이, 무엇을 위해 들가？》

그는 이미 그 대답도 준비해두었던 모양이다. 한팔을 쑥 내밀며 《자, 우리의 상봉과 우정을 기념하여！》 하고 웃으며 말했던것이다.

수련이도 잔을 쨍지 않을수 없었다. 잔들이 기분좋게 쟁강거렸다. 원명길이 내민 잔에 손을 가져가며 처음으로 눈길이 마주

쳤을 때 수련은 무엇때문인지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꼈다. 그를 거부하고 뿌리치려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이 무서운 호기심,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수련은 처음 한모금을, 이어 명숙이의 강권에 못이겨 또 한모금 두모금을 같이 마셨다.

경음악이 울려퍼졌다. 울긋불긋한 불빛들이 그 음악선률에 맞추어 들뛰기 시작했다. 수련은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뜨거운 피의 흐름을 의식했다. 명숙이가 료리접들을 집어주었다. 수련은 그의 친절에 대한 인사로 무슨 말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불쑥 꺼냈다는것이 그의 남편과 가정에 대한 질문이였다. 흔히 가정을 이룬 많은 녀성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끝없이 이야기할수 있는 화제였다.

명숙이 웃어대며 떠들기 시작했다.

《참 수련이, 너도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말이야. 녀자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자면 우선 우둘렁거리는 남편을 굴복시켜야 해. 남자들이란 다 큰애기들이나 같아서 이따금 동무들이 왔을 때나 체면을 세워주면 돼. 왜냐하면말이야…》

명숙은 말하며 먹어대고 원명길은 가소롭다는듯 웃으며 식탁의 빈잔들을 자꾸 채웠다.

《아니야. 가정이란 의무와 약속이야.》 하고 마침내 듣다 못해 원명길이 끼여들었다. 《우리 시대 가정의 기초엔 바로 의무와 약속이 놓여있어야 해. 수련동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의무와 약속이란 바로 동지적협조정신을 의미하는것인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것이 아닐가요?》

후날 수련은 그때 자기가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했던지 종시 기억해내지 못했다.

원명길은 굵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갖가지 인생문제며 사랑과 가정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시내물처럼 끝없이 이어갔다.

끝내 수련은 눈을 감고야말았다. 명숙이 그의 어깨를 껴안으며 《너 왜 그러니. 어디 말째니?》 하고 물었다. 수련은 머리가 휘휘 돌고 속이 메슥메슥하여 더는 참을것 같지 못했다.

《가야겠어. 난… 정말 미안해요.》

그러자 명숙은 그를 안아일으키며 원명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부탁한 차가 와있나 나가봐요. 어서!》

이윽고 수련은 명숙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었다. 원명길이 동생을 거들어 수련이를 차에 태웠다. 명숙은 앞좌석으로 옮겨갔다. 잠시후 승용차는 갖가지 현란한 불빛으로 장식된 창광거리를 누비며 달려갔다. 수련은 자기가 어데로 실려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원명길의 굵은 팔뚝이 자기를 받쳐주고있다는것을 가까스로 의식했을뿐이였다. 몇번이나 그것을 밀어내려고 헛되이 애쓰다가 그만 맥이 진하고말았다.

드디여 불같이 달아오른 뜨거운 손바닥이 어깨를 휘감고있는것을 느꼈다. 수련은 소스라치듯했다. 숨막히는 흥분에 온몸의 피가 길길이 뛰여오르는듯했다. 자기의 몸에 닿는 지꺼분한 느낌에 몸서리치며 그는 무섭게 속삭이였다.

《차를 세워요!》

차가 멎었다. 명숙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그래 수련이! 이대로는 집에 못가. 우리 집에 가서 좀 머리를 식혔다 가자. 한시간후엔 차로 보내주겠어.》

수련은 아무말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순간 눈앞이 핑 돌고 목구멍 가득히 욕지기가 치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가까스로 혀를 깨물며 앙버티고있으려니 목구멍이 죄여들어 숨을 쉴수가 없었다. 명숙이가 밖에 나와 그를 붙안으려고 했다. 그 순간 수련은 가늘게 부르짖었다.

《다치지 말아!》

날카로운 부르짖음이였다. 그것이 어찌나 낮고 새되고 서리발같이 예리하고 독살스러운것이였던지 명숙은 쳐들었던 손을 까드린채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수련은 콕콕 찌르는 찬바람을 헉헉 마시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걸어가면서 이를 악물고 참을길 없는 혐오와 구역질나는 느낌으로 자기자신을 매질하고 저주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되여 내 이런 꼴이 되고말았느냐?… 아니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나자신이 그걸 바라고 찾

아갔던것이다. 순간의 유혹에 끌려 이모양,이꼴이 되여버린것이다. 아아! 만약 이런 꼴을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놀라고 또 슬퍼할것이냐. 그리고 그 동무가,그 윤철동무가 이걸 안다면 뭐라고 할것인가?… 진저리치며 물러설것이다. 그자리에서 침을 밸고 돌아설것이다. 그리고 더는 돌아보지도 않을것이다. 더는!…)

언제부터였는지 그의 눈가에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수련은 그것을 씻지 않았다. 달려오는 차들의 전조등불빛이 그 진한 눈물을 순간순간 번뜩이게 하였다.

18

윤철과 림정산은 기이한 인연을 가지고있다. 우선 그들 둘은 지난해 9월 거의 한날한시에 정찰소대로 배치되여왔었다. 군관학교 최우등졸업생인 윤철중위는 정찰소대장으로,신입병사훈련을 마친 전사 림정산은 그의 대원으로 왔다.

림정산은 목이 가늘고 처녀처럼 수줍음을 잘 타는 전사였다. 학교때엔 공부를 특별히 잘해 수재로 불리웠다지만 언제나 씩씩함과 용기와 인내만을 요구하는 병사생활에서는 어쩐지 주눅이 들고 겁을 먹은듯한 두눈을 쉴새없이 깜박거리는 좀 어리숙해보이는 편이였다. 게다가 그는 하늘을 무서워하였다. 무선수 하사 최윤두의 표현을 빌면 《무슨놈의 귀신딱지가 붙었는지 비행기 발동소리만 나도 키가 졸아든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기계화보병려단의 정찰병들은 하늘을 무서워하고는 도무지 정찰병구실을 해낼수 없다. 도보행군을 모르는 기계화보병려단의 질풍같은 공격을 선행하자면 언제나 적구의 하늘에서 먼저 떨어져내리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윤철은 그를 그가 두려워하는 하늘에 기어이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그와 림정산의 기이한 인연을 더욱 두터이해준 두번째 원인으로 되였다.

단풍계절의 좋은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날이였다. 그날 두대의 비행기가 정찰병들을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정산은 제2기 즉 두번

째비행기 제7번 좌석에 앉았고 윤철은 그의 옆 8번위치에 앉아있었다. 정산은 흥분되여있었다. 윤철이 그의 손을 잡고 벌써 수십번도 되풀이한 말들을 반복하였다. 그때마다 정산은 기여들어가는듯한 소리로 《알겠습니다. 소대장동지,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속삭이군하였다.

그는 거의나 피기가 가셔진 얼굴을 경련적으로 떨고있었다. 그러나 항공륙전구분대들이나 정찰구분대들에서 신입병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떨보전사》같지는 않았다. 그 《떨보전사》는 너무 무서워 문턱을 꽉 붙잡고 앙버티는것이여서 그만 강하지도원이 억지로 밀어 떨구었다고 한다.

림정산은 그런 못난이와는 전혀 다른 부류였다. 그는 문턱을 꽉 틀어잡지도 않았고 앙버티지도 않았다. 그대신 두눈을 꾹 감고 거의나 실신한 사람처럼 두다리를 까드린채 아득한 심연속으로 떨어져내렸다.

마감으로 뛰여내린 윤철은 훈련장상공에 돌개바람이 일고있는것을 알았다. 앞서 내린 정산이 걱정되였다. 아닐세라 지상의 방송차에서 《제2기대 7번 측할하라, 측할하라!》 하고 거듭 경고해주고있었다. 그제서야 윤철은 밑에서 내리고있는 정산의 락하산이 뾰족해진것을 보았다. 돌개바람에 걸려 한쪽이 찌그러지고있는것이였다.

《제2기대 7번 들었는가. 위험하다. 측할하라!》

방송차에서 거듭 불어댔으나 정산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산줄을 당겨 조절할대신 정신없이 T자표식에서 멀리 벗어난 산너머로 계속 날아가고있었다. 윤철은 그를 뒤쫓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를 위험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을것이다. 정산은 계곡의 너럭바위우에 떨어져 심한 타박상을 입은채 바위에서 미끄러져내리고있었다. 그밑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아찔한 계곡이였다. 뒤따라내린 윤철이 락하산도 걷지 못한채 그를 멈춰세우고 강파로운 바위턱으로 기를 쓰며 끌어올렸다. 그야말로 순간순간이 생사를 판가름하는 위험한 순간이였다. 그는 바위틈에 손톱을 박으며 한치 또 한치 죽기내기로 정산을 끌어올리고있었다.

그때 믿을수 없는 일이,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머리우에서 느닷없이 맑고 쟁쟁한 녀자의 소리가 울렸던것이다.

《이걸 잡아요. 동무!》

윤철이 가까스로 머리를 들었을 때, 땀이 흘러들어 쓰려나는 눈을 겨우 뜨고 올려다보았을 때 제일먼저 눈에 띈것은 처녀의 크고 검푸른 두눈이였다.

그가 바로 리수련이였다.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윤철은 그 처녀의 도움으로 의식잃은 정산을 강파로운 바위꽉대기에까지 끌어올렸다. 얼마후엔 또 그 처녀의 도움을 받으며 산밑에까지 정산을 부축해내렸고 때마침 달려온 대원들에게 넘겨줄수 있었다. 정산은 군단병원에 입원하였다.

며칠후 윤철은 그 처녀앞으로 편지를 썼다.

《…그때 수련동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기에망정이지 우린 정말 위험할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대 전사들모두가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고있습니다.

지금 그 전사동문(그의 이름은 림정산입니다.) 군단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며칠후엔 퇴원할것 같습니다. 그날 수련동무가 본것처럼 타박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을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군의일군들도 그가 나어린 전사여서 하늘에서 떨어져내릴 때 벌써 심한 정신적쇼크를 받은것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훈련을 계속하면 그 일도 옛말처럼 하게 될것입니다.

수련동무, 나어린 전사 림정산동무는 자기를 위험에서 구원해준 수련동무를 친누나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 문병을 갔을 때 그는 누님에게 편지하게 되면 자기의 인사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윤철에게 보내온 수련이의 편지엔 이런 구절들이 있다.

《오래전부터 전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군했어요. 그러던것이 오늘 이렇게 끌끌한 정찰병동생이 하나 생기게 되였으니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산이 나의 동생이라면 소대장동문… (그다음 두세개 단어를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확연했다.) 나의 벗이겠지요.》

이렇게 그들은 림정산을 화제의 주제로 삼고 편지를 이어나갔다. 첫 편지는 물론 그다음 편지들에서도 림정산은 빠지지 않았다. 그의 치료경과, 그의 퇴원, 그의 부탁, 그의 인사말 그리고 그에게 보내는

누나의 당부… 하여튼 림정산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윤철과 리수련 두사람의 마음을 잇는 안내자로 되고있었다. 그러나 림정산자신은 첫 강하훈련이 있은후 더욱더 기를 펴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졌다.

림정산이 퇴원하여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때 윤철은 전사의 담을 키워주기 위하여 활차훈련을 준비하고있었다. 활차훈련이란 높은 벼랑에서 쇠바줄을 타고 총알같이 미끄러져내리는것이다. 경험많은 구대원들도 활차를 잡을 때엔 낯빛이 창백해지군한다. 윤철과 구대원들이 몇차례 시범동작을 해보였으나 정산은 엷은 입귀를 바르르 떨면서 뒤걸음질쳤다.

《소대장동지, 아무래도 전… 안됩니다.》

윤철은 놀랐다.

《정산동무, 왜 그래. 응? 무슨 소릴 하자는거요?》

《저… 소대장동지.》 정산의 두눈이 허둥거렸다.

《전 소대장동지가 절 위해 애써주시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전 원래 그렇게 돼먹었습니다. 그러니 절… 다른데로 보내주십시오.》

《뭣이?》

윤철은 아연해졌다. 별안간 온몸의 피가 얼굴에 확 몰려드는듯했다.

《정산이, 내 벌써 몇번이나 말했어. 그건 다 마음먹기탓이라구. 응?!》

《아닙니다, 소대장동지. 전 안됩니다.》

《?!…》

윤철은 세차게 입술을 악물었다. 가무스레한 얼굴로 경련이 스쳐갔다. 막 터져나오려는 고함소리를 누르느라고 울대뼈가 꿈틀거렸다.

《소대장동지.》 하고 정산은 고집스럽게 되뇌였다.

《보내주십시오. 아무데라도 가겠습니다.》

윤철은 숨이 차고 답답해져서 참을수가 없었다. 무섭게 그를 쏘아보았다. 분노의 격정에 주먹이 떨리고 광대뼈가 움씰거렸다.

《좋아. 맘대루 하라!》 하고 마침내 그는 부르짖었다. 《동무같은 사람은 필요없어. 그런 못난인 우리 정찰소대에 필요없단말

이야. 알겠어? 그 어데 가든… 쓸모가 없을거야. 필요없어, 필요없단말이야. 가라!》

윤철은 이를 악물고 참을길 없는 혐오에 몸을 떨면서 그를 쏘아보다가 휭하니 돌아서 가버렸다. 뒤에 남은 정산은 그자리에 못박힌듯했다. 전사의 두눈에서는 진한 눈물이 소리없이 흜어번지고있었다.

그 어느 구분대에 가보나 림정산과 같은 전사들이 있는 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의 울림에 화음을 맞추지 못하는, 그리하여 놀림가마리가 되거나 끝까지 지휘관들을 애먹이는 그런 전사들이 있다. 례를 들면 어떤 전사는 두눈을 펀히 뜬채 조준을 한다. 한눈을 지그시 감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또 어떤 전사는 화력복무훈련에서는 펄 날다가도 철봉에만 매달리면 풀자루같이 늘어지군한다.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도무지 엉치를 들어올리지 못한다. 또 통신구분대의 무선수들가운데엔 그 어떤 리듬감각이 헝클어져 돈도쯔—쯔 하고 쳐야 할것을 돈도쯔쯔— 하고 치는 전사도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통신병들은 란수에 걸렸다고 하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릴지언정 도무지 그 버릇만은 못뗀다고 한다.

하다면 림정산은 정신적인 란수에 걸린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병적인 공포심때문인가?…

윤철은 그를 다른 근무에 돌려버리고말았다. 림정산은 그때부터 려단직속 식당근무, 부업발동원, 직일근무 등을 도맡아했다. 소대의 익살군인 무선수 하사 최윤두는 이러한 그를 두고 정찰소대의 《부양가족》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림정산이 이번엔 소대장 윤철과 같이 전려단적으로 유일하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것도 한밤중에 다리가 상한 새끼노루를 안고 려단군의소에 갔다오던 길에서였다.

윤철의 정찰소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의 인사를 받은 소식과 함께 림정산의 이 놀라운 일은 전군단을 들었다놓았다. 정찰소대의 《부양가족》이 일약 하루밤사이에 전군단이 다 아는 전사로 되였다. 그와 더불어 림정산의 새끼노루도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려단직속 식당뒤켠의 허술한 짐승우리에 쏠려지게 되였다.

그때부터 윤철은 다시 훈련장에 정산을 내세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를 포함한 모든 전사들을 속히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키우라고 과업을 주신것이였다.

윤철은 그에게 지상훈련의 첫걸음마부터 다시 익혀주려고 결심했다. 지상훈련 제1단은 1메터높이에서 락하산(흔히 산이라고 략해부른다.)을 쥔 동작만 하고 뗠어져내리는것이다. 발을 모아 붙이고 두손을 귀우로 올려 꽉 쥔채 몸자세를 ㄱ자형으로 하고 뗠어져내린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덜 받게 하며 발목이 부러지지 않게 착지동작을 완성하는것이다.

정산이 1단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을 의아쩍어하자 윤철은 말해주었다.

《1메터가 중요해. 1메터높이에 올라설 때 마음은 벌써 하늘에 올라가있어야 하는거야.》

윤철은 분동작으로 시범을 보여주군했다. 제2단은 1.5메터, 제3단은 2메터,제4단은 2.5메터,5단은 3메터 높이이다. 3메터면 보통농가의 지붕높이로서 거기서 예비산까지 지고 두팔을 우로 쳐들어 산을 쥔 동작만 하고서 뗠어져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루에 몇번만 반복해도 가슴이 오그라들고 등뼈가 쑤시며 허벅지,장딴지에 온통 알이 배겨 앉지도 못한다. 변소에 들어가서도 한손으로 벽을 짚고서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허벅지의 알들이 다 풀릴 때까지 하루도 쉬여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탑훈련이다. 산을 다 메고 80메터 높이에 오른다. 올라갈 때에는 산을 펴고있는 상태그대로 권양기가 끌어올린다. 윤철은 이 훈련을 밤에 시킴으로써 정산으로 하여금 캄캄한 야공에서,비행기에서 뗠어져내리는 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전체 정찰소대가 정산의 훈련에 관심하였다. 부소대장 길덕수는 말했다.

《눈을 감으면 안돼. 눈만 뜨면 벌써 다 먹어둔거야.》

소대의 힘장사 장성부가 《첫 한순간만 넘기면 돼. 그저 아무거나 생각하라구.》 하고 말하면 익살군인 무선수 최윤두가 그 말을 이렇게 시정해주었다.

《아니야. 누구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라구. 알겠어?… 아버지, 어머니, 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때 슬그머니 곁눈질해보던 처녀가 있으면 그것도 좋아!》

무슨 말인들 안했으랴. 참으로 윤철과 그의 소대원들이 전사 림정산에게 말해준 그 모든 경험과 교훈, 당부와 격언들을 다 적어놓으면 아마 세상에 다시 없을 하나의 귀중한 강하훈련 참고자료가 되고도 남을것이다. 그러나 정산을 새롭게 일떠세운것은 오직 하나 하루속히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불타는 열망이였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전사 림정산이 두번째로 강하훈련에 참가하는 날이다. 이번의 훈련은 야간강하라고 한다. …

×

그동안 오영범은 《실패》한 려단의 시범도하훈련때문에 련사흘째 침식을 잊고 자기 방에서 괴로움에 모대기였었다. 집에도 한번 들어가지 않았다. 참다 못해 안해가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소문을 듣고 불안스러워 전화를 걸었으리라고 짐작한 오영범은 첫마디부터 노기가 실린 음성으로 《왜 그러오?》 하고 물었다. 그 목소리에서 벌써 기가 죽은 안해는 당장 전화를 끊을가봐 겁내는듯 다급히 설명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시누이(오영범의 녀동생) 영옥이가 도병원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어머닌…》 하고 안해는 여전히 잰말씨로 계속했다. 《당신이 좀더 노력해서 중앙병원같은데 보내봤으면 하는군요.》

그때 오영범의 심정은 착잡하였다. 한동안 아무 말없이 모가 진 아래턱만 움씰거릴뿐… 잠을 못자 부석부석해진 그의 얼굴이 꺼멓게 죽어가고있었다.

영옥은 오영범보다 10년이상 아래인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오영범의 부모는 아들 하나만을 키우다가 늦게야 그 딸을 보았는데 어릴 때부터 동네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로 자랐다. 사람들은 남달리 흰 살결에 커다란 두눈을 가진 오영옥이 이제 틀림없이 세상이 다 아는 무용가나 영화배우가 될것이라고 말하군

했었다. 그러나 영옥은 자기가 나서자란 시골마을을 뜨지 못했고 제가 배운 산간벽지의 작은 학교에 눌러앉아 교편을 잡게 되였다. 그래도 영옥은 그것으로 만족해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령인 오빠에 대한 자랑만 해도 가슴이 넘쳐날 정도였다. (이 말은 언젠가 영옥이 보낸 편지에 씌여져있었다.)

그러한 영옥이에게 별안간 불행이 닥쳤다. 어느날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선물비품을 끌어내던 처녀의 머리우에 불붙는 서까래가 떨어져내렸던것이다. 그때부터 산골마을의 자랑이던 예쁜 처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삼복철 할것 없이 진종일 머리에 수건을 감고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처녀의 옛모습은 가슴아픈 추억으로만 남게 되였다.

그 일을 상기하자 날카로운 아픔이 가슴을 에이는것을 느꼈다. 꽉 다문 어금이까지 쩌르르해났다.

《이보세요.》 안해가 기다리다 못해 또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구 편지할가요. 예?!》

일체 집안의 편지거래는 안해가 다 맡고있다. 그는 송수화기를 귀전에 꽉 눌러붙인채 천천히 힘들게 말했다.

《당신 좋도록 하오.》

《그렇지만 이보세요. 어머닌…》

《글쎄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니까. 그리고 다신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전화를 걸지 마오.》

《그래두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일인데…》

《난 바쁘오. 그거야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소!》

그는 송수화기를 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책상우를 더듬기 시작했다. 마침 손에 닿는 담배갑을 가져갔다. 담배를 한대 꺼내여물고 가스라이타를 켜댔는데 하마트면 구붓하니 휘여든 숱진 눈섭을 다 태워버릴번했다. 무슨놈의 라이타가 한뽐이나 되게 불길을 올리쏘군하여 벌써 몇번이나 집어던졌던것을 또 켰던것이다. 그는 라이타와 담배대를 다 책상 한구석에 던져버리고 지도를 펴놓았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며 자기의 심리적고충을 잊으려고 애썼다. 확대경을 들고 지도의 선과 점

들을 하나하나 더듬기 시작했다.

모든 전투행동은 시간과 장소의 공간속에서 벌어지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것만큼 지휘관은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부대, 구분대들의 행동을 시간과 장소, 목적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은 싸움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기 위하여 령활한 전술로써 적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적에게 약점을 조성하여 그것을 대담하게 리용하며 적을 강력히 타격하고 믿음직하게 진압하며 적들보다 앞질러 행동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리용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전투지휘에서 결단성과 맹렬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오영범은 바로 이러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제반 조건들을 타산하지 못했단말인가. 그가 군사종합대학의 강당과 전술훈련장들에서 터득한 주체적군사리론과 교범의 요구들을 아직도 다 활용하지 못했단말인가?!…

깔끔거리는 두눈을 비벼가며 지도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나중엔 지도의 선과 점들조차 잘 분간되지 않았다. 마침내 확대경을 쥔 손을 맥없이 놓고말았다.

가슴이 뻐근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위에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 근심을 드린 려단장이 자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자신 수십수백번 그런 물음을 자신에게 제기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옛날의 장수들도 싸움에서 실패하면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것을 의무와 량심의 법도로 여겨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피로 씻고 군대의 기강을 세우려 했었다. 그렇다면?!… 물론 그는 옛사람들의 본을 따르려는것이 아니다. 보다는 군법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군법은 랭정하고 무자비하다. 실패한 지휘관은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시환경일 때에는 그 책임이 더 크고 혹독한것으로 될수도 있다.

모지름속에 언제 날이 새고 저무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느닷없이 자기의 입당보증인이고 옛상관인 김윤필이 생각났다. 언제부터 한번 찾아가본다 하면서도 여적 시간을 내지 못했었다. 그를 생각하자 더는 기회를 미루고싶지 않았다. 그를 찾아

가 흉허물없이 속을 터놓고 조언을 받고싶었다. 그는 군단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차를 타고 달렸다.

김윤필은 집에 없었다. 신정리에서도 제일 막바지인 솔골에 가서야 만날수 있었다. 저녁무렵이였다. 모두 한모양새로 개털모자, 솜모자, 솜신과 솜옷차림을 한 늙은이들이 돌서덕을 뚜지고있었다. 로병분조원들이였다. 그들속에서 낯익은 옛상관 김윤필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먼 길가에 차를 세우고 올라온 인민군장령이 바로 오영범이라는것을 알아본 김윤필은 허둥지둥 마주오다가 별안간 우뚝 서버렸다. 주름깊은 늙은이의 두눈이 사뭇 슴벅거렸다. 뒤쪽의 늙은이들도 다들 일손을 놓고 놀란 표정으로 두사람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다. 오영범이 먼저 불렀다.

《중대장동지！》

순간 김윤필은 눈굽이 저려나는듯 안면근육을 움씰거렸다. 거의나 고통스러운 표정이였다. 뜻밖의 기쁨에 목이 메여 입을 열지 못하고있다. 다음 순간 성급히 벙어리장갑을 벗어들면서 석쉼한 목소리로 《왔구만！》 하고 신음소리처럼 속삭이였다.

《예, 중대장동지… 왔습니다！》

드디여 그들은 천천히 마주가 얼싸안았다. 김윤필의 두눈은 어느새 물기에 젖어있었다. 목이 잠겨 입귀를 떨면서 뒤쪽의 늙은이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이 다가오자 오영범을 소개했는데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온 인민군장령에 대한 사무치는 정과 자랑이 눈물어린 그 목소리에서 뜨겁게 울리고있었다. 다른 늙은이들도 모두 감동되여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반갑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거듭했다. 오영범 역시 그 늙은이들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아무 말없이 모가 진 턱을 움씰거리며 일일이 거수경례를 했다. 웬일인지 그도 목이 잠겨버리고 눈시울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이렇게 찾아오기 얼마나 잘했는가. 어째면 좀더 일찍 찾아올 생각을 못했던가！…

뜨거운 인사들이 오간 다음 그는 김윤필과 손을 맞잡고 돌무지쪽으로 걸어갔다. 김윤필은 어데 앉을만한 자리가 없나 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돌무지에서 커다란 돌 두개를 굴러내렸다. 오영범

이 자리잡고 앉으려 하자 그는 손에 들고있던 벙어리장갑으로 돌우의 흙을 털려고 했다. 오영범이 만류했다.

《일없습니다. 그거나 한짝 주십시오.》

그들은 흙묻은 벙어리장갑을 하나씩 깔고 나란히 앉았다. 담배를 피웠다. 그동안에 있은 하많은 사연들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보다 상세한 사연은 김윤필의 밭고랑같은 주름과 북두갈구리같은 두손이 그리고 오영범의 커다란 장령별이 다 말해주었다. 몇마디 주고받고는 또 마주보고… 이윽고 오영범은 자기 일신상의 일들이며 특히 얼마전에 있은 《실패》와 마음속 번민에 대하여 털어놓았다. 줄곧 눈귀를 가늘게 좁히며 웃고있던 김윤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담배를 쥔 시꺼먼 손이 알릴듯말듯 떨리기까지 했다. 바람이 차졌다. 돌서덕 뒤쪽의 잡관목들이 불안스럽게 와슬렁거렸다.

무거운 침묵이 오래 계속되였다. 련련히 뻗어간 산발너머로 해가 기울고있었다. 붉은빛의 파도가 하늘 전폭을 덮기 시작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오영범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든… 좀 하십시오.》

《…》

여전히 김윤필은 담배만 뻑뻑 빨았다. 두대,석대 계속 갈아대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그었다.

《내 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소?》 하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을 생각했소. 전쟁때 있은 일을…》

《?!…》

김윤필은 해가 지는 산너머쪽을 또 바라보았다. 그 산너머 붉게 물든 구름장사이를 꿰질러 흘러간 옛싸움터를 마음의 눈으로 찾고있는듯했다. 담배연기를 모락모락 코와 입으로 내뿜고나서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차정암이라고 스물일곱에 난 젊은 련대장이 있었소. 군단적으로 소문난 용감한 지휘관이였지. 뼈대가 굵고 두눈이 쭉 가로 째졌는데 생기기도 무섭게 생겼지만 싸움은 더 무섭게 해댔소. 늘 말을 타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총포탄이 비오듯하는 속으로 말을 타고 달릴 땐 정말 굉장했소. 온 련대가 그를 존경하구 자랑했지. 그

만 나타나면 왜 그런지 무서운게 없었소. 그가 탄 공골말이 눈에 띄거나 말투레질소리만 나도 벌써 기세가 올랐소. 그래 우린 모두 그를 〈련대장아바이〉라고 불렀소. 그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소. 그런건 알려구두 안했지. 〈련대장아바이〉면 다였으니까. 정말 〈아바이〉다왔소. 전투때 어느 한 중대에서 기세가 죽는것 같으면 당장 거기로 말을 타고 달려가 쐑쐑하는 목소리로 (파편에 목을 상했던거요.) 〈동무들, 조국과 인민이 동무들을 지켜보고있다. 놈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말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롯!〉 하고 웨치면 다들 무섭게 돌격해나갔소. 정말이지 그는 말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사람이였소. 그가 자기의 공골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의 털색갈이 나빠져도 그자신 입맛을 잃었다는거요. 마사원이 좀 고생했지. 그래도 그는 자기 말은 일을 자랑으로 여겼소. 말을 타고 총포탄속을 내달리는 〈련대장아바이〉를 그가 바로 뒤받침해주었으니까… 련대장이 말을 타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린다거니 모험을 한다거니 하면서 그의 〈무모한 영웅주의〉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어쩌지 못했소. 어쨌든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구 싸우면 꼭 승리했으니까. 그는 늘쌍 이렇게 말하군했소. 〈군대란 싸움을 위해 있고 또 승리하자고 싸우는것이다!〉 하구말이요.》

그는 또 담배를 꺼내물었다. 오영범이 성냥을 켜주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모금 깊숙이 들여마시더니 눈을 찌긋하면서 오영범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꼭 오동무와 같은 성미였소.》 하고 말하는듯했다. 오영범은 잠자코 기다렸다.

《오래전 일인데두 기억에 생생하구만.》 그가 또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래, 51년 봄에 있은 일이지. 성리전투가 있은 다음날이였으니까… 갑자기 〈련대장아바이〉가 련대열병식을 벌려놓는게 아니겠소. 성리전투에서 적 두개 대대를 포위소멸했으니 그럴만도 했지. 전투승리를 경축하는 진짜 열병식이였소. 그것도 적들의 155미리 곡사포화력권에 들어가있는 개활지대에서 말이요. 군기를 앞세우고 각종 전투장구류들을 착용한 구분대들이 말을 탄 〈련대장아바이〉앞을 지나며 행진해나갔소. 〈련대장아바이〉가 쐑쐑하는 목소리로 〈동무들의 전투승리를 축하합

니다!〉 하고 웨치면 중대와 대대들이 〈만세!ㅡ〉 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웨치며 나갔더랬소. 정말 굉장했소. 다들 흥분에 들떠서 포탄 한발만 날아와도 숱한 희생이 나리란건 생각지도 않았소. 설사 포탄이 날아와 터진다 해도 아마 열병행진은 계속했을거요. 그만큼 기세충천했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적들은 잠잠했소. 전날 전투때 너무 혼쌀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들의 코앞에서 열병식을 벌리는 우리의 기세에 넋이 빠졌댔는지… 뒤늦게야 잠자리비행기를 띄워놓구 포탄을 몇방 쐈는데 그땐 이미 열병식이 다 끝난 뒤였소. 그런데 그 열병식이 큰 문제거리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보고를 받은 군단장이 노발대발했다는거요. 그때 우리 군단장이 누구댔는지 아오? 항일투사 류경수동지더랬소. 그 범 같은 사령관이 대노했은즉 일이 어떻게 되였겠소. 〈련대장아바이〉가 당장 새까매지더구만. 그도 군단사령관이 병사들과 어울릴 땐 그렇듯 허물없구 친근하다가도 일단 어느 지휘관이 일을 저지르기만 하면 가차없다는걸 잘 알고있었던거요. 소문에 듣자니 그때 류경수동진 련대장을 전화로 찾아 누가 그렇게 하라구 했는가, 동문 련대를 어데루 끌구 갈 셈인가, 동문 련대장이기때문에 저혼자 모험을 하는게 아니다, 련대를 가지구 모험하는거야! 동문 군사재판감이다, 병사들을 아낄줄 모르는 그런 지휘관은 우리 인민군대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군단사령부에 올라와 검토를 받으라고 명령했다는거요. 그 소식을 듣자 온 련대가 근심을 했소. 〈련대장아바이〉는 더 말할것두 없구… 불같은 성미여서 무섭게 번민하더구만. 하루밤새 완전히 딴사람같이 됐소. 다음날 군단에서 차를 보내왔는데 그때 나온걸 보니까 반쪽이 되여있었소. 군단대렬부장이 차에 타라구 하자 갑자기 련대장은 잠간 볼일이 있다고 말했소. 대렬부장의 동의를 얻고 그는 지휘부건물뒤쪽으로 재빨리 걸어갔소. 그런데 잠시후… 참, 놀라운 일이였소. 글쎄 거게서 〈땅!〉 하는 총소리가 울리는게 아니겠소. 총소리가!…》

《?!…》

오영범은 흠칫했다. 끔찍한 예감이 앞서면서 목이 타들고 입술이 말라들었다. 김윤필도 그날의 충격이 상기되여 속이 떨리는

모양이였다. 그의 시꺼먼 손가락짬에 끼워있는 담배는 오래전에 불이 죽어있었다. 이번에도 오영범이 성냥을 켜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련속 두가치나 부러져나갔다. 겨우 세번째만에야 불이 일었다.

어느덧 해는 산너머로 잠겨들고 락조의 붉은 잔광만이 하늘가 한끝을 물들이고있었다. 다른 늙은이들이 삽과 괭이에 묻은 흙을 터는것이 보였다. 로병분조의 하루일이 끝난것이다.

《그때.》 하고 김윤필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보우. 구석구석에서 〈련대장아바이〉를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자 와 밀려갔소. 군단대렬부장도 정신없이 달려갔소. 달려가보니 글쎄…》 그는 기침을 했다. 손에 든 담배를 떨구고 발로 비벼껐다. 《이게 웬일이겠소. 글쎄 〈련대장아바이〉가 그처럼 사랑하던 공골말을 제 손으로 쏘아눕힌게 아니겠소.》

《예？！》 오영범은 격하게 숨길을 내뿜었다. 《말은 왜 쐈습니까？》

《그때에도 그렇게 물었소. 대렬부장이 숨을 헐떡거리며 〈이게 무슨짓이요. 말은 왜 쐈소？〉 하고 소리치니 손에 쥐고있던 권총을 집에 넣으며 그는 혼자소리처럼 〈말을 쏜게 아니라 병사들을 가지구 모험을 한 내 대갈통을 쐈습니다. 극단한 모험심과 영웅주의를 쐈다구 할지…〉 라고 말하는게 아니겠소. 그는 자기의 무모한 영웅심리가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게 될것인지 제때에 깨달았던거요. 아주 제때에！…》

날이 어둡고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영범이 물었다.

《군단에 불리워갔소.》 김윤필이 말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그가 군단사령부에 올라가니 군단장동지 말을 쏜 사건도 다 보고받았는지 다른 말은 없이 엄하게 그저 〈이젠 알았소？〉 하고 물었다더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련대에 내려가새 전투명령을 대기하라고 했다는거요. 그후 우리 〈련대장아바

이〉는 854.1고지전투에서 희생될 때까지 잘 싸웠소. 참 용맹한 지휘관이였지. 그를 회상할 때마다 난 진짜 용감한 군인은 전투에서만 아니라 자기를 극복하는데서도 용감하다는걸 생각하군하오. 사실말이지 자기를 이겨내기가 제일 어려운게 아니겠소.》

《!…》

오영범이 받은 충격은 컸다. 동시에 김윤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크고 뜨거웠다. 인제는 농촌의 한 늙은이에 불과한 김윤필, 그는 결코 오영범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의 추억에 깊이 새겨져있는 한 지휘관에 대하여, 그가 찾은 심각한 교훈에 대하여 말해주었을뿐이다. 오영범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줄곧 뒤를 돌아다보았다. 김윤필과 그의 로병분조원들이 손을 저어주고있었다. 혁명의 선배들로서 한 인민군지휘관의 성공과 승리를 부탁하는 전투적인사였다.

그 시각 오영범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를 찾고계시는줄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 번민하고있는 그를 찾아 새로운 용기와 고무를 주시려고 머나먼 초소에까지 몸소 전화를 걸어주시였다는것을 상상도 못하고있었다.

군단장 김대웅이 그가 자기의 입당보증인이며 옛상관인 전쟁로병을 찾아갔다고 보고드렸다.

《음― 전쟁로병인 옛상관을 찾아갔다.》 하고 그이께서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렇단말이지…》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그가 도착하면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단장이 말씀드렸다.

《아니, 됐습니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혁명선배를 찾아갔다니… 좋은 일입니다. 인젠 그도 제 길에 들어선것 같습니다.》

…진정 용감한 군인이라면 자기를 극복하는데서도 결단성이 있어야 한다!… 오영범은 줄곧 그 하나의 생각이였다. 어느덧 승용차는 부대정문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늘밤 려단정찰병들의 강하훈련이 계획되여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는 정찰병들의 강하훈련에 직접 나가볼 생각이였다.…

19

야간 강하훈련을 앞두고 락하산준비를 꼼꼼히 하고난 정찰병들은 짧은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

윤철은 정산이 편지를 쓰는것을 보았다.

《보고싶은 어머니!》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정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의미하는듯했다. 웬일인지 아버지앞으로는 단 한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거니와 아버지라는 말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눈길을 내려뜨린채 발끝으로 땅바닥만 허빌뿐이였다. 그대신 어머니한테는 자주 편지를 썼다. 자기의 수첩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넣기도 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편지라기보다 매일같이 어머니와 주고받는 애정에 넘친 마음의 대화였다.

정산이 편지를 쓰는것을 보자 윤철은 자기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싶었다. 먼저 사랑하는 누이동생 화옥을 생각했다. 올해 21살난 동생 윤화옥은 영주직물공장 로동자이며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이다. 웃기 잘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처녀이다.

화옥은 늘 아버지,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과 윤철의 동창들의 소식 등을 전해주군했다. 윤철의 부탁으로 외롭게 살고있는 정산의 부모들 특히 정산이 말하기 꺼려하며 일체 아버지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그의 아버지 림희문에게도 편지를 썼다. 정산의 아버지는 눈물로 얼룩진 답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소대장의 누이동생을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한번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화옥은 집안의 《우편함》이였다. 그러나 오늘따라 윤철은 다른 한 처녀에게 편지를 쓰고싶었다.

《수련동무,오늘 수련동무의 동생 림정산은 두번째로 강하훈련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아니면 《수련동무,오늘도 우리는 밤

하늘에 날아오릅니다.》 하고 시작하려던 편지, 쓰고싶었으나 더는 쓸 필요가 없게 된 편지이다.

그들의 서신거래는 이미 끝나버리고말았다. 수련이의 어머니가 써보낸 한장의 편지가 그의 가슴속 정열의 불길에 찬물을 쏟아부었던것이다.

《윤철소대장동무.》 하고 수련의 어머니는 그 편지에 썼다. 《나는 수련이 어머니입니다. 동무에게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 딸 수련에게 대상자가 한사람 정해졌습니다. 곧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소대장동무, 나는 딸의 이야기와 동무가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동무가 정직하고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련이와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생기면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매우 기쁘게, 반갑게 맞겠습니다.

소대장동무의 군무생활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1993년 2월 19일 수련 어머니 씀》

이것이 그 편지의 전부였다. 깍듯이 례절차려 쓴 편지였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수련의 뜻이였을가, 제손으로는 차마 쓸수가 없어 어머니의 손을 빌린것일가?… 주머니속에서 편지가 손에 닿을 때마다 불에 데는듯했다. 마음은 쓰리고 어수선했다. 그 편지가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련이 자신이 쓴것이였다면 비록 마음은 괴로왔을망정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것이다.

무엇때문에 그 처녀는 윤철이 그 무엇을 구걸하기라도 한듯이 이런 편지를 쓰게 했는가?… 과연 그 처녀 역시 허영에 찬 녀자였단말인가. 사람을 잘못봤는가?…

흔히 보통남자들은 남달리 어여쁜 녀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녀자들은 화려한 달력장에나 찍혀 걸려있는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다면 윤철은 수련이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가?… 윤철의 눈에 비쳐진 수련은 결코 자기의 미에 반하여 굽높은 구두를 신고 마치 못이라도 박는듯 딱딱딱딱 포도를 찍어가며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훔쳐보고있으리라는 자만에 빠져 오연해서 머리를

높이 쳐들고 걷는데 습관된 그런 속이 텅빈 허풍선이 처녀가 아니였다. 흔히 교양도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렇듯이 수련은 자기의 미를 다는 모르고 사는데 습관된 겉멋을 모르는 처녀였었다. 윤철은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믿고있었다.

하지만 인제는 모든것이 다 끝나버리고말았다. 윤철은 앞에 놓고있던 종이를 구겨버리고 자리에서 일어서고말았다.

드디여 야간강하훈련시간이 왔다. 인적이 끊긴 대도로에 군용비행기가 내리자 대기하고있던 려단장의 승용차가 비행기 가까이 접근해갔다. 신호등을 들고있던 병사들이 그쪽으로 불을 비쳤다.

처녀비행사들이 려단장에게 달려왔다. 색다른 비행복에 비행모를 쓴 처녀들의 얼굴은 빨간 신호등에 비쳐져 딸기빛으로 선명해졌다. 얼굴이 환하고 눈이 큰 처녀가 오영범에게 보고하였다.

《소장동지, 항법사 중위 안명숙외 1명 강하훈련보장을 위하여 도착하였습니다.》

《쉬엿하시오.》

오영범이 윤철을 돌아보았다.

《소대를 정렬시키오.》

《알았습니다！》

윤철이 어둠속을 향해 구령을 쳤다.

《소대 모엿！》

그러자 도로 량쪽에 위장하고있던 대원들이 와 쏠어나왔다. 모두 위장복차림에 저마끔 락하산과 무선기, 각종 신호기재 등을 휴대하고있어 마치 전쟁영화의 화면에서 뛰여나온듯했다.

처녀비행사들이 무어라고 소곤거렸다.

윤철은 소대를 정렬시키고 오영범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자 려단장은 대렬앞 중간위치에 나섰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기대하신다는 자각이 그들 매 병사들의 가슴에 뜨거운 피의 흐름으로 새겨져있었다. 하여 그는 《동무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고계시오. 자, 그럼 탑승！》 하고 구령처럼 웨쳤다.

찢어진 구름장사이로 창백한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신호등의 빨간 불빛에 비쳐진 가로수들이 시꺼먼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가지들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것이다.

정찰병들은 비행기에 오르는 차제로 산줄고리를 걸어놓고 자리에 앉았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였다. 산을 지고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겪게 되는 흥분,가슴을 옥죄이는듯한 그 야릇한 심정은 어찌할수 없는것 같다. 락하산을 많이 타보았다고 해서 거기에 습관되는것은 아니다. 간혹 많이 타면 탈수록 더더욱 복잡한 심리상태에 잠기는 때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향집 울담우에서가 아니라 바로 천메터에 달하는 야밤의 고공에서 돌덩이처럼 떨어져내려야 하는것이다.

려단장 오영범이 맨 나중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마침 좌실문을 열고 이쪽을 바라보고있는 처녀항법사에게 우정 큰소리로 말했다.

《자,처녀동무들,인젠 날아보기요.》

《알았습니다!》 하고 눈이 억실억실하고 얼굴이 환한 그 처녀가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정찰병동무들,리륙할 때 조심하세요. 망신하지 않게.》

정찰병들이 웃어댔다. 처녀항법사는 바로 비행기가 리륙하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지며 어쩔새없이 오줌이 싸지는것을 암시함으로써 긴장되여있는 그들의 마음을 눅쳐준것이다.

오영범이 정찰병들을 대신하여 한마디 했다.

《동무넨 절대 길을 헛갈리지 말아야겠소. 새까만 밤중에 아무데나 총각들을 팽가쳤다간 단단히 처벌하겠소!》

정찰병들이 웃고 처녀항법사도 크게 웃어댔다. 오영범은 그 한마디 롱담으로써 정찰병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섰다는것을 아직 다는 몰랐으나 어쨌든 기분은 거뜬했다. 자기를 바라보는 정찰병들의 웃음띤 두눈에 따뜻한 신뢰의 정이 비껴있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

발동이 걸렸다. 온몸을 흔드는 단조로운 진동,한순간에 흘러간 생활의 단편들이 련속 번쩍번쩍 사진처럼 눈앞에 찍혀진다는 꿈결같은 리륙의 한순간이다. 어느덧 요동을 쓰며 내달리던 비행기가

돌연 그 어떤 충격도 없이 아스라한 하늘에로 허궁 솟구쳐오른다. 온몸에 스쳐가는 짜릿한 전률, 금시 졸아들던 심장이 별안간 단김을 내뿜으며 다시 풀떡풀떡 뛰기 시작하는것을 느낀다.

오영범은 나란히 줄지어 앉은 정찰병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소대장 윤철과 새끼노루때문에 소문난 림정산을 내놓고는 이름을 아는 전사가 없다. 윤철이나 림정산조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관심해주셨기에 비로소 알게 된것이다.

그는 엄하기로 소문난 려단장인 자기를 아무 꺼리낌없이 웃고있는 눈으로 마주보고있는 한 정찰병에게서 눈길을 멈추었다.

《동문 이름이 뭐요?》

《옛, 무선수 하사 최윤두입니다.》

《동문 무섭지 않소?》

《무섭지 않습니다.》

《그— 래?!》 하고 오영범은 그의 반대쪽에서 앞가슴의 박띠를 움켜쥔채 잔뜩 굳어져있는 림정산을 스쳐보며 히죽이 웃었다. 《입대한지 오래됐소?》

《옛, 구대원입니다. 려단장동지!》

비행기의 동음때문에 좌실에서는 조용히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될수록 큰소리로 주고받지 않으면 안된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오영범이 또 말했다. 《나도 좀 속이 두근거리는데 동문 왜 떨리지 않는지 후날 내게 와서 강의를 좀 해주겠소?》

《옛, 할수 있습니다. 려단장동지!》

다른 정찰병들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웃고있었으나 림정산은 고집스레 입을 꽉 다물고있었다. 소대장 윤철이 그의 한쪽손을 잡으며 무어라고 말해주고있다. 오영범은 토막토막 들려오는 말마디들과 그의 입놀림으로 겨우 그가 하는 말을 가려들을수 있었다.

《정산이, 중요한건 신심을 잃지 않는거야.》 하고 윤철은 말했다. 《인젠 그전날의 림정산이 아니라는걸 명심해야 돼. 알겠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의 훈련모습을 지켜보신단말이야.》

《예. 알고있습니다, 소대장동지!》

정산의 대답이였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의 이마우에는 이슬같은 땀방울들이 내돋고있었다.

돌연 비행기가 몸체를 떨기 시작했다. 나쁜 징조이다. 사람들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쪽저쪽으로 기울어지군했다. 기실벽에 머리를 짓쪼은 최윤두가 《아이구머니!》 하고 부르짖었다. 《아이쿠 아지미들, 무슨놈의 비행기를 이렇게 몰아대시우. 아지미들이 이 최윤두대갈통을 박살낼 차비로구만. 아이쿠, 아이쿠!》

비행기는 더 심하게 요동을 쳤다. 병사들이 좋아라 웃어댔지만 오영범은 처녀비행사들이 걱정되였다. 발밑의 지형이 복잡한 기복을 이루어 무질서한 공기의 흐름이 생길 때 이런 들추기현상이 생기는데 심할 땐 비행사들이 실신하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비행기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몸체를 우두두 떨고나서 곧 진정되였다. 그러자 《떠벌이》무선수 최윤두가 또 입을 열었다.

《려단장동지, 이제 돌아가면 저 아지미들을 좀 단단히 혼내주십시오. 글쎄 용감한 정찰병들을 이렇게 모셔가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용감한 정찰병들이라.》 하고 오영범은 지금까지 쌓이고쌓인 피로도 다 잊고 소리내여 웃었다. 《정찰병이 된걸 자랑하고 싶은게지?》

《그렇습니다. 정찰병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우리 려단에만 하여도 땅크병, 포병, 장갑보병, 통신병 등 다 있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네가 제일이라 하거든.》

《그렇지만 우리 정찰병들한테야 대겠습니까!》 하고 최윤두는 벌쭉 웃었다. 《우린 남들이 공격출발진지로 갈 때 벌써 적구종심에 들어가있거든요. 말하자면 저… 남들이 시작할 때 우린 벌써 끝을 맺고있는셈이지요.》

《그렇다?!…》

한순간 오영범은 머리속에 번뜩인 하나의 생각에 그만 굳어져버렸다. 순간의 격동에 심장이 쿵쿵 세차게 뛰는것을 느꼈다. 아니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가, 뭐 남들이 공격출발진지로 가고있을 때 저들은 벌써 적구종심에 가있다구?!…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

적의 방어전연에 대한 초기타격과 제2제대와 예비대의 결전진입을 동시에 벌려 적의 방어종심에서 강력한 타격을 벌릴수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순차적인 공격이 아니라 전 작전구역에서 일거에, 동시에, 전격적인 결전, 돌파를 벌릴수 있지 않겠는가?… 가만, 가만… 이것이 바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전격전이다. 이를 위해 돌파구역과 적의 최후방종심에 제2제대와 예비대의 땅크, 장갑차들을 어떻게 신속히 전개하는가 하는 문제만 풀리면 된다. 그러면 1시간 30분 걸리던 려단의 작전을 1시간, 아니 그보다 더 줄일수도 있다!…

《우리의 귀중한 전사들의 희생을 극력 줄이자면 짧은 시간내에 적을 철저히,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하여야 하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소. 시간을 줄여야 하오. 단숨에 불이 번쩍나게 시작하고 끝내야 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이름없는 한 려단장의 심장을 덥혀주고 시야를 틔워주고 의기를 북돋아주시며 친히 깨우쳐주신 말씀이다.

그는 터질것 같은 기쁨을 멈출수가 없어 벌깃해진 두볼을 후들후들 떨었다. 저 《떠벌이》가 그렇듯 의미깊은 말을 하다니, 저 친구 이름이 뭐랬더라?… 그래 그래, 최윤두라 했지. 최윤두, 저런 멋있는 친구를 이제야 알게 되다니. 곁에 두고도 여직껏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니!…

그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주어보지 못한 사무치는 사랑의 눈길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웃고만 있는 최윤두를 바라보았다.

그 어느 구분대에 가보나 저런 익살군들이 있는 법이다. 최윤두가 아니면 박윤두가 있거나 허윤두가 있다. 그들은 병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웃음을 언제건 아낌없이 선물해준다. 병사생활은 거의 날마다 시각마다 그들이 제공해주는 그 웃음으로 하여 더욱더 즐겁고 랑만에 찬것으로 장식된다.

오영범은 자기도 모르는새 벌써 그들과 멀리 떨어져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과 같이 살고 숨쉬면서도 그들과 심장의 문은 통하지 않았다. 하마트면 성문처럼 굳게 닫긴채 영영 열리지 않을번하지 않았는가?!…

드디여 투하지점에 이르렀다. 신호등이 껌벅껌벅 하는것과 동시에 삐ㅡ 삐ㅡ 하는 소리가 울렸다.

오영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앞으로 다가갔다. 문결의 위치에 앉아있던 부소대장이 밀차식으로 된 문을 절컥 열고 쭉 밀어놓았다.

찬바람이 확 쓸어들었다. 시꺼먼 야공이 무시무시하게 입을 벌렸다. 딛고선 바닥이 순시에 꺼져버릴듯,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이 웬일인지 저 멀리 아득한 심연의 밑바닥에서 반짝이는듯했다.

《자, 동무들！》 하고 오영범은 정찰병들을 둘러보며 큰소리로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들의 훈련소식을 기다리고계시오！》

전체 정찰병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어깨를 쭉 펴고 서있었다. 오영범이 손짓하자 1번위치에 있던 부소대장이 한발 나섰다.

《부소대장 상사 길덕수！》

오영범은 그의 어깨를 힘주어 눌렀다.

《탈출！》

약간 허리를 굽힐사하고 두발을 모으고있던 부소대장이 구령과 동시에 움쭉 몸을 날렸다. 순간 그는 캄캄한 어둠속으로 종이장같이 휙 사라져버렸다.

다음 차례는 2번강하수 최윤두이다. 그는 반쯤 눈을 감고 무어라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문앞에 나섰다. 이윽고 그는 눈을 뜨고 오영범을 향하여 벌씬 웃어보였다.

《려단장동지, 시를 외워보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소.》

그러자 그는 조기천의 시 한구절을 소리내여 읊었다.

또 싸움의 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서 천야만야 창창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면
내 서슴없이 뛰여들리라

다음 순간 그는 벌써 캄캄한 어둠속으로 휙 사라져버렸다.

3번강하수가 나섰다.

《대원 상등병 김명길!》 하고 차렷자세를 취하며 보고하고 나서 그는 간청하듯 말했다. 《려단장동지, 전 그저 지휘관들이 어깨만 한번 쳐주면 몇갑절 힘이 나군합니다.》

《좋소.》

오영범은 그를 눈여겨보고나서 어깨를 툭 쳐주었다.

《탈출!》

이렇게 한명 또 한명 사라져버렸다. 드디여 림정산의 차례가 왔다. 오영범은 그의 어깨를 힘껏 다그어안았다. 그러자 어린 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늘게 부르짖었다.

《려단장동지, 걱정마십시오. 장군님 전사답게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좋아, 정산이 탈출!—》

하여 정산은 시커먼 허공으로 떨어졌다. 한순간 심장의 박동이 멎고 숨길이 멎고 길길이 뛰던 피의 흐름이 멎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시꺼멓고 괴괴한 허공에 정신없이 곤두박히는 벅찬 느낌뿐,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도 두눈을 꼭 감은채 백열하나… 하고 셈세기를 시작하였다. 운명적인 5초, 그가 제일 무서워한 그 5초를 재여야 했다. 백열둘, 백열서이, 백열너이, 백열다… 순간 등뒤에서 온몸을 툭 채는것을 느꼈다. 비행기고리에서 산줄이 빠진것이다. 허공중에 곤두박히던 몸이 힘껏 산줄에 매달리는것도 감촉했다. 머리는 하늘로, 발은 아래로… 무섭게 죄여들었던 심장이 후두둑! 하고 다시 박동을 시작했다. 정확히 5초만에 락하산이 펴진것이다.

정산은 머리를 잔뜩 젖히고 우를 올려다보았다. 어둠속일망정 산가운데 뚫린 동그란 검은 구멍이 보인다. 그 구멍가운데서 한순간 반짝 별이 웃었다. 그렇다. 모든것이 정상이다. 산도 제모양대로 펴졌다. 이제 남은것은 무엇인가?… 비로소 예비산고리에 끼우고있던 한손을 빼며 산줄을 잡았다. 동시에 가슴속 가득히 들어차있던 돌덩이같이 무거운 숨을 후— 하고 길게 맘껏 내뿜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러나 여기 무시무시하리만큼 괴괴한 야공에서는 바람소리도 없다. 왜 여직껏 그것이 바람소리라고만 생각했던가? 차거운 먹물속같이 음산하고 숨가쁘고 무시무시한 적막, 멀고먼 허공에서 빛을 잃고있는 뭇별들이 힘없이 가물거릴뿐 동서남북도 가늠할수 없다. 오직 하나 별들만이 위안이다, 벗이다. 그렇지만 저 별빛도 이미 별은 사멸한지 오래고 그 빛만이 장구한 세월을 거쳐 비로소 지구에 도달한다는 그런것은 아닐가?… 어릴 때 광대한 우주와 태양계에 대한 책을 읽으며 느끼던 영원과 무변에 대한 막연하고 숨가쁜 공포심이 되살아났다.

실상 그는 아직도 가슴을 옥죄이는 공포심에서 다 헤여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를 불안케 한것은 아무리 눈밝혀보아야 먼저 내린 사람들의 산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였다. 캄캄한 야공에 홀로 외로이 떠있다면 그것 역시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때 구름속에 잠겨들었던 달이 나타났다. 드디여 정산은 자기의 발밑에서 희끗희끗 움직이는 하얀 버섯모양의 산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까마득한 심연의 시꺼먼 밑바닥에서 가느다란 댕기처럼 오불꼬불 늘어져 은빛으로 가물거리는 강을 보았다. 그들이 목표로 삼은 투지점은 바로 그 강기슭에 있다.

정산은 바람방향을 살펴보면서 오른쪽 산줄을 연신 당겼다. 인제는 목적지에 무사히 내릴수 있다. 강물우에 떨어지는 실수만 면하면 된다. 그는 불시로 치밀어오르는 기꺼운 마음을 억제할길 없어 헉— 하고 흐느끼였다.

어머니! 저는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있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사위는 온통 괴괴한데 이 가슴속엔 말로써는 다 전하지 못할 그런 기쁨이 한가득 들어차고있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아직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리지 못한 이 아들이 인제는 어엿한 정찰병으로 자라고있습니다!…

눈앞이 뿌예졌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정녕 보고싶던 그 모습이 환하게 안겨왔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어머니의 모습, 젊고 아름답고 생신하며 기쁨에 넘친 모습이다!…

어릴 때부터 정산은 체소하고 마음이 여린 어머니를 마음속깊

이 동정하고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 병에 시달리고 마음속 고통에 짓눌리며 수심에 잠겨 살아온 한 녀인에 대한 눈물의 사랑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산후탈때문에 오랜 세월 시달려왔었다. 정산이를 낳은 후부터 줄곧 시름시름 앓으며 추서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정산이 6살나던해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들어갔다. 금속재료연구사였던 아버지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과학기술적담보가 불충분한 무슨 플라즈마에 의한 T강이온질화법인가 하는 실험을 몰래 벌려놓았다가 대화재를 일으켜 인명피해와 함께 국가에 막대한 물적손실을 끼쳤다는것이다.

이 사건은 병약한 어머니를 뒤흔들어놓았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서서히 웃음이 사라져갔다. 그렇지만 어린 정산이를 남못지 않게 키우느라 말없이 이를 악물고 일하였다. 정산은 어릴 때부터 이 침묵의 애정에 습관되여있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사이에서는 침묵이 말보다도 많은것을 이야기하는 법이다. 그도 어머니처럼 침묵을 즐겼다. 밤이면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던가 무슨 일감을 놓고 앉아있었고 정산은 책상앞에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다. 한번도 소리내여 읽은적은 없다. 가끔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물끄러미 자기를 지켜보는것을 느끼군했다. 조용히 그리고 자기 할 일도 잊은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는것이였다.

정산이 마주앉은 책상쪽 벽에 낡은 거울이 걸려있었는데 그는 이따금 그 거울에 비쳐진 어머니의 얼굴을 놀라서 바라보군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모르는줄 알고 눈물이 그렁해서 그의 뒤모습을 조용히, 꿈을 꾸듯 바라보는것이였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 아들의 장래에 대한 꿈, 남편과 더불어 그 아들의 훌륭한 래일을 축복하는 꿈이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정산에게 아버지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것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거짓을 모르고 대바르고 불길같이 격한 성미인데 결코 남들이 말하는것처럼 공명주의자이거나 출세주의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왜 그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이

에 대한 답을 어머니는 주지 못했다. 어린 정산이 캐여물으면 어머니는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말없이 머리만 가로저을뿐이였다. 정산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프게 허빈다는것을 알고 더 이상 캐여물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해가 지난후 아버지가 나왔다. 그때는 이미 정산이 중학교에 다니고있었다. 그 시절 정산의 눈에 비쳐진 아버지는 말이 적고 메마르고 무섭게 고집이 센 전혀 낯모를 사람이였고 술주정뱅이였다. 이따금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 깊도록 우두커니 앉아 써래기담배연기로 방안을 꽉 채우기도 했다. 그럴 때의 아버지는 고독하고 골병이 든 한 늙은이에 불과했으나 술만 들어가면 달라졌다. 아무에게나 트집을 걸고 울화증을 터뜨리며 분별없이 누군가와 대거리로 싸움을 벌릴 기상이였다. 보다 못해 어머니가 제발 인제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전에처럼 집에 들어와 책을 보던지 무슨 연구라도 하면 좋지 않는가고 하면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게 부끄럽지도 않는가고 울며불며 했다.

그날밤 일을 정산은 지금도 잊을수 없다.

《뭐 책이라구? 연구라구?!》 하고 아버지는 험악해진 표정으로 울부짖었다. 《그게 나하구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걸 해선 뭣한단 말이야, 엉?!…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은 그 일에 또 손을 디밀라구? 에익, 신물이 난다!》

아버지는 상을 들부시다 못해 자기를 말리려드는 어머니를 힘껏 떠박질렀는데 그만 병약한 어머니를 문설주에 세게 부딪치게 했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쓰러져서 아픔에 겨워, 설음에 겨워 방바닥을 허비며 울고울었다. 남모르는 근심과 눈물과 한숨 속에 정산을 키워온, 애오라지 정산의 래일을 위해 모든것을 참고 살아온 어머니가 신음하는것을 본 정산은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찢는듯한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격렬한 증오를 느꼈다. 그는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얘져서 아버지를 막아서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버진 뭐예요? 왜 우릴 찾아와 행패질을 하는거예요. 예? 누가 오래서 왔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잠시 멍하니 서있었으나 취기가 뻗쳐 금시 아

들을 후려갈길듯 한손을 버쩍 쳐들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하고 정산이 또 부르짖었다.

《우린 아버지가 필요없어요. 나가요!》

쳐들었던 아버지의 손이 굳어져버렸다. 이윽고 풀어진 눈동자로 아들을 여겨보면서 무어라고 중얼거리더니 험한 손바닥으로 정산의 머리를 잡아흔들고는 어데론가 나가버렸다.

그날밤 비가 내렸다. 마가을의 찬비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밤은 지리하게 깊어갔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운채 온밤 비소리에 몸을 떨며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혹시나 아버지의 발자욱소리라도 들릴가 해서 그러는것 같았다.

정산은 문고리를 걸었다. 부엌문도 안방문도 웃방문까지 죄다 꽁꽁 비끄러맸다. 그것을 본 어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다.

《그럼 안돼. 정산아, 아버진…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그러나 정산은 그날밤으로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결별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온 정산이였고 아버지의 과거를 저주하고 오늘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정산이여서 아까울것도 애석할것도 마음에 꺼릴것도 없었다. 하여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는 결연히 말했다.

《난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어요!》

그때 어머니는 한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짓고있었는데 그것은 가슴속 쓰라린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숨가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것 같았다. 아픔이 많았던 어머니, 하여 정산은 언제나 병약한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를, 기쁨과 웃음을 주고싶어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군대에 나와서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다. 군인선서를 하던 때의 감격을 써보내고는 별로 이렇다할 자랑거리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세상에 다시 태여난것과 다름없다. 오늘은 림정산이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다. 어머니를 부르며 가슴속에 차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맘껏, 목청껏 웨치고싶다.

어머니! 저는 다시 태여났습니다. 인제는 하나도 두려운것이 없습니다. 가슴이 넓어지고 심장도 커졌습니다.

어머니! 캄캄한 이 하늘을 나는 사랑합니다. 끝없이 높은 이 하늘, 바람소리조차 없는 이 하늘을 사랑합니다. 별들이 웃는 이 하늘

을 사랑합니다. 어제까지 무서워하던 이 하늘, 하늘만큼 높아지는 이 마음을 자랑합니다. 아아,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의 참된 병사로 자라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우줄우줄 파도쳐간 검은 산봉우리들이 내려다보였다. 발밑에서 은빛으로 번들거리는 강물이 점차 마주 일어서며 하늘에서 내리는 전사를 얼싸안을듯 곧추, 재빨리 눈앞으로 육박해오고있었다.

20

드디여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 핵전쟁연습의 전략적기동을 끝냈다. 무려 한달동안이나 걸려 적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핵전략폭격기 《비－1비》와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을 비롯한 천여대의 전투폭격기, 수송기, 정찰기, 습격기들을 끌어들였고 동서해의 중요해상에는 각종 핵동력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프리케트함 등 200여척의 대소함선들을 띄워놓았다. 지상에는 또 수천대의 땅크와 장갑차, 자행포들이 목표를 겨누어 시꺼먼 아구리를 벌리고있었고 20여만에 달하는 침략군이 전개되였다.

래일이면 《팀 스피리트 93》 핵전쟁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간다. 래일이면 천여대의 비행기가 미친듯 하늘을 썰며 앙칼진 폭음을 울릴것이며 바다에서는 대규모상륙작전이, 지상에서는 전면적인 공격작전이 벌어질것이다.

래일!…

남쪽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시에 《팀 스피리트 93》의 포문을 열 그 시각까지는 불과 몇시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 평양의 대도로들에서는 어제나 다름없이 수많은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있었다. 궤도전차, 뻐스, 랭동차, 택시, 소형짐차, 콩우유차, 무궤도전차, 각종 승용차들… 그 흐름속에 조선인민군후방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해주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타고계신 승용차도 있었다. 뒤따르는 차엔 총참모장 최광이 앉아있었다.

승용차들은 발동소리도 고르로이 거리를 돌며 미끄러져갔다. 밤중이여서 네거리의 자동신호등불빛이 빨갛고 파란 불덩이들을 던지며 현란하게 어룽거렸다. 그러나 수도의 아름다운 밤거리풍경에도 불구하고 시창밖을 내다보는 최광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이제 곧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작전모임을 가지게 되여있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가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군사전략적과업을 최종확정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비록 승용차에 앉아 수도의 거리를 돌고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줄곧 작전실에 가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수도의 중심부를 누비며 차를 달리고계신다.

웬일일가?… 전쟁이 다가왔는데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10만 장병들의 소환문제도 아직 결론을 주시지 않고있다. 래일이면 적들이 핵전쟁연습의 포성을 터치겠는데 의연히 우리의 10만 장병들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 남아있다.… 금빛을 번쩍이는 그의 차수모자밑에서 굵고 더부룩한 검은 눈섭이 우로 쳐들리고있었다. 웬일일가,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계실가?…

그 시각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고계시였다. 전쟁!… 누군가 말하기를 《세계의 력사는 전쟁의 력사이다.》라고 했다. 인간이 인간을 예속시키고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자기를 지키고 남을 압도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는수 없이 말려들었는가 하면 그것을 기꺼이 맞받아나가기도 하였다. 단말마의 발악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쟁을 맞받아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준엄한 국면에 있다. 인제는 전쟁을 결심해야 할 때가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거리들을 묵묵히 내다보며 무거운 생각을 이으시였다.

전쟁은 무엇보다먼저 대량살륙과 모든것을 황페화하는 무서운 파괴를 가져온다. 더우기 현대전쟁은 고도기술무기에 의한 미증

유의 참담한 파괴와 살륙을 가져올것이다. 그러면 수도의 이 거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자 불현듯 오래전 일이, 흘러간 먼 시절에 겪었던 가슴아픈 하나의 정경이 피뜩 떠오르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어느날 바로 이 길로 차를 달렸었다. 도중 적기들의 폭격에 맞다드시였다. 도처에서 무시무시한 폭음이 울리고 3층 벽돌집이 통짜로 무너져내렸다. 전보대가 나가넘어지고 시꺼먼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가운데 우체통이 굴러갔다. 급히 차를 대피시켰다.

그때였다. 그 무서운 혼잡속에서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울려왔다. 화염과 먼지구름을 뚫고 울려나온 발버둥치는 울음소리… 그이께서는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곳으로 달려가시였다.

반나마 무너진 어느 집 담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길가에 쓰러진 한 녀인을 발견하신것이였다. 그 죽은 녀인의 잔등에 업혀 울고있는것은 젖먹이 어린애였다. 고사리같은 주먹을 쳐들고 바들바들 떨며 애처롭게 몸부림쳐 울어대고있었다.

그이께서 죽은 녀인의 잔등에 띠개로 동인 젖먹이를 끄르시려는데 한 늙은이가 달려와 어린것을 받아안았다. 허연 구레나룻을 기른 늙은이였다. 그 늙은이의 주름깊은 두볼로 초물같이 진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이걸 어쩌문 좋소. 에？… 이 일을 어찌하란 말이요？！…》

그것은 어떤 눈물이였던가？… 그 늙은이의 두볼을 타고흐르던 진한 눈물을 상기하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저미는듯한 아픔을 참고 견디기 어려우시였다.

전후 어려운 시기 그이께서는 이 거리를 지나 학교로 가시였다. 무너진 벽돌담, 형체없이 불타버린 집터, 재가루 날리는 길 아닌 길… 하지만 그 모든 페허와 아픔의 상처를 가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떨쳐나섰다. 그이께서는 수도의 전체 소년들에게 전후복구건설을 돕기 위해 벽돌수집운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수업이 끝나면 페허를 헤치며 벽돌을 모아 건설장으로 밀차를 밀고가군하시였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떠세운 학교와 병원, 주택들이였다. 이

거리의 모든 길과 주택들,극장과 영화관들이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귀중한 창조물들을 다시금 무참히 파괴해버리려 하고있다.

돌연 어데선가 고동소리가 울려왔다. 새되고 날카로운 소리도 있고 우렁차게 호소하듯 웨치는 고동소리도 있다.

《불을 끄오!》

그이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운전사가 불을 껐다. 매해 적들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온 나라가 반항공훈련에 들어가는것이다.

아빠트마다에서 차광막을 내리는가 하면 서둘러 불을 끄기 시작했다. 오가는 차들도 일시에 전조등을 껐다. 교통안전원이 쳐든 지휘봉이 빨간 불꼬리를 끌면서 춤추듯 움직였다. 어데선가 방송차가 돌면서 불빛이 새여나오거나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집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시에 눈을 감아버린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나는것을 느끼시였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항시 마음편히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가. 어찌하여 수십년간이나 창가에서 차광막을 벗기지 못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저 행복의 창문들에서 유리 한장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조국의 귀중한 모든 창조물들을 무참히 파괴하도록 내맡길수는 없다. 강권에 대한 유일한 방책은 오직 굴함없는 그리고 무자비한 투쟁뿐이다. 생사를 건 이 싸움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줄수 없다.

승용차가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가까이 하자 그이께서는 통일거리 건설장쪽으로 그냥 달리라고 하시였다. 한시바삐 최고사령부작전실로 가셔야 하겠으나 오늘따라 불꽃 날리는 건설장을 보고싶으시였다. 그리하여 차는 속도를 높여 체육관앞도로를 질주해가기 시작했다. 뒤차에 타고있는 최광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뒤따르기만 했다.

승용차는 어느덧 충성의 다리를 지나고있었다. 얼핏얼핏 란간들이 마주와서는 소리없이 뒤로 물러나군하였다. 그 란간너머에서는 눈석이때의 차디찬 강물이 흐르고있다. 시꺼먼 어둠속에서 유

유히 흐르는 물결, 한때 히틀러는 거의 병적으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침수시켜버리고싶어했다. 1차대전때 바바리야 제16보병련대 병사로 벨지끄전선에 나갔다가 영국군의 이쁘리트독가스공격으로 히스테리성 실명증에 걸린 때부터 어인 일인지 찬물에 빠지는것을 제일 싫어하고 끔찍이도 무서워했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미워하는것은 다 물에 처박겠다고 을러메군했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호전광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로 조선을 불태워 쓸어버리겠다고 고아대고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은 핵참화의 위협을 받고있는것인가. 미제가 우리 나라에서 핵무기사용을 시도한것만 해도 벌써 몇차례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마전 일본출판물에 공개된 자료를 상기하시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시기 미국이 세계의 열점들에서 핵무기사용을 시도한것이 모두 열한번인데 그중 우리 나라를 직접 목표로 한것이 4차례나 된다.

처음 맥아더와 대통령 트루맨이 1951년 조선전선에서의 대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도를 공식 표명하였고 그후 1953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4개월만에 오끼나와에 처음 핵무기를 배비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전선에서 사용할것을 시도하였다. 그후 1968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때 죤슨이, 1969년 미국고공정찰기 《이씨－121》이 격추되였을 때 닉슨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사용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것은 외국출판물에 실린 자료로서 판문점사건때 미국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것 등은 루락되여있다. 그러나 이상 자료만 놓고서도 미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압살하려 광분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러한 핵전쟁의 위험이 인제는 현실적인것으로 눈앞에 왔다. 적들이 전쟁을 강요하고있다. 한번은 반드시 결사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각오해온 우리들이니 인제는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할 때가 되였다!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공격에 있다. 공격의 기회를 놓치면 실패를 면하지 못한다. 빠리콤뮨의 피의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들의 오유는 빠리에서의 폭동의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베르사이

유에 대한 결정적공격을 단행할 대신 우물쭈물하다가 중도에서 머물러버린데 있다. 그리하여 베르사이유정부로 하여금 반동세력을 규합하고 류혈적인 보복을 준비할 시간적여유를 주었던것이다. 그러므로 공격은 끝까지 철저히 진행되여야 한다. 정황이 불리할수록 공격해야 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수세에 빠질수록 과감하게 맞받아나가 역전시켜야 한다. 사상에서도 공격을 해야 하며 정치와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국, 전군, 전민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고 총력을 모아 번개불처럼 던져야 한다!…

승용차는 불빛 한점 없는 통일거리 건설장 한가운데를 꿰지르고있었다. 축포처럼 흩날리던 용접의 불보라도 없다. 하지만 어둠속에서도 건설전투는 계속되고있다. 골재를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불도 없이 달리고있다.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긴팔을 움직이고있는 기중기도 보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책임부관이 나서며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괜찮소.》 하시며 나지막한 둔덕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20층이상 됨즉한 건물이 멀지 않은곳에서 하늘을 떠받고있었다. 호각소리, 웨침소리, 와릉거리는 혼합기소리가 그쪽에서 들려왔다. 건설자들은 어둠속에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그때 처녀들 셋이 가늘고 긴 구형강비슷한것을 메고 가까이로 지나가고있었다. 하나같이 솜옷을 입고 두툼한 목도리로 목과 머리를 휘감고 커다란 솜신을 신고있어 마치 장난꾸러기아이들같은 모습이였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가까이 서계시며 자기들을 지켜보고계시는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휘친휘친하는 구형강을 앞뒤와 중간에서 함께 메고 둔덕진곳으로 오르고있었다. 맨앞의 처녀가 고개도 돌리지 못한채 뒤에 대고 소리쳤다.

《얘들아, 또 장난질이야. 이거야 너무 흔들거려서 어디 걸을수 있니?》

《누가 흔든다구 그러니.》 가운데 처녀의 말이였다. 《저절로 춤을 추는구나 얘!》

맨뒤의 처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춤을 추면 좋지 뭘 그래, 우리도 가면서 춤을 추자꾸나.》
《애, 애, 까불지 말아.》
《그러게 률동을 맞추란말야. 그래야 힘들지 않아!》
그러나 둔덕진 길이 좀 미끄러웠던 모양으로 앞의 처녀가 미츠러들자 뒤따르던 두 처녀도 아부재기를 지르며 비칠거렸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쪽으로 다가가며 물으시였다.
《이건 뭣하러 날라가오?》
누군가 쟁쟁한 목소리로 웨쳤다.
《발대를 매려구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야 남동무들한테 부탁해야지.》
처녀들이 웃어댔다.
《우린 녀성소대입니다!》
《돌격대요?》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땅에 끌릴듯 휘친거리는 구형강 맨뒤끝을 들어주시였다. 어느새 책임부관이 달려왔지만 한손으로 그를 막으시였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처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자, 뒤에서 밀어줄테니 힘을 내오.》
《고맙습니다.》
처녀들이 소리쳤다.
《그래 동무들은 여기서 일한지 오래되오?》
《1년반 넘었습니다.》
《어데서 왔소?》
《자강도 희천에서 왔습니다.》
《오- 먼데서 왔구만… 자, 조심하오. 미끄러지지 말구… 그래 통일거리건설이 끝나면 또 어데로 가오?》
《모르겠습니다.》
맨앞에서 가는 처녀의 말이였다. 그러자 가운데 처녀가 《애, 왜 모른다구 그러니?》 하고 따지고들었다.
《그럼 넌 아니?》
《아이구머니나! 너 어제 궐기모임때 토론하지 않았니. 우린

언제나 당이 부르는 제일 어려운곳으로 간다구말이야.》

앞뒤의 처녀들이 《그래그래!》 하면서 웃어댔다. 그리고는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셋이 다 목청을 합쳤다.

《예, 당이 부르는곳으로 갑니다!》

어느새 둔덕진 길을 다 올랐다.

《자, 그럼 동무들 수고하오!》

처녀들이 일시에 고개를 돌려보며 웨쳤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처녀들은 끝내 자기들을 도와주신분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라는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느낌때문이였던지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그들이 어둠속에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계시였다.

가슴이 후더워오는것을 느끼시였다. 그 처녀들의 맑고 쟁쟁한 웨침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으시였다.

《당이 부르는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대답이다. 물속도 불속도 가림없이 뛰여들 충성의 마음이 저 애되고 소박한 처녀들의 심장속에도 새겨져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사로청 제8차대회에서 전체 참가자들이 다지던 충성의 선서를 상기하시였다. 그때 대회참가자들은 500만 전국청년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당을 옹위하는 500만의 총폭탄이 될것을 맹세드렸다. 그들은 바로 이름도 낮도 익히지 못한 저 소박한 처녀들의 마음속 맹세까지 다 합쳐 선서를 하였던것이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다시 차에 오르시였다. 불도 없이 오고가는 차들이 많아서 책임부관은 시창유리에 이마를 맞대일 정도로 눈밝혀 앞을 살피며 연신 운전사에게 주의를 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로를 따라 세운 대형구호를 내다보시였다. 어둠속일망정 대문짝만한 글자들을 세워놓은 그 구호를 쉽게 알

아보실수 있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저 구호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스스로가 내건 것이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먼저 열떤 토론과 맹세문에서 웨치던 것이 그대로 건설의 대기념비들에 새겨졌다. 인제는 온 나라 그 어데 가나 저 구호를 볼수 있다. 방금 돌격대처녀들이 노래처럼 웨쳐 부르던 그 마음이 그대로 새겨진것이다.

어느덧 승용차는 강안도로를 꿰질러 달리고있었다. 등화관제 훈련이 끝난듯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고 뒤미처 아빠트의 창문들이 서둘러 불을 켜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이께서는 해제의 고동소리를 들으시였다.

삽시에 온 거리가 번쩍번쩍 경쟁적으로 껌벅거리며 눈을 뜨고 있다. 하나의 구령에 맞추어 수도 전체가 불야성을 이룬다.

《속도를 높이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드디여 승용차는 옥류교를 건넜다. 바람같은 속도로 천리마동상밑으로 질주해가자 이번엔 개선문의 웅자가 단숨에 커지며 서둘러 마주왔다. 뒤에서는 총참모장의 승용차가 계속 속도를 맞추며 뒤따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그를 찾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최광은 곧 대답올렸다.

《전번에 말씀드린 10만 장병 소환문제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10만 장병말입니까?》

《예,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10만 장병들이 다 공병을 비롯한 기술전문병들이므로 전쟁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그들을 소환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이께서는 총참모장이 마음 조급해하는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전쟁에 투입할 력량이 왜 10만뿐이겠는가!…

《갑시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작전실에 가서 토론합시다.》

×

최고사령부 작전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참모장과 작전국장 등 최고사령부 작전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계시였다. 종전과 다른것이 있다면 지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자리를 비우고있는 그것이다. 이밖의 모든것은 얼마전 적들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성격과 그의 숨은 기도에 대하여 분석하던 때와 꼭 같았다. 지도도 그 지도였고 사판과 영사막도 통신설비들도 본래의 그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불과 보름가까이 흘렀지만 정세발전은 급변하였고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었다.

작전국장이 종전과 같이 한쪽 벽면을 거의나 채운 대형지도앞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맨처음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적들의 병력과 무장장비, 집결처와 배비된 지역 및 부대명들을 상세히 렬거하고나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리챠드 맥키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리스카씨가 미합동참모본부에 불려가 〈특별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리스카씨의 움직임인데 이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관리할뿐만아니라 괴뢰군의 통수권을 쥐고있고 합동군사연습을 직접 주관하고있는 미국의 현지사령관으로서 최근 15일동안에만도 최전연지대의 미군과 괴뢰군 전초기지들을 직접 돌아보며 수차례의 비밀모의를 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련의 일선부대들과 특공대들의 배비변경이 진행되였는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미군과 괴뢰군의 전방배치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주목되는것은 괌도에서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의 장거리기습폭격훈련이 〈팀〉의 실동날자보다 앞서 진행되고있는 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녕변지구에 대한 기습공격을 준비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실에 비추어 저희들은 〈팀〉연습이 3월 8일부터 실동단계에 들어가는것만큼 적들의 도발적인 녕변기습공격이 3월 세번째주 토요일경에 감행

될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처음으로 약간 몸을 움직이며 물으시였다.

《그 근거는?》

《예, 그 근거는 첫째, 그동안이면 〈팀〉연습에 동원된 20만 병력의 전략적인 기동전개가 끝나며 둘째, 그동안 적들이 이번 〈팀〉연습에서 제일 중시하고있는 지휘참모연습이 일단락짓게 되는 그것입니다. 즉 지휘참모연습을 통하여 미군과 괴뢰군 그리고 각 군종, 병종 부대들의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완비되기때문입니다.》

그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그이께서 최광에게로 머리를 돌리시였다.

《어떻습니까?… 물론 총참모장동무도 같은 생각이겠지요?》

최광은 곧 대답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고 그 무슨 최후통첩처럼 3월 25일이라는 기한부까지 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류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3월 세번째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적들의 녕변기습공격 즉 전면적인 전쟁도발이 있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음- 옳은 분석입니다.》 그이께서는 탁자우에 대고 손바닥끝을 가볍게 두드리시였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의 전쟁도발음모를 단순한 작전전술적견지에서뿐만아니라 미국의, 특히 현행정부의 정치군사적전략의 견지에서도 분석하여야 합니다. 최근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국가안전전략보고와 국방장관의 국방보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국가군사전략보고들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군사적개입 또는 전쟁의 준칙을 여섯가지로 나누고있습니다. 그 첫째로 미국은 지역적충돌위기때, 정치적 및 외교적 수단으로써는 효과가 없을 경우에 무력을 사용한다는것이고, 둘째는 작은것을 잃고 큰것을 얻을 때, 셋째로 미국의 리익이 침해당한다는 근거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것, 넷째는 국제적협조를 최대한 모색한다는것이며, 다섯째는 달성할수 있는 군사적목적을 이룩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즉 기한

이 명백하고 군사적목적이 미국의 총적인 정치목표와 일치할 때 전쟁에 뛰여든다는것이요. 여섯째는 일단 군사행동이 예정기일을 초과하거나 사상자수가 예견한 수자보다 많을 때 즉시 군사적개입을 중지하고 철수한다는것입니다.》

그이의 음성은 조용하였으나 저력있게 울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긴장한 눈빛으로 그린듯 서있는 작전조 지휘성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시였다.

《그러면 그들의 여섯가지 전쟁준칙으로 조선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우선 첫째, 정치적 및 외교적 수단으로써는 불가능할 때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견지에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녕변폭격설〉을 내돌리고있고 둘째, 작은것을 잃고 큰것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광분해온것만큼 그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를 압살할수만 있다면 거기에 바쳐진 모든것이 그들에게는 다 작은것으로 될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셋째와 넷째,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제적협조를 모색한다는 점을 봅시다. 여기서도 그들은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부쉬정권때부터 미국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집요하게 내돌렸고 드디여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 그 무슨 〈결의〉를 채택케 함으로써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저들의 전쟁책동의 명분을 세워놓았던것입니다.

다섯째는 기한이 명백하고 승리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는데 지금 만전쟁을 통하여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자기 힘을 과신하던 나머지 거의 무분별해지고있습니다.

보시오, 이렇게 적들은 전쟁을 도발할 국제적환경과 충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다 갖추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국대통령들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시도해왔지만 이처럼 제반 조건이 성숙된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겠는가. 아마 클린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지도앞으로 걸음을 옮

기시였다. 근엄한 안색으로 조국의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하시였다.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평화를 바라며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 우리의 피와 땀이 스민 그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떠세운 우리 조국을, 우리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자랑한다. 하거늘 누가 전쟁을 바라겠는가, 누가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조국이 무참히 파괴되고 황폐화되는것을 바라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그 누가 선사해주는것도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우리 인민은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울것이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이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계시였다. 방금전에 만나보신 그 수수한 돌격대처녀들이 그렇게 소리높이 웨치지 않았던가. 그 처녀들이 노래처럼 웨치던 대답, 그 대답이 그대로 씌여져있는듯 여겨지시던 대형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러자 인민군전사들의 모습도 떠오르신다. 무너진 수로뚝을 밤새워 고쳐쌓던 윤철소대장과 그의 대원들, 전사 림정산, 그 전사는 끝내 강하훈련에 성공했다고 한다. 하늘을 무서워하던 전사가 단 보름만에 성공하였다. 오영범도 새로운 전격적방안을 짰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농촌마을의 이름없는 로병들, 망망대해우에서 적들과 맞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무역선 《무포》호의 선원들,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천천히, 사색깊이 나직이, 그러나 불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 전쟁을 합시다. 전쟁을!》

듣는 사람들의 온몸을 뒤흔드는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는 저력있는 음성, 순간 모든것이 정지되였다. 시간의 흐름도 피의 흐름도 다 멎어버린듯했다. 귀가 멍멍해진것 같은 한순간이 지나가자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거센 숨결이, 세찬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전쟁이다! 드디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쟁을 결심하시였다!… 이것은 최광이 바라던것이였다. 적들의 무모한 전

쟁도발책동에 맞다들 때마다 백번천번 더 결전의 명령을 바라던 그였다. 그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모두가 바라던것이였다. 수령님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같은 맹세를 다져온 전쟁로병들이 기다려온것이였다.

이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시겠는가?… 최광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이를 우러러,여전히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가슴을 활 펴고있었다.

지금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총력을 모아 적들과 맞서싸울 결심이시였다. 그이께서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이 전쟁에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총궐기시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들과 맞서싸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즉시 전국,전민,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거의 일시에 《준전시상태 선포!》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최광의 두눈에서 광채가 번뜩이였다. 작전국장은 금시 그이의 말씀을 복창하려는듯 부동의 자세로 입귀를 실룩거리고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들의 《팀 스피리트》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전투동원태세》,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하군했다. 그러나 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려 하신다. 그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과 무장력에는 전쟁동원상태를,적들에게는 사소한 도발에도 즉시 전쟁으로 대답한다는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것으로 된다.

벅찬 흥분에 사로잡힌 최광과 기타 지휘성원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벌써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선포될 그 명령의 구절구절을 마음속으로 새겨보고계시였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끝끝내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

적들이 수십만의 대병력과 대량살륙무기들을 투입하여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고 하여 놀랄 조선인민이 아니며 전쟁이 두려워 물러설 우리 군대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일제의 100만관동군을 물리치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15개 추종국가군대를 타승한 영웅적조선인민과 일당백의 인민군대가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힘과 군대와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이 있다. …》

이 명령은 그대로 준엄한 전쟁을 결심하신 그이의 강철같은 의지의 선포로 될것이다. 이제 래일이면 온 세계가 그이의 이 결심을, 조선의 결심을 듣게 될것이다. …

제 2 편

1

모든 충격적인 소식은 언제나 전혀 뜻밖에 불쑥 날아드는법이다. 클린톤은 대통령전용비행기안에서 에이피통신자료를 읽고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통령개인보좌관 데이비드가 앉아있었는데 그는 클린톤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손에 든 종이장을 벌컥벌컥 번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는듯 한 눈길로 맞은편 기실벽쪽의 쏘파에서 차대를 마주하고 앉아 한담을 하고있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을 물끄러미 쳐다보고있었다. 그는 이전 닉슨대통령때에는 연설집필조그루빠의 책임자로, 레간대통령때에는 보도국장으로 일한바 있어 대통령을 자극하는 통신, 보도들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있는데 지금 클린톤이 흥분하고있는 리유는 도무지 짐작할수 없다는 표정이였다.

클린톤과 그의 수행원들은 로스안젤스에서 진행된 은행총재들의 1993년도 투자 및 통화거래회의에 참가하고 오는 길이였다. 말하자면 미국경제를 재건하겠다는 클린톤의 선거공약이 실질적인 제일보를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오는 셈이였으므로 응당 클린톤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과 더불어 국내경제문제와 초미의 로씨야에 대한 투자문제 등을 의논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클린톤은 비행도중에 받은 긴급전보에 정신이 팔려 다른 이외의것은 감감 잊고있었다.

—3월 8일 에이피통신—

공산북조선은 오늘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전군, 전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지금까지는 《팀》연습과 관련하여 《전투동원태세》 혹은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하던 이 강경한 공산국가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것은 1983년 이래 처음이다. 이것은 분

명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한계단 더 높은 군사적대응이다.

계속하여 통신은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전문을 인용하였다. 클린톤이 눈밝혀 살피며 그 리면의 숨은 의도까지 타진해보려고 애쓴것은 그 명령의 구절구절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다.》

클린톤은 다시 처음부터 통신을 훑어보다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라는 문구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흥분할 때 흔히 있는 현상으로 그의 왼쪽눈섭이 바르르 떨리였다. 어떤 기이한 느낌이 그의 마음을 자극하였다. 그 역시 미군최고사령관이다. 《팀 스피리트》연습을 명령하고 극비밀리에 《포커스작전》을 추진시키고있는것은 클린톤이고 지금 이에 대응하여 강경한 자세로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있는것은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이다. 그는 그 구절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았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것이다.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한포기의 풀도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는 어쩐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영웅조선》 등의 문구들을 찾아 바로 거기에 숨겨져있는 비밀의 의미를 새겨보려고 애썼다. 이러한 날말들이 뜻하는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명령전문에 관통되고있는 엄중한 경고는 무엇을 암시하는것인가?…

(이것은 반발이며 도전이다!) 하고 그는 자근자근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였다. (아니, 그들은 감히 미국을 위협하고있다. 이 돌발적인 준전시상태 선포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것이다!)

그는 개인보좌관 데이비드에게 즉시 워싱톤의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과 련계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긴급의제를 토의할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라는것이였다.

사실 클린톤은 군사작전문제들에 들어가서는 국방성의 관리들보다 합동참모본부장령들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였다. 그것은 국방성이 륙해공군의 3부를 총관할하는 최고군사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3군의 작전과 전술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속의 최고군사통수기관으로서 그곳의 장령들이야말로 직업적인 군인들이며 작전적두뇌진이기때문이다.

데이비드가 물었다.

《비행기는 이제 15분후 워싱톤에 도착합니다. 그들을 몇시까지 어데로 부르랍니까?》

클린톤은 시계를 보았다. 18시 45분이다. 그러자 문득 힐라리가 《저녁에 고어부부를 만찬에 초대했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하고 당부하던것이 생각났다. 힐라리는 오늘저녁 자기들의 결혼기념일을 그대로 지날수 없다면서 여러모로 타산해본끝에 제일 가깝게 지내는 부대통령부부만을 청하기로 했던것이다.

클린톤은 재빨리 생각을 굴리고나서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들에게 8시까지 내가 국방성작전보고실에 간다고 말해주시오.》

클린톤이 백악관에 들어선후 곧 부대통령 앨버트 고어부부도 나타났다. 그들부부는 둘 다 키가 큰 사람들이였다. 웰남전쟁때 종군기자로 활약하였고 그후 여러 대학들에서 법학을 전공한 고어는 클

린톤보다도 두살아래이나 벌써 16년동안이나 국회에서 사업한 풍부한 정치경력을 가지고있었다. 그가 쓴 저서 《지구의 균형, 생태학과 인간의 정신》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책으로, 세계적인 작품으로까지 인정되고있다.

《부인.》 하고 고어가 힐라리와 인사를 나누며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처럼 저희들을 초대하였습니까?》

《결혼기념일이예요.》 하고 힐라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어머!》 하고 고어의 부인 티퍼가 입을 딱 벌리며 놀라와했다. 《그런걸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고어도 나무람했다.

《정말 이건 너무하군요. 대통령부부의 결혼기념일에 아무 선물도 없이 오게 하다니.》

힐라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열아홉돐이여서 무슨 혼식이라는 이름도 없으니까요. 래년 스무돐이 되는 날엔 미리 알려드릴테니 도자기꽃병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세요.》

그들은 유쾌하게 웃어댔다. 최근 미국에서 류행되는데 의하면 종래의 결혼기념일 다섯돐(나무), 열다섯돐(동), 스물다섯돐(은), 쉰돐(금), 예순돐(다이야몬드)외에 새로 한돐(종이), 열돐(석), 스무돐(도자기) 기념일이 더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각하는 어쩐지 기분이 썩 좋아보이질 않는군요.》 고어의 말이였다. 《은행가들이 대통령각하의 기분을 잡쳐놓은게 아닙니까?》

클린톤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게 아니라 북조선이 신경을 건드려놓았소. 그래 당신과도 좀 이야기해볼가 하는데… 자, 갑시다.》

력대로 미국대통령들은 부대통령을 별로 상대하지 않고 경원시했으나 클린톤은 미행정부의 각료들중에서 자기와 같이 제일 젊은 앨버트 고어와 사업상면에서뿐만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는 그 어떤 문제도 부대통령과 먼저 의논하고 뜻을 같이한 뒤에야 정책으로, 행동으로 옮기군했다. 둘 다 남부출신

으로서 민주당내 대통령후보지명전에서는 격렬하게 다투었지만 승부가 나자 곧 어깨를 맞대고 미국의 정계를 떠메고나선것이다. 가족들간의 래왕도 잦아 부대통령의 세 아이들도 클린톤의 딸 첼시아와 아주 친해져서 누군가의 생일때에는 량쪽부모들까지도 다 모였었다.

그들은 2층에 있는 연회장으로 갔다. 고어부부는 좀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였다. 여느때같으면 1층에 있는 가족식당에 차리군했었는데 오늘따라 크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택했기때문이였다.

수많은 귀빈들이 앉을수 있는 커다란 원형식탁 한쪽에 갖가지 료리들이 차려져있었다. 고어가 좋아하는 비프스테이크와 쌘드위치,아스파라가스와 담황색의 크고 두툼한 카스테라,남새볶음이 있는가 하면 바베큐라는 메히꼬료리도 있었다. 호화롭다고는 할수 없으나 알뜰하게 차린 만찬식탁이였다.

남자접대원이 다가와 맥주와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그들은 먼저 대통령부부의 결혼 열아홉돐을 축하하여 잔들을 쨍었다. 구석쪽의 록음기에서 열정적인 탕고음악이 울려나왔다. 접대원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 미끄러지며 새 료리들을 계속 날라왔다.

클린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탕고이다.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나나를 넣은 쌘드위치이며 거품 이는 맥주와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실수 있다. 그러니만큼 응당 기분이 좋아야할 그였건만 지금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표정이였다. 포도주를 채운 두번째 잔을 손에 들고 빙빙 돌려보며 그는 갑자기 떠오른 시구절을 읊었다.

그 무엇도 너만 못하구나
오 그윽한 술잔이여
너는 나에게 부어주더라
희망과 젊음과 사랑을

클린톤이 입을 다물자 고어가 그 다음구절을 이었다.

너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더라

신과 같이 되게 하더라！

클린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도 보들레르를 좋아하오？》
《그저 대학시절에 좀… 외워봤지요.》
《그럼 됐소. 보들레르는 저 좋을대로 술에 취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린 시간을 아낍시다.》
클린톤은 손에 들고있던 잔을 놓았다. 그리고는 여전히 초조해하는 표정으로 재빨리 말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이 우리의 〈팀〉연습에 대응하여 오늘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소. 아마 오늘밤 미국의 모든 텔레비죤방송들이 그것으로 떠들썩할거요. 뭐 미국의 증대되는 압력에 드디여 북조선이 반발해나섰다고 하겠지. 하지만 이것이 과연 단순한 반발이겠는가？…내가 놀랍게 생각하는건 바로 그들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가 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공습했다면 몰라도 그저 년례행사처럼 벌려오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인데 왜 그처럼 신경을 쓰는가. 물론 〈팀〉연습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군사연습인것만은 사실이요. 나토의 군사연습도 이에는 대비가 안되오. 하지만 그것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소. 오늘 비로소 처음 시작된것도 아닌데 북조선의 이 견결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거요？ 혹시 그들이 우리의 숨은 기도를 알아차린건 아닐가. 그래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군사적명령을 선포한것은 아닐가？…》
그는 자기앞의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기웃하면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쩐지 석연치 않거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있고 무엇을 믿고있을가？…》
다들 입을 다물고있었다. 힐라리가 몇번이나 고어부부에게 료리를 권했으나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었다. 드디여 힐라리는 두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해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결혼기념일 만찬이에요！》 하고 하소하는듯하였다.
그러나 클린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보고있는것은 식

탁의 정면벽이였다. 거기에는 죤 아담스대통령의 명제가 금빛으로 새겨져있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 지은 이 백악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 기도였다.

《나는 이 집과 이 집의 후대들에게 복을 줄것을 하느님에게 빈다. 그러나 오로지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집의 주인으로 되기를 원한다.》

클린톤은 언젠가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톤의 초상화와 명제판도 이 집의 어느 한 벽에 걸려지기를 희망하고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하겠는가! 링컨의 방 그의 초상화밑에도 그가 한 유명한 말 《나는 모든 힘을 다해 내가 할줄 아는 일,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것이다.》라는것이 새겨져있다. 그러니 왜 그러한것을 희망하지 않겠는가. 빌 클린톤은 지금 세계 제1의,유일초대국의 대통령인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북조선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력사상의 위인들을 보면 누구나 다 권좌에 오르면 즉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의지력을 과시하고저 했다. 《철혈재상》으로 불리웠던 비스마르크나 프리드리히,히틀러 그리고 원폭투하를 명령한 트루맨 등은 물론 근래의 정치가들 역시 자기의 힘과 의지를 발휘할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아무 주저도 없이 아르헨띠나와의 포클랜드전쟁에 뛰여든 영국의 《철의 아씨》 태쳐부인,빠나마를 단숨에 삼켜버린 레간,아프가니스탄으로 진공한 브레쥬네브,만전쟁을 주도한 부쉬… 그들에게서 이것을 떼여놓으면 그들을 장식해주던 면류관은 빛을 잃을것이며 그들에 대한 기억도 즉시 사라져버릴것이다.

위인과 력사에 대한 클린톤의 견해는 바로 이러했다. 하기에 그는 지금 력사가 자기에게 《20세기의 트로이 함락》을 위임했다고 믿고있었다. 미국의 많은 선임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북조선정벌을 바로 빌 클린톤이 넘겨받은것이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겼던 그 일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북조선의 강력한 첫 반응이 그를 놀래웠고 허세가 아닌 그 힘찬 선언이 그를 불안케 하는것이였다.

그는 힐라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빌!》 하고 불러서야 생각에서 깨여났다. 때를 기다리고있었던듯 부대통령 고어가 입을 열어

비로소 끊어졌던 화제를 이었다.

《대통령각하, 어쨌든 우리는 세계최강국의 지위에 알맞는 단호한 립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이미 선택한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포커스작전》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클린톤이 자기의 말에 눈빛을 번쩍이는것을 보자 그도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기회는 성숙되고있습니다. 북조선의 강경한 반응은 우리에게 그들의 핵시설을 파괴할 구실과 권리를 더해주고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가 요구한 핵시설들을 공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전포고를 들이대는것은 우리가 바라마지 않던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각하, 나뽈레옹이 말하기를 〈적의 장수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다. 다만 한때에 너무 많은것을 생각하였을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례를 력대의 미국대통령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한때에 너무 많은것을 생각했기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군하였습니다. 상기해보십시오. 죤슨대통령은 〈푸에블로〉호사건, 닉슨대통령은 〈이씨－121〉비행기격추사건, 포드대통령은 〈판문점사건〉때 북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떠들고 실제로 무력을 끌어가기까지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결단이 필요한 마지막순간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였던것입니다. 그 결과 얻어진것이 무엇입니까. 동맹국들에 공산세계와 대처하는 미국의 신뢰감에 환멸을 주었을뿐이지요. 북조선때문에 미국은 련속 뒤통수를 얻어맞고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고어의 이 말은 클린톤의 마음에 들었다. 클린톤이 전례를 깨뜨리고 부대통령인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 그가 비록 이자리에 있는 사람들모두가 이미 생각해본 말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실상 이 세상에 새로운 사상이란 없다. 인류는 벌써 3천년전에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 모든 사상들을 새겨놓았다. 우리는 다만 낡은 사상의 파편들을 주어가지고 세월의 이끼를 벗겨내고 헝겊으로 닦아서는 마치 제것처럼 내흔들며 우쭐렁거리고있을뿐이

다. … 마침내 클린톤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옳소. 그래서 나는 이제 국방성작전보고실에서 〈포커스작전〉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생각이요.》

클린톤의 얼굴이 밝아지자 식탁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고어는 흑맥주를 청했고 클린톤은 연신 포도주를 마시고 쌘드위치를 집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티퍼가 혼자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처럼 작은 나라가 어쩌면 감히 미국과 맞서 땅땅 을러댈수 있을가?…》

고어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심리학전문가인 당신이 풀어보오.》

《지금 생각하는중이예요.》 하고 티퍼는 의연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그 나라도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을 끌고다니죠.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공약해왔어요. 왜 그랬을가요?》

고어가 설명했다.

《그거야 뻔하지 않소. 초대국인 미국의 명줄을 재미유태인들이 틀어쥐고있거든. 그들은 금융계의 중요산업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의 대다수를 거머쥐고있고 수많은 이름있는 과학연구기관들과 언론계를 지배하고있소. 말하자면 류통관계와 지적인 분야에서는 그들이 단연 압도적이란 말이요. 지어 그들은 입버릇처럼 맑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등 거성들의 이름을 꺼들면서 자기네 유태인들이 인류력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떠들고있소. 미국은 600만 재미유태인들의 지지가 없이는 발목을 잡히게 되오.》

《그러면》 하고 티퍼가 말했다. 《역시 작은 나라인 북조선은 어떤 힘을 배경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을가요? 제가 알고싶은건 그거예요.》

그러자 고어는 그들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는 클린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대통령각하, 사실 우린 이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적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비비씨방송이나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만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자기네 지부나 특파원을 두고있지만 유독 북조선에만 뚫고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들의 코앞에 있는 일본사람들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무서워할뿐이랍니다.》

《모르니까 무서워하는거요.》 클린톤이 말했다. 《알지 못하는것에는 언제나 신비적인 공포가 따르는법이니까.》

《아네요!》 힐라리가 끼여들었다. 《아무래도 오늘 만찬은 정치적인 료리로 배를 불리게 됐은즉 나도 한몫 끼우자요.》

힐라리는 밖에 나갔다가 얼마 안있어 자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우연히 영국국방부 작전분석연구실에서 발행한 이 책을 읽다가 흥미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냈어요. 북조선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가를 여기서 좀 엿볼수 있어요.》

힐라리는 미리 접어두었던곳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짐바브웨의 고요한 소도시 무라레에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신문사가 있다. 어느날 이 신문사의 한 녀기자는 중요한 소식을 입수하게 되였다. 그 녀성기자는 이곳 농업지구에서 오래동안 살아왔기때문에 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알고있었다. 얼마전 그는 북조선군사고문들이 로버트 지 무가베의 친솔부대로 될 제5려단을 훈련시키게 된다는 기사를 이 도시의 보잘것 없는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렇게 되자 이름도 없던 그 신문은 일약 전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가베는 대노하였다. 기사를 낸 녀성기자는 수도에 불리워가 심문을 받은후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로부터 2년후 친위 제5려단은 반동분자들을 진압소탕하는데서 무자비하였으며 커다란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무가베는 바로 이 친위 제5려단에 의거하여 국내의 소요를 평정하였으며 공고한 정치적지반을 닦게 되였다.》

힐라리는 책을 덮었다.

《들으신것처럼 그들은 불과 몇사람이 갔을뿐이예요. 신식미싸일을

가져다준것도 없고 비행기와 대포, 땅크를 들이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 훈련된 제5려단은 수십개의 다른 부대들을 합친것보다 더 위력했어요. 그리고 짐바브웨는 오늘도 아프리카중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의 하나로 남아있어요.》

힐라리의 말은 고어부부에게 심각한 인상을 준것 같았다. 그러나 클린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스쳐버리고말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것은 신심과 용기였지 고달픈 사색은 아니였다. 하여 그는 회의에서 결론을 지을 때 그러던것처럼 짐짓 위엄을 보이며 재빨리 말했다.

《자, 인젠 더 이상 북조선문제를 꺼들지 맙시다. 그들이야 선전포고를 하건말건 나는 그것을 무시해버릴 생각이요!》

×

국방성작전보고실에서는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 합동참모본부의장 샬리카슈빌리대장외 또 여러 장령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있었다.

작전보고실은 장방형의 드넓은 방으로서 네벽이 온통 지도와 대형형광막, 위성텔레비죤과 콤퓨터장치들로 꽉 차있었다. 방 한가운데 대통령과 그의 수행원들을 위한 회전의자가 적당히 놓여있었는데 레간대통령때부터 그의 취미에 따라 대통령의 의자는 반쯤 누워서도 볼수 있게 특별히 제작된것을 놓았다. 클린톤은 의자에 앉으면서 레간대통령은 여기에 앉아 별세계전쟁의 꿈을 꾸었을것이고 부쉬대통령은 자기가 벌려놓은 만전쟁의 참담한 정경을 흐뭇해서 보고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얼마후면 그 역시 여기서 《포커스작전》의 성공적인 장면들을 보게 될것이다.

그는 애스핀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샬리카슈빌리대장을 손짓으로 가까이 와서 앉도록 했다.

《북조선이 오늘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는것을 당신들도 알고있을거요.》 하고 클린톤은 회전의자를 반쯤 돌리며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거요? 나는 그들이 단호하게 반격해나옴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돕고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포커스작전〉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일격에 단행할수 있

는 가능성을 주기때문이요. 어떻소, 당신의 생각은?》

클린톤의 어조가 그 무슨 의견을 듣고저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를 납득시키려는것이므로 상대의 두사람은 거의 동시에 그의 말을 긍정하였다.

《옳습니다, 대통령각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

《좋소, 그럼 〈포커스작전〉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들어봅시다.》

샬리카슈빌리대장이 맞은편에 서있는 륙군작전참모차장 죤 윌크슨중장에게 눈짓했다. 클린톤도 잘 아는 그가 바로 이 작전의 직접적인 발기자이고 주요계획작성자였던것이다. 윌크슨중장이 앞으로 나섰다.

《대통령각하, 작전은 벌써 그 1단계준비가 완료되였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자료를 비데오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윌크슨이 원격조종장치를 누르자 왼쪽벽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대형형광막에 돌연 매혹적인 열대풍치를 가진 섬이 나타났다.

《괌도입니다.》

윌크슨의 말이였다.

공중촬영으로 본 괌도의 전경에 이어 점차 화면에는 열대의 숲사이로 가로세로 뻗어간 도로들과 항만, 비행장들이 나타났다. 촬영가들이 대통령을 위한 이 보고자료도 예술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였다.

클린톤은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의 풍치를 눈여겨보면서 제2차대전기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그 다음날엔 벌써 전 괌도를 차지한데 반하여 미국은 1944년말 20여일간의 혈전을 통해 근 1만명의 희생자를 내고서야 괌도를 탈환하였던 불우한 력사를 상기하였다. 그러한 괌도가 지금은 미전략공군의 전초기지, 미해군의 《폴라리스》탄도미싸일핵잠수함기지로서 마샬군도, 카롤린군도 등과 함께 서태평양의 궁형기지망을 이루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기지로 되고있는것이다.

《앤더슨비행장입니다.》 윌크슨이 설명을 계속했다. 《지금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이 남조선의 K47(춘천)기지를 목표로 리륙하고있습니다. 비행시간은 3시간 24분, K47기지에 이르기까지 대공감시레이다에 포착됨이 없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며 전자전지원기의 도움없이 자체로 목표물을 탐색하여 기습공격을 단행합니다.

작전에 참가하는 이 비행기 〈에프117—에이〉는 3개 편대, 목표물은 북조선의 녕변지구와 류사한 지형에 설치해놓았습니다. 이미 3차례의 기습공격연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는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이 가상적인 목표물에 미싸일공격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타났다. 흰 글자로 새겨놓은 A, B, C, D 등 목표물들이 련이어 형체도 없이 날아나버렸다.

클린톤은 단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그는 이 작전의 성공과 그 효률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런것만큼 자기가 제작한 영화에 매혹된 연출가와 같은 심정으로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 작전의 주역을 맡은 스텔스전투폭격기를 그는 사랑하였다. 그와 같은 고도기술무기가 자기의 수중에 쥐여져있는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을수 없었다.

스텔스전투폭격기는 15년전부터 미국방성에서 극비로 추진해온 《포씨빌리티(가능성)21BC계획》 즉 21세기에 가능할 전투기계획에 근거하여 제작된것으로서 예견보다 빨리 완성되여 군수산업복합체인 《노트로프》회사가 맡아 캘니포니아주의 남쪽도시 팜데일에 공장을 세우고 엄격한 통제와 감시속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는 기체외면을 복잡하게 꾸며맞추어 불련속표면으로서 레이다파를 분산하며 한편 발신방향에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상대의 탐지를 곤난케 하는것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체표면에 전파흡수제를 붙이고 전파의 반사와 적외선의 방출을 극력 억제하도록 하였다. 이 비행기들은 바로 만전쟁때 출격명령이 내린후 단 24시간동안에 이라크의 전략적목표물 31프로를 파괴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비행기편대들이 북조선의 핵시설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포커스(초점)작전》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있는것만큼 이후의 작전행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는것 역시 의심할바 없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클린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단 말인가.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명령의 강경한 어조때문이란 말인가?!…

월크슨의 설명은 계속되였다. 일본의 요꼬스까항, 괌도의 아푸라해군기지에서 떠난 항공모함전단이 나타났다. 군사작전에 문외한인 대통령을 위해 월크슨중장이 상세한 설명을 가했다. 그러나 미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빌 클린톤은 작전을 연구하고 전술적지도작업을 할 의무까지는 지니고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전쟁을 결심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것이다. 이윽고 《포커스작전》추진정형에 대한 월크슨의 설명이 끝나고 화면이 멎었을 때 그는 물었다.

《이것뿐이요?》

《예, 그렇습니다. 각하!》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대답이였다.

클린톤은 어느덧 마음속 불안이 서서히 가셔지고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엇인가 부족되는듯, 못마땅한듯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대통령의 이 뜻밖의 불만에 사람들은 난색을 하며 서로 마주보았다. 이 이상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최신예고도기술무기와 장비들, 정예의 륙해공군부대들을 다 끌어가고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였다.

《전술적성공이 없이는 전략적성과도 얻지 못하는법이요.》 하고 클린톤은 언젠가 클라우제위치의 《전쟁론》에서 읽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지금 북조선이 강하게 도전해나오고있는것만큼 그들에게 우리가 실지 전쟁의 시한탄을 가동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소. 핵전략폭격기 〈비－1비〉나 스텔스전투폭격기들, 항공모함, 이것들만으로는 아직 부족하오.》

다들 긴장하여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핵전쟁시한탄의 바늘이 움직이고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단 말이요. 그것을 비밀리에 그러되 그들이 충분히 눈치챌수 있게 보여줘야만 이 강경한 공산국가의 수뇌부를 경악케 할수 있소!》

그제야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은 클린톤의 요구를 알아차린듯했다. 놀람과 경이의 눈빛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며 샬리카슈빌리대장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각하! 북조선의 준전시상태선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곧 서울에 〈C^3 I(씨3아이)체계〉를 발동시킬데 대한 지령을 주겠습니다.》

윌크슨중장이 재빨리 대형형광막에 조선지도를 비치고 대통령이 만족해할만한 설명을 붙였다.

《씨3아이체계》란 영어의 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VNICATION(통신)의 머리글자 C 3개와 INTELLIGENCE(정보)의 머리글자 I를 합쳐부르는 말로서 그것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의 작전지휘통신체계 즉

① 핵 공격명령전달체계

② 목표지점의 위치 및 전투정황지령체계

③ 전체 정보를 종합처리한뒤 이를 군지휘에 적용하는 체계

④ 이상의 작전지휘를 보장하는 통신체계를 의미하는것이였다.

미군의 《씨3아이체계》 전방지휘소는 서유럽의 나토군사령부와 극동의 서울에만 전개되여있다. 만전쟁때에도 이러한 극비의 체계는 필요되지 않았다.

클린톤은 만족하였다. 자기의 군사적지혜에 경탄하는 사람들의 눈길이 더욱더 그를 기분좋게 하였다. 불시로 사람들과 롱을 하며 골프를 치거나 차를 쾌속으로 몰아대고싶은 생각까지 났다. 그러나 지금은 한밤중이고 아직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골치아픈 국내경제문제, 일본과의 무역마찰, 로씨야문제, 아이띠와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문제, 소말리아와 중동문제… 그는 대통령으로 정식취임한 이래 아직 한번도 늘어지게 잠을 자본일이 없다. 그러나 《포커스작전》의 성공에 대한 신심이 다시금 그의 원기를 돋구어주었다. 이제 《씨3아이체계》까지 발동되면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은 어떻게 나올것인가?… 부쉬대통령때 설립된 《K. J. I(케이 제이 아이)연구소》(**김정일**연구소)가 밝힌데의하면 북조선의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군사적령도의 특징을

첫째, 판단의 정확성
둘째, 단호한 결심
셋째, 설정된 목표에 대한 무자비한 타격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상최대의 군사장비와 핵전력이 투입된 오늘의 시점에서는 사정이 판판 다르다.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있었다.

그는 물었다.

《작전개시전까지는 며칠 남았소?》

《열하루가 남았습니다. 각하!》

역시 샬리카슈빌리대장의 대답이였다.

《음-》

그는 손가락마디를 딱딱 꺾었다. 이제 11일후이면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온 세계가 끓어번질것이다.

《좋소.》 하고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으시대듯이 말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해버릴 생각이요!》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은 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몰라 얼떠름해있었다.

그것은 북조선의 준전시상태선포를 두고 한 말로서 클린톤자신 그 말을 벌써 두번째로 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2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그날 광산마을앞도로에서는 온밤 땅크들이 와릉거렸다. 그 숱한 땅크와 포들이 어데서 쓸어나와 어데로 달려가는지 알수 없었으나 땅을 흔들고 창유리를 드릉드릉 울리며 끝없이 가고 또 갔다. 와릉와릉하는 발동기소리와 사납게 찌걱거리는 쇠소리가운데 이따금 탕탕 기관포를 쏘아대는것처럼 배기가스를 내뿜는 소리가 섞이군했다. 온밤 대기는 떨며 신음하였고 무시무시한 땅의 진동에 아낙네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정네들은 교대작업을 하러 갱으로 갔거나 적위대복차림을

하고 어데론가 달려갔다. 늙은이들과 어린이들만이 집에 남아 끝없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땅크와 포들의 발동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문밖에 나가 구경하며 셈을 세다가 지쳐버린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었다. 땅크를 몰아 적진으로 돌격해들어가는 꿈이였다. 늙은이들은 지나간 전쟁의 나날들을 회상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말아물고 죽은 사람들과 지금껏 잊고있던 갖가지 전쟁터의 인상들을 더듬어보군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과 육감으로 전쟁의 발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피어린 싸움터에 풍기던 가슴을 허비는 포연과 비릿한 류혈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하여 그밤 많은 늙은이들이 옛시절의 물날은 군복을 장농속에서 꺼내입고 집을 나섰다. 그밤 광산당위원회는 인민군대복대를 탄원해온 전쟁로병들로 가득찼다. 담배연기도 꽉 찼다. 저저마끔 경쟁적으로 피워대는 담배연기때문에 눈이 쓰리고 숨이 탁탁 막히여 문풍지를 붙인 창문을 뜯지 않으면 안되였다. 문을 열자 막혔던 가슴을 활 열어젖힌듯 차고 눅눅한 바람이 확 쓸어들었고 뒤미처 땅크발동기의 우뢰소리가 또 덮치듯 밀려들었다.

그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림희문도 밤새 궁싯거리며 밖에서 울리는 요란스러운 소음에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그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역시 전쟁을 생각하였으나 남들과 같이 총을 메고 달려간 전선길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풍기던 위생렬차의 유개화차따위였다. 북방의 어느 간이철도역에서 운전조역으로 일하던 림희문이 처음 알게 된 전쟁의 모습은 바로 부상병들을 싣고 가다가 그 역에 멎은 위생렬차였던것이다.

그는 어릴 때 다친 다리가 나이들어 위축되면서 차츰 가볍게 절기 시작했는데 그때문에 군대에 나가지 못했다. 그것은 또 일생 그를 괴롭힌 마음의 상처로 되였고 성미를 괴벽하게 만든 근원으로 되였다.

끝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앉은 그는 요새 사람들속에서 부쩍 인기가 오른 독초를 말아 가슴이 알알해나도록 빨고 또 빨았다. 준엄한 전쟁이 또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번의 전쟁은 더더욱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금 림희문은 나이가 들어 갱에서 나온지 오래며 겨우 생필직장에서 간데라나 만들고있는 처지였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그는 광산마을의 청장년들이 적위대비상소집령을 받고 올리뛰고 내리뛰는것을 보았다. 전쟁로병들도 바삐 서두르며 서로 찾고 부르고 했다. 하지만 림희문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은 그를 뒤에 내버려두고 어덴가 멀리 앞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판가름될 그 싸움터로 모든 사람들을 소리쳐부르고있었다. 그것은 아마… 조국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것인지도 모른다.…

온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렇듯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되고말았단 말인가?!… 한때는 전도유망한 연구사로서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도 받았던 그였으나 지금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로 되고있었다. 어떻게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되였단 말인가?… 비로소 그는 자기의 과학적의기가 꺾인 때로부터 이 모든것이 시작되였다는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교화소에서 나온후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온갖 욕망과 희망을 다 줴버리자 그의 삶 그자체도 빛을 잃기 시작했던것이다. 생활은 차츰 그를 남기고 의연히 앞으로 앞으로 줄달음쳐갔고 그는 자꾸만 뒤에 떨어지고있었다. 한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만나도 그들은 전날의 림희문 대신 어데선가 빌려온것 같은 허름한 양복을 몸에 걸친 늙수그레한 사람, 안면은 있으되 어데서, 어떻게 만났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의 색날은 사진을 들여다보듯 의아쩍어하는 눈빛이였다.

사랑하는 아들 정산이조차 아버지를 멀리하고 경원시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연구사업에서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린 술주정뱅이, 병약한 어머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더부살이 군식구에 불과하였다. 가끔 아들의 눈길에서 자기를 꺼리낌없이 비난하거나 질시하는 빛이 드러날 때마다 그는 가슴이 흠칠 떨리는것을 느끼군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을 탓할수도 없었다. 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가 교화소에 가있는 동안 어린 가슴에 때이른 아픔과 수치와 눈물을 다 겪었던것이다.

하지만 림희문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가 대바르고 정직하고 또 남달리 지혜롭고 굳세게 자라기를 얼마나 바랐으랴!… 그런데 아들 정산은 아버지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들 정산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허락도 없이 들어선 한

불청객에 불과했다. 림희문은 이렇듯 사랑하는 아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다.…

괴로운 생각들은 끊임없이 또 밀려왔다. 아무 두서도 없이 기다렸던듯 련이어 떠오르고는 사라져가고 사라졌다가는 금시 또 새로 가슴을 허비며 떠오르는것이였다.

땅크와 포차들도 온밤 끝없이 굴러갔다. 지심깊이에서 발파를 할 때처럼 바닥이 진동하였다. 안해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왜 눕지 않느냐고 하였지만 아무 대꾸도 없이 담배만 뻑뻑 빨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였다는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랴. 쓸모없이 되고 버림받은 늙은이, 인생의 이 내리막길은 언제 시작된것이였던가?… 그를 재판소와 교화소에까지 이끌어간것은 새로운 강철재료를 얻기 위한 연구사업이였다. 그는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열에 잘 견디고 잘 마모되지 않으며 삭음견딜성이 높은 정밀가공용강철재료를 얻기 위하여 다년간 노력해왔다. 그것은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한 〈T강〉이온질화법》이라는 연구론문으로 정식화되였다.

그런데 연구소에는 그와 비슷한 강철재료연구에 종사하는 박필규라는 연구사가 있었다. 림희문과 실력을 다투는 재능있는 연구사라고 널리 알려져있었는데 사업과 생활에서 눈에 띠우고 웃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서 특히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있었으나 정의감에 불타오를 때에는 가까운 동료들의 과오와 실책을 수술칼처럼 철저히 해부하기도 했다.

림희문은 그와는 판 달랐다. 체소한 몸, 그 어디서 그러한 숯불이 타고있는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연구에 몰두하는가 하면 고집을 부리고 성을 내고 대판 싸우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그들 둘이 승벽내기를 한다는 말이 돌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연구제마가 류사한것때문에 특히 론의의 대상으로 되였다. 림희문의 연구가 앞섰으므로 먼저 여러차례의 실험이 진행되였는데 몇차례나 실패를 거듭하자 그의 리론적가능성마저 부정되였다. 당시 연구소사업을 지도하던 황시우는 박필규의 귀띔을 받고

그것을 공상적인것으로, 선진공업국가들에서도 리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미지의 쩨마로 단정하고 결연히 실험을 중지시켰다. 림희문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직접생산공정과 물려있는 특수강열처리연구에 달라붙으라고 권고했다.

사위스러운 그의 인생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참지 못하고 눈에 띄게 다리를 절면서 여러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판 싸움을 벌리던끝에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몰래 실험을 계속하다가 대화재를 일으켰다. 결국 승벽을 부리던 박필규는 아무런 연구실적도 없이 그후 실장으로, 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속 승진의 일로를 걸었지만 림희문은 오랜 교화생활끝에 버림받는 존재로 되고말았다.

인제는 자기의 불우한 처지에 습관되여버린지도 오래다. 하지만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온밤 전쟁의 굉음이 땅바닥을 진동하고있는 이때에 와서 그는 몸부림치지 않을수 없었다. 거꾸로 굴러가는 자기의 인생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되돌려세우고싶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것이 이 전쟁에 한몸 바치는것으로 되는가?… 총을 메고 전선에 나갈 나이도 지났다. 오직 하나 과학연구사업으로 나라에 보탬을 주는 길밖엔 없다. 그것을 왜 여태껏 줴버렸던가, 오늘까지 연구를 계속해왔더라면 지금쯤 새로운 무기생산에 절실한 강철재료를 완성했을수도 있지 않는가?!… 그는 정신없이 머리를 쥐여뜯었다. 자기 인생의 제일 크고 무서운 과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듯했다. 그걸 줴버리다니, 재판과 교화생활로 해서 한생의 꿈과 목적도 다 포기하다니, 결국 사람들로부터, 친자식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는가?!…

땅크발동기들의 거센 동음은 날이 샐녘에야 멎었다. 아침에 일어나 큰길쪽으로 나간 림희문은 얼어붙은 땅에 찍힌 그처럼 많은 무한궤도자국을 허리굽혀 일일이 살펴보았다. 길우의 크고작은 돌들에도 긁히고 할퀴우고 무겁게 짓눌린 자국들이 찍혀있었다. 과연 이것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를 남기고 간 전쟁의 발걸음이란 말인가!…불현듯 당위원회를 찾아갈 생각이 났다. 거기에 가서 지난날의 자기 과오와 새로운 결심에 대하여 터놓고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송차가 가고있는 그쪽에서 하얀 승용차가 마

주오고있었다. 이곳 광산마을에서는 드물게 보는 사치한 승용차였다. 집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던 림희문은 그 차가 옆을 지나칠 때 우연히 차안에 탄 사람을 보게 되였다.

한순간 그는 그자리에 딱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누런 털모자에 검은색 락타직외투를 입고 무심히 밖을 내다보고있는 그 사람은 바로 황시우총국장이였다. 그러나 그는 림희문을 알아보지 못한것 같았다. 그럴수밖에 없다. 이제는 10여년세월이 흘렀고 초췌한 늙은이로 변모된 림희문을 그가 어떻게 알아본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희망이 미소를 던져준것이 아닌가. 준전시상태선포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에게 때마침 구원의 손길이 마주온것이 아닌가!… 림희문은 하얀 승용차가 먼지발을 일으키며 멀리 달려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있었다. 지금 황시우총국장이 소나골 군수공장으로 가고있으리라는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다. 먼저 거기로 가자, 그는 알아줄것이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자신이 직접 밀어줄수도 있다.

맵짠 아침이였다. 아니 솜옷도 입지 않고 길가에 나와있기때문에 그렇게 느껴진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추위와 흥분으로 하여 턱을 떨고 이발을 떡떡 맞쪼으며 집으로 뛰여들어갔다.

궤짝을 뒤졌다. 그속에서 낡은 도면말이며 연구론문들을 꺼내여 가방에 넣었다. 안해가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안하고 급히 차비를 했다.

하여 그는 갔다.… 소나골은 골입구가 병아구리처럼 좁은 반면에 안으로 들어가면 드넓은 골안이 나지는데 그 한가운데로 강물이 흐르고있다. 실상은 시내물보다 더 큰 정도이나 옛날사람들이 소나강이라는 정다운 이름을 붙여주었다. 옛날옛적 소나라는 마음씨 착하고 인물고운 처녀가 소경이 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곳 깊고깊은 골막바지에까지 찾아왔었다. 소나는 신령스러운 약수를 찾아 열아홉군데나 샘을 팠는데 그 샘물들이 모여 흐르는것이 바로 오늘의 소나강이라 한다.

군수공장정문에는 무장한 보위대원이 버티고 서서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있었다. 림희문은 접수실에서 자기가 짐작한바 그대로 황시우총국장이 준전시하의 군수공장 생산투쟁을 지휘하

기 위하여 내려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를 만나러 왔다는 말에 접수실의 보위대원처녀는 의심쩍어하는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면서 총국장동지와 어떤 사이인가, 친척벌이라도 되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 림희문은 긴 설명을 피하고 그저 자기 이름을 대면 그가 만나줄것이라고만 했다.

전화를 걸자 안에서 받는 남자의 목소리가 총국장동지는 현장에 나가있다고 했다. 림희문은 썰렁한 대기실의 장의자 한끌에 옴츠리고 앉아 무려 2시간동안이나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그의 정상이 측은해보여서인지 보위대원처녀가 사방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공무동력직장과 가공직장, 주물, 조립, 완성… 이렇게 추격전을 벌린끝에 드디여 총국장과 전화가 련결되였다. 황시우는 림희문이 찾아왔다는 말에 어지간히 놀란것 같았다. 몇번이나 곱씹어 되묻고서야 이제 한시간후 지배인실에 가겠으니 시간맞춰 거기에 들여보내라고 했다.

한시간후 림희문은 눈에 띄게 다리를 절름거리며 지배인실로 들어갔다. 너렁청한 방이였다. 량수책상과 쏘파, 집단군사령관의 작전대로도 쓸만한 긴 탁자가 가운데 있고 여라문개의 의자들이 그 량쪽에 주런이 놓여있었다.

황시우는 지배인이라고 짐작되는 사람과 마주앉아 무슨 문건철을 뒤적거리고있었다. 림희문이 들어서자 황시우는 누군가 마구 쥐여뜯어놓은것 같은 성긴 눈섭을 잔뜩 치켜올리고 한참동안이나 그를 뜯어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웅근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게 희문동무가 옳긴 옳소?》

장대한 체격을 가진 황시우는 그새 틀진 간부답게 목소리도 더 굵어진듯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마주왔을 때 비로소 림희문은 그에 비해 너무도 늙고 추레해진 자기를 의식하였다.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졌다.

《정말 몰라보게 됐구만.》 황시우의 말이였다. 《그새 앓지는 않았소? 집에선 다 잘 있구?… 참 애들이 몇이더라?!… 에에, 세월이란 참, 희문동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손에 든건 또 뭐구?… 아, 물론 연구사인 희문동무가 비닐벽지나 안구 다니진 않겠지.》

그때까지 림희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지배인이 전화로 총국장의 식사준비를 알아보는것 같았다.

《저… 이건》 하고 림희문은 눈보라를 삼키는듯 숨을 헐썩거리며 가까스로 말했다. 《이전에 연구하던 그 〈T강〉실험도면인데…》

《이전에 연구하던거?》

황시우가 놀라와했다. 그럴수록 림희문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예. 저…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한 〈T강〉이온질화…》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황시우의 성긴 눈섭이 우로 쳐들리고 두툼한 입술이 버긋이 벌려지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여보, 희문동무.》 하고 황시우가 말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 연구쩨마야 이미 오래전에 과학적담보가 없는것으로 결론되지 않았소. 또 후엔 동무자신이 다 포기했다구 하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들고오는건 뭐요, 에?… 참 동무두, 그 고집은 여전하구만. 그새 좀 달라졌는가 했더니 원!… 그래 동문 끝내 그 플라즈마불길에 자기자신을 다 태워버리고야말 심산이요? 그걸 또 나한테 들고오다니!…》

《총국장동지, 그래도 총국장동지야 이 연구쩨마에 파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나보다도 특수강을 전문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어야지. 참, 지금 연구소 부소장을 하는 박필규도 있지 않소. 한땐 희문동무랑 서로 실력을 다투었댔지. 안그렇소?… 그 동무가 지도하는 연구소조가 이번에 또 성과를 올렸소. 그를 찾아가보오.》

《…》

희문은 대답을 못했다. 그러지 않아도 언젠가 박필규를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다. 비좁은 렬차칸에서였다. 그때 박필규는 자기의 연구사업(실은 그가 데리고있는 연구사들의 연구사업이였지만)에 대하여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다가 뒤늦게야 림희문이 일체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생필직장에서 간데라나 만들고있다는 말에 그는 그까짓 고달픈 연구사업에 또 머리를 디밀겠는가, 낚시질이나

하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편이 낫다고 열심히 설득시키려 했었다. 그날의 쓰디쓴 기억이 생생한 림희문이여서 무어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 한번도 만난 일이 없는게구만?》

황시우가 묻는 말이였다.

《언젠가 한번…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렇소? 그래 그가 뭐라고 하오?》

《그는… 이제 와서 또 연구사업을 시작하겠는가 하면서 그만두라고…》

《그것보오. 옛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우연치 않단 말이요. 명심해 듣소!》

희문은 불시로 피곤이 몰려드는것을 느꼈다. 지난밤 한잠도 자지 못한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황시우의 시원하게 넓게 퍼진 희멀끔한 이마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역시 조금도 달라진데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전히 그는 책임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직접 손을 대거나 자신이 직접 맡아안으려 하지 않는것이다. 여전히 그는 처세술에 능한 박필규같은 사람, 간부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남의 재능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아하는 그런 사람을 높이 사고있는것이다.

지배인이 황시우더러 식사하러 가자고 말했다. 순간 희문은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차례지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서둘러야 했다. 하다못해 다시 만날수 있는 리유라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황시우의 팔소매를 덥석 붙잡았다.

《총국장동지, 한마디만 더 들어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뭐요. 어서 말하오.》

《그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전에 제가 실험을 하던 그때에 비해볼 때 실험설비조건도 대단히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번만 더 실험해볼수 있게 좀…》

《또 실험을? 어데서?》

《저… 여기…》

《뭐―요?》 황시우의 굵은 목에서 퍼런 피줄들이 두드러졌다.

《이 동무 아직 제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만, 응?…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으면 됐지 아직두 뭐가 뭔지 모르겠소? 여보! 내 동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집구석에 박혀 좀 가만히 있소. 자기가 교화출소자라는걸 잊지 마오, 에?… 지금은 준전시때야. 전시법이 적용되는 그런 때란말요!》

《?…》

순간 림희문은 숨이 꺽 막히는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뜨끔하니 심장을 깨물어놓은것 같았다. 입을 벌리고 숨도 쉬지 못한채 그는 비틀거렸다. 죽은 사람같이 해쓱해진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지배인이 그를 부축해주려고 했다. 그는 손짓으로 지배인을 멈춰세우고 가까스로 몸을 돌렸다.

출입문까지는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까지의 예닐곱발자국을 이를 악물고 식은 땀을 흘리며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3

음산한 날씨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흐릿한 태양이 길가의 먼지오른 눈더미들을 졸금졸금 녹여없애고 소나강기슭의 버들개지들은 봄물이 올라 부얼부얼해지기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낀 어둑시그레한 하늘아래 차고 눅눅한 바람이 어지러이 불어치고있었다.

저녁때 림희문은 생필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썰렁한 집안에 들어가있을것을 생각하니 참을수 없이 마음이 울적해졌다. 집에 들어가선 무얼 하겠는가… 남편의 마음속에 갈구리같은 발톱을 박고있는 무서운 고민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 꺼내는것조차 저어하고 두려워하는 병약한 안해와 우두커니 마주앉아 무얼 하겠는가?…

그의 집은 소나강을 낀 둔덕우에 일직선으로 늘어선 광산마을 주택들중 제일 끝에 있다. 남들과 다름없는 문화주택이나 겉모양부터가 벌써 낡아버린것이 알린다. 시꺼먼 그을음이 잔뜩 게발려있는

굴뚝, 습기때문에 떨어져가는 벽체, 뒤뜨락의 줄당콩대들조차 제멋대로 찌글써하니 자빠져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보다 더 그의 눈길을 아프게 끄는것은 창고지붕우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비둘기장이다. 아들 정산이 학교에 다닐 때 비둘기를 길렀는데 지금은 텅빈 상자모양으로 버림받고 구멍마다에 칠했던 빼끼색마저 다 날아버렸다.

아들 정산을 생각할 때마다 쑤시는듯한 아픔이 가슴을 찌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리도 사랑했건만 편지조차 한장 보내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때문에 겪은 그 많은 수치와 모멸감을 잊을수 없어 그리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지금껏 술과 역증으로 피롭힌것을 참을수 없어 마음속으로 결별해버린것이다. 하건만 림희문은 그 아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자기의 남모르는 고민과 안타까운 심정을 리해해주기 바랐다. 단 한번만이라도 아들이 《아버지, 용기를 내세요. 난 아버지를 리해해요.》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들은 술취한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한테 증을 내는 아버지를 아무말 없이 입을 꼭 다물고 이상한 눈빛으로 보군했는데 그럴 때마다 림희문은 온몸에 찬서리를 뒤집어쓰는듯했다. 아들은 군대에 나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정산이 지금 군대복무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이때 어데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어머니한테까지 드물게 편지를 쓰는것으로 미루어 일이 시원치 않은것 같다. 학교에선 수재로 소문났었지만 군대생활이란 엑스와이방정식을 풀듯이 되는것은 아닌것이다.

인기척이 느껴졌다. 림희문은 병색이 질은 안해가 그림자처럼 힘없이 다가오는것을 보았다. 한손에 뜨물바께쯔를 들고있는것을 보아 뒤울안의 돼지우리에 가있었던 모양이다. 올해엔 기어이 백키로짜리 돼지 두마리를 인민군대원호물자로 보내겠다고 맘먹은 안해이다. 안해가 나직이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일찍 오셨수？》

《갱에 가려구. 거 방안의 안전모 좀 내다주, 간데라두.》

순간에 내린 결심이였다. 림희문은 전에 일하던 5.1갱에 들어

가 이것저것 뒤거두매라도 해주며 잠시나마 쓰라린 마음을 달래고싶었다. 수더분한 로동자들속에 있으면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림받고 외로운 늙은이라는 생각을 잊을것 같았다. 그는 안해가 들고온 버들바가지안전모며 간데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토방우에서 바람호스련결대묶음도 찾아쥐였다.

《늦어오시겠수?》

《모르겠소.》

《오늘은 좀…》

《왜 그러오?》

《저…》

《빨리 말하오.》 하고 림희문은 증을 냈다. 《난 시간이 없소.》

안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됐어요.》

입속으로 잦아드는 그 목소리에조차 화가 났다. 그는 안전모를 눌러쓰며 좁다란 울바자사이길로 나섰다. 안해는 여전히 그자리에 못박혀있었다. 남달리 일찍 세여진 머리칼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얼마후 그는 5.1갱앞에 이르렀다. 갱입구에는 소나골군수공장에서처럼 완전무장을 한 적위대원이 서있었는데 그가 《아바이, 어데로 갑니까?》 하고 물었다. 희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갱에 들어가려구, 헌데 그건 왜 묻나?》

《교대시간두 아닌 때 갱엔 왜 들어갑니까?》

《아 내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야. 갱에 들어가 뭘 좀 도울려구… 준전시때가 아닌가!》

《안됩니다.》

《뭐?》

젊은이는 어깨에 메고있는 총을 추슬러올렸다.

《준전시이기때문에 안됩니다. 갱장동지 승인없인 일체 외부인원은…》

《외부인원이라니?》

《아바이, 비켜서라요. 말시키지 말구…》

희문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등골로 차디찬 오한이 흘러내렸다.

그 젊은이의 말에는 아까 황시우총국장이 암시한것과 같은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래, 지금은 준전시이다. 전시법이 적용되는 준엄한 시기, 그런데 전시법이라는게 뭔지 알기나 하는가?!…

날카로운 아픔에 숨이 넘어가는듯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는 제가 일하던 갱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였단 말인가…

그때 굴아구리앞의 인차결에서 이쪽을 보고있던 광산후방부의 송지도원이 다가왔다. 그는 사업에 능한 후방일군다운 미소를 담고 적위대원을 향해 두눈을 끔뻑이였다.

《동무! 이 할바이 어째 모르오? 아 거 온 광산이 다 아는 연구사아이오!》

그는 제잡담 림희문을 잡아끌며 말했다.

《나 아이문 못들어갈번했지비, 갑시다. 내 마침 지원물자를 가지구 갱에 들어가려던 참이요.》

림희문은 어정쩡해 서있는 적위대원에게 대충 눈인사를 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송지도원이 인차쪽에 대고 소리쳤다.

《여, 순옥동무, 또 한사람 있소! ㅡ》

키낮은 인차에서 운전공처녀가 머리를 내밀었다. 벌써 윙ㅡ하는 소리가 그속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들이 차에 오르자 인차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꺼먼 굴아구리가 마주왔다. 다음 순간 인차는 그속으로 곧추 굴러들고 어느덧 캄캄한 어둠이 주위를 꽉 채우기 시작했다. 뒤에 남은 굴아구리가 항아리만하게, 이어 십전짜리만하게 작아지더니 그마저 어둠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차바퀴소리만이 떠들썩했다. 레루이음짬을 타고넘는딱딱한 충동에 뼈마디들이 지끈거렸다. 굴천정우의 전기줄에서 시퍼런 섬광이 펀뜩거릴 때마다 림희문은 처음 굴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어깨를 흠칫거리군했다.

송지도원이 무슨 말인가 꺼냈지만 그는 못들은척했다. 송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수다스럽고 허풍기가 없지 않은데 광산마을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했지만 림희문만은 그를 질색하였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데 그것은 몇해전 어느 마가을날 밤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림희문은 우연히 렬차에서 박필규를 만난뒤여서 울

적한 기분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광산마을까지 걸어오는도중 이 송지도원을 만나 같이 걷게 되였다.

비가 온 뒤끝이였다. 길이 험했다. 림희문은 내키지 않았으나 풋낯이나 아는 후방부지도원이 별스레 각근히 굴며 자꾸 캐묻는 바람에 자기의 연구론문에 대하여 한두마디 설명해주던것이 차츰 열을 올리게 되였다. 송지도원은 여러 부문에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림희문의 설명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다. 그는 림희문의 팔굽을 잡고 진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열심히 묻고 감탄하군하는데 이따금 꺼지게 탄식하기도 했다.

《아, 할바이, 어째 그런걸 가만 놔두오? 한바탕 해봐야지비. 에에— 그런것들은 주두리를 틀어놔야 하오!》

광산에 내려온 이래 아직 이처럼 정열적인 청강생을 가져보지 못한 림희문은 진창에 빠지는것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목이 쉬도록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있었다. 얄궂은 그 떠벌이가 무슨 수작질을 어떻게 했는지 온 광산마을사람들이 그 무슨 《련금술》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중세기의 련금술사들이 동이나 연에 무슨 물리화학적충격을 가하여 금과 은을 만들려했던것처럼 림희문이 플라즈마불길로 특수강을 만들려 했다는것이다. 말은 옳은데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그 《련금술》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어떤 희떠운 녀석은 림희문을 만나 《아바이, 련금술을 연구했다는게 정말이예요?》 하고 묻기까지 했다. 원, 빌어먹을 우라질녀석같으니라구!…

그 송지도원이 지금도 말을 걸고싶어 속이 쑤시는 모양이였다. 인차가 흔들릴 때마다 이쪽저쪽으로 기울어지는 림희문을 붙들어주면서 히죽거리고있다. 인차의 간데라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둥글넙적한 그의 얼굴이 얼른거렸다.

《할바이, 접때 기록영화에서 본 그 특수포말이요, 그게 5백리밖까지 때릴수 있다는게 정말이요?》

림희문은 손을 내저었다. 소란스러운 인차안이여서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의미였다.

《잘 알면서두 뭘 그러오.》 하고 송지도원이 또 검질기게 늘

어붙었다. 《거 속사포같은거두 있었지비. 포탄이 막 련발루 나가는거말이요. 아 할바이야 어째 모르겠소！》

광산마을에선 유독 그만이 함경도사투리로 말하는데 오늘따라 림희문은 그 지방사투리에조차 막 넌덜머리가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사람, 계속 할바이, 할바이 할텐가？》

《아아, 이 할바이？！》

림희문은 아예 돌아앉고말았다. 인차의 간데라불빛에 드러나는 우툴두툴한 굴벽만 바라보고있으려니 쓰라린 애수가 다시 되살아났다. 차디찬 물줄기가 흐르는 굴벽이 끊임없이 마주 달려왔다. 물이 즐펀한 암벽, 그밑에 얼기설기 늘어진 케블선과 압축공기배관들, 오랜 동발목에 허옇게 돋아있는 버섯들, 이 모든것들이 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 광산마구리에 처음 들어서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인제는 《할바이》취급을 당하며 갱에서 나왔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되고말았으니… 인생은 멀리도 왔건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저 멀리 아득한 그 시절에 끝나버렸던것이다.

차츰 인차가 속도를 죽이자 환한 전등불이 그의 두눈을 때렸다. 드디여 갱구내에 들어선것이다. 련결장치가 덜커덩거리더니 곧 인차는 멎었다. 그는 인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수다스러운 송지도원이 말을 걸기전에 서둘러 광차레루가 깔린 어둑컴컴한 갱도로 걸어갔다. 다행히 송《떠벌이》는 지원물자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림희문은 간데라를 내려놓고 성냥을 켰다. 그러자 펑！ㅡ하면서 붓초리같이 하얀 불길이 곧추 뻗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담배까지 말아물고나서 걸음을 옮겼다. 갱도바닥은 질척질척하였다. 간데라불빛이 벽밑으로 흐르는 도랑물을 얼추 비쳤다. 그는 구수한 담배연기와 함께 싸늘한 갱도속의 찬공기와 아릿한 곰팡내를 맘껏 들이마시며 뚤렁뚤렁 석수가 떨어지는 갱도속으로 계속 걸어들어갔다.

얼마쯤 걸어들어가니 차츰 귀에 익은 압축기의 동음이 분명해졌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면서 굴바닥까지 가볍게 흔들었다. 굽이진 갱도벽을 에돌자 압축기장이 나졌다. 림희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요란한 압축기동음에 귀가 멍멍해지고 온몸이 그

진동파에 따라 부르르 떨려났다. 기계기름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기대옆에서 기름걸레를 쥐고 허리를 펴던 압축기운전공 창숙이가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아이, 아바이 오셨군요. 어떻게 여길 다?》

《뭘 좀 도울 일이 없나 해서…》

《그래요?》

어느새 달려온 창숙이 그의 손에서 바람호스련결대들을 받아 들었다.

《이렇게 오실줄은… 정말 고마와요.》

창숙은 그를 갱도안쪽에 널로 막아놓은 작은 휴게실로 이끌었다. 문을 꼭 닫으니 귀가 멍멍하던 소음이 한결 죽어들었다. 창숙은 통나무로 만든 의자를 그에게 권하며 마침 말동무가 생긴것을 기뻐하는듯 잰 말씨로 시작하였다.

《정말 때맞추 가져왔어요. 이자두 북마구리 120에서 바람이 약하다구 막 고아대질 않겠어요.》

《120에서? 오― 기철반장말이지.》

《예, 얼마나 우둘렁대는지… 뭐 어쨌는지 알아요?… 〈동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오? 준전시란 말이요!… 그런데 동무때문에 생산이 떨어져보오. 동무가 책임져야 하오!〉 뭐 이러면서 글쎄… 아유, 꺽쇠같은게, 그런다구 뭐 누가 꿈쩍이나 할줄 알구.》

림희문은 속이 뭉클해났다.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었을뿐아니라 그처럼 친근하고 정답게 구는 창숙이 더없이 고마왔다.

《창숙이, 내 이제 거기 가볼가?》

《어데말예요?》

《거기 기철반장네쪽 말이지. 북마구리 120까지 가면서 바람새는데가 있나 살펴보자는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창숙은 길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잘라말했다. 《그저 한번 호통을 빼본걸거예요. 정말 바람이 새면 아직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막 잡아먹으려 들거예요. 어떤 꼭자라구!… 그러니 아바인 여기 앉아 좀 쉬세요. 내 제꺽 일지를 정리할게요. 그담 주유작업하는거나 좀 도와주세요.》

《음, 그러지.》

《참 잘됐어요. 아바이가 있어서… 헌데 아바이, 왜 그러세요?》

림희문은 고개를 돌리며 한손을 내저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눈알이 좀 때끔거려서…》

그는 담배를 말아 불을 붙여물고서 창숙이 모르게 한쪽팔소매로 눈굽을 닦았다. 고마운 창숙이, 정에 주려사는 림희문에게 있어서 창숙은 가장 가까운 친지나 다름없었다.

그는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여마시며 또 한 처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아직은 이름으로만 알고있는 처녀, 아들 정산이네 소대장 윤철의 동생 윤화옥이다. 올해 스물한번째 봄을 맞는다는 처녀, 그는 화옥이가 남달리 예쁘장하고 사랑스러우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애가 써보낸 편지의 글줄마다에 그 고운 마음씨와 밝고 명랑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있었다.

《림희문아버님에게.》

정성들여 곱게 박아쓴 화옥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아버님!

윤철소대장을 아시지요? 저는 바로 그 소대장의 동생 윤화옥입니다. 오빠에게서 림정산동무의 부모님들이 곁에 가까운 살붙이 하나 없이 외로이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더우기 어머님은 자주 앓고계신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지로나마 정산동무의 부모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자주 편지를 쓰겠어요.

미리 알려드리는데 전 더퍼리예요. 아무때나 웃고 떠들고 쉴새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종일 입을 다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선 나를 귀뚜라미라고 한답니다. 지금 나는 우리 군직물공장에서 직포공으로 일하고있어요.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이구요. 나이는 스물하나.

마침 우리 공장에서 인민군대원호물자를 싣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갔다오던 길에 한번 찾아뵙겠어요. 잠간이나마 만나서 낯도 익히고 정도 붙이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반가와하리라고 믿어요. 그렇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쓰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윤화옥 씀》

이 길지 않은 편지를 그는 몇번이나 읽었으랴. 보풀이 나도록 읽고 또 읽으며 몇번이나 속으로 눈물을 머금었으랴.

성미가 괴벽스러워 늘 인정에 주려있던 그였고 그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증만 내며 괴로움을 주던 그였다. 하여 그의 친아들 정산이마저 아직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난데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가 《아버님에게》라고 다정한 부름으로 그를 찾았던것이다.

지금도 그는 담배연기를 걸탐스레 삼키고 그 편지의 글줄들을 맨 처음부터 다시 더듬으며 생각해본다. 언제쯤 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가, 편지에 씌여있는것처럼 웃고 떠들며 노래하며 나타날가… 저 창숙이와 키도 비슷할테지, 우리 화옥이, 우리 귀뚜라미는?…

그때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림희문이 머리를 돌려보자 어느새 의자 한끌에 앉아있던 창숙이가 손을 내밀며 입을 비쭉거렸다.

《꺽쇠반장일거예요, 보나마나!》

처녀는 송수화기를 들자 련발사격처럼 내쏘았다.

《왜 자꾸만 성화예요, 예?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이예요?》

그쪽에서 뭐라고 했다. 순간 창숙은 얼굴이 구운 가재빛으로 물들었는데 어찌나 당황했던지 거의나 울상이 되여버렸다.

《어마나? 난 또 120굴진소대장인줄 알구…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압축기공… 예?…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예, 바꾸랍니까?》

창숙은 림희문에게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당비서동지예요. 아바일 찾아요.》

《뭐?》

그의 두눈이 굳어졌다. 당위원회에서 찾을 리유란 없는데… 무엇때문일가, 혹시 창숙이 잘못 들은건 아닐가?…

림희문이 송수화기를 들자 그의 숨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먼저 말했다.

《제 당비서입니다. 희문아바이지요?》

《예, 제가…》

《아바이,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이제 인차가 나올 때 나오십시오.》

《제 말입니까?》
《예,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전화가 끝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있었다. 누구도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는데… 뿌옇게 돌가루가 얼룩져있는 그의 얼굴은 어수선해지고 두눈은 공허해졌다. 창숙이가 놀라서 무엇인가 물었지만 그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4

두달전에 새로 부임해온 광산당비서는 40대의 젊고 팔팔한 사람이였다. 손탁이 세고 내밀성이 있다는 평판인데 로동자들은 그가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하며 또 그들의 말을 귀담아들을줄 아는 좋은 당일군이라고 했다. 그러나 희문은 아직 그와 마주앉아본 일이 없다.
키가 크고 눈이 억실억실한 광산당비서는 그를 기다리고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나오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당비서가 웃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 친절한 미소가 먼저 그의 마음을 얼마간 누잦혀주었다. 당비서는 림희문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허두의 가정형편이며 건강에 대한 질문도 없이 직방 이렇게 물었다.
《이게 아바이가 연구한것이지요?》
《?!…》
희문은 또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마주앉아있는 책상우에 오늘아침 황시우총국장한테 들고갔던 그 도면말이가 놓여있는것이였다. 그것을 집구석에 구겨던져버렸댔는데 어떻게 되여 여기에 와있는지 모를 일이였다.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한 〈T강〉이온질화법》이라고 그가 품들여 먹으로 커다란 각글씨로 쓴것이 눈에 밟혀오자 다시금 속이 떨려났다.

당비서가 손바닥으로 구겨진데를 정히 펴면서 또 물었다.

《연구사업에서 손을 뗀지 몇해나 됐습니까?》

《저… 한 10년나마…》

그는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자기와 마주앉은 그 젊은 당일군의 웃음떤 얼굴을 긴장해서 쳐다보면서 그가 내밀어준 담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었다.

《그럼 좀 물어봅시다. 전에 하던 그 연구사업이 왜 실패했습니까?》

《…》

이번에도 그는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해 손에 쥔 담배만 계속 주무럭거리고있었다. 그것을 몇마디로 설명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저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하고 당비서는 미소를 담은 눈빛으로 그를 고무해주며 말했다. 《원래 고집불통으로 소문났댔는데 지금도 주장하고싶은것이 있으면 다 말하십시오. 혹시 억울한 일이라도 있으면…》

《뭐 그럴리야…》

《그럼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험설비조건이 불비하고 기술적착오도 있었습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실험을 승인없이 제멋대로 했다던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당하게 제기해서 해결받을수 있겠는데… 그때문에 림희문이란 사람은 법도 질서도 무시한 극심한 공명주의자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보다 더 험한 평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출세주의자라는…》

《사실 그랬습니까? 출세나 공명을 바라서 그렇게 자의대로 실험을 했습니까?》

《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융통성이 없는 외고집쟁이 곧은목으로서 기어이 성공하고야말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만 집착하여 조직과 집단의 방조도 무시해버린탓에 그처럼 커다란 사고를 일으켰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가 이에 대하여 떠듬거리며 말하자 당비서는 더욱 신중해졌다. 잠시 침묵이 있은후 그가 물었다.

《그때 사고심의를 책임진 사람이 황시우총국장동무라던데…》

《예, 옳습니다. 그땐 소장이였습니다.》

《료해해보니 그가 이 연구제마의 성공을 믿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실험을 중지시킨것이 박필규의 귀띔을 받고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놀라운 일이였다. 어느새 그런것까지 다 료해했는가?… 허나 웬일인지 그 질문에는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1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남을 꺼들고싶지 않았다.

《박필규동무는 사고가 있을수 있다는 위구심때문에 본인에게 말해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지요.》

《그런데도 실험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애써오던 연구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강철재료 연구사업인데…》

림희문은 바싹 말라드는 입술을 혀로 감빨았다.

《실은 바로 거기에 저의 가장 큰 과오가 있다는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덕이듯 말했다. 《사실말이지 제가 무슨 과학자이며 연구사이겠습니까.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자기만을 위해 연구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교화소에서 나온후에도 연구사업을 계속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전… 술만 마시면서 헛살았습니다. 친자식까지 저를 버릴정도로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후 모두가 다 전쟁을 맞받아나가는걸 보면서…뒤늦게나마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걸 포기했겠습니까. 그걸 계속 연구했더라면 지금쯤 새로운 강철재료가 나왔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산당비서는 심각한 낯빛으로 잠자코 듣기만 했다. 희문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저으기 갈앉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온밤 생각던끝에 이제라도 다시 연구를 계속할것을 결심하고 당위원회를 찾아오려고 생각했댔는데 우연히 저 소나골 군수공장에 내려오는 황시우총국장을 보고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오늘요?》

《예, 아침에…》

《그래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그는 믿으려 하지 않더군요. 하긴 그럴수밖에… 그는 전날의 그 무서운 화재사고를 잊을수 없었을겁니다.》

《음— 그렇지만… 도면이야 봤겠지요?》

《예, 보긴 합디다만…》

《…》

당비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희문의 그늘진 얼굴에서 모든것을 다 읽었던것이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였다. 불현듯 당비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급히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출장을 가야겠는데 차시간이 다 돼나서… 그럼 한가지 부탁합시다. 이 도면과 론문을 제가 좀 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걸말입니까?》

《예.》

《?!…》

그는 놀란 눈빛으로 당비서를 쳐다보았다. 다시 미소를 띠우고있는 그에게서 무엇인가 좀더 알아보고싶었으나 차시간이 급한것을 생각해서 먼저 일어섰다. 당비서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안됐습니다. 그새 살아온 형편이랑 구체적으로 들어볼가 했었는데… 집에 들리니 갱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참, 부인도 만나봤는데…몸이 편치 않은것 같더군요. 잘 돌봐주지 못해 안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진정 고마와 머리숙여 인사했다. 당비서는 문밖에까지 따라나오며 그를 바래웠다. 희문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허둥지둥 복도를 거쳐 현관문으로 나섰다. 어느새 밖은 어둑스레해졌다. 교대를 마친 로동자들이 문화회관쪽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주로 청년들이다. 오늘밤 광산청년들의 궐기모임이 열린다고 했었다.

날씨는 그새 더 차졌다. 비암산너머 먼 하늘가에서 별들이 떨고있었다. 산굽이쪽에서는 광차 구으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둘러선 담장쪽으로 걸어갔다. 문화회관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한패 또 한패 떠들썩하며 마주오고있었다. 대체로 인민군대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였다. 그들가운데서 한 처녀의 목소리가 특히 귀에 익었다.

《나두 결의했어요. 오늘 초급위원회에 정식 제기한걸요!》

《그럼 압축긴 누가 운전하구?》

《명복이가 있잖아요?》

《그도 군대에 탄원했는데?!…》

《명복인 안돼요. 눈이 나빠서.》

《동무도 안돼!》

《왜요?》

《동문 어제 기철반장과 결혼식을 하자구 약속하지 않았어!》

《에구마! 이 동무가 정말!》

압축기운전공 창숙이를 둘러싼 젊은이들이 와자하니 웃고 떠들며 문화회관으로 가고있다. 그들 역시 림희문을 지나쳐 누구 한사람 그를 관심하지 않으며 멀어져갔건만 지금 그는 그것을 아프게 생각지 않았다. 그는 멀어져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결혼식은 언제 한대?》

《3월 9일!》

《그럼 오늘이게?》

《뭐? 오늘이 벌써 9일이야?!》

젊은이들과 같이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멀어져갔다.

그는 서둘러 비암산으로 올랐다. 오늘따라 빨리 집에 가고싶었다. 안해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병색이 짙은 안해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쩌릿해졌다. 그 안해에게 때없이 증을 내고 퉁명스럽게 굴어온 림희문이다. 자기의 불같은 성미를 구실로, 자기의 실패와 마음속 아픔을 구실로 그 섬약한 녀인을 계속 괴롭혀왔다. 왜 그랬던가.… 오늘도 역시 그랬었다.

《오늘은 좀…》

아까 안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가. 오늘이 무슨 날이게？… 3월 9일 화요일, 별안간 그는 무엇인가 명치끝을 아프게 찌른듯 몸을 흠칠했다.

3월 9일, 오늘은 바로 안해의 생일날이다！…

생일, 사람마다 자기의 이름이 있듯이 생일이 있고 누구나 다 그것을 기억에 새겨둔다. 이름이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면 생일은 바로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고저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나 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남편이나 안해, 자식과 부모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해주기를 바라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그것을 잊고 살아왔었다. 그런것을 생각하기엔 너무도 큰 아픔이 자기를 짓누르고있다고 여겨왔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령마루로 올랐다. 봄이 시작되였지만 아직도 눈무지들이 다 녹지 않고있는 먼 소나골에서 누기찬 랭기가 밀려오고있었다. 저 아래쪽 골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림희문은 숨을 톺으며 작은 불빛이 내비친 자기 집을 내려다보았다. 힘없는 안해처럼 겨우 호흡하듯이 깜박거리는 작은 불빛이였다.

그는 이제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애달픈 심정에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느꼈다. 광산당비서와의 담화로 하여 그의 마음속에서 자취없이 꺼져가던 인정의 불씨가 되살아나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바삐 걸음을 옮겼다. 간데라의 불빛이 어둠을 헤치며 앞서갔다.

그는 먼저 식료품상점으로 갔다. 상점문을 닫은지 오래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마 빈손으로는 집에 들어갈수 없었던것이다. 상점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하겠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가서 보자. 사정을 말하고 뭐든지 좀 꾸려달라면 누군들 거절하겠는가！…

예견했던것처럼 상점문은 닫겨있었는데 다행히 안쪽 사무실에서 가는 불빛이 새여나왔다. 상점점장이 판매원과 같이 장부를 펴놓고있는것이 들여다보였다. 문을 두드리니 처녀판매원이 나와서 곱지 않은 눈길로 그를 흘겨보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처녀에게는 말하기 쑥스러워 점장을 좀 만나야겠다고 했다. 판매원이 들어가고 한동안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키가 크고 몸이 마른 40대의

녀인인 점장이 나왔다. 림희문을 알아보자 점장이 먼저 말했다.
《왜 또 술때문에 오셨어요?》
《?…》
순간 림희문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말마디들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점장의 그 한마디 말이 자기의 루추해지고 구접스러워진 처지를 낱낱이 드러내보인것이다. 입술이 타들다 못해 목구멍까지 칼칼해났다.
《어서 말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점장이 독촉했다. 밖의 날씨가 차서 어깨를 잔뜩 오그리며 몸을 떨기까지 했다.
《아—아니.》
그는 허둥거리며 몸을 돌려 도망치듯했다. 뒤에서 점장이 무어라고 소리쳤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허겁지겁 꿈속에서처럼 어둠을 헤쳐가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결국 이렇게 볼썽사나운놈이 되고말았는가 하고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얼마후 집에 들어서니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앉아있던 안해가 소리없이 일어나 간데라며 안전모를 받아들었다. 여느때처럼 말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움직일뿐이였다.
방 아래목에 하얀 상보를 덮은 밥상이 챙겨져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상앞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안해가 부엌에 나가 더운 국을 떠담고 들어왔다.
상보를 벗기니 정성을 들여 알뜰하게 차린 저녁상이 나타났다. 그가 좋아하는 모두부, 콩나물, 첫물인 달래도 있다. 명태자반, 닭알부침… 특별히 눈에 띄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피하려 한것 같다. 그러나 모든것이 이채로와보였는데 특히 밥그릇옆에 놓인 술잔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현듯 목이 메는것을 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의 물음에 안해는 반쯤 고개를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요즘 당신이 너무 곤해하길래 좀…》
안해는 이 말도 미리 준비해두었던 모양이다. 눈가의 잔주름이 오늘따라 유별나게 더 깊어보인다. 그 구슬픈 기색이 어린 얼굴에

떠오르는 한줄기 애석의 빛을 보니 가슴이 쓰렸다. 안해는 자기의 생일을 아직 한번도 기억해본 일이 없는 남편이 야속하였을것이다.

《술까지 있구. …》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밀의 병을 들었다. 눈굽이 쿡 쑤시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을 기울여 잔에 붓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으나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쭉 마셔버렸다. 또 한잔 넘치게 붓고나서 안해를 쳐다본다. 여전히 안해는 반쯤 고개를 돌린채 방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다. 해쓱한 얼굴 한쪽이 파리해보인다. 그는 두번째잔도 단숨에 비우고말았다. 그러자 점차 속이 뜨끈해지는것이 알린다.

《오늘 당비서동지가》 하고 안해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눈길은 여전히 방바닥에 떨군채였다. 《집에 오셨댔는데 집살림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더군요. 당신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참 좋은분이더군요.》

《…》

그는 아무말 없이 잠자코 기다렸다. 속에 들어간 술이 내장벽을 덥히며 점차 엷게 퍼져가는것을 느낀다.

《만나보셨수?》

《응.》

또 한잔 가득부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것을 밥상우에 그대로 놓고 물끄러미 안해를 바라보았다. 젊어 한때는 아련하던 안해였건만 지금은 몹시도 늙었다. 그들 내외는 아직 령감, 로친 하고 부르지 않았어도 세월이 남긴 고뇌의 자취는 너무도 짙었다. 어느덧 몸이 쪼들고 어깨가 쑥 삐여지고 흰머리칼이 한벌 덮이기 시작하였다.

불쑥 안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여느때처럼 무슨 구실을 만들어 부엌에 나가있으려는것 같다. 그는 안해의 팔소매를 잡았다.

《앉소.》

안해는 엇비듬히 이마를 파고지나간 주름살을 모으며 그를 불안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은 당신두 한잔 들구려.》

《예?》

안해가 오한이라도 나는듯 몸을 떠는것을 보니 가슴이 저려났다.

《미안하오.》 하고 그는 목구멍에 가득차오르는것을 삼키며 뜨직뜨직 말했다. 《나는 오늘 당신생일인줄도 모르구…》

《？！…》

《정말 나같은 못난이와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그런줄 알면서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일 없으니…》

순간 안해의 두눈에 눈물이 핑 어리는것을 그는 보았다. 그 역시 목이 메여 말이 잘되지 않았다.

《여보, 어서 드오.》

파리한 안해의 얼굴에 모진 경련이 스쳐가는듯했다. 별안간 안해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헉—하고 오열을 터쳤다. 가늘고 좁은 어깨가 바르르 떨리고 밑에 놓인 한손은 장판바닥을 허비고있었다.

그렇다. 순박한 사람들이 바라는 정이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정어린 말 한마디면 되는것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양보하고 리해하고 도와주면 되는것을！… 그런데 그는 한끄물의 정을 주는데도 얼마나 린색했던가. 따뜻한 정으로 돕기는커녕 이 세상 제일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모질었던가！…

그는 안해의 떨리는 손에 잔을 쥐여주었다.

《자, 어서 한모금만 드오.》

술잔이 흔들렸다. 안해는 잔을 들고 눈물이 굻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술잔에 떨어졌다. 안해는 입귀를 비틀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한모금 마셨다. 흘러간 세월에 고이고 쌓인 설음과 눈물도 함께 마셨다. 한모금 또 한모금… 그러다가 별안간 소스라치듯 흐느끼며 잔 든 손을 내뻗쳤다. 림희문은 그것을 받아 상우에 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연깊은 침묵, 회오와 가책이 눈물속에 굻고있는 애틋한 침묵이였다. 그때 방바닥이 가볍게 진동했다. 상우의 술잔이 흔들거렸다. 어느 채굴장에서 발파를 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림희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턴 매일밤 갱에 나갈가 하오. 다들 전투를 벌리는데 할수 있는껏 도와야지 않소.》

안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는데 주름깊은 눈가엔 아직도 진한 눈물이 괴여있었다.

또한번 방바닥이 진동하였다. 이번엔 좀더 큰 발파였다. 림희문은 흔들거리는 술잔을 들어 안해가 남긴것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5

깊은 밤, **김정일**동지께서는 림희문에 대한 보고자료를 읽고계시였다. 《T강》이온질화법에 대한 연구와 그의 가능성여부에 대한 론쟁, 뜻밖의 대화재와 재판, 교화생활, 그후 광산에서의 로동… 나어린 전사 림정산이 왜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결별하였다고 했는지 리해되시였다. 연구사업이고 뭐고 다 줴버리고 술에 취하여 살아왔다는 림희문, 그러나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그는 궤짝속에 구겨넣었던 연구도면을 다시 꺼냈다.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서 공민적자각이 눈을 떴던것이다. 생사가 판가름될 준엄한 싸움을 앞둔 때 자기를 부르는 조국의 목소리를 들었던것이다.

달리는 될수 없는 일이다. 보고된데 의하면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한때 불량행위를 하던 청년들까지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탁상시계를 쳐다보고나서 탁자우에 놓여있는 림희문의 연구론문과 도면에 눈길을 옮기시였다. 도면에 그려진 갖가지 굵고 가는 선들을 주의깊게 더듬어보신다. 이름없는 한 연구사의 곡절많은 후반생이 복잡하게 그려져있는 도면, 이것을 다시 되살릴수 없겠는가?!… 또 시계를 보신다. 인제는 도착할 때가 되였는데… 그이께서는 조용히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고계시였다.

그 시각 반백의 교수, 박사들 세명이 당중앙위원회 허영태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승강기에 오르고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김형우를 비롯한 박사들이였다.

승강기는 가벼운 진동과 함께 소리없이 오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다 아무말 없이 승강기를 동작시킨후 번호판을 보고있는 허영태비서에게 눈길을 모으고있었다.

참으로 묻고싶은것이 많은 그들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슨 일로 자기들을 급히 부르셨는지 아무리 해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국방과 관련된 어떤 중대한 과학기술적문제가 제기된것인지 아니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과업을 주시려는것인지？…그들이 원자력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짐작해볼 여지도 있을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치렬해지고있는 핵문제와 관련한 론난을 그들도 잘 알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 금속재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였다.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생각하는것조차 힘에 부칠지경이였다. 김형우는 숨이 막힌듯 목에 맨 넥타이를 끌러놓고 안면근육을 푸들푸들 떨군하였다. 지난해 조선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흥분을 못이겨 너무 지나치게 입을 꽉 다물고있은탓으로 사진이 딴사람같이 되여버린 그였다. 과학자답지 않게 다혈질인 그는 걷잡을길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타들어 고통스럽게 미간을 찌프리군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도 한순간, 고속승강기는 어느새 스르르 멎었다.

문이 열렸다. 그들은 허영태비서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섰다. 넓고 긴 복도였다. 새하얀 벽, 기하학적인 곡선을 지은 굽인돌이 장식, 적갈색의 윤기나는 문들, 한참동안이나 복도를 걸은것 같았다. 아무 소리도 없이 구름속을 헤염쳐가듯했다. 이윽고 어느 문앞에서 허영태비서가 걸음을 멈추었다.

(이 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되자 갑자기 귀속에서 웅―하는 소리가 날만큼 깊은 적막속에 빠져드는듯했다. 언제,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그들은 밝고 고요한 방으로 물속에서처럼 걸어들어갔다.

책임서기가 그들을 맞아주었다.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책임서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보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문이 열렸다. 밝고 후더운 광채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허영태비서가 부르심을 받은 과학자들이 왔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언제인가 익히 들어온듯싶은 친근한 음성이 그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어서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그들을 향해 마주 나오고계시였다. 빠르면서도 활달하신 걸음새, 환하신 미소…
허영태비서가 그이께 사람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들 매 사람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이어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드리는 그들을 탁자에로 손잡아 이끄시였다.
《이렇게 밤늦어 오게 해서 안됐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짬을 낼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에게 탁자옆의 의자들을 권하시였다. 탁자우에는 여러가지 서류들과 도면말이 그리고 낡은 종이묶음도 놓여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부탁이라니？ 혹시 어떤 중요한 연구과제를 주시려는것인가？！…
《얼마전 내가 한 인민군부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림정산이라고 하는 나어린 전사를 만나보았는데 그가 아버지와 결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금속재료연구사였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교화생활까지 했던것입니다. 그때문에 성미가 이지러진 아버지여서 전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게 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조국보위초소에 나선 나어린 전사가 마음속에 이렇듯 큰 아픔을 안고있으니…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좀 료해해봤는데… 이걸 보십시오.》
반백의 교수, 박사들은 모두 그이께서 펼치시는 도면에 눈길을 모았다. 누르끼레해진 종이우에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한 〈T강〉

이온질화법》이라고 정히 먹으로 쓴 글자들이 눈에 띄였다. 오랜 세월 어디엔가 구겨박혀있던 낡은 도면이였다.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 연구사는 행정적으로 실험을 중지시켰는데도 제멋대로 몰래 실험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밖에 일어난 화재사고로 막대한 물적손실과 인명피해까지 냈습니다. 그때문에 과오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화생활을 마친후 일시 연구사업을 다 포기해버렸던 그는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자기를 되찾고 이 연구론문과 도면을 또 꺼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사고가 있었고 가슴아픈 곡절도 겪은 그였지만 기어이 이것을 성공시켜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좀 늦기는 했지만 다시 새롭게 일떠선 그 마음이야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이의 음성에는 무엇인가 온몸을 진감시키는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 과학자들은 말로써는 다 형용할수 없는 격동에 몸을 떨었다. 김형우는 탁자모서리를 너무 힘주어 틀어잡고있은탓으로 팔근육이 터져나갈듯했다. 그와 나란히 앉은 두 박사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러대고있었다.

《그 연구사는》 하고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림희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벌써 60을 넘겼습니다. 한때는 귀중한 연구성과로 나라의 기술발전과 국방공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동무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연구사업에서 유리되여있다보니 남들이 말하는것처럼 꿈을 꾸고있는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구론문이 아직 공상에 불과한것이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국가에 끼친 막대한 물적손실을 보상할 자신이 없는것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일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래일 우리 나라 국방공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새로운 강철재료를 만들 현실적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라는것만 찾아도 됩니다. 그것을 찾아 실패하고 버림받은 한 과학자, 한 연구사의 마음속 그늘만이라도 가셔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있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꽉 메였기때문이였다. 뜨거운 물줄기가 가슴속에서 엇갈리며 세차게 고패치고있었다.

《이것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이께서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당 부서를 통해 부탁할수도 있었지만 이번만은 내가 직접 말해주고싶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느 한 강철재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운명문제, 다시말하여 한 인간의 삶을 건져주느냐 아니면 버림받은채로 내버려두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생 당을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실패하고 곡절을 겪고 구겨박혔다 해서 돌아보지도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데… 그들도 과학자, 기술자들일진대 어찌 그럴수 있겠습니까.…

그를 건져줍시다. 버림받던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안겨주고 군복입은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돌려줍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립장에서 이 연구론문을 대해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부탁하고싶은것은 이게 다입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이상은 누구도 더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가슴이 들뛰고 호흡은 헝클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구름우에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 올라선 느낌이였다. 그들이 앉아있는 이 방은 비록 크지 않고 호화스럽지도 않았지만 숭고한 정신이 밝은 빛으로 꽉 들어차있었다. 하여 그들은 한껏 넓어진 가슴에 그 빛과 정신을 맑은 공기처럼 들여마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 허영태비서를 돌아보시였다.

《검토가 끝나면 즉시 나한테 알리시오. 아무때라도 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태비서를 따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그 빛나는 미소와 함께 그들모두를 차례로 손잡아주시였다. 그리고는 문밖에까지 따라나오며 그들을 바래주시였다.

이윽고 그들 반백의 교수, 박사들은 당중앙위원회청사 정문을 나섰다.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렷이 솟아있는 당중앙위원회청사, 불켜진 방들은 많지 않았다.

어느 방이였던가？！…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했던것처럼 머리를 돌려 그 정든 불빛을 찾아보았다.

싸늘한 밤바람이 콕콕 살을 찌르며 불어쳤다. 가로수들이 앙상한 우듬지를 떨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도록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듯 하염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저 밝은 불빛흐르는 창가에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분이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계시는것이였다.

과학자들이 돌아간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탁자우의 서류들을 허물기 시작하시였다. 서류들은 많았다. 얄팍한것, 두툼한것, 펜으로 쓴것, 타자를 친것, 인쇄한것, 봉투속에 넣은것, 사진들만 묶은것… 그것은 단순한 서류더미가 아니라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이 응축되여있는것이였다.

작가문제도 있다. 영예군인 시인 김시권의 창작 및 정치선동사업조건보장에 대한 문제이다.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어제도 오늘도 시를 읊으며 승리에로 부르는 시인, 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아도 온 나라가 그것을 듣고있다. 그의 심장의 웨침은 그대로 불길이 되여 천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반신마비인 영예군인 시인에게 즉시 승용차를 보장해줄데 대하여 달필로 써놓으시였다. 이어 여러통의 편지들가운데서 하나를 먼저 펴드시였다. 이름난 비행사, 전쟁로병 리학이 올린것이였다. 우리 나라 인민공군의 첫 건설자의 한사람인 리학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적들의 아성에 돌입하겠다고 하였다.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육탄이 되여 싸울것을 맹세한 이 전쟁로병은 지금 70을 넘긴 나이이다. 그이께서는 또박또박 정히 박아쓴 그의 편지를 거듭 읽으시였다.

지금 온 나라에는 총폭탄정신이 차고넘치고있다. 지난해 11월 인민군대안의 박용철 8형제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여덟자루의 총대가 되고 폭탄이 될 결심을 다지자 온 나라

청년들이 이에 목소리를 합쳤다. 그리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자 전국의 500만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총폭탄이 될것을 맹세다졌으며 벌써 160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좋다. 온 나라 인민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침략자들과 결판을 벌리기 위해 준비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맨끝쪽의 전화기를 끄당겨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부부장동무, 로병대회준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상대방은 좀 힘들게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사업을 맡은 동무들이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좀 주저하고있었습니다.》

《주저하다니?》 하고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아마 그 동무들은 전쟁이 박두했다고 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전쟁을 하면 백날천날을 하겠는가!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로병대회도 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래서 사업을 계속 내밀도록 말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회준비사업에서 무엇이 제일 걸려있습니까?》

부부장은 대표선발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걸렸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로가 많은 대상들만 해도 한 1만명정도는 선발해야 할것 같다고 하였다.

《1만명?》

《예, 잘 짜고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악된 로병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십만명이나 됩니다.》

《그럼 그 인원을 다 참가시킬수는 없겠습니까?》

《예? 수십만명 전부를 말입니까?》

《왜 놀랍니까? 수십만명이 뭐 그리 대단한 수자이기라도 합니까?… 생각해보시오. 지금 수많은 전쟁로병들이 당을 받들어 전화의 그날처럼 살며 일하고있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된 로병분조, 로병지원대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이지 한생을 다 바쳐 당을 받들어오는 그 마음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중 누구는 대표로 참가시키고 누구는 빼놓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들모두를 다 참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을 이기고 전국의 수십만 로병들이 다 참가하는 로병대회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책임서기가 들어와 부르심을 받은 작전국 부국장이 도착하였다고 보고드렸다. 그이께서는 더미로 쌓여있는 서류들에 얼핏 눈길을 주시였으나 곧 머리를 돌리며 말씀하시였다.

《들여보내시오.》

좀전에 그이께서는 작전국장으로부터 오영범의 새 작전안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신것이였다. 비록 자그마한 려단의 도하작전이였지만 그이께서는 거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계시였다.

6

그날 오영범은 려단을 인계하고 총참모부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너무도 의외의 일이여서 처음엔 그것을 믿을수가 없었다. 다른때도 아닌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여 전군이 진지를 차지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있는 때에 전투부대의 지휘를 넘겨주고 소환된다는것은 비상조치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작전국에서 내려온 대좌가 려단을 인계받았다. 박격포신같이 굵고 단단한 오영범과 대조적으로 키가 훤칠하고 코마루가 날카로운, 첫인상에 벌써 령활한 지휘솜씨를 가졌으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였

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 땅크련합부대의 작전참모였다고 한다. 오영범을 대신하는 기계화보병려단의 지휘관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닐수 없다. 오영범은 가슴이 저려나는것을 누르며 려단을 인계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공식적인 말 이외에는 일체 다른 말은 비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럴새도 없었다. 려단의 전체 땅크구분대들과 장갑보병구분대들은 공격출발위치에 진출하였고 지휘관들은 지휘감시소에서 전투명령을 기다리며 밤을 밝히고있었다.

오영범은 인계가 끝나자 지휘감시소에 있는 려단정치위원, 참모장들과만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다. 철갑모를 쓰고 위장풀까지 꽂은 려단정치위원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려단장동무와 같이 본때있게 싸워보려 했는데… 이렇게 됐군요. 왜 려단장동물 갑자기 소환하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영범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알수 없어 정치위원은 물론 려단참모장도 어쩔바를 몰라했다. 승급이라면 뜨겁게 축하하고 설사 처벌을 받고 소환되여간대도 고무적인 인사말은 얼마든지 생각해낼수 있을것이나 지금 그들은 자기네 려단장이 왜 석별의 정도 변변히 나누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를 떠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오영범은 딱해하고 어색해하는 그들의 표정을 대하기가 괴로왔다. 당황해하며 어정쩡한 미소를 띠우고있는 그들과 되도록 눈길이 마주치지 않도록 애쓰며 그는 서둘러 악수를 하고 차에 올랐다.

골마다에서 위장풀로 뒤덮인 땅크와 장갑차, 수륙차들이 병렬전개대형을 짓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려단장의 승용차를 묵묵히 바래우고있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려단장이 새 전투명령을 받으러 어데론가 차를 달려가고있는줄로만 알고있을것이다.

오영범은 눈시울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설핀 저녁해빛이 장갑보병들의 철갑모에서 번쩍이는것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려단은 그의 사랑이였고 희망이였고 삶의 전부이기도 했다. 려단을 떠나서 그는 그 어떤 기쁨도 알지 못했다. 그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깡그리 쏟아부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작별의 인

사도 없이 려단을 떠나간다.… 왜 무슨 일로 려단을 떠야만 하는가?… 그는 강심을 먹고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려단의 도하공격을 전혀 새롭게 진행할 작전안을 짰다. 그것을 총참모부에 올려보낸지 사흘째이다. 아마도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 같다. 새 작전안이 부결되고 그를 려단장의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을것이다.…

그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앞을 내다보았다. 매일같이 오가던 길과 다리, 골짜기의 내물이며 소나무숲, 츠렁바위와 뙈기밭들이 서둘러 마주 달려와서는 뒤로 지나갔다. 사무치는 애정 없이는 바라볼수 없는 땅크포탑들, 마지막 골어귀를 지나면서 그는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승용차는 오불꼬불한 산협길을 달리고있었다. 갑자기 오영범은 허리를 쑥 내밀며 앞을 바라보았다. 가철식자동보총을 쥐여총하고 배낭과 여러가지 장구류들을 둘러멘 위장복차림의 병사들이 길 한쪽에 주런이 늘어서있었다. 려단정찰병들이였다. 려단장의 차가 가까이 가자 맨앞쪽에 서있던 소대장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오영범은 얼마전 밤하늘을 날면서 낯을 익힌 병사들을 알아보았다. 최윤두라고 하던 익살군 무선수 하사도 눈에 띄였다. 그는 차를 멈춰세웠다.

《중위동무, 이건 뭐요?》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그는 례의 그 강경한 어투로 윤철에게 물었다.

《려단장동지!》 하고 윤철이 말했다. 《중위 윤철외 26명 려단장동지와 작별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작별인사?》

《그렇습니다, 려단장동지!》

소대전체가 이렇게 목소리를 합쳤다.

《려단장동지!》 하고 최윤두가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린 려단장동지가 직접 우리와 같이 하늘을 날던것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오영범은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최윤두를 향해 한결 낮아진 음성으로 《어떻게 알았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익

살군 최윤두는 너부죽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표정을 띠웠다.

《우리야 정찰병들이 아닙니까!》

오영범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리고는 정찰병들을 차례로 훑어보면서 또 한사람의 낯익은 모습을 찾아보았다.

림정산은 대렬 맨 끝쪽에서 새끼노루를 부둥켜안고있었다. 오영범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왜, 그걸 계속 안고다닐 작정이요?》

《아닙니다, 려단장동지!》 림정산은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것이 기뻐 챙챙한 목소리로 재빨리 대답했다. 《이제 곧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젠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

《예, 그런데 려단장동지…》 하고 정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려단장동지앞에서 놓아주어도 되겠습니까?》

오영범은 전사의 두눈에서 샘물같이 끓고있는 미소를 보았다. 아마도 그는 정찰소대전체가 정성을 기울여 완쾌시킨 새끼노루를 좀더 의미있게 놓아주고싶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오.》

오영범의 말이 떨어지자 정산은 가까이에 있는 동무들을 향해 씩 웃으며 품에 안고있던 새끼노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잔등을 몇번 쓸어주고나서 산기슭으로 떠밀었다.

《자, 이젠 집으로 가라!》

새끼노루는 한달음에 껑충 뛰면서 애솔포기를 타고넘었으나 웬일인지 걸음을 멈추고 정찰병들을 멀거니 보고있는것이였다. 정산이 소리쳤다.

《가라 가!… 어서 가라는데!》

그러나 그놈은 여전히 머리를 쳐든채 한동안 이쪽을 보고있다가 급기야 몸을 돌려 후닥닥 뛰면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영범은 전사들과 같이 새끼노루가 사라져간 숲속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전체 정찰병들을 둘러보면서 정산의 어깨를 툭 쳐주었다.

《자, 그럼 동무들! 잘 싸우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려단장동지!》

오영범은 차에 올랐다. 전체 정찰소대가 그에게 경례를 하였다. 승용차는 그들의 앞을 지나 차츰 속도를 높였다. 오영범은 정찰병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려단장동지！—》

누군가 또 소리쳤는데 림정산의 목소리같았다. 오영범은 어느덧 멀리 뒤에 남은 그들을 돌아보며 저도 모르게 입귀를 실룩거렸다. 실로 오래동안 오영범은 저 병사들의 이름도 모르고 살아왔었다. 그들은 그저 오영범이 지휘하는 기계화보병려단 수천명 병사들중의 한사람이였을뿐이였다. 오영범은 언제나 용감한 대대장들과 중대장들만을 관심했고 그들만 꽉 틀어쥐면 된다고 생각해왔었다. 련합부대를 지휘하는 그로서 개별적병사들까지 기억에 새겨둘 리유는 없었고 또 그럴 여가도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여 저 병사들과 오영범을 남다른 인연으로 맺아주시였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과 복종, 상하관계만이 아닌 사랑의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였다.

그는 려단장으로 있은 전기간의 가지가지 일들을 두서없이 돌이켜보며 바위처럼 앉아있었다. 군단지휘부까지 언제, 어떻게 가대였는지도 알지 못했다. 군단장 김대웅이 그 바쁜속에서도 오영범을 위해 우정 시간을 내주었다. 김대웅은 키가 크고 몸집도 우람한 사람이였는데 성격은 온화하고 침착하였다. 오영범이 존경하는 상관들중의 한사람인 그는 인계인수정형이며 오영범의 심리상태에 대해서까지 관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전부터 작전국에서 능력있는 일군을 물색한다더니만 혹시 거기서 쓰려고 동물 소환해가는게 아닐가？…》

오영범은 말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온화한 얼굴에 떠오른 미소와 장령모밑의 희슥희슥한 귀밑머리를 여겨보며 명치끝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김대웅중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영범의 담찬 기질과 내밀성을 칭찬하였고 오영범이야말로 진짜 싸움군이라고 말해왔었는데 지금은 그한테서 동정어린 말을 듣게 되였던것이다.

《군단장동지！》 하고 그는 차렷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어쨌든 전 다시 부대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대를 지휘해도 좋고 중

대를 지휘해도 좋습니다. 기어이 다시 부대로 돌아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오.》

오영범은 자기 차를 돌려보내고 군단대기차들중의 하나인 《갱생》을 타고 총참모부로 향했다. 운전사도 전혀 낯모를 사람이여서 오래도록 한마디 말도 없이 갔다.

해질무렵이였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가 멀리 들판 한끝에 병풍처럼 둘러선 산봉우리들을 맥없이 불태우고있었다. 지난해의 말라버린 강냉이그루터기들이 널린 등성이우로 뜨락또르 한대가 재채기처럼 탕탕탕 허연 연기를 토하며 힘겹게 오르고있을뿐 사위는 한적하고 쓸쓸했다. 산경사면에서는 어느새 이른봄의 땅거미가 잡관목들을 뒤덮고있었다.

오영범은 툭 불거져나온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끄떡없이 앉아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사위가 어두워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날에 려단을 떠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였는가?… 장령별을 달고 처음 이 길을 달려오던 때가 어제같다. 자기 말은 려단을 총창처럼 벼리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 했건만… 준엄한 싸움의 날이 오면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려고 했건만!… 그는 김대웅군단장이 말한 그러한 소환을 믿지 않았다. 작전국에는 오영범과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날이 선 장검과 같다는것을, 그리하여 일단 칼집에서 뽑아들면 무엇이든 썩둑 베여던지던가 아니면 칼날이 무디여 다시 벼리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칼집에 꾹 박혀 녹이 쓸고있기보다는 그대로 바위를 쳐서 무디여버리는편이 낫다고 여기는 그였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장검은 시범도하훈련의 《실패》로 하여 날이 무디고말았던것이다.

무력부청사에 도착했을 때엔 한밤중이였다. 총참모부작전직일관이 그의 도착에 대하여 어데인가 보고하였다. 그쪽에서 그를 들여보내라고 한것 같았다. 전투복차림을 한 중좌가 그를 안내하였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가 거기에서 계

단을 올라갔다. 계단 몇개를 올라서는 길다란 복도 한끝까지 또 말없이 걸어갔다.

《이 방입니다, 소장동지.》

중좌가 한 말이였다. 그 방안에 그를 부른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다.

《수고했소, 중좌동무.》

오영범은 그가 거수경례를 붙이고 물러가자 방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키가 큰 대좌가 그를 내다보면서 나직이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총참모장동지가 지금 기다리고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총참모장의 방문앞에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키가 큰 대좌는 총참모장의 서기일것이다. 그는 서기를 따라 방음장치가 된 두터운 문안으로 들어갔다. 서기실을 거쳐 총참모장의 방에 들어서니 저 멀리 커다란 탁자앞에 마주앉아있는 총참모장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였다. 총참모장이 눈길을 드는 서슬에 밝은 불빛이 도수높은 그의 안경알에서 부서지며 흐트러졌다. 오영범은 그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며 규정의 보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때 총참모장이 짧게 말했다.

《가까이 오시오.》

그 목소리는 아득히 먼 하늘가에서 울려오는듯하였다. 오영범은 몸에 밴 군사적동작으로 재빨리 그의 탁자앞에까지 걸어갔다. 그리고는 눈언저리가 깊이 패인 그의 검누르끼레한 얼굴을 바라보며 또 거수경례를 하였다.

《총참모장동지, 소장 오영범 명령대로 도착하였습니다.》

《앉소.》

오영범이 머뭇거리며 그대로 서있자 총참모장이 피끗 눈길을 들었다. 오영범은 모자를 벗어들며 탁자 한끝에 공손히 자리잡고앉았다. 그는 아직 이토록 크고 엄엄한 방안에 앉아본 일이 없다. 무릎우에 모자를 놓고 그는 앉아서도 몸을 꿋꿋이 펴고있었다.

총참모장은 탁자우에 지도를 펴놓고있었는데 아직도 커다란 확대경이 손에 들려있는것으로 보아 지도작업을 하고있은것 같았

다. 그가 물었다.

《려단을 인계했소?》

《예.》

《제기된것은 없소?》

《없습니다.》

《좋소. 그럼 가서 쉬오.》

《?!…》

오영범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했다. 그는 총참모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를 쉬게 하려고 려단을 인계시키고 총참모부에까지 불렀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 전군이 결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 기다리고있는데 총참모부객실에 불러다 휴식을 시키다니?!… 온갖 무서운 의혹심이 그의 머리속에서 고패쳤다. 하여 그는 손에 쥔 장령모를 꽉 움켜쥐며 불같이 속삭이였다.

《총참모장동지, 한가지 문의할수 있습니까?》

《뭐요?》

《저를 왜 여기 불러왔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지시에 대하여 사소한 의문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알았습니다!》 하고 집행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한두등급이상의 상관도 아닌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지시임에야 말해 무엇하랴! 가서 쉬라면 쉬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방을 나서고싶지 않았다. 설사 처벌을 받을지언정 사정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 자리를 뜰수 없었다. 모가 진 아래턱을 쑥 내밀고있는 그의 완강한 표정을 눈여겨보던 총참모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묵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물 부르시였소.》

《예?!》

《동무가 올린 새 작전안을 친히 보아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즉시 동물 총참모부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시였소.》

《?!》

오영범은 가늘게 몸을 떨었다. 순식간에 온몸이 옥죄여드는듯하였다. 결국 그가 올린 작전안이 문제로 된것이였다. 그토록 심혈을 쏟았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 높이에 끝내 이루지 못한것이였다. 어느새 눈앞이 뿌예지고 목에서는 경련이 일었다.

《더 물을게 있소?》

총참모장의 물음이였다. 오영범이 한자리에 굳어진채 목석같이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그럼 가서 쉬오. 아침에 다시 부르겠소.》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방을 어떻게 나섰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언제부터였는지 아까 그를 데려왔던 전투복차림의 중좌가 그를 객실에까지 안내해주었다.

7

날이 밝기전에 오영범은 총참모부작전직일관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소장동지,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는 깍듯이 말했다. 《총참모장동지가 부르십니다. 5분후에 정문현관으로 나와주십시오.》

《알겠소.》

밤새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이 시각을 기다려온 오영범이였다. 벌써 두시간전부터 담배연기로 방안을 꽉 채우며 줄곧 서성거려온 그였으므로 그 5분을 보내기가 물속에서처럼 참기 어려웠다. 그는 안타까울 지경으로 더디게 움직여가는 손목시계의 초침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다가 3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문을 차고 뛰여나갔다.

총참모부청사 현관앞에 검은색 중형승용차와 작전국 무선통신차가 대기하고있었다. 잠시후 총참모장 최광차수가 나왔다. 그는 오영범이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자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

하면서 승용차쪽을 눈짓했다.

《타시오.》

오영범은 총참모장과 같이 차에 올랐다.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을 했고 지나친 긴장감에 목줄띠가 아프게 죄여들었다. 그는 이 어뜩새벽에 어데로 무엇하러 가는지 묻고싶었으나 입을 꾹 다물고 앞좌석에 꼿꼿이 앉아있었다.

이윽고 승용차는 어둠이 깔린 청사앞마당을 떠나 불꺼진 가로등들이 거밋거밋 드러나보이는 길을 미끄러져갔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무장보초가 영접들어총을 하는것이 보였다. 승용차는 전조등도 켜지 않고 그앞을 지나 달려갔다.

수도의 거리들에도 불빛 하나 없었다. 드물게 오고가는 차마저 속도를 죽이고 빨간 후미등만 껌벅거릴뿐이였다. 어둠에 잠긴 골목길과 네거리의 지하건늠길들에서 바삐 움직이는 적위대원들의 자태가 얼씬거렸다.

준엄한 준전시상태를 말해주는 엄엄한 정경이였다. 하늘에서는 탐조등의 광망이 길게 서로 교차되면서 천천히 움직여갔다. 이윽고 승용차는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꽉 들어차있는 숲속의 길로 꺾어들었다.

오영범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꾹 깨물면서 앞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눈밝혀보아도 지금 자기가 어데로 가는지 알수 없었다. 처음엔 혹시 총참모장과 같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러 가게 되지 않을가 하는 엄청난 희망과 기대에 가슴이 뻐근할 지경이였는데 곧 도리질을 하고말았다. 이렇듯 이른새벽에 그이를 만나뵈러 갈수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한번도 와본적 없는 전혀 생소한곳이다. 지금 우리는 어데로 가는것인가. 총참모장동지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것인가?…

어둠속에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키높은 백양나무의 하얀 껍질들이 분간되였다. 가지를 높이 펴든 나무우듬지들로 하여 하늘은 비좁게 보였다. 그러나 곧 커다란 공지가 나졌다. 오영범은 공지한가운데 서있는 직승기를 보았다.

잠시후 그는 총참모장과 같이 차에서 내렸다. 3월의 이른새벽은 차고 습하였다. 어둑컴컴한 숲속의 공지는 웬일인지 장엄하고

준엄한 정적에 잠겨있는듯했다. 그때 갑자기 멀지 않은곳에서 고동소리가 길게 울리며 키높은 나무우듬지들너머에서 불그레한 화광이 번져왔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등화관제훈련이 끝나 일제히 불을 켰던것이다. 그런데 총참모장 최광은 그 모든것에 무관심했다. 변함없이 단정한 자세로 그들이 달려온 숲속길을 바라보는데 이따금 차디찬 별빛에 안경알이 번뜩이군하였다. 오영범은 입을 벌리고 차고 누기찬 숲의 향취를 거듭거듭 들여마시고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의 공지로 강렬한 승용차의 전조등불빛이 날아왔다. 굵다란 나무가지사이를 꿰지르며 창살같이 비쳐들더니 곧장 두눈을 때리며 가까이 오고있다. 총참모장이 급히 몸자세를 바로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오！》

순간 오영범은 마치 심장이 경련을 일으킨듯 흠칠하였다. 여기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눈시울을 실룩거리며 강렬한 불빛을 향해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짧은 경적소리에 이어 바람같이 질주해오던 승용차가 멎었다.

이윽고 차문이 열리며 간편한 솜옷을 걸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오시였다. 총참모장이 거수경례를 붙이며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오래 기다렸습니까？》라고 하시며 손을 내미시였다. 다음 순간엔 벌써 차렷자세로 굳어져있는 오영범에게로 몸을 돌리시였다.

《아 오동무, 반갑소！》

오영범은 순간 주위가 환히 밝아진것처럼 느껴졌다.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에 이른봄의 차고 눅눅한 대기도 한결 푸근해진듯싶었다. 온몸을 감싸주는 밝고 따스한 불빛, 볼편에 훗훗하게 안겨지는 실안개, 그는 가슴을 들먹이면서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부르짖었다.

《오동무, 그새 수고가 많았소.》 하고 그이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동무가 고심하여 만든 새 작전안을 보았는데 아주 잘되였소. 특히 적의 화력이 집중될 배뗴다리로는 빈차들을 통과시키고 전체 장갑보병대대들을 일시에 적구종심에 투하하게 한것은 대담한 구상이였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시작과 끝이 동시

에 벌어지는 전격전이요. 그래 착상을 어데서 얻었소?》
《최고사령관동지! 그건 제가 정찰병들과 같이 탑승하면서 그 동무들한테서 귀띔받았습니다.》
《음— 그렇단말이지. …》 그이께서 의미있게 웃으시였다. 《좋소, 그새 작전적으로도 키가 컸거든! … 하지만 자만해선 안되오. 그래 내가 오래전부터 손때묻혀 키워온 오영범이 거기에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좀더 판을 크게 벌려 본때있게 해봐야지. 안그렇소, 오동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알겠습니다. 더 대담하게 판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그럴줄 알고 동물 불렀소!》
행복도 너무 숨가삐 차례지면 아픔처럼 느껴진다. 오영범은 심장에 꽉 들어차는 크나큰 행복감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 그를 손잡아 이끄시였다.
《자, 오늘은 우리 같이 하늘을 날아보기요. 오동무도 인젠 군사가로서 키가 컸는데 려단범위에만 머물러있겠소? 90년대장령답게 천하를 굽어봐야 할게 아니요!》
《! …》
오영범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실팍진 어깨를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걷잡을수 없이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눈굽이 쿡쿡 쑤시고 후더운 물결이 가슴속으로 넘치게 흘러들었다. …
얼마후 최고사령관전용직승기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고르로운 발동소리가 온몸을 가볍게 울리며 끝없이 계속되였다. 아직도 날은 밝지 않았다. 지평선우에서는 은모래같은 별들이 쉼없이 설레이고 무겁게 내려앉은 시꺼먼 하늘이 빙그르 돌아갔다. 직승기가 선회할 때마다 하늘전폭을 엇비듬히 가르며 흘러간 은하수도 꼬리를 길게 끌며 따라서는듯했다.
오영범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앉아계시는 둥그런 시창결의 쏘파앞 기실벽쪽에 자리잡고있었다. 총참모장 최광은 장군님 가까이 앉아있었고 그들과 동떨어진 기실앞쪽의 무전대에서는 작전국의 통신참모와 무선수가 자기들의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었다. 이따금 처녀무선수의 가는 목소리가 들려오군하였다.

《나는 〈비로봉〉, 〈물새〉 들으라. 좌표 열하나 ―공셋,열다섯― 공일곱 선회하라. 수신!》

오영범은 그 소리를 들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호위하는 추격기편대들이 어데선가 날고있는것이라고 짐작했다. 총참모장의 긴장한 눈빛이 자주 무전대쪽으로 돌려지군했는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하늘에 날아오른 그로서는 아무리 해도 그이의 신변안전에만 신경이 써지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기계화련합부대의 기동에만 주의를 집중하고계시였다. 눈아래의 어둠에 잠긴 대도로우로 무수한 불빛들이 흘러가고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철길우로는 위장포를 씌운 군용차들이 내달렸다. 밤새 나라의 모든 전략적도로와 철길우에서 최고사령관명령 제0034호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의 대규모적인 전술적기동이 벌어진것이였다.

드넓은 벌과 야산으로는 땅크들이 내달리고 여러 갈래로 뻗어간 도로우에는 포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것들은 비록 안타까울 지경으로 속도가 느려보였지만 끝없이 잇대여진 그 흐름에서는 머지 않은 판가리격전의 숨결이 느껴졌다. 지금 북으로,남으로 수많은 정예부대들이,헤아릴수 없이 많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이 피할길 없는 충돌을 맞받아 내닫고있는것이였다.

오영범은 지금 자기가 하늘에 올라 땅우에서 벌어지는 기계화련합부대들의 대기동을 관망하고있다는것이 어쩐지 꿈결같이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바로 저 땅크와 장갑차들이 내닫고있는 제일선이라고 믿어왔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제는 땅우에서만 맴돌지 말고 천하를 굽어보라고 하시였다. 아마도 그것은 작전가로서의 그의 성장을 바라는 깊은 뜻에서 하신 말씀이였는지도 모른다.

차츰 희붐한 새벽빛에 지상의 움직임들이 더욱 뚜렷이 안겨오기 시작했다. 땅크의 무한궤도가 말아올린 먼지구름도 분간되였다.

그때였다. 오래도록 시창밖을 내려다보고계시던 그이께서 오영범에게 눈길을 주시였다.

《오동무,지금 무슨 생각을 하오?》

오영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것을 그이께서는 손짓으로 다시 앉도록 하시였다.

《일없소. 생각한 그대로 말하면 되오.》

《최고사령관동지! 저는…》 하고 오영범은 적중한 표현을 고르느라고 이마의 주름살을 잔뜩 모으고있었다. 《제가 서야 할 위치는 바로 저 돌격선의 맨 앞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비둘기 마음 콩밭에만 가있다더니…》

그이께서 소리내여 웃으시자 최광도 따라서 안경을 밀어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오동무.》 하고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문장령으로서 지금 저 땅우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을 그저 단순한 부대들의 기동으로만 보아선 안되오. 하나의 움직임을 놓고도 실지 전투에서 써먹을수 있는 작전을 구상해야 한단 말이요. 그러되 이제부터는 작전국의 시점에서 련합부대들을 움직이며 작전을 짜보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이께서는 또 손을 들어 어느새 벌떡 일어선 그를 자리에 앉도록 하시였다. 오영범은 자리에 앉으며 모두숨을 길게 내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오영범이 무엇때문에 자기를 소환했을가 하고 줄곧 점쳐보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그에게 모든것을 말해줄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색해야 한다. 기계화보병려단의 도하작전이라는 작은 울안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공격작전에 숙달되여야 한다. 그것도 단 며칠어간에!… 전쟁은 그의 작전적사고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도약해야 한다. 남들이 수개월 또는 몇해씩 걸려 완성한 일들을 단 며칠동안에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긴장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를 여겨보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도 잘 알겠지만 지금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더욱 엄중해지고있소.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힘과 시간과 정력을 바쳐 전쟁을 준비해야 하오. 그러되 우리의 모든 작전은 어데서 출발해야 하는가? 이번에 오동무도 절실히 체험했겠지만 그것은 언제, 어느때나 군인대중의 정치적자각과 열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최대로

발양하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오. 이건 무슨 말인가?…》

오영범은 물론 총참모장도 자석에 끌리듯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있었다. 그들은 지금 어두운 하늘공간을 날고있다는것을 잊고있었다. 먼 하늘가에서 안개같이 흐르던 은하수의 긴 꼬리가 아득히 멀리 사라져가는듯…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 말씀을 이으시였다. …

한때 엥겔스는 자기의 《폭력론》에서 모든 군사행동과 전략전술은 소요시기에 도달한 생산수준과 교통수단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모든 군사행동과 전략전술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어떤 령장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우수한 무기의 발명과 그것을 생산하는 경제력 즉 물질적수단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령장은 다만 전투법을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전투원에게 적응시킬뿐이라는것이다.

실례로 그는 14세기초 서유럽인들이 아랍인들에게서 화약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사전체에 변혁을 일으켰던 사실을 들었다. 그때까지 난공불락이던 중세기 기사들의 돌성벽이 시민들의 대포앞에서 무너지고 화승총의 탄환이 기사들의 갑옷을 꿰뚫게 되면서 이러한 무기의 출현은 프리드리흐2세식 횡대전술을 완성시켰다는것이다. 그때의 횡대전술은 전체 보병이 3렬로 정렬하여 속이 빈 매우 길다란 4각형의 진을 치고 일제히 질서있게 전진하는것으로서 당시엔 아주 위력한 보병전술이였다.

그후 신식소총이 발명되고 그것은 아메리카독립전쟁시기 영국인들을 반대하여 싸운 반란부대의 산병선전술을 낳게 하였다. 영국인들이 넓은 평지에서 횡대전술로 굼뜨게 이동할 때 반란부대는 숲을 엄페물로 하고 그속에서 민활하게 행동하였던것이다. 이렇게 그는 무기의 변화가 새로운 전투법인 산병선을 발명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여 모든 군사행동, 전략전술은 물질적수단에 기초하여 점차 새롭게 발전하면서 이후의 종대대형, 종대와 산병선의 결합을 낳았고 나중엔 로씨야의 쑤워로브장군이 알프스원정때 적용하였고 그후 나뽈레옹에 의하여 완성된 공격전의 2대전술 즉 공격수단의 집단적사용과 공격수단의 기동성을 발명, 완성케 했는바 이것들은 다

당해시기의 생산수단과 교통수단에 전적으로 기초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물론 그의 리론은 력사상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무게있는 과학리론적근거로 안받침되여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의 창조와 적용까지 다 새로운 물질적수단의 발명에 기초한다는 리론에는 동의할수 없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식무기의 발명이나 교통수단의 발전만이 새로운 전법을 낳게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혁명전쟁의 실천적경험이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주체적군사전법들을 놓고 보아도 인민대중, 군사대중의 비상한 정치적 자각과 열의 그리고 그것을 최대로 발양시키며 제때에 적극 활용하는데 의해서 보다 새롭고 풍부한 전략과 전술이 창조된다고 우리는 확신하는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비행기사냥군조운동, 갱도전전술, 이동포, 저격수활동,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린것 등이 새로운 무기의 발명에 기초했는가? 현대포위작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대전해방전투때 적의 퇴로와 증원을 막기위해 하루밤사이에 한개 부대를 적의 배후에 진출시킨것이나 적후에 제2전선을 펼데 대한 비상한 작전이 발전된 교통수단에 의존한것이였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 군인대중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열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최대로 발양시킨것이였다.…

어느덧 오영범은 황황 불길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그는 앞으로 툭 불거져나온 가슴을 풀떡거리며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담아 새겨듣고있었다. 총참모장 최광도 늙은이답게 두눈을 슴벅거리며 무엇인가 깊이 그리고 끈덕지게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내가 오늘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고 그이께서는 새벽빛이 엷게 비껴가는 기창너머를 스쳐보며 말씀하시였다.

《지금 적들은 초대형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함선집단과 핵동력유도탄순양함 〈캘리포니아〉호 함선집단 그리고 핵전략폭격기 〈비－1비〉와 스텔스전투폭격기 등 고도기술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무력이면 단숨에 우리를 압살해버릴수 있으리라고 망상하고

있소. 하지만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있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여 끝까지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저 일당백군인들과 수백만 청년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는 인민이 있기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힘과 승리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전략과 전술을 세워도 거기에 참가할 인민대중, 군인대중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자각과 열의를 최대로 발양시켜야 하오. 군인대중의 심장을 울리고 움직일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혁명군대의 지휘관, 당과 혈맥이 상통하는 지휘관이요. 이걸 명심하시오. 오동무, 그리고 이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될수도 있소. 우선 작전국 기동작전조에 망라되여 사업하시오. 거기서 《섬광》작전을 연구하시오. 그것때문에 불렀소. 그러니 이제부턴 려단범위에서 벗어나 더 큰 련합부대의 작전에 숙달되여야 하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오영범은 또다시 큰소리로 힘있게 대답올렸다.

3월의 아침은 더디게 소리없이 밝아오고있었다. 오영범은 지상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인제는 모든것이 명백해진듯했다. 김대웅군단장의 예견대로 작전국에 소환된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려단을 이끌어 돌격의 맨 앞장에 달려가고싶었지만 이제 새로운 직무에서 몸과 맘 다 바쳐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해야 할것이다.

긴장한 사색속에서 한동안 시간이 흘렀다. 통신참모가 방금 받은 전문을 최고사령관동지께 가져다드렸다. 그이께서는 전문을 받아들자 심각한 안색으로 그것을 읽고나서 최광에게 넘겨주시였다.

《작전국장이 심상치 않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예?》

최광은 한손으로 안경을 밀어올리며 그이께서 주신 전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하였다. 그를 바라보면서 오영범은 무엇인가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것이라고 짐작했다.

어느덧 지상의 도로우에서는 꼬리를 물고 흘러가던 땅크와 포차들이 어데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날이 밝으면서 기계화련합부대의 기동작전도 끝난것이였다.

시창밖에 눈길을 주고계시던 그이께서 시계를 보시였다.

《돌아갑시다.》

하늘과 땅이 맞붙은 먼 지평선에서 불그레한 노을이 서서히 피여나고있었다.

8

최고사령부작전실은 엄숙한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밝은 불빛에 비쳐진 하얀 창가림도 량옆에 드리운 휘장이나 푸른 주단에 새겨진 빨간 꽃무늬도 그 침묵의 힘에 짓눌려 숨을 죽인듯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승기에서 보시던 적정보고를 다시 훑어보시였다. 그것은 적들이 어제밤부터 극비의 《C³ I (씨3아이)체계》를 발동시켰다는 자료였다.

그이의 맞은편에는 최광이, 왼편에는 작전국장과 정찰국장이 긴장한 자세로 서있었다. 그이께서 손짓하시자 작전국장이 앞으로 나와 적들의 《씨3아이체계》중추기관 및 지부들의 소재지를 말씀드렸다.

《〈씨3아이체계〉는 서울 미8군사령부내 〈탱고〉지휘소에 총본부를 두고있습니다. 다음 이곳 룡산기지의 주한미군핵작전계획부 〈264호실〉에 작전본부를 두고있으며 여기 춘천의 〈캠프 페이지〉기지, 이곳 의정부의 야전포병부와 대구에 있는 공중전자감시소, 부산의 장산레이다중계기지 및 포항, 성소, 원주 등에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이께서 머리를 끄덕이시자 그는 약간 옆으로 비켜섰다.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씨3아이체계》를 서둘러 발동시킨 목적이 어디에 있을가 하고 생각하시였다. 원리적으로 보면 적들이 핵전쟁지휘통신체계인 《씨3아이체계》를 발동시킴으로써 드디여 핵전쟁이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적인것으로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급기야 돌발적으로 가동되고있는데 있다. 그이께서는 최광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총참모장동문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광은 자세를 바로하면서 천천히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드렸다.

《얼핏 보건대 이것은 적들이 핵선제타격을 시도하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벌리고있는 지휘참모훈련의 성격도 핵무기선제타격을 가상한것으로서 극히 위험한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중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보기에… 적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거기에 쏠리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옳은 판단이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치르어온 로장으로서 그는 지금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감각으로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맥을 짚듯이 보고있는것이다.

《옳습니다.》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여기서도 우리는 적들의 당황망조상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발악하면서 무엇보다먼저 강한 심리적타격을 노리고있습니다. 만전쟁때에도 대대적인 심리작전을 벌려 이라크사람들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커다란 공포를 안겨 그들의 조직적저항을 마비시킨 경험이 있는 적들입니다. 그러나… 안될것입니다. 적들은 아직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모르고있고 우리 인민군대의 총폭탄정신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광이 말씀드렸다. 《적들에게 우리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드디여 온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자 그는 계속하였다.

《총참모부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섬광〉작전을 곧 시작했으면 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오영범려단의 시범도하훈련이 있은후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새롭게 완성된 타격집단의 기동작전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다들 기대어린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최광을 비롯한 군대내 많은 지휘성원들이, 아니 전군이 가슴을 조이며 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적들의 《팀 스피리트》 총포성소리가 날로 커지며 분계연선으로 가까와올수록 더더욱 참기 어려워한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선후차가 있는법이다. 어느 전선에서 먼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타격을 가하는가 함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수도 있다.

《옳게 보았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드디여 전대미문의 드센 반격을 가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는가?！… 지금의 사태발전은 적들이 제일 아파하는곳에 드센 일격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무자비한 치명적일격을！…》

그이의 두눈에서 푸른 섬광이 펀뜩이였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이 소리없는 번개처럼 섬광을 날리며 번쩍인듯하였다. 최광과 작전국장 등은 지금 그이께서 적들에게 안길 청천벽력같은 치명적타격을 준비하고계신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얼마후 집무실에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교부에서 올린 문건부터 펴드시였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를 앞두고 외교부에서 올린 문건을 보시던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났다. 변천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이께서는 《핵문제》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외교부 일군들이 품들여 준비한 문건이 바로 비망록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진상에 대하여》였다.

비망록은 네가지 체계로 구성되였는데 첫째체계는 핵담보협정리행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 둘째체계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주장, 셋째체계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에 대한 미국의 배후조종, 네번째는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의 부당한 《결의》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으로 되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립장을 밝힌 비망록의 마지막부분을 특히 주의깊게,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으시였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과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또 다음 문장에 밑줄을 그으시였다.

《그 어떤 〈압력〉이나 강권행위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랭전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제원자력기구를 조종하여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무분별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을 덮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문건자체는 기본적으로 잘되였다고 볼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진상이나 미국의 배후조종내막을 자료적으로 잘 까밝혔고 엄중히 항의하고 경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망록으로써 적들의 기를 꺾어놓을수 있겠는가?!…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식 침략과 략탈의 철학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스피노자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교리로 이발을 갈아왔고 니체의 《권력의지》로 발톱을 다스렸다. 가까운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때 히틀러는 도이췰란드군고위장령들의 회의에서 뽈스까를 격멸할 최종지시를 주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선전적구실은 내가 주겠다. 그것이 진실다운것이든 아니든 일없다. 앞으로 승리자하고는 그가 진실을 말하였는가고 묻지 않을것이다.》라고 웨쳐대였다. 지금 미국의 호전광들도 히틀러식 사고방식에 매달려 우리의 핵문제를 전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선전적구실》로서 《그것이 진실다운것이든 아니든 일없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관례만 따르면 되겠는가. 단호히 《항의》하고 《경고》한다고 해서 적들이 뜨끔이나 하겠는가!…

력사는 외교무대에서의 점잖은 항의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 실례도 전하고있다. 1950년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뉴욕에서 열린 유엔안보리사회때 유엔주재 쏘련상임대표 말리크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한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당시 미제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더는 미룰수 없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그 중요한 리유의 하나는 이른바 《대만위기설》이였다. 미제는 그해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진공할것이라는 정보자료를 입수하고 그 정보의 정확성여부에는 관계없이 조선전쟁을 6월로 앞당겨 일으킴으로써 대만위기까지 일괄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한 때, 전쟁이 박두해지고있던 그때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말리크가 퇴장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성원국으로 받

아들이고 대만의 장개석을 그자리에서 내쫓을데 대한 쏘련의 제의를 유엔이 거부했기때문에 그에 《엄중히 항의》하여 퇴장했던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가있을 때 조선에서 전쟁이 터졌고 쏘련대표가 결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는 기회를 리용하여 미군은 유엔을 조종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탄》하고 유엔이 군사적으로 남조선괴뢰들을 원조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던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적들과의 대결에서는 절대 한시도 공격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공격은 날카롭고 드세고 치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드시였다. 곧 외교부 제1부부장 문선규가 나왔다. 그이께서 지금 무얼하고있는가고 물으시자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에게 기구관리리사회가 채택한 《특별사찰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그 어떤 사찰단의 접수도 거부한다는 텔렉스를 방금 보냈다는것, 동시에 그것을 전세계에 여론화하며 적들의 압살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강경한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세계각국의 재외대표부들에서 선전공세를 강하게 벌리도록 사업을 조직하고있다고 보고드렸다. 그이께서 예견하신바 그대로 핵상무조는 여전히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동무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핵상무조가 조직된 이래 언제 한번 편히 쉬여보지 못했겠는데…》

문선규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적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없이 맞서나갈 담력을 키워주시고 묘술을 찾아주시여 자기들은 배심이 든든하고 기세충천하다고 말씀드렸다. 마디마디에 격정이 어린 숨결소리가 섞이군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받쳐들고 흥분하여 서있는 그의 모습을 선히 보시는듯했다.

《1부부장동무, 이제부터 동무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래일을 위해서 오늘은 푹 쉬시오. 그리고 1부부장동문 래일 아침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담보협정문,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원문 등을 가지고 내게 와주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제 곧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문선규의 이 말에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였다.

《아니, 오늘은 쉬시오. 래일 중요한 과업을 주겠으니 오늘은 핵상무조성원들모두를 무조건 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을 두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셨다가 입원중에 있는 안해한테는 들려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문선규는 떠듬거렸다.

《저… 아직…》

그이께서는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래선 안됩니다. 1부부장동무, 꼭 시간을 내여 들려보시오. 이 말을 그저 단순히 권고로서가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사람이 일만 일이라고 하면 막대기가 되고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이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사람들을 아끼고 더 잘 돌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을 떠난 혁명이 없고 사랑을 떠난 충성이 없는법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전화가 끝나자 탁상일력에 눈길을 주시였다. 1993년 3월 10일…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그 시각이 박두해오고 있었다. 그이께서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해놓으신 그날, 세계를 뒤흔들어놓을 대결단이 선포될 그날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있었다. …

9

문선규는 방안에 둘러앉은 핵상무조성원들을 바라보았다. 잠을 못자 부석부석해진 얼굴들, 그러나 타는듯한 기대가 어린 눈빛들이였다. 순회대사 최우정, 참사 김세환, 국장 장운성, 부국장 리용하… 다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궁금하여 조바심치며 기다리고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말도 못하고 선자리에서 그들 매 사람을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둘러볼뿐이였다. 별안간 뜨거운 생각에 목이 메이는것을 느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핵상무조성원들

이 무리하지 말며 절대 앓아눕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최우정, 장운성 등 일부 일군들이 고혈압과 신경통으로 고생한다는것을 아시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과업을 주어 중앙급병원의 교수, 박사들로 현지에서 직접 검진과 치료를 해주도록 배려해주시던 일이 상기되였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던가. 일만 일이라고 계속 다그어대기만 하지 않았던가. 같이 일하는 혁명동지들에 대하여 장군님께서 마음쓰시는 그 천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언제보나 피로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참사 김세환, 지금도 여전히 눈빛을 번쩍이고있는 최우정, 강직하고도 날카로운 성격인 그는 마치 《왜 그러고있습니까. 1부부장동지,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어서 말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하고 부르짖는듯하다. 그다음 장운성…

《국장동무.》 하고 문선규는 나직이 그를 불렀다. 《집에 들어가본지 얼마나 되였소？》

《예？！》

장운성은 놀라서 얼떠름해진 기색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새삼스러운 물음이였던것이다. 문선규는 의혹이 비낀 그의 얼굴을, 어언 60고개에 이르러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있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30여년간 외교부 법률부서에 고착되여 일하고있는 성실한 일군, 그에게도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다. 고령의 어머니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여 악형을 당한 어혈로 신고하고있는것이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더러 자주 집에 들어가봐야 하지 않는가고 권고하나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다. 사무실에서 침식을 하며 초소를 지키고있다.

《동무들.》 하고 문선규는 저으기 갈린듯한 음성으로 시작하였다.

《방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핵상무조가 그새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무조건 푹 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으나 목이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느새 두눈에 물기가 어리고있는 사람들을 또 차례로 둘러보았다.

《장군님께서 거듭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 더 이상 시간

을 끌지 맙시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몸을 움찍 일으키고 있는 최우정을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기를 불렀다.
《차가 다 준비돼있소?》
《예.》
《그럼 서기동무도 돌아가 쉬오. 난 걸어서 가겠소. 가까운데 들려볼데가 있어서… 그럼 동무들, 래일아침에 다시 모입시다.》
여러사람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서며 무슨 말인가 하려는 것을 엄하게 막았다.
《쉬여야 하오. 이건 장군님의 명령이요!》
그는 사람들이 방에서 다 나갈 때까지 머리도 들지 않았다. 이윽고 책상서랍에서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여물었다. 가슴벽을 허비는 알알한 연기를 페부속 깊이 들여마신다. 애연가인 그는 홀로 있을 때 특히 담배연기에 싸여 사색하기를 즐겨했다. 그것도 밤의 창가에 서 있으면 언제까지이고 움직일줄 몰랐다. 창밖의 어둠속을 눈밝혀 살피며 혹은 창유리에 비쳐진 자기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보면서 향긋한 담배연기를 삼키느라면 피로는 가셔지고 사색은 더욱더 깊어지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으로 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며 강조하셨는데 오늘을 넘기면 더는 기회가 없을것이다.
그는 서류를 정리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있는 코트를 벗겨들었다. 모자는 쓰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머리우에 차디찬 눈송이를 맞고싶었다.
인제는 홀로 생각에 잠겨 걸을수 있게 되였다. 다년간 매일같이 긴장한 사업과 외교적인 의례행사, 늘 분주탕속에 살아온 그였다. 론쟁과 연설, 유엔총회, 박수갈채, 사진기의 섬광, 기자회견, 면담, 방문, 텔렉스, 전화, 문건작성, 연회, 떠들썩한 인사말들— 쌩큐, 쓰빠씨보, 아리가또우 고자이마스, 쎄—쎄, 메르씨… 그러나 오늘은 흩날리는 눈송이들의 설레임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걸을수 있다. 비록 밤길이긴 하지만 여느 사람들처럼 퇴근길에 올라 어제와 오늘의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학창시절의 동무들과 친척

들, 자식들과 안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다.

그는 안해의 병에 대해서 거의나 알지 못하고있었다. 안해의 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였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처녀시절 자기 맡은 통신초소에서는 물론 지원자로 달려간 철도건설장에서 제몸을 돌보지 않고 일해온 김성희, 언제나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일해온 안해였다. 가정에서도 역시 그랬다. 남편의 직무가 오를수록, 그의 사업과 책임이 늘어나고 무거워질수록 집안살림을 도맡아하면서 언제 한번 앓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얼마전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야 안해의 병이 중하다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병원의사들도 《이렇게 중태에 빠질 때까지 뭘 하고있었습니까？》 하고 놀라 소리쳤다고 한다. 그가 그 지경에 이르도록 내색을 내지 않고있었으니 얼마나 모질게 참아왔으랴. …그래도 안해는 그가 저녁상을 물리기전에는 자리를 편적이 없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언제 한번 누워있는것을 본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과연 이렇듯 무심했던가. 남들처럼 명절에도 안해와 같이 들놀이를 나가본적도 없다. 사업에 묻혀, 일에 몰리여 할수 없는것으로 여기며 어질고 순박한 그 안해를 돌보지 않았으니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흔히 부부간의 정은 늙어갈수록 더 깊어진다고 한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무렵에야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을, 그 귀중함을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늦었다. 그토록 분망하신 장군님께서 일깨워주셔서야 비로소 시간을 내게 되였다.

이윽고 그는 의대병원 유리문앞에 이르렀다. 이 병원에 지금 안해가 입원해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 병원으로 곧장 실려온것이다.

정작 병원문앞에 와서야 지금이 몇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깊은 한밤중, 남 다 자는 야밤중에 아무것도 든것이 없는 빈손으로 면회를 왔다. 어쩐지 일이 잘될것 같지 않다. 그는 조바심치며 안의 동정을 살폈다. 유리문안의 접수실에는 목이 길쑴한 늙은이가 돋보기를 끼고앉아 무슨 잡지를 뒤적거리고있었다.

유리문을 똑똑 두드렸다. 늙은이가 나와서 밖을 내다보며 소

리쳤다.

《왜 그러시우? 손님, 무슨 일루 오셨소?》

《저… 면회를 왔습니다.》

《뭐-요?》 하고 늙은이가 놀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지금이 몇시게 면회요.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이러리라는것을 예견하고있은 그였으므로 재빨리 설명을 달았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안되오. 되지도 않을 소리!》

늙은이는 다시 접수실에 들어가려고 했다. 바빠난 그는 저도 모르게 유리문을 탕탕 두드려댔다.

《아바이, 급한 일때문에 그러는데 제발…》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늙은이가 홱 돌아서며 성난 눈길을 던진때문이였다.

《유릴 마스겠소!》

《…》

그는 그만 불에 덴것처럼 유리문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는 멍하니 굳어져버리고말았다.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것을 느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사정을 해야 할지… 명백한것은 이 늙은이를 설복하기가 국제무대에서 합의를 이룩하기보다 더 어려우리라는 그것이였다. 그곳에서는 열띤 론쟁이라도 있지만 이 늙은이는 애당초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것이다. 그는 늙은이가 접수실문을 탕 닫고 앉는것을 보고는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비로소 추위가 느껴졌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걸탐스레 몇모금 들이빨고는 또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늙은이와 통하는 언어가 그것밖에 더 없는것이다.

똑똑똑… 똑똑똑… 점차 통방신호를 높였다.

《아바이!》

《…》

《아바이, 한마디만 좀 들어보십시오.》

《…》

여전히 대답이 없다. 말끔히 면도를 한 늙은이의 뾰족한 턱과

귀밑까지 바투 올려깎은 희슥희슥한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맥이 진하는것을 느꼈다. 아무리 사정해본댔자 전혀 가망이 없으리라는것은 뻔했다.

저 아바이는 이전에 무슨 일을 하였을가？… 풍덩한 쥐색 솜옷을 입고 입에는 황동테를 두른 물부리를 물고있다. 《천리마》잡지를 펴들고 읽고있는데 코에 걸린 돋보기너머로 이따금 이쪽의 동정을 슬쩍 살피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제 밸이 뒤틀려 가버리겠지, 정신빠진 사람같으니… 하고 생각하는것 같다.

무슨 일을 하댔을가,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던 사람일가, 아니면 보통로동자나 사무원정도였을가？…

시내의 여러 기관에 있는 정문수위들중에는 한때 높은 직무에서 일하던 틀지고 위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민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옛 대좌들도 많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들 태반이 다 전쟁로병들이라는 그것이다. 전날에 세운 공적과 로력의 대가로 높은 대우를 받으며 말년을 편히 보낼수도 있으련만 이 로병들은 낚시대를 들고 대동강, 보통강 기슭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배기가스와 사람단련에 증이 나는 기관기업소의 정문들과 후문들에 흔연히 나와있는것이다.

《아바이！》

《…》

대답이 있을리 없다. 몸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걸어올 때는 몰랐는데 발이 시려들고 잔등이 오싹오싹했다. 그는 코트목깃을 올리고 하나하나 단추를 채운 다음 주머니에 찔러두었던 장갑도 끼였다. 더 무장할것이 없나 해서 이쪽저쪽 뒤져보고 살펴보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모자를 쓰고오지 않은것이 후회되였다. 그는 열심히 담배를 빨며 발을 굴렀다. 툭툭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구르다가 차츰 탕탕 뒤축으로 정문바닥을 울리기 시작했다. 인제는 그것이 매정한 늙은이에게 보내는 청원과 항의의 언어이다.

그대로 돌아갈수도 없는 그였다. 이제 돌아서면 언제 또 오겠는가！… 석대째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여물었다. 점점 더 심하게 느껴지는 추위때문에 계속 발을 구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등뒤에서 문걸쇠를 벗기는 소리가 났다. 늙은이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어데 계시우?》

《예, 전…》

늙은이는 그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내 이미 말하지 않았소. 돌아가라구, 에?… 도대체 지금이 어느때요. 준전시가 선포되구 온 나라가 전쟁상태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병원문을 두드려대는 사람이 어데 있소. 보아하니 막사람은 아닌것 같은데… 더 길게 말하진 않겠소. 거기서두 제도와 질서를 모르진 않겠지요, 에! … 어데 계시우?》

《예, 외교부에…》

《돌아가시우!》

그는 아연해졌다. 인제는 거의나 가망이 없을것 같다.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늙은이는 아직 열려진 문앞에 서서 그를 깐깐히 훑어보고있었다.

《아바이, 그럼 몸이라도 좀 녹이게 해주십시오.》

《참, 별손님 다 보겠군.》

늙은이는 투덜거리면서 잠시 망설이는것 같았다. 파랗게 질려있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고는 그만 문옆으로 조금 비켜섰다.

《할수 없지. 들어오시우.》

늙은이를 따라 접수실에 들어서자 대뜸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정히 닦기 시작했다. 늙은이는 그의 손에 들린 깨끗한 흰 손수건이며 팔소매에 가리워졌다 드러났다 하는 시계 등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어데 계시우?》

늙은이가 세번째로 묻는 말이였다. 지금까지는 거의 습관에 의해 물었다면 이번엔 진짜로 따져묻는 말이였다.

《증명서 가지고계시겠지요?… 좀 봅시다.》 하고나서 늙은이는 자기가 지내 딱딱하게 군다고 여겨졌는지 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질서가 그러하니 어찌겠소. 좀 보여주시우.》

그는 천천히 안경을 걸고 증명서를 꺼내들었으나 웬일인지 선뜻 내보이기가 주저되였다. 증명서에 밝혀진 그의 직무에 늙은이가

게면쩍어하고 죄스러워한다면 그이상 딱한 일이 없을것이다.

벌써 늙은이는 돋보기를 끼고 손을 내밀고있었다. 그가 증명서를 주자 한참이나 깐깐히 훑어보았다.

《음, 그렇댔군.》 하고 늙은이는 가볍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씀할것이지… 어서 좀 편히 앉으시우.》

늙은이는 그에게 옆에 있는 의자를 옮겨주었다.

《고맙습니다.》

《원 별말씀을!》

좋은 늙은이이다. 그가 별스레 놀란척하며 태도를 바꾸어 미안하다느니 잘못했다느니 하는 말이라도 늘어놓았더라면 아마 몹시 거북해졌으리라. 하지만 늙은이의 표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접수용교환대앞에 다가앉으며 그가 또 물었다.

《누굴 찾아오셨수?》

《예, 처가… 2내과병동 4층이라던지…》

늙은이는 돋보기를 한손에 잡고 이것저것 살피더니 접속코드를 꽂으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밤에는 교환수들이 자리를 비우므로 접수에서 직접 련결하는 모양이다.

《병동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군요.》 하면서 늙은이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아마 환자들을 돌아보겠지요. 좀 앉아 기다리시우.》

《예, 그러지요.》

문선규는 그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라이타까지 켜주자 늙은이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붙이고는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좀 독하군…》

문선규가 물었다.

《지금 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예순넷입니다.》

《전엔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군대였수다, 포병으로 내내 복무했지요.》

《예— 그렇군요. 말씨로 봐서 분간하기 어렵다했더니 전쟁로병이였군요. 아직 정정하십니다.》

《뭘요. 인젠 아무 일이나 마음같지가 않습니다. 글쎄 륙십이 지나니

왜 그런지 허리가 뚝 부러진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더구나 속이 쑤셔서 견딜수 없군요. 글쎄 온 나라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구 떨쳐나섰는데 이렇게 병원문이나 지키구있으니…》

늙은이는 담배연기를 깊숙이 삼키고 담배대를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두눈을 쪼프리면서 문선규를 쳐다보았다.

《한가지 물어도 일없겠는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 다름아니라 신문에서랑 보자니 1부부장동지가 핵문제에 많이 관여하던데… 핵문제말입니다. 그거 미국놈들이 바지에 똥줄을 갈기게 할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포병식으로 말하면 직접조준사격으로 단방에 죽살탕을 먹였으문 해서 하는 말이지요.》

《직접조준사격이요?》

《예, 직접조준사격이라는게 문자그대루 목표물을 직접 겨누고 쏜다는건데… 아, 거 1211고지에 직사포를 올려놓구 놈들을 족친 유명한 전투얘길 아실테지요?… 그때 놈들이 얼마나 질겁했겠는지 한번 상상해보시우. 글쎄 청청하늘에서 마른벼락을 치듯 고지꼭대기에서 직사포가 꽝꽝 울부짖었으니 놈들로서야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예 ―》

늙은이는 생각에 잠겨 손에 쥔 담배를 주무르고있는데 크고 시꺼먼 손가락들이 그것을 금시 부스러뜨릴것 같았다.

《내 늙은것의 어리석은 생각일진 몰라두.》 하고 늙은이가 또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이제 분명 벼락을 칠거우다. 두고보시우.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번개를 날리실거우다. 이건 나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있지요. 이제 핵문제때문에 놈들이 피똥을 싸게 될거라구요. 아무렴! 우리를 함부로 걸구드는놈들이 무사할라구. 어림두 없지. 어따대구 감히!…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는 손가락마디를 뚝뚝 소리내여 꺾으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났다. 이렇듯 좋은 늙은이를 만나 이처럼 좋은 말을 듣게 된것이 기뻤다. 늙은이의 말을 들으니 모든것이 단순하고 명백해보였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외교사업이라고 해서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에만 붙어서서 내다보고있을 필요는 없다. 인민의 마음속에 조선이 있고 세계가 있다.

그는 또 담배갑을 열어 늙은이에게 권했다. 그것을 받아 굵은 손가락으로 한대 뽑아들던 늙은이가 놀랜 소리를 질렀다.

《원, 이 정신 보지!》

늙은이는 2내과병동 4층을 열심히 찾았다. 드디여 그곳 직일의사가 나왔다. 늙은이는 그쪽에서 거절할가봐 겁내는듯 약간 덤벼치며 애써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긴 접수입니다. 지금 외교부 1부부장동지가 부인한테 면회를 오셨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보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야밤중에야 겨우 시간을 낸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늙은이는 그에게 송수화기를 넘겨주며 《의사선생이 전활 바꾸라는군요.》 하고 나직이 말했다.

문선규가 송수화기를 받아들자 저쪽의 녀의사가 먼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안됐습니다, 의사선생!》

《그러니 아직 집에 들리지 않으셨군요?》

《예.》

《오늘 부인이 퇴원했습니다.》

《예?!》

그가 놀랜 소리를 지르자 녀의사가 설명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됐는데 어떻게 병원에 누워있겠는가 하면서… 나갔습니다. 수술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 딱 잘랐는데도 한사코 우기더군요. 정말 너무 떼를 써서 막을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안해가 고마왔다.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온 나라 인민의 힘찬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고있는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전화가 끝나자 늙은이와 따뜻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바늘끝같은 얼음침으로 콕콕 찔렀다. 아직도 바람은

찼지만 그래도 역시 봄밤은 봄밤이였다. 접수실에서 덥힌 몸이 훗훗 열기를 내뿜은때문인지 그는 어깨가 쩍 벌어지는것을 느끼며 집을 향해 빨리 걸어갔다.

다음날 아침 문선규는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담보협정문,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원문 등을 가지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집무실로 갔다. 그이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좀 쉬였는가고, 안해의 병문안은 가봤는가고 물으시였다. 문선규는 핵상무조전원이 푹 쉬였고 자기도 짬을 내여 병원에 가보았다고 대답올렸다. 안해가 퇴원한데 대해서는 비치지 않고 의대병원접수실의 막대기같은 늙은이에 대하여 웃으며 말씀드렸다. 그가 전쟁때 직사포를 고지에 올려놓고 적들을 답새기던 일을 회상하며 핵문제에서도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벼락을 내리실거라고 하던 말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라는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늙은이의 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세계의 외교사에서 자주 론의되는 〈국민의 외교의식〉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였습니다.》

문선규는 흥분하여 필요이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줄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정치가, 외교관들 및 리론가들은 현대외교를 《실력외교》라고 믿고있는데 그 《실력외교》를 뒤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치력 (정치가의 지도력) 과 무력, 금융경제력, 문화선전력을 들고있으며 여기에 《국민의 외교의식》을 덧붙이고있다. 그것은 《국민의 외교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 나라의 의지적통일과 세계무대에서의 대결의지가 강화되고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적 및 외교적 힘이 높이 발휘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고 문선규는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외교의식〉을 가진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처럼 정세발전에 강한 관심을 돌리는 인민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이 핵문제때문에 하나같이 분노하고 근심하고 또 한방 꽝! 하고 갈길것을 다같이 희

망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고작 생각했다는게…》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였다.

《〈국민의 외교의식〉이라… 달리 말하면 인민의 정치의식이지… 어쨌든 그걸 깨달았으니 됐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인민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나 인민에게서 배우고 그들에게서 고무를 받습니다… 언젠가 내가 자강도에 갔다오다가 밤중에 전쟁로병들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들은 륙십을 넘긴 나이에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겠다고 로병분조를 뭇고 새벽까지 거름을 실어나르고있었습니다. 적들의 봉쇄책동으로 기름사정이 어려워져서 하는수 없이 밤에 뜨락또르를 돌려쓴 모양인데 기름문제가 정 풀리지 않으면 송탄유를 뽑아써서라도 기어이 올해농사를 잘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늙은이들이 끝내 질좋은 송탄유를 뽑아 뜨락또르를 다 뛰게 한다는 보고가 어제 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인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 나라에선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지 않습니까. 처녀들이 특류영예군인한테 시집을 가고 물에 빠진 두 아이를 건지려고 뛰여든 아버지가 자기 자식보다 먼저 다른 애한테 헤염쳐가고… 1부부장동무도 알고있겠지만 인디아양에서는 지금 우리 나라 무역선 〈무포〉호 선원들이 적들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있습니다. 그새 항행이 복잡한 말라까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멀리서 추격하며 기회만 노리고있던 적들이 인디아양에 나서자 드디여 배길을 막고 강도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포〉호 선원들은 창과 칼, 도끼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놈들에게 배를 검열하게 하는 치욕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존엄을 지켜 목숨걸고 싸우는 그들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나 굳세고 꺽이지 않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전선에서도 이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일대 공격전을 벌립시다. 공격전을！…》

단호한 결심이 어리신 그이의 말씀에 문선규는 큰숨을 들이그었다. 그이께서 커다란 사변을 준비하고계신다는것을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온몸에 뻗쳐가는 신심과 용기에 가슴을 활 펴며 그이를 우러렀다.

《1부부장동무.》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이제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제기할 보고를 하나 준비하시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를 전후하여 핵대결전에서의 우리의 활동과 적들의 동향, 사태발전의 추이에 대하여 잘 분석하여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문선규는 군인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10

선장 리명구의 얼굴은 피기 하나 없이 꺼칠해지고 살이 쑥 빠진 두볼은 자귀로 찍어낸듯이 우묵해졌다. 강마른 그 얼굴에서 《을지장군》으로 유명한 턱수염만이 무시로 돋아나면서 홀쭉해진 두볼을 거뭇하게 만들었다.

적들과 처음 조우하던 때로부터 벌써 20여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그는 거의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느새 두눈은 피가 져서 새빨개졌고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시울을 뜨기가 어려웠다. 말라터진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억지로 안깐힘을 쓰며 탐지기나 룩분의 (별관측기) 를 살펴야 했고 무시로 항로를 변경시켜야 했다.

얼마전에 말라까해협을 지났다. 세계의 주요 해상교통로들중 가장 번잡한곳의 하나인 말라까해협은 많은 섬들과 암초가 있어 위험한데다가 통로가 좁고 래왕하는 배들이 많아 줄을 지어 통과해야만 하므로 적들도 그곳을 지날 때까지는 소동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배가 콜롬보쪽으로 항로를 잡자 드디여 여러척의 미군함정들이 나타나 앞길을 막으며 강제로 배를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미군잠수함 《타잔》호가 따르고있었다.

리명구는 침로를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 배를 전진시켰다. 적들이 어뢰를 발사할것처럼 좌우현으로 달려들 때에도 멎어서지 않았다.

대양에서의 싸움은 여러 시간이나 계속되였었다. 마침내 적들은 해군륙전대원들을 동원하여 배를 점거하려고 꾀하였다. 어데

서 나타났는지 돌연 《무포》호의 량옆으로 수익정 (날개달린 쾌속정) 들이 바싹 다가붙어 따르고 공중에서는 직승기가 배와 같은 속도로 날았다. 수익정에서 올려뿌린 갈구리들이 현측과 배고물 등 도처에 날카로운 발톱을 박았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선교우에서 그것을 띄여본 리명구가 지휘용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바줄을 찍으라!》

그러자 맨먼저 몸집이 우람찬 갑판장이 도끼를 들고 달려나가 바줄을 찍어던졌다. 그 갈구리바줄에 거꾸로 매달려 허공을 기여오르던 적병이 거품 이는 파도속으로 떨어져내렸다.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순시에 멀어져갔다. 그것을 신호로 전체 선원들이 고기잡이때 쓰던 창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달려나갔다. 시퍼런 도끼날들이 번뜩이면서 갈구리바줄들을 사정없이 찍어던졌다. 그때마다 물속으로 떨어지는 적병들을 향하여 창과 칼을 든 선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다.

머리우의 직승기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있던 적들은 머리만 기웃거릴뿐 내리드리운 줄사다리로 감히 발을 내짚지 못하였다. 줄사다리만이 꼬리를 길게 끌며 흔들거리고있었다. 한병권정치부장이 갑판원들과 힘꼴이나 쓸 조기원들 몇을 선발하여 줄사다리가 드리운 그곳에 가있었다. 취사원들까지 식칼을 들고 달려나왔다. 선장 리명구는 마이크앞에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1등항해사 김철수는 유사시에 쓸 화염병과 뜨로찔장약준비에 바삐 돌아쳤다.

결사전은 피할길 없을것 같았다. 머리우의 적직승기에서 《배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거듭 위협하였다. 멀리에선 적순양함의 주포들이 엄청나게 큰 포신을 《무포》호쪽으로 돌리고있었다. 리명구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쌍안경으로 거듭 확인하였다. 저놈들이 어쩔셈인가, 진짜 포격하려는것인가?… 가슴이 졸아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군사지식은 없어도 적순양함에 400미리이상의 구경을 가진 함상포들이 여섯문이나 있다는것쯤은 그도 알고있었다. 그 포탄 한발이면 1만톤급 선박이라도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것이였다.

그는 시꺼먼 대구경포 아구리들이 정면으로 들여다보이자 저도 모르게 흠칫하며 쌍안경을 내렸다. 한순간 불별아래에서 쇠물같이 끓어번지던 바다가 갑자기 얼어붙고만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확성기에서 선장을 찾는 통신장의 목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선장동지, 어데 있습니까. 선장동지!》

《나 선교우에 있소. 무슨 일이요?》

《조국에서 급전입니다. 우리 배가 처한 형편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포〉호 선원들은 지금 싸우는 조선의 최전연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주저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뭐?!》

리명구는 불시로 가슴을 울린 세찬 충격에 숨길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다시 숨을 돌리자 그는 턱을 덜덜 떨며 세찬 경련으로 푸들거리는 두팔을 앞으로 힘껏 내뻗쳤다. 그리고는 마치 앞에 통신장이 서있기라도 한듯 목청껏 부르짖었다.

《빨리… 전체 동무들에게… 알려주시오. 전체 동무들에게… 빨리!》

《선장동지!》 통신장의 목소리였다. 《지금 전체 동무들이 다 듣고있습니다. 모든 선실과 조타실, 기관실 할것없이 통신을 다 련결시켰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알려주오. 전문그대로 읽소!》

《예, 선장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장은 조국에서 보내온 전보내용을 다시 읽어주었다. 그런 다음 이제 곧 조선중앙방송으로 해운부성명이 발표된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잠시후 조타실 지붕우의 확성기에서 찌륵찌륵하는 소리가 났다. 중앙방송을 거기에 련결하는것이다. 별안간 리명구는 와뜰 놀랐다. 머리우에서 벼락치는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던것이다. 흥분한 통신장이 라지오의 다이얄을 최고음량으로 올렸던 모양이다. 굉음이 터지며 고막을 찢어놓는듯했다. 그는 거센 진동파에 날려버리듯 조타실로 뛰여들어갔다. 2등항해사가 두눈을 번뜩이며 그에게 무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귀가 먹었는지 아무것도 알아들을수 없었다. 문을 닫고나서야 그는 밖에서 울려퍼진 방송원의 목소리를 분간해들을수 있었다.

《지금 미국함선들은》 하고 방송원은 성명을 전하고있었다.

《인디아양에서 정상적인 항해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 나라 무역선 〈무포〉호의 앞길을 가로막고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배를 강제검열하겠다고 하고있다.》

2등항해사가 또 소리쳤다.

《선장동지! 놈들에게도 성명내용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리명구는 그가 왜 무선대화기쪽을 가리키며 계속 웨쳐댔는지 알수 있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를 포위하고있는 놈들에게 직접 성명내용을 통역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 그는 다급히 무선대화기앞으로 다가갔다. 통로를 16국제통로에 돌려놓고 기침소리를 내였다. 그리고는 칼칼해진 목구멍을 비틀어짜는듯 힘겹게 영어로 말했다.

《미국군함들에 알린다. 우리를 포위하고있는 미국순양함,구축함,잠수함 함장들에게 알린다. 지금 우리 배에 대한 미국군함들의 강도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우리 나라 해운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내 말을 들으라. 지금부터 그 성명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는 자기의 목청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을 삼킨것처럼 목구멍이 쓰라려났다. 그러나 성명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밖에서 터지는 방송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의 영어지식을 총동원하느라고 눈시울을 바르르 떨군하였다.

《우리 나라 무역선 〈무포〉호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그 어떤 미싸일도 없다. 미싸일은 고사하고 단 한자루의 총기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디아양 한복판에서 우리 배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강제검열을 요구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더우기 이 사건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구실로 〈특별사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는것과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간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것은 우리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점차 포위환을 좁히던 적함들이 기동을 멈추었다. 얼마후엔 배

의 량옆에서 또다시 갈구리바줄을 걸어보려고 기회를 노리던 수익정이 떨어져나갔다. 머리우의 직승기도 순양함쪽으로 날아가버렸다. 적들이 우리의 성명에 귀를 기울이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교전일방으로서 무모한 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무력으로 우리의 무역선을 공격하려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것으로밖에 보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전쟁의 전주곡과도 같은 이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경우 미국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성명내용은 길지 않았으나 준렬하고 서리찬것이였다. 조국이 그들을 지켜주고있는것이다. 조국의 목소리로 울려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이 그들모두의 가슴을 쾅쾅 울려주고있는것이다.

그는 불시로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삼키며 말라터진 입술을 짓씹었다. 무선대화기의 통로변환스위치도 돌리지 않고 적들까지 다 듣도록 《동무들, 힘을 내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용감하게 계속 앞으로! … 침로 265도, 속도 31놋트, 전속앞으로! —》 하고 목청껏 부르짖었다.

《무포》호는 다시 세차게 물결을 헤가르기 시작했다. 그때 어데선가 수백마리의 곱등어들이 나타나 배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뭉툭하고 기름진 검은 대가리를 솟구치며 곱등어떼는 저네들만이 알아들을수 있는 기쁨에 넘친 언어로 바다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언제 어떻게 되여 나타난 곱등어들인가?… 그것들이 배를 따라다니기 좋아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그것들이 불쑥 나타나 미친듯 기뻐날뛰며 배와 속도경기를 벌리는데는 류다른 의미가 있는듯했다. 윤기도는 검은 몸뚱이를 뒤채이며 길길이 솟구쳐오르는가 하면 꿱—꿱 울부짖기도 하는 그 곱등어떼를 바라보느라니 어쩐지 말로써는 다 표현 못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적들은 조용해졌다. 멀리에서 《무포》호가 가는쪽을 따라 움

직이고있을뿐 무선대화기조차 입을 다물어버렸다. 제놈들의 상부에 벌어진 사태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령을 받기로 한것 같았다.

그때부터 적들은 련사흘째 계속 배가 가는 앞길을 막으며 위협적으로 포위태세를 취하군했어도 본격적인 도발은 걸지 못했다. 가끔 직승기를 날려 머리우에서 돌아치기도 했다. 그 집요한 공세는 전체 선원들을 극도로 피로케 했다. 밤에도 잠들수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수 없어 전체 선원들이 교대로 적을 감시하며 유사시에 대처한 싸움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드디여 사람들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입술은 갈라터져 피가 나왔다. 적들은 피로전에 들어간것 같았다. 뒤따르던 잠수함이 앞에서 불쑥 북상하여 날카로운 기적소리를 울리는가 하면 낮동안 계속 직승기를 띄워놓기도 했다. 한마디 말도 없다. 단 한번 맨처음 추격이 시작될 때 적잠수함 《타잔》호 함장이 《북조선 선장에게 경고한다. 이제라도 검열에 응하라. 응하지 않으면 배가 목적지에 이르기전에 침몰시키겠다.》라고 위협했었다. 그리고는 계속 침묵이다. 이 침묵의 추격과 위협을 리명구는 더더욱 참기 어려워했다. 하여 그는 정치부장 한병권과 토론하고 불시에 진로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적도해류를 타고 콜롬보항으로 향하는것처럼 곧추 달리고있던 침로를 변경하여 그제밤 갑자기 안다만제도의 무수히 많은 섬들쪽으로 급전한것이였다.

이 갑작스러운 침로변경이 적들을 떼여던진것 같았다. 이틀째나 리명구와 김철수 등이 탐지기를 면밀히 살폈지만 그 어떤 군함도 잠수함의 잠망경도 발견해내지 못하였다. 아마 적들은 지금 인디아남부의 해상 부근에서 우리를 찾느라고 돌아칠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현대과학의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적함선을 대양 한가운데서 떼여버리다니… 하지만 생활에서는 극히 보잘나위없는것, 극히 단순한 리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리명구는 인디아양의 총도를 펴놓았다. 유구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난파, 모험, 황금과 무역, 피비린 살륙, 략탈, 탐험 등 무서운 불행과 처참한 죽음의 비밀을 무수히 품고있는 이 대양, 력사에 기록된 이 대양의 정복자는 카르타고의 한

노제독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년전에 돛을 올려 이 미지의 대양을 횡단하는데 성공한것이다.

리명구는 적도이북의 인디아양 배길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별안간 그는 한쪽으로 기울면서 비칠거렸다. 물속에서 코로 물을 들이켰을 때와 같은 역스러운 자극이 골수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그를 부축하였다.

《인젠 좀 쉬시오. 무쇠인들 견디여내겠소.》

정치부장 한병권이였다. 리명구는 그의 주름투성이얼굴을 잠시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언제 여기 들어와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자,갑시다. 선장동무.》 한병권이 말했다. 《인젠 맘놓구 쉬여도 되겠소. 암만 그래두 그것들이 래일까진 우릴 찾아내지 못할거요.》

리명구는 한손으로 눈언저리를 세게 문질렀다. 그리고는 2등항해사에게 제정해준 항로를 상기시키고 아무때건 이상한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자기를 깨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치부장 한병권에게도 쉴것을 권고했다.

한병권은 자기만큼 태평스레 잠을 잔 사람도 없을거라고 롱을 하면서 그를 떠밀었다. 자기 방에 돌아가자 옷도 채 벗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러자 금시 아득한 천길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감을 느꼈다. 모로 돌아누우면서 벌써 그는 깊은 잠에 곯아떨어져버렸다.

안다만제도의 맨 끝단에 인디아양의 사나운 계절풍과 그에 의한 해류의 영향을 덜 받는 고요한 수역이 있다. 지형상 이곳은 벵갈만으로 흐르는 해류와 그곳을 빠져나오는 해류가 서로 갈라져나가며 호수와 같은 공간수역을 남기고있는것이다. 《무포》호는 이 고요한 바다를 헤가르고있었다.

날이 저물고있을 때였다. 잠에서 깨여난 리명구는 조타실에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고 물으니 2등항해사 아무개라고 한다. 그는 머리를 흔들고나서 아직도 근무를 서는가,지금 몇시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2등항해사는 그새 네명 륜번제교대가 한바퀴 돌았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푹 쉬였습니까,선장동지？… 그새 아무 정황도 없었습니다. 배는 지금 안다만남부수역을 항행하고있습니다. 크고작은 섬들이

사방에 가득 널려있습니다.》

2등항해사의 말이였다. 리명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제복상의를 급히 입고 모자를 쓰면서 문밖을 나섰다. 누기찬 해풍이 후덥게 얼굴을 때렸다.

갈매기들이 떼지어 날았다. 시뻘건 태양이 물속으로 잠겨들면서 수평선을 불태웠다. 저 아래 갑판우에서 물호스를 들고 돌아가는 갑판원의 모습이 락조에 물들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배는 그 언제 적들의 도발이 있었던가싶게 평화로이 전진해가고있었다.

그는 걸음을 늦추었다. 인젠 적들이 우리 배를 찾는것을 포기한것이 아닐가?… 선교란간을 짚고 멀리 어둠이 밀려드는 바다를 멀거니 보고있는 1등항해사 김철수가 눈에 띄였다. 그도 지금 교대를 마치고 여느때처럼 고향과 해병시절의 추억을 더듬고있는듯했다. 혹시는 자기가 사귀던 처녀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나이 서른넷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않은 김철수, 조국을 떠나기전에 과음한 탓으로 그를 분노케 했던 김철수이다. 그새 폭풍과 적들의 도발이 계속되였으므로 언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새도 없었다.

리명구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갔다. 김철수가 머리를 돌려보더니 어줍게 인사를 했다. 전날 선장을 분노케 한 기억이 살아나 몸둘바를 몰라하는것 같다. 잠시 침묵이 있은후에 철수가 먼저 용기를 내여 왜 벌써 일어났는가고 물었다. 자기네 선장이 무려 엿새동안 거의나 눈을 붙여보지 못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다.

리명구는 실컷 잤다고 하면서 그새 있은 일들을 물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대답을 들으며 고물뒤에서 사품치는 물결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바다의 밤은 재빨리 찾아든다. 락조의 잔광이 수평선우의 구름쪼각들을 가까스로 물들이고있을 때 벌써 다른쪽 하늘에서는 숱한 별들이 금모래를 뿌려놓은듯 돋아나는것이다.

벌거우리하던 별마저 사라지자 커다란 하늘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뭇별들이 정기도는 눈으로 반짝이며 서로 자리를 바꾸어 흘러갔다.

배사람들과 별들은 인연이 깊다. 그들은 별을 보고 자기의 위

치를 판정하며 언제나 그리운 고향과 정든 사람들도 그 별들이 흐르는 하늘가를 더듬으며 생각한다. 란간을 짚고 하늘가를 바라보고 있던 리명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철수동무, 내 하나 묻겠는데… 솔직히 말해주겠소?》

《예.》

《그럼 약속했소.》

《참, 선장동지두… 어서 말씀하십시오.》

《철수동문 왜 장가를 안가오? 서른네살이면 적지 않은데…》

《…》

김철수는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선장의 그 말이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커다란 아픔을 건드려놓은듯했다. 조타실에서 내비친 불빛이 그의 시뻐둥하고 수척해진 얼굴을 비쳐주었다.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 사귄 처녀는 있소?》

《…》

김철수는 거의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있었다. 리명구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난 동무가 그런 화제를 싫어하는줄 아오. 그래서 지금껏 물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정치부장동무는 술도 할줄 모르는 동무가 처녀때문에 과음을 했고 고민하는것 같다고 하던데…》

《…》

김철수의 홀쭉해진 두볼이 실룩거렸다. 묻지 않아야 할것을 물은것 같다. 리명구는 라이타를 켜서 담배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누누한 대기와 함께 향긋한 담배연기를 가슴가득히 들이켰다.

멀리 인도지나로부터 낮동안 달아올랐던 열풍이 밀려왔다. 은하수가 길게 꼬리를 드리운 그곳에서 이따금 가느다란 번개가 꿈틀거렸다. 한밤중엔 비를 맞게 될수도 있다. 리명구는 그쪽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조용히 말했다.

《철수동무, 싫으면 관두라구. 뭐 남의 개인비밀을 캐보자는건 아니니까.》

《아, 아닙니다!》 하고 김철수가 다급히 부르짖었다. 《뭐

비밀이랄것두 없습니다. 그저…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실 한 처녀를 사랑했는데…》

그는 거칠게 숨을 내뿜었다. 무엇인가 쓰라린 아픔에 신음하는듯했다.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손가락마디를 뚝뚝 꺾고있는 그의 얼굴에 형언할길 없는 아픔과 애수가 비껴있었다.

《그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 군대때 표창휴가를 받아가던 일부터 말하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요. 입대하여 처음으로 여러해만에 집에 가니 온 동네가 법석 끓더군요. 더구나 새하얀 쎄라복을 입은 해군중사가 산골마을에 나타났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노상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날더러 휴가를 온김에 맞춤한 처녀를 보구 가라는것입니다. 두 집 부모들끼리는 이미 약속이 돼있다나요. 참 그런 봉건이 어데 있습니까. 자식도 모르게 부모들끼리 혼사를 정하다니… 나는 부모들에게 더 이상 말도 비치지 못하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처녀가 왔습니다. 혼자서… 〈계시나요?〉 하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던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오, 왔냐. 어서 들어오지 않구. 어서!〉 하고 처녀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뜨아해 쳐다보는 나를 향해 〈얘, 철수야. 마침 그 처녀가 왔구나. 우리가 말하던!…〉 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모들이 혼사를 정한것만 해도 천만뜻밖인데다 처녀가 먼저 제발루 찾아오다니… 나는 책꽂이에서 아무 책이나 하나 뽑아들고 방안구석에 옮겨앉고말았습니다. 그때 처녀가 방안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중사동지!〉 하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 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산뜻한 처녀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처녀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하얀 저고리와 깜장치마를 입고있었는데 특히 새물새물 웃고있는 까만 두눈은 정말 인상적이였습니다. 그 눈이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내가 어쩔바를 몰라하자 처녀가 또 말했습니다.

〈중사동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전 여기 운곡고등중학교(당시) 소년단지도원인데 래일 우리 소년단원들과 상봉모임을 조직

할가 해서…〉

〈제가 말입니까?〉 하고 나는 혀가 굳어진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영웅이라구… 아니 난 그런건 못합니다.〉

그러자 처녀는 꼭 영웅이여야만 하는가, 중사동지도 조국의 바다를 지켜 잘 싸우지 않았는가, 그저 나어린 소년단원들에게 그 앞가슴의 군공메달에 깃든 이야기만이라도 해달라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소리없이 새물새물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왜 그가 계속 그렇게 웃고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녀에게 자꾸 끌리는 눈길을 어쩌지 못해 허둥거리고있었지요. 사실 그 처녀는… 산뜻하였습니다. 남달리 어여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모든것이 밝고 깨끗하고 귀엽다고 할가… 어쨌든 나는 그 처녀의 요구에 응하고말았습니다. 까짓거, 해병들이 사시장철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며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얘기야 왜 못하겠는가, 하자, 하는바치곤 멋있게 해보자! 하는 배심이였지요. 그러자 처녀는 〈그럼 약속했어요, 중사동지?!〉 하고 다짐을 받는것이였습니다. 방금 선장동지가 그랬던것처럼 말이지요.

처녀는 좀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문밖으로 나서는것이였습니다. 나가면서도 주춤거리며 무엇인가 기다리는것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무엇인가 준비하고있던 어머니가 왜 벌써 일어났느냐고 바빠하면서 나에게 눈짓합니다. 날더러 왜 붙잡지 않느냐 하는것인지 따라나가보라는것인지 알수 없더군요. 나는 그저 어리뻥해서 서있었지요. 처녀는 토방에서 신을 찾아신고 또 한번 〈자, 그럼 편히 쉬세요.〉 하면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댔는지 나는 〈아, 잠간!〉 하면서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혀가 굳어진것처럼 힘들게 말했습니다.

〈동무, 어데선가 만나본 일이 있지 않던가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가 깔깔거리며 웃어댑니다. 어머니도 웃고요. 처녀는 웃어대면서 〈아니 아직도 날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도 변했는가요?〉 하는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뻥해있으니 〈그래, 눈무지속에 빠져 울고있던 영옥이를 정말 잊으셨

어요? 그때 산속에서 업고나오던 일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 ―〉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비로소 지나간 모든 일들이 죄다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거의 10년전 어느해 겨울 학교에서 좀 늦어돌아오다가 산비탈에서 굴러나 눈무지속에 빠져 울고있던 어린 처녀애가 영옥이였습니다. 내가 그 애를 집에까지 업어다주었지요. 또 한번은… 참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술을 부리며 머리끄뎅이를 잡아 울려주기도 했구요. 그때 영옥인 아주 죄꼬만 계집애였으니까요.

우린 그때 일을 생각하며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럼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있었던 일, 없었던 일, 기억나는 일, 기억나지 않는 일들을 죄다 한꺼번에 상기해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물을 만났습니다. 다리까지 가려면 멀고… 나는 징검돌을 골라짚고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가슴이 후두둑! 합니다. 어망결에 불에 덴것처럼 잡았던 손을 놓았지요. 처녀 역시 〈어마!〉 하면서 굳어지더군요. 정말이지… 별안간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갑자기 서로 쳐다보는것조차 쑥스러워지구… 그때에야 비로소 우린 흘러간 나날과 더불어 우리들의 소년시절도 멀리 아득히 가버렸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철수가 숨을 돌리는 사이에 리명구는 두번째 담배를 꺼내물었다. 철수에게도 한대 권했으나 그는 사양하였다. 그 시절의 애틋한 추억이 그의 마음을 축축히 적셔놓은듯했다. 그는 제복상의의 웃단추를 끌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뭐 들으신것처럼 특별한 얘긴 없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루한 얘기지요. 선장동지한텐 아마 지루하게 들릴수도 있겠는데…》

《아니, 난 흥미있게 듣구있소. 정말이요.》

《그럼… 계속할가요?…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순진하구 정열적이였습니다. 거의나 끊어질새 없이 숱한 편지들을 주고받았지요. 제대되여 대학에 갔을 때도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사랑이 정열에 넘친 편지들로 엮어졌

다고도 할수 있지요. 그런데 선장동지… 미리 말하는데 나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그 처녀의 무엇을 보고 사랑했다고 찍어 말할순 없습니다. 그 처녀 역시 나의 무엇이 맘에 들었는지… 외모인지,성격인지 아니면 그 어떤 고상한 사상감정인지… 아니 사랑을 그렇게만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처녀의 어떤 결심에 탄복했거나 어떤 훌륭한 소행에 감동되여 사랑하기 시작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보기 이전에 우린 벌써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눈에 벌써 그것이 알리더군요. 선장동지,어떻습니까. 이런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가요?》

리명구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걸. 생활이란 다 그런것이지. 첫눈에 반해버리던가 아니면 언제 어느때부터인지는 몰라두 별안간 사랑에 빠진 자기를 발견하던가… 아무튼 사랑이란 수판알을 튀기거나 저울로 달아서 나눠가지는것이 아니라 거 뭐랄가… 오직 심장으로만 주고받는 그런것이거든.》

《그렇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길 마저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는 갑자기 호주머니를 뒤졌다. 이쪽저쪽 손을 넣어보더니 제복상의 호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한대 피우겠습니다,선장동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자 몇모금 급히 빨기 시작했다. 담배불이 빨갛게 타들어갈 때마다 검붉어진 그의 두볼이 우묵하게 비쳐졌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여서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가… 그 동무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것입니다. 폭풍이 불던 어느날 밤 전기사고로 불이 났는데… 수직을 서던 그 동무가 희생적으로 초상화와 선물비품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엔 거의 의식이 없었다더군요. 그의 소행은 곧 신문에도 크게 소개됐지만… 난 그 동무를 다시는 만나볼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 동무가 일체 면회를 거절했던것입니다. 나에겐… 자기를 잊어달라는 한마디 편지를 써보내고

는… 영 종무소식입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까?… 그는 자기가 그 전날의 모습을 잃었다는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답던 처녀가… 화상으로 얼굴이 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구… 나를 만나는건 물론 편지거래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소하구 간청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건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장동지! 어쩌면 이럴수 있습니까. 그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뭣때문에… 내가 그렇게 진심을 터놓는데도 그걸… 도덕적의무감에 못이겨 그러는것처럼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힘주어 담배를 빨기 시작하였다. 담배를 감아쥔 손끝이 후들후들 떨리는것이 알렸다. 리명구도 가슴이 저려나 말하기가 헐치 않았다.

《그 처녀야 왜 동물 믿지 않겠소. 동물 위해주느라 그러는거지.》

《옳습니다.》 하고 그는 성급하게 받았다. 《하지만… 어째서 그 동무가 날 위해줘야 합니까. 저의 진정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철수동무, 진정하라구, 진정하라니까!》

그는 손에 쥔 담배를 힘껏 빨고나서 란간너머로 던졌다.

《어떤 사람들은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전날의 어여쁜 처녀를 알고있는 사람은 더 견디기 어려울거라구요. 애당초 모르던 사람이 낫다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맘속에 깨끗한 사랑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아무때건 제 마음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까? 선장동지, 어디 말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너절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

그의 이마에 맺혔던 땀이 눈귀로 스며들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힘껏 문지르고나서 란간너머 푸릿한 어둠속으로 머리를 돌렸다. 부지중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눈물의 격정을 애써 감추려 한것 같다. 그것이 더욱더 리명구의 마음을 쓰리게 했다. 동시에 그들 두사람, 김철수와 그 처녀에 대한 사무친 애정이 그를 목메이게 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복앞가슴의 쇠단추만 속절없이 주무르고있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수 있으랴. 아직 리명구는 이처럼 사랑의 아픔에 몸부림치는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위안의 말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만약 그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이든 시작했더라면 전혀 동에 닿지 않는 시시부렁한 말밖에 더 하지 못했을것이다. 그는 거칠게 숨을 톺으며 입술만 아프게 깨물고있었다.

불현듯 수련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딸 수련이 역시 눈에 띄게 산뜻하고 아름답다. 순진하고 가식을 모르며 가끔 밸뚝시를 부릴 때도 있으나 맘씨는 착하다. 그런데 요즘 수련이는 군병원에 배치받은것때문에 어지간히 싱숭생숭해졌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안달아하는가 하면 제때에 손을 써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늘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 일로 하여 사랑하는 딸이 빗나갈것 같아 걱정스러워진것이다. 지금 그 애는 무엇을 하고있을가. 수련이에게도 이처럼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처럼 훌륭한 젊은이와 사귄다면 수선스러워지던 그애의 생활도 바로잡히고 안정되지 않겠는가！…

리명구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철수의 옆모습을 이윽토록 지켜보았다. 비로소 오늘에야 그를 알게 된것이 이상했다. 이렇듯 성실하고 진실한 젊은이를 몰리해하고 경멸해왔다는것이 놀랍기 그지없었다. 하마트면 남포항에서 승선을 금지시킬번했었다. 그리하여 훌륭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평생 지울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길번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그는 맨 처음부터 이 젊은이를 보통 제대군인출신이며 대학공부를 한 수수한 청년으로밖에 더 보지 않았다. 그에게서 특별히 눈에 띄는 남다른 점을 찾아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성실하고 참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특별히 모가 난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였던가. 모가 나지 않고 평범할수록 소박한법이며 소박하고 수수할수록 진실한법이다.

그는 또 담배를 피워물었다. 달이 떠올랐다. 흐느적거리는 멀기의 률동적인 흐름우에서 푸른 달빛이 춤추듯 흔뎅이였다. 오늘따라 어둠에 잠긴 바다는 더더욱 검고 진하게 번들거리는듯하였다.

두사람은 이윽토록 말없이 검은 물결만 내려다보았다. 마음속 충격이 너무 컸으므로 잠자코 생각에 잠기는것이 더 좋았다. 물

결은 쉼없이 설레이고 머리우에서는 남방의 별들이 소리없이 자리를 바꾸며 그들을 따라왔다. 훈풍이 불면서 고요한 꿈의 세계에로, 고향과 처자와 사랑하는 처녀에게로 자꾸만 그들을 이끌어갔다. 하여 그들은 고요한 이 바다우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준비되고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다.

정적이 깃들었다.

11

폭풍전야엔 흔히 정적이 깃든다. 시꺼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소리도 없는 번개가 구름속을 파헤치며 바늘끝처럼 무시로 펀뜩인다. 대기는 압축되고 납덩이같이 무겁게 갈앉으며 하늘과 땅이 맞붙어버리는 가운데 모든것이 어둠속에 파묻혀버린다. 별안간 귀가 멍멍해질 지경으로 무거운 적막이 대지를 짓눌러버리고 미구에 들이닥칠 무시무시한 천둥소리를 기다려 모든것이 숨을 죽인다. 한순간, 목이 타들고 피가 말라드는 한순간이 지나면 드디여 푸른 섬광이 하늘을 쩍 가르며 눈부시게 번쩍여간다. 굉음은 잠시후에야 터진다.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듯 쫘르릉! — 하고 뢰성벽력이 터지면 마침내 참고참아오던 폭우가 미친듯 쏟아져내린다. …

극동의 조선반도와 그 수역에 폭풍전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처절한 싸움이 터질 그 시각이 박두해온것이다.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될것인가,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이때 조선은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떨것인가?… 오늘도 전세계의 시계바늘들은 세기말의 대사변이 벌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긴장하게 맞받아갔다. 채칵채칵 채칵채칵… 어데선가 탁상시계소리가 더 크게 울려왔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고있는 금수산의사당의 불밝은 방은 엄숙한 분위기속에 잠겨있었다. 방금 첨예한 핵대

결전의 실태와 사태발전의 추이에 대한 문선규의 보고가 있었다. 핵문제에 따르는 군사정세에 대해서는 총참모장 최광이 보충하였다.

한순간의 침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형지구의가 있는 앞탁에 **김정일**동지와 마주앉아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정치국위원들인 부주석, 총리,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차례로 둘러보시다가 천천히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오늘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되는것은 지금 핵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있기때문이요. 이자 외교부 1부부장이 회의에 제기한 보고에서 언급한것처럼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국제화하기 위해 미쳐날뛰던 미국이 지금은 전쟁으로까지 위협하고있소. 우리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나갈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거든. 더 이상 핵문제를 끌어갈수는 없을것 같소.》

김정일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즉시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는듯 빠른 손세를 써가며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핵문제에서 일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적들이 녕변지구의 핵시설을 기습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나머지 이제는 핵무기사용시의 지휘통신체계까지 발동시키면서 우리를 놀래워보려고 하는 이상 우리가 정의롭고 결백하며 강력하고 또 무자비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되였습니다!》

《옳소.》

수령님께서 정치국위원들모두를 둘러보시자 사람들이 일시에 자리에서 움쭉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수령님! 때가 되였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합쳐 웨치려는듯하였다. 회의분위기는 대번에 격앙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다시 말씀을 이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어조는 더욱 준렬해졌고 그이의 손세에서도 힘찬 박력이 두드러졌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제거하려는것이였지 결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대국

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려는것이 아니였다는것, 따라서 미국과 그에 추종한 국제반동들이 핵압력소동과 군사적위협을 계속할 경우 그에 대응한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기어이 우리를 압살해버리려고 하는 이상 우리가 무엇때문에 계속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라는 울타리안에 박혀 단련을 받고있겠습니까!》

《음-》 수령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러니 **김정일**동지의 생각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자는것입니다!》

한순간 모든것이 정지되여버린듯하였다. 거대한 폭발의 굉음이 방금 귀전에서 터진것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적위치에서 사업하고있는 정치국위원들이였지만 세찬 충격에, 말로는 다 표현할길 없는 격동과 흥분에 온몸이 뒤흔들린듯하였다. 특히 핵대결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문선규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마치 번개불마냥 번쩍인 섬광을 본듯하였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준비해오신 대결단, 우리 장군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오신 배심과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오던 강력한 자위적조치이다.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지탱점을, 그 명줄을 끊어버리는 이 결단, 이제 미국은 어떻게 나올것인가?…

미국은 세계의 첫 핵보유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최고의 국익을 핵무기의 독점과 그 전파방지로 보았다. 그것은 당시 핵무기의 과학적기초리론이 국제적인 공동의 지식으로 되여있었으므로 미국의 핵무기독점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것이기때문이였다. 실제로 그때 쏘련과 영국, 카나다에서 핵무기개발이 벌어지고있었으며 그 이전에 벌써 도이췰란드는 미국에 앞서 그 연구에서 거의 성공직전에 이르렀었다. 그러므로 될수록 빨리 국제적인 원자력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나라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을 둘러싼 쏘련과의 첨예한 리해관계의 대립속에서 1949년 9월 쏘련이 미국보다 4년 늦어 원자탄실험에 성공하고 1952년 11월엔 미국이, 이듬해인 1953년 8월에는 쏘련이 각

각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고 1957년 8월 쏘련에서 첫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공한후 그해 12월 미국에서 역시 대륙간 탄도미싸일을 발사함으로써 랭전의 격류는 세계를 휩쓸게 되였다.

1965년에 와서야 쏘련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초안을 공포하고 당시 핵무기소유국들이였던 쏘,미,영 3개국이 안전보장선언을 한후 모스크바,워싱톤,런던에서 62개국이 동시에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드디여 1970년에 조약이 발효되였다.

물론 핵무기는 지금도 미국의 독점물은 아니다. 그러나 쏘련의 해체와 더불어 세계의 유일초대국이 된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자기의 손에 쥐여진 족쇄로,제 마음대로 단조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발목에 채우는 족쇄로 여기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미쳐날뛸것이다. 횡포한 맹수처럼 포효하며 발광할것이다. 아직 그 어느 나라도 이 사나운 맹수의 코수염조차 건드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맹수의 코수염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거머쥐고 씹어삼키려는 그 발톱과 이발을 뽑아던지려 하시는것이다.

또다시 시계의 초침소리가 점차 더 크고 성급하게 무거운 침묵을 토막치며 채칵거리기 시작했다. 한순간이 몇년맞잡이인듯… 드디여 수령님께서는 한손을 지구의우에 얹으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겨 그것을 돌리시였다. 아니,지구의가 아니라 지구 그자체를 돌리고계시는듯했다.

수령님의 눈앞에서 지구가 돌고있다. 광대한 지구가,장구한 력사를 가진 온 세계가 돌고있다. 세계!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정불변한것인가?… 이 세계에서는 모든것이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련관속에 놓여있다. 시초가 있으면 끝이 있고 발생이 있으면 사멸이 있다. 모순이 있으면 대립이 있고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다. 하여 이 세계는 부단히 운동하고 투쟁하며 변화발전해가는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이 없는 세계를 생각할수 없듯이 투쟁이 없는 변혁도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이렇듯 지구전체를 뒤흔들어놓을만한 대결단이 선포된적이 언제 있었던가!…

마침내 수령님께서 지구의를 멈추시였다.

《그렇게 결심했단말이지. 그렇게 큰 용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열정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곧 핵전파방지를 세계전략의 하나로 삼고있는 미제의 세계지휘봉 즉 핵몽둥이를 꺾어버리는것으로 됩니다. 결국 미국과 우리와의 정면충돌은 더는 피할길이 없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뿐만아니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권을 수호할 력사적사명도 함께 걸머지고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판가리대결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우리 혁명은 물론 세계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말살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맨 앞장에 나서서 미국과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

《음—》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였다. 이윽고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안광에서 광채가 번뜩이였다.

《옛글에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소. 하늘을 놀래우고 땅을 뒤흔든다— 다시말하여 위인은 반드시 하늘을 놀래우고 땅을 뒤흔들어놓을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 결심이야말로 경천동지격인 대결단이요!》

수령님께서는 다시 지구의를 천천히 빙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 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오?… 오래전 일을 생각했소.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느해인가 김주현동무가 가져온 일본 〈요미우리신붕〉에 쓰딸린의 연설내용이 실리지 않았겠소. 2차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그때 쓰딸린은 히틀러의 로골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념두에 두고서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수수방관할것이 아니라 나서야 하며 나서되 맨 나중에 나서야 한다, 즉 저울판에 결정적인 추를, 저울을 기울어뜨리게 할수 있는 추를 던지기 위해 나설것이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최고사령관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나서되 맨 앞장에 나서서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 오래전 그 일이 문득 떠오르는구만.》

모든 사람들은 사뭇 격동된 심정으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고 있었다. 핵문제에서의 그 결심이야말로 담대한 심장과 철의 의지,

비범한 지략을 겸비한 령장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있었다. 막부득이한 경우의 무모한 결심은 누구나 다 할수 있다. 그러나 령장의 결심은 시대의 책임을 걸머진것으로서 변혁하고 창조하고 력사를 전진시키는것으로 된다. 하기에 위대한 령장을 떠난 빛나는 력사란 없는것이다.

이윽고 지구의에서 손을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다시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였다. 세찬 흥분에 가슴을 울령거리고있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두눈을 슴벅거리고있는 부주석, 입을 꽉 다물고있는 총참모장… 도수높은 안경을 통해 최광의 눈가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것이 알렸다. 수령님께서 묻는듯한 눈길을 멈추시자 최광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한순간 성문처럼 꽉 닫긴 입을 열수가 없어 모지름쓰는듯한 표정이였다. 그는 방금 오늘과 꼭같이 흥분과 격정으로 끓어번지던 다른 또하나의 회장을 생각하고있었다. 바로 얼마전 조선인민군의 한 병종대회가 페막되던 날, 대회참가자들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후 잠시 휴식하던 광실이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불빛이 휘황했었다. 수많은 차수, 대장, 상장들이 둘러서있는 가운데 수령님께서는 대회의 성과에 만족해하시며 오늘 전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고 전군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을 볼 때마다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이어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한층 더 강화된것처럼 동무들의 어깨우의 별들도 더 무거워졌다고, 그러니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어디 대답해보라, 지금 적들은 한사코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고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정세는 대단히 긴장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데 그래 어떤가, 동무들 자신있는가?! 하고 물으시였다. 다음 순간 전체 지휘관들이 일시에 힘차게 대답올렸다.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수천수만의 장병들을 호령하던 엄엄한 목소리의 대합창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물론 나는 동무들이 배심든든해하고있다는걸 알고있소. 그

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요. 그러나…》

수령님의 안광에 준엄한 빛이 어리시였다. 《적들은 간악무도하다는걸 알아야 해. 그래 적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대답해보오. 적들이 미친듯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고막이 쩡― 울렸다. 다시 광실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속에 묻혀버렸다. 침묵, 또 침묵… 모진 압박감에 심장이 터질듯했다. 바로 그 순간,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한걸음 앞으로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며 불을 토하듯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펄펄 끓는 쇠물을 삼킨듯했었다. 차수들과 대장들이 거의 일시에 머리를 번쩍 들자 광실의 휘황한 불빛이 그들의 군모채양과 어깨우의 금빛견장에서 강렬한 빛을 휘뿌렸다.

《지금 미국은 오산하고있습니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계속하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어 수십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미국이 오늘까지 50여년간이나 포탄 한발 맞지 않고 살아오다보니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졌지만… 안될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말것입니다!》

돌연 온 세계가 그이의 불같은 선언에 입을 다물어버린듯했다. 뢰성벽력이 울린 뒤끝과도 같이 귀가 메여버린 정적, 한순간에 광실은 더욱더 넓어지고 휘황해진듯싶었다.

수령님의 만면에도 환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천천히 두손을 허리에 짚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과시 장군중의 장군이라고, 백두산의 기상을 지닌 **김정일**장군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장내는 격앙되여있었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그날도 지금처럼 최광은 물기에 젖은 두눈을 번뜩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고있었다. 지금처럼 심

장이 툭툭 뛰는 소리를 듣는듯했었다. …

마침내 최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결심이야말로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무비의 용기와 배심을 안겨주는 일대사변으로 될것이라고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이어 열띤 토론들이 있었다. 이제는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감히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옳소. 바로 그렇소.》 하고 수령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그 결심이야말로 내가 바라던것이요. 극도로 오만해지고있는 미국놈들에게 다시한번 조선의 본때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바로 최고사령관이 령장다운 대결단을 내렸단 말이요. 대결단을! …》

수령님께서는 대형지구의를 또한번 돌리시면서 좌중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엄숙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제 **김정일**동지의 그 결심을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곧 공화국정부성명으로 온 세상에 선포합시다!》

빙그르 돌던 지구의가 멎었다. 수령님의 눈앞에 바로 붉은색으로 칠해진 조선이 있었다. 오늘따라 더욱 진하고 더욱 선명해 보이는 조선,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예로부터 불러온 그 이름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는가?! …

12

문선규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고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이어 여느때처럼 직방 본론에 들어가시였다.

《1부부장동무, 이제부터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

전에 만든 이 비망록은 때가 되면 신문과 통신, 방송을 통하여 공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도 배포합시다. 그에 앞서 우선 우리의 조약탈퇴결심을 선포할 공화국정부성명도 준비하고 대변인담화, 기자회견, 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 보낼 외교각서 등을 속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문선규는 아직도 가까스로 숨길을 톺고있었다. 그이께서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자 그는 서둘러 말씀드렸다.

《장군님!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핵대결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경대처하겠다고, 또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장군님께서 그처럼 큰 결단을 내리실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배심이 용솟음칩니다!》

《음- 우리의 조약탈퇴결심은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치렬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법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1부부장동무도 잘 알겠지만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의하면 나라에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국가의 최고리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엔 이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게 되여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조약탈퇴조치를 지레대로 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킵시다. 핵상무조동무들이 또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미소하시였다.

《너무 서둘지 마시오. 심중하게 사색하고 면밀하게 준비합시다. 우리의 핵문제가 드디여 폭발하게 됐는데 핵폭발이라는게 어디 간단한 일이요? 세계를 들었다놓겠는데 잘 준비합시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얼마후 그는 터질것 같은 가슴을 안고 외교부청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기하고있던 운전사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고 홧홧 달아오른 얼굴에 찬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차를 몰아 소리없이 뒤따르고있는줄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하

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을 나설 때부터 줄곧 이어온 그 하나의 생각에만 골몰하고있었다. 가슴은 세찬 격동에 뻐근해졌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걷는다. 밤은 오싹하리만큼 찼으나 그것도 알지 못했다. 투광등에 비쳐진 보통문의 성벽에서는 지난해의 말라버린 담쟁이넝쿨이 바람이 불 때마다 오스스 떨고있었다.

그는 2월관리리사회를 앞두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시일이 지나갔지만 우리의 핵문제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가까운 등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렸다. 흠칠 놀라며 머리를 돌려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그의 운전사가 승용차의 문을 열며 소리쳤다.

《아니 어데로 가십니까?》

《?…》

사위를 둘러보았으나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왕청같은곳으로, 알수 없는 골목길로 꺾어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넓지 않은 길 량옆에 쇠울타리를 둘러친 건물들이 솟아있는데 불꺼진 창문유리들이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륜곽을 드러내고있었다. 운전사가 또 소리쳤다.

《어서 타십시오.》

타고싶지 않았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걷고싶었다. 그는 운전사에게 먼저 가보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또 생각에 잠겼다. 이제 미국과 서방세계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단번에 아우성치며 전쟁에 뛰여들겠는가? 아니 먼저 기절초풍하여 굳어질것이다. 그다음… 거의 일시에 미친듯 울부짖으며 달려들것이다. 한편 환호를 올리는 나라들도 많을것이다. 세계적인 강권과 압력, 불공정성을 깨뜨렸다고 박수갈채를 보낼것이다. 물론 우리의 동정자들속에서도 동요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발목을 잡거나 공포에 질려 꽁무니를 사리는자들도 없지 않을것이다. 변절과 배신이 전염병처럼 휩쓰는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얼마후 그는 외교부청사앞마당에 이르렀다. 어둠에 잠긴 **김일성**광장 맞은편의 청사쪽에서는 밤을 지키는 외등이 조는듯마는듯 가까스로 어둠을 밀어내고있었다. 그 청사앞 벽면에 걸린 맑

스와 레닌의 초상화들마저 희미하게 겨우 두드러져보일뿐… 그 초상화들을 보느라니 문득 아픔과도 비슷한 야릇한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수령들인 맑스와 레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리한 통찰의 눈길로 급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를 사색깊이 지켜보고있는 그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것일가?…

사색과 탐구는 그들의 일생의 반려였으며 타고난 운명이였다. 유물변증법의 철학사상을 지팽이삼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초행길을 출발하였던 그들, 불멸의 진리를 믿어의심치 않았던 위대한 사상리론가들이였던 그들, 그들은 격변하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것일가?…

저 유럽에서는 강성하던 사회주의가 졸지에 무너져버렸다. 그들이 추켜들었고 넘겨주었던 혁명의 붉은기는 크레믈리성벽우에서 내려져 넝마처럼 찢기고 짓밟혔다. 옛 제도의 황족과 귀족의 망령들이 무덤속에서 뛰쳐나와 붉은 광장을 배회하고있다. 《인터나쇼날》의 우렁찬 대합창이 울려나오던 대회당과 거리들에서는 총포성이 울부짖고 피가 흘렀다. 영구불멸로 칭송되던 위대한 저작들이 불길속에 던져졌다. 수령의 동상들이 길바닥에 넘어졌다. 사회주의는 변절자, 배신자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들쓰고있다.

과연 이 모든것을 두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것일가?… 오랜 세월 그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더욱 피를 끓게 하던 그 모든것 ─ 밝은 미래에 대한 꿈과 노래와 리념과 희망마저 다 사라졌겠는가?

아니다. 지금 그들은 여기서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있게 휘날리는 붉은기를 보고있다. 어제도 여기 **김일성**광장에서는 10만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영웅적인민의 힘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피빛으로 타는 붉은기들이 숲을 이루며 흘러갔었다. 《인터나쇼날》의 힘찬 주악이 하늘땅을 흔들며 울려퍼졌다.

이 판이한 두 현실을 두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였을가? 이제 여기서 세계를 뒤흔들어놓을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라는 무서운 폭탄선언이 터지고 서방세계가 전률하는것을 보면

그들은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될것인가?…

오늘 사회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사수되고 공고화되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백화점앞도로로 인민군기동순찰대의 자동차대렬이 지나갔다.

푸릿한 가로등불빛에 완전무장을 한 병사들의 철갑모가 번들거렸다.

맨앞의 전투용지휘차에 내건 붉은기가 유난히도 크고 진하게 두드러져보인다.

세차게 펄럭이는 그 붉은기아래 전투복장을 한 지휘관과 나란히 철갑모를 눌러쓴 기관총수가 어둠속 저 멀리로 당장 불을 토할것 같은 총구를 겨누고있다.

그들은 지금 준전시하의 수도의 안전을 지켜 낮과 밤이 따로없이 거리와 거리를 돌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상이다!) 하고 문선규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저 붉은기를 보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의 상징인 저 붉은기를 보라.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친다 해도 저 신념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변함없이 꿋꿋이 전진해갈것이다!…)

그는 걸음을 빨리하였다.

청사에 들어서서는 젊었을 때처럼 한번에 두계단씩 뛰여오르기도 했다.

예견했던것처럼 서기실문을 열자 핵상무조성원들이 그가 도착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었다. 김세환, 최우정, 장운성 등 …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였지만 이들이야말로 장군님께서 지휘하시는 핵대결전의 제일선 전투원들이다.

문선규는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자기의 화선전우들인 그들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직한 성격을 지닌 최우정이 먼저 이렇게 물었다.

동시에 성미가 급한 장운성과 침착하고 유연한 김세환조차 참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거듭하였다.

문선규는 크게 숨을 들이긋고나서 엄숙하게 말하였다.

《방금 핵폭발이 있었소, 핵폭발이!》

《예?!》

사람들의 놀란 눈빛, 문선규는 소리내여 웃으며 자기의 방문을 활 열었다.

《자, 들어갑시다.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전투명령을 주시였소!》

13

수련에게도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이 시작되였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후 병원에서는 유사시 부상자들과 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와 후송조직을 위한 이동치료대를 뭇고 방식상학을 진행한다, 훈련을 한다 하며 법석 끓었다. 낮에는 낮대로 환자치료사업을 계속하면서 밤에는 또 군내주민들에게 전시조건하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간단한 지혈법, 붕대감는법, 소독법, 화상치료를 위한 민간료법 등을 해설하고 인민군대원호물자를 마련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수련은 자기가 준엄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 휘감겨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와는 관계없이 매해 왔다가는 가버리군하던 전쟁의 위협이 이번엔 그를 내버려두려고 하지 않았다. 싫건좋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수련은 한 공민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제는 전쟁을 생각하여야 했고 그것을 준비하여야 했고 거기에 참가하여야 했다.

실로 바쁜 날들이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뛰고 또 뛰여도 일감은 늘어만 갔다. 수련은 그 바쁜 속에서 시랑송준비도 하여야 했다. 이제 인민군대원호물자를 가지고 어느 구분대를 방문하는데 그때 병원의료일군들로 간단한 예술소품도 내놓아야 하는것이다. 수련은 《나의 조국》이라는 서정시를 읊게 되여있었다.

짬짬이 시를 외우면서 수련은 이제 어느 구분대를 방문하게 될가 하고 자주 생각하였다. 윤철이 속한 부대 역시 운봉산기슭 어데

인가 있을것이니 거기로 갔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던것이다.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그것이 현실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여느때같으면 벌써 두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왔을 윤철, 요즘은 아무 소식도 없이 계속 침묵만 지키고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단호히 거래를 끊기로 맘먹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되자 이름할수 없는 아쉬움과 실망이 그리고 쑤시는듯한 아픔이 가슴속을 훑어갔다. 이제 그를 만나면 뭐라고 할가? 그는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볼가? 아픔일가, 비난일가, 아니면 쓰디쓴 경멸일가?…

수련은 그와 만나게 될 그 산고지를 그려보았다.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앞에서 수련은 시를 읊고 윤철은 숱한 사람들속에 끼워 묻는듯한, 타는듯한 눈빛으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그런 정경이였다.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그는 시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할가, 시가 그의 마음에 들가?… 끝까지 아무말 없이 먼발치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는지도 모른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것을 말해주기때문이다.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딩굴던 어릴적동무

수련은 인민군구분대방문을 앞두고 온밤을 꼬바기 밝혔다. 고

려약제조실에서 약제사 한성숙 등과 같이 인민군군인들의 건강을 위한 10여종에 달하는 고려약들을 수백봉지나 만들었던것이다. 샐녘에야 합숙에 돌아가 잠간 눈을 붙이고 아침 7시에는 습관대로 벌써 거울앞에 서있었다.

오늘은 윤철을 만나는 날이다. 수련은 그를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릴수 없었다. 먼발치에서 그가 아무말 없이 쳐다보기만 해도 좋다. 그가 쌀쌀한 눈빛으로 비난해도 좋고 비웃어도 좋다!… 수련은 오늘따라 특히 그를 만나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것이 놀랍고 이상했다.

얼마후 수련은 합숙을 나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약제사 한성숙의 집에 들렸다. 매일 그 집에 들려 같이 출근하는것이 하나의 일과처럼 되여버렸던것이다.

체격이 크고 성격이 활달한 한성숙은 김이 뽀얗게 서린 부엌에서 설겆이를 하며 아이들과 다툼질을 하고있었다. 수련이가 들어서자 대충 인사말을 건네고나서 또 웃방에 있는 큰애한테 소리를 질러댔다.

《얘 명국아! 너 동생을 왜 자꾸 못살게 구니,응? 걔가 네 영어책은 해서 뭣하겠니. 제가 건사는 안하구 밤낮 명희만 욱박지르지… 뭐,뭐라구? 제가 어데 가서 잃어버리구선!…》

한성숙은 왱강댕강 그릇소리를 내며 수련이에게 하소했다.

《아이구,저것들은 누굴 닮아 그런지 다들 더퍼리라니까. 온통 널어놓구 벌려놓구 어데 가서 흘려버리구…》

웃방에서 명국이녀석이 《누굴 닮긴,사람들이 다 엄마 닮았다는데.》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한성숙은 그쪽에 대고 또 한바탕 포격처럼 퍼부어댔다. 소란스러운 성미인 한성숙은 또 어찌나 손이 빠른지 몰랐다. 어느새 설겆이를 다 끝낸 그는 딸애의 넥타이도 바로 매여주고 거울앞에 바투 다가앉아 간단한 화장까지 했다.

얼마후 그들은 군병원으로 가는 큰길에 나섰다. 군병원은 지난해에 완공된 창광원식목욕탕 《은정원》과 같이 읍거리 한끝에 있다.

방송차가 거리를 돌면서 준전시하의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는 선동문을 웨친 다음 힘찬 취주악을 울리며 멀어져갔다. 한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한성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련선생! 오늘도 역시 안색이 좋지 않구만.》

덜퍽지고 떠들썩한데다 웃음도 많은 한성숙이 이렇듯 정중하게 《수련선생!》 하고 부르는것은 그가 무엇인가 언짢게 여기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뭐 내야 그저 그렇지요.》

수련이의 어정쩡한 대답이였다.

《아니, 내 눈은 못속여.》 하고 한성숙이 고집했다. 《뭔가 달라졌어. 이번에 집에 갔다와서부텀 늘 쫓기는 사람갈더라니까. 도대체 웬일이야?》

《…》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글쎄 말하고싶지 않으면 그만둬. 하지만 한가지만은 알고싶은데… 요즘 그 윤철동무한테선 왜 편지가 오지 않지?》

《…》

여전히 입을 다물고있을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아픔 없이는 말할수 없는 그런 사연을 그가 묻는다 해서 곧이곧대로 대답할수도 없거니와 그러고싶지도 않았던것이다.

《내 한가지 귀띔해주는데.》 하고 한성숙이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말이야 맞받아나가야 하는거야. 얌전만 빼면서 의례히 어떤 훌륭한 청년이 나타나주겠거니 하고 기다려선 절대 안돼. 특히 수련이같이 곱게 생긴 처녀들은 더욱 그렇지. 훌륭한 청년이 나타나주기전에 날쌘 녀석들이 채간다니까… 정신차려 들어요, 수련선생!》

어쩌면 그가 수련이의 일을 다 알고 말하는것만 같아 수련은 속이 뜨끔했지만 내색은 않고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 언닌 맞받아나가 자기의 사랑을 찾았겠군요?》

《그야 물론! 난 기다리는 성미가 안야!》

《그래요?… 그래서 바라던대로 됐어요?》

《오, 그것말이지.》 한성숙은 호함지게 웃어댔다. 《내가 바란 사람은 말이야 속이 깊구 성격은 시원시원하구 동작이 날쌘 운동가형의 미남자였는데말야 글쎄 어떻게 된 셈판인지 키가 작구 소힘줄같이 질긴 옹고집쟁이, 게으름뱅이를 만나지 않았겠어!》

수련이도 그 말에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한성숙은 실팍한 어깨를 들썩거리며 아무 꺼리낌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지경으로 맘껏 소리쳐 웃어댔다. 그 녀자의 희멀쑥하고 둥실한 얼굴에 가득찬 환한 웃음을 보면서 수련은 진짜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찾은 녀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병원정문앞에 이르렀다. 접수구쪽에 있던 산부인과 준의가 수련이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참 편지가 왔던걸! 이자 방금 거기 조제사가 가지구 갔어요.》

《편지요?》

《음, 무슨 좋은 소식이 온것 같애. 뭐 봉투도 요란하더구만. 성냥갑만큼씩한 우표가 넉장이나 붙어있는게 꼭 무슨 화보장같더라니까!》

《…》

수련은 누구한테서 온 편지일가 하고 속으로 점쳐보았다. 어머니가 쓴것일가. 아니, 어머닌 편지를 쓰지 않는다. 전화로는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편지라면 단 두줄도 쓰기 싫어하는 성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표를 넉장씩이나 붙이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누굴가. 혹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수련이를 평양에 끌어올리기 위해 애써준다는 그 사람은 아닐가?…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것을 알고 얼굴을 붉혔다. 한성숙이는 웃으며 어서 가보라고 손짓했다.

《난 기술부원장방에 들렸다 가겠어.》

《예 —》

수련은 종종걸음으로 소독약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맨끝의 고려약제조실문을 열었다. 약장서랍을 열던 조제사가 의미있게 웃었다.

《편지가 왔더군. 거기 원탁우에 놨어요.》

《그래요?!》

수련은 애써 흥분을 감추며 원탁으로 다가갔다. 거기 하얀 실로 뜬 원탁보우에 편지가 놓여있었다. 정말이지 성냥갑만한 우표들을 봉투 오른쪽에 가득채우고도 남아 뒤등에까지 감아붙인것이였다. 먼저 누구인가 멋을 부려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글씨로 쓴

주소가 눈에 띄였다. 검은색 마지크로 쓴 생소한 글씨, 다음 순간 수련의 두눈이 굳어졌다.

《원명길?!》

비로소 모든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창광거리 은하수식당, 무지개빛 어스름속에서 피를 끓게 하며 울리던 음악, 무심하게 던지던 멋진 젊은이의 말, 동창생 명숙이 자꾸 권하던 발그스름한 유리잔, 승용차… 그들은 수련이를 어데로 실어가려 했던가?…

《처음 보는 이름이더군요.》

저쪽에서 조제사가 하는 말이였다. 실눈을 짓고 소리없이 웃으며 수련이를 바라보는것이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고 묻는듯했다. 수련은 못본척했다. 말없이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재빨리 그것을 뜯었다. 수련이 못내 바라는 소식이, 수련이를 소환하게 되였다는 희소식이 씌여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편지지를 꺼내들자 타는듯한 기대를 품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수련동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릴줄은 몰랐습니다. 밤중에 동무네 집 전화번호를 돌리니 어머니가 받더군요. 그래서 동무가 떠나가버린것을 알았습니다. 수련동무, 어머니는 이상해하면서 동무가 얼마나 급작스레 떠났는지 갈아입을 옷가지도 채 꾸려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수련동무, 지금 동무는 무엇인가 곡해하고있습니다. 동무를 사랑하는 나의 심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멸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리유가 있지요. 내가 본의아니게 동무를 노엽혔으니까요. 사실 그날 나는 동무를 보는 첫순간에 벌써 동무와 오래전부터 알고있었고 사귀여왔던것처럼 생각되더군요. 동무의 산뜻한 아름다움에 끌리면서 나의 의지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만 무분별한 정열을 낳게 했지요. 하지만 수련동무, 그러한 정열도 없이 무슨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사랑이란 화산의 분출과 같은것이 아닐가요?… 물론 자기의 정열을 숨기며 오랜 세월 남모르게 서서히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나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숨기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운것이 아닌담에야 무엇때문에 감추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단번에 불을

지펴 끓어번지던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는 성미입니다.》

문소리에 놀라 머리를 든 수련은 기술부원장과 한성숙이 들어오는것을 보았다. 수련이 인사하자 기술부원장은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우며 물었다.

《집에서 온 편지요? 아니면 애인한테서?… 아, 됐소, 됐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는걸 보니 련애편지인게지?… 어서 마저 읽소.》

기술부원장은 한성숙과 같이 인민군대원호물자로 준비한 고려약들을 어떻게 포장할것인가 하는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수련은 편지를 들고 구석쪽 창가로 걸어갔다. 수도에서 살고싶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하여 이끌려갔던 그 은하수식당, 거기에서 만난 멋진 젊은이, 대수롭지 않게 유식한 말들을 시내물처럼 끝없이 줄줄 내리엮군하던 그 원명길이 지금도 수련이를 구슬리고 귀 기울이게 하고 부지중 저도 모르는 새에 이끌려가게 유혹하는것이였다.

《수련동무, 나는 동무가 조만간에 나를 리해하고 다시 만날 기회를 마련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수련동무도 어느 한 시인의 작품에서 이런 편지구절을 읽은바 있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선 믿어야 합니다
낮에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이런 희망마저 없다면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사랑을 시와 노래로써만 아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사랑을 철따라 갈아입는 류행복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것을 이제 동무는 알게 될것입니다.

수련동무, 믿어주시오. 그리고 대답해주시오. 언제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동무의 꿈같은 미소를 그리는 벗 원명길.》

수련은 언제 기술부원장이 나갔는지 그리고 언제 한성숙이 그의 곁에 다가왔는지 알지 못했다. 수련은 실망한 표정으로 넉장의 우표가

붙어있는 화려한 봉투를 가져가는 한성숙을 멀거니 보고있었다.

《수련선생.》 하고 한성숙이 언짢아하는 낯빛으로 말했다. 《기술부원장선생이 그러는데 인민군구분대방문은 10시쯤해서 떠난다나. 그때까지 약품포장을 다 끝내야겠어.》

《예, 그렇게 하죠.》

수련은 시들하게 대꾸하며 지함있는데로 가려고 했다. 한성숙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손에 든 편지봉투를 수련의 눈앞에 가져다대는 한성숙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건 누구지？… 원명길！… 첨 보는 이름인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그 편질 좀 봐도 되겠어？… 비밀이라면 관두겠어.》

《뭐 비밀까지야…》

수련은 편지를 등뒤에 감췄으나 한성숙이 노여움을 타는것 같아 《그럼 보세요！》 하면서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고려약봉지들을 반쯤 채우다만 지함가까이로 걸어갔다. 비로소 지금까지 잊고있던 갖가지 약냄새가 코를 찌르는것을 느꼈다. 수련은 약봉지들을 지함에 넣기 시작했다. 봉지마다 어느 한 인쇄소에서 찍어온 약품상표들이 곱게 붙여져있다.

한성숙은 편지를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쪽입귀를 비쭉하는가 하면 입속으로 웅얼거리다가 흥흥 코김을 불기도 했다. 조제사까지 그쪽에 자꾸 눈길을 던지고있다.

수련은 이제 한성숙이 분노의 웨침으로 소란을 피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녀자의 넙죽한 귀밑에서 귀방울이 오르내리는것이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도 일어날것 같았다. 수련은 아예 일손을 놓고 하회를 기다렸다. 마침내 편지를 다 읽은 한성숙의 얼굴에 웃음이 피여났다. 그 녀자는 마치 포옹이라도 하려는듯 두팔을 벌리며 수련이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수련선생！》 하고 한성숙이 떠들었다. 《언제 이런 멋쟁이를 친했어. 응？ 아주 똑똑하구 잘 생긴 사람같애. 편진 또 얼마나 기막히게 썼어. 난 아직 한번도 이런 멋들어진 편지를 받아본적이 없잖아！》

그의 한손엔 화려한 봉투가, 다른 손엔 보기 드물게 하얀 종이

에 쓴 편지가 들려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내흔들며 계속 떠들었다.
《똑똑한 사람이야. 사람을 주물러댈줄 안다니까. 난 이 편지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수 있어. 그렇지만 수련선생, 나같으면 이 편지에 침을 뱉겠어, 정말이야!》
수련은 웃고있는 그 녀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추운듯 어깨를 으쓱하였다.
《왜 내 말이 맘에 안들어?》 하고 한성숙은 웃음을 거두며 물기를 띤 두눈의 흰자위를 번뜩이였다. 《보나마나 이 사람은 위선자야. 알겠어? 몽땅 다 꾸며대구있어. 겉으로는 점잔을 빼면서두 속으로는 흉측한 생각을 품구있어. 그게 막 보인다니까. 구슬러대구 꼬이구 찰거마리같이 들어붙어 떨어지려 하질 않지. 수련선생같이 예쁜 처녀를 그가 놓치려 할게 뭐야.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해. 어렵지 않게 미인들을 나꿔채는 사람들치구 진실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제 리속만 채우면 그만이야!》
한성숙은 돌아서서 원탁우에 봉투와 편지종이를 한데 엎어놓고 탕탕 두드려대기까지 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말에 일고의 의문도 반대도 있을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것과 같았다. 수련은 잠자코 있었다. 몽롱하고 노곳한 피로가 엄습해오는것을 느끼며 말없이 두눈을 감았다. 한성숙이 다가와 그의 옆에 의자를 당겨놓고 앉으며 수련의 동실한 어깨를 살그머니 끌어안았다.
《왜 내 말이 맘에 안들어?》
《아-니.》 하고 수련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저 어쩐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좀 쉬여요. 하지만 수련이, 한마디만 더 해야겠어. 만약 수련이 어머니가 이 일을 안다면 꼭 나처럼 말했을거야.》
《그럴가요?》
《그렇지 않구!》
《…》
수련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기만 하였다. 그 녀자를 그토록 격분케 한 그 멋들어진 원명길은 바로 어머니가 눈독을 들인 청년이였던것이다.

14

군당에서 나온 일군과 기술부원장을 위시한 군병원의료일군들 그리고 처녀교원과 뜨락또르운전수로 무어진 인민군구분대방문단일행은 뻐스를 타고 령길을 오르고있었다. 멀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릉선이였다. 수련이 바라던 운봉산과는 정반대쪽으로 달려왔던것이다.

수련은 뻐스가 바다쪽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속이 조마조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그가 윤철소대장을 처음 만난곳은 운봉산기슭이였다. 세개군에 결쳐 뻗어있는 그 운봉산 어느 깊은 골안에 그의 부대가 있으려니 믿고있었는데 왕청같은 바다가 초소로 차를 몰아대였던것이다.

혹시 윤철이 속한 부대가 여기 어덴가 바다가기슭에 주둔해있을지도 모른다고 수련은 생각하였다. 정찰병들이 이쪽에서 비행기로 날아올라 운봉산에 락하산으로 떨어져내렸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럴듯한 생각이였다. 하여 수련은 아카시아와 사시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릉선의 이곳저곳을 눈밝혀 살펴보았다.

뻐스가 어느 굽인돌이에서 멎자 대기하고있던 두명의 군관이 마주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련은 맨 나중으로 차에서 내려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대장과 대대정치지도원이라고 하는데 허리에 권총을 차고 철갑모를 쓰고 어깨우의 위장망에 풀까지 꽂은 전투차림새였다. 대대장이 일행을 안내하며 말했다.

《곧장 화력진지로 가십시다. 지금 녀성고사총중대가 훈련중인데 거기 가서 군인들의 훈련모습도 보고 인사도 나눕시다.》

(고사총？！) 하고 수련은 놀라서 생각했다. (그러니 고사총중대로 왔는가？…)

《고사총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고 대대장이 계속했다. 《4신고사총 한문이 대구경기관총 4문맞잡이니만큼 모두

수십문의 대구경기관총이 일시에 불을 토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저 바다기슭까지 넓은 벌에 개미 한마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낮이 가까왔다. 서쪽으로부터 소금기가 밴 해풍이 불면서 찢어진 구름장들을 몰아왔다. 해별은 따스했으나 바람이 차서 몸이 오싹오싹해났다. 어데선가 마른 잔디를 태우는 내내가 풍겨오고 송아지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일행은 릉선 한가운데서 멎었다. 오이처럼 생긴 릉선 좌우에 고사기관총좌지들이 지그자그형으로 전개되여있었는데 철갑모를 쓴 처녀병사들이 눈에 띄였다. 수련은 참호식좌지에서 땀을 들쓰고 훈련하는 처녀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수기를 높이 쳐든 소대장이 《소대 주의!》 하고 웨치자 좌지마다에서 붉은색,흰색의 수기를 쳐든 분대장들이 날카로운 웨침소리로 《분대 주의!—》 하고 되받아 불렀다.

볕과 바람에 타서 가무스레해진 처녀들의 긴장한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소대의 4개 좌지들에서 일시에 움직이는 그들모두가 꼭같아 보였다. 조준장치에 붙어있는 조준수,탄갑열의 장탄수,장진수,고저기를 잡고있는 조척수들,3월의 해빛이 철갑모를 번쩍이게 했다.

《우측에 적 락하산!—》 소대장의 웨침이다. 《속도 열— 거리 열다섯— 아래로 예순!—》

좌지마다에서 분대장들이 구령을 되받아웨친다.

《아래로 예순— 목표 있음!》

《아래로 예순— 목표 있음!》

구령처럼,노래처럼 부르짖는 소리,기계같이 잽싸게,일시에 움직이는 병사들,좌로,우로 구령이 내릴 때마다 빙빙 돌아가며 4개의 총신을 아래우로 겨누는 고사기관총들,《장탄 끝!—》 하는 웨침소리가 울리자 좌지마다에서 거의 동시에 《장탄 끝!—》 부르짖고 뒤이어 《제1분대 사격준비 끝!》,《제2분대 사격준비 끝!》 하는 새되고 굵고 높고 챙챙한 각이한 웨침소리들이 터져나온다. 이윽고 소대장이 《길게— 쐇!》 하고 맵짜게 웨치며 수기를 쥔 손을 힘껏 내려친다.

《지금 이 동무들은》 하고 대대장이 또 설명했다. 《적들이 자

기네 해상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으로부터 투하하는 적항공륙전병들을 소멸하고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련은 부지불식간에 《항공륙전병!》 하고 속삭이였다. 항공륙전병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락하산이며 락하산은 또 윤철을 생각케 한다. 윤철동무! 그는 지금 어데 있을가. 그 역시 지금 내 생각을 하고있을가. 아니면 영영 단념했을가?… 그는 왜 아직 단 한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을가. 원명길이라는 그 청년은 그리도 수월히 꺼내는 그 말을!…

드디여 훈련이 끝났다. 중대장이 구령을 쳤다. 얼굴이 갸름하고 입이 작은 아련하게 생긴 처녀중위였는데 그가 한발을 땅에 짚고 몸을 삑 돌리며 《중대— 소대종대병립대형으로 모엿!》 하고 랑랑하게 구령을 치는 모습을 수련은 거의 황홀해서 바라보았다.

중대가 정렬하자 처녀중대장이 대렬중간앞으로 나섰다.

《동무들! 방금 군에서 병원의료일군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갖가지 보약과 고려약 등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우리 중대를 찾아왔습니다. 동무들, 열렬히 환영합시다!》

중대장이 화력복무훈련때처럼 손에 든 수기를 높이 들었다내리자 전체 중대가 《환영합니다!》 하고 웨치며 무너지듯 앞으로 쓸어나왔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수련은 어느새 숱한 처녀병사들에게 둘러싸였다. 저저마끔 그를 붙들고 당기고 밀치며 숱한 인사말과 질문을 소낙비처럼 퍼부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병원 의사선생이지요?》

《고사총을 다뤄봤나요?》

수련은 웃고웃으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별에 탄 처녀병사들과 한데 어울려 돌아갔다. 그런데 이 녀성중대는 이러한 환영에 아주 숙달되여있는듯했다. 어느새 손풍금, 기타, 하모니카들이 나타나고 전체 중대가 손님들을 빙 둘러싸고 기세높이 합창을 시작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는 무적의
지도자동지 군대

수련이도 그들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가까운 우측에서는 얼굴이 붉깃해진 한성숙이 한팔을 쳐들어 박자를 치며 저음에 가까운 굵은 목청으로 쨍쨍한 처녀들의 새된 소리를 받쳐주고있었다.

총창은 번쩍 발구름 쩡쩡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의 병사
규률엔 강철 싸움엔 번개
맞설자가 누구냐

아까부터 한 나어린 처녀가 수련이의 손을 꼭 잡고있었다. 그는 수련이의 미모에 반한것 같았다. 머루알같이 새까만 반짝이는 눈에 웃음을 담고 수련이를 쳐다보다가는 자기가 잡고있는 그 하얗고 깨끗한 손을 어루쓸기도 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는 무적의
지도자동지 군대

합창이 끝나자 그 어린 녀병사가 속삭이듯 물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리수련.》
《아이, 이름도 곱군요.》
《동문?》
《박은옥이예요.》
《박은옥!》
군당위원회일군이 앞으로 나서서 군인들속에 끼워있는 병원의

료일군들을 소개해주었다. 요란한 박수갈채와 북소리가 뒤따랐다. 이어 기술부원장이 정성들여 마련해온 원호물자를 넘겨주자 또 손바닥이 터질지경으로 박수를 치고 북을 두드렸다. 전체 중대가 하나같이 일시에 환성을 올리군하는것이 그야말로 힘과 피끓는 청춘을 과시하는듯했다. 청춘이란 불길과 같은것이여서 빛과 열을 맘껏 내뿜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것이다.

다음으로 군당일군은 원호물자를 가지고온 일행의 나머지 두 사람 녀교원과 목이 긴 청년을 소개하였다.

《동무들, 신흥고등중학교 교원 김혜경동무와 뜨락또르운전수 서기주동무를 소개합니다. 이 동무들은 바로 오늘 3월 12일 결혼식을 하기로 되여있었습니다. 두 집 부모님들이 결혼식날을 오늘로 정했던것입니다.》

처녀병사들이 일시에 술렁대였다. 낮고 재빠른 속삭임의 파도소리가 재빨리 스쳐갔다.

《그런데》 하고 군당일군이 계속했다. 《이 동무들은 며칠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각기 자기 당조직에 찾아가 인민군대에 입대시켜줄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쓰려고 준비해두었던 물자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싸안고 동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서로 마주보며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바람소리같이 휩쓸었다. 처녀중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두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동무들! 전체 녀성고사총중대의 이름으로 동무들을 축하합니다!》 하고 구령처럼 웨쳤다. 전체 중대가 또 그것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처녀병사들이 달려나가 두 청년을 가운데로 끌어내자 다시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수련이의 손을 꼭 잡고있던 박은옥이라는 녀병사도 그 두사람에게로 달려나갔다. 녀교원의 손을 잡고 무어라고 열심히 속삭이고있는 은옥을 보자 수련은 그 어린 녀병사가 벌써 자기를 잊고있다는것, 그리하여 자기가 그의 선망의 대상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져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린 녀병사의 두눈엔 벌써 눈물이 고이고있었다. 그들의 깨끗한 사랑과 조국을

위하는 헌신적인 감정이 처녀병사들을 감동시킨것이였다.

당연한 일이다. 저들이야말로 총쥔 병사들의 열렬한 박수와 뜨거운 축하를 받을만하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는 누가 선사해주는것이 아니다. 줄을 지어 서있다가 차례가 되면 사가지는 희귀상품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조국에 바치는 순결한 량심과 헌신으로만 부여받는것이다.

그런데 수련이 너는 무엇을 하고있었던가. 저 청춘남녀가 결혼식을 미루고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고있을 때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비로소 수련은 자기가 열심히 외운 조국에 대한 시의 구절구절에 깃든 참뜻이 리해되는듯싶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저 입으로만 그리고 그저 고운 목소리로만 외우는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으로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러안고갔더냐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녀대원도 있었더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시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여적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였다. 그것을 바로 땀에 젖은 이 처녀병사들이 그리고 수수한 뜨락또르운전수와 처녀교원이 깨우쳐준듯싶었다.

녀성중창이 시작되였다. 두 청춘남녀를 축하하는 노래라고 중대오락회책임자가 소개했다.

가는 길 아득히 멀고멀어도

가고싶어 가는 길 먼길이 없네

후렴은 전중대가 합창으로 받았다. 수련은 가사를 알지 못해 어쩔바를 몰라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저 어깨가 실팍한 한성숙은 량팔을 쫙 벌려 처녀병사들을 껴안고 거침없이 좌우로 몸을 흔들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오늘아침에만 하여도 애들과 큰소리로 다툼질을 하며 복닥질을 하던 그였다. 그때의 한성숙은 장난세찬 애들을 거느린 한 아낙네, 늘 드바삐 살아가는 가정주부, 쓸쓸한 약제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야말로 생활의 한복판에 끄떡없이 버티고 서있는 녀성이다.

가는 길 천만리 눈비내려도
가고싶어 가는 길 두렵지 않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수련은 겨우 견디여냈다. 박은옥이라는 처녀병사가 다시 돌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그는 녀교원과 뜨락또르운전수총각옆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축하의 노래가 끝나자 녀교원 김혜경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교단앞에서 그러듯이 전체 중대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 고맙습니다! 여기 서기주동무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방금 전체 녀성고사총중대동무들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이보다 더 뜻깊은 결혼선물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 녀성중대동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무들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저희들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옹호보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싸울것입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녀교원의 마지막말끝을 삼켜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중대직일관완장을 낀 처녀중사가 달려와 중대장에게 무어라고 보고했다. 중대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가 대대지휘관들에게 무어라고 말하는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윽고 중대장은 버릇처럼 군복앞자락을 잡아다리며 대오앞으로 나섰다.

어느새 그는 전투구분대의 엄엄한 지휘관으로 다시 돌아갔다.

《동무들！》 하고 그가 목청을 돋구어 말했다. 《지금 라지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 발표되고있습니다. 중대보도를 청취하고 다음 일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중대장은 잠간 숨을 돌리고나서 짧게 구령을 쳤다.

《통신분대장, 내 앞으롯！》

통신분대장이 달려가 보고를 하자 그는 재빨리 말했다.

《중앙방송을 지휘통신에 련결시키시오, 빨리！》

《알았습니다！》

중대의 통신설비들은 훌륭히 위장되여있었다. 잠시후 릉선의 여러곳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통신용확성기들이 중앙방송과 련결되였다. 거의 일시에 꼭같은 방송원 한사람의 목소리가 여러 좌지들에서 꼬리를 물고 울려나왔다. 공화국정부성명이 랑독되고있는것이였다.

《…우리를 목표로 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다시 벌어짐으로써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극단적인 정황에로 번져지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감행하려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역시 핵문제로구나！) 하고 수련은 흐느끼듯 숨을 톺으며 생각하였다. (무슨 변이 또 있으려는게 아닐가？…)

수련은 그것을 방송원의 분개에 찬 격조높은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전체 녀성중대가 숨을 죽이고 긴장해서 듣고있었다.

《오늘 조성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 의무를 더 이상 리행할수 없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으나 그 마지막 한마디에 숨이 꺽 막히는듯했다. 많은 처녀들이 벅찬 흥분에 몸을 떨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안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립장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수련은 한성숙이 가까이 다가선것도 알지 못했다. 흥분한 한성숙은 수련의 손을 힘껏 틀어잡았다. 수련은 마주잡은 그의 두툼한 손을 통하여 툭툭 울려오는 피의 맥박을 느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적대세력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이 〈특별사찰〉이나 그 어떤 〈조치〉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도적론리나 강권행위가 통할수 없다.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정치사상적공세〉도 그 무슨 〈봉쇄〉도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잠시후 성명랑독이 끝나자 전체 녀성중대가 서로 붙안고 구호를 웨치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벅찬 격정에 못이겨 처녀들의 볕에 탄 얼굴은 홍조에 물들고 두눈에서는 불빛이 이글거렸다.

수련은 목에 걸린 침을 겨우 삼켰다. 아직 한번도 수련은 저 핵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본 일이 없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분개하고 기뻐해본 일이 없다. 매일같이 가슴을 조이며 그 일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손꼽아 기다려온 일도 없다. 그런데 저 어린 녀병사들은 미칠듯한 흥분에 사로잡혀 목청껏 웨치며 주먹을 내흔들고있는것이다.

이날 수련은 자기가 준비했던 시랑송을 끝내 하지 못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열중하고말았던것이다.

시랑송을 하지 못한것이 다행이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처녀병사들은 《나의 조국》이라는 그 시를 수련이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읊고있을것이다.

수련은 채 듣지 못한 공화국정부성명의 첫머리부분을 저녁에 합숙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듣게 되였다. 문화회관 지붕우의 확성기에서 그 성명이 다시 울려나오고있었던것이다.

합숙앞의 오동나무가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아 생기없이 누렇게 드러났다. 수련은 좀 지친듯한 걸음으로 합숙에 들어섰다. 복도에서 밀대질을 하던 관리원아주머니가 수련이를 보자 갑자기 생각난듯이 말했다.

《참, 군체신소에서 계속 전화로 찾던데.》

《나를요?》

《응, 평양에서 무슨 전화록음을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 못하겠어. 빨리 전화를 해봐요.》

《?!…》

수련은 접수구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전화기를 끄당겼다. 군체신소 교환수가 수련이라는 말에 반색하며 말했다.

《마침 잘됐어요. 지금 평양에서 또 동물 찾고있는데…》

교환수는 바삐 저쪽에 대고 또 말했다.

《자, 전화를 련결해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수련이를 전화로 찾은것은 해운부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였다. 그는 수련이 아버지가 탄 무역선 《무포》호를 미국놈들이 공해상에서 가로막고 강제로 검열하겠다고 덤벼들었다는것과 아버지를 비롯한 전체 선원들이 칼과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놈들과 결사전을 벌리고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무적힘을 주기 위하여 가족, 친척, 친우들의 록음편지를 보내기로 했다는것이였다. 그는 계속했다.

《지금 록음기가 돌아가고있으니 거기서 전화로 말하면 되오. 왜 그러구있소. 내 말이 들리오? 어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인사

말을 하라는데.》

《…》

수련은 얼떠름해있었다. 배를 검열하다니, 그런 법도 있는가? 핵문제에서도 무얼 강제로 검열하겠다 한다더니 이번엔 바다에 떠가는 무역선에까지 달려든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우리가 뭐 그것들과 전쟁이라도 하고있단 말인가?…

저쪽에서 재촉했다. 그러나 수련은 입이 얼어붙은듯했다. 결사전을 벌리고있다는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가 딸의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제때에 손써주지 않는다고 은근히 원망해온 수련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로 어떻게 고무한단 말인가? 그 김혜경이라는 처녀였다면 아마 서슴없이 《아버지, 용기를 내세요. 지금 온 나라가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어요. 나도 오늘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했어요!》라고 떳떳하게 말했을것이 아닌가!…

《수련동무.》 하고 저쪽의 부부장이 또 말하였다. 《이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요. 〈무포〉호의 소식을 받으신 장군님께서 친히 해운부 성명도 발표하게 하시고 선원들의 가족, 친척들을 찾아 고무적인 인사말을 보내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소.》

《예?! 장군님께서요?》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무포〉호 선장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료해하셨소. 선장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장의 외동딸인 동무를 우정 찾아 록음을 하는거요.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소!》

《!…》

수련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었다. 별안간 자기의 심장이 아프리만큼 세차게, 급격히 뛰노는것을 느꼈다. 가슴을 치는 격정과 아픔, 그것은 가책의 아픔이였고 눈물의 아픔이였다. 아버지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있는데 나는 무엇을 꿈꾸고있었던가. 아버지의 신상에 그리고 우리모두의 눈앞에 위험이 닥쳐왔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아버지한테 고무를 주리라고 믿고계시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나 있는가?!… 두눈에서 눈물이 끓고있었다. 어느덧 두볼을 타고 흘

러내린 찝찌레한 눈물이 입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련은 그것을 삼키며 《아버지!》 하고 마침내 울음섞인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아버지! 지금 먼바다에서 미국놈들과 결사전을 벌리고있다지요? 힘을 내세요.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주세요. 아버지,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비로소 저도 인젠 깨달았어요.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이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이예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인민군전사들앞에서 랑송하기로 되였던 시 한구절을 읊어드리겠어요.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러움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 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 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아버지, 용기를 내세요. 잘 싸워주세요. 저도 이제부턴 달리 살겠어요.》

밖에서는 격조높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있었다. 문

화회관 지붕우의 확성기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성명전문을 또 내보내고있는것이였다.

15

리명구는 자기를 찾아 급히 달려오는 한병권정치부장을 조타실로 가던 도중에 만났다. 그답지 않게 두팔을 허우적거리며 서둘러대는것이 무슨 불상사라도 알리러 오는듯했다. 리명구를 보자 걸음을 멈춘 그는 입을 벌리고 먼저 더운 바람을 한껏 들여마셨다.

《선장동무.》 하고 그는 쉬지근해진 목소리로 바삐 말했다. 《지금 미국놈들이 선장동무를 찾고있소.》

《？！…》

리명구는 그가 롱을 하지 않나 해서 그냥 굳어진채로 그의 표정을 살피려 했다. 그는 마치 이웃집 사람이 찾기라도 하는듯 말했던것이다.

《왜 그러오. 놈들이 찾는다는데.》

《뭐라구요？》

《글쎄 미국놈들이 선장동물 찾는다질 않소. 무슨 최후통첩을 하겠다고 한다는거요.》

《최후통첩？》

그때 멀지 않은 조타실에서 2등항해사가 유리문을 딱딱 두드려대서야 그는 놈들이 무선대화기로 선장을 찾는다는 소리임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사납게 이지러졌다.

《갑시다！》

그는 한병권과 같이 조타실로 달려갔다. 그가 들어서니 2등항해사가 다급히 보고했다.

《선장동지,적잠수함 함장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최후통첩을 하겠답니다.》

리명구는 무선대화기앞에 마주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생

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놈들이 끝내 우리를 찾아냈는가, 아니면 줄곧 우리를 뒤따라왔던것인가？…

그때 거센 발동기의 소음이 머리우를 휩쓸어갔다. 미해군직승기가 배의 마스트를 스칠듯하며 날아가는 소리였다. 리명구는 그것이 멀리 앞으로 날아갔을 때에야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들이 비행기의 량옆에서 껌벅거리는것을 보았다. 이제는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것 같다. 적들이 밤중에 달려드는것을 보면 이 수역에서 소문없이 해치우려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말라터진 입술을 추기며 무선대화기에 바투 다가서자 천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 〈무포〉호 선장이다.》

《북조선 선장！》

당장 터져나온 신경질적인 부르짖음이였다. 지금껏 신경을 곤두세우며 기다려왔던것 같다.

《북조선 선장, 나 미해군잠수함 〈타잔〉호 함장 해군대좌 윌리암 마이클이다.》

그가 하는 수작 역시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그자는 한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것이다. 리명구는 버릇처럼 손바닥으로 턱밑을 쓸어보았다. 어느새 수염뿌리들이 가득 돋아나있었다. 정치부장 한병권이 또 눈꼬리를 치뜨고 《여보, 을지장군！ 선원들이 그걸 본따면 어쩔려구.》 하면서 혀를 차기전에 면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말하라. 〈타잔〉호 함장, 뭣때문에 찾았는가？》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적함장이 소리쳤다. 《나 윌리암 마이클은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당신들에게 우리 미합중국대통령의 성명을 전달하겠다. 명심해들으라. 대통령성명은 다음과 같다.

〈인디아양을 항행중인 북조선상선 〈무포〉호에 10여기의 미싸일이 은닉되여있다는 정보가 있다. 우리는 불안정한 중동지역의 평화과정을 엄중히 파괴할수 있는 북조선의 미싸일수출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이상 대통령성명전문을 전달하였다. 북조선 선장 들었는가？ 배를 검열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디아양을 통과하지 못할것이다. 우

리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마지막 그 말은 미국대통령성명이라면서 방금 전해준 거기에서 따온 말이였다. 리명구는 성이 나서 소리쳤다.
《우린 이미 대답을 주었다. 우리한테서 다른 대답은 기대하지 말라. 알았는가?》
《좋다, 북조선 선장, 이제 후회하게 될것이다.》
리명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자 한병권이 입귀를 찌긋하면서 물었다.
《놈들이 뭐라구 하오?》
《무슨 대통령성명인가 하는걸 읽으면서 우리 배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군요. 아마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봅니다.》
《원 미친놈들!》
한병권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듯 늘 하는 버릇으로 손끝에 밴 담배진내를 흥흥 코로 맡고나서 또 입을 열었다.
《전투비상소집을 해야겠지요? 선장동무, 명령을 내리시우. 내 나가보지요.》
《그럼 먼저 나가 준비해주십시오.》
한병권은 머리를 끄덕하고나서 여전히 서둘지 않으며 문밖으로 나갔다.
얼마후였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즉시 길다란 불줄기가 하늘에서 꿈틀거리며 쏟아져내리는것이 보였다. 리명구는 창유리에 이마를 쪼을듯 바투 달려가붙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우현쪽 바다의 물결우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는것을 보았다. 또다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저 앞쪽으로 시뻘건 불줄기가 내려꽂혔다.
삽시에 바다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상의도 없이 줄간 샤쯔바람인 김철수가 뛰여들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놀라서 달려온 모양이였다.
《선장동지!》 하고 그가 부르짖었다. 《놈들이 직승기에서 화염방사기를 쏘아대고있습니다. 바다에 온통 기름을 쏟아붓고 거기에 불을 달았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그때에야 리명구는 오늘따라 바다물결이 더 검고 진하게 번들거리던것을 생각했다. 적들이 해류가 갈라지는 이곳 호수와 같은 고요한 수역을 택하여 미리 준비했던것이다.

조타실지붕우의 확성기에서 한병권정치부장의 석쉼한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동무들！ 배에 불이 달리지 않도록 하라！》

리명구는 문을 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바다가 불타고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뻘건 불길이 몸부림치듯 뒤틀리고 사납게 솟구치며 산지사방으로 퍼져갔다. 금시 죽어들듯하다가도 갑자기 멀기를 타고 솟구쳐올라서는 배전에 부딪치고 현측과 갑판우에 무수한 불똥들을 뿌려던지기도 하였다.

시꺼먼 연기가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리명구는 숨이 탁탁 막히고 눈을 뜰수가 없어 선교우의 지휘용마이크에까지 가까스로 허우적거리며 달려갔다. 뜨거운 열풍과 화염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불연기를 삼키며 마이크를 잡자 거쉰 소리로 웨쳤다.

《갑판장！ 소방호스를 총동원하라. 모두 자기 위치를 차지하시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시오！》

아래의 갑판우에서 사람들이 뛰여다니고 불똥을 맞은 사람들이 불에 그슬린 나무잎처럼 온몸을 비틀며 나딩구는것이 보였다. 갑판장이 뛰여다니며 호각을 불고 뭐라고 팔을 내두르며 웨치기도 했다. 사방에서 소방호스가 싯허연 물줄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배가 넘실거리는 불의 파도우를 뚫고나가면 또 다른 불의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군하였다.

아마도 적들은 사전에 배의 진로와 바람방향까지도 다 타산했던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안다만제도의 남쪽 어느어느 섬 사이에서 정체모를 유조선이 원유류출사고와 화재를 일으켰다고 소문을 낼것이다.

《더러운놈들,비렬한놈들！》

리명구는 숨을 쉴수가 없어 부지불식간에 손으로 가슴을 박박 허비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기침소리를 터칠 때마다 입에서는 불덩이와 더불어 뜨거운 피덩이가 막 쏟아져나오는듯했다. 제일 높은

선교우에 있었으므로 가슴은 불에 그슬고 타들다 못해 갈가리 터져 나가는듯했다. 그러나 죽기내기로 모지름쓰며 또 부르짖었다.

《동무들, 힘을 내시오. 조금만 더…》

또다시 목구멍으로 뜨거운 불을 삼키며 몸부림쳤다. 혀바닥이 타들고 목구멍이 끄슬렸다. 인제는 한마디 말도 더 할수 없다는 것을 흐려지는 의식속에 깨달았다. 그는 마이크대를 움켜쥔채 허우적거리다 못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것 같았다. 불속에서, 시꺼먼 연기타래속에서 울려퍼지는 웨침소리였다.

《선장동지！ 선장동지, 어데 계십니까？》

확성기에서 울려나온 통신장의 목소리였다. 리명구는 대답하고싶었으나 헉헉 모지름쓰며 버둥거릴뿐이였다.

《선장동지！》 통신장이 또 부르짖었다. 《조국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제 곧 평양방송으로 우리 배 선원들의 가족, 친척, 친우들의 록음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선장동지, 배의 모든 선실에 평양방송을 련결시켰습니다.》

리명구는 허우적거리며 조타실까지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또다시 뜨거운 화염이 그의 머리칼까지 끄슬며 휘몰아쳐왔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부둥켜안으며 소리쳤다.

《선장동지,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김철수였다. 리명구는 목구멍이 타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팔을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무어라고 안타까이 몸부림치듯했는데 그것은 배를 불속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맹렬한 무언의 울부짖음이였다. 김철수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지휘용마이크를 틀어잡았다.

《나 부선장이다. 선장의 명령을 전한다. 모두 용기를 내여 자기 위치를 고수하라. 배에 불이 달리지 않도록 전체 선원들 갑판으로！… 기관장은 전속으로 배를 몰라！…》

그 역시 몇마디 안팎에 벌써 목이 타들어 쐑쐑하는 이상해진 목소리를 겨우 짜내였다. 그때 확성기에서 귀청을 메게 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머나먼 인디아양에서 조국의 존엄을 지켜싸우는 전체 〈무포〉

호 선원동무들! 동무들에게 조국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운 가족,친척들의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먼저 기관장 박선만동무의 막내아들이 보내는 인사의 말입니다.》

대뜸 《아버지!》 하는 되알진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저 아래 갑판우에서 가랑잎처럼 나딩굴던 선원들이 서로 어깨를 부축하며 일어서는것이 보였다.

《아버지,나 문일이예요. 우린 매일 아버지랑 전체 배에 탄 아저씨들이 미국놈들과 맞서싸우는 소식을 듣고있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자랑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오르고 목이 메여 견딜수 없어요. 우리 학급 동무들도 다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있어요!…》

사람들은 소방호스로 물총을 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판장의 호각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뛰고 달리고 커다란 방수포로 불달린곳을 덮고있던 사람들도 가끔 조타실지붕우를 올려다보군하였다.

《일남이 아버지!》 하고 조용히 부른것은 갑판장의 안해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포〉호 선원들이 지금 조국을 멀리 떠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모든 가족,친척들이 고무와 격려의 인사말을 보내도록 하시였어요. 일남이 아버지,잊지 마세요. 조국을 떠나 멀고먼 대양에 있어도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있다는것을 말예요. 우리 일남인 오늘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에 뽑혔어요.》

모든 선원들의 흥분은 절정에 이른듯하였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붙는 구명대들을 바다에 던지거나 배의 현측에 매단 뽀트의 바줄을 도끼로 찍어버리기도 하였다. 눈앞에 덮쳐드는 화염에도 끄떡없이 버티고있었다. 리명구도 철수를 밀어내고 마이크앞에 나섰다. 뭐라고 목터지게 부르짖었다. 격앙된 자기의 가슴을 터쳐 《놈들을 족쳐라!》,《용기를 내자!》 하고 구호처럼 웨치기도 하였다.

그때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하는 외동딸 수련이의 목소리였다.

《…힘을 내세요.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주세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지중 눈물을 머금었다. 흥분어린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를 가책하며 시를 읊는 수련이,
《장하다, 수련아!》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리라고 믿었다. 그러리라고… 수련아, 고맙다. 내 딸아!》
수련이의 뒤를 이어 많은 조기원, 갑판원들을 찾고 부르는 목소리가 련이어졌다. 그들을 부르는 친근한 목소리들에 떠밀리우듯 배는 불길속을 헤치고 대양의 어둠속으로 돌진해나갔다.
머리우에서 또 적기가 날치기 시작했다. 직승기였다. 마스트를 스칠듯 날아가고 날아오며 금시 로케트탄을 퍼부을것처럼 위협하군하였다. 뒤따르는 잠수함에서도 찢어발기는듯한 기적소리를 연방 울렸다.
리명구는 갑자기 철수가 몸을 부르르 떨며 굳어지는것을 보았다. 조타실과 선교우를 바삐 오가며 정황을 처리하던 그가 무엇인가 발견한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리명구는 확성기에서 울린 처녀의 목소리가 그를 못박아세웠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철수동무, 저예요. 영옥이예요.》
리명구 역시 흠칠하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그 영옥이란 말인가?! 1등항해사 김철수의 가슴을 아픔에 물젖게 하던 그 처녀란 말인가?…
《철수동무, 지금 먼바다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린다지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싸우는 동무들을 지켜보고있어요.
철수동무, 동무의 가슴을 아프게 허빈 이 처녀를 용서하세요. 저는 지금 함흥외상외과병원 정형외과에 와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병원의료집단에 어떻게 하나 저를 원상대로 고쳐주자고 말씀하셨대요. 그이께서는 얼마전 〈무포〉호의 부선장 철수동무에 대해서까지 친히 료해하시다가 동무가 저때문에 커다란 고민을 겪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몸소 이런 조치를 취해주신것이예요. 글쎄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에 들어가 판가리 싸움을 준비하는 때에 저같은게 다 뭐라고…》
김철수의 두볼에 진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는 소리도 없이, 한발자국 움직임도 없이 두손으로 저도 모르게 가슴앞섶을 마구 긁으며 눈물을 쏟고있었다.

《철수동무, 잘 싸워주세요.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답게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리명구는 그가 언제 어데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후 한병권의 석쉼한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나와서야 그가 자취없이 사라진것을 깨달았다.

《철수, 조심하오!》

한병권이 또 소리쳤다. 그때에도 리명구는 그가 어데 있는지 찾지 못했다. 별안간 세찬 발동기의 소음이 머리우를 파도처럼 휩쓸어갈 때에야 그를 발견하였다. 김철수가 아스라한 마스트꼭대기로 기여오르고있는것이였다.

(아니, 저 사람이?!…)

또다시 파도쳐오는 발동기의 소음, 적직승기가 마스트를 향하여 곧추 날아들면서 화염방사기의 거센 불줄기를 내뿜었다. 시뻘건 화염이 마스트우에서 나붓기는 공화국기를 겨냥하고 날아갔으나 그만 기발이 날리는 반대쪽으로 구름처럼 뭉쳐 빗나가고말았다.

그때에야 리명구는 적들이 벌써 몇차례 공화국기를 불태우려 달려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다의 불길속을 뚫고나온 《무포》호를 더는 어쩔수 없다는것을 알고 그들의 신념이라도 불태워 보복하려는 기도였다. 김철수는 바로 그 기발을 한몸으로 막아 지키려는 비장한 결심을 다진것이였다.

리명구는 화염에 끄슬려 꿋꿋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마구 문질렀다. 두눈이 따끔거리다 못해 쿡쿡 쑤셔나고 목에서는 내내가 뭉쳐나왔다. 그는 김철수를 향하여 무어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그만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모진 기침소리만 터치고말았다.

그때 벌써 김철수는 기발쪽으로 손을 내뻗치고있었다. 한손으로는 쇠바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폭의 한끝을 붙잡으려는것이였다. 그것을 잡고있다가 이제 적기에서 화염방사기를 내쏘면 가슴으로 그 불길을 막아나설 결심인것이다.

리명구는 헉!—하고 세차게 흐느꼈다. 눈굽이 짜릿해지면서 목구멍이 타들었다. 철수! 이 사람! 조심하라구, 조심해!…

이윽고 저 멀리에서 직승기의 신호등들이 원을 긋는것이 보였

다. 다시 마스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직승기가 선회하는것이였다.

방금 헤쳐온 바다의 불길이 마스트의 공화국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보였다. 어느새 철수는 휘날리는 기발 한끝을 잡고 마스트에서 가슴을 내대고있었다. 한목숨 바쳐서라도 공화국기를 지키려는것이였다.

리명구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같이 웅얼거리며 비틀거렸다. 끔찍한 참변이, 직승기에서 내쏘는 시뻘건 불줄기가 철수의 온몸을 짓태우는 몸서리쳐지는 광경이 금시 눈앞에서 벌어질듯했다.

《철수! —》

목터지게 그를 소리쳐 불렀건만 그는 듣지 못했다. 기발을 몸에 감싸안으며 기수를 돌리는 적기를 무섭게 노려볼뿐이였다. 그 순간 번개불같이 번쩍인 생각이 있어 리명구는 조타실로 뛰여들어갔다. 헉헉 단김을 내뿜으며 무선대화기를 마주하자 거쉰 소리로 부르짖었다.

《미군함장들 들으라. 미군직승기 비행사 들으라! 나 〈무포〉호 선장이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것이다. 너희들은 오산하고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의 존엄을 굽히지 않는다는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라! 지금 우리 배의 공화국기발앞에 가슴을 내대고있는 저 청년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기발을 지킬것이다. 우리의 신념을 지킬것이다. 경고한다. 이놈들아, 우리의 기발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 —》

적직승기는 여전히 정면으로 곧추 날아들고있었다. 빨간등, 파란등, 노란등이 미친듯 껌벅거렸다. 리명구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직승기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댔다.

《안된다, 이놈들아. 안돼! —》

무시무시한 발동기의 소음이 불타는 대기를 뒤흔들었다. 적기는 계속 거침없이 날아들고있다. 이제 한순간 화염방사기에서 불줄기가 쏟아져나오면… 배의 마스트를 들이받을것처럼 날아드는 적기, 머리우를 휩쓰는 발동기소리…

《이 개놈들아! …》

리명구가 울부짖었다. 도처에서 선원들이 목터지게 부선장을 불렀다. 번개불같이 가슴을 짓태운 한순간이 지나갔다. 미칠것 같

은 흥분에 문을 차고 밖으로 뛰쳐나간 리명구는 여전히 기세좋게 펄럭이는 공화국기와 그앞에 가슴을 펴고 굳어져있는 철수를 보았다. 최후의 순간 적기는 끝내 화염방사기를 쏘지 못한채 마스트를 스칠듯 어둠에 잠긴 수평선쪽으로 날아가버린것이였다.

피가 말라버린것 같은 또 한순간이 지나갔다. 《무포》호가 고동소리를 길게 울렸다. 불의 파도를 뒤에 남기고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저 멀리 시꺼먼 어둠속으로 웅글게, 힘차게 울려가는 고동소리였다.

16

클린톤은 꿈결에 노래 《스와니강》의 선률을 듣고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이 흘러간 아칸소주의 작은 도시 호프시교외를 승용차로 질주하는 꿈을 꾸던 때였다. 그 지방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수박밭사이로 난 도로를 바람같이 내달리며 유치원때부터 귀에 익힌 그 음악선률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그 선률이 첫 네소절만 거듭될뿐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그것이였다. 세번째, 또 네번째로 반복되여 울리자 그만 《됐어, 이젠 그만둬!》 하고 소리지르고싶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을 벌릴수도 소리를 낼수도 없었다. 다행히도 그때 마침 딸그락소리와 함께 그 진저리나게 반복되던 음악선률이 멎었다. 곁에 누워있던 힐라리가 전화를 받았던것이다.

《여보세요, 도대체 지금이 몇시인데 전화를 거는거예요?》

힐라리가 첫마디부터 증을 내며 따지고들었다. 백악관의 녀주인으로서 그는 보장성원들에게 밤 11시이후엔 절대 대통령침실에 전화가 련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던것이다. 필요한 경우엔 전화록음기를 사용하도록 되여있었다.

《뭐라구요?》 하고 힐라리가 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경질을 부렸다. 《그래도 당신은 대통령이 겨우 밤 1시에야 잠자리에 들었다는걸 잘 알지 않나요!》

저쪽에서 무어라고 다급히 설명하는것 같았다. 힐라리는 입을

비쭉거리며 말했다.

《정 그렇다면 하는수 없군요.》

힐라리가 클린톤의 어깨를 흔들었다.

《빌, 일어나세요. 급한 전화예요.》

클린톤은 눈도 뜨지 않고 힐라리가 넘겨주는 송수화기를 받아들었다.

《도대체 누구요, 응? 야밤삼경에!…》

《대통령각하!》

수화구에서 울려나온 목소리였다. 대통령수석보좌관 토마스 맥클라티가 그를 깨운것이였다.

《주무시는걸 깨워서 미안합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말하오. 무슨 일인지?》

《방금 로스보도관이 알려왔는데 북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뭐라구? 북조선이?!…》 클린톤은 여전히 자리에 누운채 어정쩡하여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요, 토미?… 북조선이 어데서 탈퇴한다구?》

《대통령각하, 비상사건입니다. 북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탈퇴?!…》

차츰 클린톤은 말짱 잠이 깨는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바닥에 발을 드리우며 다급히 따지고들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언제 받은 소식이요, 뭐?… 그 성명전문을 가지고있소?… 그걸 당장 여기 가져오오. 아, 아니, 내가 가겠소. 가만! 그런데 지금 몇시요?》

《3시 15분입니다, 대통령각하!》

《젠장!》 그는 왼손 장지손가락으로 눈섭을 비벼대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토미, 이건 비상사건이요.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성원들을 불러야겠소. 알겠소? 지금 당장!…》

그는 송수화기를 놓자 잠옷허리띠를 풀며 위생실로 갔다. 거기에서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간 그는 6개의 분수구가 달린 샤와를 틀어놓고 더운물과 찬물을 알맞추 조절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미적지근한

물이 비발처럼 쏟아지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단숨에 적셔놓았다. 그는 재빨리 온몸을 씻고나서 목욕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복도로 나섰다. 열려진 침실문으로 그를 내다본 힐라리가 소리쳤다.

《빌! 그게 무슨 꼴이예요. 옷도 걸치지 않고.》

《제 집에서야 뭐라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손님으로 와있던 영국수상 쳐칠도 여기서 알몸으로 주인을 맞았다는데…》

그는 언젠가 미국을 방문했던 쳐칠이 맞은켠 손님방에서 아침 늦게 일어나 알몸뚱이로 거울앞에 서서 면도를 하다가 아침인사를 하러 찾아온 루즈벨트대통령을 그대로 맞이했던 유명한 일화를 상기한것이다.

힐라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의 심리를 꿰뚫어보고있었으므로 천천히 옷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덤비지 마세요, 빌! 무슨 일에서나 한박자 쉬고나서 행동하는게 좋아요.》

클린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힐라리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정신적여유도 없었다.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서운 일이 터지고있다는것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로서는 매우 다루기 힘든, 갓 출마를 한 그의 영상에 먹칠을 하게 될 심상치 않은 일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되여 그들이 감히 미국대통령을 경악케 한단 말인가?!

대통령집무실이나 국무성회의실은 다 서쪽날개 1층에 있다. 클린톤은 집무실에 들어서자 토마스가 가져온 문제의 북조선정부성명전문을 재빨리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 추종하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은 지난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이다.》

클린톤은 성명문의 그 간명하고 사리정연하고 견결한 론조에서 무엇인가 창끝같이 차고 날카로운 의지를 엿보았다. 얼마전에 본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명령문에서 느꼈던 그 단호한 경고가 글귀마다에서 울리고있었다.

《미국은 우리가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특별사찰불리행〉이라는 딱지를 붙여 우리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를 가해보려 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짜놓은 미국의 각본이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이러한 음모를 저지시키지 못하면 온 민족을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넣고 대국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클린톤은 두번세번 곱씹어 그 문장들을 읽어보았다.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분명 우리의 숨은 기도까지 다 알고있는것 같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들이 이처럼 단호하게, 배심든든하게 미국과 정면대결에 나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있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한다.》

이미 알고있은바였지만 정작 《탈퇴한다》는 글이 밟히자 속이 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온 세계를 그 조약의 울타리안에 가두어넣으려고 안달복달하고있는데 감히 탈퇴하다니, 누가 제멋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누가 그것을 승인한단 말인가?!… 그는 분개하여 성명전문이 찍혀있는 종이장들을 와락 움켜쥐였다. 그것을 움켜쥔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까딱 움직이지 않는 집요한 눈길로 벽난로우에 걸려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중에서 그가 제일 숭상하는 인물이 바로 링컨이였다. 그는 링컨의 불굴의 의지와 웅변, 웃음과 사랑과 유모아를 다 모방하기 위해 애썼다. 오직 하나 링컨의 수염만은 모방할수 없었다. 링컨은 대통령에 취임한후 11살난 그레이스라는 한 소녀가 《당신은 얼굴이 훌쭉해서 수염을 기르면 퍽 나아보일거예요.》라고 쓴 편지를 받은후 갑자기 미국력사상 수염을 기른 첫 대통령이 되였던것이다.

저 링컨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였을가. 쌈타요새문제로 남부와의 대립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남북전쟁을 결심한 링컨, 미국에서의 첫 흑인농노해방을 선포한 링컨, 그라면 북조선의 강경한 반발을 어떻게 다루었을가. 시간을 앞당겨 북조선의 핵시설을 폭격하라고 명령하였을가, 아니면 전면전쟁을 선포하였을가?…

링컨은 웃음이 인생의 절반이였던 사람으로, 웃음없이 그의 인생을 말할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있으나 간혹 무서운 결단을 보여주군하였다. 클린톤도 역시 쾌활하고 락천적인 사나이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충동적인 기질, 무분별한 결기가 숨어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어린 시절에 벌써 그는 온화한 미소뒤에 감추어져있는 사나운 결기를 보여준 일이 있다.

그가 일곱살나던 해였다. 술주정뱅이인 세번째 계부와 어머니사이엔 매일 충돌이 있었는데 하루는 술취한 계부가 손에 권총을 들고 집에 뛰여들었다.

《이년놈들, 오늘은 너희들과 결판을 지을테다.》 하고 계부는 다짜고짜 권총을 겨누며 소리질렀다. 《죽어봐라, 이 덜된것들아!》

한순간의 일이였다. 어린 클린톤의 두눈이 무섭게 번뜩이였다. 순식간에 머리속으로 피가 솟구쳐오르는것을 의식한 그는 발톱을 드러낸 고양이같이 시꺼먼 총구앞으로 날아들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던 어머니가 미친듯이 울부짖은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였다. 그러나 클린톤은 계부와 서로 부딪쳐 나자빠졌을뿐 손가락 하나 다친데 없었다. 총알은 침실벽을

뚫고나가 건넌방의 벽거울을 산산쪼각냈다.

지금도 클린톤은 그때와 같은 무분별한 피의 도취감에 사로잡혀있었다. 《전쟁》이라는 유혹의 말마디가 그의 머리속에서 앙칼진 폭음처럼 계속 으르릉거리고있었다. 그는 《포커스작전》을 앞당겨 지금 당장 시작하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것인지 아닌지 토론해보아야 했다. 그는 북조선정부의 성명전문을 손에 움켜쥔채 국무성회의실로 갔다.

클린톤이 회의실에 들어서니 벌써 국무장관 워렌 크리스토퍼,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 중앙정보국장 제임스 울지와 합동참모본부의장 샬리카슈빌리대장, 대통령국가안전담당특별보좌관 앤터니 레이크가 이미와 기다리고있었다. 잠자리에서 불리워나온 그들은 피기가 가셔진 시뻐둥한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바로 그들은 국가안전의 수호자, 다시말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의 대변자들이였던것이다.

클린톤은 자리에 앉자 회의를 사회하면서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관련한 문제토의를 시작하자고 하였다. 북조선의 이 돌발적인 조치가 얼마나 무서운 후과를 가져올것인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클린톤은 이렇게 강조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 갑자기 북조선이 우리의 급소를 찔렀소. 여러분들도 잘 아는바이지만 북조선의 조약탈퇴를 강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곤경을 겪게 되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검과 방패를 다 잃고말것이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의 미국의 주도적역할은 사라질것이고 세계는 혼란에 빠질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곧 이에 대처할 방책을 세워야 하오. … 그러기에 앞서 먼저 북조선의 이 결단이 어떤 전략적기도에서 출발되였는가를 분석하여야 하오. 의견을 말해보시오.》

잠시 침묵이 있은후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먼저 북조선의 이번 조치가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공세의 일환인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클린톤의 생각과 비슷한것으로서 그의 주의를 끌었다.

《여기에는》 하고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계속했다. 《잘 타산된 전략적기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이 무분별하게 도전해나섰다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북조선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나서 바로 4일후인 오늘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을

낸 여기에는 비상한 작전적책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의를 까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들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울지중앙정보국장이 그 말을 받았다.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움을 걸고있습니다.》

《싸움을 걸고있다?》 하고 국방장관 애스핀이 엷은 입가에 랭소를 띠우고 말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론의할게 뭐 있겠습니까. 출격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작전을 앞당겨 시작하면 그만이 아닙니까!》

국방장관의 이 말 역시 클린톤의 생각과 같은것이였으나 그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내놓는것은 바쁘지 않다. 중요한것은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종합하여 자기것으로, 현명한 결심으로 만드는것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엔》 하고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불안스럽게 말했다. 《그 작전을 뒤로 더 미루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지금 북조선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일 아파하는곳을 찌르며 강하게 반발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강경자세의 배후에 우리로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무서운 힘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스핀이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고있을뿐입니다. 한때 이라크도 그러했다는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 역시 그 어떤 세력도 다 무찔러버리겠다고 을러대였습니다.》

《북조선은 사정이 다르오.》 울지의 말이였다.

《북조선을 이라크와 대비해선 안되오.》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건 뭐요?》 애스핀이 그를 향해 대들었다.

《생각하는중이요. 북조선의 역습이 너무도 뜻밖이여서 좀 리해하기가 어렵군요.》

《이보시오. 중국속담에 〈우물이 너무 깊어서가 아니라 줄이 너무 짧아서 물을 못긷는다〉는 말이 있지요.》

애스핀의 이 말에 울지는 화끈 달아올랐다.

《모욕하지 마시오!》

《아니, 나는 주장하고있을뿐이요.》 하고나서 애스핀은 클린톤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대통령각하, 여기서는 순간의 지체가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면 래일의 싸움은 더욱더 어려워지리라는것을 고려하십시오!》

클린톤은 과격한 성격인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요로 하였다.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클린톤은 울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지금까지 중앙정보국은 북조선이 핵폭탄을 만들었거나 만들수 있다고 주장해왔소. 그럼 인젠 명백히 해둡시다. 북조선에 핵폭탄이 있소, 없소?》

《있습니다. 아니 있는것이나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하고 클린톤이 조금 어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해오던 말과 다른게 무엇이요?》

울지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는… 물론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다싶이 북조선의 속내를 안다는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각하, 며칠전 뉴욕타임스기자 스미스가 쓴 글에도 있는것처럼 지금 간첩위성들이 지상에 있는 신문의 글자까지 알아보지만 북조선의 실태는 거의나 들여다볼수 없습니다. 스미스는 그런 리유로 아마 〈간첩들에게 있어서 북조선은 가닿을수 없는 지구의 한끝이다.〉라고 했을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전 남조선대사 그레그가 북조선은 〈블랙허울〉 (컴컴한 구멍)이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넉두리나 듣자는게 아니요. 다시 묻지만 북조선에 핵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해보시오.》

《있습니다.》 울지가 말했다. 《그럼 왜 그렇게 단언할수 있는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은 오래전에 가동한 5메가와트시험원자로를 가지고있는데 조약탈퇴를 선언한 현시점에서 그것은 임의의 순간에 핵폭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줍니다. 그 원자로속에 들어있는 8천개의 핵연료봉을 툭툭 털어내고 재처리하면 한주일사이에 핵폭탄 7~8개를 만들수 있는 량의 플루토니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외국의 방조없이 자체로 원자력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온 기술수

준이면 핵폭탄제조도 능히 가능합니다. 때문에 나는 그들의 수중에 핵폭탄이 쥐여져있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것입니다.》

《…》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클린톤은 생각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북조선의 조약탈퇴를 막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압력을 받고있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전례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대국 미국의 핵몽둥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의 방위전략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버릴것이다.

《그러니 결국》 하고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한가지 출로밖에 없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즉시 북조선의 핵시설을 철저히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애스핀이 한 말이였다. 그러자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우정 일어난것 같았다.

《나는 원칙적으로 〈포커스작전〉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깃해졌고 눈빛은 날카로왔다. 잠시 동안을 두고 사람들을 휘둘러보는데 그의 엄엄한 눈빛에는 사람들을 위압하는 마술적인 힘이 있었다.

《이 강경한 공산국가는》 하고 그는 례의 그 장엄한 억양을 가진 목소리로 열을 내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과의 싸움을 각오하고 있고 또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명령문에서 벌써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허세가 아니였습니다. 그때 나는 리야드에 가있었으므로 그곳 기자들한테서 숱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모두가 하나같이 미국의 압력에 대한 북조선의 이 반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두고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후인 오늘 바로 북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라는 정치폭탄을 또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 폭탄의 폭발로 지구의 한귀퉁이가 떨어져나가지 않을가 우려합니다. 문제는 이렇듯 심각합니다. 지금 벌써 온 세계가 이

사변으로 법석 끓어대고있을것입니다. 대통령각하! 북조선은 이미 선전포고를 하였고 오늘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제타격을 받은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면전에서 만신창이 된 몰골을 내보이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북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무의미합니다. 천둥소리가 요란할 때 북을 치며 고함을 쳐봤댔자 웃음거리로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

통상교섭의 권위자 워렌 크리스토퍼, 그는 카터정권시기에 국무성부장관으로서 국무장관을 젖혀놓고 거의 모든 복잡한 외교담판을 다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빠나마조약을 체결한 회담, 이란에 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킨 회담 그리고 카터가 중성자탄 생산정책을 바꾸어 서도수상 슈미트가 노발대발했을 때 그를 찾아가 설복시킨 회담 등 많은 수다한 문제들을 말아 처리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냈었다. 그의 시야엔 언제나 전세계가 있었다. 랭정하게 분석하고 심각하게 사색할줄 아는 실무적인 정치가였다.

《우리는》 하고 그는 계속했다. 《당분간 〈포커스작전〉을 뒤로 미루고 유럽과 중동문제에 일체의 관심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접시에는 로씨야문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문제, 소말리아, 중동, 아이띠, 일본, 유럽 문제 등이 가득차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배가 터질지경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샬리카슈빌리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작전을 미루어야 한다는것입니까?》

《소요가 갈앉을 때까지요.》 하고 크리스토퍼가 정중히 대꾸했다. 《북조선문제는 당분간 가만놔두는것이 좋을것이요. 분명히 말해두는데 지금 정세로서는 동맹국들의 지지도 확실치 않소.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유럽의 그 어느 나라도 만전쟁때와 같은 리해관계를 조선문제에서 찾지 못하고있소. 그러므로 나는 남들의 이목이 다른데에 쏠렸을 때 벼락같이 기습하는 비스마르크식전법을 들이대자는것이요!》

크리스토퍼의 설득력있는 말에 샬리카슈빌리대장도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철혈재상》으로 력사에 알려진 도이췰란드의 오토폰 비스마르크는 젊었을 때 량친이 자기의 약혼녀인 요한나를 결사반대하므로

그들을 해설설복하다 못해 량친앞에서 갑자기 처녀를 끌어안고 열화같은 키스를 퍼부었다. 이 돌발적인 기습에 부모는 대경실색하였는데 비스마르크는 이 방법을 후에 정계에서 루차 써먹으면서 《나는 믿는다. 필요한것은 신앙과 용기뿐이다.》라고 말하군했었다. 크리스토퍼는 지금 북조선문제를 그러한 기습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그를 위해서는 당분간 작전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다.

클린톤은 생각했다. 크리스토퍼의 말과 같이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종횡으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눈길을 떼여서는 안된다. 하여 클린톤도 유럽과 로씨야 문제를 미국의 리익을 위한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얼마전 방쿠버에서 진행된 미로수뇌자회담때 옐찐대통령에게 《전략적지원》을 철저히 약속했던것이다.

그는 또 중동지역을 중시하고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을 두차례나 거기에 파견하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에짚트를 중시하되 이스라엘과의 전략관계에 중심을 두는것이 그의 구상이였다.

중국에 대한 정책은 완화하며 곧 최혜국대우를 갱신할 방침이다. 그는 닉슨대통령때부터 시작된 《중국을 고립시켜 발광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를 생각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이 견결한 사회주의나라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미국의 힘과 위세를 떨칠 생각이였는데 벌써부터 작전에 금이 가고있다. 자기의 정권내부에서도 균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애스핀국방장관이 크리스토퍼에게 공격을 들이대였다.

《우리가 계획하였고 오늘 그것을 앞당기려고 시도하는 〈포커스작전〉은 바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미루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동서간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지고 북조선이 고립되여있으며 〈팀〉연습의 명목으로 우리의 전술적공격집단이 조선반도에 대량투입되여있는 이 기회, 북조선이 미국에 도전해나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당신은 흥분하고있소.》 크리스토퍼의 말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법이요.》

《나는 벌써 일어나있는걸요, 각하!》

회의분위기는 긴장해졌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샬리카슈빌리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로 노려보고있는 그들 두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며 말했다.

《군대는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도 괌도에 있는 두개 대대의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은 북조선의 핵시설을 단숨에 날려버리기 위해 폭탄을 만재하고 활주로에 나와있습니다. 벌써 전쟁의 기관차는 출발했고 기관사는 기적변을 당기려 하고있습니다. 곧 기적소리가 온 세계를 뒤흔들것입니다!》

서사시를 읊는듯한 그의 장중한 연설에 미간을 찌프리고있던 클린톤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기관사는 누구요?》

《저… 물론 그건 대통령각하를…》

《그러니 당신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언명했겠소?》

《대통령각하, 제가 주장하는것은…》

《우린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소!》

클린톤의 엄한 말투에 그는 입을 벌린채 굳어져버렸다. 한순간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갔다. 클린톤이 신경질을 부리는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클린톤보다 나이가 많다. 제일 년장자인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스물한살이나 우이고 애스핀국방장관도 여덟살 우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상시 진스바지와 운동샤쯔, 야구모자, 롱구와 골프를 좋아하며 늘 웃는 그의 얼굴만을 보아왔었다. 지금도 그들은 클린톤이 선거경쟁을 벌릴 때 색스폰으로 쟈즈음악을 미친듯 불어대며 군중을 흥분시키던것을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의 높은 지위를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귀염받는 시동이라도 함부로 제왕의 코수염을 건드리면 위불없이 모가지가 날아나는법이다. 다들 눈길을 떨구고 침묵을 지켰다.

그때 대통령수석보좌관 토마스가 들어와 클린톤에게 지금 숱한 기자들이 벌떼처럼 모여와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에 대한 백악관의 견해를 알고저 한다고 했다.

클린톤은 시계를 보았다. 벌써 6시 20분이였다. 그러자 불시

로 머리속에 쓸어드는 공허와 모진 허탈감에 전신이 노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 그는 허리를 곧추 펴며 짜증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좋을대로 말해주오！》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나가자 그는 력대의 민주당출신 대통령들중에서 그가 고른 초상화들이 걸려있는 벽면아래의 텔레비죤들을 원격조종으로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미국의 4대텔레비죤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에 대하여 떠들고있었다. 그는 그중의 어느 한 론평원의 해설을 들어보았다.

《…최근 핵문제로 하여 국제사회계에 강력히 도전하고있던 이 공산국가가 드디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선언한것은 미국의 전쟁위협과 국제적인 제재압력에 대한 강한 반발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려는 돌발적인 역습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북조선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미국과의 정면충돌에 뛰여든 이 기상천외한 결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이제 클린톤정권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온 세계를 놀래운 이 사변은 아직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있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미국의 권익과 생존 그자체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클린톤정권은 이로 하여 련쇄될 당면한 국제적위기를 해소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자기의 국제적지도력을 검증받게 될것이다.》

클린톤은 부지불식간에 《빌어먹을！》 하고 내밷듯이 말하고는 텔레비죤을 껐다.

《보시오. 사태는 바로 이렇소. 온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있는데 지금 우리는 말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고있소. 아니 그래선 안되오. 여기서 당장 우리의 결단성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오. 토론을 계속합시다. 중앙정보국장이 말해보시오. 인젠 당신의 생각을 알고싶소.》

중앙정보국장 울지는 지난 기간 미국회상원군사위원회와 전략문제위원회 등에서 자기의 치밀한 일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클린톤《팀》의 정보국장으로 선발되였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하자 난처해하며 변명했다.

《대통령각하, 중앙정보국사업을 맡은지 이제 겨우 석달밖에 안된다는것을 고려해주십시오. 저로서는 이제야 로씨야문제와 중동에 손을 잠그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래일이면 대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왜 래일까지 기다려야 하오?》 하고 클린톤이 날카롭게 들이댔다. 《당신이나 내나 한날한시에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정치가들은 언제 어느때나 자기의 견해를 말할줄 알아야 하오!》

클린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미합중국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미군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속을 지어야 했다. 그는 한동안 돌부처같이 까딱않고있다가 갑자기 이상해진 목소리로 말을 떼였다.

《나는 결심했소. 우리의 〈포커스작전〉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시작될것이요. 그때까지는 한주일 남았소. 이 한주일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오. 북조선의 조약탈퇴선포에는 느슨하게 반응하는게 좋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심각한 일이다.〉 이런 정도로 말해둡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최대의 압력을 들이대여야겠소. 세계가 다 알도록 전술적핵무기를 실은 기동분함대를 조선동해에 증파해야겠소. 미국이 조선반도의 전쟁을 결심했다는것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됐소. 인제는 미국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하오.》

그는 차츰 어성을 높이다 못해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려대기까지 하였다. 아직 사람들은 이렇듯 흥분한 클린톤을 본 일이 없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두눈에서는 파란 불빛이 흔들거리고있었다.

《이제 남은 한주일동안》 그는 부르짖었다. 《륙군의 정예부대들도 다 들이밀어야겠소. 누가 견디나 어디 두고봅시다. 그들의 반항은 무모한것이요. 그것은 북조선의 국가적종말을 의미할뿐이요!》

그는 말을 마치자 자리에 주저앉았다. 극도로 피곤하였으므로 더이상 지탱해낼 힘이 없었던것이다.

제 3 편

1

세계가 들끓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것이다. 일본의 교도통신, 엔 에취 케이방송, 중국의 신화, 로씨야의 이따르 따쓰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 카나다, 체스꼬, 슬로벤스꼬, 메히꼬, 인디아, 알제리, 파키스탄, 수리아, 에짚트, 뉴질랜드, 스웨리예, 남조선의 그리스도교방송, 문화방송… 세계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들이 일제히 떠들어대는 가운데 오스트랄리아방송은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이 발표된 3월 12일을 《지구가 깨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평하였다. 지구가 깨지기 시작했다. 수천년동안 잠자고있던 분화구가 별안간 폭발한듯했다. 경악과 공포, 불안과 절망, 열띤 론쟁, 연설, 성명, 지지자, 동정자들의 성원, 무수한 전문들… 그러나 이 모든 세계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이 땅우에서는 나날이 봄별이 짙어가고있었다. 이해의 봄도 양지바른 산기슭과 시내가, 얼음이 녹고있는 강기슭에 먼저 찾아왔다. 밤이면 대동강의 얼음장이 텅텅 터갈리는 소리에 잠자던 메새들이 놀라서 깨여났다. 한낮이면 허연 얼음버캐가 기슭으로 밀려나왔다. 강복판에서는 버들잎사귀같은 잔고기들이 쩜벙쩜벙 뛰여오르며 소생의 봄을 맞는 저네들의 기쁨을 크고작은 동그란 파문으로 그려놓군하였다.

아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기슭을 거닐고계시였다. 물안개가 자욱했다. 기슭에서 멀지 않은곳에서는 물황철나무들이 가지를 활 펴들고있었다. 안개에 휩싸여 흐릿해진 해가 먼 상류쪽에서 솟아오르고있었다. 차고 습한 이른봄의 강기슭, 아직 대자연은 봄단장을 시작하지 못했었다. 음달진 바위츠렁아래에서는 먼지오른 눈더미들이

희끗거렸고 지난해의 말라버린 이끼들이 희벗하게 붙어있는 물가의 돌들은 아직 구저분해보였다. 그러나 봄은 봄이여서 물빛은 파릇해졌고 길건너 송림에서는 상긋한 솔잎냄새가 풍겨왔다.

오래도록 말없이 걸으시였다. 강기슭에 두분의 발자국들이 고르로이 찍혀졌다. 마음속에 안고계신 하많은 생각들이 이 기슭에 새겨지는듯… 소리없이 흘어졌던 물안개가 다시 자리를 메우며 사색깊은 그 발자국들을 고요히 덮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발자국들이 나란히 찍혀지고… 지금 온 세계가 공화국정부성명으로 끓어번지고있었지만 두분께서는 이 아침 조용히 산책하고계시였다. 사연깊은 산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김정일**동지와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 하시며 이 강기슭을 택하시였는데 여적 아무 말씀도 꺼내지 않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굳이 묻지 않으시였다. 물으실 필요도 없었다. 자신께서 너무 무리하게 일한다고 건강이 념려되시여 잠시나마 휴식을 마련하고저 수령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줄 너무도 잘 알고계시기때문이였다. 오늘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오신 수령님께서는 첫마디에 벌써 《또 밤을 새운게 아니요?》 하고 물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충분히 잤다고, 금시 잠에서 깨여났다고 하시였으나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왜 몸을 돌보지 않는가, 혁명을 하루이틀에 하고말겠는가고 하시고는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해선 더 말씀이 없으시였다. 아무 말씀도 없이 물안개 덮인 이 기슭을 거닐고계신다.

발밑에서 이따금 채 녹지 않은 얼음버캐들이 와삭거렸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이무렵이면 여기서 해빙기의 장관을 볼수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어있던 얼음장들이 대포소리마냥 텅텅 터갈리면서 풀리기 시작하면 장쾌한 얼음장들의 떼흐름이 시작되군하였다. 서로 뒤엉키고 부딪치며 부글부글 물거품을 일으키는가 하면 산산이 부서져 와삭와삭 기슭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밀물때면 더더욱 소란스러웠다. 서로 떠밀고 부딪치고 더미로 쌓여서는 와그르 물속으로 쏟아져내리군했다. 그러나 강의 여러곳에 갑문들이 일떠선 후부터 흐름이 완만해지고 기후도 변하면서 해빙기를 맞는 이 강도 온순해졌다. 자연이 길들여졌다!…

자연! 사람들은 자연경치를 즐긴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것에서 마음의 안정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찾는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황홀케 하는 절경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해금강의 아침이나 묘향산의 가을풍경 혹은 류달리 기묘하고 신비로운 풍치가 아니라도 무관하다. 황량한 불모지에도 그것대로의 엄숙한 사색이 있고 잡초우거진 들길에도 그것대로의 상념과 애수가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연에서 마음의 평온과 사랑, 사색과 추억, 기쁨과 즐거움을 찾군하는것이다.

이 아침 수령님께서 산책을 마련하신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물론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의 폭풍같은 열정과 그 류다른 기질에 알맞는 휴식이 어떠한것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다. 말을 타고 바람같이 질주해가는 장쾌감, 백발명중의 명중탄을 날리는 사격, 음악과 사색, 독서… 그러나 과중한 사업으로 하여 겹쌓인 피로를 푸는데는 자연이상 없다. 봄날의 아침, 강기슭, 신선한 대기, 안개속의 상념, 맑은 수면, 고요… 진정 자연에 태를 묻고 자란 인간이여서 자연환경에 몸을 잠글 때 비로소 순수한 마음의 평온과 휴식을 얻는것이다.

두분 다 꼭같은 생각에 잠겨계신듯했다. 어느덧 물구비에까지 이르시였다. 오늘은 핵문제도 전쟁도 다 잊으신듯하였다.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호수같이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신다. 자욱하던 안개도 점차 소리없이 스러져가고 강복판에서 떼지어 노니는 물오리들이 분간되시였다. 한곳에 몰켜서 유유히 움직인다. 서로 열심히 부리로 깃털을 다듬기도 하고 물속깊이 자맥질해들어가기도 한다. 그중 한놈이 물고기를 입에 물고 불쑥 솟구쳐올랐다. 제가 찾은 행복을, 넘치는 기쁨을 물고서 멀찌기 헤엄쳐간다. 그러자 다른 물오리들이 부러움과 시새움에 못이겨 목을 빼들고 욕심궂게 뒤쫓아간다. 입에 물린 물고기가 푸들쩍거린다. 수면우에 퍼져가는 둥그런 파문, 우유빛 안개에 가리워 벌거우리하던 태양이 차츰 금빛을 뿌리기 시작한다.

여전히 아무 말씀없이 두분께서는 물구비를 돌아가시였다. 이제부터는 포장도로이다. 옥류관의 푸른 지붕과 옥류교가 바라보인다. 그 순간 두분께서는 마치 약속이나 하신듯 걸음을 멈추시였다. 길가에서 열심히 모이를 쫏고있는 비둘기들이 눈에 띄신것이

다. 종종걸음으로 뜀박질하듯하는가 하면 고개를 돌려 두분을 재빨리 훔쳐보는놈도 있다. 어데서 날아왔는지 수십마리나 되는 비둘기들이 구구거리고있다. 부관들중의 누군가가 모이를 뿌려놓은것 같다.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걸음을 내짚으시였건만 그것들은 넓지 않은 길목을 가로막고 도무지 길을 내줄 심산이 아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리없이 웃으며 수령님을 돌아보시였다. 그것은 마치 《이것 참 야단났습니다. 이것들이 수령님도 몰라봅니다.》라고 하시는듯했다. 수령님께서도 밝게 웃으시였다. 《어쩌겠소. 맘껏 놀라고 놔둡시다.》 하시는듯… 비둘기들 가까이에 장의자가 있었다. 두분께서는 비둘기들을 놀래우지 않으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앉으시였다.

말쑥해진 해가 차츰 높이 떠올랐다. 호수같이 잔잔한 수면우에서 흥뗘이는 해빛, 고요한 강물을 이슥토록 바라보며 두분께서는 생각도 깊으시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시였던가. 우리 민족의 수난과 피어린 투쟁을 전하며 수수천년 흘러온 이 강에 대한 생각이시였던가.… 대동강은 두분의 마음속에 애국의 넋을 키워준 어머니강이기도 하다. 명장가문의 선조분들이 이 기슭에 처음 정착하던 그때로부터 투쟁의 강으로 굽이쳐흘러온 대동강, 광복의 천리길이 시작된곳도 이 기슭이였고 광복의 봄을 안고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신곳도 이 기슭이였다. 준엄한 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용용한 흐름을 멈추지 않았던 이 강, 두분께서 세기적인 대자연개조의 첫 삽을 뜨시였던곳도 이 기슭이였다. 보통강개수공사, 대동강호안공사, 대동교 복구, 옥류교, 충성의 다리 건설, 봉화갑문, 미림갑문, 서해갑문… 거창한 건설의 력사와 더불어 전설도 많고 노래도 많은 이 강, 두분의 념원과 창조의 기쁨을 싣고 흐르는 이 강, 이 강의 물결우에 다시는 검은 구름이 뒤덮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락원의 이 강이 영원히 맑고 평화로이 흘러흐르게 해야 한다.…

저만치 물러났던 비둘기들이 장의자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미 뿌려놓은 모이를 다 쪼아먹었는지 그곳에 남아있는것들에 눈독을 들인것이다. 차츰 거리를 좁히더니 장의자밑에까지 기여들었다. 어떤놈들은 두분의 발옆을 돌아가기도 했다. 좀더 버릇

없는것들중 한놈은 **김정일**동지의 신발등을 부리로 비벼대기까지 했다. 그것을 보시는 수령님의 만면에 웃음이 떠오르시였다. 그윽한 감회에 잠기신 모습이시였다.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구만.》 처음으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지난 전쟁시기 고산진에 가있을 때 일인데… 내가 들어있던 림성골의 한 농가에 닭들이 아주 많았소. 한 여라문마리 됐을가… 내가 그것들을 거의 맡아 기르다싶이했지. 매일 두세번씩 모이를 주면서 말이요. 그랬더니 글쎄 그것들이 늘 내 방문앞에서 돌아치는게 아니겠소. 저저마끔 알을 낳고는 꼬꼬댁거리며 홰를 치는데 아주 볼만했소.》

아마도 수령님께서는 고요한 이 아침의 정서에 어울리는 화제를 우정 고르신듯하였다. 수령님께서 감회깊이 계속하시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많던 닭들이 다 온데간데 없더란 말이요. 그래 주인집 로인을 찾아 물어봤지. 왜 닭이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가고말이요. 그랬더니 그 로인이 하는 말이 닭들이 방해가 되는것같아 이웃집들에 다 나누어주었다는거요. 그 로인은 내가 닭들을 도맡아기르는게 몹시 마음에 걸렸던모양이요. 내게 부담이 되고 또 시끄럽게 군다고 봤겠지.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닭들을 다 찾아오라고 했소. 사실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그때였지만 밤을 새우고나서도 닭들에게 모이를 주느라면 절로 피곤이 가셔지는것 같았소. 우리의 매 농가들에서 닭을 이만큼 치면 우리 인민에게 고기와 알이 얼마나 차례지게 될가 하고 생각했으니말이요.》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계시는 **김정일**동지의 가슴은 뜨거우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수령님이시건만 오늘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내지 않으신다. 이달에만도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지구별 농업부문과 농업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덕지대의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다 밝혀주시였다. 어제도 그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소 시험포전을 가꾸시고 전국의 수백수천개 농장들의 실태를 료해하시였고 관

계부문 일군들과 종자문제, 비료문제, 물문제를 의논하시고 닭공장, 오리공장, 지어 누에고치생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자신께서는 그렇듯 언제 한번 편히 쉬시지 못하시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김정일**동지의 사업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이의 사업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수령님이시다.

문득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인가 발목을 간지르는것을 느끼시였다. 발밑에서 모이를 쫏고있던 비둘기 한마리가 부리로 톡톡 건드려보는것이였다. 다음 순간 그놈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신발등우에 척 올라서서 꽁지를 달싹거리며 구구거리는데 마치 다른것들에게 한바탕 위세를 뽐내보려는것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꿈을 꾸시는듯한 그 미소를 잠시 여겨보시던 수령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좀 쉬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다. 눈시울이 뜨거우시였다. 잠시나마 겹쌓인 피로를 잊게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수령님, 언젠가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지금 **김정일**동지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있다고, 동무가 매일 저녁마다 그를 찾아가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같이 퇴근하도록 하라고 《특별임무》까지 주시던 수령님,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깊으신 그 심정에 보답하고저 지금은 쉬여야 한다. 아니 수령님께 휴식을 드려야 한다. 다문 한시라도 수령님께서 더 로고를 푸실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역시 치차처럼 빈틈없이 맞물려있는 사업일정을 잊지 않고계시였다. 아침 첫 시간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협의회, 정무원총리와의 세멘트, 철강재 생산문제토의, 그에 잇달려 과학자들의 접견, 리인모를 데려오기 위한 사업추진정형에 대한 료해와 대책, 《섬광》작전 준비… 여유시간은 단 1분도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미루더라도 지금은 수령님께 휴식을 드려야 한다. 수령님께 휴식을 드릴수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마다하겠는가!…

볕이 따스해지기 시작했다. 인제는 퍼그나 시간이 흐른것 같다.

몇시나 되였을가?… 그래도 눈을 뜰수 없다. 해빛이 자글자글하는 저 고요한 수면처럼 시간도 멎어있는듯하다. 그러나 생활은 순시도 멎어있으려 하지 않는다.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오고있다. 준전시하의 수도 시민들에게 벅찬 투쟁의 새날,새 아침의 출발시간을 새겨주는듯… 숲속에선 새들이 우짖는다. 그런데 웬일인지 발밑에서 돌아치던 비둘기소리가 없다. 신발등우에 올라서서 위엄을 뽐내던놈도 멀리 가버린듯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을 뜨시였다. 비로소 수령님께서 먼발치로 비둘기무리를 이끌어가시는것을 보시였다. 모이를 뿌리며 천천히 한걸음한걸음 옮겨가신다. 비둘기무리가 열심히 모이를 쪼으며 그뒤를 따른다. 날개를 푸드득거리는놈,성급하게 쫑쫑거리는놈,아무것도 보지 않으며 무턱대고 앞서려는놈도 있다.

수령님께서 이쪽을 바라보신다.

《벌써 깨였소?》 하고 물으시는듯…

김정일동지께서 밝게 웃으시였다.

《푹 쉬였습니다. 인젠 몸이 거뜬합니다.》 하시는 의미의 웃음이시였다.

어느새 옥류교우를 달리는 전차소리가 커졌다. 대동강하류로 떠가는 배의 고동소리도 더더욱 웅글지다. 물가의 바위들이 벌써 번지르해졌다. 봄볕에 땅이 녹으며 물김을 피여올린다. 어데선가 힘찬 취주악소리도 울려온다.

수령님께서 부관에게 오늘 광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고 묻고계신다. 광장쪽에서 북소리가 커지고있는것이다. 부관은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 다가가며 말씀드리시였다.

《수령님! 오늘아침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가 수도에 도착합니다. 지금 평양시의 학생소년들이 광장에서 그들을 환영해주고있습니다.》

《그렇소?》

수령님께서는 무척 놀라와하시는 표정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런 일까지 다 알고계시기때문이리라.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아니 백가지,천가지,만가지 일들을 죄다 꿰들고계시기

때문이리라. 잠시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벅찬 생활이 흐르고있는 옥류교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얼마나 좋은 아침이요!》

《예, 좋은 봄날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역시 태양이 눈부신 하늘가 저끝으로 눈길을 주신다. 두분의 발밑에서는 여전히 비둘기들이 모이를 쫓기에 여념이 없다. 한데 몰키여 작은 두발을 앙증스럽게 되똑거리는가 하면 겨끔내기로 부리를 비비며 돌아치기도 한다. 밝은 태양아래 기쁨에 겨워 저들만이 아는 봄의 곡조를 열심히 구구거리고있다. …

2

그 시각 문선규는 피곤이 실린 눈길로 여러 나라 통신자료들을 훑고있었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과 관련한 반영들이였다. 인디아, 알제리, 파키스탄 등 나라들이 조선을 발전도상나라들의 대변자, 수호자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한것, 타이정부가 우리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방코크—평양간 정기항로개설을 요망한것, 핵렬강들인 미국, 로씨야, 영국 정부들이 공동성명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탈퇴성명을 철회하라면서 다른 나라들도 조선측에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호소한것, 일본방위청장관이 북조선의 조약탈퇴문제를 잘못처리하면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는 소리를 한것 등… 그러나 문선규가 제일 관심하고있는것은 미국정부와 군부의 반응이였다. 미국이 로씨야, 영국 정부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외교적반응에 불과한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나올것인가? 전쟁이겠는가 협상이겠는가?… 미국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이 탈퇴조치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할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인것이다.

지금 온 세계는 조선에서의 전쟁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전쟁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시간문제이라고 보고있다. 오죽했으면 평

양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들에서 미리 가족들을 비행기편으로 빼돌리는 등 복닥소동을 피웠겠는가. 어제 우리 외교부를 찾아온 팔레스티나 림시대리대사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함께 싸울것이라고 엄숙히 언명했었다. 그런데 유독 아무 속심도 내비치지 않고있는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신문,통신,방송들은 일제히 열을 내여 떠들고있지만 미행정부와 군부는 웬일인지 침묵을 지키고있다. 지금까지 공공연히 《선제타격》을 주장해오던 미군부마저 입이 얼어붙은것 같다. 어쩌자는것일가?… 그는 미국 에이피통신보도를 통하여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이 발표되자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새벽 3시에 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나 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워 토론하고 결정한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다. 어쨌든 번개치고 우뢰울면 폭우가 쏟아지기마련이다.

전쟁!… 또다시 전쟁에 대하여 생각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약탈퇴의 대결단을 내리시면서 전쟁이면 전쟁,대화면 대화,우린 아무것에나 다 준비되여있다고 하시였다.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에 반드시 미국과 총결산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었다. 전쟁! 협상!… 과연 어느쪽이겠는가?!…

서기가 들어와 조약국장이 왔다고 했다. 문선규는 안경을 벗어들고 깔끔거리는 두눈을 손으로 비벼댔다.

《들여보내시오.》

잠시후 국장 장운성이 흥분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방금 외교부를 찾아온 어느 한 나라의 대사를 만나고 오는 길이였다. 본국의 지령을 받고 찾아온 그 대사는 외교부 1부부장을 만나고싶다 했지만 문선규는 국장이 나가서 만나주도록 했었다.

《어떻게 됐소?》

문선규의 물음에 장운성은 첫마디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 제기하기를… 우리의 조약탈퇴가 국제평화와 안전,지역적 및 국제적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느니,조선측에서 탈퇴성명을 취소하고 담보협정을 리행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이 요구를 거부하면 유엔에서 제재결정이 채택될것이라고 위협도 하고 달래려고도 했습니다.》

《흠-》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다. 그러리라고 짐작하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전… 단박에 면박을 주었습니다. 당신네 대사관에선 할 일도 없는가, 무엇때문에 그런 심부름을 들고 다니는가, 분수없이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말라, 미국의 부탁을 받고 와서 미국의 대변자노릇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당신네 체면에 어울리는가 하고나서 우리의 조약탈퇴는 미국에 책임이 있으므로 미국과 직접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 전하라!… 그러자 그는 미국이 보복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는 소리를 줴치길래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이제 더 큰 자위적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못박아놓았습니다.》

《흠-》

문선규는 약간 체소해보이나 날카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있는 그의 도고한 얼굴표정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했소?》

《뭐 우거지상이 돼서 그건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귀국정부의 뜻인가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심단결에 대한 우리의 노래에 〈천만이 말을 해도 한목소리로〉라는 구절이 있지 않는가, 몇해째 우리 나라에 와서 사는 당신이 과연 그것을 몰라서 묻는가? 하니까 메사해하더니 서둘러 돌아가고말았습니다.》

《잘했소!》

문선규는 탁상일력에 얼핏 눈길을 주었다.

《국장동무, 이제 곧 모든 재외대표부들에 전보를 보내야겠소. 우리의 조약탈퇴성명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유엔에서의 〈제재〉요 뭐요 하고 떠들고있는데 우린 그것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권도 통하지 않는다, 적들이 계속 강권과 압력으로 나오면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답할것이다!…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으로 기자회견, 담화 등 선전활동을 강하게 벌리도록 합시다.》

《예, 곧 조직하겠습니다.》

장운성이 나가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외교부장이였다.

《1부부장동무, 지금 〈엘〉부상이 1부부장동무를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부상이란 린근대국의 외무성부상의 성을 따서 부른것이다.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이 나가자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그는 우리를 설복하여 미국과의 중재에 나서겠다면서 계속 회견을 요청해오고있다. 문선규는 이마살을 찡그리고있었다. 지난날 우리와 선린관계에 있던 그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서있던 그들이 지금은 타협을 권고하고 그 무슨 중재를 운운하고있다. 그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급히 날아왔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의 《권고》와 《요망》에 대한 우리의 대답도 다를바 없다.

《저에겐 그를 만나줄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는 마디마디를 꼭꼭 씹으며 말했다. 《제 생각엔 김세환참사가 나가 만나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음-그렇게 합시다.》

전화가 끝나자 서기가 들어왔다. 새로운 자료들이다. 맨처음으로 일본 《도꾜신붕》의 론평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선언과 미국의 진퇴량난》, 다음은 워싱톤 발신 유피아이통신과 《뉴욕헤랄드 트리뷴》의 기사, 비비씨방송, 데페아통신자료, 이어 남조선주둔 미8군사령부통보방송… 미처 그것들의 제목도 훑기전에 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놀랍게도 외교부장이 재차 걸어온 전화였다. 흥분어린 목소리가 공명판을 지릉지릉 울렸다.

《1부부장동무, 이제 곧 나와 같이 금수산의사당으로 갑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오.》

《예?!》

그는 버릇처럼 안경을 밀어올리다 말고 굳어져버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슨 일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는걸가.… 틀림없이 핵문제때문일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이 예상치 않았던 엄중한 정세를 몰아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되자 입술이 타들고 두눈이 깔끔거려 참을수 없을 지경이였다.

…얼마후 그들이 금수산의사당으로 달려갔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원에 나와계시였다.

《아, 외교부동무들이 왔구만!》

수령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드리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요새 수고가 많겠소. 외교부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아졌거든.》

문선규는 환히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긴장되였던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것을 느꼈다. 혹시 다른 일때문에 부르셨을수도 있다. 아마도 미국은 우리의 치명적인 탈퇴성명에 기절초풍하여 아직 아무런 대응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어깨우에 외투를 걸치고 솔가지를 꺾어드신 수령님께서는 책임부관이 털모자를 드리려 했지만 가벼운 손짓으로 막으시였다. 수령님의 뒤에는 총참모장 최광과 당중앙위원회 김석현비서, 정무원의 여러 책임일군들이 약간 사이를 두고 서있었는데 그들 역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달려온듯하였다.

《좋은 날씨요.》 하고 수령님께서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좋은 봄날에야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것도 나쁘지 않지. 어떻소, 최광동무?》

《예, 좋습니다.》

총참모장 최광이 대답올렸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대기는 유리같이 투명하고 산뜩하였다. 정원길 저쪽에서 검푸른 잣나무들 사이로 흰옷을 팽팽히 조여입은 봇나무의 가늣한 우듬지들이 얼씬거렸다. 높이 떠오른 태양이 의사당별채의 원형지붕과 창문유리들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수령님께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통신자료를 다 봤겠지. 지금 전세계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로 법석 끓고있소.》

(역시 핵문제로구나!)하고 생각하며 문선규는 수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수령님께서는 손에 든 솔가지를 뱅뱅 돌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미국의 〈워싱톤 타임스〉가 뭐랬는지 읽어봤소?… 북조선

이야말로 〈특수한 나라〉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잘못 건드렸다간 뿔받기로 유명한 황소에 핵장치를 싣고 미국에 와서 폭발시킬런지도 모른다고 했지. 또 듣자니 남조선의 김영삼이도 〈비상대책회의〉라는걸 열고 여섯시간동안이나 무슨 〈대처방안〉을 토의했다고 하더구만. 김영삼이는 지금 그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는 나을수 없다느니 피가 물보다 진하다느니 하면서 우리한테 추파를 던지고있소.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에 덴겁을 한 모양이지.》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뒤따르던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따라웃었다. 수령님께서는 손에 든 솔가지에서 가느다란 바늘잎사귀들을 하나하나 뜯어 가볍게 뿌리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알제리신문은 〈북조선이 신속대담하게 행동. 미행정부 쇼크상태〉라고 썼소. 아주 신통한 표현이요. 어제 모스크바에선 여러 정당 단체들의 련대성집회가 있었구… 벌써 나한테 보내오는 련대성전문만 해도 다 꼽을수가 없소. 꾸바의 피델 까스뜨로는 전문에서 우리의 조약탈퇴가 〈대단한 반격〉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했소. 또 어제밤엔 중국의 등소평이 직접 상해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소. 그는 **김정일**동지의 대결단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각 군구사령원들에게 통보서를 보내여 **김정일**동지의 대결단과 그 시기선택이 아주 비범하다는것을 지적하고 따라배우게 하겠다고 했소. 그러면서 〈진정르퉁즈다산, 나머 삐얜 쮸쨩 다레이디런 후죠더〉 하고 흥분하여 말하지 않겠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참 외교부 1부부장이 중국말에도 능하지?》

문선규는 수령님의 따뜻한 미소에 끌리듯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예, 그것은 〈**김정일**동지께서 번개를 쳤으니 우뢰가 울고 적들이 아우성칠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옳아. 그렇게 말했소.》 수령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불타는 해를 바라보시였다. 《참으로 세계의 그 어느 령도자도 이렇듯 한순간에 지구를 뒤흔들어놓은 일은 없었지. 응?… 그야말로 지진과 같이 들었다놓았거든.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하나같이 북조선의 이 비상한 결심의 배경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무비의 담력이 있는것이라고 떠들고있는거요.》

수령님께서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깊은 감회가 어린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흔히 세상사람들은 지략과 전법에 능하고 담력이 큰 령장을 장군이라 부르는데 **김정일**장군이야말로 지략과 전법이 뛰여날뿐아니라 배짱도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지. 바로 그것을 이번에도 준전시상태선포와 더우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으로 보여줬거든!… 그래서 세상사람들모두가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부러워하는게 아니겠소. 참 전전해 총참모장이 꾸바를 방문했을 때 피델 까스뜨로수상도 그런 말을 했다지?》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광이 대답올렸다. 《그는 자기가 조선을 방문하고 제일 부러웠던게 바로 조선에서 혁명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김정일**동지의 령도하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힘이자 곧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음—피델다운 말이요. 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한테도 그렇게 말한적이 있소. 막강한 조선의 힘이 어데서 생겨났는지 알게 되였다고!…》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심중한 안색으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군들은 우리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등 적들에게 강력한 공세를 벌리는 때 어벙벙해서 괜히 들떠있는가 하면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서 자기 맡은 일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소. 실례로 어제 한 일군을 통해 알아보니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렀던 서북부지구물길공사도 거의나 중단상태에 있다는거요. 그래서 내 그 일을 맡은 정무원일군들에게 단단히 말해줬소.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 해도 농사는 지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 이걸 명심해라 하고말이요.》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또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 정세는 더 긴장해질수 있소. 적들이 단말마적발악을 할수 있다는거요.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조치

에 불맞은 황소같이 날뛰고있소. 겉으로는 〈심각한 일이다.〉, 〈철회해야 한다.〉 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있지만 내적으로는 더욱더 전쟁열에 미쳐날뛰고있단 말이요. 지금 정세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아이젠하워가 〈신공세〉흉계를 꾸미고 그 준비를 미친것처럼 다그치던 때를 련상시키고있소. 그때 적들이 노린 〈신공세〉의 요점이 뭔고 하니 〈수륙병진〉작전이였소. 말하자면 바다에서의 상륙작전과 륙지에서의 공격을 배합하는것이였지. 거기에 공중으로부터의 륙전대공격도 예견했었소. 그래서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대포,땅크들을 본토로부터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었지. 게다가 일본군국주의무력과 장개석군대까지 끌어들일 흉계를 꾸몄댔소. 정말 어려운 때였지. 아마 최광동무도 그때 일이 생생할거요.》

《그렇습니다. 수령님,그때 적들은 단숨에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점령하고 우리 인민군대를 〈포위소멸〉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최광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갈려있었다. 《정말 그때와 지금 정세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에도 적들은 천여대의 비행기를 끌어다놓고 원산과 통천앞바다엔 200여척의 함선집단을 띄워놓고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적들은 그 무력만 가지고도 조선동해는 물론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중국본토까지 공격할수 있다고 떠벌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였다.

《그래,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끝내 〈신공세〉는 파탄되였소. 그때 우리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여 전체 인민을 결사전에 불러일으키는 한편 전선에서는 351고지공격전투를 비롯하여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벌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수치스러운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소. 결국 적들은 〈신공세〉고 뭐고 다 줴버리고 정전담판장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소. 끌려나와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지. …》

수령님께서는 감회깊으신 표정으로 준엄한 전화의 그 나날을 더듬고나서 일군들을 차례로 둘러보시였다.

《이번에도 우린 그렇게 결사전을 벌려 놈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야 해. 내 동무들을 오라 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요. 정세가 아무리 준엄하고 당장 전쟁이 터진다 해도 끄떡없이 모두 뜬뜬해서 일하도록 동무들이 잘 짜고들어야겠소. 그저 **김정일**동지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돼. 지금 **김정일**동지는 적들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또 한차례의 드센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있소.》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수령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문선규 역시 흐느끼듯 숨길을 톺으며 생각하였다. 그것은 무엇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성명으로 지구의 한귀퉁이가 깨여져나간듯 세계를 놀래웠는데 그이께서 또 준비하시는 드센 타격은 과연 어떤것일가?…

《지금 **김정일**동지는》 하고 수령님께서 생각깊으신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휴식없이 일하고있소. 오늘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보니 작전대에서 꼬바기 새웠더구만. 동무들, 생각해보오. 사람이 무쇠가 아닌 이상 그렇게 무리하고서야 어떻게 견디여내겠소.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사흘밤까지밖엔 새워보지 못했소. 그런데 **김정일**동지는 닷새, 엿새 계속 밤을 밝히고있으니… 지금 **김정일**동지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 로심초사하고있는데 그럴수록 우린 그를 아껴야 하오.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지키는것은 곧 혁명을 지키는것이란 말이요!… 그러니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적위치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잘 보좌해주어야겠소. 모두가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여 **김정일**동지의 사업부담을 덜어야겠소. 그래 나도 지금 농사일은 물론 철도와 광산, 탄광 등 경제부문 여러 사업을 맡아보고있는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고있었다. 지어 문선규는 멀리 서평양쪽에서 울려오는 전기기관차의 웅글진 기적소리조차 꿈결에 듣는듯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뜨거운 격정이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밀물처럼 넘치게 흘러들고있었다.

3

최고사령부작전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각 군종, 병종 사령관들, 총참모부의 중요책임일군들이 모여있었다. 내외의 정치군사정세와 전략전술적문제들, 각 군종, 병종 및 련합부대들의 최근 임무가 확정된후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작전도들에 수표를 하시였다. 그 가운데엔 《섬광》작전도도 있었다. 굵은 마지크로 활달하게 씌여진 《**김정일**》이라는 존함을 대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그것을 바라보았다. 특히 《섬광》작전도를 바라보는 최광의 마음은 류별났다. 오영범려단의 시범도하훈련이 있은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격전구상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작전도, 그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가르침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작완성된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인민군대안의 고위 지휘간부들을 엄숙한 표정으로 둘러보시였다. 광채가 번뜩이는 그이의 눈빛은 근엄하시였다.

《지휘관동무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드디여 〈섬광〉작전을 시작할 때가 되였습니다. 비록 이것은 증강된 한개 군단규모의 훈련이지만 이를 통하여 전반적무력의 무장장비 및 화력밀도, 협동동작과 기동, 타격력과 지휘관참모부들의 지휘능력은 물론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의 정치사상적 각오와 준비정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특히 이 훈련은 적들의 전쟁도발날자가 박두해진 현 시점에서 전쟁을 결심한 우리의 힘과 의지를 과시하게 될것이며 우리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적들에게 단호하고 준엄하게 경고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섬광》작전도에 눈길을 주시였다. 오만한 적들을 단숨에, 무자비하게 타격할 그이의 작전적구상이 하나하나의 점과 선들, 붉은 화살표마다에 뚜렷이 새겨져있는 작전도, 최광은 눈굽이 저릿저릿해지는것을 느끼며 그 작전도를 보고있었다. 그 어떤 위대한

예술작품도 진정 이렇듯 흥분에 몸을 떨며 사무치는 애정으로 바라볼수는 없을것이다. 그것은 그저 작전도라기보다 위대한 령장의 지략과 담력,과감무쌍한 공격정신의 투시도와도 같은것이였다.

이윽고 지도에서 눈길을 떼신 그이께서 생각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면 이 작전의 수행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다시말하여 우리가 준비한 〈섬광〉이라는 서슬푸른 장검을 누구에게 쥐여주겠는가?… 나는 이 작전의 담당자가 수시로 변하는 전투정황을 즉시적으로 분석판단하며 대담하게 결심할뿐만아니라 일단 설정된 목표는 끝까지 무자비하게 타격할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여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멈추고 좌우에 둘러선 고위 지휘간부들을 쭉 둘러보시였다. 마지막으로 최광에게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그의 생각을 물으시는듯한 눈빛이였다. 그 순간 최광은 재빨리 생각을 번지고있었다. 원래 《섬광》작전은 김대웅의 타격군단이 수행하기로 되여있었다. 물론 지금도 《섬광》작전의 주력을 이루는 타격군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지휘관이 론의되고있을뿐이다.

최광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서 번개처럼 번쩍이는 암시를 받았다. 그는 김대웅이 오랜 작전일군이며 교육자형의 군사지휘관으로서 남달리 침착하고 사색적이며 지혜롭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섬광》작전의 주인공으로서는 무엇인가 결여되여있다는것을 순간에 깨닫게 되였다.

김대웅은 행동의 인간이라기보다 탐구하는 인간이며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지휘관이라기보다 진지하게 작전하는 지휘관이였다. 그러나 지금 90년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수하장수로 되자면 지략도 배심도 의지력과 결단도 다 장군님을 닮아야 하는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쥐여주시는 서리발장검을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누가 합당하겠는가?… 그는 총참모부일군들 특히 작전국의 결패있고 지혜로운 일군들과 여러 군부대 지휘관들의 얼굴을 재빨리 상기해보았다. 그러나 선뜻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수 있는 사

람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담차고 능력있는 그리고 오랜 군사 지휘경험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그들은 이미 다른 중요한 작전의 담당자들이거나 군단을 지휘하고있는것이였다.

잠시 그를 눈여겨보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총참모장동문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까?》

《저…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이께서는 최광과 여러 차수들,대장들을 또 둘러보시였다.

《나는 〈섬광〉작전의 지휘를 오영범동무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

순간 최광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 역시 한순간 오영범의 이름을 더듬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광의 생각에 그는 너무도 젊고 경험이 적었다. 젊음이란 물론 억센 힘과 폭풍같은 열정을 의미하지만 피어린 전장에서는,특히 그 싸움을 지휘하는 당사자에게서는 힘이라기보다 랭철한 판단이,열정이라기보다는 결단이 더욱 요구되는것이다. 경험이란 역시 알찬 열매와 같은것이여서 저절로 단숨에 세월을 앞당겨오게 할수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한순간 오영범을 상기하고는 곧 스쳐지나가게 하였다.

최광은 작전국장을 얼핏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찾으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작전국장은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놀라서인지 까딱 움직이지 않고 굳어져있었다. 좌중의 여러 차수들,대장들은 거의나 오영범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였다.

《왜 놀랍니까?》 하고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가 이제 겨우 려단장이기때문입니까,아니면 너무 젊기때문입니까?》

《최고사령관동지! 사실 좀… 놀랐습니다. 너무 뜻밖이여서…》

《물론 오영범동무는 아직 경험도 적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다는것이야 무슨 문제로 되겠습니까. 젊음이란 분출하는 화산과 같아서 힘도 열정도 투지도 다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영범동무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드센 배짱과 담력이 있고 무자비하게 적을

타격할수 있는 결단성이 있습니다. 또 총참모장동무도 알다싶이 작전전술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새로 짠 작전안만 놓고 보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동안 내가 그한테 〈섬광〉 작전을 연구하게 한것은 바로 그 장검을 쥐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족점을 깨우쳐주고 호되게 비판도 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광의 누르끼레한 이마전에 깊이 패워있던 주름살들이 펴져나가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청을 높여 말씀드렸다.

《오영범동무야말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그의 경험이 적은것만 생각하면서… 인제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해오신 까닭을 알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소리없이 밝게 웃으시였다.

《좋습니다. 총참모장동무도 같은 생각이라니 반갑습니다. 나는 늘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이 전투마당에서 맹수와 같이 싸울것을 바라고있는데 그러자면 용감성 하나만으로도 안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됩니다. 지략과 배짱과 결단성이 배합되여야 합니다. 특히 결단성은 전투정황을 제때에 통찰하고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즉시 제때에 대담하게 결심을 내리는 능력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승리적으로 전진할 때에는 누구나 다 용감해질수 있어도 정황이 불리해질 때에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때 바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있는 사람, 다시말하여 더는 이길 가망이 없어보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이길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기어이 돌파구를 열어 승리를 이룩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요구하는 지휘관입니다. 내가 오영범동무에게서 본것이 바로 이 영웅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관심하고 키워왔던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에게 장검을 쥐여줍시다. 나는 그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본때있게 싸우리라고 믿습니다.》

《!…》

최광은 만면에 웃음이 환하신 그이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경건한 감정, 봄물결처럼 굽이쳐 흘러드는 하많은 추억…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혁명가로 자라온 자기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고있었다. 농막골의 아동단 책임자, 왕청청년의용군의 나어린 대원, 제 키보다 더 큰 보총을 메고 떠난 혁명의 길에서 몸도 마음도 자라 20대엔 중대를, 30대엔 사단을 지휘하였다.

어찌 그 한사람뿐이랴. 안길, 강건, 최춘국, 류경수, 김경석… 얼마나 많은 열혈청년들이 그 품에 안겨 혁명의 대들보로 자라났던가. 그들을 키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한생 그 믿음에 충실하였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 최광은 이제 오영범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믿음에 받들려 우리 혁명의 대들보로서 한생 억척같이 그이를 받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얼마후 오영범은 부르심을 받고 왔다. 모가 진 턱을 쑥 내밀고 지나친 긴장으로 하여 검붉어진 볼편을 움씰거리며 군대내 고위장령들이 둘러서있는곳으로 들어섰다. 눈이 부신듯 제대로 앞을 가려보지 못하며 잠시 주춤거리다가 곧 작전도앞에 서계신 그이를 향하여 몸을 홱 돌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 제97기계화보병려단장 소장 오영범 명령대로 왔습니다.》

젊은 장령다운 쩡쩡한 목소리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가까이 오시오.》

오영범은 대렬훈련때처럼 재빨리 힘있게 걸어오더니 발뒤축을 딱 소리나게 모으며 차렷자세로 섰다. 여전히 그의 눈길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향하고있었다. 그밖의 다른 모든것은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듯했다.

《오동무, 중요한 임무를 주려고 불렀소.》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또 한번 허리를 꿋꿋이 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걸 보오.》 하고 그이께서 커다란 작전도를 가리키시였다.

《동무의 대담한 발기도 반영되여있는 〈섬광〉 작전도요.》

오영범은 타는듯한 눈으로 그이의 친필존함이 새겨져있는 작전도를 바라보았다.

《그래 어떻소. 인젠 작전연구가 다 끝났소?》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또 물으시였다. 《만약 이 작전의 지휘를 동무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소?》

《예? 제가 말입니까?》

그는 놀라서 굳어져버렸다. 두눈에서 반디불같이 타던 불빛마저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왜 놀라오? 그래 자신이 없소?》

《…》

한순간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의 입귀를 스쳐갔다. 그러나 다음순간엔 벌써 굳어져있던 두눈을 번쩍이였다. 그는 더 이상 펼수 없을 지경으로 널다란 어깨를 힘껏 펴며 대답올렸다.

《할수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자신있습니다.》

《작전은 임의의 순간에도 변동될수 있소. 혹시 작전준비과정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소?》

《즉시 제 결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럴 시간조차 없을 때엔?》

《전투에 진입한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소.》

그이께서 눈짓하시자 총참모장 최광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오영범은 그쪽으로 약간 몸을 돌렸다. 최광이 엄숙하게 말했다.

《오영범동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에 의하여 동무를 제68타격군단 군단장으로 임명하고 〈섬광〉작전의 지휘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동무에게 중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였습니다.》

《?!…》

오영범은 숨도 쉬지 못하는듯했다. 목에서 울대뼈가 움씰거리고 턱우의 콩알만한 기미가 줄곧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그는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마침내 규정의 보고를 쩡쩡 웨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약간 들어 답례를 표시하시였다.

《이 시각부터 동문 군단장이요. 당과 조국이 동무에게 수천수만명 전사들과 한개 작전구역을 맡겨주었소. 잊지 마시오. 동무의 한순간 결심에 따라 작전이 좌우될수도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럼 믿겠소. 오동무, 성공을 바라오!》

그 순간 오영범은 접견이 끝났다고 생각한듯싶었다. 불시로 힘있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그는 《최고사령관동지! 중장 오영범 돌아갈만합니까?》 하고 금시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붙일 자세를 취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시였다.

《가만, 덤비지 마오. 동무에게 줄 선물이 있소.》

《?!…》

오영범은 귀밑머리에 올려붙였던 손을 내리며 굳어져버렸다.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도 그이의 말씀에 의혹이 실린 눈빛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준엄한 싸움을 앞두고, 전투임무를 받고 떠나가는 전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것이 놀라왔던것이다. 흔히 선물이란 명절이나 생일, 결혼식 같은 때에 축하의 의미로 주는것이다. 뜻깊은 상봉과 길이 잊혀지지 않을 우정이나 작별을 기념하고저 또는 성공과 사랑을 바라서 주기도 한다. 하지만 전장에 나가는 전사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을 사람들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쪽의 군사부관에게로 말없이 손을 내미시였다. 기다리고있었던듯 군사부관이 그이께 붉은 천으로 싼 작은 함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자 잠시 감회가 어린 눈빛으로 묵묵히 보고계시였다.

침묵, 모든것이 숨을 죽였다. 숨을 죽이고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손에 드신 그 함의 무게를 가늠하시며 흘러간 먼 시절에로 생각을 달리시였다. 눈덮인 백두밀영, 얼음장밑에서 돌돌 흐르던 소백수의 정가로운 물소리, 어머님과 같이 백마에 오르시여 달리시던 계곡, 어머님께서 어리신 그이의 손에 쥐여주시던 작은 권총, 지금도 그이께서는 그 작은 권총의 싸

늘하고 딱딱하던 그리고 묵직하던 그 느낌을 생생히 기억하신다. 그때부터 늘 손에 익히신 권총이였고 귀에 익히신 멸적의 총성이였다. …그이께서 1952년 여름에 수령님으로부터 받으신 선물도 시계가 아니라 권총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하자면 총이 있어야 한다시며 권총을 주시였던것이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천천히 붉은 천을 벗기기 시작하시였다. 한순간 오영범의 입귀가 사뭇 세차게 비틀리였다. 그는 불길처럼 사무치는 격정에 못이겨 쩍 벌어진 어깨를 흠칫거리기까지 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권총이 눈앞에 나타난것이다.

번쩍이는 권총손잡이우에 《**김일성**》이라고 새긴 존함글자가 뚜렷이 부각되여 눈에 안겨들었다. …

김정일동지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총이요. 이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로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나가길 바라오.》

《! …》

오영범의 두눈에서 번개불같은것이 펀뜩이였다. 그는 뜨겁게 감동되고 터질것 같은 격정에 몸을 떨면서 가까스로 숨을 쉬고있었다. 장엄하고 준엄한 정적, 군대내 최고위장령들의 어깨우에서 번쩍이는 금빛광채만이 그 엄숙한 정적을 강조하는듯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명심하시오. 오동무, 언제 어느때건 변하지 않는것이 총이요. 친구들가운데엔 변절자가 있을수 있어도 총은 절대로 변하지 않소. 겨누면 겨눈대로, 쏘면 쏜대로 추호의 양보도 없이 탄알을 날리는것이 총이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기로 했소.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것이 바로 총이요. 이 세상 가장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총에 깃들어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은빛권총을 그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그러자 오영범은 권총을 가슴에 꽉 가져다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그는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총과 함께 영원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호보위

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고맙소. 그럼 오동무, 잘 싸워주기 바라오.》

그이께서는 오영범이 또한번 두발을 딱 모으며 차렷자세를 취하자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시였다.

4

밤 10시, 총참모장 최광과 오영범중장 등 작전일군들이 탄 직승기가 타격군단사령부 앞마당에 내렸다. 문우의 신호등이 켜지자 부관이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확 쓸어들면서 눈석이때의 흙냄새며 화토불의 내내를 날라왔다.

최광이 직승기 사다리로 먼저 내리고 뒤따라 오영범이 내렸다. 먼발치에 일렬로 정렬해있던 장령들중에서 한사람이 경례를 붙이고 몇발자국 정보로 나왔다. 군단장 김대웅이였다.

최광은 그가 보고를 끝내자 엄엄하게 늘어선 병사들의 앞을 지나 사령부건물로 들어갔다. 정문앞에 서있던 무장보초들이 영접들어총을 하였다.

군단장방에는 군단참모장과 관하 사, 려단 지휘관들, 항공륙전대와 배속지원부대들인 공군추격기 및 폭격기 부대장들, 방사포, 로케트포병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대기하고있었다. 최광과 오영범 그리고 그들을 마중했던 군단장일행이 방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삽시에 방안은 금줄 두른 장령들과 대좌들로 꽉 들어찼다. 군단참모장이 최광에게 그가 부른 지휘관들이 다 모였다고 보고하였다.

《좋소.》 하고 최광은 말했다. 《동무들, 앉으시오.》

최광은 다들 자리잡고 앉기를 기다렸다가 옆구리에 끼고온 밤색서류가방을 열고 거기에서 봉인이 된 서류철을 꺼내놓았다. 이어 긴장한 표정으로 굳어져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고나서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휘관동무들,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섬광〉이라는 작전대호를 가진 타격집단의 반공격훈련계획을 비준하여 주시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는 그들의 가슴이 소리없이 오르내렸다. 총참모장이 다시 말을 이을 때까지 방안은 숨막힐 지경으로 팽팽히 조여드는 긴장감속에 잠겨있었다.

《이 전투훈련의 의도는》 하고 최광은 묵직한 음성으로 계속하였다. 《지금 적들이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절정단계에로 치닫고있으며 동시에 적들이 우리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기습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현시점에서 적들의 있을수 있는 북침공격을 반타격으로 분쇄하고 미제1군단주력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작전능력을 완비하는데 있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자 가까이에 있던 오영범이 재빨리 서류철을 넘겨주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오영범에게로 쏠렸다. 얼마전에 려단을 인계하고 작전국엔가 소환되여갔다던 오영범, 지금 그가 총참모장을 수행하여 내려온것은 《섬광》작전수행을 도와주기 위한것인가? 하지만 그의 중장군사칭호는?!… 어느새 그는 중장으로까지 승급했는가?… 한때 같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어린 눈빛에도 오영범은 끄떡없었다. 그는 총참모장에게 서류철을 내밀어주고 여전히 아무 표정변화도 없이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있을뿐이였다.

최광은 서둘지 않고 천천히 서류철의 봉인을 뜯고 그속에서 《섬광》작전도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총참모부작전지시서를 꺼냈다.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여러 지휘관참모부일군들의 가슴이 또다시 세차게 오르내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비준해주신 작전도, 그것을 총참모장이 직접 가지고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거기에 얼마나 중대한 전략전술적의도가 들어있겠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최광이 한손으로 작전도를 꾹 누르며 말을 이었다.

《이번의 〈섬광〉 작전에는 군단관하의 1개의 장갑보병사단, 1개의 기계화보병려단, 1개의 땅크려단, 항공륙전대외에 1개의 공군추격기련대, 1개의 폭격기련대, 3개의 방사포련대, 6개의 독립포병련

대와 최고사령부직속 특수포병구분대들이 증강됩니다. 이상의 련합부대 및 부대들을 통칭하여 타격집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바 타격집단의 사령관은 군단장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김대웅에게 쏠렸을 때 최광이 《동무들!》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모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중대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있었다. 이어 그는 약간 흥분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지휘관동무들에게 임무료해에 앞서 미리 알려줄것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오늘 타격군단 군단장으로 오영범동무가 임명되였습니다.》

순간 무엇인가 고막을 징-울리고 사라져버린듯했다. 수많은 장령,대좌들모두가 지금까지 자기들의 가장 나어린 동료였던 오영범을 놀라서 쳐다보며 굳어져버렸다.

총참모장이 《오영범동무!》 하고 부르자 모가 진 턱을 쑥 내밀고있던 오영범이 한발 앞으로 나서며 절도있게 목례를 했다.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의젓한 체구와 강의한 의지를 말해주는 랭혹한 눈빛이며 입을 꾹 다물고있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담대한 기질을 새롭게 발견하는듯 했다.

《김대웅동무는.》 하고 최광이 계속했다. 《작전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으로 상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되였습니다.》

허우대가 큰 김대웅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하고 엄숙히 말했다. 이어 그는 한두걸음 나가며 오영범과 마주섰다. 39살의 강경한 젊은이와 60고개를 바라보는 사색적인 군사일군 김대웅은 서로 한순간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거창한 《섬광》작전을 앞두고 완강하며 무자비한 오영범이야말로 이 작전수행의 적임자라는 김대웅의 깊은 리해와 신뢰의 눈빛 그리고 그에 대한 젊은 장령의 감사의 정이 어린 눈빛이였다.

오영범은 김대웅의 자리에 가앉았다.

《그럼 이제부터 타격집단의 구성과 전투훈련 수행질서 그리

고 배속지원부대들의 임무에 대하여 군단장 오영범동무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광이 눈짓하자 자리에서 일어선 오영범이 여러겹으로 접은 지도를 펴놓았다. 지도는 군단장의 커다란 책상을 뒤덮고도 남았다.

오영범이 쇠소리나는 음성으로 말했다.

《군단참모장동무, 지도를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로써 대뜸 오영범은 자기의 확고부동한 권위를 보여주었다. 군단참모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의 한쪽구석에 세워있던 지도걸개를 가져다 거기에 《섬광》작전도를 걸어놓았다.

한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지도에 쏠렸다. 지도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활달하고 기백있는 친필수표가 굵은 마지크로 씌여져있었다.

오영범은 군단참모장이 준 지시봉을 손에 들었다.

《타격집단은 두개 제대로 구성됩니다. 제1제대는 장갑보병사단과 항공륙전대이고 제2제대는 기계화보병려단과 땅크려단들입니다. 기타 일반병종부대들로써는 타격집단예비대를 구성합니다. 타격집단의 전투훈련수행질서와 배속지원부대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엄하였으며 어제날의 동료들 혹은 상관들앞에서였건만 드팀없이 강경하게 울리고있었다.

최광은 어깨가 딱 바라진 그의 다부진 체구며 말할 때마다 콩알만한 기미가 쉴새없이 오르내리는 그의 모가 진 턱을 눈여겨보면서 가슴속에 그득차는 그에 대한 자랑과 사무치는 애정에 눈시울을 바르르 떨고있었다. 저 젊은이가 그처럼 눈부시게 발전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던가. 그가 그처럼 단숨에 타격집단의 작전전술적목적을 통찰하고 단번에 자기의 손아귀에 꽉 거머쥐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그 모든것을 즉시 발견하시고 단번에 파악하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일약 변모시켜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령장아래 용맹한 장수들이 나는법이다.

《그에게 장검을 쥐여줍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하시던 그 말씀을 상기하며 최광은 눈굽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그이께서 말씀하신 서리발장검이 번뜩이는것을 눈앞에 보는듯했다. 오영범이 지금 그 장검을 꽉 거머쥐고있다. 최광은 그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제1제대의 장갑보병사단과 항공륙전대는》 하고 오영범은 지도를 짚어가며 위엄있게 설명을 계속하고있었다. 《여기 삿갓봉일대의 제2호전구에 투입되여 〈적〉의 주공집단을 둘로 분리시켜 각개 진압소멸해야 합니다. 〈섬광〉작전의 초기성과는 바로 제1제대련합부대들의 행동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제2제대의 결전진입은 제1제대련합부대들의 초기성과를 공고히하며 〈적〉의 후속부대들이 전투에 진입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진행하게 되는바 특히 이곳 거점고지들의 〈적〉을 포위섬멸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동시에 예비대의 독립부대들은 땅크련합부대의 직접 지원하에 이곳 천교령과 두류산, 국수봉을 련결하는 공격지대에서 직접적인 화력련계밑에 적의 증원부대들을 타격하게 됩니다.

제1제대의 공격진출에 앞서 진행하게 될 포병준비타격은 100프로의 진압밀도를 조성하면서 대집중사격으로 먼저 제2호전구의 〈적〉 유생력량과 화력기재들을 철저히 파괴소멸하여야 합니다.》

그는 지도의 붉고푸른 화살표들과 각종 부호들, 수자로 표기된 지점들을 짚어가면서 련합부대들의 공격지대, 포위환, 최근임무와 차후임무 그리고 공군 및 포병 집단의 임무수행질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한듯했다. 직업적인 군인들인 그들은 벌써 전대미문의 대타격전을 자기 눈으로 환히 내다보았고 격렬한 싸움터의 포성도 듣고있었다.

이 《섬광》작전이야말로 종래의 군사 지식이나 경험으로써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놀라운 립체전이며 전격전이였다. 하늘과 땅에서 일시에 소낙비처럼 들부어지게 될 이 대타격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시작되고 전개되고 결속짓게 되여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있었다. 거기에는 미심쩍은것이나 더 첨부할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모든것이 명료하고 극히 비상한것으로서 그것

은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에 견줄만한것이였다. 하여 사람들은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실지 전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였다. 그것은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슴속 피를 끓게 하였다.

최광은 그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있었다. 그자신이 바로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작전도를 보며 그러한 심정에 휩싸여있었던 것이다.

《지휘관동무들.》 하고 오영범이 계속했다. 《이제부터 모두 자기들이 받은 전투임무에 기초하여 행동기도와 협동동작 등을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휘관참모훈련은 2시간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타격집단의 지휘관참모부들의 긴장한 작업은 계속되였다. 련합부대, 부대들의 무선통신은 명령을 접수하는 비밀암호전문외 일체 리용하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외부와의 일체 전화선도 차단되였다. 타격집단은 밤의 고요속에서 소리없이 은밀히 움직이고있었다.

최광은 군단을 인계한 김대웅상장과 같이 새벽 2시에 직승기를 타고 총참모부로 돌아왔다. 《섬광》작전이 시작되기까지엔 아직 13시간이 남아있었다.

5

밤… 밤은 평온과 휴식을 약속하나 **김정일**동지의 하루일과는 시작과 끝을 가를수 없이 밤에도 계속 이어져갔다. 총참모장 최광으로부터 오영범의 사업착수와 《섬광》작전의 추진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맨끝의 전화기를 끄당기였으나 잠시 그우에 손을 얹고계시였다. 외교부 제1부부장을 찾으려다가 달리 생각하신것이였다. 지금 그들은 이전보다 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적들이 우

리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켜 끝끝내 《제재》를 가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대변인 성명, 회담, 담화발표, 기자회견, 비망록, 각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맹활동을 벌리고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그들의 사업과 활동, 계획하고있는 사업내용은 그이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다. 그것은 지금 그이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보고문건의 몇가지 제목들만 훑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외교부대변인 성명—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키고 계속 압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할것이다.》

—외교부대변인 담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핵문제〉와 같은것을 론의하는 마당이 아니다.》

—외교부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씨야는 분수없이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말아야 한다.》

—외교부대변인 담화—

《미국은 자기의 경거망동으로 초래될 치명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외교부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은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외교부대변인 성명—

《〈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책동을 강행하여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전포고〉와 같은것으로밖에 보지 않을수 없다.》

…

우리 외교전사들의 심장이 커졌다. 조약탈퇴를 지레대로 하여 미국과 총결산하려는 당의 의도에 힘찬 보조를 맞추고있다. 배심있게 강경대처하고 유화도 배합하여 주동을 쥐고 지혜전, 전술전, 공격전을 잘

벌리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에 우리 문제를 상정시키려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토의해야 한다고 강력한 선전공세도 펴고있다. 그것은 유엔안보리사회에 우리의 《담보협정불리행문제》를 꺼들려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협정악용문제》도 동시에 상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지금 미국의 청탁을 받고 우리의 강경조처가 진짜인지 허세인지 외교적제스츄어인가 하는것을 내탐하기 위해 날아온 여러나라의 외교단들과 만나서도 존엄높은 우리 당의 외교전사들답게 무게있고 권위있게 우리의 담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금 핵대결전의 제일선에서 과감무쌍하게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밤 1시가 지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전화를 드시였다. 조선적십자병원분원원장을 찾아 그곳에 입원하고있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병치료경과에 대하여 문의하시였다. 분원 원장은 인민무력부장의 병치료경과가 대단히 좋으며 얼마후이면 퇴원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무엇때문인지 그가 자주 말을 더듬고 두간두간 갑자르군하는 그것이였다.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듯하였다.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대답이 시원치 못합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원장은 당황한 어조로 서둘렀다. 《저… 실은 지금 제 방에 무력부장동지가 와있습니다. 자기를 퇴원시켜달라고 막 을러메는중이였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시이게？… 무력부장동무가 어떻게 아직 자지 않고 거기에 나와있습니까？》

《그건 전번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장동지의 병치료때문에 밤에 전화를 걸어오셨다는것을 알고 그때부터 계속 퇴원시켜달라고 야단입니다. 장군님께서 지금 자기를 기다리신다면서…》

《그렇다？！—그럼 언제쯤이면 완쾌될수 있습니까？》

《아직 한주일은 더 치료를 하여야겠습니다.》

《음—그럼 절대로 퇴원시킬수 없다고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런데… 야단났습

니다. 지금 부장동지가… 꼭 장군님께 말씀드릴게 있다면서…》
그이께서는 소리없이 미소를 그리시였다. 분원원장의 옆에서 금시 전화가 끊어질가봐 안달아하며 몹시 바재이고있을 그의 모습을 선히 보시는듯했다.
《좋습니다. 전화를 바꾸시오.》
오진우가 나왔다. 그리움과 반가움, 넘쳐나는 기쁨과 사무치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심하게 갈린 그리고 그답지 않게 몹시 덤벼치는 목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오진우 전화받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금 치료경과가 좋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젠 다 나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장 일에 착수해도 됩니다.》
《아, 그런거야 의사선생들이 더 잘 알겠지요.》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오진우는 그 간절한 애원이 담긴 목소리로 매달렸다. 《정말 다 나았습니다. 인젠 최고사령관동지곁으로 가서 힘껏 일할수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겠는데… 더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음을 거두시였다. 그의 진정이, 그의 불이 이는듯한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꼭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그는 기쁨에 넘쳐 부르짖다싶이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언제쯤이면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럴 때엔 나라의 최고위급간부이며 로혁명가인 그도 어린애마냥 순진해지는듯싶다. 그이께서는 다시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꼭 부르겠습니다. 수일내로!》
《수일내로!》 하고 그가 큰소리로 되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새 병치료를 잘하십시오.》

…밤은 소리없이,바닥없이 깊어만 갔다. 그이께서는 더미로 쌓인 문건을 또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하시였다. 먼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이 나간 이후 남조선괴뢰들의 동향에 대한 보고자료를 펴드시였다.

원래 우리의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3월 8일 이후부터 매일 김영삼의 방에 모여 《안보관계장관회의》니 《통일관계장관전략회의》니 하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대응책》을 찾기에 급급하던 괴뢰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라는 폭탄선언이 나가자 별안간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될수록 북을 자극하지 말자거니 《핵특별사찰》문제도 민족내부문제로서 남북간에 풀수 있으리라고 본다느니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12일 오후 우리의 성명이 발표된 즉시 판문점련락사무소를 통해 《리인모로인의 방북을 아무런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측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온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북》이라는 단어밑에 굵게 밑줄을 그으시였다. 《방북》이라니,무슨 오그랑수를 또 쓰려는것인가?… 우리는 《방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송환》을 요구하는것이다.

라지오에서는 취주악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전시가요련곡》이다. 요즘 라지오와 텔레비죤방송프로들은 거의나 전투적인 영화와 편집물들로 엮어져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시였다.

리인모!… 그가 처음 알려진것은 기나긴 34년간 옥고를 치르고 1988년 10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나와 경기도 양주군의 한 양로원에 있으면서 자기의 한생에 대한 수기를 써서 잡지 《말》에 1989년말부터 1990년초까지 네번에 걸쳐 발표한 때부터이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인모의 수기를 적구에서 당중앙에 보내온 전사의 보고로 접하시였다. 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당과 조국의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그 작전을 펴주시였다.

리인모의 수기는 곧 《로동신문》에 련재되였다. 그러자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다. 리인모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까지 세차게 울려퍼졌다. 북남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

때부터는 리인모송환문제가 긴급의제로 상정되였다. 마침내 지난해 9월 8차 평양회담에서 적들은 《수석대표》의 이름으로 송환문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는 얼마 못가서 류산되고말았다. 괴뢰안기부가 정면에 나섰다. 놈들은 《총리》의 약속마저 차던지고 공공연히 그 반대리유를 이렇게 세가지로 내놓았다.

첫째,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하고있는 때 사회주의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전향을 거부한 리인모를 돌려보내면 그것이 북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로 된다는것,

둘째, 북의 **김일성**주석의 삼촌 김형권이 이끈 조선혁명군무장소조의 파발리습격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생존해있는 증견자이기때문에 북을 돕는것이라는것,

셋째, 이제 북에서 또 제2의 리인모를 내라고 할것이 뻔한즉 그 단련에 녹아날것이므로 아예 그 전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는것이였다.

괴뢰안기부의 이러한 주장에 눌려서 적들은 리인모를 절대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정책결정》까지 내렸던것이다. 그런데 별안간 달라졌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이 그들을 정신차리게 했다. 악에 받쳐 고함을 지르던 그들이 홀연 두눈을 흡뜨고 숨을 죽였다. 비로소 그들은 가장 위력한 절대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였다. 그것은 막강한 군사력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은 우리의 용기와 정신에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또 다른 서류를 골라드시였다. 시간을 아껴야 했다. 아직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일감을 앞에 두고있는 이 하루였다.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적정보고, 전국로병대회준비를 위한 사업, 마감단계에 이른 서북부지구물길공사며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 통일거리 건설정형에 대한 료해, 우루과이 3월26일운동위원장 루벤 베라의 서면질문… 시간은 쪼갤수록 부족되고 사업은 제낄수록 늘어만나고있다.

몇해전 중국에서는 《사람은 일생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라는 책을 낸 일이 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 로신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책이였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마감까지 자기가 제기한 물음에 그 어떤 수학적인 답을 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한 위인이 이룩한 사업은 그 어떤 수량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크기로도 잴수 없고 무게로도 달수 없다. 그것은 오직 력사에 남긴 공적으로만 계산되는 법이다. …

얼마후 그이께서는 책임서기가 가져온 보고자료를 받으시였다. 반가운 소식이였다. 하동광산 로동자 림희문의 연구안에 대한 과학기술적검토가 끝났다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즉시 허영태비서를 전화로 찾아 림희문의 연구안을 검토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금 어데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허영태비서는 그들이 지금 대기중이라고 대답올렸다.

《좋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그들과 같이 곧 여기로 와주시오. 직접 들어봅시다.》

그리하여 김형우를 비롯한 반백의 교수, 박사들이 허영태비서와 함께 그이의 집무실로 왔다. 두번째로 이 방에 들어서는 그들이였다. 처음에도 깊은 밤중이였는데 오늘도 역시 그러했다. 창가림을 모두 드리운 방안은 엄숙하리만큼 고요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모두에게 손수 자리를 권하시였다. 자신께서는 탁자를 마주한 옆자리에 앉으시였다.

《이렇게 또 늦은 밤중에 찾아서 안됐습니다. 널리 량해하십시오.》

과학자들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머리를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이께서는 탁상전화로 책임서기에게 인민무력부작전국의 정황보고를 제외한 일체 다른 사업은 잠시 뒤로 미룬다는것을 알리시였다.

《자, 그럼 들어봅시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흥분하고계시였다. 한 인간의 꿈과 념원 그리고 한생의 목적이 깃들어있는 연구론문이였던것이다. 교수인 김형우가 먼저 림희문의 연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먼저 이 연구사가 탐구한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한 〈T강〉이온질화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광방전플라즈마에 의하여 질소분위기를 이온화시키고 그것으로 음극역할을 하는 금속편을 포격하여 질화물층이

생기게 하는 이온주입방법입니다.

이온화질소에서 기본역할을 하는것은 플라즈마방전에 의해 생긴 활성질소이온인데 금속겉면에 자기마당을 걸어주면 활성질소이온의 에네르기가 높아지면서 재료겉면에 이온이 주입됩니다. 이때 금속안으로 질소를 필요한 깊이만큼 침투시키는것은 열확산에 의해 진행되게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였다. 그이께서 계속하라는 의미의 눈짓을 하시자 김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방법은 플라즈마불길에 의하여 용융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가열된 녹여뿜기재료의 가루를 금속겉면에 빠른 속도로 분무 부착시켜 피막을 만드는 처리기술입니다.

여기서 플라즈마녹여뿜기의 우점을 보면 온도가 수천도로부터 1만도이상에 이르기때문에 거의 모든 재료를 다 녹여뿜을수 있고 플라즈마분사속도가 크므로 녹여뿜는 피막에 기공이 적게 생기게 하여 소재와 피막과의 밀착력도 크게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질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불수강과 티탄합금 등의 질화도 할수 있으므로 현대적정밀기계 및 무기 생산에 절실한 금속재료 즉 닳음견딜성,열견딜성,삭음견딜성을 가진 새롭고 귀중한 재료를 얻을수 있습니다.》

《음-》 하고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러니 그 동무의 연구안은 실현불가능한것이 아니였단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방법은 공업이 발전된 서방나라들에서도 최근에야 연구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0년전에 연구했다는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비록 실험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계속 연구사업을 내밀었더라면 오래전에 우린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금속재료를 만들어낼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렇다?!…》

불현듯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자우로 손을 내밀어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으시였다. 처음 도면우에 놓인 확대경을 잡으시였으나 그것을 놓고 연필을 쥐시였다. 그러나 그것도 도로 놓으시였다. 자신께서도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 잊으신듯하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무엇

인가 찾으려던것을 단념하고 흥분어린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그러면 그 실패원인은 알아보았습니까?》

《예, 실패원인은… 실험을 시작하면서 뜻밖에 일어난 화재사고때문이였습니다.》

《화재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화재의 원인으로 말하면 필요한 조건과 설비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불비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기때문이였습니다. 그의 연구쩨마가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론의되였기때문에 실험이 중지되자 고집불통인 그 연구사는 가연성먼지가 꽉 들어찬 완성직장건물 한쪽에서 몰래 실험을 계속하였는데 그만 뜻밖에 가연성먼지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연성먼지?》

《예, 지금 석탄, 야금, 수지, 원유, 식량, 목재가공, 화학공업 등 부문에서 먼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기와 일정한 비률로 혼합되여있는 가연성먼지에 강한 에네르기를 가진 불꽃이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등록된 첫 가연성먼지폭발사고는 18세기말 이딸리아의 한 제분공장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업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가연성먼지의 폭발사고도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석탄먼지와 기타 화학제품먼지들에서 사고가 많은데 프랑스에서 있은 석탄가연성먼지폭발의 길이는 100여키로메터나 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연성먼지가 그때 플라즈마녹여뿜기를 진행한 완성직장에 꽉 차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확인한데 의하면 강한 폭발성을 띤 휘발성이 농후한 가스와 신나, 기름알갱이 등이 혼합된 가연성먼지에 온도가 수천도에 달하는 플라즈마불길이 착화원으로 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로 그때 가연성먼지가 공기속에서 일정한 농도에 이르고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량의 에네르기를 가진 착화원이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로 하여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자우의 연필을 꽉 틀어쥐고계시였다. 채칵거리는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재고있을뿐 방안은 숙연한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슥토록 아무 말씀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음을 잊으신듯 하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렇다！ 그러니 그 동무의 실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이 아니였단말이지…》

그이께서 혼자말씀처럼 이렇게 뇌이시자 허영태비서가 조용히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연구사업이였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몇걸음 옮기시더니 갑자기 몸을 돌리며 물으시였다.

《실험을 금지시킨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리유는？…》

《지금 금속공업부에서 총국장으로 사업하는 황시우동무였습니다. 그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해보지 못한 일을 벌려놓는다고 처음부터 믿지 못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번째까지 실험이 실패하자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걸린 생산문제를 푸는 창의고안이나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하였다는것이였습니다.》

《황시우？… 그는 어떤 사람이요？》

《료해해본데 의하면 오래동안 연구소사업을 맡아본 동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때문에 가끔 비판을 받지만 사업에서 융통성이 있고 해서 대체로는 평판이…》

허영태비서는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이께서 급히 창가로 걸어가시기때문이였다.

《융통성이라…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어둠에 싸인 창밖을 내다보시는 그이의 마음은 무거우시였다. 불현듯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나시였다. 불시로 아픔과도 같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시였다.

융통성, 책임회피… 우리 생활에는 아직도 이러한 걸림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발전에 얼마나 큰 저애가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있다. 커다란 방, 커다란 량수책상앞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만 신경을 쓰는 그런 일군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싹이 짓밟히우고 얼마나 많은 유익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도 못해보고 사라져버리는지 잘 모르고있다. 왜냐 하면 책임은 지지 않고 우에 밀고 아래에 미는 그런 일군들이 좋은 양복우에 깨끗한 작업복을 걸치고 늘 사무실을 떠나 현장을 돌아치는것을 사업에 대한 투신과 열정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런 일군들일수록 그 작업복 한벌로 자기의 무능과 요령을 빈틈없이 감싸고있다는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의 자리지킴때문에 많은 지혜롭고 쓸모있는 일군들이 파묻혀있거나 부당하게 짓눌리며 결국은 새로운 탐구, 새로운 지향, 혁신적발기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오시였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일을 맡아해주었습니다. 제일 기쁜것은 한 인간의 운명을 건져줄수 있는 희망을 찾은 그것입니다. 비록 과오는 있어도 재능과 능력이 있는 한 인간이 영영 파묻혀버릴번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세월이 걸렸다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한 인간의 생활에서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두 눈물이 어려 뿌예진 눈으로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허영태비서 역시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고 그이께서는 좀더 준절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술분야에서도 10년세월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습니까?… 일부 개별적일군들의 무책임성과 자리지킴때문이였습니다. 무책임한 일군들이 중요한 위치에 틀고앉아 사업을 망치는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군들의 비도덕성, 술풍, 관료주의작풍 등은 엄중시하면서도 아무런 창발성도 없이 자리지킴이나 하는 현상은 문제시하지 않고있습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오르면 그것을 벼슬자리처

럼 여기면서 자리지킴이나 하는 일군들일수록 새로운 발기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낡은것만 고집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특히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번의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지 않습니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걸머지는 일군이지 우나 아래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군이 아닙니다. 자리지킴은 창발성을 억제하고 침체를 낳으며 침체는 혁명을 해칩니다.》

그이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모두 따라일어나 자세를 바로하였다. 그이께서는 허영태비서에게 눈길을 옮기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비서동무, 이 연구안이 하루빨리 생산에 도입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군들은 심각한 교훈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어 그이께서는 반백의 교수, 박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친히 문밖에까지 따라나와 그들을 바래주시였다.

다시 탁자로 돌아오신다. 잠시 더미로 쌓여있는 문건들에 눈길을 두시였으나 곧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 모든 일들에 앞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언제부터 마음속에 안고오신 아픔이 오늘 비로소 가셔진것이다.

그이께서는 전화로 오영범을 찾으시였다. 잠시후 오영범의 쩡쩡한 목소리가 수화구로 울려나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오영범 전화받습니다.》

그는 《섬광》작전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기세도 좋고 신심도 높다. 그이께서 지금 무얼하고있는가고 물으시자 작전준비정형에 대하여 대렬보고를 할 때처럼 크게 간단명료하게 대답올렸다.

《음－좋소.》 하고 그이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한가지 부탁을 할가 해서 전화를 걸었소.》

《예？！》

그이께서 《부탁》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오영범은 저으기 놀

란듯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름아니라… 오동무, 동무가 지휘하던 기계화보병려단에 림정산이라는 전사가 있지. 아버지와 결별했다던 그 정찰병…》

《예, 있습니다. 그새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이젠 구대원들 못지 않습니다.》

《아, 그렇소?… 좋은 일이요.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동무를 좀 만나주오. 그를 만나서 아버지의 연구사업에 대해 당에서 료해하고 속한 시일내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해주시오.… 그의 아버진 나쁜 사람이 아니요. 새 출발을 한 아버지에게 그가 편지를 쓰게 할순 없을가?…》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당장 편지를 쓰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명령으로 하는게 아니요. 당에서 그의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것을 말해주면서… 혈육의 정을 되찾게 해보시오.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도록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속삭임같은 목소리였다. 그이의 말씀에 뜨거운 격정을 삼키는 듯…수화구를 통해 울려오는 가쁜 숨결소리를 가늠해 들으며 그이께서 또 나직이 당부하시였다.

《그럼 오동무, 부탁하오.》

전화를 놓으시였다. 만시름을 다 덜어놓은듯한 심정으로 천천히 시계를 보시고나서 서류더미에로 손을 내미시였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사람은 하루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 땅을 파거나 벽돌을 쌓는 일이라면 별로 계산이 어려울것도 없다. 비행사, 기관사, 설계가의 작업, 작가의 집필, 배우의 무대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지어 과학자의 실험, 교수의 강의, 탁아소보육원의 로동량도 어렵지 않게 산출해낼수 있다. 하지만 당과 국가의 령도자의 경우엔 그것을 어떻게 계량해낼수 있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 작전국장으로부터 군사정세종합보고를 받으신것은 새벽 3시였다.

시간은 쉼없이 새벽을 향하여 줄달음쳤다. 4시 30분, 어느덧 집무탁우에 더미로 쌓여있던 서류들이 반나마 옆으로 옮겨졌다. 그이께서는 심한 피로를 느끼시였다. 인제는 눈시울이 천근만근 무겁게 드리우는것을 참기 어려우시였다. 하지만 하셔야 할 일은 아직 많고도 많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서류들이 옮겨진 옆탁으로 눈길을 옮기시였다. 방금 보고 넘긴 서류들가운데서 하나를 끄당겨 다시 펴보신다.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고드린 자료들중 미국정부가 미국내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재산 수백만딸라를 동결시켰다고 한 부분을 찾으신다. 적들이 동결시킨 재산이 정확히 얼마이며 거기에 들어있는것이 개인명목의 류동자금까지 포함된것인지를 확인하시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자료를 번지며 한손으로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심야근무를 서는 교환수처녀가 《교환 듣습니다.》 하고 속삭이듯 말씀드렸다.

《중앙통신사 사장동무가 지금 자리에 있는지 알아봐주오.》

《알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서류에 눈길을 주신채 대답을 기다리신다. 적막이 머리속을 파고드는듯 징－울린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으시였다. 그러자 아득한 심연속에 잠겨드는듯 혼곤해지는것을 느끼신다. 하지만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또 한가닥 생각을 이어가신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했는가? 리인모를 즉시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그는 참된 혁명가, 조선로동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의 영웅적삶으로 보여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며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의 운명이 더는 정치적롱락물로 되여서는 안된다. 그를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이 즉시 무조건 데려오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연구사 림희문은… 늦게나마 그의 마음속 그늘은 가셔주었어도 아픔은 남아있다. 이제 그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라 부르게 될것이다.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될것이다.

점차 사색의 흐름이 멀리 아득히 사라져간다. 어데선가 명멸하는 불빛, 소리없는 음악, 그것은 빛의 음악인가?… 머나먼 하늘가에서 울려오는듯한 속삭임, 누군가의 조용한 부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누가 부르는가? 꿈결에 들려온 속삭임인가?… 맑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의 여운이 또 멀리 구름너머로 사라져간다. 한줄기 가는 별빛과도 같이 아득한 우주공간으로 자꾸만 멀어져간다. 그다음… 고요, 삼라만상이 숨을 죽였다. 빛의 음악도 없다. 광대한 우주공간만이 무한히 펼쳐지고있을뿐… 드디여 시간도 그 흐름을 멈추고말았다. 정적…

문득 이상한 감촉에 놀라며 눈을 뜨시였다. 왜 이렇게 고요한가? 눈부신 빛은 여전하다. 멎어섰던 시계의 초침소리도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어찌된 일인가? 어느새 깜박 잠들었었는가?… 시계를 보신다. 1분도 채 넘기지 못했다. 다행이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나서 다시 교환수를 찾으신다.

《동무, 어떻게 됐소?》

《!…》

짧은 침묵, 격정을 억제하는 헝클어진 호흡, 처녀는 참지 못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를 터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처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열에 떠는 흐느낌소리뿐…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엔 경건한 아픔이 스며있었다. …

하루는 24시간이다.

사람은 하루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

6

림희문이 그려보던 화옥이는 몸이 실하고 얼굴이 둥실하며 환한데다가 눈이 크고 억실억실한, 흔히 보름달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처녀였다. 화옥이 자신 편지에 자기를 《더퍼리》라고 했고 그 편지의 문장도 아주 활달했었다. 그러므로 희문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구변도 좋은 여러 처녀들의 인상을 한데 합쳐 화옥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던것이다. 그런데 집에 나타난 화옥은 그가 상상해보던 처녀와는 판 달랐다. 키도 크고 몸매도 쭉 빠진 처녀가 두눈을 반짝거리며 《이 집이 림희문아버님댁이 맞나요?》 하고 부드럽고 정찬 목소리로

물었던것이다. 적위대복차림에 가는 허리를 군대혁띠로 꽉 동이고있어서 더욱더 날씬해보였다. 얼굴은 갸름하고 날씬한 몸매에 어울리게 앙증스러운데가 있었다. 오똑한 코마루, 작은 입, 미간이 넓은 두눈에서는 시종 웃음이 샘물처럼 용솟음쳤다. 그때 림희문은 갱으로 나가려던 참이였다. 생필직장에서 일을 끝내고는 집에 들려 대충 요기를 하고 전에 일하던 갱으로 나가 이것저것 돕는것을 준전시때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정하고있는 그였다. 간데라를 들고 토방을 내려서던 그는 처녀의 첫마디 물음에 벌써 무엇인가를 예감했다. (그 처녀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든 대답을 해야겠으나 자기의 예감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처녀는 스스럼없이 바자문을 쑥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님이 맞군요. 예? 나 화옥이예요. 접때 편지를 써보냈던…》

《화옥이!…》

《예, 한번 꼭 들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왔죠. 인민군대원호물자를 가지고 갔다오던 길에 잠간…》

《그래, 온다구 했지. 했구말구!》

그는 손에 들고있던 간데라를 토방안쪽에 던지다싶이했다.

《여보! 어서 나오우. 여기 누가 왔나 좀 보우!》

안해가 부엌문을 열어젖히며 나왔다.

《누구라구요?》

안해는 굳어졌다. 처녀도 역시 한손을 귀밑머리에 가져다댄채 꼼짝 않고 섰다. 한순간의 일이였다.

《화옥이?》

속삭임같은 안해의 목소리였다.

《예, 화옥이예요. 어머니!》

그들은 천천히 팔을 벌리며 얼싸안았다. 그러자 림희문은 이상스러운 경련에 몸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병약한 안해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굻고있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딸처럼 화옥이를 붙안고 그의 머리를 어루쓸며 소리없이 울고있다.

《여보! 왜 그러구만 있소!》 하고 림희문은 칼칼해진 목소리를 가까스로 짜내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뭘 좀 준비도 하구!》

화옥이가 얼른 눈길을 돌렸다.

《아, 아네요.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니, 응?》

《저… 전 가야 해요.》

《가다니. 그런 법이 어데 있니!》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문밖에서 돌아서다니. 어쩜 그럴수 있니. 안된다!》

화옥이 그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정말 오늘은 오래 있을수 없어요. 저기 큰길에서 차가 기다리구 있는걸요. 사실 하루쯤 묵어갈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찌겠어요. 지금 준전시때에… 할 일이 오죽 많나요, 예?!》

《준전시때》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 말이 옳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끝내고 와서는 훈련을 하고 방공호도 파군한다. 이런 사정은 화옥이네도 다를바 없을것이다.

《어마나! 왜 그렇게 보세요?》 화옥은 온통 웃음으로 빚어진듯 하였다. 《제 어데가… 혹시 얼굴에 검댕이라두?…》

《아니, 아니다. 그저 똑똑히 봐두려구…》

《그래요?!… 제가 맘에 들어요?》

《원, 그것두 말이라구 하니. 우린 벌써 너를 만나기전부터 정들었단다. 정말 얼마나 기다렸다구!》

《그러세요?》 하고 화옥은 거의나 소리없이 밝게 웃었다. 《이제 자꾸 와도 되지요? 멀지도 않은데… 기차를 타면 한시간반 안팎이예요. 토요일밤에 왔다가 일요일저녁에 가면 되지요. 안그래요?… 난 벌써 우리 오빠랑 정산동무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정산동무대신 아버님, 어머님을 잘 돌봐드리겠다구요!》

림희문은 불현듯 눈물에 흐려진 눈으로 처녀의 미간이 넓은 두 눈을, 샘물처럼 웃음이 솟고있는 두눈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우리 화옥이, 정말이지 얼마나 정찬 모습이냐. 우리의 귀뚜라미는!…

《아유! 저건 비둘기장이군요!》 화옥이 환성을 질렀다. 《정산동무가 비둘기를 기르댔어요? 그런 애긴 없던데… 정말 재미있는 동무군요. 우리 오빠 정산동무가 학교때 수재로 소문났댔다는

그런 얘기만 계속 써보내지 않겠어요.》
화옥은 재빨리 뜨락을 둘러보았다.
《당장 터밭을 뚜져야겠군요. 참 뒤울안엔 돼지우리가 있어요? 아유! 배가 고프다구 막 야단이구만요. 어머니가 돼질 기르세요?… 참 몸도 편치 않으신데… 무척 힘드시겠죠?… 일없어요. 이제 내가 힘껏 돕겠어요. 이래뵈도 난 아무 일에나 다 솜씨가 있어요. 정말이예요!》
안해는 눈굽이 저려나는듯했다. 어설프게 웃고있던 해쓱한 입술우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을 지켜보느라니 림희문의 가슴속에도 무엇인가 쑤시는듯한 아픔과도 비슷한 격정이 치밀어올랐다.
사람은 누구라 할것없이 사랑을 받고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여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여났기때문이다. 진정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는 열망조차 없다면 그 삶은 벌써 끝난것이며 그 죽음은 비참한것이리라.
그런데 지금 소대장 윤철의 녀동생 화옥이 사랑에 주려있는 그들 늙은 내외에게 그것을 한가득 안고서 왔다. 하지만 화옥이자신은 자기가 가져온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것인지 다는 모를수도 있다.
화옥은 뒤울안의 돼지우리에 가보고 안해와 같이 방문도 열고 들여다보았다. 화옥이 올것을 생각해서 잘 거두느라고는 했지만 늙은이들의 외로운 살림이 그대로 다 드러나보이는 방안이였다. 그래도 화옥은 무엇에나 다 감탄했다. 웃음이 많은것처럼 놀라움도 많다. 두마리의 큰 돼지에 깜짝 놀라더니 이번엔 정산의 책꽂이를 보고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정산동문 유명한 수학골이라더니 시도 좋아했나요? 아유— 저런!… 없는게 없네— 천문학, 력사, 세계문학선집, 시집, 철학, 동물사전, 해석기하… 아유, 백과사전이로군요.… 정말 굉장하네!—》
그러나 화옥은 재빨리 손목시계를 스쳐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어마나! 10분만 기다려달라구 했는데 벌써…》
《10분?》 하고 안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왔다가 하루밤 자구가지두 않구… 내가 가서 말해보면 안될가? 응?!》

힘없는 안해의 절절한 당부가 처녀의 가슴을 쳤던것 같다. 화옥은 거의나 애원에 찬 눈빛으로 림희문을 쳐다보았다.

《아버님, 이렇게 할바엔 차라리 오지 않을걸 그랬지요?》

숨죽인 목소리였다. 웃음이 샘솟던 두눈에 금시 눈물이 맺힐것 같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고 림희문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만나보니 얼마나 좋으냐. 그저 계속 붙잡아두고싶어 그러는게지. 안됐다. 우린 그저…》

그가 더 말을 잇지 못하자 안해가 조용히 받았다.

《화옥아, 우린 사실 네가 진짜 오긴 올가 하구… 매일 그 얘길 했구나. 그러던게 이렇게 와주니…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소릴 했구나. …》

화옥은 따뜻하게 이뻐진 두눈에 함뿍 웃음을 담았다.

《그럼 이제부턴 계속 올게. 좋지요, 어머니?!》

화옥은 림희문에게도 웃음어린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잰 말씨로 명랑하게 말하였다.

《그럼 전 가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나오지 마세요. 난 막 냅다 뛰여갈래. 정말이예요. 뒤에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거 난 싫어.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럼 안녕히!…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내 인츰 또 올게!》

어느새 화옥은 고무띠를 매놓은 바자문을 밀고 울밖으로 나갔다.

한순간 피끗 이쪽을 향해 눈인사를 하는데 작고 도드라진 입술에서 애석의 미소가 바르르 떨고있는듯했다. 그리고는 사라졌다.

림희문은 그냥 그자리에 얼나간듯 서있었다. 무엇인가 경쾌한 음악을 울리던 악기선이 툭 끊어져버린듯한 느낌이였다. 과연 그것이야말로 어떤 음악이였던가!…

그는 자기의 한생이 음악으로 말하면 단 한가지 가락으로만 이어진것이라고 생각해왔었다. 낮이나 밤이나 사시절 언제나 변함없는 가락, 속을 태우며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희망해온 애절한 가락이였다. 그런데 별안간 그 소심한 가락속으로 밝고 쟁쟁한 그리고 다양하고 억센 정열의 리듬이 뛰여들어 지금까지 변함없

던 가락을 판판 다르게 엮어놓더니 홀연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급기야 바자문을 차고 나섰다. 젊은 시절에도 이렇듯 급작스럽게 달려본적은 있는것 같지 않다. 그는 비좁은 문화주택사이길을 허둥지둥 내달려 마을앞 큰길로 나섰다.

그때 벌써 화옥은 저쪽 소나강기슭에 세워둔 자동차에 오르고 있었다. 적재함우에서 두셋의 손들이 처녀를 끌어올렸다.

이윽고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르스름한 배기가스가 날리는것이 보였다. 화옥이가 이쪽을 쳐다보더니 손을 높이 흔들어주었다. 무어라고 웨친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차가 먼지를 피워올리며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있을뿐이였다. 어떤 허전함이, 가슴을 저리게 하는 서글픈 외로움이 다시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어이하랴, 한순간 섬광이 펑끗！ 하고 눈을 때리고난뒤에는 더욱더 어둠이 짙어보이는것을！…

소나골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쳤다. 먼 산봉우리너머로 벌거우리하게 물들기 시작한 구름장이 떠갔고 인기척없는 길우에는 소리없이 내려앉는 먼지와 함께 땅거미가 재빨리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바자문밖에서는 안해가 해질무렵의 찬바람에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남편의 우울한 낯빛을 여겨보면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안해가 물었다.

《갔어요？》

그는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또 올가요？》

힘없는 안해의 그 음성에는 사무친 애원이 있었다. 그리고는 또 입을 꾹 다물고있는데 자기의 애절한 소원에 대한 대답을 듣고저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있는듯했다.

《올거요. 그앤 꼭 와！》

뒤울안에서 성난 돼지들이 또 울부짖기 시작했다. 참을길 없는 울분을 토하는 격한 웨침이였다.

안해가 황황히 바자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토방우에 내던진 간데라가 눈에 띄였다. 그는 간데라를 쥐고 기둥옆에 벗어놓았던 안전모까지 정히 썼다.…

다시 비암산으로 오른다. 듬성듬성 널린 바위돌우에서 저무는 해살이 얼씬거렸다. 령마루에 오르자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전에 갱에서 일할 때에도 그는 등판에 다 오르면 어김없이 담배를 한대 피우군했다. 힘주어 담배를 빨 때마다 끄물끄물 타는 불빛이 그의 남달리 큰 손바닥을, 그가운데로 깊이 파고 지나간 세가닥의 손금을 비쳐주었다.

옛사람들은 흔히 이런 손금을 보고 자기들의 운명을 점치군했다. 불행한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물있는자는 그것을 불구기 위하여, 근심걱정 없는자는 더 오래 살고싶어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다 제각기 세상에 날 때 쥐고나왔다는 그 운명의 표적을, 그 불가사의한 손금의 철학을 제나름으로 풀이했었다. 하여 무엇인가 자기한테 유리한, 하다 못해 위안이라도 될수 있는것을 거기서 찾아내군하였다. 그러고보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안되는 모양이다. 믿음이 없다는것은 곧 희망을 잃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럴진대 희망없는 삶이야 어떻게 참고 견딜수 있으랴.

그러면 그는 무엇을 믿고있는것인가?… 손끝까지 타들어가도록 정신없이 담배를 빨며 그는 생각을 이어간다. 누구는 힘을, 누구는 정열을, 누구는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노력을 믿고있다. 그도 믿는것이 있다. 오랜 세월 자기가 바쳐온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것을 믿고있으며 이제 저 귀여운 화옥이가 꼭 다시 오리라고 믿고있는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정산이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품에 안길 날이 오리라는것을 믿고있다. 정산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기다린다. 너의 밝은 웃음을, 너의 정찬 목소리를 기다린다. 아버지라 부르며 숨가삐 달려올 너를 기다린다!…

그는 입술이 타들 지경이 되여서야 손톱눈만큼 작아진 담배꽁초를 비벼끄고 비암산을 내려갔다.

갱입구에는 무장한 적위대원이 서있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첫날 림희문을 멈춰세웠던 그 청년이였다.

《아바이, 오늘은 좀 늦었군요.》

《음— 그렇게 됐네.》

《이자 누군가 찾던데…》

《나를？》

《예, 갱에 들어가는걸 봤는가고 묻겠지요. 그래 아직 못보았다고 했더니 이제라도 만나면 당위원회에서 찾는다고 말해주라더군요. 손님이 왔다던지…》

《손님이？！》

그 순간 가슴이 활랑거렸다. 갑자기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날만큼 적막속에 빠져든것 같기도 했다. 드디여 매일같이 가슴조이며 기다려온 그 일이 찾아온것이다. 그는 물고기모양으로 입을 벙긋거리다가 겨우 숨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고마우이.》

그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누굴가 하고 골똘히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헌털뱅이같은 림희문 자기를 찾아온단말인가！…

그는 허둥지둥하며 당위원회를 찾아갔다. 마당앞에 서있는 하얀 승용차가 먼저 눈에 띄였다. 어데선가 본것 같은 차였는데…

그는 왼손에 들고있던 간데라를 오른손에 바꾸어쥐고 당비서실에 들어섰다. 뜻밖에도 거기엔 광산당비서와 황시우총국장이 있었다. 황시우는 전화를 받고있는중이였다. 당비서가 림희문에게 자리를 권하며 낮은 목소리로 《아는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다. 희문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하고나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가, 나를？！… 며칠전 내가 찾아갔을 때 굵다란 목에 피대를 세우며 《여보, 인젠 제발 분수없이 굴지 마오. 동무야 교화출소자가 아닌가. 내 동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좀 집구석에 가만 박혀나 있소. 지금은 준전시때야！》 하고 매몰스럽게 말하던 사람, 그가 나를 찾아올 리유란 없지 않은가？…

당비서는 《손님》이 지금 당중앙위원회 허영태비서와 전화로 말한다고 했다. 그것이 더더욱 희문을 놀라게 했다. 이럴 때엔 자리를 피해주는것이 옳을것 같았다. 그는 당비서를 향해 입속말처럼 나직이 말했다.

《비서동지, 그럼 전…》

《아니！》

당비서는 손을 들어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시늉을 했다. 하여 그는 의자 한끌에 겨우 엉뎅이를 붙이고 앉았다. 어쩐지 실례되는 일처럼 여겨졌다.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전화로 말하는 이자리에 쇠돌가루 묻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간데라를 움켜쥔 늙은이가 아무일 없이 앉아있어도 되겠는가?!…

송수화기를 거머쥔 황시우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바삐 말했다.

《비서동지! 사실 전… 가책되는바가 있어서 늦게나마… 예?… 예, 그렇습니다. 희문동무를 좀 만나려고…》

그의 널직한 어깨가 거치른 호흡때문에 들먹거렸다. 별스레 숨이 차 하는것이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림희문을 깜짝 놀라게 한것은 그가 당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자기의 이름을 대고있는 그것이였다.

《예, 희문동무를 만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의논도 할겸… 예? 물론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쪽의 쩡쩡한 말소리가 송수화기를 통해 울려나오군했다. 무엇인가 따져묻는듯했다.

자기 자리에 앉은 당비서는 태연히 사업노트에 무엇을 쓰고있는것이 지금 론의되고있는 문제를 잘 알고있는듯했다. 그는 전화로 오가는 말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할일만 하고있었다. 그러나 희문은 바늘방석에라도 앉은것처럼 자꾸만 몸을 움쭉거렸다. 그럴 때마다 삐걱삐걱하는 의자소리가 또 한줌만해진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군했다.

그는 간데라손잡이줄이 휘여들지경으로 그것을 힘껏 틀어쥐고있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돌덩이같이 움켜쥔 손바닥안에 땀이 질벅해졌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림희문에 대하여 묻고있는 모양이다. 그저 묻는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추궁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황시우의 굵다란 목둘레로 진땀이 내돋고있다.

《사실 전…》 하고 황시우는 중얼거렸다. 《아침에 비서동지의 전화를 받고 줄곧 생각다 못해… 이제라도… 해결책을 찾을가 해서…》

그의 굵은 목소리가 점점 더 죽어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저쪽에서만 말하고 황시우는 두툼한 입술을 깨물며 간혹 《예.》 혹은 《그렇습니다.》 하고 가까스로 대답할뿐이였다.

림희문은 황시우가 두툼한 입술을 깨물며 말을 갑자를 때에는 영문도 알지 못하며 저도 가슴을 조였고 그가 당황하여 잔기침을 할 때엔 저 역시 목에 걸린 가래를 삭이지 못하여 모지름을 쓰군하였다.

이따금 송수화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허영태비서의 목소리는 준렬하였다. 황시우는 한손으로 수건을 꺼내여 이마의 땀을 훔쳤다.

《예, 알겠습니다.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고나서 황시우는 희문에게로 피끗 시선을 던졌다. 《있습니다. 예, 당비서동무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시우는 송수화기를 내렸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어둠에 싸인 창밖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듯하며 손에 들고있던 송수화기를 쑥 내밀었다.

《참, 희문동무! 전화를 바꾸라던걸…》

《예?!》

림희문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당비서가 의미있게 웃으며 어서 전화를 받으라는 손짓을 했다. 당비서의 그 미소가 희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받아들자 먼저 억눌린 기침소리를 냈다. 그러자 저쪽에서 먼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허영태입니다. 희문동무입니까?》

《예, 제가 림희문입니다.》

그는 목구멍에 걸린것을 삼키느라고 또 기침소리를 냈다.

《반갑습니다. 희문동무,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송수화기만 꽉 움켜쥐였을뿐이였다. 어느새 입술이 마르고 목구멍이 껄끔거려서 혀가 놀려지지 않았다.

《희문동무.》 하고 허영태비서가 계속했다. 《얼마전 희문동무의 연구사업에서의 실패와 그 이후생활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로 동무가 연구한 강철재료의 이온질화법을 주체적립장에서 잘 검토하도록 친히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예?!》

그는 숨이 꺽 막힌듯했다. 별안간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틀거

리기까지 했다. 당비서가 다가와 그를 부축해주었다. 마치 그러한 실태를 직접 보기라도 하는듯 잠시 동안을 두고있던 허영태비서가 천천히 또 말을 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김형우박사를 비롯한 금속재료학분야의 권위자들로 그 연구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그것이 우리의 기계공업과 국방공업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렸습니다.》

《!…》

그의 수척한 얼굴은 모진 고통을 겪는듯 이지러졌다. 숨을 쉴때마다 불을 삼키는것처럼 허덕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고 허영태비서는 계속하였다.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희문동무의 연구안을 즉시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희문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희문동무가 준전시상태에 들어선 온 나라 인민과 발걸음을 맞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희문동무의 생활과 연구사업을 잘 돌봐주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림희문은 불길같이 사무치는 아픔에 손으로 가슴을 붙안고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으나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언제 황시우가 방에서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가 탄 승용차가 발동을 걸자바람으로 쵀속으로 골안을 빠져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곁에서 당비서가 돕지 않았더라면 끝끝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말았을것이다. 당비서는 후들후들 떨고있는 그의 삐죽한 어깨를 꽉 잡으며 《희문아바이, 진정하십시오.》 하고 속삭이였다.

허영태비서는 마감으로 건강에 류의할것과 새로운 강철재료를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당부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림희문은 전화가 끝난지 오랬어도 송수화기를 꽉 움켜쥔채 꼼짝도 않고있었다. 격한 숨결이 송화구속으로 퍼부어졌다.

이윽고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섰다. 눈물에

흐려진 눈으로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을 우러른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뜨거운 용암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것은 그의 마음속 부르짖음이였을뿐이였다. 목이 꽉 메이고 눈시울이 사뭇 떨렸다. 후들후들 경련이 이는 해쓱한 볼우로 초물이 녹듯이 진한 눈물이 줄지어내렸다.

아 아！ 어찌하여 우리는 가장 뜨거운 감사를 올려야 할분앞에서 매번 뜨거운 눈물만 쏟고마는것이랴. 어찌하여 단 한마디 고마운 인사말조차 올리지 못하고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씹어삼키고마는것이랴！…

어머니에게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생의 원천인 태양에, 그 빛에 감사드리지 않듯이. 어머니에게는 오직 경건하고 헌신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근심많고 주름깊은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여오르게 해야 한다고 한다. 진정 어머니의 얼굴에 피여나는 그 한점 미소야말로 자식들이 드릴수 있는 가장 진실한 감사가 아닐가！…

7

《섬광》작전이 시작되였을 때 오영범은 군단참모부가 전개되여있는 지휘감시소에 서있었다. 그는 비록 쌍안경을 들고있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는 타격집단의 훈련전모를 다 살필수가 없었다. 주타격방향의 거점고지를 중심으로 한 공격지대전면만을 볼수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현대전은 지휘관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서야 전투정황을 판단하고 지휘하는것은 아니다. 련합부대이상 단위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휘관 참모부는 고도로 발달된 통신망에 의거하여 전투의 맥박을 짚어가며 수시로 변하는 전투정황에 대응하는것이다.

훈련은 강력한 비행대의 준비타격과 대규모적인 포병준비사격으로 시작되였다. 갑자기 무서운 굉음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난듯 돌연 하늘과 땅이 부르르 떨고 뒤흔들렸다. 수없이 많은 각

종 구경의 포들이 일시에 불을 토하며 뢰성을 터뜨렸던것이다. 그러자 하늘가 저끝에서 섬광이 번쩍거리고 화염이 솟구쳐올랐다.

제일먼저 눈에 뜨인것은 불의 화살을 날리는 방사포들이였다. 암갈색의 포연이 하늘을 뒤덮는 가운데 수백수천의 불덩이들이 기하학적인 탄도를 그리며 날아갔다. 어데선가 먼곳에서 터진 중포들의 대집중사격은 무시무시하게 경고하며 으름장을 놓듯 지상의 온갖 소음과 화염을 짓누르며 울려퍼졌다. 포탄과 폭탄의 폭발, 타래치는 포연과 화염 속으로 앙칼진 발동기들의 울부짖음소리가 또 파고들어갔다. 대지는 떨며 불타고 파헤쳐졌다. 그렇지만 불의 타격은 끝없이 계속되였다. 조애사격을 퍼붓고있는 대구경곡사포, 평사포좌지들에서는 구름발같은 먼지가 일어나고있었다.

날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암황색의 짙은 포연과 화염이 하늘을 온통 가리우고있는것이였다. 그렇지만 그 하늘에서도 련속 불의 소나기가 퍼부어졌다. 비행대들이 로케트를 쏘고 폭탄을 던지고나자 공격용직승기들이 까맣게 날아들어 일제히 방사포를 쏴갈겼다. 그러자 시꺼먼 포연속에서 허연 불줄기들이 번뜩이며 쏟아져내렸다.

오영범은 쌍안경의 초점을 맞추어 공격지대에서 작렬하는 공작탄의 섬광을 애써 찾았다. 바늘끝같은 무수한 섬광들이 쌍안경의 렌즈에 포착되였다. 수백개의 공작탄들이 불타고 짓이겨진 공격지대를 또 파편의 우박으로 뒤덮고있는것이다.

어데선가 한무리의 새떼가 검은 회오리바람처럼 휩쓸며 날아왔다. 오영범은 쌍안경을 내리고 타래를 지으며 미친듯 날아든 새떼를 얼핏 바라보았다. 회오리같이 휩쓴 새떼중에서 얼나간 놈들이 지휘감시소의 안테나에 부딪치고 그물에도 떨어졌다. 하지만 많은것들은 여전히 시커먼 회오리처럼 쏴―하는 날개의 퍼덕임소리와 함께 머리우에서 타래치며 날아가버렸다.

그 새떼들이 날아오던곳으로 지금은 수십대의 땅크들이 행진간사격을 퍼부으며 전진해갔다. 그우에서는 항공륙전대가 또 요란한 발동기의 대합창을 울리며 날기 시작하였다.

오영범은 지휘감시소에까지 밀려오는 검누른 포연을 삼키며 제1제대련합부대들의 공격진출을 면밀히 살폈다. 이따금 짤막하

게 명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면 무서운 포화가 《적》진을 두들겨부시고 비행대들이 또 날카로운 동음을 울리며 날아가군했다.

그러나 오영범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살피고있다. 그의 숱진 눈섭은 미간으로 잔뜩 모여들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있다. 지금 그는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체 타격집단을 하나의 장검처럼 꽉 거머쥐고 끊임없이 련속 무자비하게 타격할 일념뿐이다.

지난날 기계화보병려단의 시범도하훈련에서 찾은 심각한 교훈이 오늘의 《섬광》훈련에서 새로운 전술을 낳게 했다. 지금 오영범은 려단이 아니라 하나의 전선을 이룰수도 있는 타격집단을 지휘하여 시작과 끝이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 전격전을 벌리고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다!》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고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지략의 섬광, 담력의 번개불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반공격훈련을 보고있을것이다. 세계의 눈과 귀들인 통신위성, 군사정찰위성들이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수천수만의 화상을 얻고 무수한 전파를 날릴것이다. 미국방성의 관리들, 전문가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을것이다. 그러면서 한개 군단무력이 벌리는 이 무자비한 전격전에 넋을 잃고있을것이다.

오영범의 등뒤에서는 군단참모부 통신결속소의 수많은 무선수, 전화수들이 전건을 두드리고 코드를 꽂으며 분주탕을 피우고있었다. 수많은 명령지시들이 전파음을 타고날아가고 많은 성급한 목소리들이 다투듯 울려퍼졌다. 무선기 출력표시등불빛들이 쉼없이 깜박거렸다. 그러나 그는 공격진출에 나선 장갑보병사단과 항공륙전대의 협동동작을 지켜보며 바위처럼 끄떡없이 서있었다. …

8

윤철과 그의 대원들은 집결지점으로 돌아가고있었다. 기계화

보병려단을 비롯한 군단관하 많은 련합부대 정찰병들이 각기 자기들의 목표물을 찾아 《적》진으로 뚫고 들어갔었다. 그들은 《섬광》전야에 싸운 사람들이였다. 사실 그것은 간고한 싸움이였다. 긴긴 낮과 밤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땅굴을 파고 위장해있었고 마침내 2키로메터나 되는 물속을 기여 《적》의 전방지휘소에 접근하여 다시 벼랑을 톺아올라 거기서 바줄을 타고 통신결속소로 날아들어 순식간에 들부셔버렸다. 그리고는 거의 수십리를 달리고 또 달려 항공타격이 있기전에 《적구》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지금은 집결지점으로 돌아가고있다. 인제는 돌아가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 여느때같으면 무선으로 보고할수도 있었으나 이번엔 공격개시전까지 일체 무선기의 리용이 금지되여있었다. 정찰병들의 습격전은 직승기에서 확인하였을뿐이다.

앞서가는 윤철소대장의 걸음은 빨랐다. 림정산은 대렬뒤쪽에서 부지런히 다리를 놀리며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만약 이것이 실지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였을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부대들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며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갈수 있을가… 그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마도 전쟁이라면 우리들중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을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불에 타고 찢겨져 너덜너덜해진 위장복을 입은 몇사람만이 서로 부축하고 서서 공격하는 부대들을 바라보고있을것이다.… 그는 그러한 장면을 머리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것이 어느 영화에서 본 한 장면과 신통히 같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는 험상궂게 된 사람들의 얼굴모습도 그려보려고 애썼다. 소대장과 그를 부축하고있는 무선수 최윤두… 물론 무선기는 파괴되였다. 그는 한팔에 붕대를 두툼히 감고있다. 그다음 사람은?…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가운데 자기자신을 포함시킬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그자신은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던 것이다. 윤철소대장은 희생적으로 싸우다 쓰러진 정산이며 다른 전우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말라터진 입술을 꽉 악물고있다.…

오늘 정산은 처음 자기자신을 죽음과 결부시켜 생각해본다. 실전과 같이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전투훈련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것 같

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을뿐더러 어떤 숭엄한 생각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는 비로소 지금 벌어지고있는것과 같은 대공격작전도 자기자신을 포함한 이름없는 보통 병사들의 희생적인 투쟁의 대가로 마련된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정찰병들의 긍지가 있고 행복이 있는것이 아닐가?！…

그는 자기의 이 생각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인제는 아버지에게도 써보내고싶었다. 새로 편지거래를 시작한 윤철소대장의 동생 화옥에게도 써보내고싶다. 자기의 생각, 소대장의 생각, 구대원 최윤두의 롱담이며 지금 입고있는 감탕으로 매닥질된 군복에 대해 그리고 속옷까지 흠씬 젖어버렸어도 추운줄 모르고 걷고있는 자기의 기분에 대하여 모조리 쓰고싶었다.

지금도 간밤에 차디찬 얼음물속을 기고 또 기여가던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쳐지리만큼 으쓱하다. 하지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이겨가며 이발을 떡떡 맞쪼으며 무릎이 으깨여지는듯하는것도 참고 이기며 무엇을 생각했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던 그날의 감격을 생각했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윤철소대장에게 림정산을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잘 키우라고 말씀하시였다. 아직 코밑에 면도도 대보지 못한 나어린 전사를 잊지 않으시고 후에도 려단장동지에게 정산의 생활에 대하여, 훈련성과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고 며칠전에는 아버지의 진정에 대하여 친히 알려주시였다. 아버지와 결별했던 이 아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육친의 정을 다시 이어주시였다. 크나큰 사랑을 되새기며 정산은 끝끝내 《적 전방지휘소》에까지 뚫고 들어가 임무를 수행했던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써보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가.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아마 우실것이다.

정산은 아직 아버지가 우시는것을 본 일이 없다. 분노의 눈물이 눈가에 초물같이 맺혀있는것은 보았어도 슬픔에나 기쁨에 겨워 우시는것은 보지 못했다. …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니 절로 가슴이 저릿저릿해났다. 두팔벌려 아들을 부르고 또 부르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웨침이 귀전에 쟁쟁했다. 《정산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는 편지에 썼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아직 단 한번 너를 원망해본 일도 없다. 여직껏 너와 네 어머니의 가슴에 못질만 해온 이 아버지인데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니. 애비구실을 못했으니 너무도 응당한 일이지. 네가 이 애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까닭을 나는 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안다. 그렇지만 정산아, 인제는 믿어다오. 나도 인제는 새 출발을 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늙고 버림받고 쓸모없이 된 나같은 고목에도 다시 꽃을 피우게 해주셨으니… 정말 이 고마운 은덕을 어떻게 다 갚을수 있겠니. …》

군데군데 눈물자욱이 어려있는 편지였다. 한생을 깡그리 다 바쳐 새로운 강철재료의 연구성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할 맹세로 이어진 편지였다. 정산이 역시 그 편지를 눈물로 적셔놓았다. 친아들마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마음속으로 결별해버린 아버지, 비난받고 버림받던 그 아버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생시켜주신것이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정산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시꺼먼 옹이처럼 박혀있던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리해되는듯싶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던 꿈과 념원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것이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듯싶었다. 바로 그것을, 친아들도 보지 못한 그 소중한 마음을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알아주신것이다. 아아, 정산아! 너는 왜 아버지의 그 꿈과 념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더냐.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산이 너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랑해왔는가를 왜 알려고도 하지 않았더냐! …

사람이 진정 인간답게 되는데는 한평생도 모자랄수 있고 단 하루면 충분할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누가 그렇게 말했던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가, 아니면 소대장동지가 한 말이던가? … 생각나지 않는다. …

그들이 걸어온 뒤쪽에서 땅크포들이 무섭게 짜당거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축에 들지 못하고있던 박격포들이 오돌차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초기타격의 성과에 이어 맹렬한 돌격전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땅크들이 야산중턱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내달려가자 뒤미처 열바퀴차에 견인된 대구경호송포들이 나타났다. 제1제대부대들의 돌격을 엄호하기 위하여 이동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구경호송포들은 땅크들처럼 강물을 헤가르며 달리지 못한다.

포차들이 강기슭에서 부릉부릉하며 세차게 배기가스를 내뿜었다.

특히 공병들이 놓은 배떼다리 중간쯤 되는곳에서 적십자표식을 한 위생차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경적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가운데 누군가 지독한 욕설까지 퍼부어댔다. 뒤에 밀린 차들속에서 대좌견장을 단 키 큰 사람이 급히 걸어오더니 무엇이라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러자 위생차뒤에 멎어있던 열바퀴짜리 포차가 부릉부릉 하더니 위생차를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째지는듯한 녀자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간호원들이 앞뒤로 달아나고 운전칸에 앉아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하던 운전사마저 어망결에 문을 열어젖히며 물속에 뛰여들었다.

열바퀴차에 밀린 위생차는 천천히 한쪽바퀴를 허궁 쳐들고 물속에 빠졌다. 그리하여 배떼다리의 혼잡은 가라앉았다. 숱한 포차들이 배떼다리 량옆에 물러난 간호원들에게 파르스름한 배기가스를 들씌우며 기세좋게 지나갔다. 얼마후엔 포차들사이에 끼워 대좌의 승용차도 지나갔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찰병들은 산비탈을 가로질러가고있었다. 정산은 자꾸 발을 걸채이면서도 그 배떼다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윤철소대장이 《소대― 섯!》 하고 구령을 쳤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배떼다리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무래도 우리가 저 처녀들을 좀 도와줘야겠소.》

배떼다리우에서는 간호원처녀들이 발을 구르며 지나가는 포차들에 대고 무어라고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념을 못했다. 지어 포차우의 포병들조차 손을 내저을뿐이였다. 위생차 하나때문에 호송병들의 전방진출이 늦어지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는것이다.

정찰소대가 물에 들어서자 처녀들이 환성을 질렀다.

《동무들, 고마와요! ―》

《아이, 정찰병들이군요. 어데서 불쑥 나타났을가!》

《하늘에서 내렸소.》 최윤두의 말이였다. 《하늘의 선남들이 땅우의 선녀들을 돕자구 내려왔소.》

《어마나! 이 동무 말두 꽤 재미나게 하네―》

《말만 재미나게 하는줄 아오? 생긴건 또 얼마나 의젓하다구. 자, 처녀동무들— 좀 자세히 봐주—》

격렬한 포성의 메아리를 들으며 웃고 떠든다는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윤두의 익살엔 웃지 않을수 없었다. 정찰병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뒤늦게 따라나선 얼마 안되는 공병전사들까지 왁자하니 웃으며 차에 달라붙었다.

간호장인듯한 처녀상사가 윤철에게 거듭 고맙다고 했다. 그러자 윤철은 《우리도 신세질 때가 있겠지요.》 하고 말했다. 웬일인지 처녀들과만 마주서면 주눅이 들어보이는 그였다. 정산의 눈으로 보건대 윤철소대장은 아직 한번도 어느 한 처녀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것 같았다. 그저 맵짜게 구령을 치고 앞장서 내달리고 명중사격을 퍼붓고… 지금도 그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구령을 친다.

《자, 동무들! 단단히 잡구 냅다 밀기요!》

어느새 위생차운전사는 물이 찬 운전칸에 올라가앉았다. 모두 소대장의 구령에 따라 《하나— 둘— 영싸! —》 하면서 힘껏 용을 썼다. 배떼다리우를 지나가는 포차우에서도 응원을 했다. 3월의 차디찬 물속에서일망정 기분은 흥거로왔다. 다들 목터지게 웨치며 한쪽으로 허궁 들려있던 차를 바로 돌려놓고 기슭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강기슭으로 나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다. 사람들도 맥이 빠졌다. 특히 정찰병들은 련 이틀째 공중에서 땅우에서 또 물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였으므로 헉헉 단김만 내뿜기 시작했다. 정산은 다시 온몸에 스며드는 오한에 이발을 떡떡 맞쪼았다.

그때 최윤두가 바줄을 메고 왔다. 무슨 수로 어떻게 구슬렸는지 그는 배떼다리로 올라서던 포차들중에서 한대를 이쪽으로 꽁무니를 돌려대게 했다. 간호원들이 또 환성을 질렀다. 처녀상사는 최윤두더러 《하사동무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하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자 최윤두는 《옛, 최윤두라고 합니다!》 하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좀 어려보이는 처녀의 귀에 대고 역시 큰소리로 《옥희동무, 내 이름이 어떻소. 괜찮지?… 잘 기억해두라구.》라고 했다. 떠들썩한 웃음판속에서 그 처녀가 《내 이름이 뭐 옥휜가?》 하고 샐쭉해서 쏘아붙이자 최윤두는

《그럼 뭐요. 은희? 선희?… 난 희자가 달린 이름을 좋아하는데 어느쪽이요. 명희? 정희?》 하고 떠들어서 또 한바탕 웃게 했다.
차가 기슭에 끌려나가자 처녀들은 정찰병들에게 또 입을 모아 고맙다는 인사말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처녀들의 선망어린 눈길을 받으며 비록 지치고 물참봉이 된 그들이였지만 마음이 흐뭇해서 기슭을 떠났다.
바야흐로 제2제대부대들의 결전진입시간이 다가오는듯했다. 비행대들이 또 출격하였다. 보이지 않는 먼 산너머에서 화광이 충천했다. 무서운 대집중타격이 또 거기에 가해지고있는것이다. 아마도 그 집중포화를 들쓰고있는 산들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을것이다. 흙도 바위도 다 타고 녹아버릴것이다. 정산은 암갈색의 포연이 구름처럼 드리운 그쪽을 자꾸 뒤돌아보았다. 윤철소대장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산들에선 몇해동안 풀도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인제는 몽땅 파헤치고 뒤집어엎고 송두리채 들부셔놓았음직한데도 계속 포화를 들씌우고있다. 저 방사포탄 한발이면 황소 한마리값이라던데… 정산은 병사들속에서 떠도는 말을 생각하며 그토록 아낌없이 들붓는 포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얼굴에 불어치는 바람이 훗훗하게 느껴졌다. 산간지대의 봄은 여전히 쌀쌀하고 지어 맵기까지 했으나 불의 소나기가 대기를 덥혀놓은듯했다.
하늘은 잔뜩 흐렸다. 재빛의 어두운 하늘에서 희미하고 벌거우리한 태양이 짙은 포연속을 가까스로 헤염쳐갔다.
정찰병들이 가로질러가는 둔덕우에서 촬영가들이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군복입은 사진사, 촬영가들이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준전시상태선포와 아울러 진행되는 이번의 타격집단전투훈련을 력사에 길이 남기려고 《섬광》의 열점에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있는것이다. 아까는 《나》형무개차를 타고있는 그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이 언덕우에 올라있다.
그들쪽을 슬금슬금 곁눈질하며 최윤두가 말했다.
《전전해 군단기동훈련때말야, 한 촬영가가 날아나는걸 봤는데 말야…》

정산은 걸음을 빨리하면서 그의 곁으로 가붙었다. 의심스러운 데가 많긴 했어도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귀를 솔깃하게 한다.

《글쎄 대위의 군사칭호를 단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식할수야 있겠나. 평곡사포화력진지뒤에서 의자우에 올라서서 일제사격의 멋있는 장면을 찍으려 했거든. 그런데 포병들은 그가 뒤에서 촬영준비를 하는걸 몰랐다는거야. 다들 사격준비에 바빴거든.… 일이 안될라니 그렇게 된거지.… 결국 일제사격과 함께 그 사람은 허궁 날아났는데 글쎄 얼굴엔 온통 모래알이 들여박히지 않았겠나. 그걸 파내느라구 무던히두 고생을 했을거야. 잘 생긴 사람이였는데…》

정산이 물었다.

《그래 그담은요?》

《그담?… 알게 뭐야. 우린 바쁜 사람들이니 그저 지나가구 말았지.》

정산은 입이 쓰거워 더 말을 안하기로 했다. 한순간 촬영가들쪽을 흘깃 바라보며 그네들이 정찰병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관심이 없는지 조금 아쉬워했다. 지난밤 얼음물속을 기여가고 죽기내기로 바위벼랑을 톺아오르는것을 그들이 알기나 하겠는가!…

윤철소대장이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걸음을 맞추었다.

《힘들지?… 이젠 다 왔소. 조금만 더 가면 집결구역이야.》

소대장은 정산의 얼굴에서 피로한 기색만을 발견한 모양이다. 사실 그는 극도로 지치긴 했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다. 이것도 역시 오늘 처음으로 체험하는것 같다.

그는 다시 하늘을 날고싶었다. 지금 온몸이 녹초가 되여버렸어도 무방하다. 온몸이 얻어맞은것처럼 쑤셔대고있지만 그리고 피곤에 몰려 금시 눈을 감고 잠들어버릴것 같지만 그래도 일없다. 락하산을 지고 비행기에서 잠간 졸면 되는것을! 그런 다음 캄캄한 야공에서 돌덩이처럼 떨어져내리면 되는것을!… 그는 자고있었다. 터벌터벌 걸어가면서 눈을 감고있었다. 얼어들었던 몸이 훈훈해지면서 어쩌는수 없이 졸음에 취해버렸던것이다. 가까이에서 걷고있는 윤철소대장과 최윤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거의나 꿈결에서처럼 듣고있었다.

《저—길 보십시오.》 최윤두가 하는 말이다. 《무선통신차가

발전기를 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거요?》

《아,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진 늘 정찰병이란 사소한 징후라도 놓쳐선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랬지. 그래 저 무선통신차를 통해 뭘 알아냈소?》

《아,그거야 간단하지요. 지금 저 무선통신차는 무선장애를 극복하려고 주파수대역이 서로 다른 무선기들로 전방지휘소 무선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발전기까지 달고.》

《음- 무선수가 다르긴 다르군.》

《아,또 있습니다. 저 무선통신차가 이동하고있다는것은 곧 제1제대부대들이 〈적〉의 1참호계선을 돌파하고 공격성과를 확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괜찮아!》

《아,내야 최윤두 아닙니까!》

그들은 소리내여 웃었다. 정산은 졸며 걸으면서 생각하였다. 좋은 소대장이다. 정산에게는 혈육보다 더 친근한 맏형벌이다. 그리고 부소대장 길덕수,분대장 김광찬,무선수인 최윤두… 정말이지 다들 얼마나 귀중한 동지들인가. 그들모두가 정산이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었던가.…

별안간 정산은 돌부리에 걸채여 비틀거렸다. 윤철이 제때에 그를 부축해주었다.

《정산이,더 견디지 못하겠으면 무기를 이리 내오.》

《아,소대장동지,일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소대장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소대장과 동지들의 짐이 되여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이제 림정산은 더는 중대의 《부양가족》이 아니다.… 그는 소대장에게 슬쩍 웃어보이고 《좀 졸았댔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바삐 걷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 군복에서 김이 오르고있다. 태양도 높이 떠오르는것 같다. 화약가스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때 뽀얗게 먼지를 일구며 달려오던 승용차가 비탈진 길아래쪽에서 멎었다. 차에서 내린 대좌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동무들！ 윤철이！…》

려단참모장이였다.

소대장이 대오를 멈춰세웠다. 《소대 차렷！》 하고 구령을 친 다음 그를 맞받아 비탈면을 뛰여내려갔다. 려단참모장이 손을 내저었으나 윤철은 끝까지 규정의 보고를 하고나서 둔덕우의 소대원들에게 쉬엿구령을 내렸다.

려단참모장은 윤철의 손을 잡고 힘주어 흔들어준 다음 바삐 서둘며 올라왔다. 올라와서는 정렬한 대오의 맨끝에서부터 한사람, 한사람 반갑게 손을 잡아흔들었다.

《동무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정산의 차례가 오고있다. 려단참모장도 정산을 알고있다. 거의나 병적으로 하늘을 무서워하던 병사를 그가 모를리 없다. 더우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소대장 윤철과 그를 친히 만나주신 다음부터 각별히 관심해왔었다. 그제밤 《적》전방지휘소와 통신결속소 습격임무를 받고 직승기에 오를 때에는 정산의 두손을 꽉 잡고 《정산동무, 잘 싸우오. 우린 동물 믿소！》라고 말해주었다.

참모장은 지금 허우대가 큰 장성부와 마주 서있다. 다음은 최윤두 그리고는 정산의 차례이다. 벌써 참모장은 이쪽을 향해 눈웃음을 지어보이고있다. 그 의미는 《정산동무, 우린 믿소. 동문 꼭 영웅이 될거요.》 하는것 같았다. 정산은 그를 향해 미소를 그리며 심호흡을 하고나서 허리를 쭉 폈다.

그 순간이였다. 머리우에서 날카로운 부르짖음소리가 터졌다.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째지는듯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웨침이였다.

《발전기가 군다！ㅡ》

정산은 머리를 홱 돌렸다. 그리고는 헉ㅡ하면서 무수한 바늘끝같은 화약내섞인 바람을 들이켰다. 오불꼬불 길이 뻗어간 릉선우에서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전체 정찰소대가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였다. 커다란, 육중한 쇠덩어리가 굴러내리고있었다. 잡관목을 짓이기고 바위돌에 부딪쳐 허궁 쳐들리면서 무서운 기세로 정찰소대를 향해 달려들고있었다.

그밑의 경사면엔 참모장이 타고온 승용차가 서있고 포차들이 꼬리를 물고있었다.

눈앞에 날아들고있는것은 발전기였다. 무선통신차가 달고 오르던 중유발전기,무선장애때문에 전방지휘무선통신을 보장하려고 이동한다던 발전기,그것은 정산이 꿈결에 들은 말이 아니였던가!… 아마 발전기는 릉선우의 급경사면에서 한쪽으로 기울며 굴러내렸는지 모른다. 아니면 그 어떤 세찬 충격에 련결고리가 끊어졌는지… 너무도 급작스러운 일에 모두 입을 딱 벌린채 얼어붙고말았다.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놀란 두눈마저 굳어져버렸다.

그 순간 윤철이 《비켜라!—》 하고 목터지게 부르짖으며 경사면을 뛰여올랐다. 굳어져버린 대원들을 닥치는대로 밀쳐내고 쥐여던지며 발전기를 맞받아 뛰여오르고있다. 그때 정산은 발전기와 제일 가까운 맨 웃쪽에 있었다. 소대장의 웨침소리가 그를 정신들게 했다. 비로소 우당탕 퉁탕— 달려드는 발전기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별안간 깨달았다. 그렇다! 한순간에 머리속을 스쳐간 그 생각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목이 타들고 혀가 말라들었다. 심장의 피가 길길이 솟구쳐올라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앞에서는 번개불이 번쩍거렸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을 내렸는가 하는것도 미처 의식할새가 없었다. 소대장의 거친 웨침소리와 그의 머리속에 스쳐간 무서운 생각 그리고 그가 무기를 내던지며 몸을 날린것 등 그 모든것은 거의 동시에,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그는 달려드는 소대장을 막으려는듯 한팔을 쭉 내뻗치며 《소대장동지!—》 하는 목갈린 웨침소리와 함께 무서운 기세로 덮쳐드는 발전기밑에 몸을 던졌다.

한순간 타는듯한 무서운 충격이 그의 전신을 으깨여놓았다. 급기야 심장의 고동이 멎고 호흡이 멎고 피의 흐름도 멎어버린듯했다. 오로지 순식간에 무섭게 커지는 날카롭고 뜨거운 고통의 물결이 그를 휘감아 동댕이쳐버렸을뿐이였다.

두번째의 모진 충격은 윤철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정산은 소대장이 뒤따라 몸을 내던진것도 알지 못했다.

한순간 시커먼 어둠속에서 파아란 섬광이 펑끗! 하는것 같았다. 그러자 고요와 평온이 그의 몸을 안개처럼 감싸고 아득히 멀리

푸르른 하늘가로 실어갔다. 그가 사랑하는 하늘, 해빛넘치는 하늘, 밤이면 별들이 웃는 하늘…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하늘에서 또 뜨거운 불줄기가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눈을 때리는 번쩍임, 끊임없이 울부짖는 격렬한 포성… 하지만 정산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피빛으로 물든 구름속으로 아득히 멀리 자꾸만 떠실려갔다. …

9

저녁무렵 오영범은 총참모부작전직일관이 보낸 무선암호문을 받았다. 2시간내로 총참모부에 도착하라는 총참모장의 지시였다. 그외 다른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는 의혹이 비낀 눈길로 암호전문을 두번, 세번 훑어보았다. 금방 《섬광》훈련이 끝났으므로 즉시 전투에 림할 준비를 또 갖추어야겠는데 군단장을 급히 부르는것이 잘 리해되지 않기때문이였다.

(엄중한 정세가 또 조성됐는가?) 하고 그는 재빨리 생각을 굴려보았다. (군단에 새로운 전투임무가 부과됐는가?…)

그는 군단참모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고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다. 불과 얼마전엔 려단을 인계하고 군단에서 빌린 《갱생》승용차로 총참모부를 향해 달리던 그 길이였다. 지금은 군단장으로서 고급승용차에 몸을 싣고 밝은 전조등불빛을 내두르며 대도로를 살같이 내달린다. 하지만 그는 차의 속도가 느린것만 같아 계속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했다. 운전사는 오영범의 엄엄한 기상에 눌려 입술을 바르르 떨며 조향륜을 틀어쥔 두손이 파다져버릴 정도로 차를 내몰았다.

총참모부에 도착했을 때엔 날이 완전히 어두웠다. 작전직일관이 그의 도착에 대하여 보고하자 전혀 낯모를 작전국의 대좌가 그를 맞아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동지!》 대좌의 말이였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엔 중좌가 그를 안내했었다. 그리고 그날 오영범은 총

참모부건물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었다. 그러나 이번엔 승용차를 타고 달렸다. 그렇게 한동안 달려서야 오영범은 지금 자기가 어데로 가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불시로 심장의 박동이 맹렬해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부르신것이다. 그는 걷잡을길 없는 흥분에 사로잡혀 승용차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꼿꼿이 앉아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얼마후 그는 고속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승강기가 멎자 그는 꿈결에서처럼 문을 나섰고 문앞에서 기다리고있는 작전국장을 보았다.

《대장동지!》

오영범이 보고하려는것을 그가 손을 들어 막으며 재빨리 속삭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시오.》

《!…》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름속을 걷듯이 작전국장의 뒤를 따라 최고사령부작전실로 들어섰다. 규모있고 위엄있게 꾸린 커다란 방, 며칠전 군단장으로 임명받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은빛권총을 선물로 받던 그 방이였다. 그날의 휘황하던 방안이 지금은 파르스름한 불빛에 잠겨 아늑하게 느껴졌다. 맞은편 벽면의 영사막에 전투훈련의 장면이 비쳐지고있었다.

작전국장이 방 한가운데 놓인 쏘파에로 다가갔다. 그가 허리를 굽히고 보고드리기 바쁘게 오영범은 쏘파에 앉아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갔다. 막상 경례를 붙이며 청높은 소리로 보고드리려는 순간 그이께서 먼저 말씀하시였다.

《아, 오동무, 수고했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그는 기어이 규정의 보고를 드리려 했으나 그이께서 한손을 들어 막으시였다.

《아, 됐소, 됐다니까. 어서 여기 와 앉으시오.》

《알았습니다!》

그는 그이께서 손짓으로 가리키시는 뒤자리에 앉았다. 가슴은 여전히 세차게 들뛰였고 쿵쿵 흉벽을 울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마저 귀에 들리는듯싶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우측에는 총참모장, 좌측에는 작전국장이 앉아

있었다. 총참모장은 오영범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영사막으로 눈길을 돌렸다. 영사막에서는 바야흐로 《섬광》이라는 작전대호를 가진 타격집단의 반공격훈련이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오영범은 항공륙전대가 하늘을 덮으며 날고있는것을 보았다. 그자신이 직접 지휘한 전투훈련이건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놀랍게 바라보았다.

공격지대의 상공을 덮은 시꺼먼 불연기, 직승기들에서 내쏜 방사포의 불줄기가 그속에서 싯허연 비발처럼 퍼부어지고있다. 어느새 오영범은 다시금 피가 뛰는 전투의 열광속에 잠겨버렸다. 관자노리의 피줄들이 툭툭 뛰기 시작하였다. 수백수천의 공작탄이 일시에 터지면서 《적》의 참호우에 파편의 우박을 퍼붓는 장면은 보다 새로운 인상으로 안겨왔다.

이윽고 하늘에서 항공륙전대원들이 락하산을 진채 배허벅에 자동총을 대고 내리기 시작했다. 아래를 향하여 점발 혹은 련발 사격을 가하는 그들의 긴장한 얼굴들이 얼핏얼핏 지나가군했다.

공격출발위치에서는 벌써 제1제대의 땅크련합부대가 산과 들을 뒤덮으며 내달리고있다. 땅크에서 내쏜 화염방사기의 불줄기가 시뻘건 화염의 타래구름을 이루어 밀려가군했다. 오영범자신도 얼핏 나타났었다. 공중촬영화면이였다. 직승기를 타고있던 어느 촬영가가 지휘감시소의 타격집단사령관 오영범과 군단참모부의 전투훈련지휘모습을 망원렌즈로 재빨리 포착하였던것이다.

오영범은 전투훈련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미처 보지 못한 많은 장면들을 지금 여기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보다 새로운 눈으로 죄다 남김없이 보게 되였다. 화면으로 보는 전투훈련은 다각적이고 세부적이며 생동하고 풍부한것이 특징이였다. 많은 촬영가들이 직승기에서, 땅크에서, 포진지와 통신결속소, 도하장, 공격지대 등에서 훈련의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화면에 담았던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영화가 아니다. 다분히 예술적인 효과를 노린 대중관람용화면들이 아니라 《섬광》훈련의 전모를 생동하게 상세히 보고드릴 목적으로 촬영, 편집된 화면보고자료인것이다. 오영범은 차츰 흥분을 가라앉히고 앞자리에 앉아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우러렀다.

푸르스름한 빛이 반사된 그이의 옆모습을 줄곧 우러르면서 그는 마음을 조이고있었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고계실가. 훈련의 전 과정일가, 속도일가, 아니면 타격력의 집중과 같은 전술상의 문제일가… 아니면 화면자료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새롭고 무자비한 타격전을 구상하고계시는것일가?!…)

《섬광》훈련을 수록한 기록화면들은 얼마후에야 끝났다. 불이 켜졌다.

비로소 오영범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자세히 우러를수 있었다. 여느때처럼 간편한 잠바옷차림이였는데 며칠새 또 눈에 띄게 축가신것 같았다. 그러나 오영범을 향하여 약간 몸을 돌리시였을 때 그이의 두눈에서는 여전히 불꽃같은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실로 그이의 눈빛은 그 어떤 글로도 웅변으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열정과 기개와 예지의 섬광과도 같은것이였다. 언젠가 중국의 등영초동지가 그이를 뵙고나서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첫순간에 그이의 눈빛을 보고 과시 영걸이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비범하고 출중한 인물은 눈빛만 보고도 알수 있거든요.》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오영범동무, 이번에 진행한 〈섬광〉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오영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으나 다음 순간 혀로 입술을 축기며 재빨리 생각을 굴리였다. 그이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 예견하고 수십번도 더 마음속으로 대답을 올려본 그였으나 지금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그 모든 답들이 웬일인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또 적중하지도 못한것 같았다. 하여 그는 자기가 준비해두었던 답과는 판 다른 대답을 불쑥 올리고말았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번의 〈섬광〉훈련은 그야말로 번개와 우뢰같은 대타격전이였습니다. 저는 작전을 지휘하면서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말았습니다. 진짜 전쟁판에 나선것 같고… 자꾸만 배심이 커지는게… 정말 하나의 군사대학을 또 나온것만 같습니다!》

《그렇다! —》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의 작전일군들, 군사지휘관들이 머리 하나는 더 커진 셈이요. 당에서 바라는 전격전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거든. 이번 훈련을 보면 오영범동무의 공로도 적지 않소.》

순간 오영범은 가쁘게 숨을 들이그었다.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는 부르짖고싶었다.

《저희들은 그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완성시켜주신 〈섬광〉작전을 그대로 집행하였을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한순간 혀가 굳어져버린듯했었다. 자기를 미덥게,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밝은 미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목이 꺽 메였던것이다. 다음 순간 벌써 그이께서는 총참모장에게로 눈길을 옮기시였다.

《이번에 진행한 훈련에 대해 적들이 어떻게 반응할것 같습니까?》

총참모장은 심중하게 생각해보는듯했다. 얼핏 작전국장쪽을 바라보는데 그가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는것을 보자 곧 자세를 바로하였다. 이윽고 그는 주의를 집중하면서 천천히 대답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적들은 아마… 놀랄것입니다. 증강된 한개 군단의 화력타격이 이럴진대 전반적무력의 타격력은 아마 상상하기도 무서워할것입니다.》

《음-》

그이께서는 옆탁우에 놓인 가방에서 얄팍한 서류를 하나 꺼내드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번져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중앙통신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벌써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그리스도교방송은 북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한 무력만 가지고도 온 남〈한〉땅은 물론 일본까지도 불바다로 만들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엔에취케이방송은 우리의 대응훈련에 대해 보도하면서 지금 북조선이 38도선전역에 1만문이상의 중포, 방사포를 배치하고있다는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러댄 1만문이라는 수자가 도대체 어데서 나온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렇듯 자신있게 찍는것을 보면 우리에 대해 상당히 연구를 깊이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뒤따라 총참모장과 부부장, 작전국장, 오영범이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이께서는 대형지도가 걸린 벽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지도에 표기된 각종 부호들을 눈여겨보시며 왼손으로 허리를 짚으시였다.

얼마전에도 그이께서는 이 지도앞에 서시여 이번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의 특성과 전쟁기도, 그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전략에 대하여 심중히 검토하시였었다. 불과 한달전의 일이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준전시상태 선포,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 타격은 드세고 무자비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요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당황망조하여 어쩔바를 모르고있다. 그러한 실례로 오늘 오전 괴뢰들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리인모로인의 송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있었다. 접촉에서 남측대표는 종래에 그들이 고집하던 일체 정치적부대조건이 없이 리인모로인을 무조건 넘겨주기로 결정했다는것을 통고하였다. 접촉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오고갔다고 한다.

남측 대표; 어제 1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3월 19일 리인모로인을 무조건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표; 또 한번 정치적부대조건을 걸어보지요.

남측 대표; 아,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대표; 이왕 끌어오던바엔 며칠 더 있다 넘겨주는것이 어떨는지?…

남측 대표; 아니 북측에선 한시바삐 돌려보내라고 하시더니 막상 돌려보내겠다고 하니까 또 저러신다—

리인모가 돌아온다!… 비록 그는 40여년전 종군기자로 떠날 때 메고간 배낭조차 없는 빈몸으로 오지만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안겨줄 신념과 의지의 승리를 안고온다. 그는 비록 제발로 걸을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여 담가에 실려오지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불패성에 공감하는 온 세상 수억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을 이끌고 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짚으신 자세로 여전히 벽면

을 가득채운 대형지도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계시였다. 지도에 그려진 붉은색 화살표들이 방금 보신 기록화면의 거대한 폭발과 섬광으로 바뀌이는듯 여겨지시였다.

우리의 《섬광》작전은 핵대결전의 일환으로서 공화국정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조치에 대한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지지성원이기도 하다. 우리의 조약탈퇴가 외교적 제스츄어도 아니며 허세도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그리고 우리 혁명의 기본대상인 미국과 총 결산하려는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 적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쟁인가, 대화인가? 하고 준엄하게 따져묻는것이다. 그들 식으로 말하면 《예쓰》냐, 《노》냐? 하는것이다.

1943년 태평양전쟁이 전동남아를 휩쓸고있을 때 《말라이의 범》으로 불리운 일본 제25군사령관 야마시다중장은 싱가포르로 진격하여 련합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련합군사령관이였던 영국륙군대장 웨벨과의 담판시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한마디만 하라, 《예쓰》냐, 《노》냐? 하고 따지고들었다. 오래도록 갑자르며 진땀을 뽑고있던 웨벨은 마침내 《예쓰.》 하고 한마디 내밸고는 머리를 푹 떨구고말았다. 그때부터 서방세계에서는 담판장에서의 《예쓰》라는 말을 굴욕과 수치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치욕스러운것이라 해도 력사는 부단히 패자들에게 그 말을 반복케 했다. 조선정전담판에 나온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가 우리의 항복요구에 《예쓰.》 하고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후의 《푸에블로》호사건, 《이씨－121》비행기 격추사건때에도 미친듯 전쟁을 부르짖던 적들이 끝내는 우리의 추상같은 물음에 《전쟁인가?》 《노－》 《대화인가?》 《예쓰.》 하고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력사의 심판은 준엄하다. 지금 력사는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고 드디여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기록하려고 한다. 대답하라, 우리 인민이, 무적의 우리 인민군대가 묻고있다. 길게 말할게 없다. 한마디면 된다.

《전쟁인가?》 《노－》

《대화인가?》 《예쓰.》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총참모장에게로 몸을 돌리시였다.

《이제 적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래도 기어이 전쟁의 길로 나오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합니다. 〈섬광〉훈련에 참가한 타격군단도 즉시 포탄과 탄약 등 전투정량을 보충하고 다시 돌격전개구역을 차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오영범을 눈길로 찾으시였다. 오영범이 허리를 꿋꿋이 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휘관참모부들이 주체적인 전법을 활용함으로써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황분석,대담한 결심과 훌륭한 지휘능력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훈련총화때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합시다. 그러되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모든 성과의 기초에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깔려있다는 그것입니다.》

그 순간 오영범은 림정산을 생각하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한몸바쳐 부대의 지휘통신을 보장하고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전사,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만나보셨고 남달리 관심해오신 나어린 정찰병,이제 그의 희생에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려야 하는 오영범이다. 그런데 무슨 말로 어떻게 보고드린단말인가? 자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전사가 희생되였다는것을 아시면 그이께서는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그러니 어찌하면 좋은가. 훈련의 성과로 이렇듯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는 그이께 굳이 오늘 꼭 보고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때 작전국장이 보고자료를 그이께 가져다드렸다. 이곳 최고사령부 작전실로 직접 보고를 올린것으로 미루어 급한 자료인것같았다. 시시각각 그이의 집무실로 집중되는 그 많은 보고자료들가운데서 중대보고라 여기고 책임서기가 따로 골라 그이께 올렸을것이다. 보고자료를 읽어보신 그이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고있었다.

《좋은 소식이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이께서는 보고자료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밝히지 않으시였다. 《이제부턴 아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총참모장을 향하여 물으시였다.

《오영범동무는 언제 군단에 내려보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려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총참모장의 대답이였다.

《지금 당장?》 하고 그이께서는 오영범을 돌아보시였다. 《음- 어찌겠소. 빨리 돌아가 군단을 정비해야겠으니… 떠나기 전에 내게 들리시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대답올리는 오영범의 얼굴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10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서자 먼저 외교부 제1부부장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지금 정세하에서 핵상무조의 활동은 전쟁이냐, 협상이냐 하는 막다른 갈림길에 서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끌어내기 위한 심각한 투쟁으로 되기때문이였다. 문선규를 위시한 핵상무조는 지금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으로 하여 바빠맞은 적들이 우리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겨 국제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있었다. 이전과 같이 핵상무조성원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 핵대결전의 어려운 싸움에서 공로가 있는 동무들이다. 그러나 보다 어렵고 심각한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선규에게 왜 미국이 한사코 우리 문제를 유엔안보에 넘기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것 같은가고 먼저 물으시였다. 《제재》를 가하자는 목적인가, 전쟁의 명분을 세우자는것인가?…

《장군님.》 하고 문선규가 대답올렸다. 《오늘 받은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여전히 군사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온건파들은 〈미국이 북조선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남조선에 대한 북의 야포

와 미싸일공격으로 반나절에만도 10여만의 목숨을 잃을수 있다〉면서 반대하고있습니다. 일본수상 미야자와도 우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지지할 립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통신은 보지도 않소.》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였다. 《내가 묻는것은 동무들의 견해입니다.》

《저… 저희들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보다 폭넓은 국제정치무대로 우리 문제를 옮겨서 미국의 체면을 유지하려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미국것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규정에 의해 우리의 탈퇴조치가 3개월이 지나서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여있으므로 그동안 필요한 정치외교적순서를 밟으면서 우리가 핵문제를 조미사이의 문제로 옭아매놓은데서 기어이 빠져볼 심산인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덫에 걸린 미국이 절대 발을 빼수 없게 더 바싹 조이려고 합니다. 우리 문제가 결코 유엔무대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며 오직 미국과 직접 해결해야 할 정치군사적문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하면서 강한 여론전을 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동시에 장군님께서 주신 방침대로 기구와의 관계에서도 기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한편 우리가 기구측과 비정기사찰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구는 우리 문제를 그냥 안보에 넘기자 해도 우리의 협상제의를 무시했다는 지탄을 받게 될것이므로 일대 혼란에 빠질것으로 보아집니다.》

《음— 좋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해하시였다. 적들을 되게 다불러댈뿐아니라 혼란에 빠뜨려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던 적들이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강권행사를 했다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지지도 전쟁의 명분도 잃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외교부의 《정예팀》이 공격전뿐만아니라 전술전, 지혜전도 잘 벌리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또 물으시였다.

《그다음은?》

《그래도 적들이》 하고 문선규가 흥분어린 목소리로 말씀드

렸다. 《우리 문제를 유엔안보에 넘겨 〈제재〉를 〈결의〉할 경우 우리는 그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그것들이 〈제재〉를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고 내버려둡시다. 우린 무서울것이 없소. 그러면 또 강한 수를 쓸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럼 이제부터…》
《이제부턴 회담준비를 하시오!》
《?!…》
문선규의 대답소리가 없었다. 숨소리만 커지고있을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1부부장동무, 회담준비를 하시오, 회담준비를!… 곧 적들이 흰기를 들고 나옵니다. 두고보시오!》

오영범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누군가와 전화를 끝내고 자리를 권하시였다. 이어 무역선 《무포》호와 관련한 소식을 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오영범은 그저 미국놈들이 먼 공해상에서 우리 배를 강제로 검열하겠다고 도발을 걸어왔다는것을 알고있다고 대답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적들이 우리 나라 무역선 《무포》호를 잠수함으로 추격하던 때부터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맨주먹뿐인 《무포》호 선원들이 적들의 수많은 군함과 비행기들의 공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끝끝내 항행을 계속 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쳤다고 만족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영범을 따로 부르신듯하였다. 그이의 만족하신 표정과 환한 미소를 우러르면서 오영범은 속이 저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기쁨에 넘치신 그이께 이제 가슴아픈 소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고 피가 말라버리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오영범의 괴로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계신듯 또 물으시였다.
《〈무포〉호에 동무의 매부될 사람이 있지. 알고있소?》
《예?!》
오영범은 놀라서 입을 벌린채 굳어져있었다.
《그러니 아직 모르고있구만.》 하고 그이께서는 웃으시였다.

《동무가 사생활엔 통 관심이 없으니 누이동생한테 훌륭한 애인이 있는것도 모르고있지 않는가!》

《제 누이동생한테말입니까?》

오영범은 더욱더 어리둥절해졌다. 심한 화상으로 머리에서 수건을 벗지 못하고있는 동생에게 애인이, 그것도 《훌륭한 애인》이 있다는것을 그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의 표정을 여겨보시던 그이께서 웃음을 거두시였다.

《〈무포〉호의 부선장이 바로 동무의 누이동생 영옥이의 애인이요. 해군출신으로서 대학을 나온후 〈무포〉호의 1등항해사와 부선장을 겸하는데 그 청년이 이번에 희생적으로 잘 싸웠소. 김철수라고 서른살이 썩 넘도록 영옥이만을 기다려왔소. 영옥이는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계속 단념해달라고 했지만 일생 변함없이 사랑할것을 다짐하고 끝까지 기다리고있소. 이번에 〈무포〉호 선원들을 료해하면서 그와 영옥이를 알게 됐는데 글쎄 영옥이가 오영범동무의 동생일줄이야…》

《…》

오영범이 아무 말도 못하고 여전히 말뚝처럼 박혀있는것을 보시고 그이께서 또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영옥이는 지금 함흥외상외과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있소. 그곳 의료집단에서는 영옥이와 김철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어이 영옥이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겠다고 결의해나섰소.》

《?!…》

오영범은 흐느끼듯 숨을 톺기만 했다. 비로소 그는 이 방과 잇달린 온 나라의 가정과 집들에로 생각이 미쳤다. 불밝은 이 방, 숙연한 정적이 깃든 이 방에 온 나라 인민이 살며 숨쉬고있다는 것을 새로이 뜨겁게 절감하는것이였다.

《정말 좋은 청년들이요.》 하고 그이께서 또 계속하시였다. 《나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미거를 보고받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처럼 좋은 청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오. 얼마전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자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여 싸울것을 맹세하고 앞을 다투어가며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는데 그 수는 무려 160만명

에 달하오. 이게 어디 간단한 일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우리 나라에서는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니…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제일이라고 늘 자랑하는것이요. 특히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소. 그들이야말로 90년대의 총폭탄정신으로 충만된 우리 당의 참된 아들딸들이요. 하기에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인민군지휘관들이 그들을 극력 아끼고 친동생처럼 사랑할데 대하여 강조하는것이요.》

《…》

또다시 오영범은 쑤시는듯한 아픔이 가슴속깊이 스며드는것을 느꼈다. 희생된 림정산이 또 상기된것이였다. 당년 18살의 나어린 전사 림정산, 그가 부대의 전투지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간에 달려간 그 길은 몇발자국이였던가? 아마도 그것은 리수복영웅이 불뿜는 적의 화구를 향해 달려간 그 마지막 열다섯발자국과 꼭같은 거리였는지도 모른다. …

《무슨 생각을 하오. 오동무?》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오영범은 흠칫했다. 인제는 보고드릴 때가 된것 같다. 가슴을 조이며 미루어온 림정산의 희생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는 그 시각이 드디여 온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가지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오.》

《저…》 오영범은 한순간 타는듯한 입술을 혀로 감빨았다. 《이번 훈련과정에 기계화보병려단 정찰병이였던 전사 림정산동무가 굴러내리는 발전기를 몸으로 막고 희생되였습니다. 뒤따라 뛰여든 소대장 윤철동무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되였습니다.》

《…》

그이의 안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더니 창가에 멈춰서시였다. 반쯤 터쳐놓은 창가림사이로 창백한 반달이 숨을 죽이고 안을 엿보고있었다.

《그 일때문에 동물 불렀소.》 그이께서는 오영범을 향해 몸을 돌리시였다. 《동무가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고 여기로 떠난후

군단정치위원이 그의 영웅적인 희생에 대해 보고해왔소. 거기 보오. 바로 동무의 눈앞에 그 보고서가 있지 않소!》

《예?!…》

그제야 오영범은 그이의 집무탁 한쪽에 있는 보고서를 보았다. 《제97기계화보병려단 정찰병 전사 림정산의 영웅적희생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라고 타자친 보고서 표지, 그 웃쪽에 비스듬히 달필로 힘주어 쓰신 그이의 필적이 한눈에 안겨왔다.

《당에 충직한 훌륭한 전사입니다. 〈인민군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크게 소개선전하며 그의 희생적투쟁정신으로 군인대중을 교양할것이다.》

끝으로 날자와 친필존함이 굵게 씌여져있었다.

오영범은 불시로 목이 꽉 메여오르는것을 느꼈다. 다시 창밖에 시선을 주시는 그이의 얼굴에 비낀 침통한 애석의 빛을 비로소 발견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다 알고계셨던것이다. 이름없는 한 전사의 희생이 그토록 가슴아프셨건만 지금까지 내색을 하지 않고 계셨을뿐이다. 아마 그이께서는 오영범이 림정산의 희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주저하고 망설이는것도 다 알고계셨을것이다.

《열여덟살!》 하고 그이께서는 혼자 말씀같이 조용히 뇌이시였다. 《아직 인생의 문어구에 서있었는데… 정말 아까운 동무요.》

《…》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밝은 불빛도 마음속 그늘은 가셔주지 못하는듯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창가에서 물러나 집무탁으로 돌아오시였다.

《윤철소대장의 상태는 어떻소?》

《예, 그 동무는 비록 심한 타박상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음ㅡ 훌륭한 동무들이요. 그들은 한순간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슴없이 죽음을 택했소. 이것은 결코 순간적인 충동이나 모험심에서 나온것이 아니요. 나는 윤철소대장과 그의 대원들이 무

너진 수로뚝을 고쳐쌓는것을 보았을 때 벌써 그들의 가슴속에 들어차있는 불같은 충성심을 보았소. 참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청년군인들만이 할수 있는 소행이 아니겠소. 김광철소대장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많은 영웅전사들이 바로 그렇게 살다가 제한몸 아낌없이 바쳤지. 그들의 희생정신은 바로 사로청 제8차대회때 우리 청년들이 500만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다진 심장의 맹세로 이어진것이요. 림정산동무도 그 맹세를 지켰소.》

그이께서는 림정산의 최후에 대하여 쓴 보고서의 마감부분을 다시 펼쳐보시였다. 벌써 몇번이나 보셨으련만 한자한자 천천히 또 읽고계신다. 이윽고 보고서의 마감페지를 넘기고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였다.

무거운 침묵속에서 한동안 더 생각을 이으시던 그이께서 마침내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동무를 따로 부른건 바로 이 일때문이였소.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더해줄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그의 이름을 더 빛내줄수 있을가！… 중요한것은 그의 투쟁정신을 전체 군인들이 따라배우는 그것이요. 그러니 오영범동무, 이제 군단에 내려가면 곧 조직사업을 해주시오. 우선 그가 속해있던 소대를 〈림정산소대〉라고 명명하고 기발도 크게 만들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의 장례를 군대식으로 엄숙하게 잘해줍시다. 부모들도 참가시키고… 그 림정산동무의 아버진 금속재료연구사로서 국방력강화에 일정하게 공로가 있는 사람이요. 곡절도 많이 겪었고… 겨우 며칠전에야 그의 마음속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가셔주었는데… 또 이렇게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였으니…》

그이께서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다. 침통한 기색이 어린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고있던 오영범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불시로 치밀어오른 사무치는 격정을 참을길 없었던것이다.

11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날이 흐리기 시작했다. 눈더미들이 채 녹지

않은 먼 골안에서 써늘한 랭기가 풍겨오더니 바람이 세차졌다. 비탈길 량옆의 잡관목들이 몸부림치고 가까운 송림속에서는 쏴— 쏴— 하는 소리가 났다. 찌뿌둥한 하늘은 금시 진눈까비라도 퍼부을것 같았다.

림희문은 안해를 부축해가고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군단장 오영범과 나이지숙한 정치위원 그리고 많은 장령,군관들이 묵묵히 걸고있었다. 령구차는 수천의 병사들과 땅크,포차들이 량옆에 쭉 늘어선 길가운데를 천천히 굴러갔다. 산기슭의 둔덕진곳에서 군악대가 추도곡을 주악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먼 산봉우리를 휘감고있던 검은 구름이 물결마냥 골짜기를 휩쓸며 밀려내리기 시작했다. 다박솔이 들어찬 높지 않은 둔덕도 구름속에 묻혀버렸다. 어데선가 중부선을 질러가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아득히 꿈결에서처럼 울려왔다.

이윽고 하늘은 시꺼매지더니 갑자기 진눈까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질풍이 몰아치며 진눈까비를 은빛모래알같이 엇비듬히 내리꽂히게 했다. 눈도 뜨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절절한 추도곡의 주악소리는 계속되였다.

림희문은 가늘게 떨고있는 안해의 어깨를 힘주어 껴안았다. 그랬어도 안해는 자꾸 비틀거리며 헉헉 하는것이 마치도 눈보라를 삼키고있는듯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이 바삐 서둘렀다. 희문은 한결같이 포신을 추켜든 땅크와 자동포,장갑차들이며 끝없이 줄지어선 병사들,그 대오속에서 유표하게 눈에 띄는 《림정산소대》라는 기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림정산소대》!… 그 기발은 산과 들에 꽉 차서 묵묵히 서있는 어마어마한 철의 대오한가운데서 세차게 나붓기고있었다. 그 기발을 바라볼수록 벅찬 흥분에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벌어진 환경이 너무도 숭엄하고 엄엄하였다.

안해 역시 목놓아 울거나 땅을 치며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을 쥐여뜯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워 허덕이고있을뿐이였다.

슬픔도 사람에 따라 겪는것이 같지 않다는것을 림희문은 알고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폭풍처럼 들이닥쳐 산산이 짓이겨놓은 다음 시작되던것처럼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그는 무서운 통곡과 몸부림 끝에 새로 모습을 달리하고 일어선다. 어느덧 상처는 아물고 그는 생활에 부대끼며 바삐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이 가을밤의 이슬비와도 같이 음산하고 지리하게 오래오래 계속된다. 그 슬픔은 가슴을 짓누르며 덜어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 결국 그는 야밤의 파도소리와도 같이 무시무시하게 끝없이 울려오는 그 슬픔의 통곡에 귀를 기울이며 무너져간다. 림희문은 바로 안해가 두번째부류의 사람들에 속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것이 그를 겁나게 했고 더더욱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어느덧 바람이 자면서 산지사방 뿌려치던 진눈까비도 멎었다. 골안에 내려드리웠던 구름발들이 룡트림하듯 하늘중천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름장사이에서 희멀쑥한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군가 그들을 이끌어가더니 군단장과 군단정치위원이 있는곳에 세워주었다. 드디여 수많은 군인들이 둘러선 가운데 영결의식이 시작되였다. 먼저 정산이 속해있던 려단정치위원이 추도사를 읽었다. 추도사에서 그는 림정산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였고 얼마나 꿈이 많은 병사였는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특히 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단 한달동안에 어려운 강하훈련을 완성한 사실이 감동깊이 언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고 충성의 결의로 가슴을 불태워온 병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훈련에 몸바치던 병사, 림정산은 바로 그러한 병사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당에 충직한 훌륭한 전사》라는 고귀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던것이다.

림희문은 그때 아들 정산이 보낸 편지의 구절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읽고있었다. 처음으로 《그리운 아버지!》 하고 써보낸 편지였다. 친아들조차 마음속으로 결별해버린 아버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믿어주시고 다시 내세워주신 크나큰 은정에 목메여 눈

물로 적신 편지였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로 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

정산은 편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품에서 자라는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썼다. 정산은 자기를 하늘의 병사라고 했다. 윤철소대장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는것이다. 하늘처럼 가없이 푸르른 꿈에 대하여, 하늘처럼 끝없이 넓어지는 마음에 대하여 썼었다. 끝내 정산은 장군님의 전사답게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갔다. …

얼마후 정산이와 제일 가까이 지냈다는 무선수 하사 최윤두가 정찰소대를 대표하여 전우와 영결하는 마지막말을 하였다. 전체 중대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희문은 별과 바람에 탄 그 병사들의 검실검실한 얼굴을 하나하나 여겨보았다. 그러자 어떤 이름할수 없는 애틋하고 찌르는듯한 충격에 부지중 몸을 떨었다. 두팔 벌려 그들을 붙안고 함께 울고싶은 마음, 어쩌면 아들 정산이와 꼭같아보이는 그 병사들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의 물결이 목구멍으로 그들먹이 고여오르는것이였다.

아들 정산이 제 한몸 바쳐 구원한 전우들이 저 대오속에 있는 것이다. 친아들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병사들… 비로소 그는 물에 빠진 두 처녀애를 두고 친딸보다 먼저 다른 애에게로 헤염쳐간 그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리해되는듯했다. 비로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정신을 그리고 그 숭고한 정신이 우러나오고있는 샘터를 발견한듯싶었다. 위대한 시대가 위대한 정신을 낳는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대는 세기적인 위인에 의해서 열리는것이다! …

정산의 소대원들이 2렬횡대로 나와서더니 구령에 따라 하늘을 향해 총을 추켜들었다. 병원에 후송된 소대장 윤철을 대신하여 부소대장 길덕수가 구령을 쳤다. 그러자 조총의 사격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쳐갔다. …

림희문부부는 부대에서 하루 더 묵었다. 정산의 중대군인들 특히 그의 소대원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의 훈련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워 애써 정리한 중대전투기록장도 보았다. 거기엔 중대가 배출한 영웅들과 모범군인들의 투쟁사적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정산은 열여섯번째로 올라있었다. 사진속의 정산은 입을 약간

벌린채 벙긋이 웃고있는 모습이였다. 머리를 맞대고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는 아버지, 어머니더러 소리없이 웃으며 《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고 속삭이는듯하였다. 중대에 내려온 인민군신문사와 출판사의 기자들, 텔레비죤과 기록영화촬영가들이 그 사진을 연방 찍군하였다.

수많은 군인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그들은 부대를 떠났다. 부대에서 내준 차를 타고 철도역까지 가서 기차를 갈아탔다. 여러명의 부대지휘관들과 정산의 소대원들이 홈에 서있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울리자 전사들은 손을 흔들어주었고 군관들중의 누군가는 거수경례를 하였다.

희문은 안해와 함께 창유리에 붙어 작별의 인사를 보냈다. 기차는 벌써 속도를 높이고있었다. 어느덧 홈에 서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멀리 뒤에 남았다. 지난해의 묵은 강냉이그루터기들이 널린 산기슭의 다락밭을 끼고 기차는 달리고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누군가를 소리쳐 부르는 기세높은 웨침소리였다. 기차는 전속으로 내달리고있었다. 겨울의 발자취를 멀리 뒤에 남기고 봄을 향하여, 봄을 마중하여 서둘러 달리고있었다.

인제는 다 끝났다. 인제는 늙은이들만이 또 외롭게 남았다. 부대에서, 군인들속에서 느끼던 숭엄한 감정도 가슴속에 들어찬 허전함과 쓰라린 아픔만은 다 덜어주지 못했다.

림희문은 안해의 해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말라서 트고 훌쭉해진 두볼은 우묵하니 패워졌다. 요 며칠새 눈귀로부터 허연 관자노리쪽으로 새로 굵은 주름살이 파고지나간듯했다. 그는 불시로 안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올려주고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 아픔에 짓눌려있는 안해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주고싶었다. 다른 손님들이 보지 않는곳에서라면 그렇게 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용히 위로의 말을 해주는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한단말인가？！…

안해는 목에 두른 수건을 풀었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 쥔채 또 이윽토록 까딱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목도리 한끝이 무릎우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진것도 알지 못했다. 희문은 그것을 들어 안해

의 무릎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안해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듯이 아무런 표정도 의미도 없는 무심한 눈길이였다. 그 순간 희문은 무엇인가 가슴을 뜨끔하니 깨무는듯했다. 병약한 안해가 무서운 아픔과 슬픔에 못이겨 그대로 쓰러지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왜 그러오?》 하고 그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어째서 그렇게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거요, 응?》

그러나 안해는 말없이 머리를 저을뿐이였다. 그 무심한 표정에는 분명 이전에는 결코 볼수 없었던 생소한 무엇이 들어있었다.

안해는 지금도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 슬픔도 씻어내린다고 한다. 하지만 눈물마저 말라버리면 남는것은 타는듯한 아픔뿐이다. 그 아픔은 기름이 졸아든 등불심지처럼 끄물끄물 힘겹게, 느리고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것이다.

렬차의 고르로운 진동이 그의 손을 떨게 했다. 그는 추위를 타는듯 어깨를 가드라뜨리며 입귀를 우물거렸다. 무엇인가 더 말하려했으나 바짝 마른 입안에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광산마을 가까운 역에 내렸을 때는 한낮이였다. 광산당비서가 차를 가지고 마중나와있었다. 그들 부부를 보자 급히 달려오더니 병약한 희문의 안해를 부축하면서 온 광산마을이 다 알고있다고,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다. 손수 문을 열고 차에 오르도록 거들어주고 차가 떠날 때엔 그들 부부의 손을 하나씩 꽉 잡아주기까지 했다. 희문은 젊은 당비서의 그 진정어린 위로와 격려에 가슴이 뭉클하여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하고 흐느낌소리처럼 나직이 속삭이였다.

그새 소나강은 골짜기의 눈이 녹으며 물이 불어났었다. 먼 소나골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이고장 특유의 발파가스냄새가 실려왔다.

언제 집에까지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다. 차가 멎고 당비서가 《자, 다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야 흠칠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그의 집은 큰길에서 좀 들어가있는 세번째 줄에 있다. 희문은 안해와 함께 비좁은 사이길로 먼저 들어갔다. 도중 급기야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부엌문도 조금 열려있다. 뜨김이 뽀얗게 서려있는 부엌에서 누군가의 옷자락이 얼씬거렸다.

희문은 놀라서 당비서를 돌아보았다. 당비서는 미소가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다.

《자,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그들은 바삐 바자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조금 열려있는 부엌문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안에서 먼저 내다본 모양이였다. 문이 활 열리며 하얀 앞치마를 두른 처녀가 손에 들고 있던것을 떨어뜨리며 달려나왔다.

《아이, 이제 오세요?!》

맑고 챙챙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놀라서 굳어져있는 두사람을 보자 처녀는 그만 주춤거렸다. 잠시후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처녀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왔어요. 화옥이예요.》

화옥의 두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끓고있었다. 그것을 보면서도 희문은 꼼짝하지 못했다. 안해 역시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있을뿐이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화옥이가 다가섰다. 《어머니, 힘을 내세요. 내가 어머니를 돕겠어요. 내 이미 약속했지요?… 인젠 나랑 같이 살자요.》

희문은 별안간 숨이 막혀버린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목단추를 끄르며 안해를 쳐다보았다. 안해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있었다.

《오빠부대에서》 하고 화옥이 울음섞인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병원에 실려간 오빠에 대해서랑… 그래서 곧장 왔어요. 이제부턴 내가 정산동무를 대신해서 아버님과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정말이예요. 엄마!… 이제부턴 엄마라고 부를게. 그게 더 좋지요?》

갑자기 안해는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화옥이가 날래게 그를 부축하였다.

《엄마, 왜 그래요. 예?!》

안해는 화옥이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그리고는 그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참고참아오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지는듯했다. 부들부들 떨

면서 자꾸만 꺽꺽 목이 잠겨 허우적거리군하였다.

화옥이도 울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소리내여 울고있는 그들을 바라보고있으려니 희문은 눈굽이 쩌릿쩌릿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그의 주름깊은 눈귀로 한줄기 눈물이 쭈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처음은 당비서를 이어 맑고 푸르른 봄날의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키워주신 화옥이가 와있습니다. 인물 곱고 맘씨 곱고 일솜씨도 고운 우리 딸이 와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직껏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피여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신문이나 텔레비죤에서나 보는줄 알았는데 그 고운 꽃 한송이가 내 집문까지 열고 들어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귀하고 자랑스러운 새 시대 인간들을 키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백번, 천번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딛고 서있는 땅이 부르르 떨었다. 어느 막장에서 발파를 하는 모양이였다.

12

《수련아, 너 목소리 왜 그렇니, 응? 한숨소린 또 뭐구? 어데 앓는덴 없니? 얘, 왜 말을 못하니?》

어머니가 시외전화로 하는 말이였다. 수련은 군병원 접수구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시들하니 웃었다. 어머니는 수련이가 한숨만 지어도 속이 한줌만해지는 모양이다.

《참 어머니두, 내 목소리가 뭐 어쨌나요.》

《수련아!》

《어머니! 지금 집에서 전화하세요?》

《아니, 난 지금 체신소에 와있다. 대극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체신소말이다. 참 여기선 이제 리인모로인을 환영하는 연도행사가 있

게 돼. 우린 대극장앞도로에 자리를 정했단다.》

《그래요?!… 나두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다음 순간 수련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싶다는 의미로 들릴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화제를 바꾸어야 했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되여 시외전화를 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심코 이렇게 물었으나 어머니의 소심한 목소리가 수련이를 불안케 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활기를 잃고 약간 기여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뭐 그저 좀 알릴게 있어서…》 하고 말했던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하세요!》

수련이가 재촉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네 외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와계신다. 전승기념탑 건설장에 지원물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외할아버지가요?》 하고 수련은 반갑게 부르짖었다. 《그럼 어서 외할아버질 바꿔줘요. 예?!》

《가만 수련아! 사실 내가 전화를 건건 말이다. 얘,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말아. 알겠지?… 윤철소대장이 글쎄…》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수련은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기라도 한듯 흠칫 몸을 떨었다.

《윤철동무가 어쨌다구요,예?!》

《글쎄 그 윤철소대장이… 병원에 후송되여왔다누나. 심한 타박상을 받았다는데…》

《예? 그래서요?…》

《부대에서 온 군관 한사람이 병원에 들렸다가 윤철소대장이 불러서 쓴 쪽지를 가져왔구나.》

그때 교환수의 목소리가 끼여들었다. 벌써 한통화가 다 끝났다는것이다. 수련은 다급히 접수구의 창구로 전화기를 끌어당기며 부르짖었다.

《그럼 한통화 더 부탁하자요!》

이어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다.

《어머니！… 그래 어떻게 됐다구요？》

《집에 온 군관동문》 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렸다. 《웬일인지 긴 말은… 안하더구나. 그저… 윤철동무가 불러주어 받아쓴 쪽지인데 이걸 받으십시오！하고는 훌 가버리지 않겠니. 그 이상 더 말하지 말라구 한 모양인지… 윤철이 그 사람이… 아마…》

《왜 그랬을가요？ 그 동문 왜 아무 말도 말라구 했을가요, 예？》

《글쎄… 그건 아마 내가 써보낸 그 편지탓이겠지.》

그제서야 수련은 어머니가 썼다는 편지생각이 났다. 수련이가 이제 약혼을 한다는것, 하지만 둘이 서로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기 바란다는것, 집에 들리면 반갑게 맞겠다는 식으로 례절차려 쓴 매정한 편지였다. 그것을 상기하자 무엇인가 가슴을 비틀어대는듯하였다. 수련은 낯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래서요？ 그 쪽진… 뭐라고 썼어요？》

《그저 몇마디만 써있더구나. 내 이제 그대로 읽어줄게. 응？…》

《예, 어서요！》

어머니는 쪽지를 펴느라고 잠시 부시럭거렸다.

《이렇게 썼구나. 〈수련동무！ 얼마전에 동무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동무를 친누나처럼 따르고 그리워하던 림정산동무가 훈련도중 뜻밖의 일로 소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몸바쳐 숱한 전우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습니다. 그를 잊지 마십시오. 윤철.〉… 이게 다야. … 수련아, 너 어째 그러니, 응？！》

수련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나는것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접수구의 창턱을 팔굽으로 짚으며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잡았다. 무엇때문인지 막 소리쳐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그 전사, 수련이자신 모지름 쓰며 벼랑에서 끌어올렸던 그 정산이 희생되였다. 그리고 윤철은 중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다. 실려가서 수련이에게 작별의 인사를 보내여왔다. 한가닥 기대와 희망도 다 버린 마지막 편지, 단 한마디 부탁만을 남긴 고별의 편지, 거기엔 아무런 호소도 은밀한 애원도 서운함도 애수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단 한가지 부탁이 있을뿐이였다. 한 전사를

잊지 말라는 절절한 한마디 부탁이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속엔 얼마나 많은 의미와 기대와 당부가 들어있는것이랴! 위급한 순간 서슴없이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여 내던질줄 아는 우리 당의 총쥔 전사들을 잊지 말라는,그들을 무심히 보지 말라는 그리고 그들을 모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준절한 당부가 들어있는것이다.

뿌옇게 흐려진 눈앞에 정산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철과 같이 그를 산에서 부축해내리던 때의 모습이였다. 피기가 가셔진 해쓱한 얼굴,자기를 부축해가는 사람들조차 분간해보지 못하던 나어린 전사의 얼굴이였다.

그다음… 와삭와삭 잡관목을 짓이기며 어둠에 싸인 산발을 걷고있던 윤철의 모습도 나타났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헐금씨금거리는 수련이쪽은 돌아볼념도 않고있다. 그저 무작정 길 아닌 길을 냅다 걷기만 하는 모습이였다.

《수련아!》 하고 어머니가 또 불안해하며 물었다. 《왜 말이 없니,응?… 얘,내가 잘못했다. 너 나를 용서하지,응?…》

《…》

수련은 여전히 입을 꾹 악물고있었다. 두눈에서 괴고있던 눈물이 쭈―욱 흘러내렸다. 저도 모르게 송수화기를 쥔 팔도 맥없이 스르르 미끄러져내리고말았다. 접수구에 앉아있던 간호원이 놀라서 쳐다보는것도 몰랐다. 다행히 오늘따라 접수구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온 나라가 리인모로인의 귀환을 보려고 텔레비죤앞에 모여앉아있었던것이다.

내려뜨린 송화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있었다. 벌써 세번째 통화가 이어져있었다. 얼마후에야 수련은 눈물어린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귀에 가져다댔다.

《수련아,얘 수련아!》

외할아버지였다.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온 그 목소리는 별스레 더 석쉼하고 귀에 설게 들렸다. 엄하고 강직한 성격을 지닌 외할아버지 김윤필,수련이를 제일 귀애하는 전쟁로병이다.

《수련아,나다. 외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수련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왜 인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보고싶었다구!》
《수련아,내 네 에미한테서 다 들었다.》 하고 외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었다. 《네 에미도 인젠… 좀 정신이 드는가보더라. 내가 제때에 잘 도와주지 못했구나.》
《할아버지,이제 와서 그게 무슨…》
《아니다. 얘,내 말부터 좀 들어봐. 내 어제 병원에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나봤구나.》
《예? 뭐라구요? 아니 할아버지가 윤철동무를요?》
《응, 병원의사들의 말이 심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서너달후면 완쾌될수 있을것 같다누나.》
《그래요?!》
《응,그처럼 훌륭한 청년을 잘못되게 할수야 없지. 병원에서 하는 말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그 동무를 꼭 원상회복시키라고 당부하셨다누나!》
《아니,장군님께서요?》
수련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웬일인지 목이 잠기여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수련아.》 외할아버지가 또 말을 이었다. 《내 윤철동무한테 네 얘기도 했다.》
《그래서요?》
바람새는것 같은 수련이의 속삭임에 외할아버지는 쿵쿵 기침소리를 내면서 말을 더듬었다.
《아무 말도 않더구나. 하지만… 얘 수련아,내 보기에 그 사람은 너를 그리워하는것 같더라.》
《예?!…》
《이건 틀림없다. 그러니… 꼭 한번 찾아가봐라. 그전에 할수만 있으면 먼저 전화라도 하렴. 네 목소리를 들으면… 무척 반가와할게다.》
《그럴가요? 예?!》 하고 수련은 입으로 스며드는 찝찌레한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그 동무가… 날 용서할가요?》
《아무렴! 난 안다.… 그 동무야 총쥔 사람이 아니냐. 총쥔 병사들은 총대같이 마음도 곧고 굳센 법이란다. 그러니 어무적거리지

말구 오늘이라두 꼭 전화를 해라.》

《예. 하겠어요. 할아버지, 꼭… 하겠어요.》

전화가 끝났다. 그러나 수련은 송수화기를 귀에 꼭 눌러댄채 그린듯 서있었다. 전류흐르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평양에서 외할아버지의 후더운 입김을 실어오는 소리였다.

그때였다. 2층계단우에서 한성숙이 그를 소리쳐불렀다.

《수련이, 거기서 뭘해? 지금 리인모동지 판문점도착소식이 나오구있어. 빨리!》

《예, 알겠어요!》

수련은 송수화기를 놓고 2층계단으로 급히 뛰여올라갔다. 2층 휴게실에 병원직원들 거의 전부가 모여있었다. 다들 텔레비죤에 정신을 팔고있어 문소리에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화면에서 수많은 기자, 촬영가들이 리인모로인과 가족들간의 상봉을 찍느라고 붐비고있었다.

병색이 짙은 리인모로인의 얼굴, 언어장애로 하여 말도 제대로 번질수 없어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극도로 쇠약해진 그는 40여년만에 다시 만난 안해의 손을 꼭 쥔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찾는 딸과 손자, 손녀들의 인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어린 눈으로만 대답하고있었다.

이어 통일각에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그리고 각계층 대표들이 리인모로인을 맞이하였다. 수련은 리인모로인이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에게 겨우 이렇게 말하는것을 숨죽여 들었다.

《조국통일을 위해… 힘껏 싸웁시다!》

수련은 그것을 귀로 들었다기보다 그의 입놀림을 통하여 겨우 분간하였고 보다 정확히는 방송원의 해설을 통하여 알게 되였을뿐이다.

《온갖 폭압을 박차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으로 리인모동지가 돌아온것은》 하고 마이크를 쥔 방송원도 눈물을 머금고 부르짖고있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과시한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지금 7천만겨레와 온 세상 사람들을 흥분케 하고있습니다.》

통일각에 잠시 머물렀던 리인모동지를 태운 구급차는 수도 평

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자동차행렬이 그뒤를 따랐다. 하늘에서는 직승기가 날았다.

수도의 거리들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환영연도에 나와있었다. 공화국기와 붉은기가 나붓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리인모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등 크고작은 구호와 환영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방송원의 말에 의하면 30여만명의 수도시민들이 수십리연도에 나와있다고 한다. 그들가운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있을것이다. 리인모동지가 타고있는 구급소생차를 향해 꽃다발을 흔들며 발돋움하고있는 저 사람들… 혹시 텔레비죤화면에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비쳐지지는 않을가. …

만세를 웨치며 팔을 내젓고있는 사람들의 울고웃는 모습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수련은 생각했다. 지금 어머니는 마음이 어떠할가, 당을 따라 자기의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온 영웅전사를 어떤 심정으로 맞고있을가. … 구급소생차의 맑은 창가에서 환영하는 수도시민들을 눈물속에 내다보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고있을가. …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딸에게 시대가 달라졌다느니,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졌다느니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던 어머니, 저 밝고 빛나는 거울앞에 자신을 비쳐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가. …

승용차들이 구급소생차의 꼬리를 물고 끝없이 잇대여졌다. 그속에서 차를 타고 달리는 텔레비죤방송원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있는듯했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꽃바다, 꽃물결이 세차게 파도치는 이 거리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도 저 남녘땅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미친듯 울리고있지만 여기 혁명의 수도 평양의 거리들에서는 리인모동지를 맞이하는 감격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있습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크나큰 심려와 로고를 다 바치시

여 끝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신 민족의 장한 아들 리인모동지를 맞이하는 이 환호성이야말로 전쟁의 총포성을 짓누르는 승리의 축포성이 아니겠습니까！…》

수련은 환영행사가 끝날 때까지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고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수련의 어깨를 붙안고있는 한성숙의 불깃한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있었다. 흑—흑 소리내여 흐느끼며 격하게 속삭이기도 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끝내 리인모동지를 데려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물을 머금고있는거야. 저걸 좀 봐, 저 사람들을！…》

머리가 하얀 한 늙은이가 꽃을 흔드는 모습이 피뜩 지나갔다. 쪼글쪼글한 그 늙은이의 두볼에도 눈물자욱이 진했었다. 한성숙이 또 목메여 속삭였다.

《야, 어쩌문！… 정말 막 소리내여 울고싶구나. 어째 그럴가. …》

그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눈물에 젖은 볼편을 마구 문질렀다. 그의 눈물이, 그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또 수련을 울먹이게 했다.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진 수십만 수도시민들과 같이 수련은 눈물의 환영연도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윽고 리인모동지를 태운 차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분원을 향해 멀어져갔다.

환영행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자리에 못박힌채 또 무엇인가 계속될것처럼 기다리고있었다. 수련은 한성숙이 팔굽을 툭 쳐서야 흠칠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깐 누구와 전화를 했어？》

《…》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환영행사를 보느라고 깜박 잊고있던 외할아버지의 당부가 피끗 생각났다. 《네 목소리를 들으면…》하고 외할아버지는 말했었다. 그래 지금 당장 전화를 걸자. 하지만 병원에서 받아줄가. 환자한테 전화하는 법이 어데 있느냐면서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나 중태에 빠진 환자에게 사랑하는 처녀가 먼곳에서 전화를 건다면 누가 거절하겠는가. 사랑의 목소리를 막아버릴 매정한 사람도 과연 있겠는가？！… 그래, 나는 그를 사랑

한다. 비록 한때는 미처 다 몰랐지만 인제는 깨달았다. 나의 사랑이 누구를 위하여 내 심장의 문을 열고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였다.

수련은 이미 결심했었다. 하여 그는 애끓는 눈빛으로 한성숙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나 체신소에 갔다오겠어요. 그래도 되지요?》

《체신소에? 거긴 왜?》

《장거리전화를 걸려구요. 윤철동무가 지금…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후송되였대요.》

《윤철동무가?… 아니 어떻게?》

《그건 좀 있다 말하자요. 인츰 갔다와서!》

수련은 벌써 2층층계를 뛰여내리고있었다.

한낮이여서 따뜻한 볕에 녹은 땅바닥은 질펀하였다. 수련은 포장하지 않은 골목길로 뛰여들었다. 울바자끝에서 모이를 쫓고있던 닭들이 후닥닥 뛰쳐달아났다.

어떻게 시작할가. 사정을 해서 윤철동무와 직접 말할수 있다면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하는것이 좋을가.… 어머니의 편지같은건 꺼들지도 않을 생각이다.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그런것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중요한것은 윤철동무에게 마음속 진정을,변치 않을 사랑을 전하면 그만이다. 변명도 필요없고 설복도 필요없다. 설사 그가 그것을 받자하지 않는대도 좋다.… 수련은 자기가 윤철을 사랑하면서부터 그들이 목숨바쳐 지키는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고 조국과 자신을 결부시켜보게 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바로 그들이,윤철과 림정산과 같은 인민군병사들이,그가 만나본 고사총중대의 녀성군인들이 수련이의 가슴속에 조국애로 통한 마음의 문을,사랑의 문을 열어주었던것이다. 지금 비로소 수련은 자기의 사랑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갑자기 수련은 못박힌듯 멎어섰다. 군체신소 계단아래의 커다란 우체통앞이였다. 수련은 숨을 할딱거리며 흐트러진 앞머리칼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이제 병원에서 윤철이와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가.… 환자를 전화로 찾는 실례는 거의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순가. 길게 생각할것도 없다. 여

기까지 달려오면서 생각한것도 바로 그것이 아니였던가?!… 수련은 계단을 뛰여오르자마자 문을 활 열고 안쪽의 간막이유리에 《전보,전화》라고 쓴곳으로 갔다. 숨이 차서 할딱거리는 수련을 보고 접수원처녀가 먼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가고 물었다.

《그래요. 급한 일이예요!》 하고 수련은 가늘게 부르짖었다. 《평양에 있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겠어요.… 부탁해요!》

접수원처녀는 수련이의 창백한 그리고 땀이 보글보글 내돋은 이마를 놀라서 쳐다보고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즉시 송수화기를 들어 평양을 찾는 소리를 들으며 수련은 《오늘의 신문》이라고 써붙인 간막이쪽으로 갔다. 그곳에 장의자가 있었지만 그앞에 서서 신문을 보면서,아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장거리전화를 신청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전화가 걸리려면 한동안 기다려야 했다. 수련은 이제 전화로 하게 될 말들을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쿵쿵거리는 앞가슴을 간막이대에 꼭 눌러붙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첫마디 말을,자기가 꼭 해야 할 가장 긴요한 그 한마디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자칫하다간 말도 못해보고 끝나버릴수 있다.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

수련은 지금 자기가 수은을 쥐고있는듯한 심정이였다. 앗차! 하는 순간이면 그 수은이 손가락짬으로 다 새여버릴수 있다.

이윽고 전화가 련결되였다. 수련은 간막이의 유리밑에 낸 구멍으로 송수화기를 넘겨받자 《여보세요!》 하고 목이 잠긴 소리로 급히 부르짖었다. 그러자 안쪽에서 지켜보던 접수원처녀가 저쪽에서 말할 때까지 좀더 기다리라고 했다. 참을수 없이 지루한 시간이 또 얼마쯤 흘러서야 저쪽에서 아주 나어린 처녀의 목소리가 《○○○병원입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노래부르듯 말했다. 수련은 덤벼치며 1외과병동을 찾아달라고 했다.

1외과병동은 인차 나왔다. 만사에 태평일상싶은 아주 느릿느릿한 녀성의 목소리가 누굴 찾는가고 물었다.

《윤철동무를요!》 하고 수련은 소리쳤다. 《엊그제 후송된 소대장동무가 있죠? 정찰소대장! 그 동물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저쪽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그 동문 중환자예요. 아예 운신도 하지 못하는 환자를 바꿔달라구요？》

수련은 속이 덜컥했다. 윤철의 상태가 중태라는것은 그도 알고있는터이다. 그가 겁내는것은 저쪽에서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놓는 날이면 모든것이 아무 보람도 없이 끝나버릴것이기때문이였다.

《여보세요. 저… 여보세요！》

《동무,소리치지 말아요. 좀 조용히 말하면 안되겠어요？》

《예,예. 그렇게 하죠,부탁합니다,선생님！ 전 그 동무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도대체 동문 누구예요？》

《예,전…》 한순간 수련은 세차게 입술을 깨물었다. 《상화군병원 약제사예요. 예,이름은 리수련. 그—그 동무의 약혼녀예요！》

《그—래—요？！》

저쪽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뭐라고 하더니 잠간 기다려달라고 했다. 수련은 송화구를 통해 울려오는 분명치 않은 말소리며 찌륵찌륵 하는 소리로 미루어 전화기를 옮겨가는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속이 한줌만해지고 약간 벌려진 입술은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말을 할수 있을가? 아니 아무 말 없어도 내 말만 들어주면 된다. 중요한것은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도리질을 한다면？ 《난 그 동물 모릅니다.》 하거나 《아니 필요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지 않을가.… 이미 모든것을 포기해버린 그 동무가 뭣때문에 이제 와서,중태에 빠져있는 지금에 와서 별안간 딴사람과 약혼한다는 처녀의 말을 들어야 한단말인가.… 동정어린 말이나 듣자고 그가 전화를 받는단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자 숨도 쉴것 같지 못했다.

《이보세요！》

수련은 흠칠 놀랐다. 다음 순간 저쪽에서 그를 찾는다는것을 알자 《예！》 하고 웨치듯했다.

《이보세요,미안하지만…》 저쪽에서 낮게 속삭였다. 《윤철

동문 지금 매우 상태가 나빠요. 그에게 말을 시킬수 없어요. 정신적충격을 주어도 안되고…》

《예？…》

수련은 가슴이 졸아들다 못해 막 비틀리는것만 같았다. 이게 웬 일인가. 그러니 윤철동무가 거절했다는것인가？ 그래서 바삐 변명하는 소리인가.… 아득히 멀어져버린것 같은 저쪽의 목소리가 또 수련이를 찾았다.

《이보세요, 왜 말이 없어요. 제 말이 들려요？ 예？》

《예, 듣고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해요. 그저 고무적인 말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하고 수련은 숨가삐 부르짖었다. 《알겠어요. 시키는대로 하겠어요. 정말이예요！》

또다시 전화기를 끌어가는듯했다.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운데 줄을 좀더 당기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마침내 윤철의 침대머리말에까지 가닿은듯했다. 저쪽에서 말했다.

《이보세요, 말씀하세요.》

수련은 대바람에 눈굽이 쑤시고 목이 칵 메였다. 말을 하려고 했으나 혀가 굳어져버려 입을 열수가 없었다.

《윤철동무！》 하고 마침내 목소리를 터쳤다. 《나예요, 수련이예요！》

《…》

아무 기척도 없다. 송수화기를 통해 울려오는것은 먼 공간을 파헤쳐오는 가늘고 석쉼한 그리고 말할나위 없이 고통받는 윤철의 괴로운 숨소리뿐이였다.

《윤철동무！》 하고 수련은 눈물이 괴는 눈으로 먼곳의 그를 더듬어 찾으며 부르짖었다. 《동무를 사랑해요. 일생 변함없이… 사랑하겠어요. 윤철동무, 내 말이 들려요？… 동무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련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입으로 쓸어드는 눈물을 씹어삼키며 목메여 흐느끼고야말았다.

13

평양의 거리들이 리인모환영의 꽃물결로 설레던 그때 워싱톤은 방금 새날에 들어서고있었다. 밝아오는 새날은 미국대통령인 빌 클린톤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날이다. 잠 못이루던 길고도 지루한 밤시간에 그는 줄곧 이에 대하여, 자기가 최종검토하고 비준해야 할 《포커스작전》과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드디여 그는 영예와 치욕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것이다.

작전이 개시될 그날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포커스작전》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그의 최종비준을 기다리고있다. 이제 그가 미국전략항공대사령부에 보내는 명령서, 미태평양함대사령부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명령서에 수표만 하면 그 즉시 합동참모본부의 암호지령을 받은 현지 사령관들이 금고에 보관하고있던 검은 봉투의 봉인을 뜯게 된다. 그러면 12자리수자로 된 여러가지 암호가 전자계산기에 의해 대조확인되고 풀이되며 동시에 특별통신주파수를 통하여 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전략항공대와 태평양함대사령부소속 공군과 해군 지휘관들, 지상군부대들 및 《씨3아이체계》지휘소, 미싸일기지들에 명령이 하달되게 된다.

제일먼저 출격하는것은 괌도의 앤더슨기지에 있는 스텔스전투폭격기 편대들이다. 그것들은 이미 받은 지령에 따라 그날 새벽 북조선의 녕변지구 핵시설을 기습공격하여 철저히 파괴해버린다. 그후의 모든 사태발전은 북조선의 반응에 달려있는데 강경한 북조선이 기필코 강하게 반격할것이므로 극동에서는 대규모의 전면전쟁이 터지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클린톤은 북조선의 군수뇌부 역시 그것을 알고있으며 그 시각을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북조선최고사령관의 명령,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 급기야 벌어진 북조선의 한개 군단무

력의 위력시위훈련 등 그 모든것들의 시기선택과 벽력같은 결단엔 무서운 통찰력과 선견지명, 목적지향성이 들어있는것이였다.
지난밤 클린톤은 국방성작전보고실에서 합동참모본부장령들의 설명을 들으며 북조선군의 훈련모습을 위성통신화면자료로 보았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전률할만한 위력과시》라고 한다. 지어 녕변핵시설에 대한 기습공격을 앞당겨 진행하자고 주장해오던 합동참모본부의장마저 죽은 사람처럼 해쓱해져서 맥없이 중얼거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각하! 그들의 화력밀도와 타격솜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록 클린톤은 전략전술적문제들에서는 문외한이였지만 그 역시 보고 느끼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불의 소나기로 퍼부어진 그 타격전의 리면에서 울리고있는 힘찬 리듬이였다. 음악에 조예가 있고 색스폰연주가이기도 한 그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전체로서의 울림과 선률밖에 듣지 못하나 전문가들은 그속에서 울려나오는 개별적악기들의 소리와 장단 특히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리듬에도 귀를 기울인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 리듬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것이랴. 그것은 음악의 성격을, 그의 속도와 감정과 특징을 규정해주는것이다.
클린톤은 위성통신자료를 보면서 그 훈련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센 리듬, 다시말하여 힘찬 박력과 번개불같은 비타협적성격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그가 상대하고있는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지략과 담력과 의지를 그대로 과시한것이였다.
클라우제위치는 자기의 《전쟁론》에서 상대를 놀래우기만 하면 벌써 절반은 이긴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북조선은 미국과 온 세계를 놀래웠을뿐아니라 지진과 같이 무섭게 뒤흔들어놓고 또 번개를 치고있는것이다.
클린톤은 북조선군의 훈련을 보고나서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지금까지 준비하여오던 콤퓨터에 의한 북조선과의 전자전모의전쟁을 급히 조직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모의전쟁에 오늘 본 북조선군의 화력밀도와 타격력, 전술 등도 첨부하라고 했다. 실제로 북조선과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지 이제는 전자계산기

에 묻고싶었던것이다.

온밤 궁싯거리며 잠들수 없었다. 줄곧 그를 괴롭힌것은 북조선군최고사령관의 지략과 공격정신, 비상한 결단에 대한 신비의 공포였다. 그는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결단이라고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왁자하니 떠들 때부터 그이께서 지니고있는 지략과 거침없이 그리고 련속적으로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그 공격정신에 놀랐으며 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상대를 덮어놓고 무시하기에는 클린톤은 너무도 현명했다. 그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세계의 유일초대국과 결투를 벌리는 그 용기와 배심에 놀랐으며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제때에 급소를 타격하는 그 종횡무진하는 지략에 감탄하였으며 승리를 확고히 믿는 그 신념과 의지를 존경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나날이 자신심은 적어지고 불안은 커갔으며 따라서 그의 의아쩍은 감탄은 마침내 미칠듯한 분노로 바뀌는것이였다.

날이 밝아 부석부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이를 앙다물며 생각하였다. 북조선을 격멸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얼마후 1층의 가족식당에 앉아서도 그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하였다. 한때 트루맨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할데 대한 명령서에 서명하자 곧 포츠담회담을 위해 유럽으로 가는 순양함 《오거스트》호에 몸을 실었다. 그는 무서웠던것이다. 그리하여 3일후에 있게 될 그 미증유의 폭발이 자기와는 무관계한듯 먼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저했던것이다.

지금 클린톤의 심정도 바로 그러하다. 어데론가 멀리 화성에라도 날아가있다가 북조선의 녕변기습폭격소식에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싶었다. 웬일인지 그처럼 그를 격동케 하던 《포커스작전》이 인제는 두려워지고 멀리하고만 싶어졌다.

그는 힐라리가 줄곧 자기의 표정을 살피는것도 몰랐다. 남자접대원이 조그만 바퀴가 달린 작은 밀차를 밀고들어와 커피와 크림단지, 사탕, 군빵, 빠다와 닭알부침, 딸기짬, 쌘드위치 등 간소한 아침식사를 다 차릴 때까지 그는 벽에 걸린 세잔느의 그림 《레다와 백조》만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아버지！》 첼시아가 웃으며 포크로 접시를 두드렸다. 《〈식사시간！… 얌전히 먹어요, 착한 어린이, 쩝쩝 소리내지 말구요, 흘리지도 말구요.〉》

첼시아가 유치원때 선생을 흉내내며 웃어댔지만 그는 아무 의미도 없이 머리만 끄덕이였다. 웬일인지 전혀 식욕이 나지 않았고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피끗 머리를 돌리며 접대원에게 말했다.

《위스키를 주게, 한모금만.》

접대원이 찬장으로 가더니 잠시후 크지 않은 쟁반우에 위스키를 부은 은술잔을 얹어가지고 왔다. 그는 쟁반에서 잔을 들어 몇모금 천천히 마셨다. 힐라리가 놀라와하는것도 못본척했다. 목구멍으로 흘러든 뜨거운 액체가 불길처럼 위장벽을 지지고 온몸에 퍼져가는것을 기분좋게 느끼며 반쯤 눈을 감았다.

《오늘은 웬일이세요？》 하고 힐라리가 참다 못해 한마디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구.》

실상 클린톤은 여느때 술과 맥주를 극력 삼가했다.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취한 사람으로 보인 일이 없다는것을 자랑으로 삼아온 그였었다. 클린톤은 접대원이 들고있는 쟁반에 술잔을 놓으며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의 손짓을 했다.

《용기를 돋구려고 그러오. 오늘은 몹시 바쁜 날인데…》

그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비로소 오늘 오후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대통령 프랑쏘아 미떼랑과 단독회담이 있으며 저녁엔 만찬이 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밖에 또 중동문제와 관련한 국무성회의, 일본과의 무역마찰해소를 위한 대아시아정책 작성자들과의 담화 그리고 끝으로 《포커스작전》명령을 하달하기 위한 국방성 및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모임이 예견되고있다. 그리하여 그는 대충 식사를 마친후 집무실에서 수석보좌관 토마스 맥클라티가 가져온 일정표를 보면서 작전모임을 제외한 기타 일정은 될수록 오전에 몰아서 진행하자고 하였다. 그는 말했다.

《프랑스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은 마운트 버논에서 진행할 생각이요.》

마운트 버논은 미국의 초대대통령 죠지 워싱톤의 묘지가 있는 국립공원이다. 클린톤은 재빨리 생각을 굴리면서 계속하였다.

《미리 요트를 준비시켜주오. 미떼랑대통령도 골프를 좋아하니만큼 그곳 골프장의 잔디가 잘 자랐는지 그것도 미리 알아봐야겠소.》

《예, 알겠습니다.》

토마스는 뜨직이 대답하고나서 잠시 머뭇거렸다.

클린톤이 물었다.

《토미, 뭐가 또 있소?》

《예,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나서 토마스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대통령각하, 지금 남조선 외무부장관이 계속 접견을 요청하고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클린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남조선 외무부장관이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문제로 동분서주하고있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그는 벌써 이틀째나 문밖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하고 토마스가 또 말했다. 《대통령각하께 직접 전달해야 할 메쎄지도 있다면서…》

클린톤은 미간을 찌프리며 한손을 홱 내저었다.

《나는 오늘 바쁘오. 토미,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기실 클린톤은 하루도 바쁘지 않는 날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미국대통령인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서로 다른 네개의 모자를 갈아써야만 한다. 그 네개의 모자란 우선 국제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수반의 모자 그리고 내정문제를 다루고 립법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부수뇌의 모자, 다음으로 미국군대에 대한 최고권한과 책임을 지고나서는 최고사령관의 모자, 끝으로 중앙과 지방의 당조직들을 이끄는 민주당령수의 모자인것이다.

토마스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손아래심복졸개따위는 돌아볼념도 하지 않고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런데 남조선 외무부장관이라는자는 지독하게도 검질긴 녀석인것 같았다. 클린톤이 대아시아정책작성자들과 담화를 끝낸 점심무렵에 또 접견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엔 후생장관인 도너를 통하여 힐라리에게 전해진 요청이였다. 녀성장관인 도너가 대통령부인 힐라리와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알고 공식적인 외교절차고 뭐

고 다 줴버리고 뒤문치기를 하려고 맘먹었던것이다.

그때 클린톤은 오전사무를 끝내고 좀 휴식을 하려던 참이였다. 그가 언짢아하는것을 보고 힐라리가 말했다.

《시간이 없다고 적당히 말해줄가요? 오후엔 미떼랑대통령과의 회담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자는 내가 자기를 귀찮아한다는것을 꼭 알아야 하오.》

《그럼 좋아요. 장모의 병문안을 가야 한다고 하죠.》

힐라리다운 생각이였다. 사실 장모는 지금 워싱톤시내의 월터리드병원에 입원해있으므로 그렇게 둘러치는것이 제일 무탈할것이다.

《그게 좋겠소. 그렇게 말해주라고 하오.》

그는 힐라리가 후생장관 도너에게 전화하는것을 지켜보면서 힐라리야말로 자기의 진짜 수석보좌관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어떤 문제이든 힐라리는 막힘이 없다. 언젠가 클린톤이 예일대학에 다닐 때 대학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힐라리는 옆구리에 책을 잔뜩 끼고있는 수수한 처녀였었다. 언제나 제일 구석진곳 한자리에 앉아있었고 제일 늦도록 앉아있는 그것이 클린톤의 눈길을 끌었을뿐이였다. 하지만 알고보니 힐라리야말로 얼마나 능란하고 재기있고 타산적이였던가!

지난해 선거경쟁때 클린톤은 내외의 적수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질문을 받았다.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것은 우선 웰남전쟁기간 군대복무를 기피한것, 다음으로 영국 옥스포드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때 웰남전쟁을 반대하여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린것 그리고 녀성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칸소주의 한 공격자가 재판소에 클린톤이 다섯녀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소송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간사교구락부 녀가수 프루투스가 주간지 《명배우》에 자기와 클린톤이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장장 12년동안이나 관계를 가지고있었다고 폭로한것이였다.

교묘한 말재주를 가진 클린톤조차 녀성문제에서는 쩔쩔 매고있을 때 힐라리가 나서서 유명한 변호사답게 자기 남편에게 들씌워진 성오물을 솜씨있게 벗겨주고 씻어주었던것이다.

실상 출중한 인물이란 언제나 믿음직한 보좌관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였다. 정치가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력사상의 위인들을

보면 링컨에게는 세워드와 그란트장군이 있었고 쳐칠과 루즈벨트에게는 옹근 하나의 보좌관집단이 있었다. 그러나 력대의 그 어느 미국대통령도 힐라리와 같이 사심없고 절대적이며 현명한 보좌관을 가지고있지 못했을것이다. 하여 클린톤자신 언제인가 힐라리의 지지와 방조 없이는 자기가 미국대통령을 하기가 힘들것이라고 고백했었다.

클린톤은 힐라리가 전화를 끝내자 그의 팔을 끼고 식당으로 가면서 말했다.

《오후에 있을 미떼랑대통령과의 단독회견때 나는 먼저 북조선에 대한 제재문제부터 의논해볼가 하오.》

힐라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도움이 될가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우리의 대조선전략에 대한 유럽동맹국들의 반응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문을 두드려볼가 하는거요.》

《소득이 없을거예요.》 하고 힐라리는 정색하여 말했다. 《그들은 외면할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보다 중요한건말예요, 빌! 북조선의 강경자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해보는것이 아닐가요? 나는 요새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전문을 다시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이라는 말이 강조되고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소한,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그걸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가요?》

《그럴새가 없소.》 하고 클린톤은 우울한 낯빛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전쟁을 비준해야 하오.》

오후 3시, 클린톤과 프랑스대통령 프랑쏘아 미떼랑은 대통령전용요트 《첼시아》호를 타고 마운트 버논으로 떠났다. 력대의 대통령들마다 자기의 취미에 따라 전용요트에 숭배하는 위인들의 이름이나 자기 고향이름을 달군했는데 클린톤은 딸의 이름을 택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호 오나씨스가 미국에서 자기의 화려한 려객선을 딸의 이름으로 《크리스티나》호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류행을 따른것이다. (그 크리스티나는 오늘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또 쏘련대외첩보일군에게 유혹되였던것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맑게 개인 날씨였다. 원형창문유리로 따뜻한 해빛이 흘러들었다. 클린톤과 미떼랑은 그 창문아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광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사실 프랑스는 드골대통령때부터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나토군최고사령부를 프랑스에서 철거시킨 1966년이래 오늘까지도 마찰음은 사라지지 않고있다. 그래서인지 미떼랑은 도착성명에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프랑스와 미국간의 보다 훌륭한 협조와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 나는 두 나라 지도자들간의 보다 훌륭한 리해와 지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왔다.》

클린톤 역시 그러한 지지와 리해를 희망하고있다. 물론 보다 실질적인 리해관계에서는 거리가 없지 않겠지만.

미떼랑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절제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회담의 중요의제인 미국—프랑스관계, 미국의 대유럽정책문제, 마스뜨리흐뜨조약과 유럽동맹창설에 관한 문제 등에서 미국이 품고있는 우려나 프랑스가 가지고있는 불안과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협의하자고 했다. 특히 미국이 유럽을 《도이칠란드인들의 유럽으》로 되게 하는데로 지향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주장하고자 했다.

클린톤은 이러한 기본의제들을 마운트 버논의 골프장에서 펴기로 했다. 그는 먼저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로 하여 빚어질 무서운 후과에 대하여 동맹국들이 여기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며 국제적인 제재에 협력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미떼랑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제재〉란 어떤것인가? 혹시 꾸바에서와 같은 경제봉쇄를 념두에 둔것인가?》

《공식적으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게 되기를 바라는것이다.》 하고 클린톤은 대답하였다. 《국제사회계로 하여금 북조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경제적봉쇄는 물론 군사적인 응징도 필요한것이라고 인식케 하는것이 중요하다.》

미떼랑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또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군사적응징〉은 어떻게 리해하면 좋은가?》

《우리는 북조선의 핵시설을 임의의 시각에 철저히 파괴해버릴 선제타격안을 고려하고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것은 북조선의 반응여하에 달려있다.》

《그들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무섭게 반발할것이다.》

미떼랑은 버릇처럼 오른손 장지손가락으로 왼팔에 차고있는 시계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속 생각을 미리 두드려보는듯했다.

《나는》 하고 그는 천천히,그러나 신중한 표정으로 힘주어 말하였다. 《서방나라 지도자들중에서 유일하게 북조선을 방문한 사람이다. 나는 그때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고 장시간에 걸쳐 광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그는 클린톤이 놀라는것을 보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그때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북조선이 자주성이 강한 나라이며 그 나라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한덩어리로 뭉쳐있는 그것이였다.》

여기서 클린톤은 아까 힐라리가 하던 말을 상기하며 눈살을 찌프렸다. 그러자 미떼랑은 무엇인가 경고하는 의미로 탁자를 두드리며 계속하였다.

《북조선은 특수한 나라이다. 이 행성에서 북조선과 같이 특이한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근거는 많다. 첫째로 북조선은 이전 동유럽나라들이나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과 같이 대국들의 위성국가가 아니라 독자성,자주성이 매우 강한 정치대국이라는것,둘째로 이 나라 국민이 자기의 지도부를 철석같이 믿고있는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을지언정 당과 수령은 절대화하고있다. 쏘련이 해체된후 오늘까지도 그 나라의 정권지반이 흔들리거나 사소한 동요도 없었다는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다음으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시종 자립로선을 추구하

여왔기때문에 대국들에 얽매이지 않았고 넷째로는 미국과 서방의 계속되는 압력이 오히려 이 나라 국민의 반미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국력의 기본을 군사력강화에 돌리게 했다는것이다. 설사 미국과 국제사회계가 련합된 힘으로 이 나라를 거꾸러뜨리려 하여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다섯째로 이 나라는 오랜 기간 무역제재를 받고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민족적우월감만 증대시켜왔다. 그들자신은 그것을 민족제일주의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의미속엔 수령과 당과 제도에 대한 우월감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클린톤은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서 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힐라리가 강조하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생소하고 불가사의한 말의 의미가 비로소 어렴풋이나마 리해되는듯싶었다.

《끝으로 하나 더 첨부할것이 있다.》 하고 미떼랑이 또 입을 열었다. 《그것은 북조선의 군사적위력이다. 얼마전 일본정부대표단과 담화하던중 북조선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그들은 북조선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북조선군대의 포화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북조선의 군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김정일**비서가 군대를 틀어쥐기 시작한 그때부터, 즉 20년전부터 시작되였다고 보고있다.》

클린톤의 생각은 복잡하였다. 그는 미떼랑이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바 그대로를 옮기고있는듯이 여겨지기까지 했다. 미떼랑은 바로 클린톤 그가 감탄하고 존경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뒤 클린톤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이자도 말했지만 북조선은 절대 수그러들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협과 공갈, 전쟁의 방법은 해결책이 못된다.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와 소말리아의 현실태만 놓고보아도 아직 이렇다 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더우기 북조선과 전쟁을 치르려면 수백만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그것을 국민이 바라겠는가? 동맹국들도 외면할것이다. 사태는 바로 이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오랜 기간의 진지한 외교적술책과 타협, 사상적공세를 포함한 림기응변의 책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클린톤은 또 생각에 잠겼다. 미떼랑의 말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으므로 한동안 물결을 헤가르는 배의 진동도 느끼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그는 《타협》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수석보좌관 토마스가 클린톤에게 마운트 버논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해주었다.

클린톤은 미떼랑에게 량해를 구하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곳 강기슭에 죠지 워싱톤의 묘지가 있는데 그앞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거기에 경의를 표시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일행은 강기슭을 향하여 한줄로 섰다. 요트의 확성기에서 미국국가가 울려나왔다. 클린톤은 화강석으로 쌓은 워싱톤의 묘를 향하여 자세를 바로하면서 생각하였다.

워싱톤은 미국력사상 가장 걸출한 정치가들중 한사람인 동시에 명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정치무대에서건 전장에서건 고함을 지르거나 분별없이 거칠게 군적이 한번도 없었다 한다. 그저 침착하게 사색하고 완강하게 참아내고 조용히 미소했을뿐이였다. 그의 힘은 바로 그 미소에 있었다. 그 미소야말로 그의 불굴의 인내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강한자는 을러메지 않는다. 소리지르고 숨을 헐떡거리고 미친듯 날뛰는것은 사관후보생에게나 어울리는것이다.

가까운곳에서 기적소리가 울렸다. 마주 오는 배들이 경의를 표시하는 소리였다. 어느새 요트는 마운트 버논의 계선장에 들어서고있었다.…

이날저녁 미떼랑대통령을 위한 만찬회가 끝난 다음 클린톤은 다시 국방성작전보고실로 갔다.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침울해진 그들의 낯빛에서 벌써 그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느꼈다. 생각같아서는 《어떻게 됐소?》 하고 묻고싶었으나 웬일인지 그렇게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실패나 불행을 예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조급히 따져묻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두렵고 무섭기때문에, 행여나 하는 일루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고저 될수록 시간을 끌면서 기다려보는것이다. 그가 바로

그런 심정이였다. 그는 제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싶었다. 군부관계자들이 발견하지 못한것을 대통령이며 미군 최고사령관인 자기가 찾아내고싶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내밸듯이 말했다.

《시작하시오. 봅시다!》

다들 자리잡고 앉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 곁눈질해가며 말라드는 입술을 감빨았다. 이윽고 대형형광막에는 북조선과의 전쟁을 가상한 콤퓨터모의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먼저 동북아시아전역의 미군기지들과 무력이 소개되고 조선반도에서 대치하고있는 쌍방간의 병력수와 군부대 및 련합부대들의 위치,전략전술적거점들,교통로와 통신망,각종 화력무기들의 수자 등이 소개되였다. 이어 천여대의 비행기와 250척의 함선집단,각종 전략무기와 대기계화보병집단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력량과 북조선군과의 공중 및 지상,해상전,미싸일타격,반항공전,후방에서의 특공대전투 등 전쟁의 각이한 국면들이 복잡한 전술부호와 각이한 화살표식,실지 전쟁과 같은 여러 전투방식으로 전개되였다. 지도에서의 작전구역,부대명들과 무력,적아간의 작전전술적기도와 전투진행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번과 마찬가지로 윌크슨중장이 옆에서 해설해주었다. 콤퓨터에 의한 모의전쟁은 40분간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나 클린톤은 전혀 피곤을 몰랐다. 오직 하나 바늘끝같이 예민해진 신경으로 그 결과를 기다릴뿐이였다.

드디여 다 끝났다. 전자계산기는 전쟁개시 2주일만에 북조선군이 전전선에서 종심까지 진격하여 미군측 40여만의 병력을 괴멸시키고 승리하리라는 답을 냈다. 미국측의 물적손실액은 무려 800억딸라에 이를것으로 산출되였다.

클린톤은 경악하였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군이 이처럼 섬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것도 미군의 병력과 무장,작전전술적기도 등은 당사자들이 정확한 수치를 넣었으나 북조선의 경우엔 예상되는 수자들과 예상되는 의도 등을 전자계산기에 주입시켰을뿐이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있는 무력과 그들이 활용할수 있는 작전전술적능력에 대해서는 거의나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주일만에 그처럼 참담한 대패를 당하리라고 한다. 어떻게 되

여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단말인가?… 클린톤은 지금껏 랭전이후의 현시대는 탈이데올로기 시대이며 현실주의 시대이고 힘 위주의 시대라고 믿고있었다. 힘 위주의 시대!… 그런데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이 그렇듯 작은 나라 북조선과의 핵대결전에서 걸음마다 곤경을 겪게 되다니… 어제는 외교적으로, 오늘은 또 군사적으로 련속 강타를 받고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였다. 분노와 고통스러운 모지름에 그의 얼굴은 이지러지고있었다. 문득 오늘 있은 미떼랑과의 회담이 떠올랐다. 그는 말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조심스럽게 대하는것인가? 그가 권하는 협상의 길을 택하자고 하여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세계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체면을, 미국대통령 윌리엄 제퍼슨 클린톤의 영상에 먹칠이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 있는것은 《힘》뿐이다. 힘 위주의 시대에 힘을 내두르는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책이다. 그러나… 군부와 정계의 보수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것을 반대하고있다. 일본과 남조선이 아우성치고 있다. 《국제적제재》요, 《응징》이요 하고 떠들던것들이 지금은 무서워 떨고있다. 어제 프랑스국제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국방상까지도 북조선이 이라크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조선의 핵개발의혹지점을 타격해도 큰 소용이 없다.… 군사적공격은 오히려 북조선의 보복타격을 유발시켜 남조선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수 있다.》 고 말했다 한다. 바로 그가 한 말을 방금 전자계산기가 과학적인 계산수치로 증명해보였다. 최첨단과학기술로 개발된 전자계산기의 답을 무시할 근거란 없다. 기계엔 감정이 없으며 기계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미국대통령이야 무엇을 원하든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저 과학적인, 절대의 계산수치를 산출해내면 그만이다.

갑자기 허탈상태에 빠진듯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고있던 절대의 힘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것을 느꼈다. 현실주의자인 그에게서 최후의 지탱점이 무너져내렸다. 희벗해진 그의 입술이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뜻밖의 모진 충격에 그는 아무말도 못하고 오래도록 굳어진 자세그대로 앉아있었다. 국무장관과 합동참모본

부의 장령들도 그의 뒤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14

전쟁이 터질 그 시각이 박두해오면서 나라의 무장력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있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및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이 자기 초소에서 다가오는 전쟁의 시각을 긴장하여 기다렸다. 모든 전파탐지기들이 조국의 령공을 눈밝혀 살폈고 미싸일들은 조기경계레이다의 신호를 기다렸다. 공군추격기비행사들은 낮에 밤을 이어 교대로 하늘에 떠있었다. 각종 구경의 포들은 단 한대의 적기라도 조국의 령공을 넘어서면 불을 토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숲을 이루어 전개되여있었다. 총참모부와 각 군종, 병종 사령부, 지휘관 참모부들 역시 자기 초소에서 한시도 자기 위치를 뜨지 않고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적들도 역시 초긴장상태에 들어가있었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이르면서 모든 공격무력이 군사분계선일대에 집결되였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병원문을 나선것은 그때였다.

정문앞에 그의 승용차가 대기하고있었다. 그는 바래우러 나온 의료일군들과 대충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환자복을 입고있는 동안 그들의 정중하고도 강경한 온갖 지시와 권고에 억지로 복종하던것을 벌써 다 잊은듯했다. 실상 흰옷 입은 그 의료일군들이야말로 얼마나 그를 엄하게 통제하고 까다롭게 대했으랴. 비록 그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의 중책을 지닌 일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로년기의 한 환자로서만 대해왔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를 치료하기 힘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인제는 치료도 다 끝났다. 그의 병은 완쾌되였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불러주시였다. 바로 전쟁이 일어날것으로 예견하고있던 이날 아침 드디여 그이께서 친히 전화로 그를 찾으시였던것이다.

그때 그는 아침산보를 하고있었다. 산보라기보다 괴로운 마음을

달랠길 없어 어뜩새벽부터 정원길을 거닐고있었다. 담당간호원이 따라나와 날이 차다고,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겠느냐고 걱정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일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병원에 와있고 외부와의 전화와 일체 접촉이 차단되여있었지만 라지오보도만으로도 나날이 엄중해지는 정치군사정세를 통찰하였고 시시각각으로 커져오는 전쟁의 폭음을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죄다 듣고있었다. 그러므로 치료경과가 좋아지면서 점차 가슴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이 인제는 더 이상 참고 견딜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고있었다. 그때 바로 분원 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장군님께서 그를 찾으신다고 알려주었던것이다.

그는 어깨에 걸치고있던 외투를 뒤따르는 간호원에게 넘겨주고 거의 반달음쳐 원장방으로 갔다. 송수화기를 들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숨도 돌리지 못한채 부르짖었다.

《아, 부장동무입니까！》 우렁우렁한 그이의 말씀이 공명판을 세게 울렸다. 《원장동무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퇴원시켜달라고 한다는데 그래 인젠 다 나았습니까？》

《예, 다 나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좋습니다. 원장동무한테 과업을 주었으니 곧 군복을 갈아입고 여기로 와주십시오.》

《예？！…》

너무도 뜻밖에 들이닥친 기쁨이여서 숨이 꺽 막히는듯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부르짖었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곧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병원문을 나섰고 드디여 싸움터로, 전쟁을 맞받아가게 되였다. 터질것 같은 흥분에 목이 메이고 자꾸만 속이 떨렸다. 이제야 비로소 인민무력부장의 위치에서 전쟁을 맞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막중한 사업을 다소나마 덜어드릴수 있게 되였다！…

승용차는 대도로를 따라 나는듯이 달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이처럼 급격히, 최고속도로 차를 달려본적은 없었다. 포장도로우를 미끄러져 내달리는 차바퀴의 쓸림소리가 차디찬 대기를 찢으며 울려갔다. 가로수들이 휙휙 뒤로 날아지나고 드문드문 서있

는 리정표들이 쏜살같이 마주 달려왔다.

그는 이제 가면 먼저 작전모임에 참가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에게 전쟁과 관련된 중요임무를 주실것이다. 그러면 급히 정황을 연구하고 임무수행에 착수할것이다. 분초를 다투는 때이므로 전반적정세를 재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속도계의 바늘이 파르르 떠는것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차가 느리게 달리는것만 같아 계속 속도를 높이라고 엄하게 말하군했다.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이른것은 아침해가 솟아오를 때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그의 몸이 퍼그나 좋아졌다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새도 힘차졌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나 그이를 뵈옵는 첫순간부터 오진우의 가슴은 저려드는듯했다. 그리도 축가신 그이의 모습을 찢기는듯한 가슴의 아픔없이 바라볼수 없었다. 무엇인가 무딘 칼날로 가슴을 허비는듯 모진 아픔에 눈시울을 바르르 떨군하였다.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원장동무한테 좀 일찍 퇴원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먼길을 가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우는 지금 그이와 함께라면 천리라도 달려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정세가 극도로 엄중해진 이때 그이께서 갑자기 떠나실적엔 틀림없이 전략전술적으로 중대한 사변이 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출발하기에 앞서 그이의 수행원들이 김석현비서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라는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만 꽉 차있었으므로 그이께서 응당 총참모장이나 작전일군들을 대동하고 떠나실것으로 생각했기때문이다. 묵묵히 차에 올랐다. 그는 평소에도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였다.

이윽고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수도를 빠져나와 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강기슭의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뾰족뾰족한 갈색의 움들이 돋기 시작한 가로수들이 가

지를 펴들고 서둘러 마주왔다. 음달진 구석에서는 구멍이 숭숭한 얼음버캐가 희끗거렸고 내가의 버들개지들은 가벼운 바람결에도 능청거렸다. 봄이 온것이다. 정세는 엄혹했어도 봄은 시간표대로 꾸준히 찾아왔다. 그러나 봄날의 다냥한 별과 아늑한 풍치에도 불구하고 오진우는 갈수록 더해가는 의혹에 잠겨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아무리 해도 그는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엇때문에 어데로 가시는지 짐작할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 바재이다가 갑자기 놀란듯 크게 말했다.

《라지오를 트오!》

기다리던 보도시간이였던것이다. 병원에 있을 때 매일 아침과 낮 그리고 밤 10시 종합보도시간만은 놓치지 않던 그였다. 운전사가 라지오스위치를 누르자 마침 적들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한 소식을 알리고있었다.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어제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은 대지합동타격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렸습니다. 여기에는 350여대의 전투폭격기, 습격기, 추격기, 추격습격기, 관측기들이 동원되였습니다. 결과 어제 하루동안 남조선지역상공에서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하여 공중전연습에 돌아친 적군용기는 무려 700여대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보도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꼿꼿이 앉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 어데까지 차를 달려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갑자기 앞서가던 차들이 속도를 죽이더니 길섶에 멎어섰다. 어느한 야산기슭이였다. 반외투를 걸치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는것이 보였다. 오진우와 다른 수행원들도 차에서 내렸다.

오진우는 내가의 버들방천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따라섰다. 그이께서는 허리굽혀 통통 살이 진 버들개지를 하나 꺾어들더니 밝은 미소와 함께 그것을 빙그르 돌려보시였다.

해별이 따스했다. 어데선가 퉁퉁거리는 뜨락또르의 동음이 울려왔다. 그이께서 오진우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봄날입니까!》

《예.》 하고 오진우는 얼결에 입을 열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곧 씨붙임을 해야겠는데…》

그이께서 혼자말씀같이 뇌이시였다. 오진우는 그이께서 바라보시는 들판을 뜨아해하는 눈빛으로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그런즉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올해 농사일때문에 예까지 나오셨는가?… 그는 가까이에 있는 김석현비서와 다른 수행원들을 얼핏 쳐다보았으나 그들의 표정에서도 역시 그에 대한 답을 찾을수 없었다. 하지만… 절대 그럴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도중에 잠간 휴식을 하시려는것이리라. 한시도 맘편히 쉬여보지 못하신탓에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휴식하시려는것이 틀림없다.…

가까운 숲속에서 꿩이 푸드득거리며 꿱—꿱— 울어댔다. 그러자 마치 그에 화답이라도 하는듯 큰길너머쪽에서 줄에 매인 염소가 《음메！—》 하고 처량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뽑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는 저으기 당황하였으나 곧 대답올렸다.

《방금 차에서 들은 보도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말입니까？》

《예.》

멀지 않은곳에서 호들갑스럽게 울어대는 새소리가 유난스러웠다. 그 떠들썩한 소리를 피해 달아나듯 새 한마리가 길을 건너 저쪽의 굵은 참나무가지에 가앉았다. 이윽고 그쪽에서 나무를 세게 쪼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부리로 한바탕 련발사격소리처럼 나무통을 두드려댔다. 그리고는 잠시 동정을 살피는듯하더니 또다시 힘있게, 정열적으로 봄날아침의 대기를 울리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봄과 새들！… 내가 예술가라면 이런 제목으로 시와 노래를 짓고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울려나오는 저 모든 음향이 그대로 하나의 훌륭한 음악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오진우는 얼결에 대답올렸다. 《지금 정세만 엄중하지 않다면…》

순간 그이께서 한손을 약간 드시였다.

《가만！ 저게 무슨 새소리입니까？》

오진우는 귀를 기울여보고나서 알릴듯말듯 웃음을 머금었다.

《그거야 뭐 종달새 아닙니까！》

《옳습니다. 옛사람들이 노고지리라고 하던 종달새입니다. 시와 노래에서 많이 불리우는 종다리… 이런 시조도 있지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들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어릴 때, 아니 소학교에 다닐 때 배운것 같습니다. 선생한테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며 외우긴 했댔는데…》

《그렇습니까！》

그이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오진우도 허허… 하고 늙은이답게 웃었다. 김석현비서를 비롯한 여러 수행원들도 즐겁게 웃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맘편히 웃어보는것 같다. 오진우는 웃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분께서는 이처럼 다감하실가. 뜨거운 용암처럼 분출하는 열정, 거세찬 파도같이 몰아치는 기백, 번개불과 뢰성, 그런가 하면 맑은 시내물과 같은 깨끗함과 봄별같은 따스함… 정녕 이분의 가슴속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여전히 그윽한 미소를 담고서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전야를 바라보고계시였다.

《재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하고 또 나직이 뇌이신다. 《이제부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힘을 넣어야겠는데…》

여전히 말없이 서있는 오진우와 여러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봄이 온 전야를 바라보느라니 그대로 지나갈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농촌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벼랭상모판 씨뿌리기를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비료와 농약, 비닐박막 등 영농물자들이 충분히 공급되였는가도 알아보고… 출판물과 방송을 통한 선전사업도 강화해야 합니다. 인젠 전쟁도 끝났으니 봄을 가꾸는데 힘을 넣읍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진우 역시 꿈쩍 놀랐다. 전쟁이 끝

나다니, 방금 들은 보도에서도 적들이 공중핵타격연습을 미친듯 벌리고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이께서는 따뜻한 미소가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왜 놀랍니까?… 오늘은 바로 적들이 녕변기습공격을 계획했던 그날입니다. 제반 조건으로 미루어 늦어도 오늘 새벽엔 기습공격을 감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시각에 이르러 적들은 그것을 포기하고말았습니다. 어제밤 작전국장동무가 보고해온데 의하면 적들은 핵전쟁지휘체계인 〈씨3아이체계〉의 가동을 중지했고 군사분계선일대 상공에서 우리에 대한 전자정찰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던 〈유―2〉고공전략정찰기의 비행도 중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미친듯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단말마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적들은 련속적인 우리의 공격에 넋을 잃고 전쟁의 기회도 잃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쟁의 명분과 내외의 지지 그리고 그들자신의 용기마저 다 잃고말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곧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할 결심입니다.》

《？！…》

오진우는 한순간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으며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부지중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언젠가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결사전을 벌릴 시각이 왔다고 하시던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런즉 바로 이것이 그이께서 결심하신 전쟁이였는가？！… 그것은 비록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전쟁이였지만 준엄하고도 치렬한 격전이였다.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이 판가름된 엄혹한 전쟁이였다！…

《자, 또 달려봅시다.》

그이께서 시계를 보시더니 오진우에게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어데로 가는지 한번도 묻지 않습니까？》

《저…》

열적은듯 웃으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생 군복만을 입고 살아온 그는 때없이 경솔하게 묻는것을 질색하였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서야 말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부장동무를 찾은건 오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갈

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집이 또 하나 완공됐는데 이런 경사가 어데 있겠습니까. 내 그래서 각 도당책임비서들도 다 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입소식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사회주의를 버린 나라 어린이들도 와서 맘껏 배우며 즐기게 되겠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혁명을 하는 목적도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장동무, 그새 병치료를 하면서 적적했겠는데 가서 시원한 송도원바람이나 쏘이도록 합시다.》

《!…》

순간 오진우는 눈굽이 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부지불식간에 치밀어오른 뜨거운 격정에 엇비듬히 이마를 파고 지나간 굵은 주름살들이 꿈틀거렸다. 끝까지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뜨거운 눈물에 자꾸만 목이 메여올랐던것이다. …

×

이날 오후 5시 문선규는 한장의 전보를 받았다. 놀라운 소식이 거기에 적혀있었다.

미국무성 전보 제38192호 친전

보낸 사람; 미국무성 정치군사담당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받는 사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안　　건; 협상제의

나는 워렌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위임으로 당신에게 우리 행정부의 제안, 다시말하여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 협상제안을 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미합중국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먼저 베이징에서 미조간 참사급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참사급접촉을 통하여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 차관보급협상의 기틀이 마련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는바이다.

1993년 3월 20일 워싱톤

문선규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보듯 훑어보고나서 빠른 걸음으로 탁자로 돌아왔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쪽으로 한손을 뻗쳤으나 또 굳어지고말았다. 어느새 얼굴은 불그레하게 달아오르고있었다.

미국이 우리에게 협상을 제기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이 창건된이래 수십년간 우리를 적대시하며 그 어떤 접촉도 거부하던 미국,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신념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고 전쟁의 불구름까지 몰아오던 미국, 오만무례하던 그 미국이 드디여 정부급협상을 청탁해왔다.

문선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의 거대한 승리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심정이였다. 핵문제를 법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군사화하고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정통을 찌르면 움직이지 않을수 없다고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기둥을, 그 명줄을 끊어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 드디여 조약탈퇴를 지레대로 하여 미국을 끌어내시였다. 전쟁을 울부짖던 미국이 더는 어쩌지 못하고 코가 꿰여 끌려나왔다. 미국이 굴복하였다. 전쟁이 끝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국을 굴복시키고 전쟁도 막으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내다보신대로 미국것들이 끌려나왔습니다!》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미국이 흰기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는 그 중대소식을 자신이 직접 보고드리고싶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또 가슴이 뻐근해났다. 비록 엄정한 사업상 절차와 질서를 어길지언정 이것만은 꼭 직접 보고드리고싶었다.

그는 서류가방을 열고 그속에 전보를 넣었다. 잠시후에는 벌써 복도계단을 뛰여내리고있었다. 밖에 나서자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뗑—뗑—뗑!— 그 장중한 음향은 무엇인가 비상한 사변을 예고하는듯하였다.

그는 차에 오르자 크게 단숨을 내뿜으며 말했다.
《당중앙위원회로!》
이윽고 승용차는 만수대예술극장앞도로를 달려갔다. 문선규는 너무도 벅찬 흥분에 사로잡혀 라지오에서 울리는 보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운전사쪽으로 한손을 내뻗치며 소리쳤다.
《가만, 차를 세우오!》
《예?》 운전사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여기선 안됩니다.》
《그럼… 그럼… 그냥 곧추 가기요. 곧추!》
그는 흥분하여 손잡이를 꽉 틀어쥐며 라지오의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야영소건물과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감빨고 숨길을 딱 멈추었다. 가슴속에서 쿵쿵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듯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전대를 뜨시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계신단말인가?!…
운전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어데로 가잡니까?》
《그냥 곧추 가오. 아무데건!…》
보도는 계속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겹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일떠섬으로써 우리는 로동당시대에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여놓았다고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눈앞이 뿌예지기 시작하였다. 후더운 물줄기가 솟구쳐오르며 목구멍을 메이게 했다. 진정 얼마나 어려운 시련속에서, 얼마나 첨예한 정황속에서 마련된 행복의 집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시도

작전대를 뜨시지 못하시던 그 나날이 떠올라 눈굽이 쩌르르해졌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흐려진 안경을 닦았다. 운전사가 또 묻는듯한 시선을 던졌으나 못본척했다. 아무데로 달리건 무방하다. 미국무성의 전보따위는 늦어져도 상관없다. 장군님께서는 벌써 이 모든것을 예견하시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년단야영소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후계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소년단야영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야영소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승용차는 동성교밑으로 내려 지하철도 황금벌역쪽으로 향했다. 길게 대렬을 지어 만경대쪽으로 가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 소년들이 눈에 띄였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장난질을 그치고 텔레비죤과 라지오에서 울려나오는 적들의 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방송원의 목소리에 벌써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소년들이다. 그들의 크지 않은 잔등에는 크나큰 뜻을 담은 구호가 붙여진 배낭들이 지워져있었다.

문선규는 이른봄의 찬바람과 볕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그 어린이들이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돌아보군했다. 바로 저 어린이들이 전쟁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뛰놀수 있게 하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고에 찬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청소년일군들과 이곳 야영소의 일군들은》 하고 방송원은 계속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고있는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을 활짝 꽃피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하고 문선규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직도 적들은 포성을 멈추지 않았고 전쟁의 불구름은 가셔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송도원기슭을 거닐고계신다. 봄을 가꾸며 미래를 키우며 빛나는 래일을 앞당겨오고계신다!…

전승기념탑 건설장이 가까와왔다. 기중기가 커다란 화강석대돌을 물고 빙—돌고있다. 기발들이 펄럭이였다. 위대한 승리를

경축할 날이 머지 않았다…

15

두달이 지나갔다.

5월도 다 가던 어느날 오전 10시, 외교부청사를 나선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비행장으로 달리고있었다. 선두차에는 문선규가 앉아있었고 뒤따르는 차들에는 김세환참사 등 7명이 타고있었다. 뉴욕에서 열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정부급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성원들이였다.

일행이 비행장에 이르자 안내원이 그들을 대기실로 안내하였다. 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20분후에 리륙한다고 했다. 잠간 기다리면 될것이다. 대기실에는 각이한 분야의 갖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와있었다. 남미주에 가는 당일군대표단,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로 가는 농업기술협조단, 국제의학과학토론회에 갈 의학자일행, 사로청대표단, 림업부대표, 무역일군들… 문선규는 안면있는 몇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곧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였다. 미국과의 회담에 가는 대표들이여서 그들을 둘러싸고 겨끔내기로 질문의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대답할새가 없었다. 대기실로 금줄두른 인민군장령들로 무어진 어마어마한 일행이 새로 들어섰기때문이였다. 총참모장 최광차수를 위수로 두명의 대장과 해군상장 그리고 특히 젊어보이는 한명의 중장으로 무어진 일행이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라는것을 누구나 짐작할수 있었다.

문선규를 발견한 최광이 가까이 다가오며 반가운 웃음을 띄웠다. 그들은 어제저녁에도 금수산의사당의 응접실에 같이 있었던것이다.

문선규는 총참모장과 여러 장령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오영범동무가 아니요?》

젊은 장령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정말 반갑습니다. 1부부장동지,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군요.》

《어느새 벌써 중장?！… 대단합니다.》

《뭘요… 그새 1부부장동지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문선규는 최광이 좀 뜨아해하는 표정을 짓고있는것을 보고 그에게 설명했다.

《총참모장동지, 우린 언젠가 렬차칸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땐 이 오동무가 려단장이였지요.》

《지금은 군단장이요. 본때나는 싸움군이고.》

최광의 말이였다. 문선규는 제일처럼 기뻐했다.

《예－그렇습니까！ 저도 첨 만났을 때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발전하리라고는… 축하합니다！》

문선규는 스스럼없이 오영범의 널직한 잔등을 툭 쳐주며 낮게 말했다.

《오동무, 그래 생각나시오？ 그때 렬차칸에서 우리 외교일군들이 지내 쪼물짝하다고 비난하던 일을！》

《예, 생각납니다.》 오영범이 계면쩍어했다.

《그땐 제가 좀 지나쳤던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그때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지금도 난 외교전선에서 한방 꽝！ 하고 갈겨대라던 오동무의 말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때 역사방송원이 평양－모스크바간 정기항로 려객기에 탈 손님들은 개찰구로 나와달라고 했다.

문선규는 오영범과 서둘러 인사말들을 나누었다. 군사대표단 일행은 다른 비행기편을 리용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참모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최광은 정색하여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였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그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두들겨패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군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강조한 의미깊은 말이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외교일군들의 처사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

았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적들이 군사적위협을 계속하는 한 압력이 동반되는 대화에는 결코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것이 그들의 립장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있는 그들이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오나 항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언제나 전쟁에 준비되여있는 그들이다. 그들의 부탁이자 곧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부탁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원래 속에 칼을 품고 악수를 청하는것이 호전광들의 상투적수법이라고, 그들의 외교 역시 힘의 연장이라는 폭력적교리에 기초하고있으므로 잠시도 공격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제 저녁의 일이다. 금수산의사당의 넓은 응접실에 정무원과 무력부, 외교부의 책임일군들이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와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준전시기간에 발휘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방력강화와 특히 당면한 조미회담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금도 문선규는 그때 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다. 수령님께서는 처음 문선규에게 회담준비가 다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문선규가 대답올렸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대로 이번 회담의 총적목표를 미제가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하며 압살책동을 포기한다는 정치적공약을 받아내는데 두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구체적인 방침을 다 주셨기때문에 배심이 든든합니다!》

《그렇다! ㅡ 배심이 든든하단말이지.》 하고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여 환히 웃으시였다. 《그게 중요해, 그게! 회담이라는것도 총소리없는 전투인것만큼 처음부터 배심 든든히 공격을 들이대야 해.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말이요.》

수령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총참모장에게 물으시였다.

《총참모장동무, 어떻소. 이게 바로 **김정일**동지의 일관한 정치방식, 령도방식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최광이 힘있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멈추지 말며 적

들이 더는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불이 번쩍나게 타격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십니다.》

《옳소, 바로 그거요! 정치와 군사뿐만아니라 외교에서도 공격을 하고 사상에서도 공격을 하는것이 바로 **김정일**동지의 정치방식, 령도방식이요. 그러니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의 공격정신을 가지고 뜬뜬해서 어떻게 하나 꼭 정치적공약을 받아내야 해. 알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족해하실 때마다 두손을 허리에 짚으신다. 그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대화를 구걸해오고있소. 이게 얼마나 큰 승리요. 광복후 40여년동안이나 우리를 적대시해오던 미국이 드디여 회담장에 끌려나왔거든.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두번째로 항복도장을 누르게 됐소. 바로 40년전 판문점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누르던것처럼말이요!… 이것은 다 전적으로 **김정일**동지가 이룩한 커다란 공로요. **김정일**동지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일심단결의 대오로 묶어세웠을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지략과 담력으로 련속공격을 들이대여 적들을 무릎꿇게 했거든. 이걸 잊지 말아야 해.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소. **김정일**동지이자 조국이고 조국의 운명이요. 그러므로 동무들은 모든 부문, 모든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야겠소.》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되새길수록 문선규는 가슴이 젖어들었다.

이윽고 그는 배웅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사다리로 올랐다. 밑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 역시 손을 쳐들었다. 그것은 저밑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마음속 인사였다.

사다리가 물러갔다. 잠시후 비행기는 활주로우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맑게 개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문선규는 기창아래 저기 아득히 멀어지고있는 지상의 모든것, 신록이 짙어가는 숲이며 하얀 댕기를 늘여놓은것 같은 강물이며 대도로와 넓고

푸른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특히 해빛에 번쩍이는 두줄기 은빛궤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혹시 그 철길은 아니던가? 언젠가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밤렬차를 타고 달리던 그 철길, 잠 못이루던 그밤 끝없이 계속되는 무거운 생각을 이어가던 그 철길은 아니던가?… 그날 그 기슭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있는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있는것인가!…

비행기는 점점 더 고도를 높였다. 안내원이 록음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준엄한 준전시기간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힘찬 선률이 울려나왔다.

사나운 폭풍도 쳐물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문선규는 부지불식간에 가슴이 뿌듯해지고 목이 메여오르는것을 느꼈다. 진정 얼마나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던가. 얼마나 엄혹한 시련이, 얼마나 참담한 핵참화의 위험이 조국땅우에 덮씌워져있었던가!…

어느덧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끓어오르고있었다. 점차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타고 줄지어 내리고있었건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벅찬 격정에 사뭇 커진 심장이 가슴속에 꽉 들어차는듯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비행기는 구름속을 헤치고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는 창공을 날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나운 폭풍을 쳐몰아내고 열어주신 조국의 푸른 하늘이였다.

마　감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는 법이다. 이 평이하고 단순한 말은 조미간의 첫 뉴욕공식회담때 우리측 단장인 문선규가 한 말이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간에 결쳐 전원회담 4차, 단장회담 3차, 기타 실무접촉 등 6차, 총 50시간에 결쳐 진행된 치렬한 공방전끝에 미국측이 끝내 정치공약을 약속하고 문건토의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때 미국측은 우리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문제토의를 계속한다는 단 두문장으로 된 문건을 내놓았었다. 그것을 본 문선규는 쓰겁게 웃으며 《당신네 문건 만들기 매우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원래 우리는 문건을 두개 준비했는데 다른것을 내놓으면 당신네가 기절초풍할것같아 이것만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문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정불간섭, 핵위협중지를 공약하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것 등의 내용을 담은 사실상 불가침선언과 같은것이였다. 그 문건토의에 또 9시간이 걸렸다. 문건에 지적된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지어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종일 격렬하게 싸우던 끝에 미국측단장인 미국무성정치군사담당차관보 로버트 갈루치는 그만 우거지상이 되여 《정말 회담이 간고하오. 왜 이렇게 문건이 자꾸 커지오?》 하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그러자 문선규는 걸걸한 목소리로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고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지오.》라고 웃으며 말했다. 통속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고 해학적이면서도 준엄한 경고가 들어있는 말이였다. 그렇다!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지고 다칠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것은 우리의 《핵문제》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얻어진 수많은 극적사변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사실상 미국이 우리의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면서 압살공세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

퇴하는 대결단을 내리리라는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과연 그들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재개하고 전쟁을 몰아오고있을 때 오래지 않아 우리앞에 무릎꿇고 불가침선언과 같은 정치공약에 도장을 찍게 되리라는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1993년 6월 11일, 바로 우리의 조약탈퇴가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에 뉴욕에서는 력사적인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또다시 세계가 들끓었다. 《북조선의 대승리》, 《**김정일**각하의 령도예술의 극치》, 《**김정일**각하의 특출한 외교지략과 령도의 결과》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갈루치의 목을 떼야 한다, 미국외교사상 최대의 머저리라고 떠들었다. 그것이 클린톤외교에 대한 로골적인 불만과 비난이였으므로 클린톤은 갈루치가 일을 잘해서 축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성명을 발표하여 반대여론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극심한 반발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클린톤 행정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타협이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였고 일본과 남조선도 전쟁의 위협에서 풀려났다고 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광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전쟁으로써만 조선을 놀래우고 굴복시킬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2월 뉴욕에서 다시 조미사이의 당면한 동시행동조치가 합의되였으나 다음달 3월에 열기로 한 제3단계 스위스 제네바 조미회담은 류산되였다. 미국이 부당한 핵사찰수용문제, 북남고위급회담특사 교환문제 등을 구실로 군사적위협을 시작했기때문이였다.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다. 《키티호크》, 《인디펜던스》 핵항공모함전단들이 밀려들었고 남조선에 신형미싸일들이 배비되기 시작하였다. 핵문제는 다시금 대결원점에로 되돌아갔다. 위협과 공갈, 분노의 선언… 성명, 기자회견, 대변인담화, 각서… 93년의 봄과 같이 전쟁은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 미국대통령자신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때 우리에 대한 《대보복》과 《그것은 북조선의 국가적종말을 의미할것이다.》라는 폭언을 했다.

눈덩이는 굴릴수록 커지고 조선문제는 만질수록 더 커진다. 드디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국제원자력기

구의 감시없이 8,000개의 핵연료봉을 교체하는 자위적용단이 또 실천에 옮겨졌다. 지진과 같은 폭발,번개가 번쩍이고 무서운 굉음이 또 지구를 흔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주시였다. 우리의 일관한 평화애호적립장,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싸울 의지와 결심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미국은 뒤걸음쳤다. 한걸음 또 한걸음 힘겹게 물러서고 마지 못해 양보하고 사죄하였다. 1994년 7월 14일 다시 이어진 제네바회담에서 문선규가 《대보복》이요 뭐요 한 클린톤의 망발을 되게 문제세웠을 때 미국측 갈루치단장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강경자세를 보여준 제스츄어에 불과하다고 애써 변명한 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렇듯 우리의 《핵문제》는 전쟁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였다. 전쟁의 위험은 한시도 이 땅을 떠나본적이 없었다. 매일 두차례씩 어김없이 오고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또 갔다. 적들은 《핵문제》라는 폭풍을 타고 격랑처럼 밀려들어 사회주의조선의 성벽을 치고 또 쳤지만 세찬 물보라만 흩날렸을뿐… 마침내 미국의 호전광들은 락심천만하여 한숨짓고 후회하였어도 때는 이미 늦었었다. 미국은 빌붙지 않을수 없었다.

갈루치 ; 우리는 당신들을 존중한다. 앞으로 조선반도뿐만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과 평화는 바로 우리들, 미국과 조선에 달려있다.

문선규 ; 그건 누구의 말인가,당신의 생각인가?

갈루치 ; 백악관의 말이다.

문선규 ; 그러면 우리도 초대국이라는건데…

갈루치 ; 그렇다,당신네는 초대국이다. 미국과 같은 초대국이다!…

지금 조선은 세계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서있다.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한때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 가난과 수모,사대와 굴종의 한많은 력사를 더듬어보면 조선의 외교

관들이 처음 미국땅에 발을 들이민것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은지 얼마후였다. 6품관이였던 박정양을 비롯한 5명의 첫 공사관원들이 백악관에 신임장을 봉정하기 위해 워싱톤에 나타났었다. 상투를 틀고 통영갓을 머리에 쓴 사람들, 후주른한 도포자락을 너펄거리며 한손엔 금시 부스러뜨릴듯 부채를 꽉 움켜쥐고서 사방을 두릿거리며 번화한 워싱톤시가를 허둥지둥 걸어간 사람들… 그 괴이한 차림의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워싱톤시민들이 거리에 밀려나왔다고 한다. 그때 위축되고 얼떠름해서 떠들썩한 조롱에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걸어간 그 사람들이 생각한것은 무엇이였을가. 양키들의 조롱과 야멸찬 휘파람소리에 대한 분노였을가, 수치였을가, 아니면 비굴한 순종이거나 궁상스러운 허세, 혹은 뼈에 사무치는 렬등감이였을가, 피눈물나는 한이였을가？…

민족의 자존심은 국력에 정비례된다. 국력이 강해지면 민족의 존엄도 높아지고 국력이 피페해지면 민족의 얼도 병들어버린다.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이 발표되였다. 동시에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과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

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력사의 대하가 흘러간다. 격변하는 세기말의 크고작은 사변들, 침략과 도발, 통합과 분리, 국내전쟁, 지역분쟁, 종족싸움, 종교적알륵, 전횡, 간섭, 소요, 음모, 발명과 건설, 충돌과 재해… 실로 기쁨과 슬픔, 영광과 치욕, 희망과 절망의 사연들이 력사의 대하에 떠실려간다. 어떤것은 순간에 잊혀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것은 소용돌이치며 물멀기를 솟구치기도 한다. 때로 지진과 같은 폭발에 강물이 끓고 뒤번져지며 사품쳐흐르다가 돌연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그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준 령도자는 위대하다. 력사는 그 령도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금문자로 아로새긴다. …

×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어가는 수도의 밤거리를 승용차로 달리고

계시였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시창에 뿌려진 비방울들이 줄지어 흘렀다. 승용차의 유리닦개가 간단없이 오고가며 비물을 훔쳐내군했으나 물줄기는 쉼없이 흐르고 또 흘렀다. 뿌잇해진 거리의 장식등들, 포도에 흐르는 비물에 어룽어룽한 불빛들이 흔뎅이였다. 드물게 오가는 차들의 앞머리가 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가을철답게 화려한 황금색으로 단장했던 은행나무들이 소리없이 하나둘 잎사귀를 떨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슥토록 단잠에 든 거리의 창문들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잠 못이루시는 밤마다 수도의 거리를 돌고돌며 사색을 이어가는데 습관되신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이밤은 사정이 다르다. 방금전까지 조미회담을 끝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표단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계시였었다. 대표단 단장인 문선규와 참사 김세환, 순회대사 최우정, 참사 손무현 등… 심각한 핵대결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축하해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어려운 싸움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었다. 기쁨도 컸고 울음도 많았었다. 치하와 고무, 축배, 목메인 감사, 맹세… 화기에 넘친 접견이 끝나고 그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였다. 갑자기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순간 그이께서는 습관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송수화기를 잡으시였다. 례사로운 그 전화종소리를 부지불식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종소리로 여기신것이였다. 그러나… 별안간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름을 느끼시였다. 가슴속에 밀려드는 뜨거운 물결, 목메이는 격정, 눈굽이 저릿저릿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천하를 휘여잡는 그이이시건만 눈물도 많으시였다. 마음속에 안고계신 사랑과 충정이 하도 커서 아픔도 많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곧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시였다. 기쁜 일, 슬픈 일이 생겨도 혼자서만 알고계실수 없어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려 때없이 차를 달리시던 그이이시였다.

비는 여전히 줄금줄금 내리고있었다. 승용차의 시창을 하염없이 적시는 비줄기, 유리닦개가 미처 훔칠새 없이 또 줄지어 흐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였다. 장식등의 불빛마저 흐릿해졌다. 그때 유난히 붉게 명멸하는 글발들이 눈에 뜨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던 축탑에 새겨진 글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를 잃은 온 나라 눈물의 바다우에 세워주신 신념의 구호, 비물에 젖은 붉은 글발들이 더욱더 진하고 선명하게 두드러지며 가까와졌다. 그이께서는 그 글발 한자한자를 뜨거운 마음속에 새겨가며 이윽토록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드디여 그곳에 이르시였다. 그곳, 숙연한 정적이 깃든 방,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념원과 한생의 고귀한 업적을 숭엄히 새겨가는 회억의 방, 사색의 방, 불빛마저 수령님께서 한생 추켜들고오신 붉은기의 색조로 물들어있다. 고요하다. 무한과 영원…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사색에 잠겨계시다. 눈덮인 만주광야의 말발굽소리를 들으시는듯, 남해의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듯… 우주에 비껴가는 사색의 빛발, 창창한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시듯…

김정일동지께서는 발걸음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또 한걸음 옮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색을 깨칠세라 숨소리마저 저어하신다. 정중한 고요, 엄숙한 정적… 문득 오래전 일이, 지금처럼 발자국소리를 낼세라 수령님의 침상을 밤새워 지키시던 그때의 일이 떠오르신다. 잊을수 없는 1965년 4월,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편하신 몸으로 조국을 떠나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 방문길에 오르시였었다. 머나먼 항로끝에 이어진 무더위속의 연도행사, 무개차를 타고 그 나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숙소로 가시는 과정에 수령님의 병세는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곧 비상의료대책을 세우고 장밤 수령님의 침상을 지키시였다. 매 시간 체온을 재고 방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숨결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발자국소리를 낼세라 극히 조심하면서 침상곁의 작은 의자에 앉아 온밤 꼬바기 밝히며 마음을 졸이시였다. 하루밤새 자신의 입술이 타들고 눈에 뜨이게 축가신줄도 모르시였다. 다음날 아침 그이의 축가신 모습에서 모든것을 다 짐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몸이 불편하셨지만 열이 내리니 몸이 거뜬해졌다고 하시며 우정 밝은 안색으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였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엄정한 치료대책을 세우는 한편 계속 밤잠을 미루시였다. 며

칠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우에서 맞으시는 탄생일이 왔다. 뜻깊은 4월 15일의 그 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대사관에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에서 가져오신 술로 어버이수령님께 축배잔을 드리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연회상을 둘러보시며 조국에서 생일을 맞을 때보다 더 잘 차렸다고, 이국땅이지만 조국의 산해진미가 다 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어 보기에도 시원하고 구미가 도는 평양랭면이 상에 오르자 수령님께서는 열대나라에 와서 평양랭면이 어찌된 일인가고, 누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모든 수행원들의 눈길이 **김정일**동지께 향해진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더 묻지 않으시고 외국에 와서 지성어린 생일상을 받고보니 지난날 이역땅에서 생일을 모르고 살아온 쓰라림이 가셔지는것 같다고, 평양랭면이 자신의 병세까지 말끔히 가셔주고있다고 하시며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고 거듭 뜨겁게 말씀하시였었다.…

흘러간 먼 시절의 그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시다. 또 그뒤를 이어 밀려드는 가지가지의 추억에 눈시울이 뜨거우시다.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그이이시기에 추억도 많고 아픔도 많으시다. 준전시때의 그 준엄한 나날에도 겹쌓인 피로에 눈시울이 무거워지면 창문을 열고 어머님께서 계시는 대성산 주작봉마루를 바라보시던 그이이시였다. 어머님께서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라고 하신 간곡한 당부를 생각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가다듬던 그이이시였다. 오직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쉼없이 일하며 분투하여오신 그이, 지금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드릴 크나큰 기쁨을 안고 오시였다. 미국대통령이 그이께 담보서한을 보내온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생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받으셔야 할 항복서한이 아니였던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건한 자세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신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시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듯, 《이 깊은 밤에 웬일이시오?》 하고 조용히 물으시는듯… 크나큰 아픔에 또 목이 꽉 메이신다. 지금껏 남모르게 애써 참아오신 그 모진 아픔과 슬픔이 밀물처럼 엄습해오는것을

느끼신다. 기쁨을 안고오셨지만 심중의 아픔은 가셔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이의 표정은 숭엄하시다. 새 세기의 위업을 떠메신 그이의 눈빛은 거룩하시다.

《수령님,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확신하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요!》

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멎고 하늘이 개였었다. 엄숙한 고요, 삼라만상이 숨을 죽이고있었다. 밤하늘의 수억만 별들이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